

성씨와 인물, 민속, 지명유래

제3편

1장 — 성씨와 인물

1. 성씨
2. 인물

2장 — 민속

1. 세시풍속
2. 민속놀이
3. 민간신앙
4. 민요
5. 설화 · 속담 · 수수께끼
6. 의 · 식 · 주 문화
7. 방언

3장 — 지명유래

1. 지명유래

平澤

여 백

1장 성씨의 인물

平澤



여 백

1. 동족 마을¹⁾

1) 평택의 성씨 분포

현재의 평택은 이전의 경기도 영역이었던 진위현과, 여기에 속해 있던 영신·송장을 비롯하여 충청도 영역이었던 평택현이 합쳐져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는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성씨들이 세거하였고, 어떤 성씨집단은 새로 들어와 정착한 반면, 또 다른 성씨는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없어지기도 하였다. 우선 그 분포와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진위현의 경우 고려 고종 때 이씨와 김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²⁾ 이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 이씨와 김씨가 유력한 토성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동정직(同正職)을 겸대하고 외적의 침입시 지역민들을 동원하여 맞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재지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 <표 1>을 살펴볼 때, 진위현의 경우 조선 초기에 토성(土姓)으로 이·김·최씨 3성이 존재하였으며, 속성(續姓)으로는 직산에서 온 조씨가 있었다. 또 유·송씨의 경우는 망성(亡姓)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⁴⁾ 또 토성의 경우 그 기재의 순서에 따라 이씨가 비교적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

1) 이글은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에서 그대로 옮긴 것임(틀린 부분은 수정).

2) “又有振威縣人 令同正李將大 直長同正李庫必者 乘契丹之亂 與同縣人 別將同正金禮 謀不軌(『고려사』 권 130 반역 4 韓恂)”; “庚辰八月日 振威縣造上口(戶)長軍尹李應義”(『高麗銅印』 이난영편, 『한국금석문추보』, 1986).

3) 이수건, 「고려후기 지배세력과 토성」,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984, 273쪽.

4) 『세종실록』 권 148 지리지 경기도 진위현.

[표 1 평택의 성씨분포]

지역	자료명	성씨			
振威縣	『세종실록지리지』	土姓	亡姓	續姓	
		李·金·崔	柳·宋	趙(稷山來)	
	『신증동국여지승람』	金·李·柳·崔·宋			
	『여지도서』	金·李·柳·崔·宋·吳·黃			
永新	『신증동국여지승람』	金·崔·吳·黃·李			
松庄	『세종실록지리지』	柳			
(松莊)	『신증동국여지승람』	李·柳			
平澤縣	『세종실록지리지』	土姓	亡姓	續姓	村姓
		鄭·李·方·康			尹
	『신증동국여지승람』	李·林·朴·田·孫·全·朴(村)			
	『여지도서』	李·林·朴·田·孫·全			

작되며, 그 다음을 김씨, 최씨 등이 잇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김·이·유·최·송씨가 진위현의 성씨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조선 초기에 없어진 성씨로 기재되었던 유씨와 송씨가 진위현의 성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⁵⁾, 단순히 『세종실록지리지』의 여과없는 기재인지, 아니면 유씨와 송씨 2성이 다시 진위현 지역에 들어 왔는지의 사실은 속단할 수 없다.

이러한 성씨 분포는 조선 후기에 들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기존의 5개 성씨집단에 오씨와 황씨 집단이 새로 들어와 정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또 진위현에 속해있던 송장 지역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유씨 1개 성씨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이씨가 추가되어 이·유 2개의 성씨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신 지역에는 각기 김·최·오·황·이씨 5개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다.⁷⁾

충청도에 속해 있던 평택현의 경우 조선 초기 속성이나 망성은 보이지 않으며, 토성으로 정·이·방·강 등 4개의 성씨와 촌성(村姓)인 윤씨 등 모두 5개의 성씨 집단이 거주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러한 성씨 분포는 조선 중기에 와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성씨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씨만이 남게 되고 정·방·강씨 등과 촌성인 윤씨가 사라지는 대신 임·박·전·손·전씨 등 5개의 성씨와 촌성으로서의 박씨 등 모두 6개의 성씨 집단이 새로 평택현의 유력 성씨로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0 진위.

6) 『여지도서』 경기도 진위.

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0 진위.

8) 『세종실록』 권 149 충청도 평택현.

등장하고 있다.⁹⁾ 성씨 변화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존성으로서의 박씨 집단을 제외하고는 조선 후기까지 별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조선시대 평택지역의 성씨분포는 진위현의 경우 단지 조선 중기에 오씨와 황씨 2개의 성씨 집단이 새로 들어와 정착하고 있을 뿐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평택현의 경우는 조선 초·중기 사이에 유력 성씨 집단이 모두 바뀌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2) 평택을 관적(貫籍)으로 한 성씨

평택을 관적으로 한 성씨는 이곳의 대표적인 성씨인 평택임씨를 비롯하여 5개의 성씨가 찾아진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관적하는 습성상 이들 5개 성씨가 모두 이전의 평택지역에서 유력한 세력을 떨치던 성씨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각 성씨의 시조 혹은 시조의 선조 등이 어떤 관계로든지 평택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을 관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위김씨

진위김씨의 시조는 조선 세종 때 과의교위·대호군(果毅校尉·大護軍)을 지낸 송경(昇景)으로, 그는 함경도 단천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정착하였으나 자신의 출신지인 진위를 관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현재 평택 일원에서는 진위김씨의 동족마을을 확인할 수 없고, 함경남도 단천군 수하면과 북두일면 등지에만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¹¹⁾

(2) 용성송씨

용성송씨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 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인 용성군 엄경(嚴卿)을 시조로 한다. 엄경은 고려말 양주 송산에 은거하다가 무과에 급제하여 창성부사(昌城府使) 등을 지내며 용성군에 봉해졌으나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경남 창녕 길곡면 오가리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용성을 관적으로 삼게 되었는데, 엄경의 현손 계빈(季賓) 이후 가세가 번창하여 종파(宗派)·골룡파(骨龍派)·오호파(五湖派)·

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9 평택.

10) 『여지도서』 충청도 평택.

11) 『진위김씨 족보(族譜)』.

12) 『용성송씨 세보(世譜)』.

마천파(馬川派)·광심정파(廣心亭派)·보림파(寶林派)·거창파(居昌派)·옥동파(玉洞派) 등으로 분파되었다고 한다.¹²⁾ 현재 평택 일원에는 그 후손이 거주하지 않으며, 경남 창녕군과 밀양군, 함안군 등지에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¹³⁾

(3) 진위이씨

진위이씨는 경주이씨에서 나왔다고도 하지만, 시조는 고려 때 태자태보(太子太保)를 지낸 방(方)으로 그의 5세손인 예부상서 자영(自英)이 고종 때 진위군에 봉해짐으로 인해 진위를 관적하게 되었다.¹⁴⁾ 현재 평택 일원에는 그 후손이 거주하지 않으며 장단군 일원과 충북 옥천에¹⁵⁾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4) 평택박씨

평택박씨의 시조는 신라 경명왕의 다섯째 아들인 사벌왕(沙伐王) 언창(彦昌)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자세하지 않다. 다만 조선 초기 평택현사(平澤縣事)를 지낸 지영(之永)의 아들 형조참판 산(山)이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되어 그 후손들이 선조의 임지였던 평택으로 내려와 살면서 이곳을 관적으로 삼게 되었다.¹⁶⁾ 현재 평택 일원에는 그 후손이 거주하지 않으며, 단지 함경북도 무산군 일원에 동족마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¹⁷⁾

(5) 평택임씨

임씨의 도시조(都始祖)는 당나라에서 한림학사를 지낸 팔급(八及)인데, 간신들의 참소로 동래하여 평성의 용주방(龍珠坊)에 정착함으로써 임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임씨는 관적을 삼은 지역에 따라 경주·길안·밀양·보성·부안·선산·순창·안동·예천·안의·옥구·옥야·울진·은진·이안·익산·임천·임하·장흥·전주·조양·진천 혹은 상산, 평택 등 25개 지역을 관적으로 하는 대성(大姓)으로 자리잡았다. 이중 평택임씨는 고려 말 세자전객령·연희궁부사(世子典客令·衍喜宮副使) 세춘(世春)을 시조로 삼는 전객령계(典客令系)와 역시 고려 말 벽상삼한삼중대광·태위·찬성사(壁上三韓三重大匡·太尉·贊成事)로 평성부원군(平城府

13) 경남 일대에 동족마을이 분포하는 것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자 엄경(嚴卿)이 벼슬에서 물러나 경남 창녕 길곡면 오거리에 은거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용성송씨 세보』 참조).

14) 『진위이씨 세보』

15) 옥천에 동족마을이 분포하는 것은 자영(自英)의 현손으로 조선 태종때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으로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를 지낸 형(衡)이 죽자, 그의 부인 옥천육씨(沃川陸氏)가 자녀를 데리고 옥천의 기사천(耨士川) 두릉촌(杜陵村)으로 낙향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진위이씨 세보』 참조).

16) 『평택이씨 족보』

17) 아마도 온성진관(溫城鎭管)을 지낸 인규(寅圭)가 그곳으로 이거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평택박씨 족보』 참조).

院君)에 봉해진 언수(彦脩)를 시조로 삼는 충정공계(忠貞公系)가 있다.¹⁸⁾ 현재 평택 일원에는 진위면 가곡리, 오성면 신리 등지에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남 광산과 장성 등 전국적으로 많은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3) 읍면의 동족마을¹⁹⁾

(1) 팽성읍

팽성읍에서는 모두 19개 성씨의 24개 동족마을이 조사되었다. 비교적 큰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성씨로는 부용리 경주이씨 국당공파이며, 지역적으로는 두정리(청주박씨·경주김씨 판윤공파·남원양씨 문양공파), 대사리(경주김씨 공호공파·전주이씨 덕천군파·덕수장씨 도총관파) 등에 3개 마을, 동창리(남양홍씨 문정공파),²⁰⁾ 두리(밀양박씨 밀성대군파·밀양박씨 이락당공파), 원정리(온양방씨 간의공파·강릉유씨 경력공파)



■ 덕수장씨 집성촌(팽성읍 석근리)

등에 2개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성씨별로는 덕수장씨의 경우는 석근·송화·대사리 등에 3개의 동족마을을, 경주김씨의 경우는 두정리와 대사리, 밀양박씨의 경우는 두리, 남양홍씨의 경우는 동창리 등에 각기 2개의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입향시기에 있어서는 석근리의 덕수장씨 도총관파가 조선 태조 때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서 이거하였다고 하며, 송화리와 대사리의 덕수장씨 도총관파 동족마을은 모두 석근리에서 분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전주이씨 덕천군파(대사리, 성종)²¹⁾·해주정씨 생원공파(근내리, 명종)·온양방씨 간의공파(원정리, 선조)²²⁾·경주이씨 국당공파(부용리, 선조)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착하였고, 강릉유씨 경역공파(원정리, 정조)·진주강씨 숙헌공파(남산리, 순조)²³⁾·경주김씨

18) 『평택읍씨 족보』.

19) 읍면별 동족마을의 분포는 『평택군지』(1984)와 『한국족보대전』(최실광, 1989)을 근거로, 이를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하 별도의 주는 생략한다.

20) 본정리에는 남양홍씨 문정공파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는데, 익한(翼漢)·수성·수원 등의 묘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1) 대사리에는 전주이씨 덕천군파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는데, 효숙(孝叔)을 비롯한 수기의 묘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원정리에는 조선 성종때 온양방씨가 정착하면서 이전에 있던 원정사라는 절의 이름을 따서, 혹은 물 맛이 좋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원정리'라 하였다고 하며, 350년 가람 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역시 방씨 자손들이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보리 씨앗 3말을 넣고 심었다는 구전이 전해온다(『평택군지』, 1984, 316쪽).

23) 남산리에는 진주강씨 숙헌공파 이전에 봉화정씨가 먼저 정착하였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14쪽) 봉화정씨의 동족마을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2 팽성읍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남산리	진주강씨 숙헌공파 (肅憲公派)	조선 순조		강준회 (姜俊會)			박사공파(博士公派)·소감공파(小監公派)·시중공파(侍中公派)·은열공파(殷烈公派)·인헌공파(仁憲公派)등이 시내 각처에 세거
2	두정리	청주곽씨					20	
3	대사리	경주김씨 공호공파 (共胡公派)			김익희 (金益熙)		20	
4	두정리	경주김씨 판윤공파 (判尹公派)	조선 고종		김우상 (金羽商)			
5	팽성읍 일대	진주유씨 하양공파 (河陽公派)	광해군 이후 이거			동삭동 에서 분거		
6	두리	밀양박씨 밀성대군파 (密城大君派)	조선 헌종 이후 이거			진위면 에서 분거		
7	두리	밀양박씨 이락당공파 (二樂堂公派)	조선 고종		박원용 (朴元用)	아산군 영인면 강청		
8	원정리	온양방씨 간의공파 (諫議公派)	조선 선조		방덕용 (方德龍)			팽성읍 내리·대추리·송화리·청북면 옥길리 등에도 분포
9	두정리	남원양씨 문양공파 (文陽公派)						진위·오성·고덕면 등에도 분포
10	원정리	강릉유씨 경력공파 (經歷公派)	조선 정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거	유웅기 (劉雄起)	수원 서호		병판공파(兵判公派)·좌랑공파(佐郎公派)·아림공파(猗林公派)등이 송탄, 오성면, 팽성읍 등에 분포
11	부용	경주이씨 국당공파 (菊堂公派)	조선 선조		이궤 (李軌)		60	
12	대사리	전주이씨 덕천군파 (德泉君派)	조선 성종		이효숙 (李孝叔)	한양		

번호	지역	성 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3	신호리	여흥이씨 인덕공파 (仁德公派)						
14	석근리	덕수장씨 도총관파 (都總管派①)	조선 태조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이거	장우	두문동 (張羽)	20	
15	송화리	덕수장씨 도총관파②	조선 태조 이후			팽성읍 석근리 에서 분거	30	
16	대사리	덕수장씨 도총관파③				팽성읍 석근리 에서 분거	15	
17	팽성읍	정선전씨			전병규 (全炳奎)			
18	근내리	해주정씨 생원공파 (生員公派)	조선 명종		정수 (鄭壽)	한양	120	
19	부용리 대농곡	양천허씨 상우당공파 (尙友堂公派)	조선 고종		허횡 (許橫)	안성 대덕 소동		
20	신대리	창원황씨 이산공파 (尼山公派)	조선 고종	양성현감으로 재임하다가 이거	황춘득 (黃春得)			팽성읍 · 고덕면 · 서탄면 등에도 분포
21	동창리	남양홍씨 문정공파① (文正公派)			홍신의 (洪信義)			
22	동창리	남양홍씨 문정공파②			홍성린 (洪性麟)			
23	본정리 새나리	수원백씨 죽산공파 (竹山公派)	조선 순조	동학난을 피해 이거	백동인 (白東仁)	충남 홍성 해미		
24	부용	청송심씨 안효공파 (安孝公派)	조선 고종		심정탁 (沈貞度)	충남 아산	50	

관윤공파(두정리, 고종)·청송심씨 안효공파(부용리, 고종) 등이 다음을 잇고 있다.

입향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은 4개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데, 원정리의 강릉유씨 경력공파는 천주교의 박해를, 본정리 새나리의 수원백씨 죽산공파는 동학난을 피하기 위해 팽성읍에 정착하였다고 하며, 또 신대리의 창원황씨 이산공파의 경우는 입향조가 양성현감으로 재직하다가 이곳으로 정착하였다고 한다. 특히 원정리의 온양방씨 간의공파 마을은 입향조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원균의 휘하에서 활약한 방덕용(1561~1598)임을 고려 할 때, 송탄의 원주원씨와의 인연으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 근거지로는 수원·아산·안성·해미·아산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이며 한양에서 이거한 경우도 보인다.

또 팽성읍 일대에 거주하는 진주유씨 하양공파, 두리의 밀양박씨 밀성대군파, 송화리와 대사리의 덕수장씨 도총관파 등은 각기 진위면·팽성읍 석근리에서 분거한 것이 60여 세대, 근내리 해주정씨 생원공파의 120여 세대 등이 확인되었다.²⁴⁾



* 봉화 정씨 집성촌(진위면 은산리)

(2) 진위면

진위면의 동족마을로는 12개 마을, 각성반이로 조사되었다. 이중 이른 시기에 이곳에 정착한 성씨로는 함평이씨 사재감정공파(고려말-조선초)와 단양우씨 안정공파(마산리, 태조)·봉화정씨 문헌공파(은산리, 세종) 등을 들 수 있으며, 김해김씨 안경공파(갈곶리, 선조)·문화유씨 수사공파(봉남리, 선조)·평택임씨 갈곶공파(가곶리, 인조)·밀양박씨 밀성대군파(현종)·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하북리, 순조) 등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입향 동기로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치적 이유(마산리, 단양우씨 안정공파),²⁵⁾ 병란을 피하기 위한 이거(갈곶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가곶리 평택임씨 갈곶공파), 벼슬에서의 사직(하북리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²⁶⁾ 등이 조사되었고 이전 근거지

24) 노와리는 봉씨들이 정착하여 와가(瓦家) 5채를 지음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어 '외골', '와야골', '와야동(瓦也洞)' 등으로 불렸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년, 314쪽), 현재 봉씨의 동족마을은 전하지 않는다.

25) 마산리 안말에는 단양우씨 안정공파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유(元瑜) 등 10여기의 묘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마산리 와곡(瓦谷)마을은 이씨가 많이 살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오얏골' 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나 이씨의 동족마을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내곡(內谷)마을은 순흥안씨인 안효인이 벼슬을 버리고 안성의 황새울 처가에서 은거하다가 이곳으로 정착하고 그 아들 4형제가 시묘살이를 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하나 안씨의 동족마을도 찾을 수 없다(『평택군지』, 1984, 319쪽).

26) 하북리의 광주이씨는 조선 초기에 이거하였다는 전승도 있다(『평택군지』, 1984, 322쪽).

[표 3 진위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가곡리	제주고씨 문충공파 (文忠公派)						
2	고현리	경주김씨 상촌공파 (桑村公派)	조선 순조		김선복 (金先福)	송탄 지장동에서 분거	20	
3	갈곶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安敬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 을 피해 이거	김우진 (金玉眞)	한양		
4	봉남리	문화유씨 수사공파 (水使公派)	조선 선조	입사 거부	유자 (柳滋)	한양		정재공파(貞齋公派)·최상공파(左相公派)·관사공파(判事公派)·김현성공파(檢漢城公派)·부윤공파(府尹公派)·충경공파(忠景公派)·진산군파(晉山君派)·전성군파(全城君派) 등이 전역에 분포
5	진위면	밀양박씨 밀성대군파 (密城大君派)	조선 현종		박하용 (朴夏容)			
6	진위면	이천서씨 양경공파 (良景公派)	조선 선조		서윤건 (徐胤建)			서탄면·포승면·현덕면·오성면 등에도 분포
7	마산리	단양우씨 안정공파 (安靖公派)	조선 태조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이거	우원유 (禹元瑜)	개성		
8	하북리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廣陵府院君派)	조선 순조	벼슬에서 사직	이기신 (李基臣)	한양	20	대제학공파(大提學公派)·예안군파(禮安君派) 등도 전역에 분포
9	진위면	함평이씨 사재감정공파 (司宰監正公派)	고려말 조선초		이중길 (李中吉)			포승면·현덕면 등과 합쳐 270여 세대
10	가곡리	평택임씨 갈곡공파 (葛谷公派)	조선 인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임상한 (林尙漢)			
11	은산리	봉화정씨 문헌공파 (文憲公派)	조선 세종		정장손 (鄭長孫)		100	
12	동청리	남양홍씨 문정공파 (文正公派)			홍석재 (洪錫宰)			

로는 한양이 2개 성씨(김해김씨 안경공파 ·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개성이 1개 성씨(단양우씨 안경공파), 또 송탄 지장동에서 분거한 고현리의 경주김씨 상촌공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 개국공신이자 학자인 정도전의 사당이 있는 은산리는 봉화정씨 문헌공파가⁷⁾ 약 100여 세대를 이루는 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²⁸⁾

(3) 서탄면

서탄면에서는 5개 성씨의 동족마을이 조사되었다. 이중 지역적으로는 내천리에 3개 성씨 마을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사리와 회화리에서 각기 1개 마을이 확인되었다. 입향 시기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늦은 조선 중기 이후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동김씨 충렬공파(사리, 중종)²⁹⁾ · 순창조씨 진위공파(내천리, 중종)³⁰⁾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전주이씨 의안대군파(내천리, 영조) · 밀양박씨 밀성대군파(회화리, 현종 이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 서탄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사리	안동김씨 충렬공파 (忠烈公派)	조선 중종	해주오씨와 혼인	김진 (金珍)	파주	100	포승면 · 청북면 · 고덕면 등에도 분포
2	회화리	밀양박씨 밀성대군파 (密城大君派)	조선 현종 이후			진위면에서 분거		
3	내천리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義安大君派)	조선 영조		이후석 (李後碩)	광주 돌마면 올리		오성면 금곡리 등에도 분포
4	내천리	전주최씨					20	
5	내천리	순창조씨 진위공파 (振威公派)	조선 중종		조찬규 (趙燦奎)	한양	100	

27) 은산리 기동(基洞) 마을은 산대촌(山臺村)에 처음 기틀을 세운 동리라는 뜻으로 봉화정씨가 처음 정착하였는데, 산신령이 정하문에게 현몽하여 "이 산에 머무르라"는 계시를 함으로써 마을이 생겼다고 하며, 그의 꿈속에서 뒷산이 온통 은덩이로 변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진다(『평택군지』, 1984, 319~320쪽).

28) 건산리 건산 혹은 '불외' 또는 '벌미' 마을에는 고려시대 영월엄씨와 문화유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하지만(『평택군지』, 1984, 322쪽), 확인할 수 없다.

29) 사리에는 또 600여년전에 순흥안씨와 오씨 등이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23쪽) 확인할 수 없다.

30) 순창조씨 진위공파의 이전 근거지는 파주라는 전승도 있다(『평택군지』, 1984, 324쪽).

입향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을로는 해주오씨와의 혼인으로 이거하였다는 사리의 안동김씨 충렬공파가 유일하다. 이전 근거지로는 파주·광주·한양 등 주로 인접지역으로 나타나며, 밀양박씨 밀성대군파는 진위면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밀양박씨 밀성대군파와 순창조씨 진위공파는 100여 세대 정도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다.³¹⁾

[표 5 고덕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여염리	경주김씨 부제학공파 (副提學公派)	조선 철종		김보호 (金寶豪)		20	
2	해창리	경주김씨 구령공파 (龜嶺公派)	조선 헌종 이후			송탄 장당동에서 분거		
3	궁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安敬公派)	조선 인조			진위면 갈곶리에서 분거		
4	좌교리	남평문씨 순질공파 (純質公派)	조선 숙종			울포리		송탄·오성·청북·현덕 면 등에도 분포
5	당현리	의령남씨 충경공파 (忠景公派)	조선 숙종	아버지 두정(斗 徵)의 묘를 이전 하면서 시묘를 위해 옮겨(葬家)	남명하 (南明夏)	한양	20	중앙동, 지산동, 신장동 등에도 분포
6	당현리	예산이씨 익양공파 (翼襄公派)	조선 순조		이용완 (李用完)	남양		송탄·팽성읍 등에도 분포
7	고덕면	남양홍씨 익산군파 (益山君派)			홍민섭 (洪敏燮)			
8	당현리	연주현씨 청단공파 (淸湍公派)	조선 성종		현준 (玄俊)	경남 밀양		현덕면 기산리·궁리등 에도 분포

31) 금암리 신리 마을 혹은 '새말'은 500여년전 청주한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평택군지』, 323쪽) 확인할 수 없다. 또 마우리에는 유씨와 홍씨가 처음 정착함으로써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25쪽)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다.

(4) 고덕면

고덕면에서는 6개 성씨의 7개 동족마을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당현리에 예안이씨 익양공파와 연주현씨 청단공파 등 2개 동족마을이 있고, 성씨별로는 경주김씨가 파는 달리하지만 여염리³²⁾와 해창리에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중 당현리의 연주현씨 청단공파는 조선 성종 때 이거하여 입향시기에 있어 가장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김해김씨 안경공파(궁리, 인조)·예안이씨 익양공파(좌교리, 숙종)·경주김씨 부제학공파(여염리, 철종), 예안이씨 익양공파(당현리, 순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입향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동족마을은 없었고, 단지 해창리의 경주김씨 구령공파와 궁리의 김해김씨 안경공파·좌교리의 남평문씨 순질공파 등이 이전에 평택에 이거하였던 동족마을인 송탄, 진위면 갈곶리, 청북면 등에 분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당현리의 예안이씨 익양공파는 비교적 인접지역인 남양에서 이거해 왔으나 연주현씨 청단공파의 경우는 원거리인 경남 밀양으로부터 이거하였음이 확인되었다.³³⁾

(5) 오성면

오성면에는 9개 성씨의 9개 동족마을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양교리에 상주황씨 상산공파 등 2개, 죽리에 영일정씨 판서공파, 신리에 평택임씨 갈곡공파 등 2개의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이중 입향시기가 빠른 동족마을은 임진왜란을 피해 양교리에 이거한 상주황씨 상산공파가 최고이고, 한양조씨 참판공파(죽리, 인조)·평해손씨 문정공파(숙성리 안화리, 숙종)·영일정씨 판서공파(죽리, 영조)·전주이씨 능원대군파(양교리, 순조)·평택임씨 갈곡공파(신리, 고종) 등이 다음을 잇고 있다.

[표 6 오성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창내리	경주김씨 구령공파 (龜嶺公派)	조선 순조		김교순 (金敎順)	송탄 장당동에서 분거		

32) 여염리 성두마을에는 350여년전에 광주에서 이거해 온 김씨가 정착하므로써 마을을 이루었으나, 도적의 피해가 심해 김씨와 공·봉씨가 의형제를 맺어 도적을 물리치고 거주함으로써 마을의 규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평택군지』, 1984, 330쪽).

33) 방축리 '방축안' 마을은 조선 말기에 박·이·김·황씨 등이 살았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29쪽) 확인할 수 없다.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2	교포리	달성서씨	조선 순조		서영수 (徐永脩)			창내리·당거리 등에도 분포
3	숙성리· 안화리	평해손씨 문정공파 (文貞公派)	조선 숙종		손응용 (孫應龍)	충주		포승면·현덕면·청북면·고덕면 등에도 분포
4	양교리	전주이씨 능원대군파 (陵原大君派)	조선 순조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에 반대	이용현 (李應鉉)	광주 돌마	30	한양에서 돌마로, 돌마에서 양교리로 이거
5	신리	평택임씨 갈곡공파 (葛谷公派)	조선 고종		임순근 (林淳根)	진위면 가곡리에서 분거		
6	죽리	영일정씨 판서공파 (判書公派)	조선 영조		정계한 (鄭繫翰)			
7	죽리	한양조씨 참판공파 (參判公派)	조선 인조		조택 (趙澤)	한양		
8	양교리	상주황씨 상산공파 (商山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해 이거	황휘동 (黃暉東)	용인		
9	오성면	남양홍씨 익산군파 (益山君派)			홍승기 (洪承基)		25	

입향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은 4개의 예에 불과한데, 그 중 순조 때 양교리로 이거한 전주이씨 능원대군파는 조선 후기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로 이곳에 정착하였고, 양교리의 상주황씨 상산공파 등은 피난을 위해 이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근거지로는 충북 충주, 경기 광주의 돌마, 한양, 용인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창내리의 경주김씨 구령공파·신리의 평택임씨 갈곡공파 등은 각기 송탄·진위면 일대·진위면 가곡리 등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양교리의 전주이씨 능원대군파 등은 30~40여 세대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6) 청북면

청북면에서는 12개 성씨의 18개 동족마을이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고잔리(경주김씨 공호공파·고령신씨 봉례공파·전주이씨 효령대군파·평택임씨 갈곡공

파)에 4개, 삼계리(경주김씨 공호공파·김해김씨 판도판서공파·남양홍씨 익성부원군파), 어소리(경주김씨 갈천공파·경주김씨 공호공파), 옥길리(경주김씨 공호공파·광산김씨 문원공파) 등에 2개의 동족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성씨별로는 경주김씨 공호공파가 4개 마을을 비롯하여 경주김씨가 6개 마을을 이루고 있어 유력한 성씨집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밖에 김해김씨·전주이씨가 각각 2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입향 시기는 고령신씨 봉래공파(고잔리, 선조)³⁴⁾·광산김씨 문원공파(옥길리, 효종)³⁵⁾·전주이씨 효령대군파(덕우리, 숙종)·달성서씨 도위공파(토진리, 숙종)·경주김씨 공호공파(삼계리, 헌종)·전주이씨 효령대군파(고잔리, 고종)·홍천용씨 판서공파(현곡리, 일제강점기) 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표 7 청북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 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고잔리 후평	경주김씨 공호공파① (共胡公派①)	조선 순조		김세호 (金世豪)			
2	어소리	경주김씨 공호공파②	조선 순조		김낙운 (金樂雲)		40	
3	삼계리	경주김씨 공호공파③	조선 헌종		김학구 (金學龜)			
4	옥길리	경주김씨 공호공파④	조선 철종		김봉식 (金鳳植)	삼계리에서 분거		
5	어소리	경주김씨 갈천공파 (葛川公派)	조선 순조		김문 (金棼)		40	
6	청북	경주김씨 구령공파 (龜嶺公派)	조선헌종 이후			송탄에서 분거		
7	삼계리	김해김씨 판도판서공파 (版圖判書公派)	조선 숙종		김영수 (金永壽)			

34) 고잔리 '원고잔 마을'은 속칭 '도마지'라고도 불리는데, 그 유래는 신씨 일가가 도망쳐 숨어 살았다는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신숙주(申叔舟)의 사당이 있다(『평택군지』, 1984, 337쪽).

35) 옥길리에는 광산김씨 문원공파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는데, 만근(萬謹)·무택(茂澤)·진윤(鎭嶽) 등의 묘가 있다.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8	청북면	김해김씨 석성공파 (石城公派)						
9	옥길리	광산김씨 문원공파 (文元公派)	조선 효종		김익경 (金益景)			
10	청북	남평문씨 순질공파 (純質公派)	조선 숙종		문일신 (文逸信)	고덕면 좌교리		의안공파(毅安公派)·현남공파 (獻納公派)·성숙공파(成淑公派) ·시중공파(侍中公派) 등이 평택 전역에 분포
11	토진리	달성서씨 도위공파 (都尉公派)	조선 숙종		서종흡 (徐宗翕)	한양		한산리·포승면 신영리 등에도 분포
12	고잔리	고령신씨 봉례공파 (奉禮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해 배편 으로 이거	신부 (申浮)	한양		오성면·포승면·팽성읍 등에도 분포
13	청북면	죽산안씨 죽산군파 (竹山君派)	조선 고종	광산김씨와 혼인	안철수 (安喆壽)			
14	고잔리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孝寧大君派)	조선 고종		이원우 (李元宇)	화성, 장안 어은리		
15	한산리	여흥이씨 인덕공파 (仁德公派)						
16	고잔리 중평	평택임씨 갈곡공파 (葛谷公派)	조선 인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임진목 (林鎭睦)		15	
17	삼계리	남양홍씨 익성부원군파 (益城府院君派)			홍순호 (洪淳鎬)			
18	현곡리 신포	홍천용씨 판서공파 (判書公派)	일제강점기	사음역으로 이거	용운희 (龍雲禧)	수원		

입향 동기는 병란을 피하기 위한 이거가 2건(고잔리 고령신씨 봉례공파·평택임씨 갈곡공파), 혼인을 통한 이거(죽산안씨 죽산군파), 생계를 위한 이거가 1건(현곡

리 흥천용씨 판서공파)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근거지로는 수원·용인·한양 등 인접지역이었으며, 옥길리의 경주김씨 공호공파와 청북면의 경주김씨 구령공파는 각기 삼계리와 송탄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어소리의 경주김씨 공호공

[표 8 포승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만호리	밀양박씨 밀성대군파 (密城大君派)	조선 현종 이후			진위면에서 분거		
2	석정리	반남박씨 호군공파 (護軍公派)					40	현덕면 등에도 분포
3	만호리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毅安大君派)	조선 고종		이주봉 (李周鳳)			
4	원정리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讓寧大君派)	조선 철종	자식을 얻으려면 배 를 타고 원정리로 가 서 정착하라는 조상 의 현몽에 의해 이거	이승소 (李承昭)	충남 서산		
5	석정리	원주이씨 동정공파 (同正公派)	조선 인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이징 (李徵)	한양		
6	회곡리	전의이씨 부정공파 (副正公派)	조선 선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7	만호리	용인이씨 참판공파 (參判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 해 지향인 함평 이씨와의 인연 으로 이거	이진경 (李眞卿)	용인 수지		팽성읍 등에도 분포
8	원정리	천안전씨	조선 숙종		전언업 (全彦業)			
9	내기리	수성최씨					70	
10	회곡리	상주황씨 상산공파 (商山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해 이거	황연호 (黃挺豪)			
11	신영리	남양홍씨 태사공파 (太師公派)			홍德基 (洪德基)		15	

파와 경주김씨 갈천공파, 삼계리의 남양홍씨 익성부원군파 등은 약 40여 세대에 이르는 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³⁶⁾

(7) 포승면

포승면 지역에서는 10개 성씨의 11개 동족마을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만호리와 원정리에 있는 전주이씨 동족마을을 제외하고는 10개 성씨의 각성바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만호리가 3개 동족(밀양박씨 밀성대군파·전주이씨 의안대군파·용인이씨 참판공파)으로 가장 우세하고, 석정리(반남박씨 호군공파·원주이씨 동정공파)³⁷⁾와 원정리(전주이씨 양녕대군파·천안전씨), 회곡리(전주이씨 부정공파·상주황씨 상산공파) 등이 2개 동족, 그리고 내기리(수성최씨)와³⁸⁾ 신영리(남양홍씨 태사공파) 순이다.

입향 시기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로 선조 때 정착했다는 회곡리의 전의이씨 부정공파와 만호리의 용인이씨 참판공파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이고, 원주이씨 동정공파(석정리, 인조)·천안전씨(원정리, 숙종)·전주이씨 양녕대군파(원정리, 철종)·전주이씨 의안대군파(만호리, 고종) 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입향 동기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혹은 병자호란 등 병란을 피해 정착한 것이 우세하고 자식을 얻으려면 배를 타고 원정리에 가서 정착하라는 조상의 현몽에 따라 정착한 예(전주이씨 양녕대군파)도 확인된다. 이전 근거지는 용인·한양·충남 서산 등 역시 인접지역이었고, 만호리의 밀양박씨 밀성대군파는 진위면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성씨로는 석정리 반남박씨 호군공파가 40여 세대, 내기리 수성최씨가 70여 세대 등으로 확인되었다.³⁹⁾

(8) 현덕면

현덕면에서는 13개 성씨의 15개 동족마을이 확인되었다. 성씨 분포로는 경주김씨가 장수리·운정리·대안리 등에 3개 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성바

36) 한산리는 백씨가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0쪽) 확인되지 않는다.
 37) 석정리에는 이외에 '고장말'에 장씨가 처음 정착하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평택군지』, 1984, 345쪽). 또한 '무수리'에는 1860년경 진주강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6쪽)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다.
 38) 내기리는 700여년전에 함평이씨 이중길(李中吉)이 개성으로부터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1쪽) 확인되지 않는다. 또 이촌(裡村) 마을은 이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이씨촌'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나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다.
 39) 도곡리 '당머리 마을'에는 200여년전에 경주이씨가 정착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거의 없다(『평택군지』, 1984, 341쪽). 또 '무추리' 혹은 '무수' 또는 '무수리' 마을은 조선 초기 최성운(崔聖胤)이 출사할 것도 만류하고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2쪽) 이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또 방림리에도 고려 말에 함양박씨가 정착하였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4쪽) 이것도 확인할 수 없다.

지이다. 지역적으로는 대안리가 5개 동족(곡부공씨 어촌공파·평산신씨 사간공파·청주한씨 문정공파·교동인씨 현령공파·고령김씨)으로⁴⁰⁾ 가장 우세하고, 권관리가 3개 동족(행주기씨 장령공파·전주이씨 양녕대군파·수성최씨), 운정리가 2개 동족(경주김씨 공호공파·경주김씨 갈천공파) 등이다.

입향 시기는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입향하였다는 덕목리와 대안리의 공부(?~1416)의 곡부공씨 어촌공파가 가장 이른 시기이고⁴¹⁾ 권관리의 행주기씨 장령공파가 연산군 때, 그리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권관리, 명종)·곤양배씨 곤산군파(기산리, 인조)·평산신씨 사간공파(대안리, 인조)·청주한씨 문정공파(대안리, 숙종)·교동인씨 현령공파(대안리, 숙종)⁴²⁾·동래정씨 창원공파(황산리, 경종), 경

[표 9 현덕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덕목리· 대안리	곡부공씨 어촌공파 (漁村公派)	고려말	고려 멸망	공부 (孔俯)	개성	대안리 ²⁰ 덕목리 ⁸⁰	광덕산에 선영 조성, 심복사를 재궁 사찰로 이용
2	권관리 당령마을	행주기씨 장령공파 (掌令公派)	연산군	기묘사화로 인해 이거	기대정 (奇大鼎)	한양		
3	장수리	경주김씨 판사공파 (判事公派)	조선 현종		김규희 (金奎熙)		20	
4	운정리 구역촌	경주김씨 공호공파 (共胡公派)	조선 영조		김만중 (金萬重)		40	
5	운정리 구역촌	광주김씨 갈천공파 (葛川公派)	조선순조 이후			청북면 어소에서 분거		

40) 대안리 '샘골' 혹은 '아래샘골'에는 처음 소씨가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며, 그 후 공·이·홍씨 등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평택군지』, 1984, 350쪽).

41) 마을의 전승에 따르면 공부(孔俯)가 덕목리에 입향한 시기는 고려 멸망에 반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공부는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여 전의부령(典儀副令)·예조총랑(禮曹總郎) 등을 지내고 조선에 들어와서도 태종때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總制)·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등을 지내고, 태종 8년(1408) 이후에는 서장관으로 6차례나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조선 조정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입향동기가 전승과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곡부공씨의 덕목리 입향 시기가 고려말이 아니라 조선 초기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한편 '덕목리'라는 마을의 유래는 공부가 주장한 덕행과 화목을 거울삼는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평택군지』, 1984, 349쪽).

42) 대안리 '신왕 마을'은 900여년전에 구씨가 처음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50쪽) 확인할 수 없다.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6	기산리	곤양배씨 곤산군파 (昆山君派)	조선 인조		배명삼 (裊命三)	한양		
7	대안리	광주김씨 갈천공파 (葛川公派)	조선 인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김신감 (金申鑑)	낙생 판교리	110	한성부윤공파(漢城府尹公派)·대 제학공파(大提學公派)·온수감역 공파(溫水監役公派)·문회공파(文 僞公派) 등도 평택 전역에 분포
8	권관리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讓寧大君派)	조선 명종	청송심씨와 혼인	이응기 (李應麒)	시흥	100	
9	황산리	동래정씨 창원공파 (昌原公派)	조선 경종	외가 전주이 씨 영응대군 파(永應大君 派)와의 인연		한양		
10	덕목리	풍양조씨 회양공파 (淮陽公派)	조선 인조		조세강·세건 (趙世綱·世堅)	김포		
11	도대리· 권관리	수성최씨					30	
12	대안리 학진동	청주한씨 문정공파 (文靖公派)	조선 숙종		한병 (韓併)	광주 돌마면 울리	60	포승면에도 분포
13	현덕면	남양홍씨 익산군파 (益山君派)				홍재용 (洪在龍)	25	
14	대안리 신왕 구진	교동인씨 현령공파 (縣令公派)	조선 숙종		인홍계 (印弘契)	충남 당진 오천 죽동		팽성읍·진위면 등에도 분포
15	대안리	고성김씨					30	
16	덕목리	여양진씨	조선 효종	낙향	진즙(陳緝)		30	

주김씨 공호공파(운정리, 영조)·경주김씨 판사공파(장수리, 헌종) 등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입향 동기에 있어서는 고려 멸망이나 기묘사화로 인한 정치적인 이유(덕목리 곡부공씨 어촌공파·권관리 행주기씨 장령공파)가 2건이고⁴⁵⁾ 병란을 피한 이거(대안리 평산신씨 사간공파), 혼인으로 인한 이거(권관리 전주이씨 양령대군파), 외가와 의 인연(황산리 동래정씨 창원공파) 등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전 근거지로는

한양·광주·시흥·김포·충남 당진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운정리 구역촌의 경주김씨 갈천공파의 경우는 청북면 어소리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이 20~40여 세대 규모의 동족 마을이지만, 대안리의 경주김씨 갈천공파와 권관리의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등과 같이 100여 세대가 넘는 규모도 있다.⁴⁴⁾

(9) 안중면

안중면에는 11개 성씨의 12개 마을이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대반리에 김해김씨 판도판서공파 등 4개, 학현리⁴⁵⁾에 경주김씨 공절공파 등 2개, 금곡리에 전의이씨 예장공파 등 2개, 덕우리(순천박씨·고령박씨 감사공파·전주이씨 효령대군파)

[표 10 안중면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학현리	경주김씨 공절공파 (共節公派)	조선 현종		김정량 (金鼎亮)		20	
2	대반리	김해김씨 판도판서공파 (版圖判書公派)	조선숙종 이후		김희원 (金熙元)	청북면 삼계리에서 분거		
3	대반리	밀양박씨 밀성군파 (密城君派)	조선현종 이후			진위면에서 분거		
4	학현리	전주이씨 안풍대군파 (安豐大君派)	조선 말기		이호섭 (李鎬燮)	충북 진천		
5	삼정리	단양장씨					15	
6	금곡리	전의이씨 예장공파 (禮長公派)	조선 효종	난을 피해 이거	이극모 (李克謀)			

43) 특히 권관리 당령마을 행주기씨 장령공파의 입향조는 기대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1573년(선조 6) 강릉 참봉, 1579년 지평(持平)을 거쳐 1583년 장령(掌令)을 제수받았으며, 태조의 정비 신덕왕후의 태배묘향(太配廟享)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마땅히 부모(附廟)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사(兩司)가 건각치제(建閣致祭)만을 청하는 것을 논박하여 타인의 이목이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명분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 하였다는 칭송을 들었다(『선조실록(宣祖實錄)』, 『행주기씨족보』 참조).

44) 화양리 '행궁이 마을'은 조선시대 평창이씨가 낙향하여 살았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48쪽), 확인할 수 없다.

45) 학현리 '원학현 마을'에는 성씨가 최초로 정착하였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34쪽),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번호	지역	성 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7	금곡리 송두동	신창표씨 가우공파 (可牛公派)	조선 순조		표수 (表壽)			청북면·진위면·팽성읍 에도 분포
8	대반리	경주정씨					40	안중리 등에도 분거
9	대반리	충주지씨 참의공파 (參議公派)	조선 인조	벼슬을 사양	지응곤 (池應鵬)	한양		
10	덕우리	순천박씨					15	
11	덕우리	고령박씨 감사공파 (監司公派)	조선 세종		박사란 (朴思爛)		15	
12	덕우리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조선 숙종	평창이씨 와의 혼인	이보령 (李寶齡)		김포	서탄면 사리·수월암리·송탄 가 개동, 금곡리 등에도 분포
13	학현리	전주이씨 충의공파	조선 세조	사육신의 난을 피해 온거	김옥한 (金頊漢)	이보령		김포

등에 3개 등이 있었다 입향순서는 덕우리의 고령박씨 감사공파가 세종 때 정착하여 가장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충주지씨 참의공파(대반리, 인조), 전주의씨 예장공파(금곡리, 효종),⁴⁶⁾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덕우리, 숙종), 신창표씨 가우공파(금곡리, 순조) 등의 순이었다.

입향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3개로 금곡리의 전의 이씨 예장공파가 난을 피해 이거했으며, 충주지씨는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덕우리의 전주이씨는 평창이씨와 혼인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대반리와 금곡리의 신창표씨가 비교적 큰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10) 옛 송탄시 지역

송탄에서는 16개 성씨의 19개 동족 마을이 조사되었다. 이중 지장동의 경주김씨, 모곡동과 칠원동의 전주이씨를 제외한 14개의 마을은 각성마지로 확인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지산동(광산김씨 문원공파·청풍김씨·남양홍씨)과 도일동(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여흥이씨 인덕공파·진주소씨 판도공파)이 3개 동족으로 가장 많고, 독곡동(전의이씨 문의공파·수성최씨 안양공파)이 2개 동족이며, 나머지는 1개 마을에 1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6) 금곡리에는 함봉산 아래에 조씨의 동족마을이 있었다고 하나(『평택군지』, 1984, 333쪽), 확인할 수 없다.



* 원주원씨 집성촌(도일동)

입향시기는 도일동의 진주소씨 판도공파가 고려 충숙왕 때로 평택임씨를 제외하고는 송탄 뿐만 아니라 평택 일원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나타나고, 연안차씨(장안동, 조선 태조)⁴⁷⁾·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도일동, 조선 태조)⁴⁸⁾·전주이씨 수도군파(모곡동, 세종)·수성최씨 안양공파(독곡동, 세조)⁴⁹⁾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거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의이씨 문의공파(독곡동, 선조)·청주한씨 양절공파(칠괴동, 선

[표 11 옛 송탄시 지역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송탄 일대	제주고씨 양경공파 (良景公派)	고려 멸망					광덕산에 선영 조성, 심복사를 재공사찰로 이용
2	송탄	경주김씨 구령공파 (龜嶺公派)	조선 헌종	기묘사화로 인해 이거	김국신 (金國臣)		20	
3	서정동 (지장마을)	경주김씨 상촌공파 (桑村公派)	조선 순조		김흥호 (金興鎬)		30	
4	지산동	광산김씨 문원공파 (文元公派)	조선 효종 이후					
5	지산동	청풍김씨				청북면 어소리에서 분거	25	
6	서정동	순창왕씨					10	

- 47) 차원부(車元頽)의 묘는 실전되었다가 망우리에서 찾아 1972년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48) 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의 경우 도일동 내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경기도기념물 제57호로 지정되어 있는 원군묘를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준량(俊良), 국량(國良)·지(遲)·임(任) 등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고, 갯골을 중심으로 몽(蒙)·연(堦)·사립(土立)·전(塹)·길상(吉常) 등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49) 수성최씨 안양공파의 경우도 도일동에 최희효(崔希孝)·진운(振雲)·형록(亨祿)·경(溍) 등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고, 가재동에는 윤종(潤宗)·언호(彦浩) 등의 묘가 있다.
 50) 지산동 소골에는 광산김씨 문원공파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는데, 김세한(金世澣), 광성(光成), 구(丘) 등의 묘가 있다. 한편 동막마을에는 예전에 경주이씨·김해김씨·한양조씨 등이 세거하였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한다(『평택군지』, 1984, 321쪽)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7	도일동	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 (三司左尹公派)	조선 태조		원호 (元豪)	양주송산	80	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三司左尹公派) 입향시기가 조선 태조 때이고, 입향조는 선조 때의 무신인 원호로 조사되어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입향조가 사실과 다르게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모곡동	전주이씨 수도군파 (守道君派)	조선 세종		이윤 (李倫)	한양	100	
9	칠원동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廣平大君派)	조선 인조		이석신 (李碩臣)	한양		
10	장당동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廣陵府院君派)	조선 순조 이후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진위면 하북리에서 분거		진위면 등에도 분포
11	도일동	여흥이씨 인덕공파 (仁德公派)						
12	독곡동	전의이씨 문의공파 (文毅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해 이거	이여빈 (李汝彬)	한양		
13	장안동	연안차씨	조선 태조	조선 건국 에 반대(?)	차원부 (車元類)	한양		차원부의 묘는 망우리에 있던 것을 최근에 이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입향시기와 입향조가 잘못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4	독곡동	수성최씨 안양공파 (安襄公派)	조선 세조		최경 (崔涇)		60	
15	가재동	해주최씨 감찰공파 (監察公派)	조선 고종	처가 수성최씨와 인연	최영호 (崔永鎬)	용인 고삼면		
16	칠괴동	청주한씨 양절공파 (襄節公派)	조선 선조	임진왜란을 피 해 외가 전주소 씨와의 인연으 로 이거	한군집 (韓君集)	화성 양감면		
17	지산동	남양홍씨					35	
18	도일동	진주소씨 판도공파 (版圖公派)	고려 충숙왕		소을경 (蘇乙卿)	개경		
19	지산동	전주임씨 익양공파 (益陽攻破)					30	

조)·전주이씨 광평대군파(칠원동, 인조)·광산김씨 문원공파(지산동, 효종)⁵⁰⁾·해주최씨 감찰공파(가재동, 고종)⁵¹⁾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입향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성씨 마을은 6개에 불과한데,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치적 이유가 장안동의 연안차씨와 도일동의 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 등 2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병란을 피해 이거한 경우가 독곡동 전의이씨 문의공파·칠원동 전주이씨 광평대군파·칠괴동 청주한씨 양절공파 등 3건, 혼인에 의한 이거가 가재동 해주최씨 감찰공파 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전 근거지는 한양·용인·화성·개경 등 인접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산동의 광산김씨 문원공파와⁵¹⁾ 장당동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는 이전에 세거하고 있던 청북면 옥길리와 진위면 하북리에서 분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개 20~40여 세대 규모의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으나 도일동의 원주원씨 삼사좌윤공파와 모곡동의 전주이씨 수도군파 등 80~100여 세대의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11) 옛 평택시 지역

평택시내에는 27개 성씨에 36개 동족마을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평택시 전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이다. 이중 제주고씨의 경우는 5개파가 각기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고, 광주안씨·해주오씨·경주이씨 등이 2개마을을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개 성씨가 1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비전동이 8개 동족(강릉김씨 지산군파·죽산안씨 죽산군파·광주안씨 감찰공파·해주오씨 백천당공파·양성이씨 상서공파·창녕조씨 승지공파·남양홍씨 남양공파·안동권씨 추밀공파)으로 가장 우세를 보이고 있고, 동삭동이 6개 동족(경주김씨 공호공파·남원양씨 장영공파·삭녕최씨 교도공파·교하노씨 창성군파·진주소씨 판도공파·진주유씨)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세교동이 3개 동족(여흥민씨 유수공장파·경주이씨 국당공파·금녕김씨 백촌공파), 통북동(기계유씨 단성공파·경주이씨 익재공파)이 2개 동족 등으로 확인되었다.

입향 시기에 있어서는 세종 때 정착한 것으로 조사된 비전동의 양성이씨 상서공파,⁵³⁾ 안동권씨 추밀공파와 동삭동 영신마을의 삭녕최씨 교도공파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로 조사되었으며, 금녕김씨 백촌공파(세교동 은실마을, 현중)·진주유씨 하

51) 풍양조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평택군지』, 1984, 311쪽)고 하나 풍양조씨의 동족마을은 확인하지 못했다.

52) 광주김씨 문원공파의 정착은 진주소씨 판도공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후 이루어졌다(『평택군지』, 1984, 312쪽)고 한다.

53) 비전동 덕동산에는 양성이씨 상서공파인 연(璣)·말봉(末奉)·수춘(秀春)·실(實)·윤의(允義) 등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표 12 옛 평택시 지역 동족마을 분포]

번호	지역	성 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	시내일원	제주고씨 문충공파 (文忠公派)						
2	"	제주고씨 장흥백파 (長興伯派)						
3	"	제주고씨 영곡공파 (靈谷公派)						오성면·팽성읍 등에도 분포
4	"	제주고씨 전서공파 (典書公派)						
5	"	제주고씨 상당공파 (上黨公派)						
6	동삭동	경주김씨 공호공파 (共胡公派)	조선 순조		김낙순 (金樂洵)		15	
7	세교동 은실마을	금녕김씨 백촌공파 (白村公派)	조선 현종		김전규 (金典奎)			오성·고덕면 일원에도 분거
8	비전동	강릉김씨 지산군파 (支山君派)			김남익·남용 (金南益)(南用)			팽성읍 송화·안정·두정리 일대에도 분거
9	동삭동	진주유씨 하양공파 (河陽公派)	조선 광해군		유팔원 (柳八元)	안성 대 덕면 진 현리		
10	세교동	여흥민씨 유수공장파 (留守公長派)	조선 숙종	자식을 얻으려면 바다와 포구가 보이는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조상으로부터의 계시	민영노 (閔英魯)	한양		
11	동삭동	진주소씨	조선 철종				15	
12	통북동 (교평)	밀양손씨 소경공파 (少卿公派)	조선 순종		손영래 (孫榮來)	충남 아산 탕정면		팽성읍에도 분거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13	비전동 상신작로	죽산안씨 죽산군파 (竹山君派)	조선 숙종	이전근거지 가 산이 많아 불편함으로 이거	안철수 (安喆壽)	용성현		오성면 안화리·진위면 은산리에도 분포
14	비전동	광주안씨 감찰공파 (監察公派)	1910년대		안이중 (安履重)	광주 중대리 덕곡		
15	시내 일원	광주안씨 사당공파 (舍堂公派)	조선 순조		안효훈 (安孝訓)	충남 아산		
16	동삭동	남원양씨 장영공파 (章榮公派)	조선 고종	진주유씨 와의 혼인 으로 이거	양해성 (梁海成)	충북 직산		충북 충주 신평 백룡에 서 직산으로, 직산에서 다시 이곳으로 이거
17	비전동	해주오씨 백천당공파 (百千堂公派)	조선 정조	방앗 간을 운영 하기 위해 이거	오기선 (吳起善)	양성현 덕봉		
18	시내	해주오씨 정무공파 (貞武公派)	조선 정조		오치풍 (吳致豐)			참의공파(參議公派)·백봉 공파(栢峰公派)·농재공파 (農齋公派) 등도 분포
19	지제동 울성마을	파평윤씨 대언공파 (代言公派)	조선 정조	진주이씨 윤 천군파(雲川 君派)와 혼 인으로 이거	윤호 (尹昊)	한양		소정공파(昭靖公派)·판도공 파(版圖公派)·남원공파(南原 公派) 등도 전지역에 분포
20	통북동	기계유씨 단성공파 (丹城公派)	일제강점기	한약방을 경영 하기 위해 이거	유형목 (兪亨穆)	안성		포승면 신영리·고덕면 동고리에도 분포
21	세교동	경주이씨 국당공파 (菊堂公派)	광복 전후		이상신 (李相信)	충남 공주 이인면		
22	통북동	경주이씨 익재공파 (益齋公派)	6·25전쟁		이봉양 (李奉兩)	충북 음성		평리공파(評理公派)·상 서공파(尙書公派) 등도 전역에 분포
23	지제동 울성마을	전주이씨 운천공파 (雲川公派)	조선 숙종		이비 (李備)	한양	50	송탄지역에도 분포
24	비전동	양성이씨 상서공파 (尙書公派)	조선 세종	벼슬에서 물러나 이거	이말봉 (李末奉)	한양		

번호	지역	성씨	입향시기	입향동기	입향조	이전근거지	세대	비고
25	시내	아산이씨					15	
26	시내	완산전씨			전봉화 (全鳳和)			
27	시내	평강전씨						송탄에도 분포
28	비전동	창녕조씨 승지공파 (承旨公派)	일제강점기		조병덕 (曹秉德)	충남 아산 탕정면 여사리		
29	동작동 영신	삭녕최씨 교도공파 (教導公派)	조선 세종	용인교도로 계수되어 이거	최경부 (崔景簿)			송탄·팽성읍·청북·고 덕면 등에도 분포
30	비전동	남양홍씨 남양공파 (南陽公派)	1950년대	한광학원의 설립을 계기	홍성영 (洪性英)			
31	용이동 (현촌)	연주현씨 판관공파 (判官公派)	조선 인조	병자호란을 피해 이거	현검 (玄儉)	한양		
32	동작동	교하노씨 창성군파 (昌城君派)	조선 숙종	간신배에게 몰려 이거	노덕수 (盧德秀)	한양	50	
33	동작동	진주소씨 판도군파 (版圖君派)	조선 세종					
34	비전동	안동권씨 추밀공파 (樞密公派)		양성현 원당 으로 낙향으 로 인해 이거				진위·송탄 등에도 분포
35	시내	선산김씨						
36	시내	창영김씨						

양공파(동작동, 광해군)·광주안씨 감찰공파(비전동, 숙종)·전주이씨 운천군파(지제동 울성마을, 숙종)·파평윤씨 대신공파(지제동 울성마을, 정조)·밀양손씨 소경공파(통북동, 철종)·해주오씨 백천공파(비전동, 고종)·기계유씨 단성공파(통북동, 일제강점기)·경주이씨 익재공파(통북동, 한국전쟁) 등 조선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입향 동기는 조선시대의 경우 혼인과 병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많았고, 후대에 올수록 생계를 위한 이주가 많았다. 또 세교동의 여흥민씨 우수공장파의 경우는 자

식을 얻기 위한 이거를 하였다. 이전의 근거지로는 안성·광주·아산·양성·음성 등 주로 인근 지역이었으며 한양에서 퇴거한 경우도 동삭리의 교하노씨 창성군파 등 6개 성씨마을이 조사되었다. 또 전주이씨 운천군파의 지제동 울성마을, 교하노씨 창성군파의 동삭리 등은 50여 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큰 마을로 조사되었으며, 연주현씨 판관공파가 마을을 이룬 현촌(玄村)의 경우는 성씨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대표될 정도로 유력한 세력을 떨치던 반촌(班村)이기도 하였다.⁵⁴⁾

4) 종합적 검토

이번 조사에서 평택시는 약 140여 개 성씨의 170여 개 동족마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전체를 망라한 것이 아니라 이 보다는 더 많은 수의 동족마을이 평택시내 전역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평택시 전역의 동족마을의 개략을 살펴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입향 시기에 있어서는 송탄 도일동의 진주소씨 판도공파가 고려 충숙왕 때 입향한 것으로 조사되어 확인할 수 있는 동족마을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조선시대 전 기간을 걸쳐 각 성씨들이 입향해 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중에도 많은 성씨들이 평택으로 이거하여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평택을 관적으로 하는 성씨 중에는 평택입씨가 유일하게 진위면 가곡리·오성면 신리·청북면 고잔리 등의 지역에서 동족마을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었다.

입향 동기는 자손을 얻기 위한 이거,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이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이거 등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피난을 목적으로 한 이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을 통한 이거가 8건, 사화 등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인한 이거가 7건, 관직에서 퇴직으로 인한 이거도 7건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전 근거지로는 한양이 23건으로 단연 우세하고, 광주와 용인·아산이 각 5건, 개성·안성이 3건, 화성·김포·수원 등이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송탄·팽성·진위·청북 등 평택시의 한 지역에서 인근 다른 지역으로 분거한 경우도 20건이 확인되었다. 이들을 보면 대개가 인근 지역에서의 이주였으며, 가장 먼 지역은 경남 밀양에서 고덕면 당현리에 정착한 연주현씨 청단공파이었다. 세대수의 규모

54) 한편 합정 2리에는 조씨의 동족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조가대(趙家垓)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나 (『평택군지』, 1984, 307쪽) 동족마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표 13 평택시의 동족마을 현황]

번호	지역명	마을수	성씨수	유력 성씨
계		167	139	
1	평택시내	36	29	제주고씨 · 경주이씨 · 해주오씨 · 광주안씨
2	팽성읍	24	19	경주김씨 · 밀양박씨 · 덕수장씨 · 남양홍씨
3	진위면	12	12	봉화정씨
4	서탄면	5	5	안동김씨 · 순창조씨
5	고덕면	7	6	경주김씨
6	오성면	18	16	경주김씨 · 전주이씨
7	청북면	21	14	경주김씨 · 전주이씨
8	포승면	11	10	전주이씨
9	현덕면	15	12	경주김씨
10	송탄	18	16	경주김씨 · 전주이씨

는 10~30여 세대가 24건, 30~60여 세대가 14건, 60~90여 세대가 3건으로 조사되었고, 100여 세대가 넘는 큰 규모의 동족마을도 7건이나 되었다.

금번 조사는 평택시 전역의 동족마을의 현황 <표 13>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 마을을 선정하여 그곳의 인구구성비율, 전입과 전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을의 조직과 마을구조, 통혼권, 재산의 상속, 동족마을에서 내려오는 습속 및 전승, 주거환경, 제사나 시향, 경제구조 등에 관한 현황을 언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자랑스러운 향토가문 현황

평택시에서는 자자손손 대를 이어 우리 고장에 터전을 두고 살아 온 가문들을 발굴하여, 전통계승에 따른 '내 고장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나아가 문화 및 역사적 자료와 시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향토가문을 발굴하고 있다.

향토가문의 선정은 평택시에 10대 이상 거주해 온 집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1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20대 이상 1가문, 15대 이상 21가문, 10대 이상 25가문 모두 47가문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평택시의 향토가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가문별 인적사항]

구분	성명(본관)	거주대수	주소	거주 사항 요약
평 성 읍	정기풍 (해주정씨 참봉공파)	16	근내리	시조 鄭肅. 11세손 담수가 이곳 팽성 근내리에 낙향하여 정착한 후 24세손(기풍), 25세손(영현), 26세손(제원) 등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
	방세용 (온양방씨 연의공파)	16	원정리	충남 溫陽이 주요 거주지이지만 약 350년 전부터 팽성, 원정, 본정 등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 50세손 세용 등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
	백무현 (수원백씨 문경공파)	12	본정리	230여 년 전 22세손 尙璉부터 팽성에 정착하여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32세손 무현이 맥을 잇고 있음.
	박상열 (순천박씨 춘종공파)	12	석근리	시조 박영규. 270여 년 전 17세손 '시'가 낙향하여 석근리에 정착한 후, 28세손 상열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장경현 (덕수장씨 참판공파)	26	석근리	시조 張舜龍은 아랍계 사람으로 고려 충렬왕 때 고려에 들어와 덕수현에 거주하다가 35대부터 이곳 석근리에서 약 600여 년간 대를 이어오고 있음.
	안광희 (순흥안씨 소윤공파)	11	두정리	시조 安子美. 22세손 安擇이 팽성 두정리에 정착하여 250여 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33세손 光熙가 맥을 이어오고 있음.
	강종구 (진주강씨 통정공파)	12	남산리	진주강씨 18세손 浩溥, 渭溥 두 형제가 이곳 팽성 남산리에 낙향하여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룬 후, 28세손 宗求 등이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

구분	성명(본관)	거주대수	주소	거주 사항 요약
비 전 1 동	조필행 (한양조씨 가산공파)	17	월곡동	400여 년 전 한풍군과 大業이 이곳으로 낙향하여 정착한 후, 弼行 등이 15대 동안 전통의 맥을 이어오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음.
	허 봉 (양천허씨 문정공파)	16	죽백동	300여 년 전 병참공파손 璫이 죽백동에 입향한 후, 封 등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거주하고 있음.
	장성식 (단양장씨 청계공파)	10	청룡동	단양장씨 시조 정필의 26세손 河潤이 이곳에 정착한 후, 현재 成植 등이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
비전 2동	현종욱 (연주현씨 소위장군공파)	14	용이동	469년 전 연주 현씨 13세손 현걸이 이곳 현촌에 낙향하여 14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26세손 種旭 등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세 교 동	소병욱 (진주소씨 남강공파)	19	동삭동	약 400년 전에 振威(현 평택)에서 정착하여 이곳 동삭동에 집성촌을 이루어 46대 秉旭이 대를 이어오고 있음.
	유해민 (진주유씨 하양공파)	16	동삭동 547	진주유씨 八元이 이곳 동삭리에 정착한 후 45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면서, 海敏 등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차소녕 (연안차씨 문절공파)	14	지제동 319-3	연안차씨 淑昌이 지제리에 낙향하여 정착한 후 400여 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昭寧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이흥구 (전주이씨 운천공파)	13	지제동 704	전주이씨 光原君이 자녀들과 함께 지제리에 정착한 후 현재 洪九 등이 13대째 거주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음.
	우기명 (단양우씨 안정공파)	13	지제동 378	300여 년 전에 禮舜이 이곳 지제리에 입향하여 정착한 후 집성촌을 이루어, 27세손 基明이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
	이명규 (용인이씨 참판공파)	13	지제동 379-1	용인이씨 참판공파 25세손 友松이 지제리에 정착한 후 전통을 이어오면서 36세손 明圭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진 위 면	우제구 (단양우씨 안정공파)	19	은산리	약 500여 년 전부터 12세손 元瑜가 진위에 입향하여 현재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30세손 濟九가 가문을 지켜오고 있음.
	권병국 (안동권씨 추밀공파)	17	가곡리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약 40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여 36세손까지 집성촌을 이루면서 赫柱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구분	성명(본관)	거주대수	주소	거주 사항 요약
진 위 면	양이석 (남원양씨 사지공파)	15	가곡리	남원양씨 사지공파 16세손 允平이 이곳에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면서, 30세손 二錫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안치균 (순흥안씨 참판공파)	14	마산리	16대손 孝仁이 진위면에 입향하여 정착하여 그의 4아들들도 마산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오면서 29세손 致均 등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
	정병훈 (봉화정씨 용인공파)	13	은산리	봉화정씨가 진위에 입향한 것은 약 280년 전이고, 은산리 일대에 동쪽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20세손 栢勳이 가문을 지키고 있음.
서 탄 면	한광희 (청주한씨 양절공파)	15	금암리	청주한씨가 금암신리에 정착한 연대가 약 1580년경이며, 이후 400여 년간 33세손 光熙 등, 15대가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조용학 (순창조씨 서산공파)	15	내천리	순창조씨 대종가로서 13세손 승기공 一韓이 병자호란 때 한성에서 이곳 내천리로 이주해온 이래 30세손 鏞學 등이 350년간 살아 옴.
고 덕 면	천기필 (영양천씨 정랑공파)	12	당현리	1760년경 영양천씨 6세손인 甲龍이 당현리에 정착. 17세손 成一이 12대째 가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15개 정도의 가구가 거주함.
	현진기 (연주현씨 평장사공파)	10	당현리	1780년경 연주현씨 17세손인 韓信이 당현리에 정착. 26세손 秀晶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내 60여 가구가 거주함.
	양희창 (남원양씨 주부공파)	10	비전2동	1750년경 남원양씨 25세손인 種堦이 울포리에 정착. 34세손 贊奎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내 80여 가구가 거주함.
	문제수 (남평문씨 순질공파)	14	좌교리	1650년경 남평문씨 35세손인 萬英이 좌교리에 정착. 현재 고덕면에 75여 가구가 거주하며 매년 시향제를 지냄.
송 탄 동	원행의 (원주원씨 원성백파)	18	도일동	약 570년 전 16세손 元蒙이 도일동에 정착. 후손인 行義(32세손), 永載(34세손)등이 가문을 이어왔으며, 선무일등공신인 원균 장군이 이곳 출신임.
	이승학 (전주이씨 수도군파)	16	모곡동	480년 전 전주이씨 李憲邦이 모곡동에 정착 집성촌을 형성한 이후 후손인 承鶴(14세손), 長秀(15세손), 炳勳(16세손)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최증국 (수성최씨 가산공파)	16	가재동	470년 전 수성최씨 6세손 有容이 가재동에 정착한 후, 후손인 重國(21세), 韓赫(22세) 등이 가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1987년도에 송탄동사무소 부지를 기증하기도 함.

구분	성명(본관)	거주대수	주소	거주 사항 요약
송 탄 동	차득환 (연안차씨 문절공파)	15	장안동	450년 전 연안차씨 應勳이 장안동에 정착. 후손인 得煥(13세손), 道秉(14세손), 亨根(15세손) 등이 장안마을에서 가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시향제를 지냄
	한갑수 (청주한씨 양절공파)	13	칠괴동	390년 전 청주한씨 韓璉이 칠괴리에 정착. 후손인 甲洙(12세손), 相然(13세손) 등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중 양 동	이장우 (경주이씨 국당공파)	11	장당동	派 始祖 '매'. 약 250년 전부터 송탄에서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39세손 璋雨 등이 맥을 이어 오고 있음.
송 북 동	최원우 (수성최씨 안양공파)	16	독곡동	고려 충렬왕 때 공훈으로 최씨 성을 받아 조선 중종 9년에 이곳 독곡동으로 입향하여 25세손 原佑 등이 터를 잡고 전통을 이어 오고 있음.
오 성 면	조성구 (한양조씨 목사공파)	17	죽3리	13세손 珍이 派 始祖이며, 15세손 澤부터 오성 죽리에 정착한 후 집성촌을 이루면서 31세손까지 60호의 가문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
	최원용 (수성최씨 찬성공파)	14	양교6리	선조 때 12세손 天衢가 이곳으로 입향하여 정착한 후 집성촌을 이루면서, 24세손 元容, 25대 건원 등이 가문의 맥을 이어 오고 있음.
	정연도 (연일정씨 판서공파)	12	양교3리	시조 정종은이며, 11세손 寅寶가 오성에 정착한 후, 然度까지 12대가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정민호 (나주정씨 수사공파)	10	숙성2리	조선 숙종 때 22세손 光奭이 입향하여 정착한 후, 敏浩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포 승 면	최중안 (수성최씨 수사공파)	12	석정리	400년 전 수성최씨 彥湜이 석정리에 정착한 후, 후손인 鳳巒(15세손), 重安(16세손), 光鎔 등이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현 덕 면	공윤열 (곡부공씨 어촌공파)	25	인중면 현화리	고려 공민왕 때 공자의 54세손인 紹字가 광덕으로 낙향하여 정착한 문중으로 현재 78세손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맥을 이어오며, 윤열 등이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음
	진정하 (여양진씨 시중공파)	10	덕목리	시조 寵厚. 16세손인 厚平이 낙향하여 이곳에서 정착한 후 24세손 鼎夏, 26세손 英培 등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구분	성명(본관)	거주대수	주소	거주 사항 요약
청 북 면	신필호 (고령신씨 삼괴당공파)	17	청북면 후사리	420여 년 전 문충공 5세손 樽이 낙향하여 정착하면서 집성촌을 이룬 후, 彌浩 등이 17대 동안 가문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
안 중 면	박우덕 (고령박씨 감사공파)	15	덕우리	19세손 命俊이 이곳 덕우리에 낙향한 후, 280여 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32세손 遇德, 34세손 炳錫 등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
	정명래 (경주정씨 추만공파)	14	안중리	파 시조 之雲. 55세손 齋俊이 안중에 낙향하여 정착하면서 집성촌을 이룬 뒤, 68세손까지 가문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
	이병윤 (평창이씨 익평공파)	12	현화리	효종 때인 300여 년 전에 19세손 李燾이 안중에서 정착한 후, 30세손까지 가문을 이어오고 있음.
	김태규 (김녕김씨 우제공파)	17	비전2동	513년 전 충의공파 우제공 頊漢이 안중면에 입향하여 정착한 후, 泰圭 등이 17대동안 가문의 맥을 이어오며, 32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음.

1. 개설

우리 고장 평택의 고려와 조선에서 현대 이전까지의 인물들을 살펴 보면, 충의(忠義)로 용솨음친 걸출한 명장(名將)들과 한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정치 사상가, 예술가들을 배출한 충절(忠節)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늘도 감동한 송죽(松竹)같이 굳은 정절(貞節)을 지닌 효자(孝子), 효부(孝婦), 열녀(烈女)들의 심성은 오늘도 아름답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문신으로는 조선 초기 세종부터 성종에 이르는 동안 혁혁한 무공을 세운 수성군(隨城君) 최유림(崔有臨) 장군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에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이른 소흠(蘇滄) 장군, 젊은 시절 이곳에서 무술을 연마한 임경업(林慶業) 장군, 임진왜란 당시 권율, 이순신 등과 함께 빛나는 전공을 세운 원균(元均) 장군, 선조 때의 무장이대원(李大源) 장군 등 수 없이 많은 뛰어난 명장들을 배출하였다.

문신으로는 이충동에서 자랐으며 조선 중종 때의 성리학자이며 대정치사상가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와, 외가인 진위면에서 태어 났다고 전해지는 어사 박문수(朴文秀), 병자호란 당시 척화파(斥和派)로서 주전론(主戰論)을 펼치고 순절(殉節)한 삼학사(三學士) 가운데 두사람인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가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외에도 평택은 원사립(元士立), 남명익(南溟翼), 황효헌(黃孝獻), 우남양(禹南陽) 등 수 많은 인물들이 자라난 곳이다.

강한준(姜漢駿)

일제강점기. 평택 출생. 항일투쟁인. 1938년 기계과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40년 3월 인천시 도원동에 소재한 중앙상공사 기계 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이

때 공장을 방문한 일본인 소방서장으로부터 장차 조선 사람들은 모두 만주로 이주 시킬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나라가 없기에 이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이후부터 항일 투쟁을 펼치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동지 규합에 나서 1942년 황선학(黃善鶴)·조규진(曹圭鎭)에게 평소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 동지의 의를 맺었다. 그리고 황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을 상호 연락일로 정하는 한편 매월 셋째 일요일에는 등산을 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모두 98명의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이 가운데 11명의 핵심적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의 철교와 군수 공장을 폭파하여 태평양 전쟁을 수행 중인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1944년 7월 13일 동지 11명과 함께 영등포구 구로동에 소재한 화약고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는 화약 세 상자를 절취하였다. 이어 인천 약우물 채석장에서 뇌관 120개와 도화선 두 타래를 절취한 뒤 이를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가지고 와서 폭파에 필요한 제반 조직을 끝마쳤다. 거사와 동시에 격문을 작성 배포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은 “첫째, 우리는 만주 땅으로 못 간다. 둘째, 쪽바리는 우리 땅에서 물러가라. 셋째, 우리 조선 청년들이 단결해서 싸워라. 넷째, 조선 독립 만세”였다. 유인물은 보통학교에서 절취한 등사판 5대 및 등사 잉크와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을 완료하였다. 거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동지와 함께 1944년 10월 3일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구로동 화약고에서 화약을 도난 당한 것을 알게 된 일본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색을 하여 불행히도 폭발물을 일본 경찰에 빼앗겼고 거사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공부(孔俯)

1352(고려 공민왕 1)~1416(조선 태종 16). 고려말과 조선초의 문신·도교인. 자는 백공(伯恭), 호는 어촌(漁村)·수선(修仙) 공소(孔紹)의 손자이다. 1376년(우왕 2)에 과거에 급제하여 전의부령(典儀副令)·예조총랑을 거쳐 집현전태학사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승문원(承文院) 사대교린문서 담당 관청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별감제조(別監提調)·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을 역임하였다. 도교에 조예가 있어, 도교를 좋아하던 태종의 총애를 받았고, 조선 조 초기 1408년 10월 이후 서장관으로 여섯 번이나 중국에 다녀왔다. 당시 그는 소격전제조(昭格殿提調)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태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에 가서 도교의 초사(醮祀) 등 도교의식을 배워왔고, 또 어린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광연루(廣延樓)·상림원(上林園) 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1413년 4월, 태종은 부친상중에 있는 그에게 수진(修真, 장생불로의 수련법)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였다. 1416년(태종 16)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젊어서는 정몽주(鄭

夢周)·이색(李穡) 등과 교유하였다. 세상에서는 그의 관대한 성품과 솔직함을 높게 평가하여 팔청(八淸)의 우두머리라고 칭하였고, 또한 초서와 예서에도 매우 능하였는데, 양주의 회암사(檜巖寺)에 있는 묘엄존자무학선사탑비(妙嚴尊者無學禪師塔碑)와 한산에 있는 한산군이색신도비(韓山君李穡神道碑)는 그의 필적이다. 묘소는 현덕면 덕목리 고등산 동쪽에 있으며 제궁(齊宮)으로 심복사(深福寺)가 있다.

공서린(孔瑞麟)

1483년(성종 14)~1541년(중종 3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 자는 희성(希聖), 호는 휴암(休巖). 공의달(孔義達)의 아들이다. 1507년 생원이 되고, 그해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09년(중종 4) 좌랑으로서 정전예연(正殿禮宴)에서 여악(女樂)을 쓰지 말 것을 건의하였고, 사전체제(祀典體制)를 정비할 때 강경서(姜景敘)·김안국(金安國)과 더불어 기신재(忌晨齋) 혁파에 노력하였다. 1511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홍문관부수찬·수찬·사헌부지평을 역임하였다. 1516년에 장령(掌令)으로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언로(言路)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1518년 『성리대전』 감독능력이 있는 인물로 선발되었고, 승지로서 대간을 논박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1519년 좌승지로 다시 서용되었으나,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 등 사람과 인물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524년 남곤(南袞)의 주청으로 공조참의가 되었고, 그 뒤 파주목사·황해도관찰사·대사헌·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자상하고 온아하였으며, 사람과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793년(정조 17) 공문유학(孔門儒學)의 삼강오륜 도덕을 선양하기 위하여 수원부(화성 오산읍 켄리) 공서린의 유지(遺址)에 켄리사(關里祠)를 창건하고 공자승문의 유덕을 기리고 있다. 조선시대 공씨(孔氏) 중 4현으로 어촌, 고산, 휴암, 덕일 4인이 뽑힌다.

권사순(權士恂)

수성인(隋城人). 자는 여성(汝誠)이고 시조공 12세손으로 1578년(조선 선조 11) 무인생이며 어모장군·부사용(御侮將軍 副司勇)을 지냈다. 사후인 1708년(숙종 34)에 통훈대부·사복시정(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배(配)는 숙부인 밀양박씨이고, 부는 병조참의 종남으로 기(忌)는 정월 2일, 묘는 선고비하 간좌향으로 합폄(合窆)이다.

권씨(權氏)

조선 후기의 효부. 본관은 안동으로 통덕랑 재응(載應)의 딸로서 동몽교관으로 추증된 김유성(金維城)과 혼인하였다. 시아버지의 병환이 위증하여 남편과 더불어 3



■ 김유성 처 권씨 정문

일간을 기도하였는데 눈속에서 송이가 보였고, 꿩새끼가 집으로 날아왔으며 배 3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신의 도움으로 병환이 나았다. 효행이 알려져 1860년(철종 12)에 정려를 받았다. 이로써 의성 김씨 가문은 김치복과 그의 며느리 황씨, 손부(孫婦) 조씨, 증손부 권씨 등이 4세에 걸쳐 효자·효부·열녀의 정려를 받았는데, 4세에 걸쳐 한가문에 정려를 내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현재 영인(令人)으로 제수하는 교

지가 남아있다. 정려문이 서탄면 적봉리에 있다가 오산 미군기지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는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재건축 되어있다. 2001년 서탄면 장등리 지역으로 정문을 옮겼다.

권영일(權寧一)

안동권씨 추밀공파 34세손으로 1900년 진위면 가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서울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조도전대학의 교외생으로 특강 수료하였다. 귀국후 한성 은행원으로 봉직하였고, 경성상공회의소 부회장·경동중학교 후원회장·무학여자중학교 후원회장·서울시 참사 등을 거쳐 경성고무주식회사 사장·삼천리 신발회사 사장·대륙고무공업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해방후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여 돈암장 또는 마포장(麻浦莊) 등으로 임대 전전하며 생활하는 고역을 염려하고 평생을 두고 애국하는 분의 대접을 그리해서는 안된다는 충지 아래 3·1동우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상당한 거금을 투자하여 이화장을 고가 매입하여 이박사에게 제공하였고 또 자기가 타던 승용차 1대를 이박사에게 기증하는 미거를 도모하여 세인들의 많은 격찬을 받았다. 그후 1973년 경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묘는 진위면 가곡리 후편 산기슭에 있다.

권임길(權臨吉)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안동. 부사 권정길의 동생. 팽성현 북촌에 거주하였고 신장이 9척 장신이고 담력과 용력이 초인적이었다 한다. 1818년(순조 18) 무과에 급제하였고 옥포만호를 제수받았다. 병자호란 때 충청순영에 배속되어 감사인 정세규와 함께 험천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후에 나라에서 복호(復戶)하였다.

김대명(金大鳴)

1604년(선조 37)~1637년(인조 15). 조선후기의 관인. 호는 성원(聲遠), 본관은 금

녕. 훈련원침정 김충좌(金衷佐)의 아들로써 안중면 삼정리에서 출생하였다. 벼슬은 성진포방어병마절제사(成津浦防禦兵馬節制使)에 이르렀다. 1636년(인조 14)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와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옮기자 어가(御駕)를 호위하였다. 원종공신에 봉해졌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안중면 학현리에 있다.

김득영(金得永)

조선시대의 효자. 호는 가색(稼穡), 본관은 금녕. 김문기의 12세손으로 1774년(영조 50) 양성현 원곡면 월곡리(현 비전1동)에서 출생하였으나 열흘만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천성이 순박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조석으로 편모의 문안을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가색이란 호를 지었는데 농사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뒤에 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크게 신음하자 정성어린 간병으로 시종을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로 병환은 날로 더해가기만 하였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으니 그의 모친은 때아닌 기러기 고기를 원하였다. 이에 수일을 두고 백방으로 기러기를 구하고자 기도와 치성을 다하니, 어느 날 밤중 홀연히 기러기 한 마리가 내려왔다. 친신에게 감복하고 고기를 삶아 어머니에게 드리니 그로 인하여 어머님 병환은 완쾌가 되어 그후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그곳 지방유림에서는 '하늘이 낳은 큰 효자(出天之大孝子)'라고 칭송하고 1923년 효자비를 세워 포상하였다.

김봉익(金鳳翼)

조선 현종때의 효자. 본관은 경주(慶州). 안중면 학현리 출생.

당대에 보기드문 효자로 부모의 생존시에는 그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봉양하였으며 돌아가심에는 항상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그리며 효를 실천하였다. 모친이 창환으로 고생하자 백방으로 희귀한 약을 구하여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늘 근심이 쌓여 있었다. 한 친구가 꿈속에서 백두옹(白頭翁)이 알려주는 처방을 글로 전하기를 "자네의 모친께서 창환으로 고생하여 자식인 자네가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도 효험을 보지 못하고 상심하고 있으니 변소 옆에 고여있는 물을 떠다가 차게하여 바르면 효험이 있을 것일세"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그 물을 구하여 발라 효험을 보았다. 그후 부친이 중병을 앓자 극진히 간호하였다. 하루는 부친이 꿩 고기를 드시기 위하여 꿩을 잡고자 심산계곡에 들어가 몇 날을 헤매었으나 잡지 못하고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하늘에서 매가 꿩 한 마리를 떨어뜨려 주는 지라 이를 부친께 바쳐 완쾌시켰다. 또 한 번은 또 멧돼지 고기를 먹고 싶다고하여 10여 일 동안이나 깊은 골짜기를 헤매여 몸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늦은 밤에 호랑이가 포효하여 이에 놀라 뛰어가보니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있어 이를 부친께 바쳐 큰 효험을 보았다. 부친의 상을 당하여 장례함에 온 정성을 다했는데, 장례를 마치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애도하였으며 마친후에도 눈, 비를 가리지 않고 조석으로 여묘하였다. 또 부모가 돌아가신 달에는 부모를 잃은 죄인이라 하여 두문불출하고 맛난 음식과 육식일체를 금하고는 미음으로만 허기를 없애는 정도였다. 3년 상을 마친 후에도 동쪽을 향하여 절하기를 마지않았다. 이러한 효행은 1663년(현종 4) 조정에 알려져 현종은 매우 칭찬하고 기뻐하며 포상하였고 사헌부지평의 직첩을 하사하였다. 또 1669년에는 정려의 홍혜가 내려졌다.

김세담(金世淡)

본관은 경주이다. 조선시대 무인으로 1691년(숙종 17)에 현덕면 운정리 구억촌 마을에서 김만중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무술의 기량이 뛰어나 인근에 명망이 높았다. 1728년(영조 4) 나이 37세 때 왕세자 관례 가례 경설 별시 문과 및 무과 병과 전시(殿試)에서 그의 아우 세량(世亮)과 함께 등과되었다. 그후 성품이 활달한 그는 벼슬이 선략장군에 이르렀고 그후 승차되어 오위(五衛)의 행용양위좌부장(현 경상도지방 부사령관직)으로까지 벼슬이 이르고 말년에는 정3품직 절충장군 행용양위장군 부호군에 올랐다.

김세량(金世亮)

본관은 경주이다. 1706년(숙종 32) 병술생으로 현덕면 운정리 구억촌 마을에서 김만중의 2남으로 태어났으며 유년 때부터 매우 총명하였다고 한다. 장차 자라면서 무예에 뜻을 두고 기량을 연마해 왔다. 1728년(영조 4년) 나이 23세에 왕세자 관례 가례 경설 입학합삼 문무과 별시에 병과 617인 중 부사정으로 등과되었고 이듬해인 1729년 12월에는 병금위에 예차(預差)되고 선략장군 충무위 부사용자의 교지를 받았다. 그후 품계가 승차함에 따라 선략장군 행용양위 좌부장의 장군직으로 영임되었다. 이밖에도 본 군영의 전령으로 중부천충에 총임자로 선정된 바 있고 1763년(영조 40)에는 기호방위사(畿湖防衛使)까지 이르렀다.

김세한(金世澣)

본관은 광산이며, 자는 한지(澣之)이다. 지산동 우곡의 광산김씨로 명종~선조때의 무관이다. 일찍이 중종때 무과에 급제하여 지방관을 지내고 훈련원 첨정을 거쳐 부정으로 있을 때인 1534년 1월에 모함을 받아 귀양갔는데, 그 사유는 『중종실록』

에 있는 지평 김수성의 간언에서 나타난다. “훈련원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잘못하여 화살이 김안로(당시 판의금부지사)의 집에 날아가게 되었다. 김안로가 활쏘기를 중지하던지 훈련원을 옮기던지 하라고하자, 화를 내며 ‘만약 화살이 싫다면 집을 옮겨서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훈련원은 조선초부터 활쏘는 연습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며, 또 어찌 옮길수 있습니까?’ 하여 이 때문에 채무일과 함께 죄를 얻은 것입니다” 하였다. 1538년(중종 33) 1월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김극성, 우찬성 소세양 등이 김안로를 탄핵하고, 김세한의 죄를 사할 것을 청하여 석방되어 관직에 나간다. 당시 중종은 김세한이 용감하고 건강하며 무재가 있다하고, 장래의 장수로 선발된 것이다 라며 크게 벌을 내리거나 취조없이 귀양 보낸 것으로서 여론이 무마되자 바로 죄를 사한 것으로 실록에서 유추되며 이후 실록에서는 명종조에 나타난다. 명종 때는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로서 주로 수군에서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1557년(명종 12) 2월 19일 경기 수사직위를 사양하는 뜻을 왕에게 아뢰고 왕은 이를 타이르며 그대로 있을 것을 명한 바, 사관이 부언한 글에서 나이 70이 넘는 고령임을 들어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후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뒤 낙향한다. 묘는 서울 신림동에 있었다가 광산김씨 집성촌인 지산동 우곡으로 이전함으로써 평택의 인물에 들게 되었다.

김옥한(金瑱漢)

1471년(성종 2)~1536년(중종 31). 조선전기 금령 김씨 평택 입향조. 호는 우재(愚齋),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증손으로서 김문기가 단종 복위 거사에 참여하였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자, 문기의 손자 충윤(忠尹)은 상주에 정속(定屬: 거주 제한) 되었다. 옥한은 충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신분을 감추고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뒤에 안산에 살던 큰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웠고 서해 아산만 물줄기인 수원부 오정면(梧井面) 삼주리(三注里) — 현재 안중면 삼정리 — 에 정착하였다. “나는 상주에서 수원으로 도망 와 실향을 한탄하며 뼈가 부서져도 후손을 키워 유훈을 받들고 파탄된 가문을 다시 세우리라.(自尙州 遷跡水原 恒切望鄉飲恨歎 粉骨養孫遺訓奉 破綻家門必再建)” 고 읊은 시가 전한다. 이후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안중면 학현리 일대 금령김씨 문중의 입향조가 되었다.

김윤후(金允侯)

생몰년 미상. 고종 때의 승장(僧將). 일찍이 중이 되어 지산동 부락산 동편 흰치고개에 있었다는 백현원(白峴院)에 있다가 1232년(고종 19)에 몽고의 침입으로 용인의 처인성에 들어가 싸움에 나섰다. 이때 몽고의 원수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죽였

다. 그 공으로 상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여 섭랑장(攝郎將)에 임명되고, 뒤에 충주산성방호별감(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었다. 그때 몽고군이 쳐들어와 주성을 포위한지 70여 일이 되어 식량이 떨어져 위태롭게 되었을 때, 병사들을 독려하기를 “만일 힘을 다하면 귀천없이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라 하여 마침내 관노의 부적을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니,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 적을 물리쳤다. 그 공으로 감문위상장군이 되고, 그밖에 군공을 세운 자들도 관노·백성할 것 없이 모두 관작이 제수되었다. 1258년에 동북면병마사가 되었으나 그때 동북면은 이미 몽고군의 수중에 있어서 부임하지 못하였다. 1262년(원종 3)에 추밀원부사·예부상서가 되었으며, 이듬해 수사공우복야(守司空右僕射)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평택지역에 유적은 없으나 문헌에서 나오는 백현원은 평택지역의 지명으로 인정되고 있어 평택의 인물로 수록하였다.

김종집(金宗集)

조선. 효자. 본관은 진위. 평택출신. 관관 허손(許孫)의 10세손. 진성군 기문의 8세손. 통정대부 수기의 현손. 통정대부 익량의 자. 조부께서 종창으로 고생함에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 내었고 부친 통정공이 병으로 위중할 때 대변의 맛을 보아 병세를 짐작하여 손수 시탕함을 꺼리지 않았으며 밤이면 자신이 부친의 병을 대신하도록 하늘에 기원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묘막을 짓고 수묘하였는데 하늘의 응보로 인하여 호랑이가 이를 호위해 주었다. 증조부와 조부의 거상하는데 있어서 미음만으로 연명하고 일체의 다른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정성을 다하고 부친 또한 효를 다 하였다. 그 효행이 향당(鄉黨)에 칭송을 받았으니 가히 진위김씨의 효행은 가법이었다고 할 것이다.

김충좌(金衷佐)

1586년(선조 19)~1637년(인조 15). 조선후기의 관인. 호는 군보(君甫), 본관은 금령. 안중면 삼정리에서 태어났다. 벼슬은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남한산성으로 몽진하자 왕의 어가(御駕)를 호위하다 순절하였다. 순절한 뒤 애마가 유품인 갑옷을 물고 집에까지 와서 전사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뒤에 통정대부 공조참의(通政大夫工曹參議)로 추증되었다.

김치복(金致福)

1675년(숙종 1)~1750년(영조 26). 자는 수지(綏之), 호는 줄암(拙庵). 본관은 의성(義城). 조선후기의 효자. 아버지는 용재(龍在)이며 서탄면 직봉리 출신이다. 부친

이 병으로 고생할 때 백방으로 영약을 구하여 시탕하고 약을 받드시 먼저 맛을 본 후에 올렸다. 효험을 보지 못하자 하늘에 자신이 부친의 병을 대신하도록 기원하였다.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탁발승으로 하여금 비방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15세 된 남자아이의 머리를 삶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륜지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던 중 자식을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



■ 김치복 정문

아가시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킬 것을 결심하여, 서당에 다녀오는 아들을 고개마루에서 기다렸다가 비수로 찌른 후 목을 베어 가마솥에 넣고 끓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는 사라지고 커다란 산삼뿌리가 있어 이를 부친에게 바쳐 효험을 보았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몹시 슬퍼하며 우는 것이 고례(古禮)에 어긋났으나 집상절차는 예제(禮制)에 맞게하여 3년간은 여묘하고 상을 마친 후에도 조석으로 성묘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효행은 선비들에게 추앙되어 1811년(순조 11) 효자 정려의 은전이 하사되었다. 벼슬은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정려문은 서탄면 적봉리에 봉안되었다가 오산 비행장설치로 인하여 1953년 국방부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현재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재건축하여 봉안되어 있다. 2001년 서탄면 장동리 지역으로 정문을 옮겼다.

남두징(南斗徵)

조선후기의 문신(1617~1690).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천서(天瑞)이다. 1662(현종 3) 진사가 되었고, 관직은 선릉참봉, 연원찰방(連原察訪), 종부시직장(宗簿寺直長), 내섬시주부(內瞻寺主簿), 공조좌랑(工曹佐郎), 고령현감(高靈縣監), 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 개령현감(開寧縣監),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 사직서령(社稷署丞), 돈녕부판관(敦寧府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며 영특함이 남보다 뛰어났고, 고서(古書)의 수백 마디의 말을 한두 번 정도 읽으면 문득 암송하였다. 진사시에서 글을 지었는데 시험관인 유시(兪市)와 남계(南槩)가 문장을 보고 우두머리에 두면서 말하기를 “남생(南生)이 지은 것은 초사(楚辭)이다. 우리들이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며 크게 칭찬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는 시를 읊조리며 지냈고 자산을 늘리는데 힘쓰지 않아 집 주변이 늘 소연(蕭然)하였다. 고을의 수령이 되어서는 한결같이 나라의 법전대로 따랐으므로 지방의 힘있는 자들이 불편해하며 많이 동요하였으나 봐주지 않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및 친척들과 함께 잘 지내어 세상에서는 '효우지가 孝友之家'라고 칭송하였다. 문집으로는 『지천산록 枝川散錄』이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묘소는 고덕면 당현리에 있으며 남구만이 지은 묘갈이 함께 있다.

남명익(南溟翼)

생몰년 미상. 문과에 급제하고 정랑으로 벼슬길을 시작하였다. 문장이 탁월하여 당대의 문한(文翰)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혼미하여 일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반정후에 다시 대과에 오르고 안성군수에 제수되었다.

문무섭(文武燮)

남평인으로 중시조인 강성군 익점공(益漸公)의 18세손으로 현종 때 진위현하 고덕면 좌교리에서 출생하였다. 기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강한 성품으로 세평이 높아왔다. 유학에 출중하고 일찍이 진위향교의 직원으로 봉직하였다. 향교 재직시 동교의 대성전각의 중수 및 보수사업을 완성하게 하여 그곳 유림의 일대찬사를 많이 받았다. 또 유학사상의 전교에도 크게 진력하였다.

문재정(文在旌)

남평인으로 중시조인 강성군 익점의 19세손으로 무섭의 아들이다. 고덕면 좌교리 출생이고, 그 용모와 인품이 아주 준수하고, 성품 또한 고와서 선비의 가통을 이은 대표적 인물이다. 본시 한학에 출중하여 고종조 말기 함경북도 경성군수로 전임되었으나 수천리 타향에서의 관직보다는 고향의 노부모 봉양을 걱정하여, 군수직을 사임하고 돌아왔다. 그후 경술국치로 한일합방을 맞이한 그는 두문불출하고 후학 교육에 열중하였으나 당시 평택군수인 김진문의 친구 권고로 관선 고덕면장에 취임하였고 십수년간 고덕면의 면정쇄신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박계옥(朴啓沃)

명종때 무신으로 자는 중설(仲說)이고 고령인이다. 중종 때 남양부사를 지낸 세호의 아들이다. 명종 때 무반으로 입사하여 부사직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벼슬이 오위청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다.

박기준(朴耆俊)

조선 선조 때 무신으로 자는 국노(國老)이고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찰방 진성(盡性)의 아들로 1566년(명종 21)으로 부터 1621년(광해 13)까지 입사(入仕)하였고 병

마절제도사를 거쳐 황주관관 겸 진관을 역임하였다.

박문수(朴文秀)

1691년(숙종 17)~1756년(영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 이조판서 장원(長遠)의 증손이며, 세마(洗馬) 선(銑)의 손자이고, 영은군(靈恩君) 항한(恒漢)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공조참판 이세필(李世弼)의 딸이다. 진위현 향교동에서 태어나 5세때까지 유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학문을 배웠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뽑혔고, 이듬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設書)·병조정랑에 올랐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삭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었으며, 영남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했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관찰사에 발탁되었으며,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에 도당록(都堂錄)에 들었다. 1730년 대사성·대사간·도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기민(饑民)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에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이 되었고, 1734년에는 예조참판으로 재직 중에 진주사(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호조참판을 거쳐, 1737년에는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 때 병조 자체내의 인신(印信)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入送)에 불편을 줄뿐 아니라 중간에 간리(奸吏)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들어 병조판서의 인신과 이군색(二軍色)의 인신을 만들어 줄 것을 주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로 좌천당하였다. 1739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으며, 함경도에 진휼사(賑恤使)로 나아가 경상도의 곡식 1만 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다음해 병조판서로 재직시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烽軍)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北道)에 각 지방에 정배(定配)된 봉무사(烽武士)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이듬해 황해도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5년 어영대장에 재임되었으며,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 시 국가에서 대내(大內)의 당우(堂宇)를 3년에 한 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



■ 박문수 영정

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 수어사(守禦使)를 역임한 뒤 영남 균세사(嶺南均稅使)를 거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판의금부사(判義禁府使)·세손사부(世孫師傅)등을 지냈고, 1751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로 책임을 추궁당해 제주에 안치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와 우참찬에 올랐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대의 탕평책(蕩平策)이 실시될 때 명문벌열(名門閥閥)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4색(四色)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에는 영조에게 주청하여 다른 신하들과 함께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각전각궁공상정례 各殿各宮供上定例』 6권, 『국혼정례 國婚定例』 2권, 『각사정례 各司定例』 12권, 『상방정례 上方定例』 3권을 합한 것이다. 글씨로는 안성의 『오명항도적송공비 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문헌설화는 『기문총화』 2편, 『계서야담 溪西野談』 1편, 『청구야담 靑丘野談』 3편, 『선언편 選言篇』 2편, 『동야휘집 東野彙集』 2편, 『대동기문 大東奇聞』, 『실사총담 實事叢談』 등에 전하며 한편 구전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자료도 풍부하고 유형도 다양하며,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했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또 조선후기 작가미상의 한글 소설 박문수전이라는 소설도 있다.

박미생(朴美生)

태종 때 문신. 본관 고령인이고 충숙왕 때 문하시중이던 고양부원군 박선우의 아들이다. 시조 언성(彦成)의 13세손으로 평택 출생이고 태종 신미년에 문과급제로 입사하고 벼슬이 사헌부지평에 이르렀다.

박세호(朴世豪)

중종 때 문신으로 자는 거정(巨正), 호는 용휘(龍揮)이고 고령인으로 세종때 부제학을 지낸 처륜의 아들이다. 1528년(중종 23) 무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입사, 벼슬이 예창정랑을 거쳐 영월부사를 역임하였고 중종조 기미사화로 문학동기인 조광조가 반대파당에 해를 입게되자 유생들과 같이 통곡을 하며 상소를 올리었으나 도리어 해를 보고 투옥되었다가 바로 사면되었다.

박영(朴寧)

조선시대의 효자. 팽성현의 향리이다. 읍내 남산리(南山里)에 살았는데, 어머니를 극진히 받들며 아침저녁의 문안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고, 그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여 따랐다고 한다.

박원용(朴元用)

본관은 밀양이다. 자는 선지(善之)이고 호는 우당(愚當)이다. 조선초기의 명음악가로서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삼대 악성으로 불리우는 예문관 대제학 박연의 후손으로 원래는 아산 영인 강청 태생이나 고종조에 등관하고 남행선전관, 평북선천군수 등에 기용 전임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관직을 버리고 낙향 은거 중 그의 고결하고도 강직한 성품으로 다시 추천되어 진위군 병남면장 그리고 부용면장 등을 역임하면서 거물면장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이후 경기도 평의원에 피선되고 1933년에는 팽성면장에 다시 재임되고 그곳 면치행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박윤신(朴潤身) · 박윤호(朴潤湖)

조선시대의 효자. 박영의 세손. 윤신, 윤호 형제도 또한 조업을 준수하여 모두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자 의원에게 문의하니 의원의 말이 흰 개의 피를 약으로 써야 병이 낫겠다 하였다. 그 집에서 기르는 흰 개를 잡으려 하자 이 개가 어찌나 사나운지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박윤신이 개를 향하여 슬피 울며 말하기를, 네 피를 좀 달라고 하였더니 그 개가 머리를 숙이고 윤신의 곁에 와서 쭈그리고 앉았다. 박윤신이 즉시 칼로 그 귀를 자르니 개가 머리를 숙이고 이를 갈면서 아픔을 참느라고 무척 고생하는 것 같았으므로 이를 보는 사람이 모두 정성이 하늘에 통한 것이라고 감탄하였다. 또 어머니의 병환에 단지하여 피를 내어 흘러 넣었더니 마침내 회생할 수 있었다. 어머니 ·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자, 아침 저녁으로 산소에 가서 삼 년을 호곡하되 비바람이 몹시 휘몰아쳐도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이 사실이 관가에 알려져 그 이역(吏役)을 면제하게 하고 임금께 알려 정려하였다. 그 뒤에 윤호가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박영도 효자로서 임금께 알려졌고 그 후손들이 모두 그 선조의 뜻을 받들어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기가 이 같으니, 이것으로 보면 효자의 기맥(氣脈)이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재만(朴再蔓)

숙종때 문신으로 자는 춘향이요 본관은 고령이다. 장사랑(將仕郎)이던 후문의 아들이고 숙종때 성균관 진사 급제로 문장에도 능통하였다. 또한 부모 공양에 뛰어난 효행으로 1683년(숙종 9)에는 나라에서 효행을 정려(旌闡)하였다. 청북면 덕우리

산54번지에 효자각이 있다. 효자에 관한 내용은 유적편 효자각에 있다.

박재화(朴再華)

인종때 무신으로 고령인이다. 장사랑인 후문의 아들로 1676년(숙종 2)에 무과에 급제하여 행용양위 부사과를 거쳐 백치진강 병마절도위, 광양현감 등을 거쳐서 절충장군, 부호군, 오위장을 역임하였고 첨지중추부사에까지 이르렀다. 66세에 별세하였다.

박진성(朴盡性)

선조 때 용성현 수춘땅 태생으로 자는 자순(子順)이요, 본은 고령이다.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계옥의 아들이다. 선조 때 황산찰방과 평원찰방을 역임토록 배명(拜命)하였으나 효행이 지극한 그는 끝내 임지를 사양하였다. 그후 왕이 그의 부모 봉양의 효심을 감탄하시고 제차 임명하니 친은에 감복하고 임지에 부임하였다가 중앙으로 전직하게 되자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일생을 마쳤다.

박처륜(朴處綸)

1445년(세종 27)~1502년(연산군 8). 성종 때의 문신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거경(巨卿)이며 호는 잠조당(潛照堂)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전적을 역임한 사란이고 어머니는 군사 유한의 딸이다. 1470년(성종 1)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이 되고 경연전경·홍문관정자를 겸하면서 신숙주 등과 함께 수찬관으로 『세종실록』·『예종실록』을 편찬하였다. 1472년 승정원 주서·승문원검교를 거쳐 병조·형조의 좌랑으로부터 사헌부 지평 및 홍문관 전찬을 지냈고, 1483년 예조 정랑과 장령을 지내고, 1489년 왕이 장차 중용할 목적으로 남양부사로 보냈을 때는 선정으로 백성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권농과 학교를 일으킴으로써 남양고을에 많은 선비가 배출되는 등 치적을 올렸다. 임기를 마친 후에 봉상시부정 및 사간원 사간이 되었는데 남양고을 백성들이 남양부사 때의 치적을 들어 진정하므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494년(성종 25) 관압사(管押使)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와 대사간이 되고, 홍문관부제학·지제교를 역임하였다. 형조참의를 거쳐 전라관찰사로 임명되어 선정으로 그 이름이 높았다. 대부(大夫)가 되었으나 가산을 돌보지 않았고 효우(孝友)가 돈독하였다.

박천건(朴天健)

자는 자이(子以). 남양으로부터 팽성으로 이주해왔다. 천성이 두드러지게 뛰어나

어릴 때부터 독서와 의리를 지켰다. 경학과 사학에 무불통달하고 스승 없이 학문을 정통하여 그 식견이 온 나라에 떨쳤다. 그는 중용과 역리 등에도 정통하였지만, 드러내지 않음으로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문하생인 김상국은 후에 크게 입신하였으며 은사로 존경하고 사제의 예절이 정연하여 보는 사람마다 양인의 미덕을 칭송하였다.

박충립(朴忠立)

조선시대의 효자. 신분은 양인(良人)이었다. 나이 겨우 5, 6세 때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어머니는 몸을 지켜 혼자서 평생을 살면서 고기를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시기를 지극한 효도로써 하였고 무릇 공양하는 물건은 고기와 생선을 서로 섞어 쓰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향년이 80여 세가 되었을 때에는 효도로 섬기는 정성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계축년(癸丑年) 겨울에 충립이 이웃집에 갔을 때 집안 사람 잘못으로 불이 났다. 그 불을 보고 급히 와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니 연로하여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 하자 뛰쳐 들어갔으나 그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또 하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끝내 나오지 아니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집을 헐어 불을 끄고 보니 충립이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엎드린 채로 온몸이 불에 타 죽었고 그 어머니는 며칠 더 살 수 있었다. 그 효성을 말한다면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고 정표에 이르러서는 이런 종류에 미칠 사람이 없다.

방덕룡(方德龍)

1561(명조 16)~1598(선조 31) 조선시대의 충신. 팽성현의 북촌에 살았는데, 병사 방호의(方好義)의 손자이다. 1588년(선조 21)에 무과에 급제하고 1598년에 낙안군수로 있었는데 그때의 통제사 이순신(李舜臣)도 공이 용감하고 또 지략이 있음을 알고 선봉장으로 삼았다. 뒤에 왜병과 노랑에서 크게 싸울 때 사력을 내어 적중을 횡행하며 왜군의 배를 깨뜨리고 적군의 목을 수없이 베었다. 충무공이 이미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말하기를 “주장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 다시 적군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죽으니 나이 서른 여덟이었다. 임금께서 그 절의를 가상하게 여겨 형조참의를 추증하고, 또 그 자손에게 벼슬을 주라는 명을 내렸으며, 본 도에 명하여 복호시켰다.

방이흠(方以欽)

조선시대의 효자. 팽성현 북촌에 살았다. 어버이를 정성껏 섬기어 그 아버지의 나이 예순 여덟에 중병을 앓아서 명이 경각에 있었다. 이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더니 곧 다시 깨어났다. 그 때에 아내가 젓먹이가 있어서 마침 젓이 있을 때라 그 젓을 짜서 그 시아버지에 바치기를 한 달 이상을 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릇 단지를 한다는 일은 비록 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이번에 아버지가 머느리의 젓을 먹고 다시 완쾌되어 이십여 년을 더 명을 연장하였음은 지성이 하늘을 움직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旌闈)하였다.

방일찬(方日贊)

조선시대의 효자. 방덕룡의 손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그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 하시매 손가락을 잘라 그 병을 구하고, 또 달마다 삭망(朔望)이면 부모의 분묘에 배례하여 나이가 팔십이 되어도 오히려 폐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 선조를 위하는 정성이 늙을수록 더욱 두터웠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旌闈)하였다. 아들 방세현(方世顯)이 또한 어머니의 병에 손가락을 잘라 효성을 다하였으니, 대체로 충과 효는 둘이 아니다. 방덕룡의 충절이 이미 저와 같이 두드러졌으므로 방일찬의 부자의 효성이 또한 이러한 것을 보면 그것이 모두 전수된 정신이 아니겠는가?

서명장(徐命長)

달성인으로 자는 선백(善伯)이고, 1698년(숙종 24)~1767년(영조 43) 참판공 종흠(宗翕)의 장자인 부마공 달성위 경조의 현손이며 서낙봉의 5세손이다. 숙종 때는 일생을 학행으로만 전념하신 학자로 도덕군자라 하였다. 벼슬은 사산감역에 제수되었고 특히 인륜 도덕론에만 치중한 인간 효행의 근본인 불취유 효행을 강조하였다. 묘는 청북면 덕우리 돌모리에 있다.

서윤건(徐胤建)

시조인 아간공의 18세손으로 양경공과 파조 유(愈)의 7세손으로 명종 때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무술의 기량을 연마하고 선조조에 등과하여 임란 때는 병조좌랑으로 전라좌수영에 입영 분전 했다. 그러나 왜군의 병기와 우세한 장비를 막을 길 없어 좌수영 결전장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후일 선조께서 증직 병조참판을 제수하였고 많은 전답을 사급(賜給)하였다. 묘는 화성군 정남면 용수리 산기슭에 있고 매년 추계 제향을 행하고 그의 후손 등은 옛조상의 전공과 무훈을 기리며 참사(參祠)하고 있다.

서정순(徐正淳)

1831(순조 21)~1905(고종 42). 달성인으로 자는 유칠(幼七)이고 호는 야우(野愚)이다. 선조부마 달성위(達城尉)의 8세손이며 향조(鄉祖)인 종흡공(宗翕公)의 5세손이다. 전제 임헌회선생의 수제자로서 조선말에 삼현이라고 칭하는 서야우, 윤독수제, 전민제 등 3인 중의 한사람으로서 숭앙(崇仰)된다. 또 온순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하늘이 내려준 영오한 재질은 만인의 스승이라 일컬었다. 스승을 모시고 거(居)할 때에는 항상 발을 드리고 새 집을 지어 드렸으며 정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며 경박(輕薄)한 풍욕을 삼가고 글을 강(講)함에 하루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 문전에 찾는 사람이 항상 가득하였다. 또 도량이 넓어 회노의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동자 때부터 큰뜻을 중화로 좇는데 두었으니 가히 군자로 남의 혈뜬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와도 늘 귓가에 바람처럼 스치는 것과 같이 여겨왔다. 고향에 있을 때 향약을 실시 백성을 교화하는데 힘써왔고 감사가 친히 맞아 사빈(師賓)으로 대접하고 조정에서는 사대부로 뽑아 선공감역으로 제수하나 자신의 덕이 벼슬에 맞지않아 끝내 마다하고 노경에는 더더욱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한다. 또한 용모와 풍채가 청수하였고 공문십철의 학문으로 덕행에 이치와 성전의 오묘한 뜻에도 정확하고 늘 친절히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오직 옳은 길만 찾으며 혹 죽인다 위협해도 또한 정으로 대하는 도인 이었다. 사후에는 유림에서 산처사로 추호가 정해졌다.

서종흡(徐宗翕)

1677년(숙종 3)~1753(영조 29). 달성인으로 자는 중익(仲益). 조선조 선조의 명신인 서락봉(徐樂峯)의 현손으로 태어났다. 선조의 제일부마인 달성위 경주(景衢)가 그의 증조부이며 좌찬성인 문택의 아우이고, 이조판서에 봉조하인 종잉(宗仍)이 그의 동생으로 본인 또한 여러 벼슬을 거쳐 증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관직에 있을 때 백성을 돕는 치정을 근본으로 하고 달성서문의 가통을 수호 함으로서 많은 격찬을 받았다. 관직에서 사임하고 숙종 때 수원부 토진면 오봉산하(현 청북면 토진리)로 낙향 정착하여 그의 직계가 13대에 이르고 있다. 묘는 청북면 토진리(툽나루)에 있고 석물로는 상석(床石)과 망주석(望柱石) 등이 있다.

설애상(薛愛常)

조선시대의 열녀. 신분은 양인이며, 사노인 언룡(彦龍)과 혼인하였다. 조선 인조대의 병자호란 당시 적의 무리가 즐지에 집에 들이닥쳤다. 이때에 남편은 무사히 피하였으나 그녀는 병들어 운신을 못하였다. 적들이 욕보이려 하자 이를 굳게 거절

하였으므로 적들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후에 정절이 조정에 전해져 정표(旌表)하였다.

소을향(蘇乙鄕)

생몰년 미상. 소경(蘇慶)의 18세손. 고려말 문신. 1325년(고려 충숙왕 12) 문과에 급제하여 광정대부(匡靖大夫), 개성부윤(開城府尹),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였다. 고려시대 명현록(名賢錄)에 올라 있으며 묘소는 도일동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1일 제사를 지낸다.

소흙(蘇翕)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진주. 진위현 송장면(현 도일동) 출생. 1564년(명종 19)에 삭주부사로 임용되고 뒤이어 평안도병마우후로 있으면서 호족(胡族)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국경지방 수비의 공을 인정받아 1566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기용되고, 1569년(선조 2)에는 경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뒤 함경북도 병마절도사·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579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재직중 사사로운 원한으로 북도(北道)의 관노를 죽여 의금부에 투옥된 일도 있다고 한다. 소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 온다.

“소흙이 제주 목사(牧使)로 부임 당시 한라산 아래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고기 같은 해괴한 괴물이 풍우(風雨)를 일으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리하여 역대 목사들이 이 괴물을 제거하려고 애썼으나 그 뜻을 달성치 못하였다. 이에 소흙이 목사로 부임한 후,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괴물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맑은 날임에도 난데 없이 우뢰 소리와 함께 급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힌 후에 보니 그 형체가 아주 흉악하여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할 괴물로 모두가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소흙은 철전(鐵箭: 쇠로 만든 화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 따위)을 수 없이 쏘아 맞혀서 그 괴물을 죽였다. 자세히 살펴 보니 괴물의 길이가 10여척이고 가죽을 벗겨 보니 그 가죽이 너무나 질기고 강하여 북(鼓)을 만들었다. 그 북소리는 참으로 웅대하였다고 하는데 수차의 병란으로 인하여 분실되고 말았다.”

신광철(申光撤)의 처 청송심씨

조선시대의 열녀. 청송심씨는 가선대부 신광철의 아내이다. 팽성 남면 송당리(松堂里)에 살았는데, 1636년(인조 14) 12월에 남편이 불일이 있어서 황해도 평산으로 가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이에 난리가 일어났다. 형의 처 정부인이 한집에 살았

는데 온 집안이 홍주(洪州) 땅으로 피난가려 하여, 심씨에게 말하기를 “숙씨께서 원행을 하시어 미처 돌아오시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내대장부야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나 충분히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여자의 몸으로 홀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반드시 큰 변을 당하기가 쉬우니 우리와 함께 떠나 어린 자녀들과, 모두가 온전히 살아 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심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평산은 적군들이 모여들고 나가고 하는 요로입니다. 남편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차마 혼자 살기를 구하여 피난을 가겠습니까? 남편이 다행히 화를 피하여 돌아오면 마땅히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완강히 거절하였다.

성부인이 여러 번 되풀이하여 달래었으나 막무가내였다. 이튿날 다시 타일렀으나 심씨가 또 듣지 않았다. 성부인이 할 수 없이 크게 한숨을 쉬고 말하기를, “그대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으니, 그렇다면 원컨대 어린 아이 하나를 나에게 맡겨 신씨 일문의 혈육이라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권하였다. 심씨가 이에 그 둘째 아들을 내어 맡기니 나이가 겨우 다섯 살이었다. 성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아산 선영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심씨도 함께 가서 선영에 성묘한 뒤에 두 부인이 서로 마주 보고 통곡한 뒤에 성부인은 곧바로 홍주로 향하고, 심씨는 본가로 돌아왔다. 이같이 하여 수 일이 지난 후에 심씨의 어머니 송씨가 용인에서 심씨를 찾아왔다. 왜냐하면 송씨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모시러 가고, 그밖에는 보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심씨에게로 의탁하여 온 것이었다. 심씨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뒤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멀리 떠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적군이 만약에 들이닥치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로 걱정이 되어 밤낮없이 울음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때에 남편이 평산에서 지름길로 간신히 돌아와서 심씨를 보고 말하기를 “어찌서 성부인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니, 심씨가 그 까닭을 갖추어 말하므로 남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백 번 죽음의 길을 간신히 모면하여 살아온 것이 모두 그대의 덕이로다” 하고, 곧바로 행장을 차려 홍주를 향하여 성부인 피난간 곳으로 떠났다. 한 집안 식구가 한데 모여 동시에 발행하여 아산 땅에 이르렀을 때, 하도(下道)에서 두서너 명의 적군이 뛰어 들이닥쳤다. 일행이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바리 마바리를 모두 팽개치고 각자가 모두 흩어졌다. 어떤 이는 울타리 밑에 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언덕진 숲속에 숨기도 하였다. 심씨는 어린 것을 안고 계집종 한 사람과 한 곳에 숨어 있더니 어디 있는지 궁금하여 머리를 들고 몰래 두리번거리더니, 그 어머니 송씨가 적군에게 잡혀 살해당하려는 듯하였다. 심씨가 급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함께 숨고 있던 계집종에게 내어 주면서 말하기를

“일이 급하다” 하고 몸을 날려 나가려 하니 그 계집종이 잡아당기려 하였으나 벌써 적군에게로 달려가서 적군이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를 죽이고 어머니를 살려달라” 하였다. 적이 드디어 심씨를 사로잡아 결박하여 앞으로 나아가려 하니 심씨가 땅에 엎드리어 일어나지 않으니 적이 첩편으로 마구 때렸다. 그런 다음에 잡혀 가는 사람을 시켜, 함께 붙들어 말에 태우려 하였다. 심씨가 몸부림을 치며 말에서 떨어지기를 서너 번이나 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적이 또 결박을 지어 말에 실었다. 심씨가 말에서 거꾸로 매달리어 큰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 오랑캐놈들아 왜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느냐”고 악을 쓰며 적을 욕하니 오랑캐 한 놈이 드디어 성이 나서 긴 칼로 함부로 찔러서 말 아래로 내리치고 다시 송씨를 죽이려 하니 곁에 있던 놈이 급히 구하여 말렸다. 오랑캐 둘이 서로 죽은 심씨의 시신을 가리키며, 무어라고 지껄이는 모양이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짐작으로 그 사절(死節)을 높이 우러르는 것 같았다. 그 뒤에 두 놈의 오랑캐는 말을 달려 떠나 버렸다. 심씨의 죽음으로 그 어머니만 죽기를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심씨의 지성이 아니라! 그 때 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할 때면 매양 목이 막히어 울었다 한다. 적이 떠난 뒤에 남편이 심씨의 시체를 거두어 행중에 있던 이불로 싸서 마을가에 고빈하였다. 이 때에 심씨의 나이가 서른 한 살이었고, 그 안고 있던 어린 것은 낳은 지 겨우 육개월이라 심씨가 세상을 떠난 후 열흘이 못 되어 죽었다. 이 사실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하였다. 그 때 사람들이 그 정문의 뜻을 요약하여 표현하기를 “몸을 돌보지 않고 적에게 뛰어드는 일은 사내 대장부도 오히려 어렵거늘, 죽기를 자기 집에 돌아가듯 하여 열녀와 효도의 두 일을 완벽하게 하였구나”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1417년(태종 17)~1475년(성종 6).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범옹(泛翁), 호는 희현당(希賢堂) 또는 보한재(保閑齋). 공조참판 장(樞)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지성주사(知成州事) 정유(鄭有)의 딸이다. 1438년(세종 20) 사마양시 생원, 진사시 등에 합격하여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었다. 이듬해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농시 직장이 되고, 1441년 집현전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1442년 국가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자 서장관으로 뽑혔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참가하여 공적이 많았다. 중국음을 훈민정음인 한글로 표기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성삼문과 함께 유배중이던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의 도움을 얻으려 요동을 열 세 차례나 내왕 하였는데 언어학자인 황찬은 그의 뛰어난 이해력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1447년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응교가 되고, 1451년(문종 1)에는 명나라 사신 예

겸 등이 당도하자 왕명으로 성삼문과 함께 시짓기에 나서 동방거벽(東方巨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해 사헌부 장령·집의를 거쳐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52년(문종 2)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갈 때 서장관으로 추천되어 수양대군과의 유대가 이때부터 특별하게 맺어졌다. 145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오른 뒤 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쳤다. 같은해 수양대군이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외직에 나가 있었으나 일찍이 밀모에 참여한 공으로 수충협책정난공신 1등에 책훈되고 곧 도승지에 올랐다. 1455년 수양대군이 즉위한 뒤에는 동덕좌익공신의 호를 받고 고령군에 봉하여졌다. 이어 주문사로 명나라에 가서 새 왕의 고명을 청하여 인준을 받아온 공으로 토전·노비·안마·의복을 함께 받았다. 1456년(세조 2)에 병조판서로서 국방에 필요한 외교용대의 일을 위임받아 사실상 예조의 일을 전장하게 되었다. 곧이어 판중추원사가 되어 판병조사를 겸하고 우찬성이 되어서는 대사성까지 맡았다. 1457년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459년에는 좌의정에 이르렀다. 이 무렵 동북방면에 야인의 침입이 잦았는데 그는 강경론을 펴 1460년에 강원·함길도의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야인정벌을 위하여 출정하였다. 군사를 몇 개 부대로 나누어 여러 길로 한꺼번에 진격하는 전략을 펼쳐 야인의 소굴을 크게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1462년에 영의정부사가 되고, 1464년에 지위가 너무 높아진 것을 염려하여 사직한 적이 있으며 1467년에 다시 예조를 겸관하였다. 이듬해 예종이 즉위함에 유명으로 승정원에 들어가 원상으로 서무를 참결하고, 같은해 이른바 남이의 옥사를 처리하여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의 호를 받았다. 이듬해 겨울에 예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에게 후사(後嗣)의 택정을 서두를 것을 건의하여 대통의 승계에 공이 컸다. 성종이 즉위함에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의 호를 받고 영의정에 다시 임명되었다. 노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고, 1472년(성종 3)에는 『세조실록』·『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세조 때부터 작업을 해온 『동국통감』의 편찬을 성종의 명에 의하여 그의 집에서 총관하였다. 또 세조 때 편찬하도록 명을 받은 『국조오례의』의 개찬·산정을 위임받아 완성시켰다. 여러 나라의 음운에 밝았던 그는 여러 역서를 편찬하였으며 일본·여진의 산천 요해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동제국기』를 지어 일본의 정치세력들의 강약, 병력의 다소, 영역의 원근, 풍속의 이동, 사신내왕의 절차, 우리측 관계의 형식 등을 모두 기록하여 일본과의 교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1475년(성종 6)에 일생을 마쳤다. 세조는 죽음을 앞두고 “당 태종에게는 위징(魏徵), 나에게는 숙주(叔舟)”라고 할 정도로 세조와의 관계가 깊었다. 이러한 관계는 사육신·생육신을 추앙하는 도학적인 분위기에 서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대에서는 그의 정치적·학문적 영향력은 큰

것이였다. 그를 좋게 평가하는 표현으로는 “항상 대체를 생각하고 소절에는 구애되지 않았다” 든가, “큰일에 처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는 강하(江河)를 자르듯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과거시험의 시관(試官)을 열 세 차례나 하여 사람을 얻음이 당대에서 가장 많았고 예조판서를 십수 년, 병조판서를 여러 해 동안 각각 겸임한 것은 드문 일이였다. 이렇게 특별한 배려는 외교·국방면에서 그의 탁월한 능력에 따른 것으로서 저술 대부분이 이에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대교린의 외교문서는 거의가 그의 윤색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송설체에 뛰어났다고 한다.

전하는 필적으로는 송설체의 유려함을 보여주는 「몽유도원도」의 찬문과 진당풍의 고아한 느낌을 주는 해서체의 「화명사예겸시고」 등이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저서로는 『보한재집』이 전하는데 1644년(인조 22)에 7세손 숙이 영주군수로 있을 때 교서관본 완질을 얻어 간행한 것이다. 현재 사당은 청북면 고잔리 905(원고잔)에 조선 철종초(1850년대)에 신숙주, 성종의 부마인 신항(申沆, 1477~1507), 중종의 부마인 신의(申義, 1530~1584) 등 3위의 위패를 모시기 위하여 고령신씨 일문과 지방유림의 협력으로 세워졌으며, 1988년 중수하였다. 또한 향토유적 8호로 지정한 '신숙주 영정 및 감실주독'이 보관되고 있다. 영정(影幀)을 봉안한 구봉영당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 있고, 묘소는 양주 송산리(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다. 좌의정 강희맹이 행장을 지었으며 묘지(墓誌)는 예조판서 이승소가 글을 짓고, 이조판서 정난중이 글씨를 썼다.

신치(申直)

조선시대 팽성의 선비, 교육자. 진사과에 합격한 선비로서 자는 사직(士直)이고 본관은 평택이다. 문장과 재주와 덕행이 조그만 한 고을에 그치지 않을 인물이다. 비록 운수가 통하지 않아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모두 낙방에 그치고 말았지만, 가르친 사람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셋이고, 상사(上舍)에 오른 사람도 여덟이 있었다. 낙향한 뒤에도, 높은 벼슬을 한 분들의 발자취가 그치지 않을 수 학하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만년에는 경학의 연구에 몰두하여 고향에 서실(書室)을 세우고 후진들을 불러들이어 몽학(蒙學)의 길을 여니, 책을 등에 지고 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심히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엄격한 교육 지침을 만들어 강업(講業)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팽성현은 본디부터 문풍(文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더니 이때부터는 후생들이 차차 공부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여 대과·소과의 초시에 합격하는 자가 서로 이었고, 혹은 한 마을에서 한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대여섯이 되기도 하였다. 남구만(南九萬) 정승이 아산에 귀양와서 있을 때에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아들과 손자들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니 그 편지를 지금껏 전한다. 만약에 문장과 경학이 높지 않았다면, 남 정승의 경대가 이렇게 융숭할 수가 있겠는가? 뒤에 『팽성지 彭城誌』를 지었다.

심순택(沈舜澤)

1824년(순조 24)~1906년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치화(稚華)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고려말 위사사의 승(丞:종 6품) 심홍부로부터 13세손이다. 1850년 문과에 급제, 1852년 한림초시에 합격하여 1853년 홍문관 교리, 1857년 안병군 군수, 1861년 부제학으로 이조참의가 되었으며, 1862년(철종 13) 예방승지(1874년(고종 11)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1878년 예조·형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881년에는 개항 이후 개화자강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신설, 개편하였던 통리기무아문사, 율레사의 당상경리사가 되어 사무를 관장하였고 다시 기계군 물반선당상이 되어 신무기제조 및 군사훈련을 청나라에 의뢰하는 한편 일본 군사시설의 시찰을 장려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에 도봉소 당상으로 있었고 군란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었다. 1884년 우의정, 그 뒤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뒤 새롭게 조직된 수구당내각에서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에 대한 이권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분쟁 사이에서 정치적 고충을 겪었고, 오토리(大鳥圭介) 공사의 강압적인 내정 개혁요구에 직면해서는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 직후 보수적 새 정부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과 함께 새로이 의정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공홍식 옥중살해사건이 계기가 되어 독립협회의 탄핵을 받고, 체직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1900년 4월 황제의 칙령으로 공훈이 대훈위·훈·공으로 나누어 8등급으로 분류 제정된 후, 1901년 공훈 1등 태극정을 수여 받았으며, 1902년 이화대훈장을 받고 원로 대신들이 들게되는 기사(耆社)에 들어갔으며, 황제로부터 궤장을 받고 궤장연의 배품을 받았다. 또한 청녕공에 봉해졌다. 벼슬을 그만둔 뒤 국정은 점차 일본의 주도권하에 드는 망국에 들게 되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원로 대신들인 기사에 있던 대신들은 특진관 조병세를 위시하여 모두 울면서 조약반대를 하였으며 특히 조병세 등 수 명이 자결하고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특히 심공은 매국노를 규탄하고 원로 대신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혼란기에 관직에 나아가 국운과 함께 한 심공은 수 83세인 1906년 숙환으로 타계하니 후손들이 생전에 만들어 놓았던 진위면 봉남리 선영에 모시고 후일 향리로 삼아 내려온다. 묘에는 묘비·망주석·문인석·석등 등이 있고 하단에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의 원문은 규장각 대제학·김학진(1838년:문인)이 찬하고, 당대의 서도

가 민병석(시종원, 대훈위)이 썼으며, 두전(頭篆)은 의정부 참정 김성근(1835~1918:서도가)이 써서 그 규모나 필체가 화려하다.

안구현(安九鉉)

일제 강점기. 오성면 출생의 독립운동가. 1920년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부장 이시영으로부터 밀명을 받고 고향인 평택에 잠입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다. 2월 18일 진위군 오성면 숙성리 김태연을 방문하여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 명의의 독립군 군자금 모금 지령서를 제시하고 일만원을 모금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28일 경성지법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1924년 11월 26일 형 변경으로 4년 4개월 13일 만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안육만(安六萬)

1900년~1980년. 오성면 안화리 출생의 독립운동가로 이명은 융만(隆萬)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대대적인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되자 경기도 각지에서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걸쳐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진위에서도 3월 11일 오후 5시경 약 5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여 이 지역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날의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다 해산되었다. 3월 18일에도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3월 하순 경부터 주변의 수원·안성 지역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던 상황과 때를 같이 진위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일 진위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밤 1천여 명의 시위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다. 일본경찰이 출동하여 해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위군중은 완강히 저항하였다.

안화리에 살던 그는 이날밤 청북면 백봉리 일대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 안희문·황순태·정수만·홍기성 등 수십 명의 호응을 받으면서 선두에 서서 격렬한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시위 군중에게 발포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를 주도하던 그도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는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안재홍(安在鴻)

1891(고종 28)~1965년. 한국 근·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정치가·독립운

동가·언론인·역사학자이다. 호는 민세. 1891년 12월 30일 고덕면 두릉리에서 안윤섭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청일전쟁의 전흔이 지나간 이곳에서 7세 때에 한문을 배웠는데 동네에서 으뜸이었고 훗날 큰 학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1907년 평택의 사립 '진홍의숙'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수원의 기독교계 학교로 진학하여 단발을 하고 서울 '황성기독교청년회(현 YMCA)' 중학부에 입학한다. 이곳에서 그는 이상재, 남궁억, 윤치호 등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10년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조국 독립을 위해서는 더 넓은 시야와 국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으나 월남 이상재의 권유로 일본으로 가게 된다. 1911년 9월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 입학, 다양한 학문을 습득한다. 책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밤을 새워가며 정치학·경제학·인류학·문학 등 다양한 신지식을 습득하고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를 결성, 조만식·송진우·장덕수·이광수 등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한다. 또한 일본유학 기간중 상해·북경 등지를 여행하면서 해외독립운동을 위해 망명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1914년 와세다대학 본과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로 결심하고 귀국을 서두른다. 일본에서 귀국한 민세는 1915년 5월 육당 최남선의 추천으로 인촌 김성수가 인수한 '중앙학교' 학감으로 재직한다. 이 시기 민세는 교육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젊은 학생들에게 독립 의식 고취에 애를 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일본 경찰에게는 늘 못마땅한 것이었고 결국 일제는 인촌에게 압력을 넣어 그는 중앙학교를 사임한다. 그리고 잠시 '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로 재직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택과 안성에서 대규모의 만세 운동이 전개되자, 이병헌과 함께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직접 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1919년 5월 '대한청년의교단'에 가입하여 총무가 되어 활동한다. 이 단체는 상해임시정부에 국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 모금 책임을 맡은 비밀단체였으나 11월에 일경에 발각되어 1차 옥고를 치른다. 겁이 많아 3·1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솔직한 민세는 이때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첫 독방 감옥생활은 그에게 심한 타박상과 이후 평생을 괴롭힌 허리병을 얻게 했다. 1922년 만기 출옥후 1924년 4월 '언론집회압박탄핵운동' 실행위원과 '물산장려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1924년 최남선이 사장으로 있던 《시대일보》 논설기자로 입사했으나 그해 7월 《시대일보》가 보천교의 경영 개입으로 분규가 발생하자 그만두었다. 1924년 9월 신석



■ 안재홍 초상



■ 안재홍 기념사업회 창립대회

우가 운영하던 《조선일보》에 주필 겸 이사로
입사하고 이후 사설 980여 편 시평 470편을 통
해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언론의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조선사정연구회', '태
평양문제연구회'에 참여한다. 이 시기 그는 언
론을 무기로 국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1927년 2월에는 좌우합작의 '신간회' 운동에
참여해서 총무간사로 활동한다. 1920년 민족운
동사의 커다란 흐름인 '신간회' 운동은 당초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운동을 전

개하던 '연정회'의 활동이 일제에 대한 타협으로 흐르자, 이를 염려한 좌우 민족진
영이 뜻을 모아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근간을 세우려는 뜻에서 출발한 운동으로 그
는 언론계 대표로 한용운, 홍명희 등과 함께 참여한다. 그는 춘원 이광수 등이 주장
한 자치운동은 소아병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일제에 대한 비타협 노선과 독립운
동의 협동전선을 강조했다. '신간회'는 국내의 운동전선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
주의 운동의 분열상이 뚜렷한 가운데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역량을 한곳으로 모
으려는 것이 근본취지였다. 그는 총무 간사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신간회'의 이념을 전파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다. 일제의 '고등경찰요사'에는 민세가 '신간회' 상주지회설립 기념강연에서
행한 연설의 내용을 특히 인용하면서 "논봉이 예리하고 조선 통치의 근본을 찌르고
있다"고 평하였다. 1928년 1월에는 사설 '보석지연의 희생'으로 2차 옥고를 치르고
5월에는 사설 '제남사건의 벽상관'이 문제가 되어 3차 옥고를 치른다. 1929년 1월
조선일보 부사장에 취임해서 '생활 개선운동'을 주도했으나 그해 12월 '광주학생
사건 진상보고 민중대회' 사건으로 4차 옥고를 치른다. 1931년 1월에는 「조선상고
사 관견」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5월에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다. 1932년 3
월에는 일제에 의해 만주동포 구호의연금 유용을 구실로 5차 옥고를 치르며 4월에
조선일보 사장직을 사임한다. 1934년부터는 위당 정인보와 함께 『여유당전서』 교
열작업에 참여하여 한국 실학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섰다. 1936년 '군관학교사
건'으로 6차 옥고를, 이어 '홍업구락부사건'으로 7차 옥고, 다시 "군관학교 사건"
형확정으로 8차 옥고를 치른다. 이 시기 민세의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대
사와 실학에 대한 연구라고 할 것이다. 신채호의 저작을 《조선일보》에 소개하기도
했던 그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서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진행하였
다. 그리하여 「단군 연구」 「정약용 연구」와 같은 글을 저술하고 1940년부터는 필생

의 작업인 『조선상고사』 저술을 위해 고덕면 두릉리에서 칩거하며 연구에 몰두한다. 오늘날에도 고조선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은 민세의 연구가 이룩한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사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1942년 12월에 그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생애 아홉 번째 옥고를 치른다. 일제가 한국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은 회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감금으로 최현배·이희승·정인승·이극로·한정·김윤경·홍명희·안재홍 등이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그는 일제치하에서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비타협민족주의자로 양심을 지킨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이다. 일제는 항상 그를 요시찰인물로 감시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논리에 동조하며 친일의 길로 들어선 반면 민세는 조선학 연구를 통해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고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힘을 기울인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민세의 활동은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진다.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의 이름을 직접 짓고 적극 참여한 민세는 1945년 9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탈고하면서 해방후 좌우분열을 극복하고 민족국가수립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은 독립운동사의 다양한 경험을 집약하고 새국가 건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그의 역작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 백남운의 「신민주주의론」과 함께 한국근·현대 정치사상사에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세의 정치사상은 계급을 초월한 통합민족국가의 건설로 민족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화해와 순정 우익의 집결에 의한 중간우파 노선이며 극좌·극우에 편향되지 않는 민족자주노선으로 만민공생의 균등사회 건설로 지금까지 왕과 지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와 피지배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 국가를 수립하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 민족주의로 협력과 평화 공존의 민족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민세의 '신민족주의론'은 독특한 수리이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었다. '다사리주의'로 알려진 그의 사상은 '다섯'에서 유래된 다사리의 어원 분석을 통해 만민공생과 대중공영의 이상을 나타내는 한국고대 정신에서 사상의 연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1946년 1월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 남조선 대한민국대표민주위원 등으로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2월 《한성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벌인다. 그 해 7월에는 좌우합작위원회 우측 대표로 지명되어 민족주의 진영의 단결을 위해 헌신했으나 실패하고 1947년 2월 미군정이 민정 이양을 위해 준비한 과도입법위원회와 민정장관에 취임한다. 그의 민정장관 취임은 좌우합작의 노력이 점차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북에 좌익정권에 들어서고 남한에서는 한민당과 이승만이 결합하여 반민족적 정부 수립 음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을 돕고 있는 미군정으로 하여금 민의에 가까운 정치가 되도록 협력

하고 남한의 민주주의가 제모습을 잡아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바라던 그의 꿈은 미소 냉전의 심화 속에서 뜻을 잃고 김구와 함께 이끌던 한독당도 국내파와 해외파의 갈등으로 해체되고 김규식, 여운형, 홍명희와 '시국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좌우합작에 노력하나 실패로 끝나고 만다. 1948년 『조선상고사감』을 간행하고 그해 6월에는 민정장관직을 사임한다. 1949년 5월에는 『한민족의 기본진로』를 간행한다. 1950년 5월 그는 평택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선거 직후 자신의 예견대로 좌우합작에 실패한 남북 양측은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겪게되고 민세는 한강 철교가 끊어져서 서울에서 은거하다가 9월 21일 인민군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9월 26일 납북된다. 납북 후에 그는 조소앙 등과 함께 1956년 '평화통일협의회' 최고위원으로 평화통일에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1965년 3월 1일 북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한다. 그의 장례는 일제 치하에서 함께 활동한 홍명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으며 서울에서는 3월 9일 이인, 이범석, 여운홍, 이은상, 최현배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해 없는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그의 유해는 평양 교외 야산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89년 그의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해서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추서 하고 현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 '무후선열제단'에 위패를 모셔놓고 있다. 1993년에는 두릉리 생가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99년 가을 민세안재홍 선집 5권이 완간되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그의 친필 원고가 전시되어 있다. 홍명희, 정인보와 함께 한국근현대 3대 천재로 알려질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높은 절개를 가진 국가적인 선비라서, '고절의 국사'로 평가받는 그에 대하여 원로 언론인 송건호는 민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민세는 일제하 40년간 인생의 대부분을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하다가 감옥살이로 많은 세월을 보냈고 8·15 해방 후에는 운명의 장난이랄까 정계에 말려들어 격동기 속에 휘말려들었다가 6·25후에는 납북되는 등 평생을 불우한 속에 보낸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는 천성이 학자다. 언론인이어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야심이 없는 그는 민정장관이 되고서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자리를 이용해서 정치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차파 세력을 부식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거짓 없고 순정한 인간으로 온갖 고초를 겪은 민족지도자로 존경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정치인이면 으레 몸에 지니고 있어야할 권모와 술수, 당락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일제 수난기와 해방후의 거센 파도 속에서 시대적 희생자로서 인생을 마친 비극의 주인공이다. 민세의 비운은 결코 민세 개인만의 비운이 아니라 민족의 비운을 대신 떠맡은 것이었다.” 『송건호 '안재홍' 한국현대인물사론』.

안처후(安處后)

1666(현종 7)~1736(영조 12). 조선후기의 효자. 자는 재숙(載叔). 본관은 순흥. 벼슬은 봉직랑(奉直郎)을 지냈다. 1693년(숙종 19) 아버지의 병환을 5개월 동안 돌보는데, 약을 지어 드리기 위해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때에 맞추어 드시게 하였다. 또한 목욕 재계하고 하늘에 아버지의 완쾌를 빌었으며 변을 맛보아 그 증세를 파악하고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드러 목숨을 연장하게 하였다. 돌아가심에 미쳐 모든 것을 예법에 맞게 성의와 예를 극진히 하였다. 1700년 80 노모의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리고, 변의 맛을 보는 일들을 아버지 때와 똑같이 하였다. 어머니의 장사를 치를 때는 어머니의 병이 전염되어 힘을 쓰기 어려웠지만 그 예를 잃지 않았다. 뒤에 형 안처중(安處重)이 나이 들어 중풍으로 돌아눕지 못하니 형을 위해 밤낮으로 시봉하며 지성으로 구호하였다. 1727년(영조 3) 청주에서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이 진위에 주둔하게 되자 집안의 식량을 군량으로 바쳐 사기를 진작하였다. 진위현의 유림들이 효행을 조정에 알려 포상하도록 건의하였다. 묘소는 진위면 마산리에 있다.



■ 안처후 묘소

안철수(安喆壽)

죽산군 방준공(邦俊公)의 후손으로 1843년(현종 9) 때 사람이고,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 등을 거쳐 승정원 좌승지(고종)에 올랐다.

안효인(安孝仁)

1544(중종 39)~1628(인조 6). 조선후기의 생원. 자는 행원(行源), 호는 만사(晩沙), 본관은 순흥. 율곡 이이에게서 학문을 배워 1568년(선조 1)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사후에 통훈대부·사헌부집의(通訓大夫司憲府執義)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진위면 마산리에 있으며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행록과 참판 김학순(金學淳)이 지은 묘갈이 있다.



■ 안효인 묘소

오달제(吳達濟)

1609년(광해군 1)~1637년(인조 15). 병자호란 때 3학사의 한사람으로 충신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윤휴(允誥)의 아들이다. 평택 이충리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21세 때 부친상을 당했고, 탈상후 1634년(인조 12) 26세 때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전적·병조 좌랑·시강원 사서·정언·지평·수찬을 거쳐, 1636년에 부교리가 되었다. 이때 후금의 세력이 날로 커져 청제 건원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무섭게 위협하여 왔다. 이에 화친을 위하여 주화파 최명길 등의 주장으로 사신을 교환하게 되자, 임금을 속이고 삼사의 공의를 위협, 제지하여 임의로 사신을 보낸 최명길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겨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난함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그의 상소문을 보면 그의 기개를 알수 있으니 “신에게 병사 수 만을 주시고 적을 치라 하시면 격월검(隔月劍)을 백두산에 갈아 도화마(桃和馬)에 두만강 물을 마시게 한뒤에 적의 창자를 밟고 피와 티끌을 씻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화친으로 기울어져 청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하게 되었으며, 인조가 청군에 항복하게 되자 청나라에서는 전쟁의 책임을 척화론자에게 돌려 이들을 찾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윤집과 더불어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서서 적진에 잡혀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적장 용골대는 그의 뜻을 꺾기 위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 살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라고 하고 저들의 말을 좇으면 오랑캐가 되고 마는 것이라 하여 끝까지 항변하였다. 그는 마침내 심양성 서문 밖에서 윤집·홍익한과 함께 1637년 3월 처형을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3학사라 하여 그들의 절개와 충성을 높이 기리게 되었다. 그는 묵매화(墨梅畵)에도 뛰어났는데 어몽룡·조숙·허목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명나라의 묵매화풍을 영향받아 구도가 조금은 번잡한 감을 준다. 그의 그림은 『묵매도 墨梅圖』 2점이 전하며, 이러한 구도의 묵매화는 뒤의 조지운·홍수주·박동진·조희룡·이공우 등의 묵매화에 영향을 주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廣州)의 현절사, 평택의 포의사우(褒義祠宇), 홍산의 창렬서원, 영주의 장암 서원, 고령의 운천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충렬공유고 忠烈公遺稿』가 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평택에서는 그의 덕을 기리는 유허문비(遺墟文碑)가, 이충동의 옛 집터 뒷편에 세워져 있다.

오성환(吳成煥)

1895년~1964년.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본관은 해주(海州). 3.1운동이 평택지

방에서 일어나자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읍사무소, 주재소 등지를 돌면서 만세시위를 외쳤다. 그리고 경부선이 부설되어 읍내에 일인들의 잡화상과 고리대금업자들이 거주하면서 모리배 행위를 일삼자 일본인 배척운동과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일본인은 일시적인 사기의 저하로 세력이 위축되었다.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백정들의 신분적인 타파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자 평소 사회개혁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어 곧바로 공주지사를 설립하여 형평사의 성원으로 가입했다. 공주를 중심으로 백정의 신분해방운동을 진행하면서 국지적인 운동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달게 되었다. 이에 전국적인 차원의 운동과 다른 사회단체와의 제휴를 위해 본부를 대전이나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24년 2월 부산에서 형평운동의 재정난 타개책, 자녀 교육문제, 본부이전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개의 지사, 분사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형평사의 보수계열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되고 말았다. 귀로에 뜻을 같이하는 20여 명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대전회의'를 개최하고 전라·강원·평안도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형평사 혁신회를 발기하고 본부의 이전을 결의했다. 같은해 3월에는 천안에서 형평사 혁신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본부를 서울로 옮길 것을 결의하고 장지필 등 5명과 함께 준비위원회 선임되었다. 또한 회원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평잡지의 발간, 피혁공장의 설치 등도 채택했다. 그리하여 4월에 장지필과 더불어 형평사혁신동맹 본부를 서울에 설치하여 15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총회를 개최해 진주의 형평사 본부와 대립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5일 전국의 31개 지·분사대표들이 대전에서 형평사 통일대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진주·서울의 두 조직을 해체하는 동시에 조선 형평사 중앙총본부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가결되었다. 다음 날의 조선형평사 임시대회에서 조사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서무부 백송계·재무부 조귀용·교육부 이이규·사교부 이지영·산업부 이학찬 등과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섰다. 이후 진주측에서 대전대회의 불인정과 혁신계에 중상 공격을 가하여 왔다. 이리하여 9월에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지필의 퇴거와 그의 중앙위원직 사퇴를 결정했으며 통일방략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었다. 1925년 4월 24~25일에 서울 시천교당(侍天教堂)의 전조선 형평대회에서 이학인·이춘봉 등과 21인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임되었다. 동년 7월에는 천안군 입장면의 사립보통학교에서 구태의연하게 백정 자녀에게 차별대우를 하자, 70여 명의 지·분사 대표들과 현지에 가서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주도했다. 또 1925년 8월 경북 예천의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결사대를 조직하여 사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그 능력을 발휘했다. 나아가 별동기관으로 형평청년회·형평학우동맹·형평여성동맹 등과 긴

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치안유지법이 공포되어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자 1926년초 만주로 망명했다. 그곳에서 정의부(正義府)의 양기탁·고할신·천도교 혁신파인 김봉국·이동구 그리고 노령에서 온 이규봉·주진수 등과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다가 12월 정보수집을 위해 장춘에 있는 동아정미소에 은신 중 이동락 등 고려혁명당원 16명과 함께 체포되어 신의주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928년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고 같은해 10월 10일 평양 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석방후에도 불굴의 저항정신으로 일제의 탄압에 대항하였고 지속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오창선(吳昌善)

1884년(고종 21)~?. 독립운동가. 본관은 해주(海州). 진위군(振威郡: 평택시 오성면)출생.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이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자 동료들을 규합하여 경부선 철도의 폭파를 계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민족산업의 발전과 물자절약에 의한 국채보상을 통해 민족의 자립경제를 달성하려는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하여 주권의 회복은 민중의 의식개혁에 있음을 인식하여 문맹퇴치와 미신타파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1907년 구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일제의 헌병경찰정치와 같은 폭압적인 상황하에서 이런 운동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1919년 4월 3일 독립만세 시위가 있자 마을 사람 김용성·공재록·이사필 등과 함께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평택읍내의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1920년 2월 상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온 안구현·이택화·강희선이 평소 애용하던 그를 찾아와 독립군의 군자금 모금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받고 모금방법을 생각했으나 별다른 묘안이 없어 이들에게 부근에 사는 부호가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여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2월 18일 진위군의 부호 김태연(金台淵)을 방문하여 당시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었던 이시영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고 군자금의 모금에 협조를 정중하게 부탁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다음달 2일경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전혀 반응이 없자 모의권총으로 위협하여 현금 100원을 강탈하였다. 또 3월 10일 이민화를 방문하고 모금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자 협박하여 현금 1,000원을 마련토록 했다. 3월 19일에도 이민화를 방문하여 110원을 모금하였다. 군자금을 강제로 빼앗긴 이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일대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삼엄한 수색이 있었다. 이들은 집에서 은신중 주

위의 밑고로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석방 후에도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오학린

조선시대의 효자. 본관은 해주(海州). 양성현(陽城縣: 평택) 출신. 어려서부터 어른을 대함에 정중하였고 효성 또한 견줄자가 없었다. 부친이 병이 있자 정성을 다하여 모셨으며 점점 악화되어 위급한 상태에 이르자 밤마다 목욕재계하고 북쪽을 향하여 4번 절을 하고 천지신명께 기원하였다. 또 경각에 미쳐서는 허벅지의 살을 베어 시탕하기를 세 차례나 계속하여 효험을 보았다. 하루는 부친께서 꿩고기를 드시기를 원하여 꿩을 찾아 며칠 밤낮을 헤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허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였다. 이때 수꿩 한 마리가 집으로 날아 들어와 이를 잡아 부친의 마음을 흡족케 하였다. 이에 효행은 온 고을에서 칭송되었고 장례원에서도 효행을 기려 효자비를 1903년 4월 너터리 장터에 세웠던 것을 1942년 4월 8일 청북면 어소리로 이전 건립하였다.

우례순(禹禮舜)의 처 임씨(任氏)

조선시대의 열녀. 사과(司果) 우례순과 혼인하였다. 하루는 도적이 침입하여 남편을 살해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남편을 막아서 구하고 자신은 그 칼에 맞아 죽었다. 후에 관아에서 열녀로 정표하였다.

우빈(禹濱)

조선시대 충신. 내금위(內禁衛)로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왕에게 아뢰어 역을 덜고 복호(復戶)가 되었다.

원결(元潔)

원주인으로 군자감정공의 8세손이고 현령 고성공의 고손으로 1665년(현종 6)을 사년에 출생하였다. 1704년(숙종 30) 갑신에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통정대부, 위원진 병마첨절도사에까지 오르고 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고 합폄봉축(合窆封築)이고 비문과 상석 등이 있다.

원경의(元景義)

자는 여현(汝賢)이고, 군자감정공의 14세손이요, 현감 적성공의 10세손이다. 1855

년(철종 6) 을묘년에 출생하였고 고종조에는 내부참서의 벼슬에 임하고 그후 통훈대부에 이르렀다. 묘는 도일동 간좌향(艮坐向) 선영하(先營下)이다.

원국량(元國良)

본관은 원주이고, 조선조 성종 때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증손으로 출생 하였다. 용모가 단정하고 청빈한 생활로 일관해온 공은 기골도 장대하여 준수한 인품을 지녔다. 1490년(성종 21) 사마시에 급제하고, 전생서직장의 관직에 올랐다. 그후 1498년 무오년(연산 4)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낙향하여 초야에서 여생을 마쳤다. 사후 증직으로 승의랑에 배수(拜授)되었고 묘는 도일동에 자좌향(子坐向)이고, 부인과 함께 쌍분(雙墳)으로 있으며, 석물로는 상석과 비석 그리고 망주석이 있다.

원권(元權)

원주인이고 원몽(元蒙)의 10세손으로 적성공의 6세손이다. 자는 성흥(聖興)이고, 1749년(영조 25)에 무과에 급제하고 중추부사에 올랐고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에 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 선조묘하(先祖墓下)이고 쌍분봉(雙墳封)으로 많은 석물이 있다.

원균(元均)

1540년(중종 35)~1597년(선조 30). 조선중기의 무신. 본관은 원주(原州). 고려 태조때의 통합삼한공신 병부령 극유(克猷)의 후손이다. 도일동에서 준량(俊良)의 장남으로 태어난 뒤 무관으로 자질이 뛰어나 일찍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거쳐 조산 만호로 있을 때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공이 컸으므로 부령부사로 특진되었다가 다시 종성으로 옮겨 병사 이일(李鎰)을 따라 시전부락을 격파하는데도 공을 세웠으며 1592년(선조 25)에는 왜적의 침입이 예상되니 선조 임금은 장군의 용맹을 살펴보고는, 육군의 장수에서 경상도 우수영의 수군절도사로 발령을 내고 나라의 방비를 맡겼다. 그해 4월 13일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양국간의 전쟁준비 격차로 개전초부터 일방적인 패주의 연속이었으며 거진(巨鎭)의 명관들은 다투어 도주하고 백성들은 모두 산간으로 피난하여 성읍이 텅빈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수군 제일의 요충인 경상좌수영의 군사는 수사 박홍(朴泓) 이하 전 장병이 도주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 궤멸되었으며, 경상우수사 원균은 즉시 척후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경상남도 해역을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조정과 전라좌수사 이순신(李舜臣)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고군분투하였다. 몇 차례에 걸친 원병요청 끝에 마침내 이순신의 원병이 도착하자

합세하여 옥포(玉浦)·당포(唐浦) 등지에서 연전연승하였는데 이때 육지의 서울이 왜적들에게 함락되었을 때 었다. 이때 원군장군은 특별한 방법으로 매번 적을 쳐부셨는데 이 방법은 '당포'라 하여 우리 군함으로 적선에 돌진하여 적의 배를 깨버리는 것으로서, 당시 왜적의 배는 삼나무로, 아군의 배는 소나무로 되어있어 우리 배가 더 견고하고 튼튼한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적의 조총·활 등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라 보통의 용맹과 담력으로는 힘든 것이라 하나 장군은 과감히 나갔으니, 임진란 초기 적병을 1개월간 전라도 해역에 진출 못하게한 것은 숫적 열세를 용맹으로 막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포상과정에서 이순신과의 공로 타툼이 심하여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급기야 1593년 8월 이순신이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직에 임명되어 지휘권을 장악하자 크게 반발하였으므로 1594년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고, 얼마후에 전라좌수사로 전속되었다. 병사로 재직중에도 여러 차례 수군작전에 관한 계획을 조정에게 건의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여러번 수사로 재기용할 것을 검토하던 중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서울로 잡혀가 국문을 받게 되자, 1597년 1월에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되어 이순신을 대신하여 삼도수군을 통제하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때 왜적이 조선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 수군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 아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인 것을 모르고, 조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삼도수군을 이끌고 부산에 있는 왜적 수군 2만 병력의 적을 공격하였다. 이때 권율장군과 합동으로 육지와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나, 권율장군은 수군이 먼저 나가 싸우라 하고, 원군장군은 육지의 주둔지를 공격해야 섬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간첩 요시라의 간계로 권율의 주장대로 먼저 수상전을 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경상도 전역의 함대를 이끌고 정유년 7월 14일에 출동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적과 조우하고 맹렬히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여 칠천량에 머물렀는데 적은 육지에서 내려보고 있다가 기습하여 아군의 수군들은 제대로 작전함이 없이 무너져,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랐으나 적병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여 적들에게 둘러싸여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최후를 마쳤다. 1604년 이순신·권율과 함께 선무공신 1등으로 책록되어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원릉군(原陵君)에 추봉되었다. 1605년 왕이 내린 치제문과 숙종 때의 대사헌 김간(金幹)이 찬한 통제사원군증좌찬성공행장이 있었다.

원길상

1759년(영조 25)~1818년(순조 18). 본관은 원주(原州)로 호자. 진위현 좌우동(左右洞; 현재 송북동) 출생. 자는 군경. 호는 양성제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섬김에 성심과 절조를 다하여 식사를 몸소 받들고 동난(冬煖)을 일일이 살폈다. 1771년(영조47)에 모친이 병환으로 오랜 기간을 누워계시자 주야로 시약(侍藥)하였고 위중함에 이르자 단지관혈(斷指灌血)하는 효행을 실천하여 효험을 보았다. 우상(憂喪)하여서는 고례(古禮)에 따라 안장하였고 묘앞에 여막을 짓고 3년간을 시묘(侍墓)하였고 상을 마친 후에도 두문불출하고 모친에게 다하지 못한 효를 한탄하였다. 계모를 봉양함에도 항상 온화한 안색으로 정성을 다하였고, 병으로 구노(劬勞)함에는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계모상을 당해서는 친모와 다름없이 슬픔으로 3년상을 치루었다. 1894년(고종 32) 진위유림의 품의에 의하여 조봉대부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추증되고 효자정문의 홍은(紅恩)을 받았다. 정문은 도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평 규모의 목조와가이다.

원명(元溟)

원주인으로 군자감정공의 8세손으로 현감 적성공의 고손이다. 1679년(숙종 5) 기미년에 출생하였다. 1719년(숙종 45) 기해년에는 무과에 오르고 그후 벼슬이 용양위 부호군에 이르고 절충장군에 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으로 자좌향(子坐向)이고 합평(合窆)이다.

원몽(元蒙)

조선 건국 후 양주 송산에 은거하다가 1398년 도일동으로 이주하여 원주원씨 600여 년 세거지의 입향조이다. 벼슬은 증손 원준량이 높은 벼슬에 올라 증직으로 통훈대부 군자감정이 되었다. 배(配)는 숙인 진주 소씨(소을충의 여식)이다.

원비(元玘)

원주인이고 군자감정공 원몽의 6세손이며 현령인 고성공의 손자이고 자는 자미(子美)이다. 조선 선조 1년(1568년) 무진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온순한 성품으로 효행도 지극하여 인근에서 많은 호평을 얻었다. 1633년(인조 10)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승정원 좌승지 및 겸 경연참찬관에 오르고 후에 통정대부에까지 올랐다. 묘는 이충동 자좌향이고 합평(合窆)으로 석물로는 상석과 망주석 등이 있다.

원사달(元士達)

1576년(선조 9) 원주원씨 원몽(元蒙)의 후손으로 출생하였고, 1608년(선조 41)에 향시에 급제하여 장사랑까지 올랐다. 그후 통정대부에 오르고 관직을 사임하고는

고향인 도일동으로 낙향하여 후학에 힘써왔다. 묘는 도일동 입토에 합폄(合窆)하였고, 비석과 묘비, 상석(床石) 등 석물이 있다.

원사립(元士立)

1569년(선조 2)~1610년(광해군 2) 무신이며 효자이다.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진위현 여방면 여좌리(汝坐里: 도일동) 출생. 자는 현경(顯卿). 충절공(忠節公) 정(挺)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무예에도 뛰어났다. 1591년(선조 2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훈련원주부·도홀도사·군기시정을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난을 당해서는 서천군수로 재직하였는데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왜적의 살상약탈이 심하여 이를 방어하고 백성들을 안위하게 하였다. 이에 진주목사 겸 진주진병마첨절제사로 승진하였고 후에 김해부사를 역임하였다. 난이 끝난 후 향리로 돌아와 못다한 효행을 닦우치고 폭풍한설을 가리지 않고 부친의 묘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추복하였는데 3년간 시묘함에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상을 끝낸지 얼마 안되어 병으로 타계하였다. 이에 1805년(순조 5) 조정에서는 생부 적성현감공의 뒤를 이어 효자정려를 하사하여 양세(兩世)의 충효각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정문은 도일동에 있고 묘는 도일동 내리에 있으며, 배(配)는 숙부인 고성이씨이다. 묘갈의 음기는 우찬성을 지낸 송환기(宋煥箕)가 지었다.

원사웅(元士雄)

1575년(선조 8)에 출생하였고, 원몽(元蒙)의 5세손으로 원균의 독자이다. 18세에 임진란이 일어나 연소한 나이로 아버지 원균을 따라 종군하였다. 선조 실록 권 50 선조 27년(1594) 4월 신미조에 보면 “승정원에서 이르기를, ‘원균이 여러 번 병기를 올리고, 이번에 또 대소 조총을 보내 70여 자루에 이르렀으니, 이를 보아 그 전공을 알 수 있다. 벼슬을 올려줌이 마땅하다’ 하여, 선조는 그것을 가지고 온 공에게 직을 제수하라”고 하였다. 또 선조 30년 2월 을축조에는 “이덕형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순신이 당초에 원균을 모함하여 말하기를, ‘원균이 조정을 속인다. 그의 아들이 12살 인데도 군공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원균은 ‘내 아들의 나이가 18살이며 이미 궁마에 능하다’고 하면서 이순신을 추궁하며 서로 논란하는데 원균이 옳았고 이순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라고 하여 공이 무술에 능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원균이 패전할 당시에 같이 전사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나라에서는 적평책훈2등으로 하여, 증직으로 훈련원정을 내리고 원릉군에 추봉(推封)하였다. 묘는 진위면 마산리에 있으며, 배(配)는 창원 성씨이다.

원사진(元士震)

원주원씨이며, 원몽(元蒙)의 5세손이고 식(植)의 장남이다. 1731년(영조 7)에 전국의 팔장사관 별호를 얻을 정도로 힘이 세고 무술에 뛰어났다. 특히 심하도강(深河渡江) 등에 공적을 쌓아 나라에서 어모장군과 선전관에 제수하였다. 묘는 도일동 양좌향이고 배(配)는 함평이고 석물로는 비석과 상석이 있다.

원사철(元士喆)

원주원씨이며, 원몽(元蒙)의 5세손이며, 식(植)의 차남이다. 1664년(현종 5) 갑진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1694년(숙종 20)에는 영맹과 무용(武勇)을 인정받아 호국공신이 되었고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및 용양위, 부호군에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에 있고 함평이다.

원수의(元壽義)

원주원씨이며, 자는 화경(化慶)이고, 호는 학봉(鶴峯)이다. 군자감정공의 14세손으로 1861년(철종 12) 기미년에 출생하였다. 진위향교의 직장으로 역임하면서 문묘전각(文廟殿閣)에 많은 보수사업을 실현하였으며, 1930년 경오년에 인생을 마쳤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다.

원순빈(元舜賓)

원주원씨이며, 조선조의 무인이다. 군자감정공 원몽의 7세손이고 고성공의 증손. 1628년(인조 6) 무진년에 출생하였고 1660년(현종 1) 경자년에 무과에 급제 하였다. 벼슬이 동지의금부사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올랐고 후에 가의대부 호조판서에까지 올랐다. 묘는 월곡동에 자좌향이고 함평으로 상석과 망주석 등이 있다.

원심창(元心昌)

1906년~1973년. 본관은 원주이고, 독립운동가이다. 팽성읍 안정리 출신. 1918년 평택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3·1운동때 향리에서 참가한 뒤 1920년 서울의 중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뒤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을 주도하기도 했고, 박열(朴烈)과 같이 흑우회(黑右會)에 가입하였다. 졸업한 후 1923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고, 1924년 8월 무정부주의 계열의 노동조합인 동흥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25년 9월에는 무정부주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북경·상해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포들을 설득하였다. 1926년 5월 이 사상을 구체적으로 전파하고 무정부주

의 실천을 위하여 행동기관지로 『흑우 黑右』 제2호를 발간, 이를 널리 홍보하였다. 이어 1928년까지 흑풍회와 흑우연맹을 결사하면서 무정부주의 사회실현 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1929년 4월 일본 동경유학생학우회의 이른바 폭력행위사건으로 3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다. 1931년 4월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더욱 강화하였다. 같은해 6월 흑색공포단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 8월에 귀국하여 11월에 텐진(天津) 일본영사관과 일본 병사(兵舎) 등 주요 일제기관을 폭파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듬해 3월 1일 항일선전문을 등사하여 상해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동포에게 배포, 선전하였다. 이때 흑색공포단 단원과 회합하고 주중일본공사가 장개석의 만주포기 및 열하지방 대일무저항주의를 책동하는 음모문제를 폭로, 저지시키기 위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3월 17일 이강훈·백정기 등과 같이 주중일본공사를 폭살시킬 목적으로 중국 상해공동조계 무창로(武昌路)에 있는 육삼정 부근의 중국요리점 '송강춘(松江春)'에서 통과를 기다리던 중 일본첩자의 밀고로 모두 잡혔다. 1933년 11월 일본 나가사키지방재판소 2심에서 백정기와 같이 무기징역, 이강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일본소재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징역 20년으로 변경되어 1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옥하였다. 잠시 고향에서 휴식한 후 1946년 도일하여 박열(朴烈) 등과 신조선건설동맹을 창설하고 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어 10월 5일에는 이를 해체하고 재일조선거류민단을 세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1951년 4월 민단중앙단장에, 1953년 7월에는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대표위원 겸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1959년부터 계몽지 《통일조선신문》을 창간하여 재일동포들의 조국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자 한국 민족자주통일동맹 일본본부를 결성하여 대표위원에 피선되었다. 유해는 망향(望鄕)의 동산에 안치되어 있으며 1977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원연(元堧)

1543년~?. 자는 광보(廣甫)이며, 호는 충절(忠節)이다.

도일동에서 준양(俊良)의 차남으로 태어나, 큰집인 수양(遂良)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1567년(현종 8)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지내다가, 왜적이 쳐 들어와 경기도로 올라오자 진위가 한강 남쪽의 요충이니 지켜야 한다고 재산을 털어 진위현안의 청년들을 모았으며, 병기를 만들어 의병을 조직하였다. 진위현 남쪽 산루(山樓)에 진을 치고 적의 복상을 방비하던 중, 용인의 김량장리에 왜적이 들어와 머문다는 소식에 정예병을 거느리고 적진에 쳐들어가 대패시켰다. 이후 각 읍에서도 군사를 모집하여 왜적을 물리치니 왜군은 경기좌도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연기현감에 특배하였다가 적성(경기 파주시)현감 겸 양주진관 병마절제도위로 전보시켰다. 적성현감 재직시 고을에 불이나서 농사가 황폐되고 촌락이 비게되자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였고, 황무지를 개척하는 등 정사를 잘 돌보아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관찰사와 의견이 맞지않아 사임을 하고 향리에 돌아와 벼슬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1829년(순조 29)에 나라에서 임진창의훈에 들게하고, 이조참의 적성공에 추증하였으며, 전란시의 충절을 높이 사서 도일동 안골에 충절정여(忠節旌閭)를 하여 후손들이 받들게 하였다.

원엽(元爌)

원주인이고 원몽(元蒙)의 12세손이고 고성군의 8세손이다. 자는 자유(子維)이며 1725년(영조 1) 을사생이고 1830년(순조 30) 병인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오위장을 거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에 이르고 말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인생 70 고령으로 인생을 마쳤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子坐向)이다.

원임(元任)

1419(세종 1)~미상. 조선초 문신. 본관은 원주. 원몽(元蒙)의 손자. 1433년(세종 15) 문과에 급제하고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관을 지냈다. 항상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지며 말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낙향해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원군의 공덕으로 가선대부·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同知義禁府事)에 추증(追贈)되었다. 도일동에 묘소와 문관석(文官石)과 석상(石床), 동자석(童子石) 등이 있다.

원오상(元五常)

원주원씨이며 군자감정공의 11세손이고 적성공의 7세손으로 1768년(영조 44) 무자년에 출생 하였다. 자는 서경(瑞景)이고 1796년(정조 20) 병진년에 향시에 급제하고 첨지중추부사와 통정대부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고 합폄으로 석물은 대형상석이 있다.

원의(元懿)

본관은 원주이며, 자는 성백(誠佰)이고, 군자감정공의 12세손이며 적성현감공의 8세손 이다. 1801년(순조 1) 신유생이고 1892년(고종 29) 대왕대비 승하시에 봉능간 양주하였고 성효지심이 특출하여 왕의 특명으로 1893년에 통정대부에 제수 되고 동년 11월에는 돈녕부도정으로 1895년 가선대부, 동영부사에 올랐다. 묘는 도일

동 자좌향(子坐向)이다.

원저(元摺)

본관은 원주이며, 원몽(元蒙)의 10세손이고, 현감인 적성공의 6세손이다. 1725년(영조 1) 을사생이고 성품이 인자효우하고 온화강직하였다고 한다. 1781년(정조 5) 신축년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오르고 그후 다시 통정대부사에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子坐向)이다.

원전(元典)

(?~1597년). 원균의 세째 동생으로 도일동 내리에서 출생하였다. 임진년 왜적이 침입하자 고성현령으로서, 원균 휘하의 종사관으로 종군하였다. 정유재란시 원균과 함께 해전에 나가 전사한 것으로 본다. 통정대부 선전관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이충동 직촌에 있고 배(配)는 숙부인 덕수 이씨이다.

원제승(元濟昇)

원주원씨이며 자는 문도(文道)이다. 군자감정공의 15세손이고 1884년(고종 21)갑신에 출생하였다. 조선말기에 현대교육에 입문했던 인물이었다. 이청천(李青天)장군과 동기생으로 일찍이 한성부주사를 역임하였다. 그후 고향인 송탄 2대면장직으로 봉직하였으며 면장 당시 일본경찰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용을 보여, 거물면장이란 호칭으로 일컬어졌다.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 당시 그의 활약으로 체포되었던 향리인 도일동 양민들은 모두 풀려나왔다고 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35년에 지상을 하직하니 일세를 풍미한 인물로 추인되었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다.

원준량(元俊良)

1455(세조 1)~미상. 조선초 무신. 원몽(元蒙)의 증손. 1461년(세조 7)에 무과에 급제한 후 예조의 관상감 봉사, 춘추관 기사관, 세자시 사서, 홍문관 교리 등을 거쳤으며 1577년(선조 10)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부임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관직을 퇴하고 향리인 도일동으로 낙향하였다. 그의 아들 원균이 선조 때의 무관으로 선무일등공신(宣武一等功臣)이 되자 부친인 원준량은 증직으로 평원부원군에 봉해지고,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으로 추서되었다. 도일동에 묘소와 대형상석(大型床石)과 장군석, 신도비 등의 석물(石物)이 있다.

원지(元遲)

원균의 네째 동생이며, 광해군~인조때의 무관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평안도의 삭주도호부사로 재임하였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 삭주군민이 선정공덕비를 세워 받들었다.

원치(元埴)

본관은 원주이며, 벼슬이 승지에 이른다. 군자감정공의 고손이고, 직장공의 아들이다. 1654년(효종 5) 갑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예빈시부정에 올랐다. 그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가정대부 등에 올랐다. 묘는 도일동 양좌향이고 쌍분(雙墳)을 배설(配設)하였고, 석물로는 상석(床石)과 망주석(望柱石)이 있다.

원태의(元台義)

자는 광삼(光三)이고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4세손이며 적성현감공의 10세손으로 1850년(철종 1) 경술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용양위 부사과를 역임하고 승훈랑 그리고 시종원 시종이 되고 후에 선략장군에 올랐다. 묘는 도일동 양좌향이고 합폄으로 상석과 망주석 등이 있다.

원현상(元顯常)

원주원씨로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1세손이고 적성현감공의 7세손으로 자는 군명(君明)이다. 그는 1777년(정조 1)생이고 1820년(순조 20) 병진년에 무과에 오르고 벼슬이 동지의금부사에 이르렀고 그후 가선대부, 이조참판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에 있다.

원홍노(元弘老)

원주원씨이며 원몽(元蒙)의 9세손이고 적성공의 5세손으로 1712년(숙종38) 임진년에 출생하였고 1744년(영조 20) 갑자년에 진사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사복시정(司僕寺正)에 까지 올랐다. 후에 통훈대부가 되었다. 묘는 도일동 양좌향이다.

원홍좌(元弘佐)

원주원씨이며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9세손이고, 고성공의 5세손으로 1694년(숙종 20) 갑술년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고 그후 자헌대부에 올랐다. 묘는 이충동 자좌향이고 합폄으로 석물은 상석뿐이다.

원후(元厚)

본관은 원주이며, 자는 윤집(潤集)이고 군자감정공의 13세손이고, 적성현감공의 9세손으로 1835년(헌종 1) 을미년에 출생하였다. 1862년(철종13) 임술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안군수 겸 황주진관 동침병마절도사도위가 되고 그후 통정대부 동지돈녕부사에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子坐向)이다.

원후덕(元厚德)

원주원씨이며 자는 덕수(德修)이고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3세손으로 1859년(철종 10) 기미년에 출생하였다. 왜정초기 진위군 여방(송탄)면장직을 역임하였고 면장재임시 면정쇄신을 위해 많은 진력을 함으로써 거물면장으로 추인되었다. 1919년 세상을 떠났으며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다.

원후등(元厚鄧)

원주원씨이며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3세손이고, 고성공의 9세손으로 1802년(순조 2) 임술년에 태어났다. 1830년(순조 30) 경인년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첨지중추부사에 이르고 후에 통정대부에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 합편이고 상석과 망주석 등 석물이 있다.

원후복(元厚馥)

원주원씨이며 자는 ○芳이다. 군자감정공의 13세손이며 현감인 적성공의 9세손으로 1801년(순조 1) 신유년에 출생하였다. 1830년 경인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교관에 올랐다.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고향의 진위관가와 지방의 유림에서 나라에 장계(狀啓)함으로서 1893년(고종 30) 갑오년에 효자로 인정되어 효자정려를 내리고 정문을 세워 그의 효심을 받들어 왔다. 왜정초기 유폐(類廢)되어 지금은 형적을 찾을 길 없고 그의 후손들이 지난날 조상의 지극했던 효심을 추억하고 있을 뿐이다.

원후풍(元厚豊)

원주원씨이며 자는 덕재(德裁)이고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3세손이고 적성공의 9세손이다. 1801년(순조 1) 신유년에 태어났다. 1835년(헌종 1) 을미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장흥현감 겸 경주진관 병마절제도위에 이르고 후에 좌사랑도위, 경력무신 겸 선전관과 통정대부까지 올랐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 합편이고 신도비와 대형상석 등이 있다.

원후황(元厚晃)

원주 원씨이다. 군자감정공 원몽(元蒙)의 13세손이고 적성현감의 9세손으로 1836년(헌종 2) 병신년에 출생하였다. 1858년(철종 9) 무오년에 무과시에 오르고 용양 위부사과에 올랐다. 그후 승차되어 선략장군에까지 오른다. 묘는 도일동 자좌향이다.

유원협(柳遠協)

1885년~1942년. 본관은 진주이며 지산동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순결하고 결백하였으며, 1934년 경에 부락의 문맹인들을 위하여 사비를 들여 30여 평의 강당을 목조 와가로 건축하여 학문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인접 부락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락의 전기 가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광명의 부락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좌동 부락 주민들이 높은 산과 바다와 같은 공의 은덕을 기리기 위하여 1943년 8월 15일에 시혜 불망비를 지산동 821-3번지에 건립하여 공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유원협 시혜 불망비

윤주성(尹柱聖)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우정(又庭)으로 관직은 좌승지이다. 판서공인 승례(承禮)의 계파로 판도공(版圖公)의 20세손이고, 부 윤현(尹璵:이조판서)공의 장자로 오성면 금곡리에서 고종 때 태어났다. 일찍이 한문과 서예에 능통하고 또 품행이 인자효우의 후덕한 선비였다. 20세 때 문과에 오르고 벼슬이 승차함에 따라 승정원 부승지 그리고 우승지(정 4품)에 올랐다. 1910년 국사에 뜻이 없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와서 후학에 힘써오다가 1945년 8·15 해방과 동시에 80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집(尹集)

1606년(선조 39)~1637년(인조 15).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현감 형갑(衡甲)의 아들이며, 남양부사 계(槩)의 아우이다. 고양군 출생이며, 강화읍 월곶리 우거.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을 따라 공부하여 1627년(인조 4) 생원이 되고 163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설서가 되고 1636년 이조정랑·부교리를 거쳐, 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국왕과 조정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난을 피하였으나 청병에게 산성이 포위되어 정세가 극히 불리하게 되었다. 최명길(崔鳴吉)등이 화의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오달제 등과 함께 화친의 사신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으며 최명길이 국왕의 뜻을 움직여 화친의 일을 성립시키고자 입대(入對)하여 승지와 시관을 물리치도록 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옛날 화친을 주장하여 사필(史筆)의 베임을 피할 수 없었던 진희(秦檜)와 같은 대간도 감히 사관을 물리치지 못하였다고 극렬한 말로 규탄하였으며, 국왕이 대간을 꺼리지 않고 오직 사특한 의논만을 옹호하고 간사한 신하만을 의뢰하면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경고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 측에서 척화론자의 처단을 주장하여 오달제와 더불어 소를 올려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청병에 의하여 북쪽으로 끌려갈 때도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여 청병이 오히려 감복하여 존경하였다고 한다. 청나라에서 고문과 회유등으로 그의 뜻을 돌리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항변하자 마침내 심양성 서문밖으로 끌려가 사형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오달제·홍익한과 더불어 삼학사라고 이른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光州)의 절현사, 강화(강화)의 충렬사, 평택(平澤)의 포의사(褒義祠宇), 홍산(洪山)의 창렬서원, 영주(英州)의 장암서원, 고령(高靈)의 운천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태지가 강화읍 월곶리 615번지에 있는데 현재 건물은 없고 밭으로 변하여 비석만 남아있다. 1884년(고종 21)에 세워진 비석 앞면에는 '충신고학사 윤집택지'라고 새겨져 있으며, 비문은 김로진이 글을 짓고 황운조가 썼다.

윤현(尹璵)

1856년(고종 7)~?.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원장(元章)이며, 호는 황제(檀濟)이다. 영구(營久)의 아들로 영신(榮信)에게 입양되었다. 1885년(고종 22) 문과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규장각직각이 되었으며, 서장관에 임명되어 동지사 조병식을 수행하여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7년에 홍문관응교·시강원 겸사서가 되었으며 이어 성균관대사성·우부승지·이조참판·협판내무부사·사헌

부대사헌 등을 지냈다. 1896년에는 나주부관찰사로 부임하였으며 1902년에는 궁내부특진관·시강원첨사가 되었다. 1903년 태의원경이 되었고, 이어 특명전권공사로서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듬해 경상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으나 재임시 도내 각 군의 민전(民錢)을 거두워들었다 하여 면관되었다. 말년에 고향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마쳤다. 묘는 청북면 토진리 산마루이며 양좌향이다.

이강세(李康世)

전주인 기동(紀東)의 아들이며, 청북면 원덕우리 206에서 1904년 갑진생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장성함에 따라 농촌의 빈한함을 늘 탄식하였다. 당시 농민들은 매년 다가오는 한수해와 풍수해 그리고 해일 등으로 농경을 실패하고 극도의 국빈을 면치 못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었다.

그는 농민의 생활 현실이 해마다 다가오는 재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유 재산인 일화 당시 이십오만엔(백미 오천 가마)의 거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수리 안전 관개사업과 해일 방지를 위한 방조제 축조공사를 1940년 청북면 옥길리로부터 건너편 포승면 흥원리를 건너막는 해안 간척지 제방공사를 착공하였다. 3여년 동안 공사기금 조달을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된 사유전답 연간 3,900여 석의 수확 농지 중 우선 1,000여석 분의 농지, 안성의 500석 분을 매각하고 다음해 김포의 300석지 그리고 청북 어연리 땅 300석 분 등 도합 1,100석 분의 농지를 처분하여 제방공사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3년의 공정보로는 도저히 완공을 볼 수 없는 방대한 공사이고 공사비는 계속 투자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그런 중에 무슨 악운인지 1944년 일제의 대동아전쟁의 최종단말기 인생 41세의 청춘을 일기로 주택 뒤 산록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그후 그의 사인은 구구한 억측이 많으나 일설에 의하면 추악한 일제로부터 거금의 비행기헌납 기금을 내라는 극심한 독촉으로 이를 거절치 못하고 그들의 성화와 보복이 두려워 자결하였다 한다.

이개백(李介伯)

1540년(중종 35)~1615년(광해군 7)때의 효자. 본관은 양성(陽城)이고 평택 죽백동 출생이며,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 봉상(鳳祥)의 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그 뜻을 봉친하는데 두었다. 성장하여서는 부모를 봉양하는데 주력하였고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측하였다. 부모가 연로하여 병환으로 구노하자 백방으로 영약을 구하여 시탕하였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의복을 마련함을 손수하였다. 병세가 위급해져서는 대변의 맛을 보고 상태를 가름하였고 사경을 헤메일 때는 단지화혈(斷指和血)하는 효행을 실천하여 한 달 동안이나 연명케 하였다. 또 한 번은

집에 불이 났으나 부모가 빠져나오지 못하였음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등에 업고나와 구출하였으나 자신의 모발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 거우(居憂)하여서는 묘앞에 여막을 짓고 소채와 염장을 일체 멀리하고 죽만으로 연명하여 쇠상하기를 6년간 하였다. 또 상을 마친 후에는 조모를 성묘함을 연로하도록 하였다. 한편 명종의 상을 당하여는 3년간 심상하였으며 인성왕후와 인순왕후의 상을 당해서는 국기 기간 동안 일체의 고기를 멀리하였으니 충효란 본래 같은 것임을 입증한 예이다. 향림에서는 그 효행을 품의하여 조정에 포장을 청함에 국가에서는 전악서참봉의 실직을 제수하고 효자정려와 복호(復戶)를 명하였으니 이때가 1615년(광해군 7)이다. 죽전동 서울농원내에 정각의 유지가 전하며 묘는 실전하였다. 그 묘지명이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에 전하는데 이는 효종때 좌의정을 지낸 조익(趙翼)이 지었다.

이경춘(李慶春)

1925년~?. 독립운동가이며 포승면 출생이다. 경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교사가 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에 분노를 느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1939년부터 사회주의의 이념에 심취한 이현상과 동지적인 결합을 맺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친일파와 일인의 고관을 사살하기로 결의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42년 4월 5일 봉래동(현 서울 만리동)의 주낙원 집에 장의찬·성익환·최과·남삼갑 등과 모여 정식으로 흑백당을 결성하고 선언문·강령·규약 등을 제정하였다. 흑백당의 결성 직후 김성근과 함께 가입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흑백당의 실천행동으로써 친일파 처단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일인 고관과 거상(巨商)들이 밀접한 옥정(旭町, 남산동 일대)을 방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광복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격문을 각처에 살포하고, 특공대를 조직하여 경북중학교의 무기고에서 소총 3자루와 실탄 및 총검을 빼내어 준비해 두었다. 이같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동조자였던 보성전문학교 김창흡이 귀향 도중 1943년 10월 충북 괴산경찰서에 체포되어 가택 수색과정에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당원들은 긴급 회합을 갖고 국내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여 모두 광복군에 투신하기로 했다. 이들은 1~2명씩 조를 이루어 만주의 신민에 집결하기로 하고 1943년 12월 초부터 만주로 향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1944년 1월 만주의 심양·신민·승덕 등지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1944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8·15 해방으로 출옥 하였다.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로 1977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이광좌(李光佐)

1674년(현종15)~1740년(영조16). 문신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진위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이다. 오성부원군 항복(恒福)의 고손이며, 공주목사 시현(時顯)의 손이고, 장령(掌令) 세귀(世龜)의 자이다. 박장원의 외손이 되고 판결사 만회(萬恢) 임시(林蓍)의 사위이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청환직을 두루 거쳤다. 1697년 부수찬, 1708년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이어서 이조참의를 지냈다. 1715년(숙종 41)에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6년 숙종이 소론을 배척하면서 윤선거의 문집을 훼손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파직당하였다. 1718년 예조참판으로 등용되었고 경종이 즉위한 1721년 호조참판을 거쳐 사직(司直)이 되었다. 재직 중 왕세제(王世弟 영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경종으로 하여금 이를 취소토록 한 뒤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켜 노론을 제거하였다. 이후 소론이 집정하자 예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좌부빈객과 병조판서를 거쳤다. 1723년(경종 3) 재상의 반열에 들어 우의정이 되었고, 영조가 즉위하자 영의정에 올랐으나 노론정권이 들어서면서 파직당하였다. 1727년(영조 3)에 정미환국으로 다시 영의정에 오르면서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숙종실록』과 『경종실록』의 보유편을 편찬하였다. 1729년 치사(致仕)하였다가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해에 영조에게 탕평을 상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막도록 건의하였고, 영조의 간곡한 부탁으로 노론의 민진원과 제휴하여 노·소론의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때문에 영조의 재위기간 중에는 비교적 극심한 당쟁이 없었다. 1733년(영조 9) 봉조하가 되었고, 1737년 세 번째로 영의정이 되었으나 박동준의 모함으로 올분 끝에 단식하다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1755년 나주의 궤서사건(卦書事件)으로 관작을 추탈당하였으나 1773년(영조 49)에 다시 복관되었으며, 1776년 다시 관작의 추탈이 있었으나 1788년에 복관되면서 시호가 내려졌다.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운곡실기 雲谷實記』가 남아있다. 묘소는 진위면 동천리의 선영(先塋)내에 있다.

이규창(李奎昌)

1900년~1970년. 한학자·독립운동가이다.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출생이다. 3월 중순경 서울에서 3·1운동의 만세시위를 보고온 최은식·이덕순 등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거사일과 책임자를 선정하였다. 3월 28일에는 내가천리 이시련 집에 모여 4월 1일 일제히 모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4월 1일 오전 이양섭·이덕순 등이 참여를 권유하며 주민들을 동원하자 주민들과 더불어 원곡면사무소로 갔다. 1,000여 명의 시위대는 면장과 면서기를 선두에 세우고 태극

기를 주어 독립만세를 부르게 한 후 양성으로 향했다. 양성의 경계인 성은고개(현 만세고개)에서 독립만세의 취지와 시위에서의 행동방침을 전달하여 각자 몽둥이와 돌 등을 휴대하고 9시경 양성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양성면민들과 합류한 시위군중은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주재소로 몰려가자 순사와 순사보들은 기세에 눌려 도망가고 없었다. 시위대의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햇불과 돌을 던져 주재소를 방화했으며, 양성우편소도 기물을 파괴하고 서류는 소각하였다. 또 우편소 근처의 전신주를 도끼로 절단해 통신을 두절시켰다. 동항리에 있던 일인 잡화상 외리여수와 고리대금업자 용수지의 집도 습격하고 이어 면사무소도 파괴했다. 시위군중은 뒷산으로 올라가 햇불로 연호하며 독립만세를 부른 후 해산하였다. 원곡의 시위대는 귀가하면서 4월 2일 새벽 4시에 원곡면사무소의 건물을 습격 방화하고 해산했다. 이후 일본의 진압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다른 곳의 친척집이나 인근의 산속으로 피신하였다. 일본의 회유책에 의해 체포되어 안성경찰서로 압송, 갖은 고문을 당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소요선동죄·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석방 후 고향에서 한학을 가르키며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 3·1운동에 대한 공으로 1977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묘는 죽백동에 있다.

이기찬(李基燦)

1875년 진위면 태생으로 유년기는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한말 한성재학시는 함태영(咸台永) 부통령과 같이 수학하였다. 법관양성소를 나온 후 변호사업을 서울에서 하였고 임정중기는 중추원참의까지 역임했다. 8·15 해방전에는 평양으로가 득병(得病)하고 1944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평택 사람으로는 일제강점기 범조인으로는 그가 최초이다.

이덕순(李德順)

1877년(고종 14)~1966년. 독립운동가. 본관은 전주(全州).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內加川里)출생. 3·1운동이 파급되자 같은 마을의 이시련 집에 3월 28일 최은식·이유석·홍창섭 등과 모여 만세운동을 모의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면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또 저녁에는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태극기를 비밀리에 제작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기밀의 유지를 위해 각 마을을 단위로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의 책임 하에 주민을 동원하도록 하고 4월 1일 최은식·이근수 등과 내가천리와 외가천리의 주민들에게 오늘 저녁에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가 있으니 주민들은 모두 참석할 것

을 권유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1,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운집하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후 면장 남길우와 면서기 정종두를 끌어내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세에 놀려 두려워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군중들로 하여금 동시에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도록 했다. 만약 이것마저도 거절한다면 후사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자 군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면장과 면서기는 연단 위로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을 시위대의 선두에 세우고 태극기를 주어 양성면으로 돌진하게 했다. 시위군중이 양성면의 경계인 성은고개에 도착하자 잠시 쉬게하면서 오늘 거사에 있어서의 행동지침을 전달하였다. “조선은 곧 독립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더 이상 필요없으므로 관내의 경찰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파괴하고 일본인도 몰아내자”고 열변을 토하였다. 고무된 군중은 나뭇가지를 꺾어 몽둥이를 만들고 횃불을 밝혀 주재소가 있는 양성면 동항리로 나아갔다. 시위대는 양성면 시위대와 합류하여 2,000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이들은 밤 10시경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벌였지만 고야병장(高野兵藏)과 한국인 순사보 2명은 이를 못본 체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시위군중과 함께 횃불을 던져 주재소의 건물과 기밀을 파괴·방화하고 마을의 중앙에 있던 우편소도 파괴했다. 또 일본인 잡화상 외리여수와 고리대금업자 용수지 집도 습격하여 방화하고 이어 양성면사무소도 습격하였다. 시위군중은 통신시설을 단절시키기 위해 안성으로 통하는 전신주를 절단했다. 원곡의 시위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도중 4월 2일 새벽에 원곡면사무소를 습격 방화하였다. 4월 2일 아침 식사후에는 젊은 청년들만을 규합, 평택으로 나아가 경부선의 차단을 기도하다가 수비대의 진압소식을 듣고 피신하였다. 일본군경의 추적을 피해 용인군 모현으로 이거하여 병직(炳稷)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은거생활을 계속하였다. 이후 12년 만에 이웃의 밀고로 체포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석방되어 평택읍 울성리로 이거하여 여생을 보내었다. 1977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묘소는 평택시 지제동에 있다.

이동백(李東伯)

1867년(고종 4)~1950년. 조선 말기 판소리 5명창의 한 사람으로 국창의 반열에 오른 중고제의 대표적인 명창이다. 또한 조선조 역사상 소리 광대로서는 유일하게 고종으로부터 정3품 벼슬을 하사받고, 국창으로 추앙받던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다. 그는 1867년(고종 4) 음력 2월 초사흘에 충남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180번지에서 편모 슬하의 유복자로 태어났으며 1939년 부민관 은퇴공연 이후 평택군 송탄면 칠원리로 이주해서 10년간 살면서 소리에 정진하다가 1950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

다. 그가 명창으로 이름을 얻은 것은 26세 때였으니 반세기 이상을 명창으로 활동했고, 또 줄곧 최고 명창의 지위를 누렸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소리꾼으로 일류 대우를 받은 사람은 이동백과 동편제 명창 송만갑뿐이었다고 한다. 서편제 소리의 명창 정정렬 같은 이도 2급 대우를 받았으니 이동백의 인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만하다.

“사내답게 후리후리한 키에 건장한 몸집, 흡이나 거친데가 없이 매끈하게 빠진 이목구비, 늙음하고 대가 바르면서도 온화한 성품, 짐잡고 엄숙하면서 친밀감을 주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매력, 어떤 옷을 입든지 몸에 잘 어울리고 멋과 귀태가 넘쳐흐르는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호뭇하게 한다. 거기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일컬을 만큼 선천적으로 타고난 맑고 아름다운 성음으로 구성, 발림, 너름새의 삼합이 조화되어 듣는 사람의 넋을 잃게 했다.” 『박황 판소리 소사』

이동백의 판소리는 경기, 충청지역의 정서에 바탕을 둔 소리로 대중의 각광을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동백은 8세 때 서당에 들어가 13세 때까지 한문 공부를 했으나 글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소리에만 흥미를 느껴 중고제 명창 김정근을 찾아가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고제’는 경기 충청 지방의 판소리로 가왕 송홍록의 매제였던 강경 출신 소리꾼 김성옥—김정근—김창룡, 이동백—박동진(심청가)에 이어지는 소리 계보로 일제 시대에는 서울 중심부와 경기, 황해도 일대에 걸쳐 유행했으며, 동편제 명창 송만갑도 중고제 편향의 소리를 했을 만큼 이동백 생전에는 한국 최고의 판소리 유파로 명성을 떨쳤다.

이후 이동백은 명창 김세종을 찾아가 소리를 배운다. 김세종은 신재효가 살던 시기에 신재효의 사랑에서 소리 사범을 한 ‘동편제’ 명창이다. 또한 명창 이날치의 소리도 익혔다. 이날치는 담양 출신으로 ‘서편제’ 시조 박유전의 제자로 그의 ‘새타령’은 훗날 이동백 더듬으로 발전하여 전승된다. 이동백은 ‘중고제’를 시작으로 ‘동편제’와 ‘서편제’를 고루 배우며 판소리의 다양한 기교를 전수 받는다. 20세 전후해서 3대 유파의 판소리 수업을 마친 이동백은 더욱 정교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 독공에 들어간다. 그는 서천의 고향 뒷산인 흐리산 용굴에서 움막을 파고 피나는 소리 수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집안 사람도 모르게 조석을 떠먹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하니 처음에는 목이 쉬어 소리는 나오지 않고 혼자서 장단 치는 소리만 탁탁 들려오다가도 자정쯤 되면 목구멍에서 실날같이 살아 나오는 소리가 어쩌나 구성지고 슬펐던지 그 목청으로 춘향전 ‘이별가’나 심청이 ‘부친 이별하는 대목’에 이르면 내 소리에 내가 감동

해서 울면서 소리를 했다. 지쳐 그대로 고꾸라지면 꿈속에 이날치, 김세종, 정춘풍 같은 명창이 나타나 그들이 먼저 한바탕씩 소리를 하고 너도 이렇게 하라는 바람에 소스라쳐 잠을 깬다. 그리고 꿈에서 시키던 대로 하면 꿈에서 들던 것과 영락없이 같이하게 되어 계속 반복하니 마음에 흡족해서 득음에 이를 수 있었다.” 『이동백 회고, 조선일보 1939. 3』

5년간의 독공을 마친 이동백은 소리를 잘하면 재상집에 드나들며 충애도 받고 만약 어전에 들어가 창을 잘하면 벼슬도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집을 떠나 팔도를 돌며 자신의 소리 실력을 펼쳐 보이게 된다. 그가 처음 능력을 인정받은 곳은 진주였다. 진주는 본래 경치 좋은 남도의 명승지로 평양과 더불어 조선 최고의 풍류지였다. 어디를 가든지 판소리의 멋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진주부사 이치용 앞에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고 창공을 지를 듯한 소리로 능력을 크게 인정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 때 창원부사 앞에서 ‘새타령’을 불러 단번에 명창에 오르게 된다. ‘새타령’은 박유전, 이날치, 이동백으로 이어진 것으로 원래는 민요였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새가 온갖 새가 날아든다.

남풍 쫓아 떨쳐나니 구만 장천에 대봉새

문왕이 나 계시니 기산 조양에 풍진새

문한 기우 깊은 회고 울고 남은 공작새

소선 절벽 칠원야에 오연장명 백학이

글자를 누 전하리 가인상사 기러기

생증장액수고난 여여불사 채난새

약수삼천리 먼먼길 서왕모의 청조새

위보가인수기서 소식 전튼 앵무새

성성채혈염화지 귀촉도 불여귀

『이동백 더듬 ‘새타령’에서』

이동백은 판소리 곳곳에 자신의 장기인 ‘새타령’을 끼워 넣어 불렀다고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새타령’은 이동백의 등록 상표처럼 되어버렸다. 이동백 더듬 ‘새타령’은 특유의 타고난 천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새소리를 모사하여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동백은 공연중 청중들이 판소리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 별안간 ‘새타령’을 불렀다. 힘이 넘친 젊은 새 우는 소리, 홀아비새 우는 소리, 달밤에 과부 우는 새소리가 일품이어서 장내는 금세 웃음 바

다가 되고 소리판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창원에서 서울에 올라와 송만갑, 김창환 등과 함께 '원각사', '장안사' 등에서 공연을 하던 이동백은 고종 황제의 칠월 생신에 '원각사'의 사장이었던 민영찬과 총무 장동환의 주선으로 어전에서 소리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동백은 고종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절창으로 판소리의 진수를 보였고, 소리가 끝난 후에는 이동백의 소리에 감동한 고종은 그에게 통정대부라는 정3품 벼슬을 하사한다. 이후 고종은 여러 차례 그를 대궐로 불러 들었다. 한 번은 고종 앞에서 천리강산을 길게 뽑아서 창을 하자 고종이 "너는 어찌서 그다지 길게 창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동백이 "천 리를 가려면 얼마나 길이 멀겠습니까?"하고 답하자, 고종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너는 진정한 명창이로구나!" 했다고 전한다.

이동백은 서구 문화의 유입과 일제 강점으로 판소리가 쇠퇴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판소리 계승과 현대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송만갑, 김창환 등과 함께 조직한 '조선성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일인 중심의 판소리를 변형시켜 다수의 창자가 등장하는 '창극' 개발에 애쓰고 후진 양성에도 애를 써서 중고제의 맥을 이으려고 노력했다. 오늘날 민속 음악의 법도와 체계는 이동백이 그 초석을 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동백은 1939년 3월 은퇴 공연을 끝으로 공식 은퇴했다. 국창의 은퇴 공연에는 당시 여류 명창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김소희, 박초월을 비롯해서 그의 중고제 소리를 전수받은 요절한 소리꾼 강장원을 비롯한 많은 명창들이 고별 무대를 함께 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칠원리에 내려와 여생을 보냈으나 해방 후에도 간간이 초청 무대에 섰다.

이동백의 소리는 '우조'를 바탕으로 단아했으며 특히 즉흥성이 뛰어났다. 판소리가 시연되는 상황에 따라 사설과 곡조를 맞춰 부르는 감각은 거의 독보적이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동백의 소리는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자들이 부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혹시 제자들이 잘못 부르면 크게 호통을 쳤고 이러한 스승의 강한 창조정신은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자 강장원의 요절과 공기남의 월북으로 그의 '중고제' 소리는 전승이 거의 끊긴 상태다. 이동백은 여러 장의 음반을 남겼다. 1926년 제자 신금홍, 김추월과 함께 녹음한 '이동백 도창창극 춘향전'은 이동백제 춘향가와 '중고제' 소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음반이며 1935년 김창룡, 정정렬, 한성준과 함께 취입한 '창극 심청전'은 한국음악 음반사에 가장 걸작이자 판소리 음반 역사상 최고의 명반이며, 판소리 근세 5명창이 함께한 음반으로 1995년 신나라 레코드에서 복원했다.

“이동백은 말년을 평택에서 보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날마다 북통을 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했다. 죽기 직전에는 이제 겨우 소리를 알만하니 죽을 때가 되었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한평생을 바치고도 판소리 예술의 넓고 깊은 세계에 끝내 이르지 못한 절망감을 표현한 말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동백의 예술 세계가 보잘 것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높은 예술적 성취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이동백의 구도자적 자세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구도자적 자세야말로 이동백의 예술세계를 지탱해준 한 중요한 동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최동현 판소리 명창론』

1950년 별세한 후 그는 칠원2리에서 왼쪽쪽으로 보이는 야산에 묻혔다. 그가 살던 생가는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1999년 겨울 유류 창고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국창 이동백을 기억하는 칠원2리 노인 최홍식씨는 이렇게 회고한다.

“10여년 전에 서울 등 각지에서 많은 국악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묘를 파서 화장했습니다. 어려서 이동백이 집과 산에서 소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늘 북을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했는데 아주 절창이었고 가끔 동네 아이들한테 소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크고 흰칠한 키에 아주 자상한 분이었고, 판소리를 배우려는 권번 기생들이 자주 다니는 것을 보았지요. 부인의 고향이 평택이라서 말년을 칠원리에서 보냈고 자식은 두지 않았습니. 양자를 두었는데 일찍 죽고 손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칠원1리에 살고 있으나 농아로 몸이 불편합니다. 생가 뒤쪽 산 밑에 부인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요. 칠원리에서 60대 이상으로 명창 이동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매(李邁)

생몰년 미상. 고려 중기 문신. 본관은 경주. 호는 상서(尙書). 고려시대 예문관, 대제학, 검교정승(檢校政承)을 지낸 이세기(李世基)의 3남으로 국당 문효공 이채의 아우이고, 사인(舍人) 이수(李蓀)의 형이다. 고려 제 25대 충렬왕 때에 벼슬길에 올라 덕망이 높았으며, 그의 덕행의 아름다운 행적은 고려, 조선을 통하여 면면히 내려왔고, 그 자손들의 번영이 또한 무궁하여 왔다.

이선좌(李先佐)

본관은 경주.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부수찬(副修撰), 전라도 관찰사, 이조 참의 등을 지내고, 1715년(숙종 41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 연경에 다녀왔다. 이듬해 윤선거의 문집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718년 예조 참판에 다시 기용되고 1721년(경종 1) 호조 참판을 거쳐 예조판서로 원접사가 되고 1723년 우의정, 1725년(영조 1)에 영의정에 올랐다가 노론의 집권으로 퇴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영의정에 오르고 실록총재관이 되어 경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보유편(補遺編)을 담당 편집하였다. 이해 영조에게 탕평책을 상소했으며 노론의 민진원과 제휴하여 노·소연립정권을 수립했다. 1733년 봉조하에 오르고 1737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박동준의 모함으로 율분 끝에 단식하다 죽었다. 묘는 진위면 동천리에 있고, 매년 음력 10월 초 1일에 향사하고 있다.

이상신(李相信)

1888년(고종 25)~1961년. 독립운동가.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출생. 1919년 3월 1일 서울을 기점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3월 10일 경에 안성읍 내에서도 첫 봉화가 올랐다. 이에 자극을 받은 원곡면 내의 최은식·홍창섭·이유석·이근수 등은 3월 28일 내가천리의 이시연집에 모여 4월 1일 대대적인 거사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날부터 원곡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소식을 전달받고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마을주민과 면사무소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청년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4월 1일 오전에도 주민들과 면사무소에 나가 만세를 부른 후 해산했다. 이어 저녁에 다시 모여 시위대에게 제작한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각 마을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시위대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원곡면장 남길우와 서기 정종두에게 태극기를 주면서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게 하였다. 시위대는 면장과 서기를 앞세우고 양성면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양성면의 접경지역인 성은고개에 도착한 시위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동자였던 이유석·홍창섭·최은식 등이 번갈아 연설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곧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일본의 정책을 시행하는 관청은 필요 없기에 양성·원곡면의 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를 파괴하고, 일본인을 지역내에서 축출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시위군중에게 각자 나뭇가지로 몽둥이를 만들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돌을 준비하게 하였다.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행진하여 오후 10시경에 양성주재소에 집결한 양성면의 시위대 1,000여 명과 합류하여 2,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시위대는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주재소에 투석을 시작하였다. 주재소에 있던 순사 고야병장과 순사보 2명은 못본 척하면서 슬슬 도망했다. 대형 태극기를 휘둘러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횃불로 주재소의 건물과 숙직실을 방화하였다. 이어 마을의 인가 속에 있던 우편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기물은 끌어내 소각하였다. 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협잡을 일삼던 일본인 외리여수가 경영한 잡화점과 고리대금업자인 용수지의 집을 방화했다. 이때 청년들은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전신주를 절단하였다. 시위대와 함께 귀가하면서 다음날 새벽 4시경 원곡면사무소를 파괴·방화하고 이어 평택으로 나아가 경부선 철도의 운행을 방해코자 하였으나 일제의 진압대가 원곡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량을 파괴한후 산속으로 피신했다. 이후 일제의 가족에 대한 협박과 원곡면장의 회유에 의해 동료들과 함께 4월 19일 마을 뒷산에 모였다가 체포되어 안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건조물방화죄·소요선동죄·보안법위반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공로로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죽백동 선영에 있다.

이성길(李成吉)

경주이씨로 팽성현 누리(樓里)에서 거주하였다. 경신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인조 25년 병자호란시 충청감사 정세관의 영병 휘하의 전초관(前哨官)이었다. 광주행도(廣州行都)시 적병의 공격을 당하여 부하 장졸을 인솔하고 응전하였으나 과불기적(寡不己敵)으로 일시 후퇴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적의 대군과 결전하여 전후좌우로 분전 용맹을 다하였지만 그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후 나라에서는 공의 충열을 기려 군자주부에 추증하고 충신명정하였다.

이성렬(李成烈)

1878년~1943년. 덕망가. 본관은 양성(陽城). 비전동 출생. 자는 화중(和仲). 향사(鄉士) 동병(東炳)의 자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자수성가하여 평택 공립보통학교 후원회장, 평택 상업조합장에 추대되었다. 1919년 흉년을 당하여 받아드린 소작료 300여 석 전량을 평택읍 9개리의 빈민들에게 희사하여 이들을 구휼하였다. 이후에도 세모, 추석 때에는 빈민들에게 쌀·복어·미역 등의 제수를 베풀었다. 1920년 주민들이 고마움을 기려 평택시 덕동산록에 시혜비를 세웠고 후손들이 영모각(永慕閣)을 건립하였다. 평택시 보호문화재 4-1호로 지정되었다.

이성부(李聖符)

1583년(선조 16)~1624년(인조 2). 조선중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 자는 존중(存中). 참봉 문익(文益)의 아들이며, 도일동의 원주원씨 문중이 외가로 6세 때에 도일동으로 이주하여 평택인이 되었다. 부친 이문익(1558~1588)이 양주군 남면 신산

리에 살면서 원연(元筵)의 딸을 맞아 들였으며, 여기서 아들 성부를 얻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 원씨는 아들과 함께 본가로 이주하여 성부를 키운다. 성품이 강직하고 의협심이 높았으며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고 이어 비변사 남관으로 정승 이덕형·이항복의 공첩(公牒)을 맡아 처리하였다. 그 뒤 도총부도사에 승진하여 경력으로 전직되었다가 문천군수로 나갔다. 북청의 성역(城役)이 있자 병사의 계청으로 중군이 되어 일을 잘 감독하여 통영우후로 승진하였고, 전선(戰船)을 수리한 공으로 가선계(嘉善階)에 올랐다. 1619년 심하역등으로 요동에 군대가 파병되고 서쪽 변경에 위협이 있자 만포첩사에 제수되어 상로대장을 겸임하였으나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삭직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이괄과 함께 선봉장이 되어 공을 세웠고, 강화부사로 나가 수군의 반발을 평정하였다. 이 공로로 자헌(資憲)의 품계에 올라 훈련원도정이 되었고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우방어사로 좌방어사 이중오와 더불어 황해도 평산을 목표로 진군하여 1624년 2월 4일 신계의 석영에 진을 쳤으나 반군이 평양을 함락하고 순천을 거쳐 수안·황주를 지나 평산을 공략했고, 저탄(猪灘)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저탄에 진을 치고 반군과 대전하였으나 패전하자 물에 투신 자결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충신정문이 도일동에 세워졌고, 문중에서 덕암산 남서편 기슭에 장군의 유품으로 묘를 쓰고, 장군의 집 우측 산자락에 애마의 무덤을 만들어 기억하게 했으며, 양자를 들여 장군의 맥을 잇게 하였다. 1684년(숙종 10)에 황해도 금천의 민충사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이세필(李世弼)

1642년(인조 20)~1718년(숙종 44). 문신·학자. 본관은 경주. 진위현(평택)출신. 자는 군보(君輔). 호는 귀천(龜川). 영의정 항복(恒福)의 증손. 예빈시정 정남의 손. 이조참판 시술(時術)의 자. 송시열·박세채의 문하. 타고난 효자여서 30세 때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하자 단지수혈하고 밤을 새워 간병했으나 끝내 상을 당해 3년간 거상(居喪)하였다. 숙종이 즉위하던 1674년 제2차 복상(服喪)문제로 스승 송시열이 남인의 탄핵으로 삭직당하자 많은 유생들에게 통문을 돌려 그 신원을 상소한 끝에 영광에 유배되었다가 1678(숙종 4)에 풀려나왔다. 1680년(숙종 6)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에 힘쓰던 중 이듬해 동몽교관이 되었다. 1684년 형조좌랑이 된 뒤 용인현감, 1686년 진위현령, 이듬해에는 삭녕군수를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여 이이·성혼을 문묘로부터 출향하려고 하자 소를 올려 사직하고 향리인 진위현 봉남리로 돌아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심하였다.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중용』의 연구에 전념했고 집 앞을 흐르는 시

넷가 '귀천'을 따서 스스로의 호로 삼았다.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로 서인이 등용될 때 다시 김제군수가 되고 이듬해 사복시정·장악원정이 되어 태묘의 악장을 정리하였다. 1696년 서연관에 피선되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그 후 익위사익찬·제용감정·양주목사·인천부사·연안부사에 잇달아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취임하지 않았다. 1699년(숙종 25)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한 뒤 상주목사가 되어 기황(飢荒)의 해결과 적폐의 혁신, 학교의 진흥 등 선정과 풍속교화를 베풀었다. 이 무렵을 전후해서 아홉 번이나 관직을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던 중 1703년(숙종 29) 삼척부사에 부임하여 관재를 털어 서당을 마련하고 학규 21조를 정해 공무(公務)를 보는 틈틈이 친강과 감독을 하였다. 1705년 집의로 소환되고 그후 한성부우윤·공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717년(숙종 43) 당시의 권신 이이명의 전횡(專橫)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향리에 은거하며 학문과 강학에만 전심하였다. 진위현 북쪽 미향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은퇴해 있을 때는 물론 관직에 있을때도 『소학』·『심경』·『근사록』과 사서오경 『정주서』 등의 연구와 강학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예학에 밝았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경이다. 영광의 백산서원에 전향되고, 오현사 및 김제의 용암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논변경설』·『답문의체』·『악원고사』·『소주서』·『동호예설』 등이 있다.

이승(李昇)

생몰년 미상. 고려말 문신. 이조참의로 추증된 이원보(李元普)의 아들로써 전농판관(典農判官)을 지냈으며, 사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이승익(李承益)

1886년~1942년. 독립운동가. 모곡동 출생. 일명 공삼(公三)이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1919년 4월 1일 원곡면의 최은식·이근수·홍창섭·이덕순·이유석 등이 주동하여 양성면·원곡면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미 3월 28일 이근수 등과 함께 외가천리 소재 원곡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였다. 4월 1일 다시 1천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원곡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고 면장을 끌어내어 이를 선두에 내세우고서 양성면으로 햇불행진을 하였다. 이 시위대가 양성면에 도착할 즈음, 시위를 해산하고 돌아가던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의 시위대가 다시 합세함으로써 2천여 명에 달한 시위대는 오후 10시경 양성 경찰주재소에 도착하였다. 이때 시위대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주재소에 투석하고 몽둥이로 유리창 등을 파괴한 후 불을 질러 주재소와 부속 순사기숙사 등을 전부 소각하였다. 이어 양성면 우편소로 가서 사무실과 전화기·

공용서류·물품 등을 전부 파괴·방화하였다.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자 일본인 잡화상 외리여수와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읍수지의 집을 습격하여 대문짝·가구·물품을 강탈·파괴 또는 방화하였다. 또 양성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사무실의 공용서류·물품 등을 파괴하고 이날 시위를 해산하였다. 이튿날 새벽 4시경에 원곡면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집결한 시위대와 함께 원곡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을 질러 사무실 1동과 공용서류·물품전부를 파괴·방화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건조물훼손·소요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고, 그 후유증으로 타계하였다. 1980년 독립유공자로 지정과 동시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으며 묘는 가재동에 있었으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여주로 이장되었다.

이약우(李若雨)

호는 만우재(萬遇齋), 경주이씨로 송북동 건지부락 출신이다. 진위 보통학교 학생으로 3·1 독립운동 당시 청년 활동에 나서서 독립선언서, 태극기 등을 들고 평택·서탄면 등지에 나눠주며 만세운동 참가를 주도하였다. 수원 보통 농림학교(현, 수원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묘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징용을 면제받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해방후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위원, 한국민국당·민주당 등의 정당활동에 임했다가 향리에 은거하여 노년을 보냈다. 묘는 지산동 작은 흰치재 옆 산기슭에 있다.

이양섭(李陽燮)

1894년(고종 31)~1925년. 독립운동가. 일명 명여(明汝). 경기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현 평택시 죽백동) 출생. 아명은 춘광(春光). 상기(相變)의 자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원곡면·양성면 일대에서 이유석·홍창섭·이근수·이덕순·최은식·이희룡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에 있던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000여 명의 만세시위군중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면장을 끌어내어 양성면 동향리로 행진하였다. 도중에 성은고개에 이르러 이유석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연설을 하였으며 양성면과 원곡면내의 경찰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 등을 파괴하고 일본인 거주자를 축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양성면민 수백 명의 만세시위대가 경찰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해산하여 돌아가던 길에 원곡에서 오던 만세 시위대와 합세하여 다시 주재소로 향하였다. 이때 홍근배와 함께 건물과 기물에 불을 지름으로써 다른 군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사기가 오른 시위군중과

더불어 계속하여 양성우편소와 일본인 외리어수가 경영하는 잡화점과 고리대금업자 읍수지의 집을 습격하고, 양성면사무소의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였다. 4월 2일 새벽까지 양성면 일대에서 시위를 계속하다가 원곡면으로 되돌아와서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로 달려가 서류와 집기류를 불태워버리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를 전개하다가 검거되었다. 징역 10년을 언도받고 경성 형무소에서 7년째 복역하던 중 형무소 안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몰래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옥사하였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이연손(李延孫)

1404년(태종 4)~1464년(세조 9). 본관은 경주. 조선초의 무신. 이매(李邁)의 증손(曾孫). 무공(武功)이 뛰어나 교하현감(交河縣監)의 자리에 올랐고 한성소윤(漢城少尹), 부안(扶安)·진안병마사(鎭安兵馬使)를 거쳐 전라감사(全羅監司)·한성부윤(漢城府尹)·공조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였다. 60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니 조정에서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영의정에 추서(追敘)하였다. 그의 묘소는 진위현 동천(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록(山麓) 선영에 있다.

이영주(李英株)

생몰년 미상. 고려의 폐신(嬖臣). 응공(應公)의 자. 본관은 양성이다. 처음에 중이 되었으나 환속하여 관성현령이 되었다. 충렬왕의 사랑을 받아 내원승을 거쳐 낭장이 되었다. 1282년(충렬왕 8)에는 장군으로 여러 주현의 관리의 부정유무를 규찰하였으며 1285년 충청도안집사로 있을 때 미색을 뽑아 바치고 백성의 재물을 강탈하는 등 행패가 심하였다. 1286년 충청도의 탈탈화손으로 있을 때 영월현령 이순과 함께 횡포가 심하였기 때문에 강윤명의 난을 유발하였다. 1298년 군부판서 응양군 상장군이 된 뒤에도 계속 탐학과 가렴주구로 토지를 빼앗는 등 비행이 많아서 파직되었다. 1299년에는 중 일영의 무고로 모반하였다고 몰려 한희유와 함께 해도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나 한희유·유비 등과 같이 원나라에 잡혀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왔다. 1300년 밀직부사 군부판서가 되었으며 이해 겨울 하정사(賀正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묘가 평택에 있다.

이원보(李元普)

생몰년 미상. 고려말 문신. 이매의 아들로서 벼슬이 중정지인주사(中政知仁州事)에 올랐고 사후에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추증되었다.

이유직(李攸直)

조선 단종조의 문신이며 충신이다. 본관은 양성. 평택 출신. 대경 백자(伯孜)의 아들이며 대제학 변(邊)의 사위이다. 단종 때 마전군수를 지냈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내준 이후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에서 수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았다. 정협 등과 함께 은육신으로 일컬어진다. 1456년 3종형인 직제학 휘(徽)와 사육신이 죽음을 당하자 크게 애통해 하다가 1457년 단종이 죽자 단종이 기거하던 영월을 향해 매일 예를 올리고 통곡하였다. 후에 정협 등과 함께 변장하고 장릉(莊陵: 단종의 능)에 들어가 곡을 하였는데 이 때 하늘에서 곡성이 들리면서 단종이 사육신과 함께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1875년(고종 12) 도내 유생들이 충절을 예조에 상계하여 정려사액(旌闕賜額)을 받았으며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죽백동 산 42번지에 있다.

이인석(李寅錫)

본관은 양성(陽城)이고, 시조 상주국공 수광(秀匡)의 17세손이며, 호조참판 진강(震綱)의 아들로 상서원당의 11세손이다. 일찍이 등관하여 가선대부 행 호조참판 겸 동지오위 도총부 부총관에 이르고, 무장, 문천, 남원, 진주, 원주, 황주, 공주, 영암 등 9주목을 역임하였다. 특히 원주목사 재임시 백미 3백석을 풀어서 기민(飢民)을 구호한 공으로 조정에서 공적을 치하하고 포상하였다.

이장대(李將大)

생몰년 미상. 고려 고종때의 반란자. 진위현 출신. 거란이 침입하여 국내가 소란한 틈을 타, 1218(고종 5) 영동정(令同正)으로 직장동정 이당필, 별장동정 김례 등과 함께 진위현에서 난을 일으켰다. 진위 현령의 부인(符印)을 빼앗고 창고를 열어 촌락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스스로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로 칭하고 군대를 의병이라하여 군(郡)에 통지한 다음 중덕창과 하양창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어 광주로 향하려 하였는데 낭장 권득재, 산원 김광계, 안찰사 최박 등이 거느린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주로 달아났으나 안찰사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주살되었다.

이정암(李廷巖)

1541년(중종 36)~1600(선조 3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자는 중훈(仲薰), 호는 사류재(四留齋)·퇴우당(退憂堂)·월당(月塘)이며, 방혜동 경주이씨 문종의 향조인 오재(悟齋)공 사직서령 탕(宕)의 차남이며 이조참판 정형(廷馨)의 형이다.

1558년(명종 1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56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처음 승문원에 들어가 권지부정자를 역임하고 예문관검열로 사관을 겸하였다. 1565년 승정원주서를 거쳐 1567년(선조 즉위년)에는 성균관전적·공조좌랑·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듬해 외직인 전라도도사를 역임하면서 치적을 올렸고 이어 중앙으로 돌아와 형조좌랑을 거쳐 다시 외직인 함경도도사로 나아갔다. 1569년 경기도사로 옮겼다가 경직인 춘추관기주관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형조좌랑에 재임용되어 지제교를 겸하였으며 다시 병조정랑으로 전직하여 암행어사의 임무를 띠고 강원도에 파견되어 재해지역을 살피고 돌아와 정언을 역임하였다. 1571년 예조정랑·사헌부지평으로 춘추관의 직책을 겸대하고 『명종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였으며 경기도경차관으로 재해지역을 살피고 돌아왔다. 1572년 성균관 사예에 임명되어 춘당대친시에 참시관으로 입시하였고, 그해 여름 연안부사가 되어 군적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어 부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576년 장단부사를 거쳐 1578년 제용감정 등을 역임하였다. 다음해에 양주목사로 나가 도봉서원과 향교를 중수하고 전안(田案)을 개혁하고 대동법을 실시하여 번잡한 역(役)을 없애는 등 크게 치적을 쌓았다. 1580년 평산부사를 거쳐 1584년 동래부사가 되어 내왕하는 일본인들의 폐단을 근절시켰다. 1591년 첨지중추부사·장례원판결사·승지·공조참의·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조참의로 있었는데 선조가 평안도로 피난하자 뒤늦게 호종하였으나, 이미 체직되어 소임이 없었다. 아우인 개성유수 정형과 함께 개성을 수비하려 하였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져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 황해도로 들어가 초토사(招討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여 연안성을 지킬 것을 결심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르던 중 도내에 주둔한 왜장 구로다가 5,000~6,000명의 장졸을 이끌고 침입하여 주야 4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하여 그 공으로 황해도관찰사겸 순찰사가 되었다. 1593년 병조참판·전주부윤·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596년에는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죄수를 임의로 처벌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다가 다시 지중추부사가 되고 황해도관찰사겸 도순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해서초토사로 해주의 수양산성을 지키기도 하였다. 난이 끝나자 풍덕(豐德)에 은거하여 시문으로 소일하다가 몇 년뒤에 죽었다. 1604년 연안수비의 공으로 선무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월천부원군에 추봉,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성혼·이제신 등과 교유하였다. 연안 현충사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상례초 喪禮抄』·『독역고 讀易攷』·『왜변록 倭變錄』·『서정일록 西征日錄』·『사류재집』 등이 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이정함(李廷諡)

1534년~1599년. 자는 백훈(伯薰), 시호는 퇴계(退齊)이다. 1558년 진사에 참방되어 삼례찰방을 지냈다. 후일 동생인 정암(廷諱), 정형(廷馨)의 형으로 이조참판의 증직을 받았다. 방해동 경주이씨 문중인이며, 묘는 장안동(부락산 남쪽 기슭)에 있다.

이조헌(李祖憲)

1900년~1936년. 독립운동가. 본관은 함평. 포승면 내기리 출생.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1928년 3월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의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이었던 이시영·이동녕의 지도를 받다가 귀국하여 고향에서 비밀결사인 진흥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금하여 이를 부인 홍씨로 하여금 행상으로 가장시켜 금이나 은으로 바꿔 중국으로 가는 밀선에 부탁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발각되지 않고 193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천(李堯)

1274년(원종 15)~1349년(충정왕 1). 고려 후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자는 군실(君實). 호는 국당(菊堂). 좌복야 핵(翮)의 손이며 문희공(文僖公) 세기(世基)의 아들이다. 1299년(충렬왕 25)에 국자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충숙왕 때 우사보(右思補)로서 폐인(嬖人) 이인길의 첩의 아버지인 서경낭장 최득화의 수주수령 임명을 위한 고신(告身)에 서명하지 않아 곤장을 맞고 섬에 유배되었다. 1344년(충혜왕 복위 5)에 지공거 박충좌와 함께 동지공거로서 진사를 뽑고 하을지 등 33인에게 급제를 주었고, 같은 해에 첨의평리상의(僉議評理商議)로 원나라에 가서 교사(郊赦: 하늘에 제사지내고 은사를 베푸는일)를 축하하고 돌아왔다. 또한 왕이 서연(書筵)을 설치하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서 시독(侍讀)하도록 하였다. 1345년(충목왕 1) 첨의참리(僉議參理)를 거쳐 예문관대제학 검교정승이 되어 월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후에 남원부 어은사에 배향되었다. 묘는 파주시 금촌면에 참판 민병승이 찬하고 후손 규승이 쓴 신도비와 함께 있다.

이태좌(李台佐)

1660년(현종 1)~1739년(영조 15).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자는 국언(國彦), 호는 아곡(鵝谷). 영의정 항복(恒福)의 현손으로, 참판 세필(世弼)의 아들이며, 영의정 광좌(光佐)의 재종형이다. 1684년(숙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99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검열에 올랐다. 이해 8월에 예문관원의 새로운 추천이 있을 때 송정명등 4인을 천거하자 김진구가 난색을 나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이것은 송정명 등이 과거 성균관에 있을 때 윤증의 소환을 청한 상소문 중에 송시열을 비난하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사서를 거쳐 1701년 지평으로서 이세석의 과거시험 부정을 탄핵하였으나 왕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희빈 장씨의 사사에 적극 반대하다가 파직된 최석정·이명세를 친구하다가 도리어 삭탈관직을 당하고 선산으로 유배당하였다. 1705년에 풀려나 정언에 등용되고, 경상좌우도의 암행어사로 다녀왔으며, 이어 부교리·이조정랑·부수찬·집의·응교를 거쳐 1708년 12월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때 영서3읍(춘천·횡성·홍천)과 영동 9읍에 대한 양전개편을 실시하여, 원전대동(元田大同) 2두(斗)를 감하여 1결(結) 1년 소납(所納)을 14두로 정하고 속전대동(續田大同)·삼수량(三手糧)을 전감하도록 주장하여, 이듬해 7월에 가서 시행되었다. 그 뒤 이조참의·대사성·대사간·승지·강화유수를 역임하고, 1716년 공조판서로 있을 때 노론일색인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으나 곧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강화부유수에 재임되고 동지의금부사, 형조·예조·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22년에 비국당상(備局堂上)에서 북방소요에 대한 국력강화에 대하여 공조판서 조태억의 내수외양(內修外攘)을 공박하고, 자강지도(自強之道)로써 오로지 왕의 일심노력과 역사절재(抑奢節財)·근정수덕(勤政修德)·인재양성과 민심을 단결시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조세·한재·조창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1725년(연조 1) 임인옥사로 삭직당하였으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호조판서·지경연사(知經筵事)·병조판서·이조판서를 거쳤고, 이듬해에는 우의정, 1729년에는 좌의정·판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가 1736년에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묘는 진위면 동천리 산록 선영이고 매년 음력 10월 1일에 향사한다.

이택화(李宅和)

1884년(고종 21)~1974년. 독립운동가. 본관은 전주. 진위군(평택) 오성면 양교리 출생. 12세 때부터 성공회(聖公會)의 신자가 되어 청북면 덕우리에 성공회 회당을 짓는 등 종교사업에 열중하였다. 1920년 상해의 임시정부의 활동상황과 재정상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모금원이 될 것을 자원하였다. 또 같은 마을 오창선(吳昌善)과 인천 용강동에 사는 안구현(安九鉉)을 추천하고 이들과 합의하여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공약하였다.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의 명의로 보내온 견포(絹布)에다 '가정부군자금모집원'이라고 쓴 신분증과 권총 2정을 주었다. 1920년 2월 18일 오후 11시경 안구현·오창선과 의논하여 오성면 숙성리의 김태연의 집에 가서 오창선은

그집 문앞에서 파수를 보고 그와 안구현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임시정부군자금모집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100원을 수령하였다. 또 오창선과 함께 포승면 내기리 이민화의 집에 가서 오창선은 문앞에서 파수를 보고 안방에 들어가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당일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3월 19일 오창선이 다시 그집으로 가서 11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밀고로 세 사람은 체포되어 모금한 돈은 각자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1920년 4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안구현은 징역 7년, 오창선은 징역 5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안중시장에 교회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력을 쏟았으며 성공회당 건립에도 적극적 활동을 보이는 등 평생을 전도에 열중하였다. 1977년 건국공로훈장 포상이 추서되었다.

이호익(李鎬益)

1892년~1935년. 독립운동가. 죽백동(전 원곡면 죽백리)에서 출생. 일명 만복(萬福). 3·1민족해방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원곡면의 최은식·이근수·홍창섭·이덕순·이유석 등과 주동하여 1천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원곡면사무소에서 면장을 선두에 내세워 양성면으로 횡발 행진을 하였다. 이 시위대가 양성면에 도착하여, 양성면 경찰주재소에서 시위를 벌이고 해산을 하던 1천여 명의 양성면 시위대와 합세함으로써 2천여 명에 달한 시위대는 오후 10시경 다시 주재소를 파괴하고 불을 질른후 양성면 우편소로 가서 전부 파괴·방화하였다. 시위는 더욱 격렬하여져 일본인 잡화상 외리여수와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용수지의 집을 습격하여 대문짝·가구·물품을 강탈·파괴 또는 방화하였다. 계속하여 양성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공용서류·물품을 파괴하고 이날 시위를 해산하였다. 이튿날 새벽 4시에 원곡면으로 돌아와 남산(南山)에 다시 집결한 시위대와 함께 원곡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을 질러 사무실 1동과 공용서류·물품 전부를 파괴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건조물소해·건조물손괴·소요혐의로 징역 1년 3월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이홍림(李弘林)

1669년 11. 1~?. 10. 8. 본관은 전주. 무곡동 전주이씨 입향조 헌방(憲邦)의 5세 손으로 1750년에 82세의 나이로 노직(老職)으로 통정대부를 받았고, 다음해에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묘는 송탄동 하가재마을 뒷산에 있으며, 부인 안동권씨와 합장되어 있다. 매년 10월 8일에 향사한다.

이홍석(李弘奭)

조선시대의 효자.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게 하여 병이 나았다. 이에 이응고 그 몸이 복호(復戶)가 되었다.

인씨(印氏)

조선시대의 열녀. 본관은 교동. 평택 출신. 진씨가문으로 출가하여 시부모와 부군을 극진하게 봉양하여 이웃의 칭송이 자자했다. 부군이 병에 걸려 온갖 약(藥餌)을 시탕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근심하고 있었다. 이때 연로한 중이 나타나 뱀의 생즙을 먹이면 완쾌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뱀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주야로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원하였다. 그러던 중 100일째 되던 날 뱀이 5마리가 뜰에 나타나자 이를 잡아 부군에게 바쳐 효험을 보았다. 조정에서 정문(旌門)의 홍은(紅恩)을 하사하는 한편 부군과 자식에게 관직을 내렸다.

인홍계(印弘契)

교동인씨로 중시조인 당(璫)의 12세손으로 1704년(숙종 30) 갑신년에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이르렀고 사임한 후 한양도성으로부터 수원부 광덕현(현 현덕면 대안리 학진)으로 낙향한 후로는 덕망과 선행으로 그곳 지방의 송덕(頌德)이 많았다.

장덕봉

1757년(영조 33)~?. 효자. 본관은 광주(廣州). 오성면 안중리(현,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출생. 봉친에 정성을 다하여 혼정신성은 물론, 때에 맞는 의복과 구미에 맞는 음식 등을 준비하는데 힘써 부모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는 예제를 따라 초상(初喪)한 후 초막에서 3년을 조석으로 시묘하였다. 부친상을 마치기도 전에 또 모친상을 당하여 호혈(號血)하기를 수일 계속하여 혼절하기도 하였다. 1875년(고종 12) 정려각이 건립되었다.

장석진(張碩鎭)

덕수장씨이며, 자는 원대(元大)이고, 호는 지곡(芝谷)이다. 1874년(고종 11) 갑술생으로 문장과 서예가 출중하여 인근에 명망이 높았다. 그는 또 교육에도 큰 관심이 있어 자기집에 무료사숙(無料私塾)을 세우고 이를 개방하여 많은 후학을 육성하였다. 그는 1967년 향년 93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떴으나 그의 유일한 명문의 필치(筆致) 평택 충훈탑의 비명(碑銘)은 지금도 여전하다.

장우(張羽)

생물년 미상. 고려말~조선초 문신. 덕수 장씨(張氏)의 시조인 공숙공(恭肅公)의 증손. 개경 출생이나 태조 때 팽성읍 석근리로 이주해왔다. 아호(雅號)가 두촌(杜村)이고 고려 때 예부의랑(禮部議郎)의 벼슬을 지냈고 조선 개국 후 은거하다가 태조의 부름을 받고 벼슬길에 올라 예악(禮樂)을 일으키게 했으며 벼슬이 자헌대부·행이조판서·검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資憲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에 이르렀다. 특히 평소의 유지(遺志)를 문중(門中)에서 받들어 의랑공(議郎公)으로 추존(推尊)했다고 한다. 팽성읍 노양리에 묘소와 신도비(神道碑), 망주석(望柱石), 상석(床石) 등의 석물(石物)이 있다.

장차주(張次周)

인동(仁同)인이고, 중조(中祖)인 태사향의 손으로 자는 백지후(伯之後)이고, 휘는 차주(次周)또는 중임(重任)으로 임도찰방(林道察訪)이었고 순치 원년(順治元年)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홍문관수선공(修繕公)이었다. 그의 교지에는 '봉정대부 행 중임 도찰방 장차주 문과과과 제1인급제 출신자 순치원년 10월 초 7일'로 되어있고 조부 평택현감은 계환공(啓煥公)의 현손이고 진사인 기학공(基鶴公)의 6세조이다.

장현근(張顯根)

조선 현종 때의 효자. 본관은 덕수(德水). 평택출신. 효자 준의 자. 부친이 병으로 수년여를 고생하자 온 정성을 다하여 시병하고 명의를 좇아 처방에 전력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때 핑을 약재와 함께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원의 말을 듣고 즉시 산속으로 들어가 핑을 잡고자 하였으나 수 일 동안을 헤매도 헛수고만 할 뿐이었다. 낙담하고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핑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이를 부친께 바쳤다. 모친의 병에도 사력을 다하였으나 효과가 없던 중 300여리밖에 영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야로 길을 재촉하였는데 밤이면 효수(孝獸)라고 일컬어지던 호랑이가 나타나 밤새 호위해 주어 무사히 약을 구하였고 이를 모친에게 시탕하여 완쾌시켰다. 이러한 이행은 효성에 감응한 하늘의 응보라 하여 이웃의 주민들이 칭송하였다. 또 조모께서 등창으로 구노하자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기를 수십 일 동안 하였고 사탕(蛇湯)으로 효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배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뱀을 잡아 조모께 바쳤다. 이듬해 5월에는 조모께서 홍시를 드시기 위하여 즉시 경상도 각 지역을 헤매며 이를 구해다 드렸다.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여는 슬퍼함이 몹시 심하였으나 고려

를 준행하여 집상(執喪)하였고 6년을 초막에서 지냈다. 1831년(순조 31) 향당의 청원에 의하여 조정에서 효자정려가 하사되었다. 효자문은 팽성읍 석근리에 보존되어 있는데 현액은 30×220cm규모이다.

정도원(鄭道元)

연일정씨이며, 자는 인보(仁甫)이고 관직은 병마절도사이다. 포은(圃隱)공의 11세 손이고, 명선(明善·판서공)의 4세손이며, 재하(載夏)공의 아들로 1681년(숙종 7)에 출생하였다. 소년시절부터 무술을 연마하여 1705년(숙종 31)에는 무과에 급제하고 충청병마절도사에 이르러 지방의 병마무훈이 컸다. 그후 다시 제주목사로 전임되고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고루 폈다고 한다. 그러나 재임시 병으로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장지를 춘천으로 정한 일화가 있다. 망부(亡父) 재하공의 묘역을 설치한 곳 측근에 자기가 죽으면 써달라는 당부를 엄히 하였으므로 그의 손(孫) 등이 그곳에 장례(葬禮)하였다는데 그곳은 사혈(蛇穴)의 사두맥(蛇頭脈)으로 명당자리가 되므로 후세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다 한다.

정도전(鄭道傳)

1342년(충혜왕 3)~1398년(태조 7).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 시호는 문헌(文憲), 형부상서 윤경의 아들. 이색의 문인, 1362년(공민왕 11) 문과에 급제, 이듬해에 충주사록(忠州司錄)을 거쳐 전교주부(典校主簿), 통례문지후(通禮門祇候)를 지내고 1370년 성균박사(成均博士)가 되었다. 이듬해 예조정랑(禮曹正郎) 겸 성균관태상박사(成均館太常博士)가 되었다. 1375년(우왕 1)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예문관응교(藝文館應校), 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고 이해 권신 이인임(李仁任), 경복흥(慶復興) 등의 친원배명(親元排明)정책을 반대하다 회진현(會津縣)에 유배되었다. 2년 후 풀려 나와 후진들을 양성하다가 1383년 동북면지휘사(東北面指揮使) 이성계의 참모가 되었고 이듬해 전교부령(典校副令)을 거쳐 성절사(聖節使) 정몽주(鄭夢周)와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85년 성균관제주(成均館祭酒),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내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승진, 1388년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신진세력이 집권하게 되자 이성계의 우익으로 지공거(知貢舉), 지신사(知申事)를 역임, 조준(趙浚)의 전제개혁안(田制改革案)을 단행



■ 정도전의 묘(설단)

토록 건의하고 억불(抑佛)을 주장하여 조민수(曹敏修) 등 구세력을 탄핵, 유배되게 하여 조선개국의 정지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고 이듬해 이성계, 조준, 심덕부 등과 함께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 하여 강화에 추방, 공양왕을 추대하고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어 봉화현 충의군에 봉해진 뒤 삼사우사(三司右使)에 올랐다. 1390년(공양왕 1) 지경연사(知經筵事)를 지낸 뒤 성절사(聖節使) 겸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가서 이성계가 명나라를 침범하려 한다는 윤이(尹彝), 이초(李初)의 무고를 밝히고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 겸 성균관대사성,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겸 대사헌(大司憲), 판삼사사(判三司事) 등을 역임, 이듬해 이성계가 군사권을 잡자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가 되었다. 구세력의 득세로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봉



■ 정도전 영정

화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풀려나 복직되었고 조준, 남은(南問) 등과 이성계를 추대, 조선건국 후 개국공신 일등으로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가 되어 사은 겸 정조사(謝恩兼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1394년(태조 3년) 한양천도를 주장하여 실현하였다. 이듬해 정충(鄭摠) 등과 『고려사』 37권을 찬진(撰進)했고 1397년 동북면도선무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병참(兵站)을 신설했으며 성균관제조(成均館提調)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에서 정조사가 올린 표전문(表箋文)이 잘못 되었다하여 기초자(起草者)를 잡아 오라 하자 그는 명나라와 실력으로 항쟁할 것을 주장 군사의 훈련, 군량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던 중 제1차 왕자의 난에 세자 방석(旁碩)을 옹호하고 정실 소생의 왕자를 죽이려 한다는 누명을 써 남은 등과 함께 방원(芳遠, 태종)에게 참수(斬首)되었다. 유학의 대가로 조선개국 후 군사, 외교, 성리학, 역사, 행정, 저술(『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 등 다방면에 걸쳐 초기의 건국작업에 활약했으며 배불숭유(排佛崇儒)를 국시로 삼게 하여 유학의 발전을 기했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한다.

정동순(鄭東淳)

1909년(순종 3)~1991년. 주일대표부 이사, 한일경제인협회 이사, 제일거류민단 중앙부 상임 고문. 해외 교포 대의원재일거류민단 동경본부단장, 삼본건설 공업건설주식회사 사장 미리온공업주식회사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동준(鄭東俊)

1595년(선조 28)~1674년(현종 15). 1621년(광해군 13) 무과에 급제, 훈련부정(訓

練副正)을 거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정문형(鄭文炯)

1427년(세종 9)~1501년(연산군 7). 시호 양경(良敬). 개국공신 도전의 증손이며 속(束)의 아들로써 1447년(세종 29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 승문원정자, 감찰 등을 거쳐 1455년(세조 1) 교리(校理)로 좌익원종공신이등(左翼原從功臣二等)이 되고 사간(司諫)을 거쳐 1460년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가례색도감랑청(嘉禮色都監郎廳)을 겸직, 이어 사인(舍人)을 지내고 1464년 한성부윤(漢城府尹), 공조참의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듬해 진주에 거주하던 소훈(昭訓) 윤씨의 모친 병환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죄로 한때 파직당했다. 1465년 함길도절도사, 변정원(辨正院)의 판결사(判決事)를 거쳐 1466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72년(성종 3) 병조참판에 이어 평안도 관찰사, 1489년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이조와 병조의 판서, 세자시강원빈객(世子侍講院賓客), 경상도순변사(慶尙道巡邊使)를 지낸 뒤 1492년 우찬성(右贊成)에 오르고 1494년(성종 25년) 공조판서로 산릉도감(山陵都監) 제조(提調)를 겸직,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고 1496년(연산군 2년) 우의정에 승진, 왕으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정래(鄭來)

조선조 세종때 선무랑(宣務郎)에 올라 한성판관(漢城判官), 통훈대부(通訓大夫) 용인현령(龍仁縣令)을 지냈다.

정술선(鄭述先)

조선 고종 때의 효자. 경주정씨로 안중면 황금리 출신이다. 부모의 봉공에 뜻을 두어 오직 부모의 마음을 편히 하는데 전력하였다. 매일 혼정신성함에 게으름이 없었고 때에 맞는 의복과 구미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혹시 정성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두려워 하였다. 부친이 73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구노할 때에는 항시 시측하며 거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변의 맛으로 병세를 가름하기도 하였다. 또 사태가 급박하여서는 단지수혈하여 1개월을 더 살게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호읍함이 매우 심하였고 묘 앞에서 여막을 짓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3년을 한결같이 성묘하였다. 1890년(고종 27) 진위유림(振威儒林)의 계문(啓文)에 의하여 효자정문의 특은(特恩)을 하사받았다.

정씨 부인(鄭氏夫人)과 류씨부인(柳氏夫人)

조선시대의 열녀. 정씨는 남촌에 사는 충의위 이효상(李孝常)의 아내이고 류씨(柳氏)는 이효상의 아들인 이덕원(李德源)의 아내이다. 1637년(인조 15) 정월 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덕원의 형제는 상하 가솔들을 거느리고, 목천 흑성산(黑城山)으로 피난가려 하였다. 가는 도중에 아산 염작리(念作里: 현 둔포면 염작리)에서 그 할머니 장씨가 연로한 부인으로서 줄지에 병이 나서 위독한 까닭에 형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마을에 남아서 할머니 병구완을 하게 하고, 이덕원은 그 어머니 정씨와 그 아내 류씨를 데리고 목천 승천동으로 가서 촌집을 한 채 얻어 그 식구들을 안심시킨 뒤에 그 할머니의 병세가 어떤지를 알려고 염작리로 되돌아갔다. 그때 피난 온 사람들이 모두 정씨가 얻어둔 집에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그 동네의 한 도둑놈이 몰래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먼저 동네 사람에게 겁을 주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 뒤에 그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여 가지고 도망치려 하였다. 그래서 동네집 울타리에 불을 지르고,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기를, "오랑캐 기병 십여명이 동네로 뛰어 들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니 동네 사람은 빨리 나와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울타리에 붙은 불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번져 불빛이 하늘을 찌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피하여 날뛰는 동안에, 류씨가 정씨를 권하여 빨리 빠져나가자고 하였다. 정씨가 나가다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불 속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나오지 않으므로, 류씨가 말하기를 "시어머님이 나오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홀로 살기 위하여 뛰쳐나갈 수 있으랴"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불에 타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 정려하였다. 그 뒤에 이덕원이 동네 사람과 함께 그 도둑놈을 잡아서 죽였다.

정연(鄭璉)

1653년(효종 4)~1731년(영조 7). 숙종 때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라 용양위부호군(龍讓衛副護軍)을 지냈다.

정우범(鄭雨范)

삼유당(三乳堂) 우범공은 창원공(昌原公) 광보(光輔)의 후손으로 현덕면 황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한학이 능통하였고 보성전문을 나온 후 일본유학 명치대학을 졸업 후 귀국하여서는 고향인 본가에 은거하면서 법률서적의 저서에 힘써왔다. 그러나 왜경(倭警)은 그의 항일사상이 강렬함을 느끼고 요시찰적 대상인물로 보고 늘 감시해 왔다. 그는 연말에 이르러 신분보호 등으로 경기도 평의원직을 역

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도모한 바 있다.

정우진(鄭宇鎭)

1925년~1958년. 독립운동가. 평택 출신. 광복군 지대본부에서 1945년 6월부터 7월사이에 벌인 초모 공작을 위한 돌격작전을 통해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제3지대에 편입되어 남경(南京)지구 특과단으로 활약하고, 방부(蚌埠)지구특과단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정운경(鄭云敬)

1305년(충렬왕 31)~1366년(공민왕 15). 시호 염의(廉義), 고려 중엽(中葉)에 호장을 지낸 공미(公美)의 증손이며 도전의 아버지이다. 어릴 때 영주향교(榮州鄉校)에서 공부하였고, 복주(福州, 안동)향교로 이적하여 다녔는데 성적이 우수하였다 한다. 7세 연상인 이곡과 교유하였으며 한림(翰林)을 지낸 외삼촌을 따라 개경에 와서 부근에 있는 삼각산(三角山) 기슭 서당과 경상도 영해부(寧海府)를 왕래하면서 독서하였다.

1326년(충숙왕 13)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였다. 1330년 동진사(同進士)에 급제하였고 이듬해 상주목사록(尙州牧司錄)에 제수된 뒤 전교교감(典校校勘),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 삼사도사(三司都事)를 거쳐 1343년(충혜왕 복위 4) 밀성군지사(密城郡知事)가 되었다. 이듬해 복주목판관(福州牧判官)이 되어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명성을 얻었다. 1345년 서운부정(書雲副正)이 되어 1346년 원나라 하정사(賀正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다녀왔으며 1348년(충목왕 4) 양광도의 안찰사(按察使), 이듬해에 교주도 안찰사를 거쳐 1352년 전법총랑(典法總郎)에 이르렀다. 1353년(공민왕 2) 전주목사를 거쳐 1356년 병부시랑(兵部侍郎)에 올라 무반의 인사를 관장하였다. 1357년 강릉도(江陵道) 및 삭방도(朔方道)의 존무사(存撫使)를 지내고 지형부사를 거쳐 1359년(공민왕 8) 형부상서에 올랐다. 1363년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영주에 돌아와서 62세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榮州市伊山面新岩里) 모현사(慕賢祠)에 제향되었다.

정응기(鄭應夔)

1832년(순조 32)~1906년(고종 43). 고종 때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 내섬시직장(內贍寺直長)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제용감주부(濟用監主簿), 경모궁령(敬慕宮令), 경

릉령(敬陵令), 내무주사(內務主事), 제중원주사(濟衆院 主事), 남서부령(南西部令) 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창릉령(昌陵令), 장릉령(章陵令) 등을 거쳐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올라 사직서령(社稷署令)등을 역임하였다.

정응호(鄭應皐)

1825년(순조 25)~1904년(고종 41). 고종 때 통정대부에 올랐다.

정의진(鄭義鎭)

1796년(정조 20)~1853년(철종 4). 고종때 증(贈) 통정대부·예식원좌장(通政大夫·禮式院左掌)을 받았다.

정인창(鄭麟昌)

중종 때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라 경상도 우도우후(右道虞候)를 지냈다.

정잠(鄭替)

1573년(선조 6)~1635년(인조 13). 선조 때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어 제용감정(濟用監正)을 지냈다.

정진(鄭津)

1361년(공민왕 16)~1427년(세종 9).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봉화(奉化). 개국공신 도전(道傳)의 아들이다. 1382년(우왕 8)낭장이 되고 사재령·전농령을 지냈다. 1391년(공민왕 3) 정몽주 등 고려를 지키려는 구세력의 탄핵을 받아 그의 아버지인 도전과 함께 삭직되었다가 1392년(태조 1)에 조선이 개국되자 풀려나와 개국공신의 아들로써 연안부사로 등용되었다. 1393년 판사재감사를 거쳐 경흥부윤·영원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그 뒤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전서와 형조전서를 지냈다. 1398년 중추원부사로 있을 때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그의 아버지 도전이 주살되자 그도 벼슬을 삭직당하여 전라도 수군에 충군되었다. 1407년(태종 7) 다시 판나주목사로 기용되고 1416년 인녕부윤이 되어 크게 치적을 올렸다. 1419년(세종 1)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1420년 판한성부사가 되었다. 그해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423년 공조판서를 역임하고 1424년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가 되었으며, 1425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도전의 후광을 받아 조선 개국초에는 한때 화려한 직책에 중용되었으나 왕자의 난으로 도전이 몰려 주살되자 일개 수군으로 전락되어 모진 역경을 겪었

다. 그러나 성실한 인품이 인정되어 다시 등용되어 재상의 영직(榮職)을 누렸다. 시호는 희절(僖節)이다. 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으나 진위면 은산리로 이장되었다.

정태선(鄭泰瑄) 처 강씨

조선시대의 열녀. 통정대부(通政大夫) 강원영(姜元榮)의 딸로서 정태선과 혼인하였다. 품행이 단정하였고 극진한 효도와 동기간의 우의 또한 남달리 출중하여 출가 후에도 시부모 봉양을 효도로써 공경하였으므로 칭송을 받았다. 남편이 사망하자 비통함은 하늘에 닿았으나 슬픔을 억제하고 슬하의 어린 자식들을 정성으로 가르치며 빈한한 가세를 큰 아들 정안근(鄭安根)과 더불어 키워 집안이 흥왕할 즈음 큰 아들마저 죽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권씨부인과 고부간에 합심하여 다시 가문을 일으켜 정씨 종중에서는 2대에 걸친 열부(烈婦) 가문을 포상하여 효행록(孝行錄)을 지어 기념하였다.

정하교(鄭河敎)

조선시대의 효자. 자는 백륜(伯倫), 본관은 해주. 어려서부터 매우 어질고 충효의 사상이 깊었다. 아버지가 병을 얻자 간병하면서 조석으로 일시도 병석을 떠나지 않았다. 그 정성이 지극하여 매서운 혹한의 눈보라 속에 뽕뽕 얼어있는 저수지에서 대어를 구해 약으로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세가 큰 효험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7년간의 세월을 연명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묘소에 여막을 차리고 3년상을 치렀고 아버지 사후 20년간이나 상식을 드렸다. 이와 같이 천하에 다시없는 효행으로 해주정씨 종중과 그 곳 유림의 칭송을 받았다. 60평생을 삼강의 행실과 인본효행(人本孝行)의 뜻을 신조로 살다 세상을 떠났으며 사후에 참판으로 추증되었다. 묘는 팽성읍 근내리 내촌 기슭에 있고 부인인 증 정부인(贈貞夫人) 순흥안씨와 함께 묻혔으며 매년 음력 10월에 제사를 지낸다. 특히 해주정씨 족보의 효행록 편에 있는 그의 효성에 대한 글은 조선 고종 조 공조판서 겸 경연관인 최익현이 찬한 것이다.

조광조(趙光祖)

1482년(성종13)~1519년(중종 1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한양 출생. 개국공신 온(溫)의 5세손으로 감찰 원강(元綱)의 아들이다. 이충동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7세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수학하

였다. 학문은 《소학》·《근사록》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연구에 응용하였으며 이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이때는 사화 직후라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狂人)' 이라거나 혹은 '화태(禍胎)' 라 하였다. 친구들과도 자주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였다 한다.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의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다. 그해 가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해 장경왕후(章敬王后: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정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순창군수 김정·담양부사 박상 등은 중종의 정비(正妃: 폐위된 신씨)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하였던 박원종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이 때문에 대사간 이행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하여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원로파, 즉 반정공신과 신진사류의 대립으로 발전, 이후 기묘사화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뒤 수찬을 역임한 뒤 곧이어 정랑이 되고, 1517년에는 교리로 경영시독관·춘추판기주관을 역임하였으며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여씨향약(呂氏鄉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고, 조선 초기에 와서도 사장(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하였고 도학(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 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하여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 갔으며, 뒤에 이황·이이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워 놓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의 일반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문(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인주(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

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신타과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되어 세자 시강원의 세자 부빈객을 겸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천거시취제인 현량과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안처겸·박훈 등 28인이 뽑혔으며 김정·박상·이자·김구·기준·한충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하였다. 이와 같이 현량과 실시를 통하여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를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이들은 1519년(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정국공신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權貴)를 위하여 반정하였는데 이러한 종류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피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데 이(利)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장하였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이를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청하고 나섰다.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 등은 원종공신이 많아 외람되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진사류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반정공신들은 기성 귀족이 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원로가 된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몰아 배척하려는 급격한 개혁주장은 종종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2·3등공신의 일부, 4등공신 전원 등 전 공신의 4/3에 해당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훈구파 중 홍경주·남곤·심정은 경빈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호조판서 고흥산, 심정등이 밀의하여 밤에 신무문을 통하여 비밀리에 왕을 만나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왕이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투옥되었다. 처음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 뒤 훈구파의 김전·남곤·이유청이 각각 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하여 그해 12월에 사사되었다. 이때가 기묘년으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그 뒤 선조 초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 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하여 사당과 서원도 설립되었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 1576년 회천에 양현사가 세워져 봉안되었으며, 1605년에는 묘소 아래에 있는 심곡서원에 봉안되는 등 전국에 많은 향사가 세워졌다. 저서로는 『정암집』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소(疏)·책(策)·계(啓) 등의 상소문과 몇 가지의 제문이고 그밖의 몇 편의 시도 실려 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묘는 용인시 수지면 상현리에 있으며, 1585년(선조 18)에 세워진 신도비의 비명은 노수신이 짓고, 이산해가 썼으며 김응남이 전액(篆額)하였는데 용인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구(趙俱)

한양조씨로 자는 반숙(盤叔)이고, 1624년(인조 2) 갑자년에 대사간 조택(趙澤)의 장손으로 출생, 시조공 지가(之嘉)의 16세손이고 부원군 온(溫)의 11세손이다. 1644년(인조 22) 갑신년에는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효종 3년 임진년에는 벼슬이 직장에 올랐다. 1674년 현종 15년(갑인)에 50세의 장년으로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는 안인(安人)으로 함평이씨이고, 묘지는 오성면 죽리 죽림동으로 임좌향 합평이고 비석과 망주석 등이 있다.

조방정(趙邦楨)

한양조씨이고 자는 여후(汝厚)이며, 시호는 휴암(休岩)이다. 1602년(선조 35) 출생하였고 시조 지가공의 15세손이고, 한천부원군 온(溫)의 10세손으로 택(澤)의 장자이다. 인조 8년 음관으로 사복시의 관관을 제수받았고 또한 무과에 올라 부호군으로서 효종 때의 북벌계획에 참여하여 많은 강병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1660년 효종의 승하로 복진이 좌절(座折)되었고, 1665년에는 판결사에 올랐다. 1668년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였고 1670년(현종 11)에 나이 68세로 별세하였다. 배는 숙부인 황주이씨이고 묘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 선영하 자좌향이며 합평으로 많은 석물이 있다.

조방한(趙邦翰)

한양조씨로 1604년(선조 37) 갑진년에 대사간 조택(趙澤)의 차자로 출생하였고, 어릴 때부터 청명하여 많은 학문에 능통하였고 조봉대부와 직장을 역임하였다. 1665년(현종 6) 2월에 6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배는 영인으로 전주최씨이고, 묘는 오성면 학현리(현 안중면) 선영하이고, 묘자향으로 합평이다.

조병도(趙炳道)

한양조씨이며, 자는 중혁(重赫)이다. 대사간 조택(趙澤)의 10세손으로 1806년(순조 6) 병인년에 평택에서 출생하였다. 1827년에는 초시인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1836년(헌종 2)에 진사과에 합격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장으로 승차되었으며 이어 갑신년에 가선대부, 용양위호군에 올랐다. 그러나 동년 9월 7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배(配)에는 정부인 진주강씨이고 오성면 죽리 대죽동 삼성산 동록편 우좌향 합폄이다.

조빈(趙彬)

한양조씨이며, 자는 화백(華伯)이다. 대사간 조택(趙澤)의 고손으로 1637년(현종 14)에 출생하였다. 1712년(숙종 38) 임진년에 훈련원봉사로 입사(入仕)하였고 1735년(영조 11)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배(配)는 단천 학림정씨로 부(父)의 자는 도일(道一)이다. 묘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으로 자좌향이며 합폄이다.



■ 김달명 처 조씨 정문

조씨(趙氏)

1737년(영조 13)~?.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동몽교관으로 추증된 의성김씨 김달명(金達命)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를 모시는데 남편과 더불어 극진한 효성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였으며 상을 당한 후에도 맛있는 것을 입에 넣지 않고 소식(素食)으로 3년을 지내었다. 뒤에 그녀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1852년

(철종 3) 정려받았다. 정려문이 서탄면 적봉리에 있다가 오산 미군기지의 설치로 이전하여 현재는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재건축되어 있다. 2001년 서탄면 장등리 지역으로 정문을 옮겼다.

조운욱(趙雲郁)

한양조씨이고 자는 문향(文鄉)이다. 1677년(숙종 3)에 대사간 조택(趙澤)의 증손으로 출생하고, 169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709년 통덕랑에 오르고 1735년(영조 11)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공인(恭人)인 영월신씨와 창원윤씨 두 분이고 묘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 선영하 신선(神仙)한 미봉 남록(南麓)으로 축좌향이다.

조운필(趙雲弼)

한양조씨이고 자는 여상(汝相)으로 대사간 조택의 증손으로 1652년(효종 3)에 고향인 오성면 죽리에서 출생하였다. 1693년(숙종 19)에 사관하고 사직령을 제수받았다. 1704년 나이 52세로 별세하였다. 부인은 광주이씨이고 묘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 선영하 임토향으로 합편이다.

조유(趙侑)

한양조씨로 대사간인 조택(趙澤)의 손으로 1636년(인조14)에 고향인 오성면 죽리에서 출생하였다. 1672년(현종 13) 등과하고 참봉에 제수되었다. 그후 1692년(숙종 18)에 5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부인은 창원윤씨로 계배(繼配) 안동권씨와 함께 오성면 대죽동 묘봉(卯峯) 유좌향으로 세 위를 합장했다.

조진(趙鎭)

한양조씨이며, 대사간 조택의 손으로 1631년(인조 9)에 고향인 오성면 죽리에서 출생하였고, 1663년(현종 4)에 참봉을 제수받았다. 1678년(숙종 4)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청해이씨이고, 묘지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 유좌향이다.

조종명(趙鍾明)

한양조씨이며, 1819년(순조 19) 기묘생이고, 자는 원서(元瑞)이다. 시조공 지수(之壽)의 22세손이며, 중시조인 참판공의 15세손으로 원철(元喆)의 아들이다. 오성면 죽리에서 성장하고 어릴 때부터 한학에 능통한 재질이 있어 임오년 2월 22일 왕세자 가례 후 경과이하 과실 행이하문 택길사 전왕 여입학 관례별시 합경증광 마간 5월 29일 시행 삼등 104인 중 합격자로 그의 아우 종현공과 같이 합격하였다. 당시 사마록과 과장(科場)에서 지은 글을 지금도 후손(조성락)이 소장하고 있다. 64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글이 오늘날까지도 후손에게 잘 간직되고 또 명문은 현대에 사는 자손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다 한다. 묘는 오성면 죽리에 있다.

조진걸(趙震傑)

한양조씨이며, 대사간 조택(趙澤)의 증손으로 자는 군보(群甫)이다. 1675년(숙종 1)에 고향인 오성면 죽리에서 출생하였고, 1699년에 진사과에 합격하였다. 1708년(숙종 34)에는 통덕랑에 오르고 1732년(영조 8)에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여흥민씨로 묘는 오성면 대죽에 있다.

조진창(趙震昌)

대사간 조택(趙澤)의 증손으로 1655년(효종 6)에 고향인 오성면 죽리에서 출생하였다. 1698년(숙종 28)에 입사(入仕)하고 직장(直長)에 배수(拜授)되었다. 그러나 1706년 병술년에 52세에 별세하였다. 부인은 여흥민씨이고 묘지는 오성면 죽리 대죽동 능과(陵過)로 임좌향이고 쌍분(雙墳)이다.

조택(趙澤)

자는 중청(仲淸)이요 시호는 죽하(竹下)이다. 1580년(선조 13) 한양에서 아버지인 첨추공(僉樞公) 대용(大容)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21세에 음관(蔭官)으로 이조좌랑에 오르고 벼슬이 계지(階至)함에 따라 정언과 교리 등을 거쳐 사예보덕(司藝補德)과 훈련원의 사간 그리고 대사간을 두루 거쳤다.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에는 척화(斥和)를 주장하였고 인조 25년 하해(下亥)에 이곳 오성면 죽리 대죽동으로 낙향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조하행(趙夏行)

자는 여선(汝善)이다. 1830년(순조 30) 병인생으로 1851년(철종 2)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862년 임술년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1902년(고종 39)에는 벼슬이 통정대부에 이르고 1907년(순종 1)에는 국운의 쇠퇴함을 통감하면서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인 평택으로 낙향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대가인 그는 무슨 운명인지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의 소식을 전해듣고 별세하였다. 부인은 숙부인 김해김씨이고 부(父)의 자는 기환(箕煥)이다. 묘는 오성면 대죽동 선영으로 오좌향이다.

조현(趙軒)

자는 경지(景至)이고, 성(姓)은 풍양(豐壤)에서 나왔으니 고려 때의 시중공(侍中公) 조맹(趙孟)의 후손이다. 선고(先考)의 휘는 연기(延機)로 홍문관응교요, 모친은 진산 강씨이다. 명종 15년에 출생하였고 선조 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선조 12년에 음관(蔭官)으로 보직되어 경기전(慶基殿·태조의영정봉안소(影偵奉安所))참봉이 되었다가 병인년에 선능(성종대왕능)의 참봉으로 제수되었다. 그후 선조 26년 여름에 선공감역(膳工監役)으로 제수되어 관서(關西)로부터 도성으로 올라왔다가 선조 34년에는 동몽교관(童蒙敎官), 동왕 37년에는 한성참군직으로, 38년에는 대흥현감으로 전직되었다가 40년 파직되고, 광해군 2년에 다시 기용하여 2월에 평택현감에 보직되었는데, 동왕 4년 3월에 죄없이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옥에서 58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지계최(池繼崔)

1593(선조 26)~1636(인조 14). 조선후기 이괄(李适)의 난 평정에 참여한 공신. 자는 언숙(彦叔), 본관은 충주. 아버지는 선원전참봉(璫源殿參奉)을 지내고 호조판서 충흥군(戶曹判書忠興君)으로 추증된 지세륜(池世倫)이고 어머니는 참봉 김귀형(金貴亨)의 딸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어려서부터 기절(氣節)이 훌륭하였고 무예와 용맹으로써 명성을 떨쳤다. 1623년(인조 1) 관서행영(關西行營)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의 서로소모별장(西路召募別將)이 되었다. 이듬해 부원수 이괄이 인조 반정 공신의 책봉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모의하며 함께 가담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어 의병을 거느리고 이괄의 반군을 추격하여 장만과 더불어 안현(安峴)에서 적군을 대파하였으므로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있는 임금을 구하고자 병사를 이끌고 가다가 신계(新溪)에서 적을 만나 싸우다 전사하였다. 사후에 한성판윤으로 추증되었고, 충성군(忠城君)에 봉해졌다. 광주(光州) 병천사(秉天祠)에 제향되었다.



■ 지계최 영정



■ 지계최 묘

지영희

1908~1980. 포승면 내기리에서 출생. 평택 부용·계성초등학교 졸업. 1929년 조항련 선생의 문하에서 호적(피리)을 배웠고, 1941년에 조선음악회를 창설하였다. 1953년 대한국악원 산하 지영희고전음악연구소를 창설하여 기악과 고전무용을 지도 육성하였다. 1967년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73년 시나위 52호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80년 숙환으로 하와이에서 별세하였다.

지응학(池應鶴)

자는 봉거(鵬舉)이고 휘는 응곤(應鯤)으로 시조 지경(池鏡)의 25세손으로 중시조인 윤원(允源)의 4세손이다. 조선 선조 신묘년생으로 광해군 신유년에 별장으로 등관하여 인동부사와 녹선무연훈을 역임하고 인조조 계해년에 사망하였다. 묘는 오성면 대반리 용두동 전록 유좌향으로 부인은 숙부인 평산이씨와 합폄이다.

진만옥(陳萬玉)

1831년(순조 31)~1907년(고종 44). 조선후기의 관인. 동몽교관(童蒙教官) 진동형(陳東亨)의 아들로써 1885년(고종 22) 전략장군행충훈부부사용(宣略將軍行忠勳府副司勇), 충훈부도사, 장사랑도사(將仕郎都事) 등을 제수받았다. 묘소는 현덕면 덕목리 광성산 밑 덕곡에 있다.



■ 진만옥을 전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으로 임명하는 교지

차원부(車原潁)

1320년(충숙왕 7)~1398년(태조 7). 여말 선조의 학자·화가. 장안동의 연안(延安)차씨 파조이다. 자는 사평(思平), 호는 운암(雲巖). 고려 개국공신 효전(孝全)의 20세손이며, 지방어사(知防禦使) 종로(宗老)의 아들이다. 1364년(공민왕 13)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간의대부(諫議大夫)·부문각직제학 겸 지국평장사에 올랐다. 정몽주·길재·이색 등과 함께 명성을 떨치던 유학자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고려말 정치가 문란해지고 국운이 기울자 벼슬을 버리고 평산(平山)의 수운암동(水雲巖洞)에 은거하여 주역 연구에 전심하였다. 이곳에 흙집 몇 칸을 지어 매화와 국화를 심고 학(鶴)을 기르고 질그릇에 음식을 먹으며 망국의 한을 자탄하면서 세속과 일체 절연하고 만년을 보냈다. 1392년 조선왕조가 개국한 뒤 태조가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내렸으나 “식초 다섯말을 먹고 죽을 지언정 공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며, 또 정언·판전농사사 등의 벼슬을 제수했으나 모두 받지않았다. 뒤에 송원(松原)에서 하륜·함부림·조영규·정도전 등이 보낸 자객에게 가족 및 일당 80여인과 함께 살해되었다. 당시 고려의 충절을 지키던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문과 함께 그림을 잘 그렸으며 특히 매화에 장기(長技)가 있었다. 세종 때의 상신 황보인이 그의 원통한 죽음을 진소(陳疏)한 끝에 신



■ 차원부 묘

설(伸雪)되었고, 성삼문이 설원에 대하여 왕명으로 지은 시 두 수(首)가 전해오며, 정조 때 홍양호가 왕명을 받들어 『설원록 雪冤錄』을 펴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시중(侍中)에 추증되고, 순천의 운암사(雲巖祠)에 제향되고, 철종 때 서울 선비들이 개성 송원에 사당을 세웠다. 묘소는 처음에 양주군 봉황산 양원촌에 있었으나, 1972년 2월에 장안동 월문산으로 이장하였다. 부인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

천금(天今)

조선시대 열녀. 사비(私婢)인 천금은 같은 천인인 사노 광손(光孫)의 아내이다. 그 남편과 8년 동안을 같이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천금이 밤낮으로 울부짖고, 혹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수그리고, 얼굴을 들지 않아서 자기의 용모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상대하여 말도 하지 않고 웃는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시부모는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욱 정성껏 봉양하였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으나 그 친정 형제들은 그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개가시키려 하였다. 먼저 그 의중을 떠보았으나 울면서 죽기로써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냥 둘 수 없다 하여 몰래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로 정하고 날짜까지 잡아서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 하였다. 천금이 이 기미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물을 모두 팔아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먼저 그 시부모께 드리고, 다음으로 그 마을에 사는 남편의 친구들을 불러 주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 내 뜻을 모르고 나를 시집보내려 하는데, 내 뜻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만날 기회도 없겠기에 이것으로써 서로 떠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남편과 한 무덤에 묻혀 함께 지하에서 노니는 것이 나의 지극한 소원이니, 여러분께서는 내가 죽거든 나의 남편의 무덤 곁에 묻어 주어 죽어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비읍니다.

그리되면 죽어도 여러 어른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비오듯하게 울었다. 좌중의 여러 사람이 좋은 말로 위로하여 마음을 약간 돌려주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 날이 한낮이 기울도록 인기척이 없어서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고 보니 천금은 이미 죽어서 피가 방에 가득하였다.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 보니 평소에 차고 있던 장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한 것이었다. 그 일가들이 곧 그 시체를 남편의 무덤에 함께 묻어 주니, 이 때 천금의 나이가 스물 여섯이었다. 대체로 천인의 계집은 남편이 죽으면 다시 시집가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는데, 천금은 사노의 아내이면서도 능히 정절을 지켰으니, 세상에 썩드문 일이다. 그 깨끗한 몸을 더럽힐까 하여 자결하여 죽는다는 것은 정부(貞婦)로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뒤에 조정에 알려 정려하였다.

최경(崔涇)

생몰년 미상. 최영(崔瑗)경주 김씨 계통. 김알지의 후손. 1302년(고려 충렬왕 28) 수성백에 봉(封)해짐. 隨城崔氏 시조의 5세손. 자(字)는 사청(思淸). 조선 초기의 대표적 화원화가. 인물화에 뛰어났으며 산수화의 대가인 안견(安堅)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고 한다. 세종 때에 화원이 되었으며 성종 때에 이름을 날렸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으며, 도화원(圖畫院) 생도가 되어 화업(畵業)에 정진한 끝에 도화원별좌가 되었다. 또한 성종 때에는 소헌왕후·세종·예종·의경왕의 어용(御容)을 성공적으로 그려 화원으로서의 최초로 당상관에 제수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였으나 많은 신하들의 반대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어용·불상·인물 등의 그림에 있어서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며, 또한 허세를 부리고 과시적인 성격 때문에 승진을 거듭하기도 하고 도화원에서 파직되어 매를 맞고 관노(官奴)가 되기도 하는 등 파란이 많은 생애를 살았다. 주로 도화서의 동료인 안귀생(安貴生)·배런(裵蓮) 등과 함께 활약하였다. 북송(北宋)의 이공린(李公麟), 남송(南宋)의 유송년(劉松年) 등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아 있는 작품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일본에 그의 이름이 적힌 <백의관음상 白衣觀音像>이 한 점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진작(眞作)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호는 안양(安讓)이고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의 묘는 도일동 산110번지이고 석상(石床)과 비석 등이 있다.

최경숙(崔慶淑)

본관은 수성(隨城)이고 자는 길초(吉初)이다. 벼슬은 통훈대부 사옹원(司饔院) 판관이고 3월 23일 사망하였다. 부인은 밀양박씨이다. 계배(繼配)는 숙인 전주이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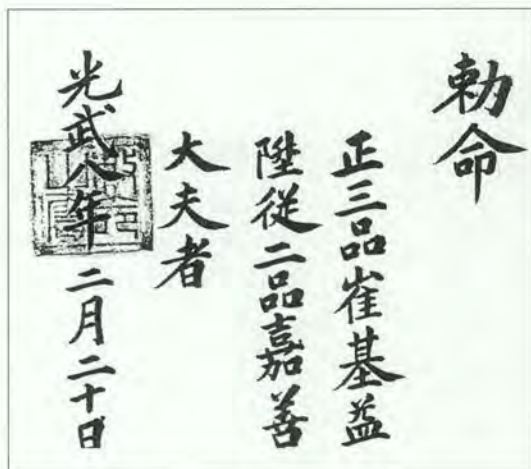
고 판관 요방(僑邦女)의 딸이고, 선영하 계좌향 쌍분으로 매년 음력 10월 9일 시향한다.

최기원(崔基元)

1879년(고종 16)~1956년. 독립운동가. 평택 출신. 1919년 포승면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태극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과 면민들을 설득하여 석정리 뒷산인 동굴봉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주재소에서 사건의 책임을 모두 자기에게 돌려 구속된 부락민들을 모두 석방하게 하고 혼자서 옥고를 치르었다.

최기익(崔基益)

본관은 수성(隨城)이고, 자는 인겸(仁謙)으로 원영(元榮)의 장남이다. 시조 21세손이고 순조 27년(1827년) 정해생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백가지서(百家之書)에 통달하였다. 특히 삼강행실의 근본이 투철하여 범백사(凡百事)에 놀라운 학문적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인근의 세평이 대단하였다. 1902년(고종 광무 6년) 임인년에 벼슬이 정3품 통정대부로 제수되었고, 1904년에는 정2품 가선대부로 올랐다. 관직을 사임하고는 진위군 유럽에서 향교의 도유사(都有司)로 추천되어 교년관을 봉직하면서 10여 년간 활동하였는데 사재를 들여 성역을 보수하고 유도의 보급에 힘썼다. 1912년 1월 5일 86세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독곡동 선영이며, 부인은 정부인 파평윤씨이고 합봉이다.



최성윤(崔聖胤)

본관은 수성(隨城)이며, 호는 무수흡(無愁翁)이다. 시조 문헌공의 12세손이고 가산공의 7세손으로 형조참의 치망(致望)의 아들이다. 조선 인조 갑신생으로 도덕군자인 명문대가의 선비 가통을 계승하고 성장해왔다. 그는 선비의 나갈 길은 곧 입신양명(立身揚名)에만 있다하지 아니하고, 반면 산림에 은거하여 자손들을 잘 교도해 신명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부모님 봉양에도 온갖 효성을 다하고 동기일신(同氣一身)의 돈목(敦睦)을 늘 강조하는 사상이 깊어 그의 정신을 자타가 칭송해왔다. 또한 학문적인 문장에도 출중하여 당대의 명인 서파(西坡) 오도일(吳道

日)의 추천으로 감역(監役)의 벼슬이 제수되나 이를 거절하고 산간에 은거하면서 후학의 인도에만 정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덕망이 사해(四海)에 떨치고 그의 제자와 유림에서는 그를 일민(逸民)이라 논해왔다.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사모하던 사림에서는 그가 문헌 포승면 도곡리를 공의 아호 무수자(無愁字)를 따라서 동명을 무수리라 칭하고 있다. 오늘날 포승면 무수동명은 그의 유택(幽宅)과 함께 유래되고 있다.

최성익(崔聖益)

조선 고종 때의 효자. 본관은 수성(隨城). 포승면 도곡리 출생. 10세 때, 후사가 없던 숙부의 양자로 입적하여 봉공(奉供)의 정성을 다하였다.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예의를 갖추었고 구미에 맞는 음식으로 항시 식탁을 준비하였다. 모친이 다리에 종기가 나서 3년 여를 구로(劬勞)함에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완쾌시켰다. 어사 이한영의 장계(狀啓)로써 고종 때 효자정홍(孝子旌紅)의 은전을 받았다.

최수성(崔壽城)

1487년(성종 18)~1521년(중종 15). 조선 전기의 선비화가. 자는 가진(可鎭), 호는 원정(猿亭)·북해거사(北海居士)·경포산인(鏡浦山人).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본관은 강릉최씨. 진위파(振威派)로서 생원 세효(世孝)의 아들이다. 8세에 진위현에 이주하여 학업에 정진했고, 9세 때 주변에서 문예에 뛰어나 칭찬을 받았으나 학문의 탐구 열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19세에는 명산대찰을 두루 살피며 야인으로 경륜만 쌓아 나갔다. 또 김굉필의 문하에 들어 수학하면서, 정암 조광조·김정(金淨) 등과 교우하였다. 한때 원송이를 길들여 함께 살았으며 원정이라는 아호는 그것에서 연유하였다. 연산군 때에 이르러 세상을 멀리하고 진위현 원산(猿山)에 원정(猿亭)을 짓고 주변의 선비들과 시론(時論)하며 지냈다. 중종반정 이후 정암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사림파의 득세가 있음에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으니, 다음의 『성소부부고』 제23권 「설부」에서 표현한 것 같이 그의 고고함을 엿볼 수 있다. “최원정은 세상을 내리보고서 벼슬하지 아니하고 화나 면하기를 바랐다.” 하루는 제현(諸賢)들이 정암의 집에 모였는데 원정이 밖에서 들어오며 숨이 가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황급히 물을 달라고 해 마시고는, “내가 한강을 건너올 때 물결이 솟구치고 배가 부서져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다”고 하니 정암이 웃으며 ‘우리들을 풍자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원정이 붓을 잡아 벽에 산수를 그리자, 원충(김정의 字)이 시를 지었다. 원정이 만의사(진위현 무봉산을 만의산이라 했었고, 만기사 원터가 있었다고 볼 때, 무봉산의 절이라고 추정됨)에 올라 지은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한다.

옛 불전에 몇 종이 있고	고전잔승재(古殿殘僧在)
나뭇가지엔 자물녁 경쇠소리 맑아라	임소모소청(林梢暮磬清)
산굽이는 천리나 아스라한데	곡통천리진(曲通千里盡)
담장은 우뚝, 못 산 하마 낮아 뵈네	장압중산평(牆壓衆山平)
나무는 하 늙었으니 몇 살이나 되었누	목노지하세(木老知何歲)
새들의 지저귓도 곳에 따라 유달라라	금호자별성(禽呼自別聲)
어려운 세상 죄의 그물 근심했더니	유난우세강(艱難憂世綱)
오늘이야말로 부끄럽다. 나의 삶이여!	금일귀여생(今日鬼余生)

또 같은 책 부록1의 「한산 초담」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최원정이 항상 화를 입을까 두려워 세상을 방랑했건만, 마침내 그의 숙부(최세절 : 형조판서로 최수성이 자신에 대한 직언을 많이하자 제거할 마음을 품고 안처겸의 난에 연루시켜 심정에게 고하여 대죄를 주게함)의 모함으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편 『연려실기술』 제8권 중종조 고사본말의 신사무옥편에 보면, 최수성이 강릉 부사 한급(韓汲)의 딸과 혼인하고, 행동을 풍습과 달리하여 벼슬할 의사없는 표현을 하여 세상을 회롱하였다고 전하며,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은유자적하던 그의 최후는, 신사무옥에 의해 진위현 향리에서 목 베임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때 천재지변이 일어나 죽음을 하늘이 애통해 했다는 설화도 구전되고 있다. 최수성은 1541년(중종 35)에 누명을 벗어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조는 그의 묘가 있는 당시 진위현 이탄면의 원산주변 마을에 부역을 면제해 주고 묘를 정성껏 돌보게 하였다 한다. 송탄에 있던 최정승의 묘는 오산 미공군 기지 건설에 의해 1970년대에 강릉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후손들의 일부가 좌동, 탄현 등지에 살고 있다.

최승현 처 이씨

일제강점기의 열녀. 본관은 전주. 수성최씨의 종손인 최승현과 혼인하였는데, 시부모의 봉양과 남편 시종을 훌륭히 하였다. 1911년 9월에 남편이 23세로 요절하는 무너지는 슬픔을 당하였으나 12월에 유복자로 종손혈통을 출산하니 중중에서는 실로 크나큰 경사라고 하였다. 그 후 90세된 조부모와 60여 세의 시부모를 모시고 빈한한 생활을 하며 오로지 아들 완희(完喜)의 성장만을 위해 낮이면 농사일을 하고 밤이면 길쌈하며 밤을 새우는 고달픈 40여 년 세월을 하루같이 지속해 왔다. 또한 수성최씨 중종의 종손가로 사당 봉사와 선조의 봉제사를 정성껏 마련한 유공의 큰

뜻으로 가세도 점차 부흥되어 가고 자손들도 크게 발전 성장해 갔다. 특히 완희(完喜)는 6.25 때 가문의 족보와 선조들이 받은 교지(教旨) 및 전교(傳敎)를 모아 피난의 와중에 잘 보전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이씨 부인의 평소 가르침 덕분이라 하였다. 1957년 수성최씨 문중에서는 『독행록 篤行錄』을 짓고 일동의 이름으로 칭송하였다.

최아성(崔阿城)

현대의 효부. 본관은 전주. 해주오씨 오용근(吳龍根)과 혼인하였다. 충효의 가문에서 성장하여 남달리 인자하고 부덕이 높은 대표적 여인으로 시부모에 효성, 남편에 공경심이 유독 특이하였다. 1919년 남편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후 29세의 젊은 나이로 시부모의 봉양과 1남 2녀의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오며 90여 리의 먼 장터까지 나가 시아버지의 약재를 구해 시약하는 정경은 실로 가상하였다. 또한 빈한한 생활 속에 가게를 꾸려가며 하루같이 효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오직 독립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80세 고령의 노부모는 돌아가시고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전국을 전전하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자손의 교육을 훌륭히 하니, 1953년 공주군수, 1970년 황해도민 회장, 1978년 해주오씨 종친회장, 1979년 진위향교 전교 등의 표창을 받았다. 또한 1980년 성균관장의 표창과 명륜당(明倫堂)의 명륜장(明倫章) 등을 수상하였으며 평택시내에 살았다.

최유림(崔有臨)

1426(세종 8)~1471(성종 2). 최영규(崔永奎)의 6세손. 조선 초기의 무신. 본관은 수성(隨城). 자는 자양(子昂). 1450년(세종 32) 무과에 급제하여 고성현령·의금부진무(義禁府鎭撫) 등을 역임하고, 1455년(세조 1) 세조 즉위에 공이 있어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이 되었다. 1464년 중추원부사로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전라도 수군처치사로 나갔으나 앞서 명나라에 갔을 때 사무역(私貿易)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벼슬을 박탈당하고 지방으로 쫓겨났다.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공현위장(控弦衛將)이 되어 충청도병 1,000명을 이끌고 석장현(石場峴) 싸움에서 적장 김말손(金末孫)을 사로잡는 등 공을 세워 정충적개공신(精忠敵愾功臣)이 되고 오위장에 임명되는 동시에 수성군(隋城君)에 봉하여졌다. 그해 겨울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증직은 자헌대부 병조판서이며,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묘소는 지산동 우곡 산106번지에 있고, 현재 사우(祠宇)와 담장은 1980~1983년에 개축 준공한 것이다.

최윤신(崔潤身)

생몰년 미상. 최영규의 7세손. 본관은 수성(隨城). 최유림의 아들이다. 조선 성종 때 인물로서 호는 극기재(克己齋)라 하였다. 진사과에 참방(參榜)한 뒤 벼슬에 뜻이 없어 후학을 양성하고 심신의 수양에 뜻을 두어 향리에서 명유(名儒)와 교류하며 지냈다. 1483년(성종 14년)에 나라에 추천되어 음관(蔭官)으로 사헌부집의 등을 지내다 낙향하여 성둔암, 안사재 등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지냈고 진위현의 관사(館舍)를 건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증직은 통정대부·이조참의이며, 묘소는 지산동 소골에 있다.

최응수(崔應守)

조선시대의 충신. 신분은 하리(下吏)이다. 향교 아래에 살았는데 병자호란 때 적이 향교에 들어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 때 앞장서 들어가 위판(位版)을 지고 나와 깨끗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난리가 끝난 후 두어 칸을 지어 위판을 모셔와 봉안하였다. 현령 남두극(南斗極)이 재물과 질기와의를 모아 고쳐지었는데 1644년(인조 22)에 완성하지 못하고 교체되었다. 현령 이산뢰(李山賚)가 이어 받아 1647년에 전(殿)·우(宇)·재·당·부엌·창고·문호(門戶)를 지었다. 동·서무(東西廡)가 하나도 없어서 전내(殿內)에 벽으로 갈라 막아 제현(諸賢)과 최응수를 배향하였는데,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이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향교의 사람들이 관청에 고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임금께 아뢰어 복호(復戶)로 삼고 5결(結)을 주어 자손들이 천역(賤役)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자손들이 문서를 잃어버려 복호를 얻지 못하였다. 교궁(校宮)에서 쓰던 번포(膳脯)가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다.

최의윤(崔義允)

1856년(철종 7)~1914. 자는 보경(保經)이고, 오성면 죽리에서 종명(種明)의 자로 태어났다. 1889년(고종 26)에 통덕랑, 의금부도사의 교지를 받고 1891년에는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에 올랐다. 57세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오성면 죽리 삼정에 있다.

최자반(崔子泮)

생몰년 미상. 최영규 8세손. 본관은 수성. 호는 망고(望阜). 최윤신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어질고 강직하여 많은 세인들의 추앙을 받았다. 학문을 좋아해서 김모재(金慕齋)와 안국(安國) 형제 그리고 백휴암(白休庵) 등 인걸과 교분하면서 지고한 학문을 닦았다. 강릉최씨 진위파의 최수성 —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진위현은 외가 —

과, 평택지역의 조광조, 우남양 등과도 교류하였다고 한다. 산수와 자연을 벗삼으며 조정의 벼슬길을 마다하고 부모님 봉양에 진력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여 진위현 우곡동에 산소를 모시고, 시묘막을 지어 그곳에서 묘를 모시는 생활을 6년 동안 하였는데 기이한 징조가 많았다고 한다.

“첫째는 우막 앞에 샘물이 용출하였는데 샘을 파니 샘물이 용출하였고, 둘째는 그가 한질(寒疾)이 나는데 꿈중에 한 노인이 환약 3개를 주어 그것을 복용하고 효험을 보았고, 셋째는 우막 근처에 뱀과 개미가 아주 많이 서식하였는데 그가 시묘하는 중에는 전혀 접근치 않아 신통하였고, 넷째로는 우막 근처에 학 한 쌍이 오래된 소나무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가 상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그 학도 슬피 울며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동리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낳은 대효자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그는 나무를 사랑하여 은행목과 향나무 그리고 팽이나무 등 수십 주를 생전에 식수하였는데 6, 25전쟁의 폭격으로 거의 고사되고 지금은 은행목 2주와 향나무 2주가 성장하여 큰 거목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철저히 보존, 관리해 오고 있다고 한다. 사후에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제수되었다. 그의 묘소는 독곡동 산44번지 쌍분이다.

최창운(崔昌運)

1624(인조 1)~1692(숙종 18). 조선후기의 무신. 자는 응휴(應休), 본관은 수성. 1660년(현종 1) 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과(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를 제수받았고, 그해 황주진관 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1664년 겸선전관에 임명되었고 1668년 노강진수군첨절제사(路江鎭水軍僉節制使)로 부임하였다. 1672년 행용양위부사용을 역임하였고 이어 행훈련원첨정(行訓練院僉正)을 제수받았다. 묘소는 독곡동 산 44번지에 있다.

최희효(崔希孝)

1509(중종 4)~1589(선조 22). 최영규 9세손. 자(字)는 언순(彦順). 본관은 수성. 최자반의 아들. 재덕(才德)을 겸비하였고 특히 문학에 탁월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하여다고 한다. 1531년(중종 26) 무과에 급제, 정주관관이 되었으며, 1540년 광주 판관, 1543년 선천 판관, 1545년 예조 예빈사 부정을 지냈다. 1549년(명종 4) 부령부사 등을 역임하고 1553년 이후 수군으로 나아가 만포진첨사(滿浦鎭僉使), 경상좌수사를 거쳐, 1557년 전라좌수사로 재임시 왜선 3척, 왜인 200여명을 생포하여 치하를 받았으며, 그후 전라병사, 안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565년(명종 20) 동지사

(冬至使) 김억령(金億齡)을 따라 명나라에 갔을 때 무관이라고 업신여기던 명의 대신들을 탁월한 문장과 덕행으로 누르고 돌아왔다고 하여 명종이 기뻐하며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제수하였다. 그러나 돌연 병을 얻어 낙향하여 진위현 탄현면 오좌동(현재 독곡동)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589년(선조 22)에 별세하였다. 그가 죽자 선조는 크게 슬퍼하고 권을을 예관으로 보내어 장례를 극진히 치르게 하였다. 묘소는 독곡동 산 44번지 수성최씨 선영에 있다.

홍복성(洪復性)의 처 이씨

조선시대의 열녀. 학생 홍복성과 혼인하였는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남편이 오랑캐의 포로가 되어 박해를 받자 남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진에 뛰어 들었다가, 오랑캐에게 살해되었다. 그후 조정에서는 가륜한 미덕을 기려 정표하였다.

황씨(黃氏)

1716년(숙종 42)~?. 조선후기의 열녀. 본관은 상주로 김치복의 아들 김수로(金洙老)와 혼인하였다. 남편이 죽은 후 쌀 한톨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있다가 7일째에 남편을 따라 죽었다. 열녀로서의 행실이 조정에 전하여져 1831년(순조 31)에 정문이 내려졌다. 정문은 서탄면 적봉리에 있었으나 오산 미군기지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에 재건축 봉안되어 있다. 2001년 서탄면 장동리 지역으로 정문을 옮겼다.



■ 김수로 처 상주 황씨 정문

한상룡(韓相龍)

1880년(고종 17)~?. 친일 인물. 본관은 청주(淸州).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한확(韓確)의 후손이며, 한희교(韓喜教)의 아들. 아버지 희교(喜教)는 한말의 친일파 거두로 매부인 이완용의 도움으로 탁지부 관리가 되었고, 또 그의 권력으로 마련한 전답인 청북면 백봉, 고덕면 해창, 동청 일대의 수 천여 석의 방대한 수확농지를 양도받아 기호지방의 일대 부호로서 군림하였다. 상룡은 아버지 덕택으로 일본 유학을 하였고, 귀국한 뒤에는 조선총독부 고위관리들과 친교를 맺고 나아가 총독에게도 신임을 얻어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盟)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이후 비행기 헌납기금의 조성사업, 지원병제도의 창설, 그리고 근로자 징용 등 일제를 위하여 여러 일들을 하였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反民特委)의 심판을 받은 뒤, 심신이 허약해

저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한상학(韓相學)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한확(韓確)의 후손이며, 한희교(韓喜教)의 3아들 중 맏아들로 출생. 일찍이 한학과 서도에 능통하여 가히 명필이라 칭했다. 그는 외삼촌인 이완용(당시 내각총리대신)의 도움으로 내직에 등용되었고 벼슬이 승정원 도승지에 이르렀다. 1910년 한일합방의 경술국치와 더불어 관직을 떠났고,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묘는 고덕면 해창리 산기슭에 있었는데, 최근에 후손에 의해 화장처리 되었다.

한은(韓蘊)

?~1555년(명종 1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청주(淸州). 서탄면 금암리에서 출생.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38세에 장흥부사에 부임하여 진혈(賑恤)에 힘써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다.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乙卯倭變) 때 달랑포(達梁浦)에 왜선 70여 척이 쳐들어오자 장흥부사로 절도사 원적(元績), 영암군수 이덕건(李德堅)과 더불어 이에 맞서 싸우다가 적의 수는 너무 많고 원병도 오지 않는데다 3일이 지나자 식량마저 떨어져, 결국 왜적의 공격에 성이 함락되고 절도사 원적과 함께 전사했다. 1683년(숙종 9)에 장흥읍 사람들이 건립한 충렬사에 봉사되었으며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 뒤 1696년(숙종 22)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내렸다. 서탄면 금암리에 충신정문이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윤성(洪允成)

1425년(세종 7)~1475년(성종 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회인(懷仁). 초명은 우성(禹成). 자는 수옹(守翁). 호는 영해(領海). 제년(齊年)의 아들로 팽성현 서촌 임정리에 거주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되고, 무재(武才)가 있어 특별히 사복시 주부를 겸임하였다. 이듬해 한성부 참군·통례문 봉례랑에 임명되었다. 수양대군이 문종의 명을 받아 『진서 陣書』를 찬술할 때 좌랑으로서 참여하였으며,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에게 임금의 어리고 나라가 위태하니 정국을 바로잡을 큰 일을 일으켜야 한다고 진언하고 권람(權擘)을 모사(謀士)로 천거하였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황보인·김종서 등 원로대신을 살해,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적극 가담, 협력하여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사복시 판관에 승진되고 장랑을 거쳐 1455년 판사복시사가 되었다. 이해 세조가 즉위하자 예조 참의에 임명

되고, 세조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참판에 승진, 인산군에 봉하여졌다. 1457년(세조3) 예조 판서·경상우도도 절제사, 1459년 다시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모려위(毛憐衛)의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 신숙주의 부장이 되어 이를 토벌하고, 1467년 우의정, 1469년(예종 1) 좌의정이 되었으며, 이해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영의정에 승진, 이듬해 인산부원군에 진봉되었다. 1471(성종 2)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좌리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성질이 사나워 권세를 얻은 뒤에는 행의(行誼)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기세로써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가노(家奴)를 놓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으나 세조는 그가 정난의 원훈인 이유로써 단지 책망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았다. 영상이 되어 환향(還鄉)하였을 때에 팽성 현감이 내시하였다. 편복으로 현감을 접견하고는 사퇴 후에 현감을 구금입수(拘禁入囚)케 하였다. 상공 가노(家奴)에게 이르기를 “현감은 비록 적은 지위나 토주이요 정승은 높이 귀하나 본현의 토민이 아니니 현감은 예복을 입고 진알(進謁)하는데 정승이 편견하니 무례하지 않으리요” 하였다. 상공이 그 익일 현감을 석방하였다. 상공이 환조시(還朝時)에 왕께서 각읍령회의 현부를 하문하실 때 팽성현감 사건을 상고하였다. 왕께서 칭찬하시고 평택 현감을 승진하여 통정가자(通政加資)하였다 한다. 시호는 위평(威平)이다.

홍익한(洪翼漢)

1586년(선조 19)~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의사(義士).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習).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진사 이성(以成)의 자. 팽성을 함정리 출생. 이정귀(李廷龜)의 문인. 1615년(광해군 7)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 공주 행재 정시문과에 장원, 사서(司書)를 거쳐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시하여 모욕적인 조건을 내세워 사신을 보내오자 상소를 올려 청나라 사신 용골대를 죽임으로써 모욕을 씻자고 주장했으며, 마침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최명길 등의 화의론을 적극 반대했다.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조정의 권유로 화를 피하고자 평양 부서운으로 나갔으나 끝내 오달제·윤집과 함께 청나라에 잡혀가 뜻을 굽히지 않다가 그곳에서 처형당하니 이들을 병자 삼학사라 한다. 광주의 현절사·강화의 총렬사·평택의 포의사·홍산의 창렬사원·부안의 도동서원·영천의 장암서원·고령의 운천서원·평양의 서산서원 등에 제향되었고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저서로 화포집(花浦集), 북행록(北行錄), 서정록(西征錄) 등이 있다. 강화군 화도면 홍완리에 있는택지(宅址)가 경기도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황노식(黃魯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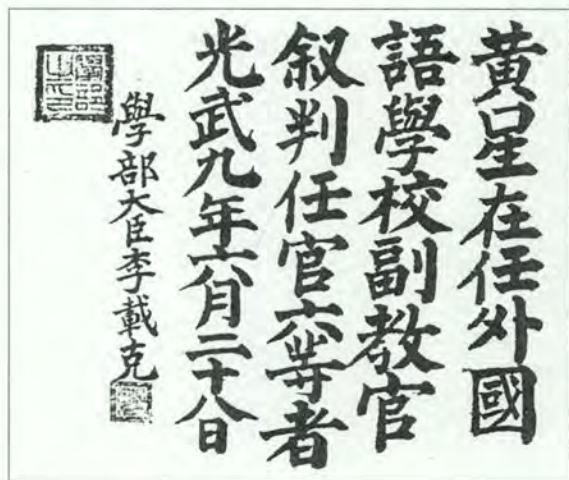
1881(고종 18)~1945.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여태(與泰). 오성면 양교리에서 좌찬성을 지낸 상산군 효원(孝源)의 14세손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충·효·예가 돈독하였고 성장해서는 교육에도 특이한 관심을 가졌다. 3·1운동 당시에는 동리사람을 인솔하고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고종이 죽자 초막을 마당에 깔고 망곡(望哭)하였고, 3년의 복상(服喪)을 마쳤다고 한다. 또한 부모님 봉양에 검소하지만 성심으로 하였고, 부모님의 뜻이라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또 사대의 예도를 엄히 여기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일부 학자간에는 기호지방의 예문가(禮文家)라 칭하였다. 1943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대흉작으로 마을사람들이 굶주리자, 자기집 비축미를 풀어 구민하였고 공공사업비의 부담은 언제든지 자청하여 많은 비용을 납부하였다.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원인은 선대로부터 집안의 일을 해왔던 사람이 나이 들어 괴질에 걸려 찾아오자 그를 사랑방에 기거하게 하고 몸소 자신이 병간호를 하였는데, 그는 소생하였지만, 노식은 병을 얻어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니 참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이었다. 그는 말년에 자기집에 한문서당을 차리고 9년간이나 자비부담으로 운영하였고 또 신홍학원을 설립하여 빈한한 인근 동민들에게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등 많은 후배를 양성하였다. 그는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余慶)'이란 말씀과 "유재능이 무근성(有才能而無勤成)이면 반불여무재능이 유근성(反不如無才能而有勤成)"이란 말씀을 좌우명의 신조로 삼고 후손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황사윤(黃士潤)

본관은 창원(昌原). 고려 시중공(侍中公) 충준(忠俊)의 31세손이고 파조인 이산공(尼山公) 이조판서의 12세손으로 양성 현감인 춘득(春得)의 아들이다. 성품이 남달리 온순하고 강직하여 세인의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아버지 춘득이 양성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치부에만 급급하여 그곳 현민의 많은 지탄을 받아 왔음을 늘 통분(痛憤)하게 생각하고 지난날 아버지의 실덕(失德)을 자신이 만회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는 선행의 일환으로 매년 추석과 정월 명절마다 많은 양곡을 풀어서 인근의 서민구호를 하였다. 또 농민들이 매년 흉년을 면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비를 부담하여 안성천변에 모래보(淤)를 축조하게 하여 매해 공사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모래보 축조공사는 농사행정을 지대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성재(黃星在)

1881(고종 18)~?. 본관은 상주(尙州). 현덕면 화양리에서 출생. 지방의 사숙에서 한학을 전수하고 1906년(광무 9) 26세의 약관으로 당시 한성외국어학교 부교관, 판임관 6등으로 임명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 학문에 능숙하였고 특히 한성중학의 학사성적은 매우 우수하였다. 동기생으로는 4인중 홍사익은 청군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일본군으로 갔고 정우홍은 조선군으로 입대하여 육군참위가 되었으며 유정수는 수학후 고향인 안성으로 돌아가 후학에 힘썼다 한다.



황효헌(黃孝獻)

1491(성종 22)~1532(중종 2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숙공(淑貢), 호는 축옹(蓄翁)·현옹(玄翁)·신재(愼齋). 한성출신. 영의정 황희(黃喜)의 현손(玄孫)이며, 부사 황관(黃權)의 아들이다. 진사로서 1514년(중종 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홍문관정자가 되었으며 이후 홍문관직제학·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1526년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성과 황해도관찰사, 1528년 이조참의, 그리고 이조참판에 올라 1530년 이행(李衍) 등과 함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32년 안동부사로 부임하였다가 갑자기 죽었다. 사람됨이 담론(談論)을 좋아하고 용모와 풍채가 훌륭하여 귀공자 같았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석하게 여겼다 한다. 상주 옥동서원(玉洞書院)에서 제사가 지내진다.

여 백

2장 민속

平澤



여 백

세시풍속

제 1 절

평택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안성시, 남쪽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인접하고 동북쪽으로는 용인시 서북쪽으로는 화성군과 이웃하는 경기도의 제일 남쪽지역이다. 생업과 연결시켜 본다면 논이 전지역의 40.1%를 차지하는 전천 후 농업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어 도시, 농촌, 어촌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문화권으로는 한수 이남 지역에서 수원, 오산, 송탄, 평택지역을 뭉쳐놓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평택지역에는 오랜 기간 실생활과 밀접한 세시풍속이 전승되어 내려왔다. 세시풍속은 1월에서부터 12월에 이르는 1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반복되어 왔던 주기전승(週期傳承)의 다양한 민속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음력의 월별(月別), 절후(節候), 명절(名節)에 따른 전통적 민간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衣食住) 생활 등이 두루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시풍속을 우리 조상들은 세시, 세사(歲事), 절서(節序),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이를 후대에 와서는 연중행사(年中行事)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시풍속은 형성의 다양성과 복합성 때문에 세시풍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을 형성시킨 자연적·문화적 배경과 세시풍속의 범주를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세시풍속의 형성 배경을 계절, 생업(生業)에 따른 자연 및 생활적 측면과, 역사적·종교적·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세시풍속의 배경에는 온대지방에 속하여 사계(四季)가 분명한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봄·여름·가을·겨울의 1년을 15일을 1기(一氣)로 24절기로 나누어 여기에 따르는 생업의 활동과 변화가 적용되어 온 것이다. 24절기를 양력의 월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월-소한·대한, 2월-입춘·우수, 3월-경칩·춘분, 4월-청명·곡우, 5월-입하·소만, 6월-망종·하지, 7월-소서·대서,



* 비전동 은행나무 동신제

8월-입추·처서, 9월-백로·추분, 10월-한로·상강, 11월-입동·소설, 12월-대설·동지 이상의 24절기는 주로 사계에 따라 변하는 기후를 나타낸 칭호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들 절기에 따라 생업에 관련되는 민속이나 행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진행되어 오면서 세시풍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24절기 중 입춘(立春), 동지(冬至) 등과 함께 설(元日), 대보름(上元), 한식(寒食), 단오(端午), 백중(百中), 한가위(秋夕), 선달그믐(除夕) 등은 명일(名日), 명절(名節)이라 하여 큰 의의를 부여하고 온 겨레가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명절과 이 때 행하여지는 풍속이나 행사들이 세시풍속의 중핵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계절과 기후, 그리고 명절을 포함한 24절기는 세시풍속의 기본적 배경을 이루면서 농경·어로·수렵·채취·상업·수공업 등 삶에 직결되는 생업과 뭇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경의 경우, 봄에 씨를 부리고 가을 건이를 하여 겨울에 저장하기까지 논과 밭에서 다양한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는 가운데 철따라 다른 농경민속이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다나 강 또는 호수 등에서 행하여진 고기잡이 즉 어로(漁撈), 주로 산과 들에서 새와 짐승들을 잡던 사냥 즉 수렵(狩獵), 들판에나 강가 그리고 개펄 등에서 나뭇잎이나 파래 등을 뜯고 조개 등을 줍던 채취(採取), 그리고 장터나 보부상(褌負商)들의 전통적 상행위, 대장장이·땀장이 등의 남성들과, 실을 뽑고 베를 짜는 등 여성들의 전통적 가내 공업 등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세시풍속 형성의 배경은 역사적·종교적·사회적 측면이다.

역사적 형성의 배경은 주로 역대 왕조의 개국일(開國日)이나 시조(始祖)의 탄생을 기념하고 숭모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 개천절(開天節)과 같이 대개 건국 신화나 시조신화(始祖神話)에 관련되어 있다. 같은 경우로 각 성씨(姓氏)의 씨족 신화 즉 가계신화(家系神話)가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 자기 씨족의 시조에 대한 숭앙(崇仰)을 통하여 후손들의 자기 뿌리와 씨족에 대한 정체성(正體性)을 확인시키며, 조상에 대한 경모(敬慕)의 정신을 앙양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던 세시풍속으로는 철을 가려 시행되었던 시조묘(始祖廟)에 대한 참배와 집단적 제례가 그것인데, 이를 시제(時祭) 또는 시향(時享)이라 불렀다. 또 씨족적 관념을 떠나 민족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예를 들면 최영이나 임경업 장군, 그리고 많은 의병(義兵)

등 민간의 영웅에 대한 숭모나 존경심이 같은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종교적 형성의 배경은 전래의 민간신앙과 타국에서 들어 온 유교·불교·도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신앙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격신앙(巫覡信仰)이나 점복(占卜), 금기(禁忌)에 바탕을 둔 고사(告祀), 동제(洞祭), 재숫굿, 풍년굿 등 가정과 이웃을 위한 제액초복(除厄招福)이나 풍년기원 등이 세시풍속에 바탕을 두고 행하여졌다. 유교는 주로 지식 양반층의 경우, 성균관에서의 석전(釋奠)이나 종묘제례(宗廟祭禮), 지방 향교(鄉校)에서의 문묘제례(文廟祭禮)가 이에 해당한다. 또 유교의 가례(家禮)에 터를 둔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양반층·서민층 할 것 없이 세시풍속과 관련을 가지면서 시행되었다. 다음 불교의 세시풍속으로는 4월의 초파일, 음력 2월 8일의 석가모니 출가일(出家日), 2월 15일의 석가모니 열반일, 그리고 7월 15일의 우란분재일(盂蘭盆齋日)이 그 중에도 가장 성대한 불교민속이 행해지는 날이었다. 석가모니 탄생을 기념하여 연등행사(燃燈行事)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4월 초파일과, 칠월 보름날 조상의 초혼공양(招魂供養)을 올리는 우란분재일은 우리의 효(孝)사상과 어울리면서 불교란 특정 종교만이 아닌 민족의 세시풍속으로 굳어진 것이기도 했다. 또 봄, 가을에 주로 행해지던 방생회(放生會)도 마찬가지였다. 도교의 경우 조선조에 소격서(昭格署) 등에서 계절에 따라 의식이 행하여졌으나 유·불보다는 성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후대에 와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조상숭배 관념에 철저했던 우리 선인들은 유교적 효관념과 어울리면서 성묘(省墓), 벌초(伐草), 차례(茶禮), 상례(喪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등 각종 의식 행사가 시절과 풍속에 따라 시행되었다.

세시풍속 형성의 마지막 배경으로는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생활집단과 공동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교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각종 삶의 형태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은 계절의 흐름과 풍속의 변화에 매우 관계가 깊다. 추석 등의 명절에 멀리 떠나 있던 가족들의 만남, 동제나 마을 굿에 이어지는 이웃들간의 모임은 이질적인 사회적 문화의 교류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집단적 일체감의 조성을 위한 매우 긴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 만남과 모임이 연중 일정한 기간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시풍속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세시풍속의 범주(範疇)를 보기로 한다. 세시풍속의 범주는 시간적 전승의 범주와 문화적 전승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년을 한 단위로 하여 명절을



■ 제례(평택향교)



* ■ 노동요(팽성읍 평공리)

중심으로 한 주기적 순환인 시간적 범주에 대하여는 이미 앞의 계절과 생업적 배경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범주, 즉 민속적 범주를 통하여 세시풍속의 범위와 영역을 다음에 살펴기로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세시풍속은 모든 민속의 연총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에 포함되지 않는 민속학의 대상은 없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는 세시풍속을 민족의 민속의 총체, 그 자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시풍속의 민속학적 변별성은 다양한 민속들

이 1년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위에서 논한 계절과 이에 따른 생업과 결부되면서 일정한 시기, 즉 명절 등에 분할·집약·특성화되는 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제 이를 그 영역별로 분류하여 계절 및 생업과 결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비전승(口碑傳承)의 영역이다. 구비전승의 영역에서 세시(歲時)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민요, 그 중에서도 노동요(勞動謠)가 중핵을 이룬다. 모내기노래, 김매기노래, 보리타작노래, 베틀노래, 물레노래, 벼베기노래, 배따라기, 풀베기노래 등은 모두 농업, 어업, 채취, 가내공업 등 생업에 관련된 것들로서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고 불려지는 민요들이다. 또 민담, 전설 등으로는 명절이나 절기의 유래에 대한 것이 많다. 한식(寒食), 칠석(七夕), 한가위, 동지 등에는 각각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래된다. 둘째, 신앙전승(信仰傳承)의 영역도 월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1월의 안택(安宅)굿 등 봄철의 재수굿과 동제(洞祭), 10월의 성주굿, 풍년굿, 천신제, 11월의 동지굿, 12월의 고사(告祀)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외에도 철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민간신앙은 많고 다양하다. 셋째, 의식행사전승(儀式行事傳承)이다. 여기에는 설날과 추석날의 차례가 가장 큰 의식으로 포함되지만, 각 명절마다 해당하는 의식과 행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어서 일일이 예를 들기가 번거로울 정도이다. 넷째, 기예전승(技藝傳承)인 바, 여기에는 음식, 의복, 주거(住居) 등 생활에 관련된 것과 유희(遊戱), 경기(競技), 춤(舞踊), 노래(音樂) 등 예능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는 계절과 명절에 따라 먹는 주식(主食)과 부식(副食)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설날의 떡국, 대보름의 오희밥, 귀밝이 술, 부럼 등과 한가위의 송편, 신도주(新稻酒), 그리고 동짓날의 팔죽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꼽힌다. 그러나 그 외에도 된장·고추장 담그기, 계절에 따른 각종 전통과(傳統菓) 만들기, 그리고 가을철의 다양한 김장 담그기 등, 그 만드는 법과 과정, 그리고 그 보존과 저장에 이르는 기술은 여성 특유의 몫으로 전래된다.

다음 예능에 관련된 것으로는 각종 민속놀이나 경기, 그리고 춤과 노래가 철따라 바뀌면서 행하여졌다. 농악처럼 연중에 두루 연행되는 것도 있었지만, 대개 계절과 명절에 따라 그때마다 특유의 놀이가 있었고, 노래가 또한 불려졌다. 즉 정초의 율놀이와 널뛰기, 대보름의 지신밟기와 닭교놀이, 3월의 화전놀이, 4월의 관등놀이, 탑돌이, 5월의 그네뛰기와 씨름, 7월의 백중놀이, 8월의 소놀이, 강강술래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생업과 종교, 의식과 오락에 결부되면서 세시풍속의 계절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세시풍속은 우리 겨레가 한반도에서 오랜동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생활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변모되어 왔다. 세시풍속이 이처럼 긴 역사를 통하여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그 자체에 역대 우리 조상들이 공명, 공감하는 불변의 문화적 기본 인자(因子)가 생명을 지닌 채 주체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에 그 시간적 흐름과 이에 따른 변모양상을 간결하게 살피기로 한다.

우리 세시풍속의 기원은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삶을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일정한 풍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시기 파악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고학(考古學)적, 역사학적 심도있는 천착이 요구되는 터여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인류가 농경(農耕)시대에 접어들면서 식물의 성장 결실과정이 계절의 순환에 따라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시풍속이 생기게 되었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략 농경문화가 시작된 신석기(新石器) 문화시대로부터 세시풍속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우리 개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에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농경신(農耕神)으로 유추할 때, 대체로 고조선 시대에 이미 세시풍속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시대의 이야기여서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좀더 명확한 세시풍속의 존재는 삼국시대 초기에 대한 문헌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나타나는 부여의 영고(迎鼓, 1월), 고구려의 동맹(東盟, 10월), 예의 무천(舞天, 10월), 마한에서 5월과 10월에 귀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농경과 관련되는 세시풍속의 양태를 보여준다. 이들이 주로 1년이 시작되는 1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 곡식을 거둬들이는 10월에 주로 행하여진 제천 의식과 음주가무였다는 점에서 세시풍속적 측면을 잘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이 동옥저(東沃沮)나 삼한(三韓)에까지 분포되었던 데서 대략 3세기경, 한반도 전역에 세시풍속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성황당(진위면 봉남리)

다음 삼국시대에 이르러는 중국 측의 기록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우리 측의 문헌에도 당시의 세시풍속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구려·백제의 경우는 상고시대 이래의 농경의례에 해당하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좀더 분화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신라의 경우는 이보다 좀더 상세한 기록이 전한다. 즉 『삼국유사』에 당시의 추석, 단오, 유두(流頭), 정월 대보름 등에 대하여 그 유래와 풍속이 나타나는데, 이로써 당시의 세시풍

속이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고려시대에 와서는 전래의 세시풍속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중에도 정월 대보름의 연등회(燃燈會)와 동짓달의 팔관회(八關會)가 그것인데, 이들의 기원은 좀더 오래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성행하였고, 고려말까지 지속된 거국적 행사였다. 연등회나 팔관회는 외양으로는 불교적 종교행사로 사찰 또는 왕궁에서 봉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음주와 가무가 곁들이는 민속행사와 민속놀이적 성격이 짙었고, 기복(祈福), 위령(慰靈), 풍농(豐農)의 민간신앙적 의식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 『고려사』의 기록은 팔관회와 함께 설, 대보름, 한식, 삼짇날, 단오, 중구일(重九日), 동지, 추석을 9대 민속의 명절이라 전하고 있어 당시의 세시풍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전래의 세시풍속은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다만 억불(抑佛) 정책에 의해 불교적 측면이 퇴색하고 유교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갔다. 즉 고려시대 불교적 신앙행사였던 연등회나 팔관회 등이 그 불교적 모습이 변질되면서 유교적 국가행사로 변모되어 간 것이다. 일반서민들의 민간신앙에서는 전통적 모습을 변함 없이 지켜왔지만, 궁중이나 상류층, 그리고 관변의 민속은 유교적 변모라는 시대적 추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까지 동제(洞祭) 등으로 서낭신앙, 즉 서낭제가 보편적 신앙으로 퍼지게 되었다. 원래 중국의 성황신앙(城隍信仰)에서 유래하여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서낭신앙은 서낭당을 성처(聖處)로 하는 민간신앙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고 행운을 기원하는 기능을 지닌 보편적 신앙이었다. 그리고 조선조에서는 관제(官祭)와 민제(民祭)로 행하여졌던 바, 전자의 경우 성황(城隍), 후자의 경우 서낭이란 호칭으로 불려지나, 그 뿌리는 천신(天神)과 산신(山神) 숭배의 오랜 민간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시풍속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또 하나 조선시대의 궁중 또는 지방에서도 행하여졌던 두드러진 세시풍속 신앙은 고려 이래 전

래되어 온 나례(儺禮)였다. 악귀나 역신(疫神)의 구축(驅逐)을 위하여 선달 그림날 주로 궁중에서 거행되었던 나례는 나희(儺戲)화되면서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가무와 백희(百戲)가 종합된 계절적 예능 행사로 모습을 바뀌었다. 조선시대 불교적 세시풍속으로는 석가탄신일인 사월초파일에 행하여졌던 관등놀이, 탑돌이, 우란분재일(盂蘭盆齋日)인 7월 보름의 불공, 호미씻기, 풋굿 등이 행하여졌는데, 전자가 불교적 색채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데 반하여, 후자는 백중일(百中日)과 일체화되면서 농사와 관련된 일반 세시풍속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갔다. 그리고 도교적 측면의 세시풍속으로 칠월칠석날의 칠성제(七星祭)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세시풍속의 중심은 그 기원이 오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이었고, 그 외 대보름, 백중, 동지, 선달 그림 등이 전통적인 세시풍속으로 지속되었다. 이들 명절에 차례(茶禮)를 위시하여 절식(節食), 금기(禁忌), 놀이, 경기 등이 조상숭배, 민간신앙, 민속예능의 차원에서 널리 행하여졌다.

한편, 이들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대하여는 조선후기 실학과 학자들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문헌으로 전하는 것이 많다. 여기에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芝峰類說』, 정동유의 『주영편 晝永編』, 유득공의 『경도잡지 京都雜志』,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烈陽歲時記』, 유만공의 『세시풍요 歲時風謠』,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등이 있어 우리나라 역대의 세시풍속과 함께 당시의 상세한 세시풍속의 상황과 내용, 특징과 분포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도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는 정월부터 12월까지의 민간풍속을 23항목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서술하고 있어 이 방면 종합편으로 높이 평가된다. 또 유만공의 『세시풍요』는 정월을 주로하여 1년의 세시풍속을 한시(漢詩)로 읊은 것이어서 색다른 특징을 보인다.

끝으로 조선조 말 이후 개화기·일제시대의 세시풍속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부 변모된 바도 없지 않았지만, 전통적 세시풍속의 주된 흐름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면 이와같은 세시풍속의 흐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에 따라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봄

정월에서 3월까지의 3개월을 춘계로 구분한다. 새해의 첫 출발이니 조상의 사당과 묘에 인사를 드리고 어른께 세배한다. 아울러 예축으로 복과 풍년을 빌고 동신제를 지내며 여러 가지 놀이가 행해진다.



* 원주원씨 기제사

1) 조상숭배

연초에 행해지는 조상숭배로는 차례(茶禮)를 들 수 있다. 차례란 차를 올리는 예이니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의 사당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주자가례』가 들어와 제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차례는 5대조까지만 지낸다. 즉 사당에는 5대조까지만 신주를 모시고 그

이상의 조령(祖靈)은 1년에 한번 시제(時祭)라 해서 산소에서 제사를 한다. 따라서 차례는 가묘에서 5대조까지만 지내게 된다. 차례가 끝난 다음 세배(歲拜)가 있다. 장유(長幼)의 질서에 따라 새해를 맞이한 첫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절을 한다. 세배와 차례에 이어 음복이 끝나면 먼 일가친척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린다. 정초 행사의 하나로 성묘가 있다.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새해가 되었음을 고하는 것이다. 생존시와 같은 의식에서 세배 대신 성묘를 하는 것이며 자손으로서는 필수적 예이다.

2) 기복

기복(祈福)이란 복되기를 비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신년을 맞이한 설날과 정초에는 1년 동안의 복을 기원하는 여러 행사가 있게 된다. 설날 그믐날의 자정이 지나면 북조리를 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조리는 새해에 들어 남보다 먼저 사야 복이 많다고 해서 이른 새벽에 사는 것이며, 산 조리는 엿이나 성냥·돈 등을 담아 벽에 걸어둔다. 일종의 기복행위인 것이다. 정월말이나 2월 초승에 입춘일이 든다. 입춘(立春)은 봄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복이 소생하고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입춘일에는 대개의 가정에서 입춘문을 써서 기둥과 벽에 붙인다. 또, 설날 대문에 갑옷을 입은 장군의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종규(鐘桴)가 귀신을 잡는 그림을 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삼재(三災)를 쫓기 위해서 세 마리의 매를 그려서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악귀나 재화를 쫓고 한해 동안 복되게 살려는 인간들의 간절한 기복행위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설날 저녁에 소발(燒髮)과 야광귀(夜光鬼) 쫓기가 있다. 옛날에는 남녀가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긴 머리를 빗을 때 마다 빠지는 머리털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1년 동안 모아두었다가 설날 저녁에 불에 태운다. 이것을 소발이라 하는데 이것은 신체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즉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설날

밤에는 하늘에 있는 야광귀가 지상에 내려와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다고 한다. 야광귀는 제 발이 맞는 신이 있으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야광귀에 의해서 신을 잃은 사람은 그해에 재앙이 따르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발을 방 안에 들여놓고 잔다. 14일 밤에는 제웅이라는 이름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개천에다 가져다 버린다. 그 해에 직성(直星)이 든 사람은 제웅의 허리부분을 헤치고 그 속에 돈과 쌀, 그리고 생년월일시의 사주를 써서 넣어둔다. 이렇게 하면 제웅을 버린 사람의 액운은 떠나가고 복되게 한 해를 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14일 밤에는 도액(度厄)을 하는 일이 있다. 팔을 한줌 가지고 밭에 가서 자기의 연령수대로 묻으며 “올해에 배 아프고, 머리아픈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또는 “달걀을 모두 가지고 가라” 든가 “병을 모두 가지고 가라”는 등의 주문을 외친다. 그러면 그해에 앓을 질병을 팔이 모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액이라고 한다. 15일인 상원날 아침에 사람들은 부럼을 깨문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밤·호두·잣·은행 등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한번에 이빨로 깨물어서 먹지않고 마당에 버린다. 자기의 연령수대로 하면 좋다고 하나 몇 개만 하는 수가 많다. 그렇게 하면 그해에 부스럼을 앓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14일에는 상인들이 미리 과일을 준비해두고 팔게 된다. 상원날 아침을 먹기 앞서 술을 한잔 마시는데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한다. 이날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져서 잘 들리고 또, 그해에 좋은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 아녀자도 이날은 귀밝이술을 한잔 마신다. 상원날 각 가정에서는 약식을 만들어 먹는다. 또, 여러 집을 다니며 많은 밥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백가반(百家飯)’이라 한다. 백가의 밥을 먹으면 백가의 복을 모았다고 해서 길한 것으로 여긴다. 또 ‘구회식(九回食)’이라 하여 상원날에는 밥을 아홉번 먹어야 좋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 아홉번의 밥을 먹으려면 평소의 3배가 되어 큰 고통이므로 조금씩 여러 번 먹어 횡수를 채운다. 상원날 무렵에 답교(踏橋)와 지신밟기가 있다. 저녁 거리에 나아가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자기의 연령수대로 많은 다리를 건너면 1년동안 각질(脚疾)이 없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장안에서는 상원날 밤에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다리를 밟는 통에 몹시 혼잡했다. 부녀자들과 점잖은 선비들은 아예 미리 밟거나 상원날이 지난 다음에 다리밟기를 하기도 했다. 신체의 건강에서 복을 받으려는 기복행위라 하겠다.

3) 기풍

농자천하지대본으로 여기고 농경생활을 해온 한민족은 풍작 이루기를 소원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며, 풍작이 들면 안락한 생활이 보증되기 때문에 풍년은 그들의 최대소망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적 소망은 세시풍속에 있어 기풍행위로 나타났다. 신년에 들어 첫 축일을 '소날'이라고 해서 우마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며 콩·보리·나물 등을 삶아 먹인다. 먹이를 줄 때에도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키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준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은 소를 위로하는 것으로 농사철에 일을 잘해서 농사를 도와달라는 뜻이다. 정월 8일은 '곡일(穀日)'로 이날 춘파할 준비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신년을 맞이해서 설날부터 상원까지 사이에는 곡식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거나 타인에게 퍼주지 않는다. 곡식을 문밖으로 내보내면 그해에 산짐승에 의해서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며 재물을 잃게 되고 흉작이 된다고 해서 정초에 금곡용(禁穀用)을 하는 것이다. 한편, 14일은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은 많은 음식을 만들어 이웃을 청해서 나누어 먹는다. 14일 무렵 농가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거나 긴 장대 등을 마련하여 마당에 세운다. 여기에 벼·조·피·기장 등의 이삭을 꽂아두고 목화를 매달아놓는다. 이것을 '난가리대'·'벗가리대' 또는 '화간(禾竿)'이라 부른다. 화간을 세우는 날, 즉 14일에는 키가 작은 사람은 남의 집에 출입을 삼가야 했다. 그날에 찾아오는 손님의 신장과 농작물의 성장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원날에는 복쌈을 먹는다.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먹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개를 먹으면 그 수만큼 가을에 노적(露積)을 이루게 되어 풍작이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밥을 마당에 노적처럼 쌓아놓았다가 먹는 수도 있다. 상원날에 과목의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놓는데 이를 '나무시집보내기' 또는 '가수(嫁樹)'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해에 과일이 풍작을 이룬다고 한다. 2월 1일 머슴날에는 콩볶이를 한다. 솥에 콩을 넣고 볶는데 주걱으로 저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하고 주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새와 쥐가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고 풍작을 이룬다는 것이다. 어촌에서는 정월초에 가정에서 성주를 모시고 뱃고사를 지낸다. 또 만선 때처럼 배에다 여러 가지 기를 달고 배 안에 재물을 차려놓고 선주가 정성껏 배서낭을 워한다. 배서낭은 배 안에 모셔놓은 서낭으로 정성을 드리면 배가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고 만선을 이룬다고 해서 어부들이 모시는 신이다. 농부가 풍작을 기대하듯이 어부들은 풍어를 빌었다.

4) 점복

신년을 맞이하면 그해의 신수, 또는 1년 농사의 풍·흉작이 궁금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점복이 성행되었다. 이지함(李之菡)이 만든 『토정비결』은 1년

동안의 신수가 월별로 설명되어 있고 적중률도 높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게 되었다. 농점(農占)이 있어 1년 동안 농사의 풍흉을 점쳤는데 입춘날 보리를 뽑아 그 뿌리를 보고 풍흉을 점쳤다. 즉 보리 뿌리가 셋이면 풍년, 둘이면 평년작, 하나밖에 없으면 흉작이라 점친다. 뿌리가 시들었을 때도 흉작이다. 달불이라는 농점법이 있어 물 담은 종지나 작은 그릇을 두고 안에 콩을 넣어 이튿날 콩의 불어난 것을 보고 그해 농사를 점치는 방법이다. 단순한 점법이기



■ 동령마을 용왕제

는 하나 농촌에서 연사(年事)가 궁급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지하려고 했다. 상원날 저녁에는 달맞이를 하는데 달을 보아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또 상원날 새벽 닭울음으로 그해를 점치기도 했다. 이밖에 옷놀이의 승패로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고 제주도 등지에서는 떡과 밥을 사용하여 점을 치기도 했다.

5) 동제

동제는 마을사람들에 의해서 거행되는 마을 공동의 제의를 말한 것으로 산신제·서낭제·별신제·거리제·용왕제·기우제 등이 포함된다. 산신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을 제사하는 것이다. 산신은 특정된 사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 누구나를 막론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마을사람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으로 믿어 그 제사에는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다. 산신제는 길일을 택해서 하게 되는데 대개 정초에서 상원 사이에 거행된다. 마을 뒷산이 진산으로 여겨지는 일이 많고 여기에 산신당·산신각이 있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동제 때에는 마을사람 모두가 근신해서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한다. 제물을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우물 근처에 황토를 놓고 금줄을 치거나 거적을 덮어 잡인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 정수로 제물을 만든다. 제일이 되면 자정이 지나 첫 닭이 우는 시간쯤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화주집에서 제물을 올려다 진설하고 독축(讀祝)을 하며 소지(燒紙)를 올린다. 마을의 태평, 농사의 풍작, 그리고 마을사람의 건강을 비는 것이다. 산신제가 끝나고 날이 새면 마을사람들은 제물로 음복을 하고 농악을 치며 한바탕 신명나게 뛰고 논다. 마을의 협동과 공동의식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

2. 여름

4~6월의 계절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바쁠 때이다. 일이 바쁘다 보면 한 가한 일에 마음을 둘 수가 없으므로 세시풍속의 행사는 줄어든다. 그러나 하절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연초에 기복을 통해서 악귀·역신을 예방, 퇴송했다고 하지만 일기가 불순하고 더워 허약해지고 식욕도 준다. 따라서 질병에 걸리기 쉬운 때이다. 세시풍속도 하절 건강과 관계되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1) 기복

여름철의 건강을 위한 예방행위는 이미 정초에서부터 있어왔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상원날 아침에 '더위팔기'를 했고 모기를 막기 위해서 '모기퇴송'의 방법을 했다. 즉, 상원날 아침에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 이름을 불러 무심코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게"하고 말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자기에게 있을 더위를 대답한 사람에겐 판 것이 되어서 더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기퇴송도 14일 저녁에 청축을 태우거나 더위팔기처럼 거리에 나아가 "우리 모기 다 가져가게"하고 외치면 모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4월이 되면 우리나라 가정의 뜰에는 봉선화가 핀다. 소녀들은 봉선화를 따다 찢어 손톱에 붙였다가 다음날 떼어보면 손톱이 곱게 물들어 있다. 이것을 '봉선화염지(鳳仙花染指)'라고 한다. 손톱을 빨갛게 물들이는 것은 고와서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빨강색은 축귀(逐鬼)의 기능이 있어서 벽사(辟邪)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단옷날 여인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동류에 가서 물 맞이를 하는 일이 있었다. 또 창포뿌리를 잘라 비너로 머리에 꽃기도 하였는데 양쪽에 수복의 두자를 새기고 연지로 붉게 칠했다. 역시 벽사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 삼복더위에는 약수를 찾고 삼계탕·구탕(狗湯)을 즐긴다. 약수를 찾는 것은 피서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며, 삼계탕과 구탕은 몸을 보하자는 것이다. 하절의 건강은 잘 먹어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고 그래야만 정상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기풍

5월 10일 농가에서는 비가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해서 기뻐하고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까 걱정을 하는데 이날 오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한다. 호남지방에서는 유뚝날 "유두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다.

유뒸날 떡을 해가지고 논에 가서 물꼬 밑에 한 덩이씩 놓아둔다. 논두렁에서 물이 새지 않고 농사에 지장없이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주술행위이다. 전답을 맡고 있는 신에게 제물을 올림으로써 풍작을 기도한 것이다.

3. 가을

7~9월인 가을은 농경작업을 마치고 추수하는 때이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행사가 있다. 추수기를 맞이하는 농촌에서는 선농자(善農者)를 위로했고, 8월 추석날에는 만월을 즐기는 민속 놀이가 이루어졌다.

1) 조상숭배

가을에 있어서의 조상숭배는 천신과 추석의 차례·성묘로 나타난다. 천신은 새로 생산된 과일이나 곡물을 조상신께 올리는 것인데 정하게 닦아서 접시에 담아 사당에 잠시 놓았다가 먹는다. 신수확이니 조상에게 고하고 또 추원보본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왔다. 차례와 성묘는 중추가절을 맞이해서 조상에게 고하고 신곡을 거두게 되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기풍과 농경의식

7월 15일을 전후해서 '호미씻기' 또는 '초연(草宴)' 과 같은 의식이 있고 기풍행 위로는 '밭고랑기'가 있다. 백중 무렵이 되면 이제 농사일도 거의 끝나서 봄에서 부터 계속 사용하던 호미가 필요없게 된다. 이제 호미는 두었다가 명년 봄에나 다시 쓰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호미를 씻어서 두게 되는데 이때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하루를 즐기는 초연을 베풀게 된다. 진도지방에서는 추석 전날 밤에 소년들이 밭에 가서 벌거벗고 자기 연령수대로 밭고랑을 걷는다. 이렇게 하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4. 겨울

동절인 10~12월은 농경민족으로서 가장 한가한 때이다. 추수도 끝나고 노적을 쌓아놓고 평안하게 삼동을 지내는 계절이다.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 김장을 하고

떨감으로 장작이나 나뭇짐을 해다가 쌓아두면 우선 겨울을 보낼 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풍작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조용히 세모를 보내게 된다.

1) 고사와 축귀

10월에 들어 오일(午日)인 말날은 길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농가에서는 시루떡을 해서 차려놓고 안택도 하고 굿도 하며 터주단지에 신곡을 갈아 넣기도 했다. 음력 10월을 '상달'이라 부르는데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달이란 뜻으로 신성한 달이며 하늘을 제사하는 달이란 뜻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제천의식은 농공필하고 거행한 것으로 보아 그 유습은 10월에 남아 있는데 굿하는 것은 그 유풍일 것으로

믿어진다. 또 10월에는 각 가정에서 성주제를 지낸다. 성주는 가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제신을 주재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주부에 의해서 제물이 마련되고 정성껏 비는데 때로는 무당을 청해다가 굿을 하는 수도 있다. 동짓날 각 가정에서는 팔죽을 쑤어 사당에 올려 천신을 하고 벽과 대문에 뿌리고 다닌다. 그렇게 하면 벽사의 효과가 있어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었으므로 팔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까지 지니고 있었다.



* 정호신씨 집 터주가리(진위면)

2) 송년

한 해를 보내는 선달 그믐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일이 겹쳐 있어 사람들은 심신이 바쁘다. 송구영신의 준비로 집 내외를 깨끗하게 대청소를 한다. 마당·뜰·곳간을 비롯하여 축사도 대청소를 한다. 묵은 몸이나 쓰레기를 모두 치워 신성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년에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믐날은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데, 그것을 수세(守歲)라고 한다.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며 어린이가 흑시 잠을 자면 눈썹에 분가루를 칠하였다가 아침에 놀려주기도 한다. 10월에서부터 시작되는 동계는 풍년든 데 대한 감사제로 하늘과 성주와 토왕신에 제사하며 김장을 마치고 겨울준비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1년의 막을 내리게 된다.

3) 윤달

윤달(閏月)은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달로 '공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속설에 송장을 거꾸로 세워놓아도 탈이 없다고 할만큼 무슨 일을 하건 부작용이 없다는 민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달이다. 윤달에는 평상시에 금기되어 있는 일을 해도 탈이 없다. 그래서 가옥수리, 이사, 토석을 움직이는 공사를 하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수의(壽衣)를 만들고 이장(移葬)을 하기도 한다. 부정과 동티를 두려워하는 일도 윤달을 이용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이다.



■ 윤달을 맞아 수의를 제작하는 '경기도' 한상길씨(현덕면)

5. 평택지역의 세시풍속

1) 진위면

정월 초하루 명절 준비는 선달 세찬부터 시작된다. 예전에는 엿, 두부도 직접 집에서 만들었다. 설날에는 떡만두국 차례를 지내고 추석에는 송편차례, 명일제사에는 찹쌀 부꾸미, 감주, 수정과, 쌀강정도 빼놓지 않는다. 차례를 먼저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올린다. 설날에는 널을 뛰고 정월 명일에는 여자들은 남의 집에 가지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보내지만 보름 명일에는 먹고 노는 일을 더 크게 한다. 14일날 점심점 저녁으로 오곡밥을 해먹는다. 집고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정월 보름 명일을 세기 전에 정월고사를 지낸다. 대개 열사흘날이나 열나흘날 밤에 고사를 지낸다. 정월 14일이나 15일날 밤 망일에 달보기를 하였다. 2월에는 초하루날 나이떡으로 송편을 해먹었다. 이때에는 쌀을 식구들 나이 수대로 손으로 조금씩 퍼서 떡쌀을 준비한다.

4월 초파일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간다. 마을 가까이에 만기사라는 절이 있다. 5월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감고, 분꽃 상추이슬을 받아 장문을 개어 얼굴에 바르거나 대추잎을 저녁에 따서 물에 담구어 두었다가 아침에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한다.

6월 유두에는 별다른 의식 없이 그냥 지낸다. 7월 칠석에는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고 가정신앙을 위하는 집에서는 밀떡을 부쳐서 집고사를 지낸다. 밀떡고사는 밀가루 부치개를 구워 정월고사, 가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지낸다.

8월 추석에는 집에서 송편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는 정도이며 모여서 놀거나 하

지는 않는다. 9월에는 추수하는 일로 보내고 10월에는 추수한 수확물로 가을고사를 지낸다. 11월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먹는데, 이때에도 예전에 집안식구 중에 무서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팔죽을 쑤 먹지 않는다. 어느 집의 경우 시어머니가 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시집을 오니 팔죽을 쑤지 않아 지금까지 해먹지 않고 있었다.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내고 음력설에나 모두 모여 옷놀이를 한다. 요즘도 이장댁이나 학교 운동장에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옷놀이를 한다.

2) 고덕면

명절은 설, 추석에 남아 있고 한식차례도 지내고 있지만, 이 역시 많이 간소화되었다. 명절놀이도 정월달에 옷놀이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고, 요즘에는 주로 고스톱을 친다. 또한 정월에는 '만월'·'망월'이라고 하여 음력 1월 15일이나 16일로 가장 큰 보름달이 되는 날을 따져 당산에 올라가 달보기를 하였다. 처녀·총각이 달보기를 누구보다도 일찍하면 시집·장가를 일찍간다고 하여 저녁도 먹지 않고 올라가서 달을 보고 달짚태우기를 하였다. 장가를 일찍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짚을 기다랗게 묶어 동그랗게 만들거나 짚뭉음을 굵게 묶어 가지고 불을 붙여두고 달을 향해 절을 하였다. 가능하면 짚을 많이 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아주 여러 번 한다. 이 달보기도 남자들은 당산에 올라가서 하고 여자들은 집마당에서 달을 보며 기원을 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달을 다렸는데, 이때 어른들은 달의 색깔을 보고 달이 물을 먹었느냐 안먹었느냐로 풍·흉년을 점쳤다. 달이 물을 먹은 상태면 아주 맑지 않은 상태로 보여 그 해는 비가 좀 많이 올 것이라고 점치는 것이다.

예전에는 2월에 나이떡을 해먹었다. 나이떡은 일년 신수를 보아 그해 신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 액땜을 위해 2월에 식구들 나이수대로 나이떡을 해먹었다.

또한 2월 스무날을 '손돌이날'이라고 하여 손돌이 추위가 있다고 한다(김기선씨 제보). 단오날에는 그네뛰기를 하였고 칠월달에는 칠월 백중이라고 하여 며칠씩 시간가는 줄 모르고 김매고 풍물놀이 씩름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별다른 행사 없이 지낸다. 팔월 보름 추석에는 추석차례를 지내고 성묘가고, 풍물을 놀았다. 풍물은 깃발부터 모두 갖추어 두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칠 줄 알고 있다.

10월에는 가을떡이라고 하여 지금도 해먹고 있다. 4월에 농사일을 마친 후 한가할 때 햇곡으로 떡을 해서 집안 곳곳에 고사를 지낸 후 이웃끼리 떡을 나누어 먹는다.

3) 오성면

교회가 생기고부터는 세시풍속도 거의 사라졌다. 설·추석·한식차례는 지금도 지내고 있다.

정월 열나흘날에는 오곡밥을 해 먹고, 보름날에는 쌀밥을 해 먹는다. 예전에는 정월 보름에 두레를 크게 놀았는데,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며 마당에서 두레를 놀면 주인은 음식을 대접하고 쌀도 한 말씩 내주었다. 이것을 모아 동네자금을 마련하였다. 단오날도 특별한 행사 없이 지내며 다른 명절행사도 남아있지 않다.

4) 현덕면

정월 두레를 보름간 계속할 정도로 크게 놀았다. 지금도 풍물은 남아 있다. 선달 그믐날 정초음식 준비부터 시작하여 정월 초하루 떡국차례를 올리는 것은 지금도 행하고 있다. 세배를 다니고 성묘도 다녀온다. 성묘를 갈 때는 제물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정초 12지일의 금기는 지금도 지키는 날이 있는데, 첫 뱀날에는 떡을 안찌고, 말날에는 된장을 담그면 좋다. 용날에는 물긴기를 하고, 소날에는 칼질을 안하는데 이 날 칼질을 하면 연장이 많이 고장난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는 더위팔기, 까마귀 쫓기 등을 했다. 정월 열나흘날 새벽에 용알뜨기도 열성적으로 했던 일이다. 또 정월 열나흘날에는 여자들끼리 모여 여자가 양복을 입고 남장을 하고 상모도 돌리면서 두레를 놀았다. 동네를 돌면서 먹을 것을 거두어 안중 질까지 가서 꾀짜로 장난을 놀았다. 또 이날 저녁에는 벧가마가 많이 들어오라고 송편을 크게 만들어 벧섬 앞에 가져다 놓았다가 먹었다. 이를 '벧섬'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송편 수만큼 벧가 많이 들어오라는 기원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정월 집고사도 이날 밤에 올린다. 정월 열이레까지 놀고 그 다음부터는 가마치는 일을 했다.

2월 초하루에는 나이떡을 해먹었다. 식구들 나이 수대로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송편을 만들었다. 또 이날 콩에 새삼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콩을 볶아서 "올 여름에 새삼끼지 말라"고 하면서 볶은 콩을 뿌렸다.

여름에 가뭄이 들면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에서 만아들을 낳은 집 부인들이 모여 각성바지 세 집의 우물을 한동이씩 받아 바가지로 뿌리면서 비온다고 장난을 하면 실제로 비가 왔다고 한다. 칠월 칠석날에는 밀떡을 부쳐 집안고사를 지내고 8월 추석에는 송편으로 차례를 지낸다. 10월 상달의 서낭고사와 집안의 가을시루, 그리고 11월의 동지팔죽은 지금도 행하고 있다.

여 백

민속놀이

제2절

우리민족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민속놀이를 전승하여 왔다. 놀이라는 것은 재미 본위의 시간보내기가 아니라 또하나의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그 뜻은 값진 것이 아닐수 없다. 논두렁 밭두렁과 바닷가 뱃머리에서 잠시 쉴 참을 이용하여 노는 간편한 놀이로부터 수백 수천 명의 많은 인원이 한 데 어울리는 규모가 큰 집단놀이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속은 더욱 효율적인 재 생산을 위한 의식의 통일과 그의 승화를 위한 예행의 요소가 뿌리깊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양지바른 마당구석에서 놀아지는 소박한 어린이의 놀이에도 모름지기 체력과 지능의 발달을 돕는 속뜻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과 젊은 아녀자들의 기개를 돋구는 씩씩한 놀이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작든크든 민속놀이란 민중의 오랜 역사적 체험에 의한 슬기로 이루어진 것임도 알게되는 것이다. 이제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소개하는데 먼저는 평택지역에서 많이 전승되었던 유형을 소개하고 뒤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놀이들을 제시한다.

1. 줄다리기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보면 “충청도 풍속에 햇불싸움이 있다. 또 동네별로 편을 갈라 동아줄을 서로 힘껏 잡아당기는데 이것을 줄싸움이라고 하며, 줄싸움에서 줄을 끌어간 편이 이기는 것이며, 그 동네가 풍년을 차지하게 된다. 경기지방 풍속도 이와 같다. 또 승려들도 이 놀이를 한다”고 하였고 8월초에는 “제주도 풍속에 해마다 8월 보름달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끊어지며, 양편이 모두 땅에 넘어지고 구경꾼들은 크게 웃는다”고 하였으며, 울산읍지에는 “해마다 정월 15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서 두 편으로 갈라 승부를 결정짓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



* 동령마을 줄다리기 암수행진



* 동령줄다리기에 참가한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

데 동편이 이기면 동편에 풍년이 들고, 서편이 이기면 서편에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줄다리기는 삭전, 갈전등등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기는 쪽이 풍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줄다리기는 지방에 따라서 정월 보름, 5월 단오, 8월 한가위 등에도 하지만 대개는 정월 보름에 하고 있다. 이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회되기 때문이다.

최남선의 「조선상식 풍속편」(줄다리기)에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정월 15일 풍속에 짚, 또는 칩으로 큰 줄을 수십 발이나 되게 길게 꼬고, 줄 양쪽에는 수많은 작은 줄을 매달아, 몇몇 마을이 둘로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 당기어 승부를 가린다. 이기는 편에 풍년이 든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줄다리기라 한다. 이는 정초에 어디든지 있는 축년(祝年) 또는 점풍(占豊)의 한 습속인 원시형태의 소박한 행사이므로, 그 원류

계통을 구태여 찾아 볼 것이 아닐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이웃에도 이와 비슷한 습속이 많이 있음을 사실이다. 『형초세시기』에 한식(寒食)의 행사로 ‘타구, 추천, 시구지회’를 들었는데, 주(註)에 “시구지회는 대나무껍질 등으로 동아줄을 꼬아 수리(數理)에 걸쳐놓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서로 잡아 당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줄다리기는 정월 보름에 하는 곳도 있으나, 8월 보름 혹은 운소시(雲消時)에 행하기도 하여 유구(琉球)에서는 “6월에 길장(吉長)을 복(卜)하여 이것을 설행(設行)하였었다”라고 하였다.

줄다리기에 얽힌 무속성은 표현방법이 지역마다 달라 어느 곳에서는 줄을 당긴 후에, 줄을 잘라 삶아 먹으면 병이 낫거나 득남을 한다고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줄을 잘라 대문에 걸어놓거나 지붕에 올려놓아 무슨 예방 예방을 하기도 한다.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서는 줄을 당긴 후에, 그 줄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쓴 깃발을 꽂은 후에 줄을 물이 언 강에 갖다 놓았다가, 얼음이 녹아 줄이 떠내려 가면 액도 함께 떠난다고도 하고, 용인지방에서는 줄을 당긴 후에 줄을 마을의 입구에 있는 장승에 걸쳐놓아서 마을 축사(逐邪)를 기원하기도 하였으며, 줄로 보름 막아 물을 가두기도 하고 또는 줄을 눈에 갖다두고 그것이 썩어져 퇴비가 되도록 하여 풍년을 축원(祝願)하기도 하였다.

줄다리기에서는 대개 암수로 나뉘어져 줄을 당기고, 여자쪽이 이기면 풍년이 든

다고 하는데, 이는 여자가 생산(生産)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줄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줄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였으며,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기도 하고 축사(逐邪)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제(祭)를 지낸 장소에 왼새끼를 꼬아서 느려놓으며, 그 곳은 신성한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아이를 낳은 집 문전이나 제관의 집 문전에 이 줄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성역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왼새끼를 꼬아서 장을 담근 장독에 둘러 놓으면 장맛이 좋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서, 장독에까지 금줄을 치기도 한다. 이렇듯 줄은 가정의 작은 일에서부터 마을의 그리고 풍년을 차지하기 위한 마을과 마을의 줄다리기의 큰 줄까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줄이 생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이 줄을 넘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줄을 넘기 위해 애썼고, 또 줄다리기에 그 줄을 부녀자가 넘으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밤 새도록 줄을 지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줄다리기에 나타나는 줄은 외줄과 쌍줄이 있다. 외줄은 길게 한 줄로 꼬는 것으로 길이는 30~50m 정도이고 굵기는 15~20cm쯤 된다. 이 외줄은 도서지방이나 산간지방 혹은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줄다리기로 하는 아이들의 놀이 때 사용하게 되며, 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분되며 쌍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대개 일반적인 쌍줄은 용두(龍頭)를 들고 그 용두에서 줄의 몸체를 만들어 거기에 결줄을 묶는 방법으로 길이는 한쪽의 줄이 30~50m, 용목의 굵기는 80cm~1m 정도이다. 또 거대한 쌍줄은 용목에서부터 몇 가닥씩을 합한 줄을 뒤로 가면서 한 줄로 빼내어 그 줄에다 결줄을 묶는 것으로, 이 줄은 길이가 60~80m 용목의 굵기는 1m 20cm~2m가 되는 거대한 줄이며, 줄을 당기는 인원만도 천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줄이다.

줄다리는 대개 정월 보름에 많이 당기지만 대동(大洞)의 경우에는 미리 14일날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줄이 워낙 크다 보면 쉽게 승부가 나지 않으며, 줄다리기에 이겨야 풍년을 차지한다는 무속성(巫俗性) 때문에 줄을 당기는 장사들을 청병(請兵)해 오기도 하며, 주위의 많은 두레농악이 몰려오므로 길게는 2~3일씩 난장을 트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평택에는 아직도 이충동 동령 마을이나 도일동, 상리 등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을



동령줄다리기 장면

전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보존에 뜻이 깊은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송탄의 인근에서는 옛 수원군 고색이나(현 수원시 고색동) 진위 등에서 수백명씩 몰려들어 한바탕 난쟁이 트고, 주위의 여러 마을에서 서로 농악대를 앞세우고 모여서 줄을 당겼기 때문에, 마을마다 줄다리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줄다리기가 전승되는 동령마을이나 도일리 외에도 서정리, 가재리…… 지장, 건지 등 여러 곳에서 50~60년 전만 하여도 정월이나 5월 단오때 마을에 모여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특히 진위면 은산리는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와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한창때는 300여 호가 넘는 대동(大洞)이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3개 군의 마을에서 저마다 농악을 앞세우고 모여들어, 먼저 농악으로 서로 기예를 겨뤄 한 쪽으로 흡수한 후에 주위의 여러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이 남자는 숫줄에, 여자와 아이들은 암줄에 매달려 줄다리기를 하였다. 줄의 길이는 한쪽이 50~60m가 넘었다고 하며, 용목의 굵기가 1m가 넘고, 줄을 끄는데 만도 이틀씩이나 소요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30~40년 전만 하여도 마을마다 연희되던 줄다리기는, 광복 이전에 거의가 중단되고 현재는 이충동 동령마을만이 옛 줄다리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줄다리기가 중단된 까닭은, 일제 강점기에 줄을 당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민족봉기를 할 우려가 있고, 더욱이 하루가 아닌 2~3일씩이나 계속해서 줄을 당기게 되면 노동력의 동원이 어려우며, 정신적인 결속으로 인해 지배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송탄의 줄다리기를, 동령마을과 다른 여러마을의 줄다리기와 복합하여 인원 및 놀이방법을 재현하면 다음과 같다.

줄다리기의 인원은 촌장, 마을기, 동·서부기, 쇠, 징, 북, 장구, 벽구, 무동, 광대, 주미들, 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희방법

(1) 길놀이

동(여자) 서(남자)로 나누어진 줄은 앞에 마을기(안골, 샘골 등 마을이름을 쓴 기)가 서고, 동서라 쓴 대기(大旆)와 농악이 뒤따르면 그 뒤에 줄이 선 후에 서로 좌우에서 길군악장단에 맞추어 길놀이를 행진을 한다. 줄의 위에는 편장(偏長)이 타고 줄이 나갈 방향이나 술령수를 부르며 줄을 인도한다. 편장이 줄위에서 술령수를 부르면 일동이 대답하며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 길놀이를 한다.

(2) 마당놀이

줄이 서로 마주하면 용두를 마주했다 때면서 줄 위에 올라선 대장은 술령수를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면서 숫줄은 암줄을 따라가고 암줄은 피하며 한바탕 마당놀이를 펼친다. 양편의 농악은 서로 자신의 줄을 인도하고 마을기도 함께 따라다니며 흥을 고조시킨다.



■ 동령줄다리기 길놀이

(3) 줄의 결합

마당놀이를 끝내고 줄이 용두를 마주하고 양편으로 늘어놓으면, 촌장이 줄의 결합을 알리고 숫줄의 용두를 암줄에 끼워서 비녀로 빠지지 않게 지른다.

(4) 줄다리기

암줄엔 여자들과 아이들이, 숫줄엔 남자들이 여러 가락을 묶은 결줄에 매달리면 북과 징을 치고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농악을 일체를 쳐서 흥을 돋우고 결줄에 매달린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소리를 치면서 줄을 당긴다.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까지 한쪽줄이 끌려가면 촌장은 어느 쪽이 이겼다고 신호하고, 다시 줄을 제자리로 갖다놓은 후에 장구와 징을 치면 줄을 세 번 당기는데 한 번은 숫줄이 이기고 두 번은 암줄이 이기게 한다. 이는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들기 때문이다.



■ 동령줄다리기의 제작된 줄

(5) 뒷풀이

승부가 결정되면 모두 줄을 그 자리에 놓고 한데 어울려 뒷풀이를 펼친다. 이 뒷풀이는 승패에 관계없이 서로 어우러져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 민속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2) 줄의 제작

줄의 형태는 외줄과 쌍줄이 있으며 쌍줄은 원줄에 결줄을 매어 사용하는 줄과 원줄에서 한 줄씩 중줄을 뽑은 후 그 중줄에 결줄을 묶어서 사용하는 줄이 있다.

- (1) 일반적인 쌍줄은 굵기가 5cm쯤 되는 줄을 꼬아 나간다.
- (2) 위의 줄을 길이가 70~80m쯤 되게 꼬아 나간다.
- (3) 한편에서 줄을 꼬면 다른 한편에서 단단히 잡아 당겨 줄이 풀리지 않게 꼬아 질 수 있도록 한다.
- (4) 위의 줄을 6~10가닥을 합해서 중간부분을 반으로 접는다.
- (5) 반으로 접힌 부분을 새끼줄로 감아서 용두(龍頭)를 트는데 암줄을 크고 넉적하게 만들고, 숫줄은 세워서 좁고 뽀죽하게 만들어 암줄의 속으로 들어가기 쉽게 만든다.
- (6) 용두를 다 만들면 줄의 중간 중간을 곁줄로 묶어 그 곳에 매달려 줄을 당길 수 있도록 한다.

3) 이충동 동령 줄다리기

동령마을의 줄다리기는 음력 정월보름이나 16일 중에 당기는데 그 해의 만월이 되는 날을 정하여서 당긴다. 낮에 집집마다 다니며 건너들인 짚으로 줄을 꼬는데, 짚을 집집마다 걷는 이유는 줄다리기가 마을의 안녕과 풍농(豐農)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다 함께 초복(招福)을 위해서이다.

암줄과 숫줄로 나뉘어 꼬아진 줄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에 달이 떠오르면 줄을 당길 장소로 옮긴다.

숫줄은 남자들이, 암줄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당기는데 서로 농악대와 함께 줄을 메고 줄을 당길 공터로 행진한다. 줄을 옮길 때는 특별한 형식은 없고 각자가 흥겹게 춤추며 간다.

숫줄의 용두에는 남자가 타고 암줄의 용두에는 여자가 타는데, 이충동에서는 남자가 치마저고리로 여장을 하고 줄에 올라탔으며, 암·숫줄이 서로 만나자 양편의 대표들이 서로 악수를 교환하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암·숫줄이 서로 만나자 줄을 내려놓고 숫줄의 용두를 암줄에 끼운 다음, 빠지지 않도록 굵기가 20cm쯤 되는 비너(장목)를 두 개 끼웠다.

논에는 모닥불을 피어놓고 임시로 전깃줄을 가설해 불을 켜으며, 마을의 농악대가 흥겹게 장단을 치는 가운데 줄이 결합되자 암줄은 여자들이 숫줄은 남자들이 달려들어 신호에 맞추어 줄을 당겼다.

이충동 동령마을의 줄다리기는 여자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여자들이 생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추고 즐기는데, 매년

당겨지는 줄은 마을의 안녕과 풍농 그리고 전 주민의 화합을 위해 거행되는 세시적인 놀이이다.

2. 장치기(얼레공치기)

우리나라의 많은 민속놀이 가운데 유일한 구기종목인 놀이는 장치기이다. 이 장치기는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초동에 이르기까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즐기던 대중적인 놀이였다.

장치기는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로써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나무를 공처럼 둥글게 깎아서 사용하거나 짚을 공처럼 뭉쳐서, 장이라는 채를 사용해 공을 자신이 속한 마을의 문으로 몰고가 집어넣는 편이 이기는, 승부성 민속이다.

원래 장치기는 양반사회의 사대부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하던 '기마격구'가 그 기원으로 보는데 첫 번째의 기록은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이월 갑오조에 “상주(尙州)의 적 아자개(阿子蓋)가 사자를 보내어 귀순한 뜻을 전하니 왕이 명하여 그를 맞이하는 의식을 구정(격구하는 놀이마당)에서 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고려 이전 신라 때부터 연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격구는 상류사회의 고급유희로서 단오일에 연희되었는데, 사치와 호화가 지나쳐 1314년(충숙왕 1) 5월에 전반적으로 이 놀이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334년(공민왕 23) 5월에도 이를 금지시켰으나, 오랫동안 귀족들의 몸에 밴 습성이라 사라지지 않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잠시 중단되었고, 세종 때에 이르러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세종실록』 권42 1430년(세종 12년) 9월 기미조에는 “왕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격구는 고려의 폐가 있다고 하나 본시 무(武)를 익히는 것이지 놀이가 아니다”라고 하여 경기방법과 채점방식이 채택되어 무관을 등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 격구는 남자들만의 경기가 아니고 부녀자들이 의상을 호화롭게 차려입고 격구를 했다는 것이 『고려사』 권14 1116년(예종 14년) 4월 신묘조에 나타나고 있어, 남녀의 공통적인 놀이였던 것이 그만큼 위험이 뒤따르자, 조선조에 들어와 무관을 등용하는데에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점차 민속화되면서 '장치기', '짱치기', '얼레공치기' 등의 명칭으로 전국적인 놀이가 되었다.

이 장치기는 승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체력단련과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도 나타났으며, 겨우내 침체되었던 정신과 육신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마을간의 대항으로 승부를 결정지어 풍년을 차지한다는 무속적 사고를 띄우기도 하였으며, 나뭇꾼이나 초동들이 나무를 해주거나 풀을 저다주는



* 전 조선 얼레공치기 대회가 열렸던 황구지천 고수부지

방법으로 지게 작대기를 장으로 삼고 짚덤불을 뭉쳐서 서로 집어넣는 여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한수 이남의 전역에서 이 장치기가 얼레공치기란 이름으로 매우 성행하였으며, 특히 수원, 용인, 이천, 광주, 송탄, 평택, 오산, 안성 등지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치기의 놀이방법이나 경기규칙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을과 마을이나 단체가 경기할 때는 넓은 공터가 형성된 곳을 정하고 택일을 하

여, 농악대를 앞세우고 시간을 정한 후에 경기에 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기가 상대방의 문에 공을 넣어야 이기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얼레공은 곡식의 낱알을 뜻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마을 문으로 집어 넣어야 풍년을 차지한다고, 놀이를 하였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서¹⁾ 서양의 경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장치기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文化抹殺政策)이 시작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애국애족을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가 경기를 계기로 모여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하였는데 1931년 2월 5일자 동아일보에 「우리 경기 부흥의 봉화—杖球(얼레공)대회」라는 제목으로 수원군 청년·소년동맹 양감지부의 주최로 제1회 전조선 얼레공대회가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앞 냇가에서 전국의 32개 남녀팀의 접전 끝에 두릉야학팀(고덕면 두릉리)이 우승했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1992년 2월 10일 송탄시 중앙동 현지조사) 당시 전 조선 얼레공대회 직접 참관했던 현기천옹(78세 송탄시 중앙동 328-22번지)에 의하면 그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려 2월 1일 눈이 발목에까지 빠졌으며, 양감면 용소리 앞 냇가에서 얼레공대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자 경기는 서탄면 황구지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그 당시 증언하는 현기천옹은 수원 청년 동맹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참관하기를 적극 권장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처음이었다고 전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앞 냇가에서 서탄면 황구지로 옮겨서 경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장치기의 놀이방법과 기타 자료의 인용도 정확한 현지조사로 정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놀이가 아닌 민족성을 일깨우는 청년, 소년 놀이로 재현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평택지역의 장치기를 따로 보면 앞서서도 기록하였듯이 1931년 2월 1일 서탄면

1) 1987년 조사담당 여주군 능서면 번도5리 거주 유봉용(당시 75세)의 증언.

황구지천에서는 전국의 32개 남녀 팀이 참가한 전 조선 얼레공대회가 열렸다. 동아일보 1월 24일자부터 30일까지 사보를 통해서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앞 냇가에서 얼레공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가 실렸으며, 한 팀의 선수는 각 5명으로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이 전국 얼레공 대회를 참관했던 고증인들에 따르면 눈이 발목에까지 빠질 정도로 많이 내려 온 천지가 하얗게 변했는데, 황구지천 앞에는 온통 까맣게 뒤덮혔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흰 옷을 못 입게 하여 모두가 검정색으로 물감을 들여 옷을 지어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곳에 모인 전국의 선수들만 하여도 160여 명이나 되었으니, 아마 천여 명은 모였으리라고 한다.

당시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송탄의 전역에서 얼레공치기라고 하여서 매우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송탄의 장치기는 대개 마을의 청장년들에 의해 경기 형태로 연회가 되었으며, 초등들이나 나뭇꾼들이 서로 내기를 하기도 했다.

송탄에서 20~30년 전까지만 하여도 얼레공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학생들의 경기나 일부 청장년들에 의해 이웃 마을과의 경기로 연회되기도 했다.

시내 외지인 서탄면이나 고덕면 등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경기를 해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기록한 전 조선 얼레공대회의 영향으로 보인다.

장치기는 촌장, 쇠, 북, 장고, 징, 벽구, 장채꾼, 주민들로 인원이 구성된다. 양편은 서로 구별하기 위해 장채꾼들로 서로가 다른 색깔의 머리띠를 착용하여 표시한다. 이 인원은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기위한 인원이며, 재현시에는 각종 기(마을이나 대기 등)가 필요하게 된다.

1) 연희방법

얼레공치기는 보통 장소의 넓이에 따라 경기인원을 정하는데, 과거의 놀이는 대개 청장년층에 의해서 행해졌으므로 때로는 놀이 자체가 몹시 과격해질 때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기도 한다.

- 채를 어깨 위로 올리지 못한다.
- 채 이외의 발이나 몸을 사용할 수 없다.
- 채로 상대방에게 휘두르거나 위협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 선 밖으로 얼레공이 나갔을 때는 굴러공(공을 굴려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한다.

-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등이다.

(1) 길놀이

양 부락이 기를 앞세우고 농악의 뒤를 따라 놀이를 하는 경기장으로 들어오면, 서로 동·서부로 갈라져 각기 놀이판을 형성하고 한바탕 흥겹게 놀면서 마당놀이를 펼친다.

길놀이는 길군악 칠채의 장단에 맞추어 서로 춤을 추며 입장하고, 마당놀이를 할 때는 각 마을의 상쇠의 인솔로 놀이판을 따로 펼친다.

(2) 경기

- ① 놀이판을 형성해 한참 흥겹게 장단에 맞추어 흥을 돋우던 연희대 일행은 자신들 마을의 문옆으로 물러가고, 촌장은 양쪽 장채꾼들을 불러들인다.
- ② 중앙에 모인 양편 마을의 장채꾼들은 서로가 채를 땅에 대고 기다리면 촌장이 얼레공을 공중으로 던진다.
- ③ 위로 올라갔던 공이 땅에 떨어지면 저마다 채로 공을 몰아 자신의 마을로 끌고 가며, 이 때는 채로 상대방의 몸을 건드리거나 채를 너무 높이 치켜들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서로 공을 몰고 가다가 공이 문 밖으로 나가면 공을 굴려서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시작하여, 경기 중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을 때는 벌칙으로 몸을 한바퀴 돌아서 공을 치도록 한다. 얼레공치기는 단순히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쪽이 풍년을 차지한다는 무속적 사고가 있으므로, 자칫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촌장(심판)은 항상 경기를 잘 인도해야 한다.
- ④ 마을의 주민들과 농악대는 경기장 밖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하는데, 얼레공이 문안으로 들어가면 '났네' 하고 소리친다.
- ⑤ 경기는 시간을 정해서 하던지 아니면 누가 먼저 집어 넣는가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3) 뒷풀이

경기가 끝이 나면 모두가 안으로 들어와서 수상쇠의 장단에 따라 함께 어우러져 뒷풀이를 펼친다.

우리나라 민속만이 지니고 있는 뒷풀이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서로가 상대방을 격려하며 흥겨웁게 노는 한마당으로, 그야말로 그 뒷풀이에서 모든 해묵은 감정을 풀어버리는 마당이다.

뒷풀이는 전체가 어울려 놀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대열을 정리하여 인사하고 놀이를 마친다. 장치기에서 사용하는 장채는 물푸레나무를 사용해서 만든다. 나무는 길이가 5자쯤 되게하고, 끝이 45도 정도가 굽은 것을 다듬는다. 물푸레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지 않고 신축성이 있어서 채로 사용하기가 좋으며, 끝의 양면을 깎아내어서 넓적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얼레공은 짚을 단단하게 뭉쳐서 겉을 짚으로 끈 새끼줄로 감아서 사용하거나, 소나무의 옹이가 여러 겹 박힌 것을 깎아서 사용하는데 크기는 지름이 15cm쯤 되게 만든다.

초동들이 풀을 베거나 산에 나무를 하러가서 놀 때는 짚을 뭉쳐서 쪼똥쿨로 감아서 쓰기도 하는데, 탄력이나 사고의 위험성 등을 생각해 거의가 짚을 뭉쳐서 사용한다.

3. 지신(地神)밧기

매년 하늘에서 평신(坪神)이 내려온다는 정월 2~3일 마을마다 시작되는 지신밧기는 지방에 따라서는 '마당밧기' 또는 '매귀(埋鬼)놀이'라고도 불리운다.

지신밧기는 집안의 가신(家神)을 위하고 송축함으로써, 일년 동안의 복을 빌고 축사(逐邪)를 기원하는 민속이다. 또한 단순히 초복축사(招福逐邪)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뛰어놀고 즐기면서,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사상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 통북재시장에서 지신밧기를 하는 팽택농악 단원들

지신밧기의 기원은 언제부터라고 문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주위의 사실을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지 魏志』 「동이전 東夷傳」 마한조 등에 보면 고조선의 체천의식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우러져 춤과 노래를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신밧기의 유래는 이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하늘과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신을 즐겁게 함으로서 인간들 스스로도 즐긴다는 뜻으로, 몇 날을 쉬지 않고 주야로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의 성격을 띠우고 있는데, 이러한 놀이가 5월 모심기후나 정월(正月) 또는 10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신밧기는 음력 정월 2~3일에 시작되어 정월 보름에 갖가지 민속놀이를 유도

해 념으로 절정을 맞이하여 끝나게 되는데 대동(大洞)일 경우에는 정월 한달이 걸리기도 한다. 지신밧기의 목적은 단순히 가신(家神)을 위로해 복을 받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를 도출시킴은 물론 지신밧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연희대에게 주는 전곡(錢穀)을 이용해 마을의 공익사업(公益事業)에 쓰기도 한다. 정월초가 되면 각 마을마다 거행되는 지신밧기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며, 진행의 순서는 마을의 대소나 가옥의 구조, 기능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나 그 목적이나 전체적인 구성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택에서는 6·25까지만 해도 마을의 두레농악대가 정월초부터 집집마다 다니며 각 가정의 지신을 놀려 일년간의 초복축사와 육축번식, 풍년의 기원, 자손창성(子孫昌盛) 등을 발원(發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송탄의 지신밧기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각 마을마다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축원(逐願)해 주고, 받은 전곡을 이용해 마을의 공동 우물을 파거나 아니면 도로를 보수하고 마을의 동제(洞祭)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나 농악기를 보수하고 바꾸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평택지역에서 지신 밧기가 활발하게 연희되던 이유는, 가까운 평택시 진위나 안성시 등 예로부터 남사당(男寺黨)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을의 농악이 활발하게 연희되었다.

위와 같이 연희되던 지신밧기가 일제 치하의 문화말살정책 때 유기그릇의 공출로 쇠(釘), 징(釘) 등을 수거하자 한때 중단이 되고, 광복 후에 급격히 밀려 닦친 서구문물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쇠퇴하였다. 요즈음에 송탄시에 지신 밧기는 거의 볼 수 없고 다만 몇 개의 마을에서 동리의 노인들에 의해 연희가 될 뿐이며, 그것도 지신밧기이기보다는 걸립(乞粒)의 형태로 집집마다 다니며 문 앞에서 잠시 동안 연희되는 모습만을 볼 수 있다.

배역은 농기, 상쇠, 무쇠, 징, 북, 장구, 벽구, 비나리, 양반광대, 머슴, 중, 포수, 무동 등이 있다.

1) 연희방식

지신밧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입구에서 놀이패가 징과 북을 울려 마을로 진입함을 알리고, 연희는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에서부터 시작한다.

(1) 대동우물굿

먼저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에 도착한 연희대 일행은 상쇠의 장단에 맞추어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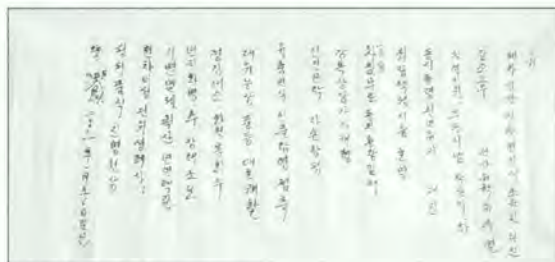
을 몰아 그치고 샘풀이 덕담을 한다. 상쇠가 “뚫읍세 뚫읍세 물 구멍만 뚫읍세” 하고 소리친 후 장단을 몰아 그치고 “물줍쇼 물줍쇼 사해용왕 물줍쇼” 외친 후에 장단을 몰아 그치고 “동방청제 용왕님 남방적제 용왕님 서방백제 용왕님 북방흑제 용왕님 중앙황제 용왕님 이물을 먹는 만인간 수명장수 발원이요 그시발복 발원이요” 하고 다시 장단을 모아친 후 “7년 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철철나게 도와주고 9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말게 해주 십쇼” 하고 덕담을 마친 후에 마을로 들어가 정해진 집의 문 앞에서 문긋풀이를 한다.



동령마을 용왕제(우물긋)

(2) 문긋

문 앞에 도착한 연희대는 장단을 치면서 한참 동안 마당놀이를 한 후에 장단을 그치고 “주인 문 여쇼 문 안열면 갈라요” 하고 외친 후 문을 열어주면 “만인간 만복이 들어가요 수명장수 들어가요” 하고 문긋 덕담을 한 후에 문안으로 들어간다.



용왕제 축문

(3) 조왕긋

대문의 안으로 들어선 연희대 일행은 먼저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엌의 신인 조왕신(竈王神)은 화신(火神)으로 부정을 태우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조왕긋부터 하는데, 집안의 가족 중에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 부엌에 두는 것은 조왕신의 덕으로 밥을 굼지 않고 다니기를 바라는 뜻이며, 밖에 나가 부정한 일을 보거나 상가(喪家)에 다녀온 사람들이 먼저 부엌부터 들러 방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부정을 태워 버려 모든 부정이 집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무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엌은 비좁아 전체인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상쇠와 소리꾼 그리고 뒷잡이 몇 명만이 들어가 소리꾼이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을 누릅세” 하고 외치면 전체가 따라 외치면서 부엌바닥을 밟는다.

(4) 터주긋

조왕긋을 마친 후에는 집 뒷켠에 있는 장독대로 가서 터주긋을 한다. 터주는 흔히 ‘대주대감(垓主大監)’, ‘후토주임(後土主任)’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집안의 대



* 장독대에 설치한 터주가리 2개

소 불상사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집안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거나 집을 개축할 때 동티(動土)가 나면 터주신에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터줏대감은 흔히 장독대 옆에 작은 단지에 결실이 좋은 범씨를 넣어 짚으로 이엉을 엮어 덮어두고, 놀이 때 일행이 이 곳에 와서 터주가리의 주위를 돌며 “누릅세 누릅세 터주지신을 누릅세” 라고 상회가 선창하면 모두 따라 외치며 터주의 주위를 돈다.

터주의 주위를 돌면서 터주지신을 누른 연희대는 마굿간, 변소, 담장 등을 다니며 골고루 터를 밟은 후에 집안의 샘에 가서도 축원덕담(祝願德談)을 해주고 대청으로 간다.

(5) 성주굿

집안을 골고루 다니며 지신을 밟은 연희대 일행이 대청 앞에 모이면 주인은 미리 쌀말에 쌀을 가득 부어 놓고 주발에 촛불을 밝혀 그 위에 놓은 다음 수저나 실타래 혹은 북어 등을 놓는다. 이것은 수저는 식복(食福)을 기원하는 것이고 실타래는 수명장수(壽命長壽)를 바라는 것이며, 북어는 풍어(豐漁)나 재액(災厄)을 방지를 뜻하는 것이다. 간혹 집안에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돈을 놓는 경우도 있다. 대청에 모여 든 연희대 중 비나리가 소리를 하는데, 대청에는 성주신(城主神)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주신은 흔히 성조신(成造神), 상염신(上染神) 등으로도 부르며 집안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에 좌정하고 가신 중의 으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성주신이 좌정하고 있는 대청에서 축원덕담(祝願德談)을 하게 된다.

비나리가 상쇠의 쇠가락에 맞추어 소릴하며, 북, 장구 등의 뒷잡이가 반주를 한다. 성주신에게 하는 덕담은 태평성대(太平聖代), 자손발원(子孫發願), 농사풀이, 달거리, 홍수풀이, 상업풀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문적인 비나리가 아니고 마을의 두레농악대에 의해서 지신밟기를 하는 경우에는 태평성대, 농사풀이, 달거리, 홍수풀이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청에서 고사덕담이 끝나고 나면 연희대 일행은 마당놀이를 하고 난 후에 다음 집으로 향하게 되며, 지신밟기에서 얻어진 수익은 마을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4. 기(旗)싸움

기(旗)싸움은 마을과 마을의 두레농악대가 농사 일을 하기 위해 풍물을 치며 길을 가다가 길에서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정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마을의 두레농악대가 서로 모여서 기세배(旗歲拜)를 올리는 가운데서, 대동(大洞)의 농악대가 자신의 마을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농기(農旗)에 달려들어 평장목을 빼앗으려고 서로 다투는 승부성 민속이다.

이 기싸움은 흔히 두레싸움이라고도 하여 연초에 마을과 마을이 날짜와 장소를 정하던가, 작업 중에 서로 평장목을 빼앗던가 하여 이기는 쪽은 풍년을 차지한다는 무속성(巫俗性)이 내포되면서 점차 여기를 더하며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골고루 유행이 되었다. 두레싸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을마다 두레조직이 있고 두레조직에서 대개 농악대가 있으므로 두레와 농악을 동질로 보아 두레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두레와 농악은 별개의 것이다.

두레란 어느 특정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원의 집합체로 농사 일에 있어서, 먼저 두레성원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 조직의 성원이 아닌 다른 집안의 일을 해주고 받는 샅으로, 대개 농악기를 구입하여 두레농악이라 부르는 데서 온 것이지, 농악대가 있어도 두레조직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두레조직은 있어도 농악대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두레가 곧 농악은 아니다. 다만 마을마다 두레조직과 농악대가 함께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레 = 농악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 기싸움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둔전병(屯田兵)들의 진법연구와 체력의 증진 혹은 전투력의 향상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의 기의 상단부에 꽂힌 장목을 빼앗는 승부성 경기를 한 것이, 둔전병의 제도가 폐지되고 군악(軍樂)으로서의 농악이 그대로 마을의 농사악(農事樂)으로 전해지면서 그 습관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설에는 이 기싸움이 기세배에서 발단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정읍(井邑)에 사는 최씨형제가 추수를 끝낸 후에 천신(天神)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식을 지낸 후에 아우가 형에게 세배를 드린 것이 기세배의 유래라고 하며, 이 기세배의 과정에서 서로가 힘겨루기의 한 형태로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도 추정하나 기세배의 풍습은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수서 隋書』에 보면 “백제의 풍습에 장가는 것은 중국과 같고 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경례를 삼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싸움이 한창 성행할 때는 동리마다 두레농악이 조직되어 있어서 두레성원

들이 때를 지어 다니며 농사일을 할 때, 서로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농기의 기수(旗首)를 숙여서 배례를 올리는데 먼저 누가 숙이느냐에 따라서 상기(上旗)와 하기(下旗)를 가늠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기에다 대고 숙이라고 고탄치다가 급기야는 기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기의 서열을 정할 때는 어느 마을의 농악대가 먼저 결성되었는가를 따지게 된다. 마을마다 농악대와 농기가 있고 농기는 곧 그 마을의 상징이기 때문에, 농기를 모로 눕히거나 훼손시키면 마을에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여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때문에 기를 어느 부락이 먼저 만들었느냐는 곧 농악대의 결성순위를 뜻하는 것으로, 먼저 결성된 것으로 형을 삼는다. 하지만 먼저 결성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생긴 마을에 지체 높은 양반이 살고 있으면 동리가 작더라도 그 마을의 기가 상기(上旗)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예이다.

이 기싸움에서 이기면 풍년을 차지함은 물론 일년동안 형기(兄旗)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과격한 나머지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농악이 활발하게 연희되었던 송탄에서는 기싸움이 매우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송탄의 거의 전역에서 6·25동란 전까지만 하여도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 두레 농악대가 평장목을 빼앗으려고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도일동 하리와 원도일, 이충동 동령리와 안골 진위면 일대, 지신동과 건지 등에서 심하게 다투었고 하며, 과거에는 놀이라기보다 기를 갖고 싸우는 승부성 민속이었다.

송탄의 기싸움은 한창 때는 하루에 몇 군데가 동시에 기싸움을 벌여 나중에는 대동(大洞)의 많은 인원이 지나가면 타동(他洞)에서는 아예 싸움을 피하기 위해 먼길로 돌아다녔다고 전하는데, 6·25때까지도 흔히 볼 수 있던 것이 그 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한다.

한참 심하게 기싸움을 할 때면 과열이 되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농기는 물론 농악기까지 빼앗아 가기도 하였다고 하며, 한 번 농기를 빼앗기면 도로 찾아오기에 여간 애를 태운 것이 아니라고 전한다.

배역은 농기, 보조, 영조, 쇠, 징, 북, 장고, 벽구, 일꾼, 광대가 있다.

1) 연희방법(演戲方法)

(1) 길놀이

양편의 연희대는 서로가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대와 일꾼들이 대열을 정리하여, 길군 악칠체에 맞추어 정해진 연희장으로 길놀이를 한다. 이 때는 서로 같은 가락을 치지 않아도 되며, 각자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면서 행진한다.

(2) 마당놀이

양편의 연희대가 정해진 장소로 들어오면, 서로가 기를 가운데 두고 한바탕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 때는 서로가 모심기요나 김매기소리 등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서로가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 흥이 나는 마당놀이를 펼치는데, 합성을 지르고 춤을 추면서 상대방을 견제하여 우세를 보이기에 힘쓴다.

(3) 기세배

대열을 정리하여 서로 마주쳐 길놀이를 하면서 한가운데서 만나면, 서로 먼저 숙이라고 고향을 치면서 기세배를 한다.

(4) 기싸움

기세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싸움으로 유도한다. 서로 숙이라고 고향치다가 한 편에서 상대방의 기로 올려 나오면 다른 한 편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기에 달려들어 기에 기어 오른다. 어느 한 편이 먼저 기의 상단에 있는 평장목을 빼앗으면 진 편에서는 기를 높히고 땅에 주저앉고, 이긴 편에서는 장단을 몰아치면서 합성을 지르며 춤을 춘다.

(5) 기세배, 뒷풀이

이긴 편에서 먼저 도달하면 진편의 기가 기수를 숙여 먼저 세배를 올리고, 이긴 편이 기가 답례하면 서로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흥겨운 뒷풀이를 펼치다가 도열하여 인사한 후 퇴장한다.

5. 백중(百中)놀이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일(百種日), 백중절(百中節), 망혼일(亡魂日), 중원이라고 부른다. 옛날부터 이 날이 되면 남녀가 모여, 온갖 음식을 갖추어 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다. 백중에는 씨름대회가 지방마다 열리게 되며 특히 장에는 백중장(百中場)이 서게 되는데, 이 백중장은 백중을 전후에서 열리게 되며 머슴을 둔 집에서는 이날 하루를 쉬면서 장에 나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도록 새 옷도 한 벌 지어주고 돈도 넉넉하게 주는데 이 돈을 백중전(百中錢)이라고 하였으며, 이 백중절을 머슴날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 장마다 서로 농악대회, 씨름대회, 그네뛰기 등의 시합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농촌에서는 김매기가 다 끝나게 되므로 머슴들이 호미를 쓸일

이 없어 호미를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호미씻기와 함께 연이어서 나타나는 놀이였다.

승려들은 이 날 각 사원에서 제를 올리는데,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속인(俗人)들도 공양을 했으나, 조선시대에는 주로 절의 승려들만이 하였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목련이라는 비구니가 있어 그의 어머니가 살아서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졌는데, 목련이 보니 어머니가 귀신에 쫓여 있음으로 보고 바릿대에도 밥을 담아 먹였더니, 그 밥이 변하여 불등이 되어서 먹지 못하므로 목련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석가모니에게 가서 간청하니, 석가모니는 ‘네 어머니의 죄가 크니 7월 15일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담아 시방대덕(十方大德)에 공양하라’ 하여 목련이 7월 15일을 맞아 7대 부모와 현재 부모의 액란 중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하여 백종(百種)의 쌀과 과일을 갖춰 중들이 함께 목련의 어머니를 위하여 경을 읽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였다.

제주지방에서는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7월 14일에 제를 올리는데 이 제를 백중제(百中祭)라고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북제주군 뒤에는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말과 소를 이끌고 바닷가에 나가 먹이를 먹이고 있으려니까,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 왔다. 웬일인가 싶어서 숨어서 엿보니 옥황상제가 바다를 향해 ‘거북아’ 하고 불렀다. 잠시 후에 거북이가 바다위로 떠오르니 옥황상제가 거북이에게 ‘오늘 밤에 석자 다섯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우대작케 하라’고 옥황상제는 하늘로 올라 갔다. 백중이 가만히 생각하니 석자 다섯치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가축도 홍수에 떠내려 가고, 농작물도 다 피해 입을 것 같아 걱정하다가, 바닷가에 나가 옥황상제의 목소를 흉내내어 거북이를 부른 후에 ‘아까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비는 다섯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그 날 저녁에 백중의 말대로 비는 다섯치만 오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 본 옥황상제는 대노하여 천사를 시켜 백중을 잡아 들이도록 명령하였다. 백중은 이러한 일을 미리 생각하고 있던 터라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백중의 덕분으로 이 해는 대풍년이 들었다. 농민들은 백중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내, 백중의 넋을 위로하였다”고 전하며, 이 날을 백중날이라 하여 물맞이와 해수욕을 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 날의 물맞이와 해수욕은 만병통치가 된다고 하여서 모두 바닷가에 나가서 하루를 즐긴다.

이때 쬐이면 눈에 물이 말라 농부들의 발 뒷꿈치가 하얗게 된다고 하여 백중(百

躡)이라고도 한다. 이 날 민가에서는 달밤에 새로 나온 과일이나 채소 등을 차려 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불러들여 제를 지낸다. 백중놀이는 마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밀양, 충남 연산, 충북 괴산 등에서 재현되었다.

평택에서는 서정리에서 7월 백중을 전후해 3~4일 정도의 난장을 벌이며, 인근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장을 보고 한쪽에선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며 농악대회와 씨름, 그네뛰기 등이 벌어졌다. 이 때는 20리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들어 즐겼으며, 특히 씨름판에는 총각마구리, 황소걸이 등으로 인해 타지역의 사람들도 성시를 이루었는데, 30~40년 전만하여도 농토가 많았던 인근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농사꾼들이 모여서 즐기면서 하루를 보냈다.

백중 때가 되면 장사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저마다 난장을 트고 서로가 좋은 장소를 차지하려고 법석을 피웠으며, 한쪽에서 씨름판이 벌어지고, 한쪽에선 내기 옷놀이와 장기 등이 벌어져 고향을 치고 농악대가 서로 재주를 내세워 하루종일 쉬지도 않고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며 즐겼고, 장에 모인 부녀자들은 널뛰기로 하루를 보냈다.

송탄 서정리의 백중놀이는 이미 재현된 고장처럼 특별한 놀이는 없었지만, 농악대가 도착하면 한 군데 모여서 먼저 우물에 가서 샘굿 축원을 한 후에 장사를 하는 집집마다 다니며 지신밟기를 해 주고 씨름판으로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고는 했다.

6.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영물(靈物)이고 장수동물인 거북을 신격화하여 신성시하는 8월 한가위의 놀이로서 8월 보름의 달빛 아래서 수수잎을 엮어 거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을 빌어주고 액을 막아주는 초복축사(招福逐邪)의 기원의 대가로 전곡(錢穀)을 받아서, 마을의 이익이 되는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호지방(畿湖地方)의 대표적인 놀이로서, 거북을 위함으로 인간이 초복축사와 무병장수, 그리고 풍년을 구하기는 기원성민속(祈願性民俗)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많은 민속놀이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연회가 되고 있는데, 그 형태는 마한의 습속이었던 5월 모심기와 10월 추수의 감사의식이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파생한 놀이로 볼 수 있다. 즉 제천의식에서 모심기는 정월의 지신밟기로, 10월의 농공(農功)은 거북놀이의 형태로 변화되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절이 다른 민속이 그 연회과정이나 놀이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거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흔히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나 민예품을 보면 많은 것이 거북과 연관되는데, 벼루의 연적이나 거북비, 십장생도 등에서도 거북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특히 왕이나 황후의 옥쇄에도 거북의 문양을 새겨 장기집권과 태평성대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장수동물인 거북을 위함으로서 가뭄과 질병, 홍수와 재액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작게는 집안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누리고자 하는 염원에서 창출된 것이 바로 거북의 놀이라고 본다.

경기도 이천지방에 전하는 거북놀이의 창출 유래를 보면 신라 제31대 문무왕(661~681)때 15세의 공주가 병이 들어 왕이 짐을 쳐보니, 15세의 소년들로 하여금 수수비를 만들어 공주의 주위를 쓸게하면 낫는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낫았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거북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무병장수설(無病長壽說)로 창출의 기원을 삼고 있고, 충청남도 천안지방에서는 천여년 전인 고려 8대 현종(1010~1031)때 나라에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곳곳에서 도둑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현종이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 각 고을을 순회하였다. 그러던 중 직산현에서 하루를 기거하게 되었는데, 꿈에 신라의 문무왕이 나타나 8월 한가위에 거북을 보낼테니, 거북과 더불어 뛰어놀고 민심을 수습하라고 현몽하여, 해상으로 침입하는 적은 용왕이 있어서 막을 수 있으나, 육지에서 침입하는 적은 막을 수가 없으므로 수륙양생(水陸兩生)하는 거북을 보내니 국가를 잘 보호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튿날 조정의 중신들과 의논한 끝에 지형을 살펴보니 입장면(笠場面) 구덕리(龜德理)가 거북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고, 8월 한가위에 조정 대신들을 보내 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거북놀이를 하였다고 하는 풍년기원설(豐年祈願說)과 안과태평설(安過太平說)이 있다. 이러한 무병장수나 풍작의 기원, 마을이나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거북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영물이라고 믿는 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호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연회가 된 거북놀이는, 마을의 안녕이나 풍작을 기원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했으며, 8월 보름이 되면 낮에 준비해 둔 거북의 옷을 뒤집어 쓰고 마을의 집집마다 다니며 덕담을 해주는, 일종의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대동의 놀이었다.

송탄에서 30~40년 전까지만 하여도 마을마다 청년들이나 어린 소년이 수수잎으로 거북의 모습을 만들고, 각자의 몸에 수수잎을 두르고 때를 지어 집집마다 다니며 거북놀이를 즐겼는데, 중단된 지가 오래되었고 또 중단되기 전에는 이미 아이들의 유희로 변해, 거의 모든 마을에서 연회가 되었으면서도 그 자세한 놀이과정이나 연회의 이유 등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어느 마을이나 매우 활발하게 연회가

되었던 거북놀이가 단지 해학적인 모습만 갖고 즐기지 아니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즐기던 중 거북이가 쓰러지고 그 거북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청원하여 먹을 것을 주면 일어서서 신나게 한바탕 뛰어놀으므로써 앞의 거북놀이의 창출 목적에 맞게 연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송탄 전체에서 연희되던 거북놀이가 이제는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거북놀이의 배역에는 거북, 쇠, 징, 북, 장구, 질라래비, 집주인, 의사, 광대, 주민들이 있다.

1) 연희방법

거북놀이의 전체적인 연희방법은 지신밟기와 같이 나타난다. 또한 대청의 성주궁에서 하는 고사덕담(告社德談)도 지신밟기와 같다. 이는 지신밟기와 거북놀이가 다 함께 가내의 안과태평과 풍농 등에 대한 기원성민속으로서 마한조의 제천의식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지신밟기와는 달리 거북놀이는 연희패의 구성에 거북이라는 상징적 신위(神位)를 포함시킴으로써 단순한 지신밟기에 복합적인 면을 첨부했다는 것이다. 거북이가 쓰러지면 거북몰이인 질라래비가 “여보쇼 주인 마님 이 거북이가 서해바다를 건너 이 머나먼 곳을 오느라 배가 고파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하고 외치면 주인은 떡과 음식 등을 주고 연희대는 그 음식을 먹고 한바탕 마당놀이를 한 후 다음 집으로 향한다. 거북이가 쓰러지면 의사로 분장한 광대가 거북의 배도 쓸어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하다가 질라래비에게 기운이 없어 쓰러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고 기운을 차려 다시 일어나서 뛰고 즐기는 행위는 단순히 오락적으로 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풍농의 염원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기도 한다. 거북을 몰고 다닐 때는 연희대 전원이 거북을 에워싸고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냥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냥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냥거북아 놀아라”하고 뒤따른다.

거북의 형태는 고장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천지방에서는 멧방석에 수수잎을 꽃아서 몸통을 만들어 그 안에 두사람이 들어가게 되며, 머리는 맨드라미 짚으로 묶거나 밤송이를 나무에 매서 머리라 하였고, 용인에서는 소쿠리에 한지를 잘게 찢어서 붙여 흡사 사자의 머리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여주나 충북 음성 등에서는 거북이의 형태가 지네같이 생겨 그 안에 3~5명씩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며, 충남 천안지방의 거북이는 앞의 연희자가 목을 X자 모양의 막대기에 내밀고 다녔다.

이렇듯 거북의 형태가 다른 것은 그 고장의 특징과 기예인의 역량 등에 따른 것

으로 분석되며, 각 고장마다 독특한 거북이의 형태를 지님으로서 놀이의 과정도 모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평택의 여러 마을에서 연희되던 거북놀이에서 보이는 거북이의 모습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진위쪽에서는 2명이 그 안에 들어와 연희하고, 도일동 등에서는 2~3명이, 서정리 등에서는 몇 사람씩 한꺼번에 들어가 연희를 하기도 했다.

거북이의 몸통은 멧방석에 수수잎을 이엉처럼 엮어서 느리고 짙으로 잘 엮어 수수잎이 빠지지 않게 한 다음에, 머리가 되는 부분을 잘룩하게 만들어 돌출시킨다. 그 안에 두명이 들어가 연희를 할 때는 앞사람이 머리부분을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수수비를 뒤로 내밀어 꼬리를 만든 다음 발에도 수수잎으로 엮어서 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대개 30~40년 전에 중단된 거북놀이는 단순히 멧방석에 수수잎을 씌워서 뒤집어 쓰고 다녔다.

7. 지경(地硬)다지기

지금처럼 건축공법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집을 짓는데 있어서 시멘트를 이용하던가 하는 식의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선인(先人)들이 생각해 낸 지혜가 커다란 돌을 줄로 엮어서 여러 가닥의 줄을 빼내어 그것으로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가 힘껏 땅에 내리 다져서 지반을 단단하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기초작업에 준하는 지경(地硬)다지기로, 말 그대로 땅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방법이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미리 집을 지을 터를 평탄하게 고른 다음, 넘적한 돌을 이용해 땅을 끌고루 다진 후에 집을 지었는데, 주춧돌을 놓을 자리에는 여러 번 반복하여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집이 튼튼히 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경다지기는 대개 마을에 새로운 집이 들어서면, 마을의 주민전체가 참여해 함께 일하여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민속이기도 했다.

주거지는 인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의식(衣食)과 함께 3대 요소의 하나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거처였다.

이 지경다지기는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밤에 다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횃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집을 지을 주민이 간단한 주과포를 차려서 대주(垆主)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땅을 다지는데, 밤에 지경다지기를 하는 이유는 품앗이 형태로 나타나는 지경다지기에서는 충분한 음식만 준비할 뿐 별도로 일

하는 샅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낮시간을 이용하면 생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의 이유는 무속적(巫俗的)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터주신에게 고사(告祀)를 드리면 낮시간보다 밤시간에 감응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습속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나타나던 이 지경다지기는 대개 연약지반(軟弱地盤)이 형성되어 있는 강가나 하천, 바닷가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반이 단단한 바위가 많은 산간지방에서는 거의 이 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경다지기는 한참을 다치고 난 후에 주인이 마련한 술과 음식을 먹고 어우러져 놀이판을 벌이기도 하는 작업성 민속이다.

이 지경다지기는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30~40년 전만 하여도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었으나,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한옥보다는 양옥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자취를 감춘 민속이기도 하다.

평택지역은 바다가 가깝고 진위천, 황구지천 등 큰 내가 주위에 흐르고 있어 지반이 무르고 약한 연약지반이 많은 곳이다. 또한 수맥(水脈)이 좋아서 어디를 파나 쉽게 물이 나오는 곳으로, 이 지경다지기가 꽤나 성행한 곳이기도 하다.

송탄의 지경다지기는 도시로 변하기 이전의 20~30년 전만 하여도 어디서나 터주 고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이 지경다지기를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고증으로는 이 지경다지기는 땅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터주신을 놀려 동티를 막는 뜻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지경들로 사용했던 돌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지경다지기를 했다는 뜻이며, 6·25동란 후만 하더라도 이 지경다지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민속이 징이나 쇠를 공출당해 농악이 없어지면서 많이 쇠퇴되고 단절되었지만, 지경다지기는 생존에 필요한 집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연희되었고 더욱 농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가 없이 전승되던 것이 집을 짓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지경다지기의 배역에는 집주인, 선소리꾼, 지경꾼, 햇불, 마을주민, 북잡이, 아이가 있다.

8. 쥐불놀이

음력 정월 들어서 일진에 두 번째 자일(子日)을 상자일(上子日)이라 하는데, 이 날이 곧 쥐날이다. 농부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 쥐불을 놓았으며, 동네 경계를 두고 편을 짜서 쥐불놀이 내기를 하여 승리한 동네편의 쥐가 패한



■ 쥐불놀이

동네로 쫓긴다고 하여 성행하였다. 그리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는 쥐구멍이 많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많기 때문에 불로 태워 없앴다. 이와 같이 옛날에 조상들이 쥐나,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쓴 방법으로서 지금도 권장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고장의 조상들은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과 밭두렁에 불을 놓았는데 이는 겨우내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병충의 알씨를 태워서 구충 구제를 행하는 방안을 썼던 하나의 민속 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자시(子時)에 방아를 찼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하여 부녀자들은 밤 늦도록 디딜방아를 찼기도 하였으며, 방아거리가 없으면 빈 방아라도 맑아 방아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불을 밝히지 않으며 길쌈이나 의복을 김지 않았는데, 옷이나 천을 쥐가 쪼

기 때문이다.

곡식을 볶아 주머니에 넣으면 재수가 좋다하여, 밀과 콩을 볶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기도 한다. 이 고장에선 지금도 쥐불놀이를 하지만 본래의 의미보다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날로 정하여 병, 해충 구제의 목적으로 변하고 있다.

9.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 역시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 15일)의 행사로 달맞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쥐불놀이, 햇불싸움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닌 놀이이다.

먼저 이 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을 청년들은 풍물을 치며 각 가정의 지신 밭기를 해 준 다음, 각자 짚이나 솔잎을 모으거나 또는 직접 나무를 해가지고 모여든다. 이것을 산기슭이나 언덕에 모아서 쌓기도 하고, 조그만 오두막이나 커다란 다락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은 '달집' 이라고 하는데, 달집의 형태는 지방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르나 대개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 즉 막대기 3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 그 꼭대기가 한 점에 모이도록 묶는다.

그리고 한 면만 터놓고 다른 면은 이엉으로 감싼다. 터놓은 쪽은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새끼줄로 달 모양을 만들어 매어댄다. 이같이 만든 달집을 달이 솟아오를 때 불을 당겨 태워버리는 것이다. 또한 불을 붙인 후 속이 비어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오래 타도록 소나무 가지를 달집 속에 채우기도 하고 물로 적시기도 한다.

달이 뜨기 전에 달집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맨 처음에

보는 사람이 달집에 불을 당기고 달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다. 몇몇씩 무리를 지어 수십 개의 달집을 태워 불꽃이 피어오르면, 신나게 풍물을 울리며 다 탈때까지 한바탕 춤을 추면서 환성을 지르며 뛰어논다. 이 놀이는 달맞이와 함께 하는 대보름 놀이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놀아왔다.



■ 동령마을 달집태우기

아이들은 달집이 타는 불에다 콩을 구워먹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달집을 태우며 달에다 절을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며, 또는 일년간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여기서 대보름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이다.

달집이 한꺼번에 잘 타오르면 풍년이 들고, 만일 불이 타다가 꺼지거나 제대로 타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달집이 다 타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 그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고, 이웃 마을보다 자기네의 불꽃이 더 높이 타오르면 자기네 마을에 풍년이 온다고 하기도 한다.

달집태우기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새해, 질병도 근심도 없는 밝은 새해를 맞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0. 팽이 치기

팽이 치기는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 소년들이 즐겨하는 놀이이다.

팽이는 직경 약 4.5cm 내외의 길이로 약 6cm 정도의 둥근 나무토막을 위는 둥글게 밀은 뾰족하게 원추형으로 깎아서 만들고, 팽이채는 직경이 1.5cm 정도의 길이 60cm정도되는 나무 막대를 만들어 그 끝에다 40cm 내외의 끈을 매어 만든다.

이 팽이는 왼손에 쥐고 팽이채를 오른손에 쥔 다음 팽이채 끈으로 팽이 허리를 칭칭 감아서 팽이채를 순간적으로 잡아 당기면서 팽이를 땅위나 얼음판에 놓으면 팽이채 끈이 풀리는 바람에 팽이는 돌게되는데, 이 때 팽이채로 팽이를 치면 팽이는 계속 돈다.

팽이 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이면서, 여러 명이 같이 할 수도 있는 놀이인데, 여러명이 할 때는 가장 오랫동안 계속해서 돌리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한다던가, 팽이끼리 부딪치게하여 상대방의 팽이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한다.

옛날에는 팽이를 손으로 깎았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였고, 중심이 맞지

얇으면 떨어져 잘 돌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시장에서 팽이를 팔게되어 모양이나 크기가 거의 같다.

11. 제기차기 [蹴鞠]

제기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이나 동전을 한지(韓紙)나 얇은 천으로 쓴다음 구멍으로 빼내어 길이 10cm 정도로 여러 가닥으로 갈라 술을 만들어 너풀거리게 만들면 이것을 제기라고 한다.

이것을 차는 방법은 둘이 하거나, 둘 이상이면 편을 갈라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다음, 제기를 발로 차올리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수를 차올리는 편이 이기게 된다.

차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리 결정하여 차게 한다. 즉, 한 발로 차올리되 차는 발을 땅에 대는 것이 보편적인 제기 차기이고, 다른 방법은 차는 발을 땅에 대지않고 공중에 들고 차는 것과, 양발을 이용하여 차는 방법, 또 발을 뒤로 돌려서 뒷축으로 차는 것 등 많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여 이긴 편은 진 편에게 제기를 종드리게 하여 발로 힘껏 혹은 약하게 차내어 차지 못하거나 차낸 것을 손으로 받을 때까지는 계속 종드린다.

이 제기차기는 일년 중 수시로 할 수 있으나, 대개 농한기인 겨울철이나 특히 정초 명절에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제기차기의 원류는 중국 고대에 있어 무술을 위한 놀이이며, 넓은 마당에 놓은 장대를 세워 거리에 망을 치고 털로 싼 가죽공을 여러 사람이 다투어 차서 그 공을 가설된 망위에 얹어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인이 축국에 능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의 김유신은 축국을 빙자하여 짐짓 김춘추의 웃고름을 밟아, 이로 인하여 누이인 문희(文姬)를 왕후로 삼게한 사실이 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 땅에 축국이 두루 퍼졌음을 알 수 있다.

12. 자치기

봄철 따뜻한 마당에서나 골목길에서, 또는 서늘한 가을철 동네의 마당에는 소년들이 자치기를 한다.

자치기는 약 50cm 가량되는 자 막대기(尺)와 약 12cm 가량 되는 메뛰기(跳木)를 사용하여 땅바닥에 깊이 5cm내외 길이 10cm의 홈을 파고 이 홈에 메뛰기를 받쳐 놓고 자막대기로 꿰어 던지면 그 때 힘과 기술에 따라 멀리 나가기도 하고 혹은 가

갑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 메뚜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받으면 순번이 바뀌어 다음 차례로 돌아 가게 된다.

이 때 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면 이 지점에서 메뚜기를 집어 던져서 땅에 파놓은 홈에 걸쳐놓은 자막대기를 맞추면 역시 다음 차례로 돌아가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떨어진 메뚜기를 자막대기로 세 번을 치올려 멀리 보내면 메뚜기가 간 곳에서 홈까지의 거리를 자막대로 재어 미리 약속한 숫자를 먼저 돌파하는 편이 이기게 되어 있다.

자치기는 지방에 따라 노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 하며, 그 노는 방법이 약간 위험하여 더러는 때린 메뚜기에 이마를 맞아 이마가 터져 피를 흘리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었다.



■ 자치기를 하는 어린이들(팽성읍 부용초등학교)

13. 이레놀이

예로부터 음력 초 이렛날이면 친한 이웃끼리 쌀을 성의껏 거두어 모듬밥을 해먹는다. 이렛날이 되면 아침부터 아녀자들이 쌀자루를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생활 정도에 따라 쌀을 거둔다. 이 거둔 쌀을 밥짓는데 필요한 만큼의 쌀만을 남겨두고 모두 팔아서 김이랑, 조기 등 각종 반찬거리를 사고 술도 약간 마련하여 동네 어른들을 불러 술대접까지 한다. 그리하여 부녀자들이 일부는 가마솥에 밥을 하고 김을 굽고, 반찬을 장만하는 등 법석을 떤 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앉게 하고 남정네는 남정네끼리, 아녀자는 아녀자끼리 둘러 앉아 오손도손 재미있게 밥을 먹는데, 이를 모듬밥이라 한다. 이렇게 모듬밥을 먹는 사람들은 웃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풍속이 아직도 농촌에서는 일부 남아 있으며, 정월 초이렛날이면 모여 논다고 하여 이레놀이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대체로 살기가 어려워서 명절이나 제삿날이 아니면 쌀밥은 물론 별다른 반찬 한 가지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 이날 하루라도 어른들은 즐겁게 하여 드리려는 배려에서 발생한 풍속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은 생활 형편이 윤택하여져서 쌀밥 모듬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많이 먹던 강보리밥을 먹어 보기 위해 강보리밥 먹기 모듬밥을 하는 실정으로 변화였다.

14. 연(鳶)날리기

정초(正初)가 되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에 연날리기가 있다.

연날리기는 원래 설날부터 시작하여 보름간을 날리다가, 정월 보름날에 모든 흥한 재앙을 연에 실어 멀리 띄워 보내기 위하여 연줄에다 썩불을 묶어 높이 올리면 썩이 점점 타 들어가 연줄도 타게되어 실은 밑으로 떨어지고 연은 멀리 떠나고 만다. 그러나 요즘 연날리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봄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연은 창호지를 대나무에 붙여 만드는데, 대체로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세로 3자 가로 2자의 창호지를 한가운데를 도려내어 구멍을 내고, 대나무 다섯 개를 얹고 가늘게 쪼개어 연살을 만든 다음 연살은 머리부분과 허리부분에 가로로 대고, 세로로 한 중앙에 수직으로 내려 붙이고 두 개는 대각이 되도록 ×자가 되게 붙인 다음 연의 머리부분과 허리부분을 살대가 붙은 쪽으로 휘게 하여 목줄을 건다.

목줄은 양 머리 귀와 세로로 세운 살의 가운데 구멍 아래쪽에 삼각이 되게 실을 매어 연살에 맨 후, 연살을 길게하여 열레(자새)에 감아 연을 날린다. 이것을 보통 참연이라고도 하고, 방패같이 생겼다 하여 방패연이라고도 한다. 연의 종류로는 생김새에 따라 방패연 가오리연, 나비연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연은 바람이 세고 약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연을 날리는 사람에 따라 높이 오르기도 하고, 빙빙 돌아 거꾸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개똥 주어 먹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바람이 불지 않아 연이 오르지 않으면 “연아 연아 올라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연 날리기에는 연 싸움이 재미가 있다. 연 싸움은 연을 높이 날린 후에 연줄과 연줄을 서로 엉키게 하여 끊어진 연줄은 지는 것인데, 이 연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사기그릇 깨진 것이나 유리조각을 가루로 만들어 참쌀풀로 연살에 발라 잘 말리면 연살이 질기고 날카로와 다른 연살이 닿기만 해도 끊어져 이기게 된다.

이렇게 날리던 연은 정월 대보름이면 송액(送厄 : 재앙을 보낸다)이나, 송액영복(送厄迎福 : 재앙을 보내고 복을 맞는다)이라 연에다 써서 연살에 마른 썩을 비벼서 묶어 맨 후, 이 썩에 불을 붙여 높이 띄우면 썩이 타들어가서 연살이 끊어지게 되며, 연은 연살에서 떠나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만다.



■ 열레를 돌려가며 연을 날리는 노인

이렇게 되면 일년내 재앙을 쫓아 버렸다고 믿었다.

우리 나라의 연에 관한 최고의 기록은 『삼국사기』 열전(列傳)중의 김유신전(金庾信傳)에 보인다.

신라 선덕왕(善德王)16년이자 진덕왕(眞德王)원년인 647년에, 비담(毗曇)과 엄중(廉宗), 두 대신은 여왕으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켜 여왕을 폐위시키려 하였다. 반란군은 명활성(明活城)에 진을 치고 있고, 왕을 지키는 군대는 월성(月城) 안에서 방어진을 치고 있으면서 10여일 동안을 서로 공방전을 벌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한 밤중에 큰 별뚱이 월성안에 떨어졌다. 이것을 바라본 비담은 반란군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별뚱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유혈(流血)이 있다하니 이것은 바로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크게 환호성을 치니 천지가 진동할 지경이었다.

여왕은 이 함성을 듣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였다. 이 때 왕사의 지휘관인 김유신 장군이 여왕을 진정시키고, 가만히 인형을 만들어 큰 연에 매달아 불을 붙여 밤에 올려 보내니 마치 별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것같이 보였다.

다음날 김유신은 말을 퍼트리기를 어제 저녁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되올라 갔다. 별은 땅에 떨어지기는 쉬우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는 사실은 보통일이 아니라고 반란군들이 의아하여 동요하게 되어 마침내 도망을 가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연의 기원이 삼국시대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고려 때 최영 장군에게 얽힌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고려말의 명장 최영(崔瑩)장군이 제주도를 정벌할 때의 일이다. 섬 주위가 온통 가시덤불과 성벽으로 에워싸여 도저히 진군할 수 없게 되자, 최영장군은 묘안을 생각해 냈다. 즉 연 밑에다 갈대의 씨를 담은 주머니를 매달아 그 연을 높이 띄워 섬 주변 가시밭에 그 씨주머니를 떨어뜨리니 그 해 가을에 섬 주위가 온통 마른 갈대로 뒤덮였으므로 여기에 불을 지르자 온 섬이 불과 연기로 가득한 틈을 타서 섬을 점령하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연을 아주 크게 만들어 이 연에다 어린 소년들을 매달아 성곽위에 띄워 올려 보낸 후 줄을 달아 밑으로 내리게 하여 이 줄을 타고 올라가 성을 정복하였다는 말도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에 의기(義妓) 계월향(桂月香)이라는 기생은 왜장(倭將)에게 강제로 평양성에 끌려 들어가서 왜장의 애첩노릇을 하는 척 하면서 성안의 비밀을 낚날



■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

이 적어서 몰래 연에 매달아 띄운 다음 연줄을 끊어 성 밖의 우리 군사에게 연이 떨어지게 하여 적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 유서깊은 민속놀이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연을 직접 만들지 않고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연을 직접 만들어 본 어린이는 많지 않다.

15. 명실태우기

해마다 설날 그믐날 밤이면 온 집안 식구가 모여앉아 여자들은 설날 차례에 쓸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은 새옷 입고 세배돈 받을 생각으로 밤잠을 못이루는 설레이는 밤이다. 이때 여자들은 한참 실걸 하는 놀이가 명실 태우기이다.

이 명실 태우기는 무명실이어야 하며, 식구마다 자기 발로 반 발씩 실을 끊어서 각각 자기 나이만큼 실에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매듭을 만든 긴 실을 한 쪽을 들어 밑으로 늘어뜨린 후 맨 밑에다 불을 붙인다. 이 명실은 타올라 가기 시작하다가, 잘못하면 매듭에서 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을 삼 등분하여 3분의 1쯤 타올라 가는 동안을 '초분'이라 하고, 중간은 '중분', 마지막을 '종분'이라 하는데, 이는 인생을 삼등분 하여 초년, 중년, 말년의 신수를 점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타올라가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면서 처음 3분의 1쯤 탈 때 까지는 모두가 초분, 초분, 초분……하면서 소리내어 외우고, 다음 중간 부분이 탈 때에는 모두 중분, 중분, 중분……하고 외운다. 마지막이 탈 때에는 종분, 종분, 종분을 소리내다가 다 타버리면 '와' 하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한다.

그리하여 말분까지 다 타면 명대로 장수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도중에 꺼지면 액운이 온다하여 각별히 조심토록 하고, 긴 여행 같은 것을 피하게 한다.

16. 널뛰기

널뛰기는 설날과 보름날에 노는 여자들의 유일한 놀이로서, 전국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 중에 널뛰기를 빼 놓을 수 없다.

널을 뿔 때에는 길이 2~3cm, 넓이 30cm, 두께 6~7cm의 부러지지 않는 길다란 널판 중간에다 짚을 여러단 묶거나 가마니를 돌돌말아 30cm정도 높이로 괴어 묶은 다음, 널판 양 끝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서로 구르면서 그 탄력으로 높이 올라갔다 가 다시 내려서고, 내려서는 탄력으로 상대방이 더 높이 솟아올라감으로 이때 희열을 느낀다.

정초나 보름에 고운 옷으로 단장한 젊은 아녀자들이 하늘 높이 솟구치며 필력이

는 옷자락과, 길게 따느린 머리까지 솟구쳤다 떨어지는 그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라 할 것이며, 이를 담 너머에서 훑쳐보는 총각들의 애타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취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가끔 문화재 행사에서나 찾아 볼 수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널뛰기는 정월 한 달 동안 계속되는데 널판의 수는 적고 뛰고자 하는 여자들은 많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렸다가 널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내려오고 다음 차례가 올라가 뛰었다.

속설에는 옛날에 죄를 지은 남자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밖에 있는 부인이 남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같이 갇혀있는 다른 죄수의 부인을 달래어 널을 뛰면서 높이 올라가는 순간 담 넘어 옥에 갇힌 남편의 모습을 훑쳐 보았다는 말도 있다.



■ 널뛰기

17.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이곳 지방에서는 '군디' 라고도 말하며, 옛날부터 단오절을 중심으로 하여 거행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추석이나 정초 등 명절에 행하기도 하였다. 그네뛰기는 주로 여성들의 놀이이지만 청소년들도 이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남자들의 전용놀이가 씨름이라면, 여성들의 전용놀이는 그네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네는 흔히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나 버드나무 가지에 매는데, 여러 가정에서 벗짚 몇 단씩을 가져다가 그네줄을 드린다. 그 굵기는 직경이 5~7cm되게 네 겹으로 드려 아주 튼튼하게 만든다. 혹은 색실이나 노끈으로 매기도 하나 거의가 짚으로 드려 매는 것이 많았으며 대개 4월 8일을 전후하여 그네를 매 놓으면 5월 5일 단오날까지 한달 가량 뛰면서 놀았다. 그네는 대개 낮에는 청소년들이 뛰고 밤이면 여성들이 뛰었으며, 단오날에는 그네뛰기 경연대회를 가졌다.

경연대회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바 그네가 앞으로 올라가는 자리에 높이를 재는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방울 같은 것을 달아 뛰는 사람의 발로 방울 차서 울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높이 뛰는 데는 배에 힘이 있어 밀치는 힘과, 다리로 밀어 올리고 팔로 중심을 잡아 줄을 힘껏 밀치는 힘 등 기술이 필요하다.



* ■ 그네뛰기

그네는 혼자 뛰는 것이 보통이나 두 사람이 마주서서 뛰기도 하는데, 이때는 앞으로 나갈 때는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힘있게 밀어 붙이고, 뒤쪽을 향한 사람은 쉬었다 다시 반대쪽으로 올 때 힘써 밀어올리는 식으로 뛴다.

그네와 관련된 속신(俗信)에 대하여는 그네를 뛰면 여름에 파리나 모기에 물리지 않으며,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네의 기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록이 없으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원래 북방의 새외민족(塞外民族)들이 몸을 날치게 하기 위하여 한식일(寒食日)에 거행하였던 것을 후에 중국의 여자들이 배워서 뛰게 되었고, 당(唐)나라로 이어 오면서 궁중에까지 번져, 경연대회(競演大會)가 있어 이것을 반선희(半仙戲)라 하였으며, 지금은 단오일에 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그네뛰기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옛 문헌을 종합하여 볼 때 그네를 한자로 추천(鞦韆)이라 하는 바, 고려(高麗) 고종(高宗)대에 최충헌(崔忠獻) 최이(崔怡) 부자는 가끔 궁전뜰이나 자신의 저택 정원에서 호화로운 추천희(鞦韆戲)를 가졌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왕궁이나 상류계급에서는 점차 이를 멀리하게 되고 서민 사이에서 유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것은 상류층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율동적 행동을 취하는 그네뛰기가 점잔과 체통을 지키는 상류층 인사들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자연히 서민층만 즐기는 놀이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8. 강강술래

우리네 여성놀이 중 가장 정서적이며 율동적인 놀이가 강강술래이다. 한가위, 달 밝은 밤에 바닷가 모래벌판에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노는 여인네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한 생명력 그 자체이다. 강강술래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전라도의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의 영일·의성, 북쪽으로는 황해도의 연백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에는 전남의 해안·완도·무안·진도 등지에서 놀아지고 있다.

강강술래가 어느 때 어떻게 하여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밝혀볼 수 없고 다만, 이 놀이가 꽤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고대 부족사회의 공동축제 등과 같은 모임 때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놀던 단순한 형태의 춤이 오늘날에 보이는 강강술래의 시원(始原)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수(陳壽)의 『삼국지 三國志』 「동이전 東夷傳」 마한(馬韓)의 습속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5월에 씨를 다 뿌리고 귀신을 제한다. 때를 지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 밤낮 쉬지 않고 수십 명이 함께 춤을 추는데, 다 같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 가락에 맞추며 손발을 맞추어 몸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땅을 밟는다. 이와 같이 탁무(鐸舞)와 비슷한 춤을 10월 농사를 끝낸 후에 또다시 춘다.” 위와 같이 마한의 습속에는 파종을 끝낸 5월과 추수를 끝낸 10월에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며 밤낮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무(圓舞)의 형식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뛰노는 이 놀이가 민중의 축제에서 크게 놀아졌음은, 그 놀이의 형식이나 뜻으로 보아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원무 형식에 곁들여 불려졌을 노래(歌詞) 또한 오랜 연유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강술래 또는 강강수월래 등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강강술래 노래로 미루어, 강강술래놀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측하는 것이다. 훨씬 후, 이것이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전술(戰術)과 결부되어 그 뜻이나 내용에 대한 폭이 넓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의 충무공과 강강술래를 관련지어 전해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명량(鳴梁) 바다에서 왜적을 무찌를 때 충무공이 거느린 전선(戰船)은 불과 12척 밖에 없었고, 이에 비해 왜선(倭船)은 3백 50여 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중과부적으로 왜적과 맞서기 어렵게 되자 충무공은 아낙네들을 모아 군복을 입히고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산봉우리를 돌게 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왜적에게 마치 수만의 대군이 산봉우리를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병술(擬兵術)을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때 아낙네들이 산봉우리를 돌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던 것이 바로 강강술래의 비릇이라는 설이다.

둘째, 위와 같은 이야기지만, 산봉우리를 돌지 않고 갯마을에서 아낙네들이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면서 왜적의 눈을 속였다고 한다. 그 후 현지 주민들은 충무공의 승전(勝戰)을 기리기 위해서 이때 의병술(擬兵術)로 쓰였던 춤을 놀이화하여 강강술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셋째, 옥동(玉洞) 앞바다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왜적의 피로 바닷물이 물들어 이곳을 ‘피바다’ 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또 우수영(右水營) 앞에 있는 울도에다 쇠줄을 매달아 왜선이 지나갈 때 쇠줄을 당기어 격침시켰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의 어린이들은 ‘울도’ 소리만 들어도 우는 소리를 그쳤다고 한다. 이처럼 처절한 싸움을 할 때 병력이 적은 충무공은 왜적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진도(珍島) 둔절리 뒷

산을 곡창(穀倉)으로 의장(擬裝)하여 군량이 많음을 과시하고, 한편 아낙네들을 동원하여 각기 색옷을 입혀 산 둘레를 돌게 하였다. 이를 끝없는 군사의 행렬로 착각한 왜적은 크게 놀라 달아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장(擬裝)된 군사행렬이 강강술래의 기원이라는 설이다.

넷째, 임진왜란 때 남자는 모두 전쟁에 동원되어 전쟁터에 나갔고 마을에는 아낙네들만이 남았다. 충무공은 아낙네들에게 남자옷을 입히고 좌수영 동쪽에 있는 옥매산(玉埋山)에 올려보내 강강술래를 시켰다고 한다. 이같은 의병술에 속아 왜적이 물러났다고 한다. 충무공이 의병술로 창안한 강강술래가 민속놀이화되어 그 후 계속하여 전승되었다고 하며, 강강술래라는 말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의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고 한다.

위의 몇몇 속설(俗說)대로 따른다면 강강술래놀이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의병술에서 연유되었고, 그 후 충무공의 전승(戰勝)을 기리기 위하여 연중행사로 놀아져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강강술래가 놀아지는 지방이 주로 옛날 충무공이 왜적들과 싸웠던 남해안 일대라는 것과 강강술래가 충무공의 전술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유추(類推)해 볼 때, 위와 같은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과 수확 때의 공동축제에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던 놀이 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강강술래놀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이 놀이를 의병술로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져 당시의 격전지였던 전라도 남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 놀이는 주로 한가윗날 밤에 놀아왔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밤을 비롯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어느 때든지 달 밝은 밤에 수시로 놀아왔다. 또한 놀이꾼들도 여인네들에 국한하지 않고 남자들도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19. 다리밟기

음력정월 대보름 밤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개천 또는 강의 다리 위를 끝에서 끝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놀이를 '다리밟기', '답교(踏橋)놀이' 또는 강릉 지방에서는 '다리빼앗기' 라고도 한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정월 상원(上元)조」에 다리밟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은 장안 남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려고 열운가(閱雲街)의 종각(鐘閣)으로 몰려든다. 종소리를 다 들은 다음 흩어져 여러 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답교(踏橋)(다리밟기)라 한다.” 혹 어떤 이는 말

하기를 교(橋)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리(脚)로 발음되므로 속담에 이렇게 하여 일년 동안 다리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담교는 주로 큰 광통교(廣通橋)와 작은 광통교 및 수포교에서 가장 성했다. 그리 하여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은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며 야단 법석이었다. 생각컨대 용락(雍洛)의 『영이록 靈異錄』에 “당(唐)나라에서 정월 보름날 밤을 중심으로 한 전후 3일 저녁을 야행(夜行)하도록 했더니 놀러다니는 남녀들의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했다.

또 육계굉(陸啓宏)의 『북경세화기 北京歲華記』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집에서 나와 다리를 거닐었다”고 했다.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 帝京景物略』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거닐므로 질병을 없애는 것을 주백병(走百病: 모든 병을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한다”고 했다.

심방(沈榜)의 『완서잡기 宛暑雜記』에는 “16일 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노는데 대개가 다리가 있는 곳에서 놀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위를 지나갔다. 이것을 도액(度厄)이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속의 담교의 연원이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 芝峯類說』에는 “보름날 밤 담교의 놀이는 전조(前朝)(高麗朝)로부터 시작했다. 태평시에는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을 이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관들이 금해서 체포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는 부녀자들이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

유득공(柳得恭)(1749~?)이 서울의 문물제도(文物制度)와 풍속·행사를 기술한 『경도잡지 京都雜誌』에도 위의 내용과 같은 기록이 있고, 또한 김태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 洙陽歲時記』 — 서울의 연중행사를 기술한 책 — 에도 다리밟기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보름날 저녁에 열두 다리(橋)를 건너면 열 두달 동안의 액을 막는 것이라 하여 재상(宰相)과 귀인(貴人)으로부터 촌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든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이가 없다.”

위의 기록을 보면 고려 때에도 있었던 담교놀이는 서울 지방, 특히 광교와 수포교에서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리를 밟으면 사람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일년 동안의 액을 막을 수 있다는 주술적 속신이 이 놀이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놀이가 한참 성행했을 때의 모습은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 「풍속편담교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월 대보름날 밤의 놀이 중 성행되었던 것은 연등(燃燈)놀이이다. 그러나 조선왕조, 특히 태종(太宗) 이후에는 연등놀이가 대신 다리밟기가 이날 밤에 성행하였는데 특히 서울에서 더했다. 장안의 남자들이 종가(鐘街)로 모여들어 보신각(普信閣)의 종소리를 듣고 나서 각 곳에 있는 다리로 흩어져 가서 밤새도록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서로 어깨와 다리가 부딪칠 정도로 봄비면서 날나리와 장고를 울리고 시를 읊기도 하며 물에 비친 달을 보며 일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기를 빌었다. 상류층 사람들은 서민들이 봄비는 15일 밤을 피하여 그전 날인 14일 밤에 다리밧기를 하였다. 이를 가리켜 '양반(兩班)답교'라 하였다 부녀자들은 14~15일을 피하여 16일 밤에 행하였다. 조선왕조 중엽 이후에는 부녀자의 문밖 출입을 심하게 단속했으므로 부녀자들의 다리밧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위와 같이 다리밧기는 한때 무척 성행하여 3일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놀아져 왔던 것이다.

1. 동제(洞祭)¹⁾

1) 개관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하는 것을 마을의 공동제의 또는 동신제(洞神祭)라고도 한다. 동제를 지내는 목적은 온 마을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되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하여 달라고 비는 것으로서, 건강과 풍요(豊饒)로 집약될 수 있다. 일본인 학자들은 동제를 부락제(部落祭)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일 뿐,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명칭은 '동제' 또는 '동신제' 이고, 지역에 따라 동신(洞神)의 구체적인 명칭을 들어 '산신제' · '서낭제' · '용신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제의 역사는 문헌기록을 통하여 『삼국지』 동이전이나 『후한서 後漢書』 동이전에 전하는 삼한(三韓)의 제천(祭天) 행사에까지 소급하여 올라갈 수 있다. 이 제천행사는 봄에 씨를 뿌릴 때 하늘에 감사하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서, 연일 음주·가무(歌舞)를 한 것 등으로 보아 오늘날의 규모가 큰 동제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제의 대상이 되는 신은 대체로 산신(山神)·서낭신(城隍神)·토지신(土地神)·용신(龍神)·부군신(府君神)·국수신·천신(天神) 등이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왕신(王神)으로 공민왕·이성계(李成桂), 장군신으로 김유신(金庾信)·임경업(林慶業)·남이(南怡) 등을 산왕으로 하기도, 영남의 동해안지역에서는 골매기신(防谷神), 제주도에서는 도깨비신을 동제의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7권에서 발췌한 것임.

동제의 종류를 제의 시기에 기준을 두어 분류하면, 봄철에 제를 지내는 춘제(春祭)와 가을에 제를 지내는 추제(秋祭)로 구분되고, 제를 지내는 목적에 기준을 두어 분류하면, 농사가 잘되게 하여달라고 비는 기풍제(祈豐祭), 고기가 잘 잡히게 하여달라고 비는 풍어제(豐漁祭), 천연두(天然痘)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달라고 빌던 별신(또는 별신굿), 그리고 호환(虎患)을 막기위해서 하던 호환굿(또는 호환굿)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제의형식에 기준을 두어 동제를 분류하여 보면, 동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독축(讀祝), 소지(燒紙)하는 당제(堂祭)와 무당을 불러 굿으로 동제를 올리는 당굿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굿도 당제를 먼저 지내고 당굿을 하기 때문에 당제와 복합된 형식이어서 형식에 기준을 둔 동제의 분류는 어렵고, 당제 역시 유교식 제례와 절충된 형식이다. 그래서 동제의 종류는 제의의 시기·목적·형식에 기준을 두어 분류할 수도 있지만, 동제 대상신의 성격에 따른 산신제·서낭제·용신제·천신제·부군제 등이 병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산신제(山神祭)

산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각기 길일을 택하여 정하는데 대개는 입춘에서 가까운 날을 정하며, 음력 10월이 상달이라 하여 택하기도 한다. 산신제는 15~20일전에 마을의 유자들이 모여 제를 결정한다 음, 부락민 중에서 비교적 덕이 있고 자손이 번성한 노인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제주를 뽑으며, 제주를 도울 사람을 몇 명 더 택한다. 생기복덕이란 일상생기(一上生氣), 이중천선(二中天宣), 삼하절체(三下絕體), 사중유혼(四中遊魂), 오상복궁(五上福宮), 육중복덕(六中福德), 칠하절명(七下絕命), 팔중귀혼(八中歸魂)을 말한다.

또한 제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상주가 아닌 사람, 한 해 동안 집안에 불상사가 없었던 사람, 가내에 임신을 한 사람이 없는 가정의 사람, 제일까지 부인이 월경이 없는 사람,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제주가 결정되면 제주가 된 사람은 그날부터 금기사항을 지키는데 그 지켜야 할 사항은 “부인과 한방을 쓰지 않는다. 매일 냉수에 목욕을 하고 정결한 복장을 한다. 가급적이면 원거리 외출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부정한 언동을 금한다. 상가에는 문상을 가지 않으며 그 근처에도 가서는 안된다. 비린 생선이나 육식을 먹지 않으며 기일까지 문 앞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잡인의 접근을 금한다. 항상 덕 있는 품위를 지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는다.” 등이다.

이와같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로 제일을 결정하고 제주와 그를 도울 종을 선출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 이때는 마을의 우

물을 깨끗이 퍼내어 청소한 다음 산신제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동민들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산신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위의 각 동별 동제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유사하며, 세부적으로 제의물의 종류, 제의 대상, 제의 순서 등이 약간씩 다를 뿐이다. 평택지역에는 과거 많은 동제, 산신제, 성황제, 등이 있었으나 도시의 발전과 토성(土姓)의 쇠락 및 외래 종교의 유입 등에 의해 거의 단절되고 말았고, 부분적이거나 민속 보존의 차원에서 재현의 노력을 통해 제한적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



■ 만기사 삼성각

3) 당제(堂祭)

당제도 그 형태나 격식은 산신제나 다를 것이 없으나 평택지역의 공통적인 형태를 찾아 보았다.

당제는 보통 봄이나 가을 중에 기일을 택하여 지내며, 지내기 15일쯤 전에 마을의 대동계에서 제주를 한 명 선출한다. 이때 제주의 자격은 그의 몸이나 가정에 부정할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제일이 될 때까지도 그러한 조건이 적합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그 집안이 상중이거나 부인이 월경할 때가 되었다거나 그 자신이나 식구중에 병을 앓고 있다거나 하면 제외된다. 또한 제주 외에도 제주를 도와 제를 진행할 사람을 3~5명 정도 더 뽑는데 이 사람들도 제주와 같은 금기사항을 적용 받는다. 한마디로 집제를 할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주와 그를 도울 집사 그리고 제일이 결정되면 마을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제주의 집 문 앞에는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어떠한 잡인의 출입도 금지시키고 동리의 주민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금한다. 또한 당제가 이루어지는 주변에도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외부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이때 제주가 지켜야 할 금기사항은 일반적인 제(산신제, 동제 등)와 동일하다. 당제의 제주는 마을의 동민 중에서 선출하지만, 전문적인 무당들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제만 제주가 주관하고, 소원은 무당이 청원되어 소원 굿을 할 때도 있다.

제물의 준비는 제주의 집에서 하거나 직접 당에 가서 마련하기도 하는데 크게 할 때는 소나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쓴다.

그러나 지금은 흔히 소나 돼지의 머리만을 사용하며 그밖에 적과 탕, 포, 과일, 술 등을 준비한다. 제일이 되면 제주를 비롯한 모든 집제자들이 당에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제를 올리기 시작하고 제가 끝나면 청원된 무당이 마을

곳을 시작한다. 이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하는 한바탕의 마을 축제가 된다.

산신제가 부녀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제를 올리는 것에 비해, 이 당제는 처음 제를 고하는 의식만 여자를 금할 뿐 그 뒤의 절차에서는 여자의 참가를 허용하고있다.

4) 성황제(城隍祭)

성황(서낭)은 '선왕' 또는 '산왕'에서 전음되었다고 하는데, 동구나 고갯마루, 또는 길을 가는 행인이 소원을 빌면서 크고 작은 돌을 던져 쌓여진 돌무더기와 성황목(대개 거목의 밑에 성황이 이루어 진다)을 일컫는다.

이 성황은 돌무더기만 단독으로 있는 것은 드물고 대개 신목으로 만들어지는 큰 고목에 의지하여 쌓아 올렸으며, 당우(堂宇)는 서낭당이라고 칭한다.

성황제의 제주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뽑으며 산신제를 지내는 곳에서는 산신제의 제주와 제관이 겸하기도 한다. 제물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산신제 때와 같으며, 서낭은 토지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풍년, 소원성취 및 일가의 안녕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받아들여지는 토속적 존재이다.



■ 봉남리 성황당

5) 기우제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가뭄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농사에 지장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천신께 고사를 지냈는데, 이러한 제사를 기우제(祈雨祭)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득한 옛날 삼한시대 이전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의 관청, 민간을 가릴 것 없이 가뭄이 계속될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 비를 기원하였다.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임금은 자신의 덕이 부족하여 정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여 스스로 몸을 정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초가에 거처를 옮겨 생활하기도 했고 모든 죄인을 방면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하나인 태종우(太宗雨)를 보더라도 예전의 왕이나 모든 백성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웠는가를 알 수 있다.

농가에서는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한재가 예상되면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하고 제일을 정하게 된다. 이 제일이 결정되면 2~3일전부터 모든 가정에서는 대문에 금줄을 치고 소나무 가지를 잘라 거꾸로 매단다. 그리고 대문의 양편에는 세 군데 씩 황토를 펴놓고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이때 제주는 주민 중에서 부정이 없고 정성이 지극한 노인을 선출하고, 제일 3일전부터 목욕재계하며 부정을 피했다가 당일의 제사에 임해야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각종 과실, 육포와 떡 등을 준비하여 진설하며 자정을 기해서 제를 거행한다. 제관은 주문을 낭독하고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가 활활 잘타 올라야 기우제를 지낸 정성이 천신께 닿았다고 여기며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믿게된다.

동리의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기우제가 끝나면 물병에 소나무가지를 꺾어서 꽂고 그 물병을 대문기둥에 거꾸로 매어 달았다. 또한 부녀자들이 개울에 나가서 키로 물을 까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키로 물을 까부르면 그 물방울이 키에 맞아서 튀기는 것이 비가 오는 모습과 같아 비를 내린다고 했기에 온 동리의 부녀자들이 개울로 나가 집단적으로 물을 까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 동령마을 우물고사

6) 대동 우물 고사

동리의 전 주민이 우물가에 모여서 물이 잘나오고 맑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고사로 흔히 용왕제, 정주제(井主祭), 샘고제, 대동우물고사 라고 부른다.

이것은 용신(龍神)에 대한 것보다는, 수신(水神)인 정신(井神)을 위한 제의 의미가 더 크다.

대동우물고사는 연초부터 정월보름 사이에 길일을 택하여 생기복덕한 사람이 제주가 되어 마을의 우물이나 샘물이 잘나오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를 올리는 장소는 마을의 공동우물이 되고 제물로는 백반과 돼지머리, 술, 과일 등이 사용된다. 이 대동우물고사는 길일을 정하여 제일을 결정하고 제주와 제관을 선정하면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쳐서 사람들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제주와 제관의 금기사항은 일반적인 마을제와 같으나 밤이 아닌 낮에 이루어지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제주의 사배(四拜)로 우물고사가 시작되면 동리의 풍물잡이

들이 잦은가락을 치고 흥을 돋우며 우물이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물물이 잘나 오도록 축원해주는 점도 특이하다.

이 우물고사는 따로 날을 받아 하기도하지만 산신제의 한 과정으로 행하기도 하며 줄다리기, 지신밝기, 거북놀이등 연희과정에서 행하기도 한다.

7) 강고제(江告祭)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면서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도서지역이 많아서 해변을 따라 취락을 형성하여 각종 어류를 잡아 생을 영위하는 어촌의 집단적인 구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어촌에서는 기상조건이 이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제의식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동리의 우물고사가 수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데 비해 강고제는 사해의 용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이며 제의 소원 역시 풍어와 뱃길의 안녕을 비는 것이다. 그런데 어촌에서 행하는 고사의 제주는 동리의 마을사람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업(巫業)을 하는 무당이 청원되어 하는 것이 통례이다.

강고제의 형태는 크고 작은 모습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강고제는 대개 풍어를 바라는 풍어굿, 고기잡이를 떠날 때 뱃길의 무사함과 많은 고기를 잡게 해 달라고 축원하는 출어굿, 일기의 번덕이 없이 바람이 적당히 불고 용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안정을 바라는 용왕제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역마다 그 이루어지는 형태가 특이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강고제는 택일을 한 후에 무당들로 제주를 삼고 무악을 연주하면서 제장을 해변가나 물위에 띄운 배 위에 마련하고 축주를 외우며 소원굿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 평택의 마을제사

1) 진위면 갈곶리 성황제

- (1) 명칭 : 성황당제
- (2) 신격 : 당집 안에 위패를 둠
- (3) 위치 : 갈곶리 474
- (4) 목적 : 마을 안녕
- (5) 제의 일시 : 음력 10월 초하루 밤11시경
- (6) 제물 : 소머리, 삼색실과, 떡, 밥

- (7) 제관 : 정결한 주민
- (8) 제의 순서: 강신-분향-배례-헌작-고축-소지
- (9) 유래 :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당집은 상량목에 단기 4286년 9월 9일에 중수(重修)한 것으로 쓰여 있어 1953년에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고덕면 당현리 당제

- (1) 명칭 : 당제(산신제)
- (2) 신격 : 산신
- (3) 위치 : 당현리 중앙 당산 중턱
- (4) 형태 : 당집
- (5) 목적 : 마을 안녕, 풍년 기원, 재액 방지, 가내의 안과 태평
- (6) 제의 일자: 매년 7월 초 하루~초 사흘 중 택일
- (7) 제관 : 주민 중 생기복덕 가려 제관 및 축관을 선정 ~ 주로 노인 중에서 가림
- (8) 금기 : 음식 준비하는 집은 부정 없고 제일이 지날 때까지 달거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 남편은 제일 아침 일찍 제에 사용할 우물 청소를 해야 한다. 또 합방을 금하고 문밖 출입을 금하며 냉수에 목욕하고 근신한다
- (9) 제의 순서 : 강신-분향-헌작-고축-송신-소지(滿洞燒紙, 堂神燒紙)
- (10) 제비 : 각 가정 추렴
- (11) 유래 : 500여 년 정도이며, 이 당제가 있는 당 밑 마을 주변의 상막금, 내천, 하막금 마을에서도 같은 장소에 와서 날짜만 다르게 동일 형식으로 지낸다 고 한다.

3) 고덕면 두릉2리 계루지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신격 : 엄나무 등 거목(巨木)
- (3) 위치 : 마을 입구
- (4) 제의 일자 : 매년 정월, 7월 초 3일
- (5) 목적 : 마을 안녕, 가정 안과태평
- (6) 제관 : 주민 중 생기복덕을 가려 선정 ~ 주로 나이 많은 노인으로 선정
- (7) 제비 : 마을 기금으로 이용
- (8) 제물 : 정월 ~ 소머리, 7월 ~ 돼지머리, 삼색실과, 떡, 조리(근래에는 막걸리)

- (9) 제의 순서 : 상신-헌작-고축-송신-소지
- (10) 유래: 알 수 없음, 마을 남쪽에 당우물인 큰 샘, 작은 샘이 있어 정제사도 병행되었다고 함.

4) 중앙동 서정동 갈평마을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성격 : 산신제
- (3) 위치 : 마을 앞동산 위
- (4) 형태 : 山神大王碑
- (5) 목적 : 마을 안녕, 생기복덕
- (6) 제의 일자 : 매년 음력 9~10월 중 택일, 마을이 편안할 때 3년마다
- (7) 제물 : 소머리, 삼색실과, 백설기 한 시루, 조라(술)
- (8) 제관 : 정결한 사람 선출
- (9) 금기 : 제관은 제일 3일전부터 매일 냉수 목욕, 문밖 출입을 금하고 외인과 접촉을 끝는다.
- (10) 제의 순서 : 강신-분향-헌작-고축-송신-소지의 순으로 진행하며, 마을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 소지를 올려준다.
- (11) 유래 : 정확한 연도 미상 ~ 마을 유래 상 조선 중기로 추정 (이괄의 반란 설화, 존재함)

5) 중앙동 이충동 동령마을 용왕제

- (1) 명칭 : 용왕제(우물 굿)
- (2) 성격 : 용왕신(공동우물)
- (3) 위치 : 마을 중앙
- (4) 형태 : 우물
- (5) 목적 : 마을 안녕, 풍년
- (6) 제의 일자 : 음력 정월 첫 용날(辰日)
- (7) 제관 : 생기복덕 가려 정결한 집 선정하여 당주(堂主)로 함.
- (8) 제물: 소머리, 꽃감, 대추, 밤, 백설기, 포, 담근 술(식혜) 등



■ 동령마을 용왕제

- (9) 제의 순서 : 우물 주위에 오방기를 꽂고 제물을 차린다. 영신례 - 헌작 - 고축 - 소지(大同燒紙, 牛馬燒紙)
- (10) 제비 : 집집마다 염출
- (11) 유래 : 400여 년

오방기 (五方棋)

동 - 東方靑帝龍王棋 서 - 西方白帝龍王棋 남 - 南方赤帝龍王棋
 북 - 北方黑帝龍王棋 중앙 - 中央黃帝龍王棋
 진입로 좌측 기 - 淨天地解穢況嘖嘖 우측 기 - 淨口業嘖嘖

제축문(祭祝文)

維歲次

○○年 ○月 ○○朔 ○日

謹使幼學 ○○○ 敢昭告于

井靈之位 釜城之南 鶴山之下 洞是東嶺

天年悠基 居人聚集 鑿井以飲 戶列四七

父老童稚 龍王監御 降福洋洋 家家泰平

人人安樂 子孫昌盛 六畜繁植 人物成寧

兼祝大有 農桑豐登 大好快活 慶臻災消殃

禍轉福回 周年之禍 竝豚逐海 朝暮之變

滅於越山 年年擇吉 獻比微誠

謹以

牲幣資盛 庶品式陳 明薦 尚饗

6) 송탄동 도일동 상리 산신제

- (1) 명칭 : 산신제
- (2) 신격 : 산신
- (3) 위치 : 도일동 안골 덕암산 중턱
- (4) 형태 : 약 600여 년 (마을 형성기-추정) 당제
- (5) 목적 : 마을 안녕
- (6) 제의 : 매년 음력 10월 중 택일(근래에는 15일)
- (7) 금기 : 제관은 술, 담배 금하고 비린 것을 먹지 않으며, 문밖 출입을 삼간다.
- (8) 제의 순서: 강신 - 헌작 - 분향 - 고축 - 소지

7) 송북동 동막마을 정제

- (1) 명칭 : 정제(井祭), 거리제
- (2) 성격 : 용왕
- (3) 위치 : 마을 입구 느티나무, 마을 안 우물 2곳
- (4) 목적 : 마을 안녕
- (5) 제의 일자 : 정월 첫 용 날(辰日)
- (6) 제관 : 생기복덕 가려 선정
- (7) 제의 순서 : 강신 - 분향 - 헌작 - 배례 - 송신 - 소지
- (8) 제비 : 각 가정에서 추렴
- (9) 유래 : 마을 형성기 450여 년 추정하며, 당초 정제로 3군데 우물제사 형태로 서 근대에 들어 한곳이 없어지고 동, 서 우물만 남아 1976년부터 마을 앞 느티나무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8) 유천동 유천동 원버드내마을 정제

- (1) 명칭 : 우물고사
- (2) 성격 : 수신, 동신
- (3) 위치 : 우물가
- (4) 형태 : 마을우물에서 제를 지낸다.
- (5) 목적 : 마을의 평안, 무병, 풍년을 기원
- (6) 제물 : 소머리, 삼색실과, 시루떡, 술, 포
- (7) 제관 :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정한다.
- (8) 금기 : 선정된 제관은 술, 담배를 금하고 불길한 곳의 출입과 원거리여행을 금하며 부부가 각방을 쓰고 제관 집 문전에 황토를 펴고 제일 전날에 우물주위 청소를 한다.
- (9)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제주는 찬물에 목욕하고, 마을 우물가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내며 대동소지를 올린다.
- (10) 제비 : 통장이 중심이 되어 그 집의 형편에 따라 거두어 제비를 충당하고 회의에서 결산한다.
- (11) 유래 : 이 마을 우물고사를 시작한 연대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마을 가운데 우물이 있었으나 주위가 공해로 오염되어 우물을 매립하고 그곳에 식수탱크를 설치한 뒤 수도관을 매설하여 지금은 집수정에 고사를 지낸다.

9) 신평동 유천동 황용마을 정제

- (1) 명칭 : 우물고사
- (2) 성격 : 수신과 산신
- (3) 위치 : 우물가
- (4) 형태 : 마을우물에 모여 정제사를 지낸다.
- (5) 목적 : 마을의 화합, 가정의 안녕, 무병, 풍년을 기원
- (6) 제의 일자 : 음력 정월 첫째 용의 날
- (7) 제물 : 쇠고기, 시루떡, 삼색실과, 술, 포
- (8) 제관 :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뽑는다.
- (9) 금기 : 제관은 부정한곳에 출입을 삼가며 원거리 여행을 금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모든 금기사항을 지켜야하며 매일 냉수목욕을 한다.
- (10) 제의 순서 : 제물을 진설하고 마을사람이 모여 제를 지낸다. 제관이 마을을 대표하여 대동소지를 올리고 하루를 즐긴다.
- (11) 제비 : 깨끗한 가정에서 준비하고 제가 끝난 뒤에 마을회의에서 정산한다.
- (12) 유래 :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으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에 와서 옛우물은 오염으로 폐정하고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이 관정에서 매년 정월 첫째 용의 날에 제를 올린다.

10) 신평동 합정동 배미마을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성격 : 마을 수호신
- (3) 위치 : 마을 뒷산 당집
- (4) 형태 : 마을 당집에서 제를 지낸다.
- (5) 목적 : 마을의 안녕,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정월 14일 자정
- (7) 제물 : 통 돼지, 쌀밥, 청수, 주, 과, 포 등
- (8) 제관 :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1명을 뽑는다.
- (9) 금기 : 선출된 제관은 문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치며 제일까지 술, 담배를 금하고 비린 음식을 먹지 않으며 부정한 집을 출입하지 않으며 부부가 각방을 쓰며 원거리 여행을 금한다.
- (10)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당집에 가서 메(쌀밥)와 청수

로 산신제를 지내고 잡 털 없는 통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세대주의 생 년 월 일을 쓴 사고지로 소지를 올린 다음 대동우물고사를 지내고 모두 모여 밥을 나누어 먹는다.

- (12) 제비 : 마을 세대주별로 제비를 거두어 제비비용으로 쓰며 마을회의 때 결산한다.
- (13) 유래 : 오랜 마을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당제는 1960년도까지 행하여 졌으나 그 맥이 끊겼다.

11) 신평동 합정동 조개터 마을당제

- (1) 명칭 : 당제
- (2) 성격 : 산신제
- (3) 위치 : 매봉산 동쪽 중턱
- (4) 형태 : 신수 3그루(직경 70cm)가있고 신수 밑에는 평지이고 당집이 있었다.
- (5) 목적 : 마을 무병, 평안, 풍년을 기원함
- (6) 제의 일자 : 정월 초하루 자시
- (7) 제물 : 생돼지 1마리, 삼색실과, 포, 탕, 술
- (8) 제관: 설날에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축관을 뽑는다.
- (9) 금기 : 선정된 제관은 대동우물 사제당을 청소하고, 동구에 금줄과 황토를 펴고 술과 담배, 비린 것을 먹지 않으며 해산집, 초상집 등 외부출입을 금하며 제사일 전까지 부부는 각방을 쓴다.
- (10) 제의 순서 : 제날 전에 신목 옆에 있는 샘물을 떠놓고 지신제를 지내고 밥을 지어 조라(술)를 담그고 제 준비를 한다. 제날이 되면 장만한 생돼지를 발톱까지 깨끗이 씻어 돼지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가 끝나면 돼지를 도살하여 삶아 머리는 제물로 진설하고 제를 지낸다. 제가 끝나면 마을에 모두 내려와 대동우물고사를지내고 마을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물을 나누어 먹고 하루를 즐긴다.
- (11) 제비 : 제에 따른 경비는 마을회의에서 결정하여 쓰고 다음 마을회의때 결산한다.
- (12) 유래 : 이 동제는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는 까닭으로 언제부터인 것은 알 수 없다. 1948년까지도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12) 비전1동 월곡동 귀골마을 서낭제

- (1) 명칭 : 서낭제
- (2) 신격 : 산신
- (3) 형태 : 없음
- (4) 제의 순서 : 도당
- (5) 제물 : 돼지머리, 삼색실과, 시루떡, 술, 포
- (6) 제관 : 무당이 주제
- (7) 금기 : 금기사항은 아는 이가 없고 다만 서낭당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폼다고 한다.
- (8) 제의 순서 : 제일이 되면 무당을 불러 제를 주관하였다.
- (9) 제비 : 마을 공동으로 부담
- (10) 유래 : 이 마을은 관동 또는 귀골이라고 불리고 연대를 알 수 없는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각종 거목이 마을주변에 울창하며 지명도 옥터골, 향교골 등이 있다. 1967년까지만 해도 서낭제를 큰 규모로 지냈으나 서낭당자리를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됨에 따라 그 자리가 없어졌다.

13) 비전1동의 자란 마을 동신제

- (1) 명칭 : 산 제
- (2) 신격 : 마을 수호신
- (3) 형태 : 수령 1,300년 추정(직경 150cm) 은행나무, 평택 역에서 왼쪽쪽으로 가는 재랭이마을 고갯마루에 있다.
- (4) 목적 : 마을평안, 풍년을 기원
- (5) 제의 일자 : 매년 정월보름 오시(정오)에 지낸다.
- (6) 제물 : 소머리, 소족, 삼색실과, 마른 북어, 시루떡, 정화수
- (7) 제관 : 예전에는 생기복덕을 가려서 선출했으나 1989년 제일부터 민속행사로 평택시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제주에는 비전1동장, 축관에는 문화원장, 집례는 자란노인회장이 하고있다.
- (8) 금기 : 예전에는 선출된 제관, 축관, 집례가 집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매고 하였으나 1989년부터 제단에 황토를 펴고 금줄만 친다.
- (9) 제의 순서 : 무당이 거리부정을 치고 아래와 같이 진설한다.



■ 자란마을 동신제

신 위						
쫓대						쫓대
시집	잔	소머리	시루떡	우족	정화수	
과일	과일	과일		곶감	밤	대추

향로	술잔
향합	술병

- ① 정례 : 제관, 축관, 집례가
진설된 상 앞에 정례한다.
- ② 강신 : 제관이 네 번 절하고 분향한 다음 술을 따라 제단근처에 붓는다.
- ③ 독축 : 축관이 아래 축문을 읽는다.

유세차 ○○정월 ○○ ○○○○ ○○ 자관동 대거민 감소고우
 황천후토지신 복이생 차만민 감응보우 춘경하서 추수동장
 우순풍조 백곡년풍 동환속퇴 거민평안 세업흥성 국태민안
 근이
 생폐저천 활아생령 경신 상향

(維歲次 ○○正月 ○○ ○○○○ ○○ 紫蘭洞 大居民 敢昭告于
 皇天后土地神 伏以生 此萬民 感應保佑 春耕夏鋤 秋收洞藏
 雨順風調 百穀年豐 洞患速退 居民平安 世業興盛 國泰民安
 謹以
 牲幣抵薦 活我生靈 敬伸 尚饗)

- ④ 헌작 : 제관이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고 네번 절한다.
- ⑤ 소지 : 마을전체(평택시)의 안녕, 무병, 풍년을 비는 대동소지를 제관이 올리고
집례, 축관, 내민, 참석한 시민이 소지를 각자 올린다.
- ⑥ 철상 : 신찬을 모두 내리고 상을 치운다.
- ⑦ 음복 : 제주, 축관, 집예 등이 음복 참가시민들이 신찬을 나누어 먹는다.
- ⑧ 여흥 : 주 무당이 굿을 하고 풍물잡이들은 지신밟기를 하며 흥을 돋군다.
- (10) 유래 및 취지 : 동제는 마을역사와 함께 상규상조의 촌계, 규약이 생겨나고,
 촌계의 소관사로서 성황제, 산신제, 당제, 당굿, 등이 모두 동제에 속하였던
 것이다. 이 부락은 옛지명 진위현 병파면에 속한 부락이었으며 부락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앙, 매년 음력정월 14일 정오에 동신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는 김학철 자란 노인회장의 고증에 따라 1989년 음력정월 14일 정오에 고 윤준한 비전1동장의 주선으로 재현의 실마리를 찾게되었으며, 향토사학자의 고증 및 문헌 등을 참고하여 발굴하게된 것이다. 오늘날 대개의 민속놀이 는 일제 때에 그 맥이 끊겼다가 근래에 각종 문헌과 고증을 통하여 재현되고있다.



■ 재랭이 당제

14) 비전2동 재랭이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성격 : 산신
- (3) 위치 : 자란산 산마루, 서낭당
- (4) 형태 : 산마루에 엄나무(수령 300년) 1그루를 신성시하여 지내던 당제이다. 엄나무 밑에는 작은 당집 1칸이 있었다.(1950년에도 이 나무가 살아 있었으나 고사하여 없다.)
- (5) 목적 : 마을의 평안, 무병, 풍년을 기원
- (6) 제물 : 시루팥떡, 작은시루, 소머리, 삼색실과, 술, 포
- (7) 제관 : 당제 택일 때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겸 당주를 뽑는다.
- (8) 금기 : 제관으로 뽑힌 제관 겸 당주는 서낭당에 황토를 펴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대동우물을 퍼내고 청소한다. 제관은 매일 찬물에 목욕하고 부부가 합방을 쓰지 않으며 여행과 외출을 삼가고 근신한다.
- (9)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당집에 신위를 모시고 제물을 진설하고 자정에 제를 지낸 다음, 큰 시루를 대동우물에 운반하여 놓고 우물 고사를 지내고 마을사람들이 고루 나누어 먹는다
- (10) 제비 : 집집마다 방문하여 형편에 따라 거두어 제비에 쓰고 결산한다.
- (11) 유래 : 동제는 오랜 민간신앙과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확실한 유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

15) 비전2동 소사동 소사마을제

- (1) 명칭 : 당제
- (2) 성격 : 마을 수호신

- (3) 위치 : 마을 산 당집
- (4) 형태 : 약 300년의 참나무가 있고 당집이 있으며, 근처에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하다. 약 80m 떨어진 곳에는 미륵불이 있다.
- (5) 목적 : 마을평안,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순서 : 정월14일 자시
- (7) 제물 : 소머리, 우족, 삼색실과, 포, 술
- (8) 제관 :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제주를 뽑는다.
- (9) 금기 : 선출된 제관 집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퍼고 술, 담배를 금하며 상가, 해산 집의 출입을 금하며 부부는 각 방을 쓰고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제날에 이 마을에 들어온 외부사람은 제가 끝나야 마을을 나갈 수 있다.
- (10) 제의 순서 : 제당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80미터 떨어져있는 미륵불에도 헌작한다.
제관이 대표하여 대동소지를 올린다.

16) 비전2동 용이동 현촌마을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신격 : 산신
- (3) 위치 : 마을 산 당집
- (4) 형태 : 없음
- (5) 목적 : 마을평안,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마을회의에 따라 보름 안에 지낸다.
- (7) 제물 : 시루떡, 삼색실과, 술, 포
- (8) 제관 :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제주를 마을회의에서 선출한다.
- (9) 금기 : 선출된 제관, 제주는 집 앞에 황토를 퍼고 금줄을 메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부부는 각방을 쓰며, 비린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해산 집, 상가를 방문하지 않는다.
- (10)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제관, 제주는 당집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 강신, 헌작, 독축의 순으로 제를 지내고, 대동소지를 올린 다음 마을에 내려와 대동우물 고사를 지내고 신찬을 음복하고 하루를 즐긴다.
- (11) 유래 : 유래는 알 수 없으며 1945년까지는 매년 지냈다고 한다.

17) 비전2동 죽백동 방아다리 당제

- (1) 명칭 : 산신제
- (2) 신격 : 산신
- (3) 위치 : 마을뒷산 당집
- (4) 형태 : 참나무 신수와 당집 터만 남아있다.
- (5) 목적 : 마을 안녕,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음력 선달 그믐 자시
- (7) 제물 : 시루떡, 삼색실과, 적, 포
- (8) 제관 : 동지 달에 마을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주, 제관, 축관을 선출한다.
- (9) 금기 : 선출된 제관은 일체 외부출입을 삼가고 술, 담배, 비린 음식을 먹지 않으며 부부가 각방을 쓴다. 제날에 임박하여 마을에 외부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며 들어온 외부사람은 제가 끝나야 나갈 수 있다.
- (10)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제주, 제관, 축관은 목욕재계하고 당집에 올라가 제물을 진설한다. 정례, 분향, 강신, 초헌, 독축 순으로 제를 마친다음 대동소지를 올리고 신찬을 음복한다.
- (11) 제비 : 동지 달 마을회합을 하여 쌀 한 말씩 거두어 제비로 쓰고 남은 것은 마을사업에 쓴다.
- (12) 유래 : 이 마을의 동제는 고려 때부터 봉행하였으나 특별한 유래를 전하는 것은 없고, 마을 뒷산에 당집이 있었으나 이모라는 사람이 당집에 불을 놓아 소실되었다 한다.
그때 신목도 베어버려 지금은 참나무(신수) 한 그루와 당집 터만 남아있을 뿐이며 고속도로 개통과 천주교·개신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1970년까지도 지내던 동제가 없어지고 말았다.

18) 세교동 동삭동 상서재 마을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신격 : 서낭신, 산신
- (3) 위치 : 마을당집
- (4) 형태 : 회화나무 밑에서 지내고 아무런 시설이 없다.
- (5) 목적 : 마을평안,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선달 그믐과 음력 유월 그믐 자시
- (7) 제물 : 검은 돼지, 시루떡, 삼색실과, 포, 술
- (8) 제관 : 당제 택일 때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제주, 축관을 선출한다.
- (9) 금기 : 산출된 제관, 축관, 제주는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하며 외부출입을 삼가며 집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맵고 비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0) 제의 순서 : 제날이 되면 당집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 강진, 헌작, 대동소지를 올리고 당집 옆에 있는 우물에서 대동 우물고사를 지낸다.
- (11) 제비 : 마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마련한다.
- (12) 유래 : 이 마을은 조선 태종 때에 덕천군의 후예가 낙향하여 서당을 짓고 후예들의 교육을 하던 곳이라 그때부터 당제를 이어 내려 온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 세교동 신대동 고잔 마을 정제

- (1) 명칭 : 우물고사
- (2) 신격 : 수신, 마을 수호신
- (3) 형태 : 마을 안에 대동 우물이 있어 우물 앞에 제물을 차린다.
- (4) 목적 : 수신에게 우물물을 풍부하게 나오도록 기원하며 마을 안녕과 무병, 풍년을 기원
- (5) 제의 일시 : 정월 보름 (자시 11~12시)
- (6) 제물 : 소머리, 삼색 실과, 포, 시루떡, 술
- (7) 제관 : 마을회의에서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내외와 축관을 선출한다.
- (8) 금기 : 선출된 제관 내외는 외부출입을 금하고 부부가 각 방을 쓰며 매일 냉수로 목욕하며 집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친다.
- (9) 제의 순서 : 제날 하루 전에 우물 주변 청소를 한다. 제날이 되면 우물가에 제물을 진설하고 강신, 헌작, 독축 순으로 제를 지내고 제관이 대동소지를 올리고 차려놓은 신찬을 나누어 먹는다.
- (10) 제비 : 세대주별로 추렴하여 제비를 쓴다.
- (11) 유래 : 이 마을 정제는 오랜관습으로 전해 내려오던 동제이며 시작한 연대는 아는 이가 없다. 그러나 이 동제는 1950년대 만 해도 매년 제를 지냈다고 한다.

20)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 (1) 명칭 : 당제
- (2) 신격 : 마을 수호신
- (3) 위치 : 마을 산중턱 서낭당
- (4) 형태 : 당집이 있는 주위에 밭으로 되어있다. 주위에 샘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없다.
- (5) 목적 : 마을평안,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정월 14일 자시
- (7) 제물 : 소머리, 삼색실과, 시루떡, 술
- (8) 제관 :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정한다.
- (9) 금기 : 선출된 제관 집 앞에 황토를 펴고 금줄을 매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금하며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 (10) 제의 순서 : 당집 앞에 제단을 꾸미고 진설, 제를 올린 다음 마을 대동소지를 올리고 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 (11) 제비 : 제답이 있어 제답의 임대료를 받아 제비로 사용한다.

21) 세교동 잔다리 서낭제

- (1) 명칭 : 서낭제
- (2) 신격 : 산신
- (3) 위치 : 마을뒷산
- (4) 형태 : 뒷산에 소나무, 참나무들이 있으며 서낭당에 산신이 모셔져 있다.(전에는 목조 초가 서낭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스텝 지붕 벽돌집이다.)
- (5) 목적 : 마을평안, 무병, 풍년기원
- (6) 제의 일자 : 정월 초하루 새벽
- (7) 제물 :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축관, 화주를 선출한다.
- (8) 금기 : 선정된 당주 내외는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하며 근신한다. 샘물을 퍼내고 황토를 펴고 금줄을 친다.
- (9) 제의 순서 : 밥을 짓고 누룩과 엇기름으로 술(조라)을 빚어 당집 옆에 묻어둔다. 제일 새벽, 제관과, 축관, 화주가 제물을 진설하고 신위를 세우고 제를 지낸다. 제관이 대표로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쓴 대동소지를 올리고 제의를 끝낸다. 제관과 참석한 마을사람들이음복한다.

(10) 제비 : 제비는 마을 세대주의 형편대로 정성껏 거두어서 비용에 쓴다.

3. 기타신앙

1) 토속신앙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에는 그 신격인 대상이 많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하늘, 땅, 산, 물의 어느 곳이든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른바 자연신이라고 부르는 토속신은 종교적인 면과는 거리가 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신격화하여 숭배하였다.

천신제·용왕제·산신제·지신제 등에서도 나타나듯 천지 산하 어느 곳이든 그 곳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그 신을 충실하게 섬겨 액을 소멸하고 소복을 발원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신격화되는 대상이 고목이나 괴암, 또는 인간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믿는 큰 형태의 동식물에까지 그 범위가 널리 퍼져있어, 신성시되는 분야가 매우 넓은 것을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신성시되는 대상을 전부 합하여 토속적인 면을 생각할 때 그 전체를 총칭하여 토속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토속신에는 자연신, 암석신, 동물신, 식물신 등이 포함되어있다.

2) 자연신앙

(1) 천신(天神)

천신이란 하늘을 가리키거나 하늘에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무속이나 토속신앙에서는 이 천신의 위력이 무궁무진하여 모든 신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믿어왔으며, 하늘에서—우주의 단위로도 가능하다—모든 신을 거느린다고 생각하였다.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천신이 농사의 풍흉을 책임진다고 하여 선사시대 때부터 파종과 추수 때는 하늘에 감사하는 의식이 행하여 있어 왔다.

무속에서는 이 천신을 옥황상제라고 하여 모든 신의 수신(首神)으로서 인간의 행, 불행과 모든 운명을 맡아 주관하며, 우주와 대자연의 조화는 모두 이 천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삼한시대의 마한에서도 5월 파종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여 이 천신에게 감사드리며 술을 마시고 가무를 하면서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그 외의 모든 국가—진한 변한 동예 등—도 그러했다는 기록이 보여, 이

것은 모두가 천신의 위력에 순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제천의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신(地神)

지신은 한 가옥의 터나 마을 또는 그 이상의 모든 땅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흔히 집터를 담당하는 지신을 '대주대감' 또는 '후토주임' 이라고 부른다.

명절 때나 집안에 고사를 드릴 때는 터주상을 차려서 터주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데 만약 이 터주신을 위하지 않고 함부로 흙을 건드리면 지신이 노하여 재앙을 받게된다고 하며 이것을 동티(동토)가 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서는 흔히 이 터주신이 잘 노해서 동티가 많이 나는 집을 '집터가 세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끔 무당을 청원해 큰 굿을 하고 터주신을 위하는데 이것을 '집터 누른다'고 하며, 이렇게 해서 터주신의 노여움이 없어야 그 집안에 들어가서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어 왔다.

현대에 재현되고 있는 민속놀이 중에 지경다지기, 지신밧기 등의 유래도 위와 같은 지신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산신(山神)

산신은 높고 낮은 산 할 것 없이 어느 곳이든 존재하며 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그 형체는 큰 호랑이나 늑은 신선으로 나타난다는 속설이 있다. 이러한 산신이 인간의 수호신으로서, 높은 산이나 이름난 명산에는 반드시 산신이 있다고 하여 산을 끼고 형성된 취락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에 제를 올린다. 이때는 풍작과 재액의 소명, 소복의 발원을 구하며 호환이 없기를 빈다.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어느 마을이든지 고저가 다를 뿐 산이 없는 동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산신은 자연 신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근접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민들은 풍작은 물론 동리의 안녕과 수명장수까지도 이 산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4) 수신(水神)

수신은 바다·강·하천·큰 연못 등에 있는 신으로 물을 관장하는데 적게는 동리의 우물을 관장하는 수신부터 크게는 사해를 관장하는 용왕신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수신의 으뜸은 용왕신이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히 해변에 형성된 취락이 많아 상대적으로 용왕제 등이 성행하였다.

정월보름에 행해지는 동제의 우물굿이나, 작은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강고제, 넓은 바다에 나타나는 용왕제, 풍어굿, 출어제 등도 모두 이 수신을 위한 제 의식이다. 이것은 모두가 물의 힘에 순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제천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 식물 신앙

(1) 동물신(動物神)

동물 신은 용이나 호랑이처럼 바다, 강 또는 산에 있으면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지어주고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치성의 대상으로 소원을 들어주고 재액을 물리쳐 주는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에 의하면 물에 용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는데 이 산신은 대개 대암(큰 바위)으로 나타난다. 용과 호랑이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며 좌청룡, 우백호 등으로 등장한다.

(2) 식물신(植物神)

우리 조상들은 산이나 집 또는 강에 갖가지의 신이 있다고 믿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오래된 고목이나 거목을 신격화의 대상으로 삼아 치성을 드리고 소원성취를 빌기도 하였다. 목신(木神)에는 동리 안에 있는 고목이나 거목, 혹은 성황당의 당목 등이 포함된다.

나무 숭배의 일면은 설화 편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일례로 월곡 마을에는 오래 묵은 괴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우환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하여 부러진 나무 가지도 주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듯 우리 고장에는 나무를 베어서 벌을 받은 이야기(장동리, 가재리 칠원리의 설화), 성황당에 얽힌 이야기(도일리, 동령리, 견산리 등) 등을 볼 수 있다.

(3) 암석신(巖石神)

우리 조상들은 큰돌이나 바위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 부녀자나 무당들이 거암의 밑에 촛불을 켜놓고 떡과 과일을 차린 뒤 술을 부어 제를 드리는데 이러한 암석신은 흔히 득남을 발원하는 기자의 대상으로 많이 모셔지고있다.

특히 송탄 지역의 부락산자락은 영험이 깃든 산으로 무속인들이 숭상하여 산신각, 영험한 치성바위(빈대바위) 소원을 기원하는 돌탑 등이 있어 수시로 무속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덕암산 아래에는 굿당이 있기도 하다.

(4) 원귀(冤鬼)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무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극락세계로 가서 신이 되거나 황천지옥에 가서 원귀가 된다고 믿는다. 흔히 듣는 악담으로 '죽어 원귀가 되어 운운한다'라는 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비명횡사한 사람,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저승에 들지 못하고 사악한 귀신이 되어 살아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주로 해악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원귀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부녀자가 애를 낳다 죽으면 이것도 원귀가 되어 인간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러한 원귀를 하이라고 부르며, 객지에 나가 있다가 집안에 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객귀(客鬼), 귀신 중에도 행세를 하지 못하는 천한 귀신을 말명이라고 칭한다.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영산(靈散)이라고 하며,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 시집 못간 처녀가 죽어서 한을 품고 된 손각시, 총각이 죽어서 원귀가 된 몽달귀신, 상가 집에 다니러간 문상객에게 따라붙는 상문, 각종 악귀에 따라다니는 수배(隨陪) 등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귀신을 무속에서는 원귀라고 하여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잡귀에 포함시킨다.

(5) 도깨비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 나타나는 도깨비를 『월인석보』에서는 '망량은돛가비니', 『여역정해』에서는 독잡이(夜叉精), 『한청문람』에서는 '독잡이 나잇도라'로 표현하고 있다. 『석보상절』 『단각경언해』 『훈몽자회』 『두시언해』 등은 '긱긱'으로 호칭하고있어 한자로는 귀(鬼)·매(魅)·망양(魍魎) 등으로 적었는데 독가비의 가비는 갑과 동의음이고, 옛날에는 갑과 귀를 같은의미로 사용하여 독갑이, 긱긱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도깨비는 풍, 수, 화 삼재의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풍백(風伯), 우사(雨士), 운사(雲士), 뇌공(雷公)의 형태로 표현되어 도깨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하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도깨비들은 환웅천왕(桓雄天王)을 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와 때로는 오방장군(五方將軍)의 장승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사람이나 여우로 변해 사람의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神通력을 부려서 다리나 집을 만들기도 하며, 선한 사람은 찾아서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준다. 또한 술을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도깨비의 기원은 한국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그 형태를 보내 많은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도깨비의 전신상이 나타나있는 유물은 고구려 벽화의 채색된 도깨비 그림과 백제시대의 전(塼)에 새겨진 도깨비 그림인데 이러한 도깨비의 형상은 키가 8·9척이 넘고 무서운 털이 나 있으며, 눈이 무서울 정도로 크고 몸이 흑적색

이며 나체인데 허벅지에는 광포를 두르고 입에는 영치 네개가 밖으로 솟아있고 머리에 쇠뿔이 달린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 도깨비는 우리나라의 민담·설화·전설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물로서 인간의 선과 악을 가늠하고 있으며 부신성(富神性)을 띠고 있어 민간신앙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6) 풍수

풍수란 바람(장풍)과 물(득수)에서 생산되는 신비한 힘과 땅의 생기, 즉 지덕의 힘을 빌어서 인간이 자연의 힘을 감응 받고자 하는 사상이다. 풍수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나라의 도읍이나 궁궐터, 마을 절터, 집터 등을 지세가 왕성한 곳에 잡아서 번성을 누리고자하는 양택(양기)풍수와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명당에 모셔 그 후손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음택풍수가 있다.

양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도읍을 정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도읍을 정하는 일은 그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풍수지리적인 면으로 볼 때 참으로 중대한 문제였다. 그것은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며 만백성이 생존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지덕이 왕성한 곳에 국도를 잡아 자손 대대로 번영을 누리고자 한 것이다.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은 풍수승 도선이 비기에서 이씨의 왕도이며 500년도읍지라고 예언한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풍수설은 단순한 민간의 속설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음택풍수로서 이것은 사자(死者)의 무덤을 말한다. 사람들은 땅속에 있는 생기, 즉 지덕을 사자의 골육이 흡수하여 그의 자손에게 발복하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어왔다. 이 풍수는 장풍득수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땅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기는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내맥에 땅과 청룡과 백호가 감싸고 있는 혈점에 가장 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왕성한 생기를 보호하여 향수하려면 외부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생기는 바람에 흩어지기 쉬운 것이므로 바람으로부터 감추어야 하고, 물을 얻어야만 더욱 왕성하게 되는 것이기에 장풍득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풍수설에 의하면 산에는 반드시 종산이 있어 여기에서 모든 산이 갈라져 나가게 되어있으므로 이 산을 태조산이라고 부른다. 이 태조산에서 뻗어나온 큰 산맥을 간용(幹龍-中祖山이라고도 한다)이라고도 하며, 이 간용에서 뻗어온 산맥은 지용(枝龍-近祖山이라고도 한다)이라고도 한다. 이 산의 용에는 부귀빈천, 장단, 노늬(老嫩)이 있으며, 용의 생김새에 따라 길용(吉龍)도 있고 흉용(凶龍)도 있고 생용(生龍)과 사용(死龍)으로도 구분 짓는다.

풍수설의 흉용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는 산에 토질이 섞이지 않아 그 속으로

정기가 통하지 못하는 석산이요, 둘째는 지용이 단절되어 정기가 왕래할 수 없는 단산(斷山)이고, 셋째는 독산(獨山)으로 다른 산맥에 연결이 되지 않아 정기가 흐르지 않으므로 흉산 중의 흉산이다. 넷째는 산세가 지나치게 뻗어 멈출 곳이 없으므로 정기가 모이지 않는 과산(過山)이고, 다섯째는 동산으로 초목이 자라지 않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흉산으로 꼽는다. 대체로 볼 때 정기가 모이면 길산이요, 정기가 흩어지면 흉산이다. 길산은 산세가 높고 수령하여 고저장단의 기복변화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데 비해, 흉산은 그 강세가 단절되고 기복의 변형이 불규칙한 것으로 꼽는다.

풍수설에서는 장풍을 손꼽는데, 천지의 기운은 바람을 타면 흩어져 없어진다고 음양학에서는 이른다. 이 때문에 타고오는 정기를 막아서는 안되고 다만 모인 정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장풍법이다. 혈(穴)에 모인 정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위에 둘러 쌓인 산이나 언덕을 사(砂)라 하는데 이 사의 임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방에 있는 산을 사신사(四神砂)라 한다. 보통 혈에서 보아 혈의 뒤에 있는 산을 현무(玄武)라하며 혈의 좌측을 청룡(靑龍)이라고하고 우산(右山)은 백호(白虎)라하며 앞의 안산(案山)을 주작(朱雀)이라고 칭한다.

이 사신사는 각기 그 형상에 따라서 길산(吉山)이 결정되는데 그 길산을 정하는 바도 차이가 있어서 뒷산인 현무는 안정되어 멈춘 듯한 형태라야 하며 좌청룡은 길게 뻗으며 빙 둘러싸인 듯한 형상이어야 하고 우백호는 범이 웅크리고 앉은 형상이어야 하며 앞산인 주작은 낮고 춤추는 듯한 멋이 있어야 길산에 든다.

그러므로 풍수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의 현무를 일컫는다. 다음으로 풍수설의 중요한 바는 물이 되는데 이 물은 지표를 흘러 그것이 땅에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어 지기를 운반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로 물과 산의 관계는 풍수설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풍수설에서 좌의 청룡은 양이고, 우의 백호는 음으로서 내면에 따라 흐르는 물도 청룡을 따라 흐르면 양수가 되고 백호를 따라 흐르면 음수가 된다.

따라서 수구(水口)라 함은 양수와 음수가 만나 합류하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 음양의 기가 중화되어 혈의 정기를 순화 보강하게 된다. 따라서 음과 양이 만나는 수구가 산만하거나 광활하면 그 정기가 모이지 않으므로 명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풍수를 보아 묘를 쓸 때 길산에다 사신사가 완벽하고 수구의 조화가 잘 된 것을 가려서 쓰면 이것이 명당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음택에서 묘를 쓰는 곳을 혈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좌청룡, 우백호의 현무, 주작이 감싸는 가운데 지덕의 생기가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뜻한다. 이 흑혈은 매우 정밀한 것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효과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유형에는 기본형인 연화(蓮花)형, 매화(梅花)형, 영귀(靈龜)형이 있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금계포란(金鷄抱卵)형, 와우(臥牛)형, 영귀하산(靈龜下山)형, 옥녀금반(玉女金盤)형, 옥녀산발(玉女散髮)형, 비룡귀소(飛龍歸巢)형, 산구(散狗)형, 연화부수(蓮花浮水)형, 행주(行舟)형 등이 있다.

4. 무속신앙

1) 굿의 개관

굿은 무당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신에게 기원할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가무와 의식절차를 통해 행하는 제의이다. 여러 명의 무당이 가무로 의식을 거행하는 큰 규모의 제의를 굿이라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로 무당이 혼자 가무 없이 축원 위주로 하는 제의를 빈손 또는 손뼉, 비넘이라 한다.

굿에서 제를 받는 신은 다음과 같다.

- ① 집안에 모시는 가신 : 용왕신, 삼신, 지신, 성주신, 조상신, 대감신, 업신(業神), 정신(井神), 우마신(牛馬神), 문신(門神).
- ② 공동으로 모시는 동신 : 산신, 성황신, 부군신(夫君神), 당신(堂神).
- ③ 마을밖의 외계신 : 천신, 천왕신, 칠성신, 장군신, 군웅신, 신장신(神將神), 손님신, 창부신(倡夫神), 잡귀(雜鬼).

굿은 이와같은 가신, 동신, 외부신(外部神)의 삼부신에게 올리는 제의로서 이루어진다.

2) 무가(巫歌)

(1) 무가의 형태

제의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을 향해 구송(口誦) 또는 창을 하는 노래로서 무당의 신관(神觀)을 비롯한 우주관(宇宙觀), 영귀관(靈鬼觀), 내세관(來世觀), 존재와 근원에 대한 일체의 사고가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직접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어서 무속의 구비경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무가의 형식을 보면 서사, 서정, 희곡, 전술(傳述)에 문학적 양식으로 구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서사 양식의 무가는 주로 우주

창조와 지상 만물이 신에 의해 생성되는 내용이고, 서정 양식의 무가는 무당이 신에게 직접 부귀,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전술 양식의 무가도 서정 양식에 담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일반적인 소망 기원보다도 우주 만물의 사상과 신의 뜻을 전달하여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희곡 양식의 무가는 상호간이나 신과 인간, 동물과 인간사이의 의사전달인데 대체로 전술적 양식의 무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주를 비롯한 지상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그 생성과정을 밝히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출생, 질병 퇴치, 수명 장수, 제재 초복 그리고 내세의 영생 등으로 집약되어, 이와 같은 문제를 신께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원의 배경에는 사물의 근본에 대한 본질적인 사고가 무가의 원형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창조의 무가를 보면 존재가치는 영원한 것이어서 멀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 조건이 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굿의 분류

굿은 굿의 주체인 무격(巫覡)으로 분류하여 볼 때 접신 방법에 의한 것, 굿의 진행 형태에 의한 것, 접신의 상태인 몸주의 신격과 지위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접신(接神)에 의한 분류

신이 내린 후에 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는 강신무(降神巫), 가계(家系)로 이어지는 세습무(世襲巫)가 있다.

② 굿의 진행 형태에 의한 분류

선거리(순거리, 선무당)와 앉은거리(앉은무당, 안진반)이 있다. 선거리에서는 남자는 박수, 여자는 만신이라고 하며 이들은 굿 의식의 거리마다 무복과 무구를 바꿔가며 무가를 부르고 무무(巫舞)를 추며 신탁(神託)을 내리고 접신이 되어서 스스로가 신격화 된다. 앉은거리는 굿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복을 갈아입지 않으며 한복에 장삼이나 천의를 입고 한지 고깔을 접어 쓴 다음 굿상을 마주하고 앉아 경문을 외우며 초복축사(招福逐邪)를 청원하는 데 주로 세습에 의해 일정한 형태의 수련을 통해 전해진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위의 두 형태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③ 신격에 의한 분류

신격에 의한다는 것은 무당에게 실린 신령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에 따른 분류

로서 통상 내림굿 당시에 결정된다. 신격의 계층별 분류는 “한국의 무”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① 선관 및 보살

통상 가장 높은 신으로 하늘, 땅, 바다에 해당되는 자연의 신과 불교에서 전래되는 신들을 말하며, 이를 나열해 보면 옥황천존(玉皇天尊: 하늘의 신으로 길흉화복, 수명장수를 관장), 칠성(七星: 인간의 출생, 생명을 관장), 산신(山神: 수호신, 수명장수, 부의 신), 일월성신(日月星辰: 해와 달과 별을 뜻하며 고통을 풀어주고 부부간의 화합을 관장), 삼신제석(三神帝釋: 인간의 출생과 길흉화복을 관장), 기도대신(천존과 동격), 뇌공신장(雷公神將: 벼락 신으로 죄의 징벌을 관장), 단군(檀君: 조상신으로 무속 신의 원조), 신중(神衆: 불교계의 신령 집합체), 불사(佛師: 부처), 사해용왕(바다의 신),

② 전내, 전안 계급

중국의 옛 인물로 인간에게 안과태평을 준다고 한다.

그 신은 소열황제(유비), 관성제군(관우), 장장군(장비), 와룡선생(제갈량), 조장군(조자룡), 오호대장(황충, 관홍, 관평, 주창), 감부인(유비의 첫째 부인), 미부인(유비의 둘째 부인), 손부인(유비의 셋째 부인), 오방신장(五方神將: 도교의 신) 등이라 한다.

③ 박수, 만신의 계급

박수는 선거리 남자 무당을 말하며, 만신은 여자 무당을 말하고 이 계급의 신들은 거의 우리 민족의 조상신들로 구성되 있다.

그 신들은 별상(別上: 왕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비극적 삶을 살은 왕족으로 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 등), 최영 장군, 군웅(軍雄: 무관으로 왕건, 이성계, 이순신, 강감찬 등의 무신) 창부(唱婦: 예능 신으로 기예가 능한 조상신), 대감(집안의 생업을 주관하는 탐욕스런 신) 등이라 한다.

④ 뒷전 무당 계급

신령의 하위 계급으로 굿의식에서 제일 뒤에 하는 뒷전거리에 나오는 신령으로 결립(乞粒), 말명(조상신), 성황(城隍), 사신(使臣: 공무 수행중 죽은 사람들이 신격화된 신)

⑤ 뉘대신 계급

신의 계열에서 벗어난 신령의 활동을 돕는 대신으로 무가에서는 십대왕(十大王: 진광, 초강, 송제, 오관, 염라, 변성, 태산, 평등, 도시, 전륜 대왕), 저승사자, 뉘대신(진혼굿에서 저승으로 망자의 뉘를 데려오는 자) 등이 라 한다.

⑥ 터주방, 명도 계급

최 하위 계급으로 굿보다 점술만 전문으로 하는 신격에 해당된다.

명도(命道: 죽은 아이 혼령)의 힘으로 점을 보는 유형으로 무당과는 신분의 차이가 크다.

(3) 굿의 종류

굿의 종류는 그 명칭상 무수히 많으나 [송탄시 민속과 설화: 송탄시, 1994년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강신(降神) 굿 : 내림굿, 신굿, 하적굿
- ② 축신(祝神) 굿 : 꽃맞이 굿, 단풍맞이 굿, 진적굿, 대택굿
- ③ 기자(祈子) 굿 : 삼신반이, 삼신맞이, 시암맞이, 삼제왕 풀이, 삼신풀이, 불도맞이, 칠성굿
- ④ 혼인 굿 : 여담굿, 근원손
- ⑤ 가옥 신축, 이사굿 : 성주맞이굿, 성주풀이
- ⑥ 행운 굿, 풍농 굿 : 재수, 영화, 축원, 성주, 도시, 농부, 치방, 안택, 큰 굿 등으로 일월맞이, 산신풀이, 집 고사, 액막이, 망감풀이도 속한다.
- ⑦ 풍어, 행상안전 굿 : 연신, 용왕맞이, 풍어, 용신, 연신, 서낭 굿
- ⑧ 풍농 굿 : 당, 도당, 서낭, 부군당, 별신 굿
- ⑨ 망인(亡人) 천도 굿 : 자리걸이, 집가심, 광머리, 댓거리, 귀양풀이, 진오기, 천근세남 진오기 새남, 오구자리, 망목, 오구, 수왕, 해원, 시왕(十王)굿
- ⑩ 익사자 천도 굿 : 물, 수망, 혼, 혼 건짐 굿

(4) 평택지역의 무속

평택지방의 무속은 경기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적 환경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 용인, 안성 등지에서 행해지는 무의식과 대동소이하고 현대에 이르러서 서울굿과 혼합되고 지역 형성의 특성상 한국전쟁이후 유입된 북한의 피난민들로 인한 황해도, 평안도 등지의 무속이 합해져서 경기 남부지역적 특색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로 선곳과 앉은곳의 복합형태를 가진다.

도시 경제의 시대적 침체는 정신적 피폐함을 주고 이로 인하여 신앙에 의존하려는 인간의 속성은 점차 무속인들이 늘어남을 주고 있어 평택지역에 현재 활동중인 무력은 2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① 무속에 쓰이는 무구

무속에 쓰이는 무구로는 부채, 방울, 잔, 활, 삼지창, 장군칼, 신장칼, 내전칼, 작두, 신장대, 무악기 - 북, 징 등이 있으며 무복으로는 활옷, 장삼, 동달이, 갓 - 흑림(黑笠), 쾌자, 천력(天翼), 고깔이 있다.

② 무가

곳의 순서에 따라 부르는 무가는 축원과 공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택지역의 무가는 평택시 문화원 간행 『향토사료집』 제3집, 1994년과 구 송탄시 간행 '송탄시사 1994'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더 이상 무가의 실례는 수록하지 않는다.

5. 속신

속신이란 사람들이 자연적 생활 속에 자리한 풍속과도 같다고 보는 원시적 형태의 믿음으로 조직적 종교와 같은 계통적 교리를 갖지 않고 지성이 낮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요구에서 나와 인정이 흐르는 대로 믿어진 소박한 습성이고 신앙이라 할 것이다. 속신 중에서 특히 시대의 과학 또는 일반적 지식에서 볼 때 진실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인심에 유해한 경우를 미신이라고 한다.

이 미신에는 음양오행으로 따지는 생년월일에 관한 것, 육요(六曜), 액일(厄日) 등 날짜에 관한 것, 가상(家相), 귀문(鬼門), 방위 등 환경에 관한 것, 이상(耳相), 골상(骨相), 수상(手相) 등 신체에 관한 것 성명, 흉수(兇數), 길수(吉數) 등 후천적 운명에 관한 것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금기나 속신들이 하루, 한달, 한해 등의 재수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으로서 어느 민족이나 가지고 있는 터부나 속담 등이 이에 속한다.

1. 경기 문화와 민요의 특징¹⁾

평택의 기층 문화와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개념인 경기 문화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 문화는 서울이라는 정치·문화 중심지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지역으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지역적 특징은 우선 다른 지역 문화와의 다양한 경계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다층성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접이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경기—기전(畿甸)—지방은 북으로 황해도의 서도 민요권과 동으로 강원도의 산간 문화와 인접하고 있다. 서남쪽으로 충청 지방과 맞닿아 있으며 동남부는 교통의 요지였던 문경, 충주, 장호원 안성으로 이어지는 충청 내륙과 경상권의 문화 요소를 포함하고

1)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하였으며 개별적인 각주는 생략한다.

평택군지편찬위원회, 『平澤郡誌』 민요편, 1984.

송탄시사편찬위원회, 『松炭市史』 민요편, 1994.

김용덕, 『한국인의 의례 풍속사』 『한국풍속사』, 밀알, 1994.

나승만의,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민속원, 1999.

박경수, 「민요 분류의 일반적 문제와 기능별 분류」 『민요·무가·탈춤연구』, 국어국문학회, 1998.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 출판부, 1999.

김의숙·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청문각.

주강현, 『한국의 두레』, 집문당.

김현선, 『한국구연민요 연구』, 경기도편, 집문당.

임석채, 『한국구연민요』, 경기민요편.

해암문화재단, 『우리나라 해양문화』, 경기 충청 편, 실천문화사

정동화, 「평택지방 민요고」 『기전문화연구』,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88.

노동은, 「경기 전통음악의 한국음악사적 위치」

황인환, 「경기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지영희 선생 음악세계 재조명 심포지움자료』, 한국전통예술학회, 2000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화 교류로 인한 다원성과 함께 경기 문화는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가 교류하고 공존하던 지역이기도 했다. 왕이 있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 귀족 문화와 평민 문화의 교류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경기문화는 중앙과 지역, 상층과 하층의 합작품이며, 600년에 걸친 기호학파의 학문적 사승(師承) 관계가 상층 문화의 실례이고 민속 문화가 하층 문화의 핵심 구실을 했다. 15세기 궁중에서 펴낸 『악학궤범』에 우리 나라의 음계를 평조—술음계—와 계면조—라음계—로 설명하 있는데 그 음계는 경기 민요의 기본 음계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15세기 우리나라 음악이론을 정립할 때 경기 지방 민요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음악은 판소리, 산조, 풍물 등은 전승 지역의 북쪽 끝에 해당해서 중앙부의 복합성이 아닌 주변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판소리의 경우 남도의 민속 무악과 서사 무가의 결합에서 형성된 것으로 대표적인 남도 소리이나 이것이 경기·충청지방으로 넘어오면서 독특한 '중고제' 소리를 형성하면서 염계달, 한송학, 김창룡, 이동백 등으로 전승되었다. 풍물도 농사와 두레 문화가 발달한 남도 지방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경기도에 와서는 평택·안성 지방의 경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웃다리 농악'을 발전시켰다.

이와 달리 풍류, 가곡 가사, 시조 등 상류층이 즐겼던 무용 음악은 오히려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관아의 교방이나 재인청 또는 민간의 기방에서 연희되었던 춤, 소리, 삼현육각, 광대놀이 등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가 근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민요는 민요의 선율권이나 지역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크게 네 가지 구역의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한강 이북의 임진강이나 예성강 등에 가까운 지역으로 서북부 황해도의 민요와 같은 곳이다. 황해도의 '수심가' 등이 깊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심가조의 선법에 의해서 부르는 구역이다. 둘째 강원도에 가까운 동북부 지역인 포천·가평·여주·이천 등지에서는 '메나리조' 선법에 가까운 민요를 찾을 수 있다. 셋째는 한강과 남한강 이남의 민요로 충청남도과 충청북도과 전라도 등지의 민요와 같은 선율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는 서울 본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경토리 민요로 잡가나 통속 민요의 영향이 확인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민요는 논농사 기능요의 발달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논농사의 전과정에 걸쳐서 단계마다 부수적인 민요가 압도적으로 발견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의식요도 대단히 분화되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에 안성 청룡사의 사당패가 존재했던 때문인지 풍부한 '고사반'

이 전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고사반은 고삿소리 또는 비나리라고도 하는데 '고사반'은 정월대보름날 마을 상쇠가 하기도 하고 떠돌이 예인집단이 남사당패나 비나리패가 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논매는 소리가 남아 있다.

〈 논매는 소리의 종류 〉

- 용인 상사소리, 들레 소리, 찍었네 소리
- 화성 방호, 상사소리
- 평택 방개 소리, 상사소리, 예혜요 소리, 올라가세
- 안성 장아호, 상사소리, 단허리
- 여주 상사소리, 어후양, 단허리, 꿏았네
- 양평 상사소리, 단허리, 어허어야
- 포천 방아요, 매나리
- 고양 방아타령
- 강화 방아요, 상사소리 아용

(이보형, 『민요』, 한국민속종합보고서, 경기편 문화재관리국, 1978).

2. 평택 민요의 특징

평택시는 경기 남서부에 위치한 도농복합시로 면적 451.55 km²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는 352,181명 (99년 말)이며 인구 밀도는 778.1명이다. 평택시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왔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 접경 지역으로 나뉘어 속하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부산현'이던 것을 '진위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진위현'과 함께 평성 지역은 '평택현'으로 '천안현'의 속현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시 충청도에 귀속되었다가 1895년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진위군'이 '공주부'에 속하기도 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남도에 속해있던 평택군과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있던 지역을 통합하고 1926년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하고 1938년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바뀌었다. 해방후 미군 주둔과 함께 송탄읍이 1981년 송탄시로 승격, 1886년 평택군이 평택시 승격으로 3개시군이 나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은 산지가 거의 없는 평야 지대이며 질 좋은 경기미의 11.9%를 생산하는 곡창지대로 아산만 방조제와 인공 평택호를 통한 대단위 수리 시설을 바탕으로 미곡과 목축업이 발달해 왔다. 경기미를 대표하는 평택쌀과 한국의 대표적 토종곡물로 유명한 팔과 콩, 평택배, 대단위 낙농 단지는 이 지역의 주요 농업 기반이기도 하다.

또한 평택은 서해안에 인접한 곳으로 해안을 따라 '평택항'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다. 아산만을 비롯해서 만호리 등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생활을 해왔다.

이에 따라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관방 유적이 남아 있다. 안정리 일대에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농성'과 백제 시대에 쌓은 현덕면 '덕목리 성지', 조선시대 제5 직봉로로서 해안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을 포승면 원정리 소재 '괴태 길곶 봉수' 등은 해안 문화의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평택은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충청권과의 긴밀한 문화적 흐름을 이어온 지역이다. 충청 남도 천안의 천안 삼거리가 충청도 민요가 아니라 '경토리'에 가까운 것은 우리 나라 민요가 행정 구역상의 구분 이외에 산과 물의 경계에 따라 나뉘어 질 때 금북 정맥 이남 지방의 대전과 달리 천안이 그 이북 지역인 평택과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대교 개통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충남 내포지방 예산·아산 지역이 행정 구역상 충청 남도에 속하지만 백두 대간 생활 문화권에 따라 오히려 평택과 화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두레문화권'에 속하는 곳으로 과거에 무당이 당제를 주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기 아산만 음악권은 내포 지방의 충남 홍성에서 경기 인천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곳은 한국 근대춤의 대부로 '승무'와 '태평무'를 창시한 한성준이 홍성 사람이며 판소리 명창이자 가야금 명인으로 국악 현대화에 노력한 심정순이 아산 출신으로 이후 '중고제'의 유행과 맥을 같이하며 평택 출신으로 경기 도당굿과 한국 국악사에 큰 흐름을 남긴 지영희 등의 영향이 큰 지역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농악의 대표적인 '웃다리 농악'이 크게 융성 지역이다.

이러한 평택 민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포면에서 '노동요'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논매기 소리와 모내기 소리가 많은 편으로 이는 평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요 다음으로 많은 것은 '만가'인데 이는 경기민요 분포의 일반적 현상과 일치한다. 특히 고사반이 남아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내용면에서는 노동요의 경우는 조흥, 권면, 인생 무상, 풍년 기원, 충효, 연정 등인데 이는 농요의 일반적 주제이며 대부분 여음으로 구성되었다. 근면 사상을 강조한 것은 힘든 노동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음악적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가'의 주제는 인생무상, 부귀영화, 효도 등으로 나타나며 '동요'의 경우에는 해학, 풍자, 놀림, 유희 등이 있다. 내용면에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시대성을 반영하여 새로 창작되는 소리요, 둘째가 옛것이 그대로 전래되는 것이고, 셋째가 약간 변화하는 경우이다. 평택지방 민요의 음수율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4음이고 그 다음이 3음이다. 그 다음이 5음이고 6, 7, 2는 드물다.

이는 한국 민요의 기본 음수를 4음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음보율은 1음보로부터 2, 3, 4, 혼합형으로 구분되고 혼합형은 다시 4, 2 음보 혼합형과 3, 2 음보 혼합형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2음보가 절대 다수이고 그 다음이 4, 3의 순이었으며 혼합형은 4, 2형이 많았다.

한국 민요의 기본 음보는 2음보이며 4, 2 혼합형에서는 동작의 템포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가'와 '모내기' 소리에서 동작이 느릴 때는 4음보로 부르다가 빠를 때는 2음보로 부르고 있다. 평택 민요의 특징은 노동요, 의식요 등에서 받음소리가 필수적이다. 평택 지역의 특수한 후렴으로는 논매기 소리의 “얼카덩이야”와 “홍개 방개가 논다”, 만가의 “어거리 넘차 너호아”, 지경 소리의 “이혀라 지장호” 등이 특징적이다. 평택의 농요는 대체로 반복 형식이 두드러졌고 그 형식도 aaba형, bbaa형, aaab형, baba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노동요

1) 농업 노동요

기층 민중의 노래인 민요 혹은 농요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노동요'이다. 노동요는 노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의 고됨과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몸은 삶의 현장에 있으나 기분은 놀이의 공간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노동 행위에 있어서 공동 작업을 할 때 행동의 통일을 유도하며 사설을 통해 작업을 독려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병행한다. 대체로 '모심기'와 '논매는 소리'는 4음보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4음보 장단이 행동에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모내기 소리는 김매기 소리와 더불어 노동요의 으뜸을 차지한다. '모내기 소리'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앙법의 실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조선 초기까지는 벼를 파종하는 방법이 건삶이, 물삶이, 묘종의 세가지로 수리 문제상 이앙법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앙법은 물이 풍부해야 가능한 농법이기 때문에 봉건 지배 계급은 비록 기존 농업이 수확량이 적고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확실성 있는 재래 농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앙법의 확산은 대세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제초 노동력이 절감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었으며 동시에 이모작의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농업의 공동 경작을 활성화시키는 두레의 체계화로 이어진다.

모내기는 논북에 장단을 맞추면서 남자와 여자가 호흡을 맞춰 유장한 모내기 문

화를 만들었다. 모내기에는 초여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계절에 뛰어난 노동요이다. 민요의 중심은 노동요이고 노동요의 핵심은 역사적 지역적으로 보편적인 모내기 노래로 보리타작 노래가 그 노동의 리듬을 쫓아 빠른 템포인 것과는 달리 상당히 느리고 유장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평택 지방의 경우도 진위천과 황구지천, 오산천이 만나는 지역의 진위·고덕 평야를 비롯해서 안성천, 통복천이 만나 평택호로 이어지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평야지대로 다양한 품앗이, 두레 노동의 전통속에 모심기 노래가 남아 있다.

〈모심기 노래〉

- A. 앞소리 (1) 이농사를 다지어서 부모봉양 나라구제
 (2)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한 말씀 들어보소
 (3) 세상 모든 만물중에 인간화식이 으뜸이라
 (4) 신농씨가 주신농사 우리가 안짓고 누가짓나
 (5) 이 농사를 지을적에 정성으로 잘들심세
 (6) 이 논배미 다심었거든 윗논배미로 올라가세
 (7) 이 농사를 지을적에 정성으로 잘들심세
 (8) 한쪽두푹 꽃더라도 일도사칸에 정성을 드리세
 (9) 일락서산에 해떨어지니 어서들 심고 돌아들 가세
 (10) 이쪽저쪽 꽃더라도 가만 맞추어 꽃아주세
- 받는소리 여기도 또하나 오하 저기도 또 하나
 (1993 채록 제보자 : 최인집옹, 평택시 지산동)

- B. 앞소리 (1) 신농씨가 애인 농사 우리 농부가 지어야지
 (2) 이 농사 짓는 농부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3) 일도사칸 정성다해 대풍년을 이룩하세
 (4) 저기 가는 저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위삼소
 (5) 어화세상 농부님들 이내 한말씀 들어보소
 (6) 저건너 갈미봉 비몰아오니 우장쓰고 모를 심세
 (7) 이 논배미 다심고서 저논배미로 올라들가세
 (8) 저기 가는 저 처녀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9) 우리 농부들 맘흘리는데 농사라 힘든줄 모르나베
 (10)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딸이 있거든 사위삼소
 (11) 사위랑은 내 못삼아도 한덩이 모밭을 내 해줍세
 (12) 아회야 너희도 세상을 살 때 농사는 천하지 제일이니
 (13) 이 농사를 열심히 배워 선영에도 봉제사하고
 (14) 나라에 충성한 후에 처자 권속을 구제하세

받는 소리 여기도 하나요 저기도 또 하나
 (93년 채록, 제보자 : 조성대 웅, 평택시 송탄동 도일리)

- C. 앞소리 (1) 심었구나 꽃았구나 여기서 저만큼 심었구나
 (2) 이 논배미 다 모를 심고 간새간새만 꽃았노라
 (3) 심었구나 꽃았구나 양석자리로만 꽃았노라
 (4) 시화현풍 태극기는 우리 마을의 영화로다

받는 소리 헤이 여기도 모심었네 어릴러럴 상사야

- D. 앞소리 (1) 이 논배미다가 모를 심었는데 반달만큼 남았구나
 (2) 이팔청춘에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3) 심었구나 꽃았구나 간새만 고르게 심어주게
 (4) 이 논배미는 모를 심고 장구나배미로 넘어가지
 (5) 이 논배미 모를 심구 장구배미로 넘어갈 적에
 (6) 장구배미는 반달같구 이 논배미는 원달 같애
 (7) 오늘 해는 여기서 지고 내일 해는 어디가 지나
 (8)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서 웃지마라
 (9) 우리도 어젠 이팔청춘 이었는데 오늘날은 백발이라

받는 소리 에헤 여기도 모심었네 어릴러럴 상사뒤야
 에헤 여기도 모심었네 어릴러럴 상사뒤야

‘김매기’는 두레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레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호미질이다. 예부터 “호미질 한번에 벼 백그루가 달려있다”고 할 만큼 농사에서 ‘김매기’는 중요한 노동 행위였다.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었다. 가래, 들피, 마디꽃, 물질경이, 모퉁, 물달개비 등 많은 잡초는 벼의 성장을 방해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김매기’가 필요했다. ‘김매기’를 통해 햇빛 받는 양의 감소를 막고, 통풍을 돕고, 벼의 체온을 높여주고, 병충해와 중간 숙주의 기생을 막으며, 잡초 종자와 독초의 제거를 통해 안전한 벼의 수확을 도와주었다. 논외의 상태는 두레에서 제초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두레꾼들은 마을에 있는 모든 논외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물의 정도나 모양에 따라 논외를 구분했으며 그 특성에 따라 논외를 매는 방식을 달리 했다. 또한 모양에 따른 논외의 구분은 악기·농기구·달·동물 같은 사물에 빗대어서 지었다.²⁾

2) 멩에논(소의 멩에같이 생긴 논), 샷갓논(샷갓 같이 생긴 논), 두멍논·둥근댕이(둥근 형태의 논), 장대논(장대 같이 기다랗게 생긴 논으로 장대배미·긴논·진논·진배미·실거리라고 부른다), 메물논(메밀국수 가락처럼 생긴 논), 장구 배미(장구처럼 양쪽이 퍼지고 가운데가 오목한 논), 반달배미(반달 처럼 초승달 형상을 지닌 논), 보십배미(삼각형으로 생긴 논으로 보습같이 생겼다고 이름 붙여짐), 뱀꼬랑지논(뱀같이 길게 생긴 논), 갈치논(갈치처럼 긴 논) - 주강현 『한국의 두레』 -

김매기는 모를 심은 후 초벌이 20일 이후, 두벌이 10일 이후, 세벌이 1주일 후, 만물은 1주일 정도 후에 한다. '김매기'는 호미를 사용하는 경우와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리도 빨라진다. '김매기 노래'는 '방개 타령'이라고도 하며 김매기의 과정에 따라 '방개 타령', '늦은 방개타령', '짚은 방개 타령' 등으로 구분되며 평택에서도 다른 지역과 유사한 몇가지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가와 관련된 것으로 '농부가'나 '소몰이 노래' 등도 있다

〈김매기 소리〉

- A. 앞소리 (1) 이논배미 얼른매고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2) 한쪽한쪽 꽃더라도 칸만고르게 꽃아주게
 (3) 일락서산 달오르고 월출 동령에 달오른다.
 (4) 여기도 한방이니 신발벗고 들어오게
 (5) 얼른 이논배미 다매고서 집으로돌아가세
 (6)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농사나 열심히 지어보세

받는소리 여기도 심었네 저기도 심었네

(1993년 채록. 제보자 : 정태진웅, 서정동 갈평마을).

- B. 앞소리 (1) 이 논매미를 얼른매고 저논매미를 넘어갈까
 (2) 장구매미를 얼른매고 길마배미로 넘어갈까
 (3) 길마배미를 얼른매고 고패배미로 넘어갈까
 (4) 고패배미를 얼른매고 파랑이 꽃기와를 불어구³⁾
 (5) 해바라기 춤으로 추어볼까

받는소리 어럴러럴 상사디야 어럴러럴 상사디야

- C. 앞소리 여보소 동사들 힘은 들어도
 오늘 해는 그렁 저렁
 서산에 걸렸으니
 부지런히들 허구서
 집으로 감시다
 얼커덩어리 칸칸댕이로
 골고루 매기세 두 루 루 루
 골고루 매기세
 삼세번 했으니

받는 소리 얼카덩어리야 얼카덩어리야

3) 길마배미(ㄱ자 모양의 논), 고패배미(구부러진 논).

- D. 앞소리
- (1) 나랏님전에 충성하고 여보시오 벗님네야
 - (2) 처자식들을 구제하여 오늘날에 농사를 지어서
 - (3) 대풍년을 기원하세 우리만 배불리 먹을손가
 - (4) 이웃집에는 자손이 풍년 어화청춘 소년들아
 - (5) 우리집에는 농사가 풍년 늙었다고 홍보지마세
 - (6) 쉬지말고 이논을 매고 오늘 청춘 내일 백발
 - (7) 저 논으로 올라들 가세 가는 세월을 잡을 손가
 - (8)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라 오늘 하루도 저물었으니
 - (9) 우리 농부가 늙어들 가네 내일날은 어데서 노나

〈방개타령〉

- (1) 만첩 청산을 굽어보니 갈길이 난개가 무리이다 놓고
- (2) 여기야 - 어혜 - 이 에혜 - 야 방개 흥개가 논다
- (3) 목지현 무가구 이리 궁굴 저리 궁굴 호쾌로다
- (4) 여기야 - 으혜 - 이해이 - 에혜야 - 방개 - 흥개가 논다
- (5) 어이야 - 혜 - 이 어허이 어허야 방개 흥개가 논다
- (6) 여기야 - 으혜 - 에혜 - 이 에혜 - 야 방개 흥개가 논다
- (7) 이 논 - 배미를 얼른 매면 막걸리 한 통이 더 돌아 온다
- (8) 여기야 - 어 - 어 - 혀 - 어 - 히 어허야 방개 흥개가 논다
- (9) 여기야 - 어혜 - 이 에혜 - 야 방개 - 흥개가 논다

〈자진 방개 타령〉

- A. 앞소리
- (1) 단허리 넘쳐 건너가 보세
 - (2) 이리 저리 돌르면서
 - (3) 단허리 넘쳐 건너가 보세
 - (4) 오늘 해도 다 가거니와
 - (5) 내일 해는 어디가서 지나
 - (6) 우리 농부님네 말들어봐
 - (7) 낮이머는 풀을 베고
 - (8) 밤이머는 사내끼 꼬아
 - (9) 이 농사밭을 지어 가지고
 - (10) 부모님께 봉양하고
 - (11) 국가에두 봉양하고
 - (12) 부모 처자식 공경하세

받는소리 오하 실실 단허리야 오하 슬슬 단허리야

- B. 앞소리 (1) 팔라당 팔라당 흥감사 맹기

- (2) 고운때도 한무덕 내사 좋았네
- (3)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
- (4) 꽃같은 날두고 연락선 타나
- (5) 일락은 서산에 해는 다지고
- (6) 월출은 동녘에 저 달은 솟네

받는소리 에헤이야 에헤라 방개야

(채록 포승면 신영리 남 당 51세)

- C. 앞소리
- (1) 마당가의 발가숭이 언제나 길-러서 내 낭군 삼나
 - (2) 마당가의 발가숭이 언제나 길-러서 내 낭군 삼나
 - (3)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 구서 웃지들 마라
 - (4) 이팔 청춘 소년들아 늙은이 보-구서 웃지들 마라
 - (5) 울통불통 저 남산 봐라 우리도 늙-으면 저모양 되리
 - (6) 울통 불통 저 남산 봐라 우리도 늙-으면 저 모양 되리

받는 소리 에에야 뒤헤르 방개야

〈소물이 소리〉

이러 이러 이러 이러 - 허이 허러
이러 이러 이러 구려 무릎 꿇어라 어리

〈농부가〉

- A. 앞소리
- (1) 불빛을 등에 지고 진흙물에 들어서니
 - (2) 이 농사를 이리 지어 누구하고 먹자하고
 - (3) 왕탈탈 한 언후에 늙은 부모 봉양하고 젊은 아내 배 채우고
 - (4) 어린 자식 길러 내서 사람 노릇 하자꾸나
 - (5) 천생만민 하울 적에 필원직업 하였으니
 - (6) 우리는 이 농사가 우리 직업 아닌가
 - (7) 상서학교 배풀고 성훈을 배우기는 도덕군자 할 일이라
 - (8)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부귀를 누리기는 경대부의 할 일이다.
 - (9) 대장부 세상에 나서 사업이 많건마는
 - (10) 우리 농부들 밥만먹고 술만먹고 잠만자느냐
 - (11) 성현의 도통이여 의리를 붙들여라
 - (12) 인심을 인도하여 교화를 이룬 후에
 - (13) 혈식 천추 하는 것도 대장부의 할 일이다.
 - (14) 천하 만사를 경영 할제 지진두가 될지라도 퇴보 말고 전진하면
 - (15) 사필 경성 할 터이니 만난 인내 하는 것도 대장부의 할 일이다
 - (16) 등 더우고 땀이 나니 가슴 답답 목마르다 빙혈 냉천 길어다가

(17) 시원하게 마신후에 천하대본 힘을 쓰라
받는 소리 어허어허 여어라 상사뒤야

(출전: 1968. 12 평택종합고 교지 제10호)

2) 어업노동요

평택의 어업 노동요는 아산만을 따라 서해 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경기 도 당굿을 대표하는 지영희 선생의 고향인 포승면 만호리 일대가 그 중심 영역이다. 포승면 만호리는 평택시 유일의 포구로서 충남 당진군과 아산만을 끼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숭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숭어막살이가 성행했으며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유행하였던 곳이다. 이제는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로 포구가 사라졌다. 만호리 나루터 근처에는 당산이 있어 당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승이 끈긴 실정이다.

닷감는 소리는 배를 정박하기 위하여 혹은 내렸던 닻을 위로 감아 올릴 때 부르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어업요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서 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그 이유는 간만의 차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는 입항과 출항을 할 때 선착장까지 배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갯벌에다 배를 정박시키기 때문이다. 닻을 올리고 내리는 소리는 메기고 받는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메기는 소리는 독창으로, 받는 소리는 제창으로 불려진다. 메기는 소리는 대체로 사설적이거나 가락이 제법 들어있는 경우이나 받는 소리는 힘을 모으기 위한 힘내기 정도의 단조로운 가락으로 짧은 편이다.

〈닷감는 소리 뜻다는 소리〉

어허라자차 어허디어

어허어이 어허라자차

어어라디어 어허라자차

어허라자차

올라갔으니 뜻달아라

어야디아 어허라자차

어기야저차차 어기야자차

어기야자차

바람을 맞춰라 바람을 맞춰

(채록: 1981년, 포승면 만호리)

‘배치기’는 만선으로 귀향할 때나 풍어놀이를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배치기 소리는 다른 어업요에 비해 유희적 성격이 강하다. 장고, 북, 징 등의 반주 악기가 곁들여지고 춤까지 동원된다. 이 소리는 다른 소리와 달리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기 위한 소리이기 때문에 메기고 받는 것이 모두 자연스럽게 가락이 흐른다. 다만 메기는 소리는 약간 길고 받는 소리는 제창으로 같은 가락을 되풀이하며 후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가 어렵고 듣는 사람들에게 게도 고도로 승화된 예술적 경지에까지 도달한 곡이다.

〈배치기〉

앞소리 본당 서낭님 구비보셔서
 인자 연평바다로 돈실러가니
 뱃서낭님 본당서낭님
 임장군님 그자 연평바다
 덕봐가지구 들어올적에
 만장을 해가지고 도장하게 해주시켜
 어여져쳐 다들러매고
 칠산바다로 돈실러가잔다
 어히여 어혜여 여하요
 연평바다 임장군님
 김선주 돌봐사
 진국의 도장을 시켜주요.

받는소리 아랫당 윗당 다저차 놓고

(채록: 1981년 포승면 만호리)

3) 기타 노동요

〈목도 소리〉

앞소리 (1) 울타리 밑에서 꼴베는 총각 눈치나 있으면 떡받아 먹게
 (2) 떡일랑 받아서 팽개치고 저 건너 산으로 올라간다
 (3) 앞강에 뜬베는 논실러 가는 배요 뒷산에 뜬베는 임실러가네
 (4) 니가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남대문밖 지게밭툽 쇠가 제일
 났네
 (5) 쿵덕쿵질더쿵 짙는 방아 언제나 다짙고 밤마실 가나
 (6) 밤마실 가기는 늦잖아도 남의집 귀동자 밤이슬맞네
 (7) 해줄라고 해줄라고 말라면말지 열들이 얼러서 외알폭 치마

- (8) 담넘어 갈때는 큰마음 먹고 문고리 잡고서 발발 떠네
 받는소리 아리랴루 아리랴루 아리랴루 아리랴루 고개로 넘어간다.

4. 의식요

‘의식요’란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무가, 불가 그리고 민요로서의 ‘의식요’가 있는데 그 기능이 의식의 수행과 직결되는 공통점이 있다. 의식요는 의식의 성격에 따라서 ‘세시 의식요’, ‘장례 의식요’, ‘신앙의식요’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세시 의식요

그 중 하나가 세시 풍속과 관련된 ‘세시 의식요’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의 변화에 따른 재앙을 극복하고 풍요와 다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세시 의식요에는 ‘안택노래’, ‘서우풀이’, ‘풍신제노래’, ‘농신제 노래’, ‘달맞이 노래’와 같은 ‘가정의식요’와 ‘지신밟기’, ‘고사반’, ‘결궁노래’, ‘서낭굿노래’, ‘기우제 노래’, ‘뱃고사 노래’, ‘용왕제 노래’ 등과 같은 ‘부락 의식요’가 있다. 평택에는 지신밟기에 해당하는 ‘지경소리’와 ‘고사반’과 같은 부락의식요가 남아있다.

〈지경소리〉

- 앞소리 (1) 먼데 사람은 듣기가 좋고 곁에 사람은 듣기가 좋네
 (2) 이 지경을 다져를 놓고 천추 만년을 사실 적에
 (3) 자손 만단을 하시는구나 이 지경을 다져 놓고
 (4) 주추마다 복을 빌었네 땅보를 바라보소
 (5) 상량보에다 용용자 거북구자 다만 두자를 썼네
 (6) 용용자도 거동을 보소 허공중천 높이 떠서 굽이치는대로
 (7) 만가복록이 떠돌아온다 거북구자 거동보소
 (8) 인간오복을 등에다 지고 영금영금 기어든다
 (9) 이네 말을 다들어 보소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나시네
 (10) 따님을 낳으면 열녀를 나시구 자손을 길렀을 때
 (11) 부모 은공을 갚은 손가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12) 따님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상탕에다 머리를 감겨
 (13) 중탕에다 목욕을 시키고 상타에다 머리를 감겨
 (14) 한 손에는 명을 주고 한 손에는 복을 주시어

- (15) 명복으로 자라날 제 억수 장마 비 퍼붓듯이
 (16) 대천 바다 물밀 듯이 오용 머리 초록 칭칭 자라나니
 받는 소리 에헤리지경호 에헤리 지경호

〈고사반〉

해동이면 조선이요 국태민안 연전 시화연풍 돌아들 때
 이씨 한양 등극 후에 삼각산이 기봉하야
 봉학이 던지를 생겼으니 봉의 등에 터를 닦고
 봉의 날개 꼭 눌러 입구자로 집을 지으니
 등기자 말기자 백호가 되고 왕십리가 청룡되고
 종남산이 안산되고 한강이 수리를 막고
 원아김이 사바시기 남산하고 도부조로다
 해동이면 조선이요 경기좌도야 이군 저군 다버리고
 안성으로 접어들 때 매봉췌가 명산이요
 그 산 명기 받아들고 금광면으로 접어드니 금광산이 명산일세
 그 산웁길 돌아서서 시흥리에 접어들 때
 이 동네 저동네 다버리고 석암으로 접어들 때
 거주건명 축원이요 황씨 역에 축원이라
 상남전은 서방님 중남전은 도련님 하남전은 여장아기
 어깨 넘어는 설동자
 무릎 밑에는 길동자 누이 머리는 다방머리 조르르 칭칭 자라날 제
 작년 같은 해오년 꿈결같이 보내거니와
 울과 같은 해오년 몽중채설이라 하니
 몽중채설을 풀어보자
 몽중 채설은 직성살 원근 도정에 이별살
 혼인 경사 주당살 내외지간 이별살
 문간 한칸 접어들 췌 마구간에는 우마살 수채에는 홀림살
 마당 복판에 벼락살 장광으로 터주살 부엌에는 조망살
 살광밑에 땡그랑살
 물두멍에 용여각씨 대칭으로 성주살 안방 한 칸 진동살
 쳐다보니 소라 반자자 내려다보니 각자 장판 은장으로 핫대를 매어
 건명전 선달님 장의채도 걸려있고
 건명전 부인마마 장의채도 걸려있고
 옥동같은 타래기 버선 달려있고 네기는 골잠와라
 동남풍이 슬쩍 불어 땡그렁 땡그렁 땡 땡그렁
 덜렁소리 금두라니 좋을쏘냐
 그는 그러하거니와 이택 가정 둘러보니

녁마대설 하시니 녁마대설 풀어보자
 부엌으로 조왕살 장뚝에는 터주살 각종 잡신 다불러다
 이 고사에 후이칭칭 몰아 앉혀 이 바람에 좃어 담아
 이 대사가 걸머지고 천리 만리 퇴송시켜
 문간 한칸 내달을 제 갖은 부적 붙었구나
 을지경덕 수명장수 의주 월강 세열하니 그도 아니 좋을쏘나
 그는 그러하거니와 금년 생에 낳는 애기
 초공역살 시다하니 초공역살 풀어보자
 저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 나란 소한국 십이제공 열두나라
 조공받으러 다니시는 조공 별상 손님마마 귀귀 돌아서 불 제
 앞바다도 열두 바다 뒷바다도 열두 바다
 이십사강을 건너려 할 제 아물에 사공 고물에 고사공 배를 대어라
 무슨 배를 대이리까
 들배를 대었더니 제물에 풍덩 가라앉고 애라 그배 못쓰겠다
 나무배를 대었더니 제물에 슬적 썩어지고
 흙토선을 잡었더니 제물에 슬적
 풀어지고 건너갈 길 전혀 없네
 애용산 수용산 앵무새 공작 넘나들 때 벼드래
 세님 주르르 흘러 연엽소선 비켜차고
 명지산 진설풍 와각지각 건너들 때
 아랫대궐 윗대궐 경복궁 새 대궐 대궐앞에 육조로다
 왕장아기 기읍신데 이름 반전 년주 짓자
 호반손님 드문 답상 곱게곱게 입힌 후에 니 어데로 가자느냐
 옛시골로 내려가자 칠패팔패 등적강을 얼핏 넘어
 진의칠월 상원고개 얼핏넘어 세골고개 다다르니
 삼십삼천기를 꼽아놓고 하루 이틀 자리보고
 사흘 나흘 도들시루 닷세 엿세 불을시루
 이레 여드레 고살시루 아래열 공시루
 공시문사 게일제 재주 서방님 거동보소
 좋고 존날 가리자고 삼십삼천기를 꼽아 놓고 사마철째 네일지
 육갑을 짚으려고 회년책력 다려놓고 묵는 책력 내어 놓고
 육갑을 짚으렐 께 갑자시에 천수만대 허공자리
 산난수련에 기록한 몸 삼새 사경 배워놓고 사서 삼경 배운 후에
 세월이 여류하여 이 덕 도령 거동보게
 수수하게 잘 차리고 방자불러 분부하되 방자놈 거동보게

(채록: 1983년, 현덕면)

2) 장례 의식요

장례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통과의례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산자와 죽은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분리 의례가 된다. 한국인의 죽음관은 죽음이 아주 가벼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죽은 사람은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항상 주변에 머무르면서 후손들의 일을 돌보아주고 보호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산자와 죽은자의 끝없는 교감이 장례의식 속에 표현되어 있다.

‘장례 의식요’에는 ‘상여소리’와 ‘달구질 소리’가 있다. ‘상여소리’는 장례 때 시체를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선창자는 요령을 흔들면서 민요 가사를 선창하고 상여를 맨 사람은 후렴을 받는다. ‘달구질 소리’는 장례 때 시체를 땅에 묻고 ‘달구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묘를 축조한다는 점에서 노동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장례의 중요한 의식의 하나로 죽은자의 무덤을 산자들이 함께 밟고 저승길을 축원하는 의식적 요소가 더 강하다. 선창자가 북을 치면서 노랫말을 선창하고 달구질하는 사람들은 달굿대로 묘를 다지면서 노래를 부른다. 평택에서도 다른 지역과 유사한 내용의 ‘상여 노래’와 ‘달구질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상여 소리〉

- A. 앞소리
- (1) 인제 가면 언제나 오나 내년 춘삼월 되며는 오시나
 - (2) 인제 가시면 언제나 오시나 오마는 날이나 일러 주오
 - (3) 명월 가고 해가 지니 어느 친구가 알아 주나
 - (4) 명산 대천이 멀다더니 구름 밖애가 예이로다
 - (5) 산천 초목을 찾아를 가니 두견이로 벗이되어 송죽으로 울을삼아
 - (6) 이 내 말을 다 들어 보소 친구 벗이 많다더니 어느 친구가 대신 가나
 - (7) 북망 산천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 (8) 만경 곤포 빌어다가 수수밭애다 걸어 놓고
 - (9) 손주 장하나 물어보자 영웅 호걸이 몇몇이나
 - (10) 술에 잡았던 개가야 커컹컹 짖으면 오시려나
 - (11) 병풍 안에 그린 닭이 두 나라를 훨씬 퍼고 꼬끼요 울며는 오시려나
 - (12) 명산 대천을 찾아를 가니 어느 누가 반겨를 허나
 - (13) 명산 대천이 정을 드니 나를 보고서 반겨 허네
- 받는 소리 우여 우여 우여 우여 - 예- 헤- 너호 어거리 넘차 너호
 예-헤 너호 어거리 넘차 너호 예-헤 너호 어거리 넘차 너호

- B. 앞소리
- (1) 북망 산천에 너호아 멀다구 하여도
 - (2) 문턱 밖에가 너호아 북망 산천이다
 - (3) 알뜰 살뜰 너호아 모았던 재산을 너호아
 - (4) 못다지구 너호아 못다 먹구서 너호아
 - (5) 저승 길이 너호아 웬말이더냐 너호아
 - (6) 허어 어호 너화 어거리 넘차 너호아
 - (7) 불쌍하구나 너호아 가련하구나 너호아
 - (8) 어린 상제 너호아 불쌍하구나 너호아
 - (9) 앞 뒤 중천에 너호아 발들을 맞춰서 너호아
 - (10) 잘들을 모시어 너호아 어거리 넘차 너호아
 - (11) 올려다 보느냐 너호아 나날은 천봉연에 너호아
 - (12) 내려다 보느냐 너호아 백살이 사리로다 너호아
- 받는소리 어호 어호아 어거리 넘차 너 - 호아

- C. 앞소리
- (1) 이세상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 나왔는가
 - (2) 아버님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전에 살을 빌어
 - (3) 제석님전에 복을 빌고 칠성님전에 명을 빌어
 - (4)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 (5) 한두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 갚을쏘냐
 - (6) 이삼십에 당도하니 부모은공 갚을 쏘냐
 - (7) 무정세월이 여유하여 원수백발이 돌아오니
 - (8) 아화 세상 소년들아 젊었다고 자랑마소
 - (9) 어제 청춘 오늘 백발 인간 칠십이 당도하니
 - (10) 눈어둡고 귀어두워 망녕이라고 흉을 보네
 - (11) 구석구석 웃는 모양 애통하고 절통하다
 - (12) 흉안 백발이 되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 (13) 인간 백년을 산다해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 (14) 걱정 근심을 다제하면 단사심을 못사노니
 - (15) 어제 오늘 성튼몸이 저녁 나절에 병이들어
 - (16) 섬세하고 약하신 몸이 태산같이 중병이 드니
 - (17)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노니 냉수로다
 - (18)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악덕이나 입을쏘냐
 - (19) 판수불러 경 읽은 들 경덕이나 입을쏘냐
 - (20) 무당불러 굿을 한들 굿덕이나 입을쏘냐
 - (21) 재미석되를 고이싸서 명산 대천을 찾은 후에
 - (22) 상탕에 맞이하고 중탕에 목욕하고
 - (23) 하탕에 수족 씻고 향로향합 불밝힌후

- (24) 소지삼장 올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 (25) 칠성님전 비나이다 제석님전 비나이다
 - (26) 목을 놓고 빌어보아도 하릴없고 소용없네
 - (27)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마라
 - (28)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 (29) 우리같은 초로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 (30) 싹이돋나 움이트나 돌아올길 전혀없네
- 받는소리 에- 헤- 에헤에야 어가리님차 에헤에야

〈잡은 삼여 소리〉

- 앞소리
- (1) 어허어야 내일엔 백발
 - (2) 간다간다 아차 한번
 - (3) 나 돌아간다 죽어지면
 - (4) 저승길이 다시오기
 - (5) 머다는데 어려우니
 - (6) 처자 권속 살아생전
 - (7) 다 남겨두고 선심공덕
 - (8) 나 돌아간다 죽어서는
 - (9) 어허 어헤야 극락세계
 - (10) 어화 세상 돌아가서
 - (11) 사람들과 인도환생
 - (12) 살았다고 하여보세
 - (13) 자랑들마소 오하오아
 - (14) 오늘에 청춘 어허어오하
- 받는소리 어허어 헤야 어허어오하

〈만가〉

이제 가면 언제오나 앓은 밤을 심었는데
 춘삼월에 다시 피건만 한 번 간 우리 낭군
 언제 다시 오실 날이 있을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죽는 사람 죽고 싶어 죽어지나

〈달구질 소리〉

- A. 앞소리
- (1) 산천 경계를 둘러 보세
 - (2) 이 터전에 무신 텨가
 - (3) 유언 상속을 받아보니

- (4) 청룡 백호를 둘러보니
- (5) 명부산에다 바라보면 문필봉이 솟았네
- (6) 자손을 낳으면 대대문경이 되시고
- (7) 남쪽을 바라보니 대변봉이 솟았네
- (8) 자손을 낳으면 거부장자가 되실거로다
- (9) 세상 사람들 많다해도
- (10) 곳은 일은 다 모두다 보는구나

받는소리 아하 - 아하 - 예 달 - 공

- B. 앞소리
- (1) 달구질 소리가 멀리 가면
 - (2) 먼데 사람은 듣기가 좋구요
 - (3) 가까운 사람은 보기가 좋아요
 - (4) 이팔 청춘 소년들아
 - (5) 백발을 보구서 옷지를 마라
 - (6) 해는 지구 저문 녘에
 - (7) 옷갓을 허구서 어딜가오
 - (8) 첩의 집에 가실려면은
 - (9) 내가 죽는 꼴 보실려오
 - (10) 첩의 집은 꽃밭이요
 - (11) 나의 집은 연못이라

받는 소리 이히 이어라 달궁 어이혀라 달궁

- C. 앞소리
- (1) 먼데 사람은 듣기나 좋게
 - (2) 가까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 (3) 일심으로 다저를 줄 때
 - (4) 곤륜산 일지맥이
 - (5) 대한민국으로 떨어져서
 - (6) 이명당으로 낙맥하여
 - (7) 이 터전이 생겼으니
 - (8) 이 터에다 유택을 마련하야
 - (9) 자자손손 부귀공명
 - (10) 천대만대 전할 터전
 - (11) 개를 치면 사지보구
 - (12) 닭을 치면 봉계가 되고
 - (13) 소를 치면 약대가 되고
 - (14) 어헤요 지경이요
 - (15) 슬하자손은 만세영에

- (16) 당상부모는 천년수라
- (17) 사성이 뚜렷하니
- (18) 천하제일 명당이라
- (19) 에헤요 달고오 -
- (20) 천세천세 수천세에
- (21) 만세만세 수만세라
- (22) 달고달고 여러분들
- (23) 이내 말씀을 들어나보소
- (24) 먼데사람은 듣기나 좋게
- (25) 가까운 사람은 보기나 좋게
- (26) 한 발 들었다 힘껏 찍고
- (27) 또 한발 들었다 힘껏 찍고
- (28) 기운차게 달고를 해서
- (29) 명당터전 이룩하세

받는소리 에 - 헤요 달 - 고

5. 부녀요

여성 민요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지닌 서시민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시집살이 노래'다. 우리 나라 어디서나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면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노래다. 지역에 따라 곡조나 사연은 다르지만 줄거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고된 삶에 대한 한탄과 의지는 보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시집살이 노래'에서 특히 이야기 거리로 삼는 것은 갓시집온 새색시의 사연이다. 때로는 시집식구들의 몰인정한 대우를 참고, 때로는 지혜로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노래의 보편적 주제 의식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저항의식이 구비문학이라는 양식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택의 민요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부녀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집살이요'를 비롯해서 여성 노동의 한이 배어있는 '물레 타령', '방아 타령', '베틀노래'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울곧게 표현하는 '자장가', '애 어르는소리' 등이 전해오고 있다.

〈시집 살이요〉

- A. 시집 간지 삼일만에 행기치마 둘러치고
부엌이라고 나가서 칠탕관이라고 열어보니

거미줄이 켜켜로 앉았더라
 뒷동산의 올라달아 양지씩의 울고사리
 와지근 찢어다가 철탕관에 자글자글 지저 놓고
 사랑애를 나가서 새금새금 시아비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오
 들은체도 아니하네
 안방애를 들어가서 시금새금 시어머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오
 들은체도 아니하네
 건너방에 들어가서 동실동실 동세님아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오
 들은체도 아니하네
 아랫방에 내려달려 원수백년 착원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오
 들은체도 아니하네
 뒷광에 달려들어 좁싸리를 옆에끼고
 앞광애를 내려 달려 호미목을 목에 걸고
 뒷뜰애를 올려 달려 살미논 서마지기
 해해썰어 매어 놓고 논두렁에 앉아보니
 은가락지 끼든 손에 호미자루 웬일인고
 금붕자 찌르든 머리에 좁쌀이가 웬일인고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살겠네
 논두렁에 드러누워 좁싸리를 덮고 자듯이
 누웠으니 하릴없이 채봉이다.
 시금시금 시아버지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
 새며느리 간 곳없고 앞뜰애를 내려다보니
 이것이 웬일인가 새며느리 주검이로다
 아강아강 며늘아강 시집살이 삼일만에
 이것이 웬일이냐.

- B. 성님 성님 내가 왔소 시집간지 삼년만에
 반보기라 만났는데 시집살이 어떠하오
 시집살이는 말을마라 시집살이라 하는 것은
 둥글둥글 둥글식기 만지기도 어렵다만
 뼈뿔비뿔 팔각소반 상보기도 어렵더라
 시집간지 사흘만에 광단치마 벗어놓고
 대청마루 내리굴러 부엌애를 들어가니

쌀독이라 하는 것은	버리지만 가득하고
가마솥을 열어보니	거미줄만 가득하고
천장이라 열어보니	사금파리만 가득하고
동생동생 사촌동생	내가 어찌 살아가리
앞뜰로 내달아서	선보리를 짓혀두고
익은 보리만 잘라다가	절구질을 하여다가
방아에다 콧광쥘어	밥이라고 해놓은 뒤
뒤뜰로 달려가서	센미나리 짓혀두고
연한미나리 꺾어다가	국이라고 끓여놓고
밥상이라고 차린후에	시아버지 진지잡수
어서내다 너먹거라	시어머니 진지잡수
일없으니 너먹어라	시아즈범 진지잡수
맛이없어 못먹겠소	동서님네 진지잡수
애고애고 내팔자야	산너머 김서방네
동서하나 잘본탓에	호의호식 한다더라
서방님네 진지잡수	배아파서 못먹겠소
입갈갈해 못먹겠소	시집온지 석달만에
뒤산에로 올라가서	큰소나무 가지휘어
겉줄로다 목을매니	서럽구나 시집살이
거위 한쌍 새우한쌍	저리도 떠들어오네

〈골노래〉

시아버지 골난데는 술받아주고
 시어머니 골난데는 이잡아주고
 시동생 골난데는 엿사주고
 시누이 골난데는 업어주네

〈물레타령〉

물레야 돌아라 뱅-뱅 돌아라
 물레살도 열두살 내우설대 공굴대
 쉬지말고 돌아라
 뱅-뱅 돌아라

〈방아타령〉

겉끄러깅 겉끄러깅 찢는 방아
 언제나 다찢고 밤마실 갈까
 밤마실 가기는 어렵지않으나

역석되 방아가 늦어지네
 산골의 큰애기 봄이되니
 감자를 찢다고 날오라네
 담너머 갈매는 짓던 개가
 인왕산 호랑이가 물어가고
 문열고 들어갈 때 울던 닭은
 야산 족제비가 물어가고
 곱그렁 곱그렁 찢는 방아
 언제나 다 찢고 밤마실갈까

〈베틀 노래〉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잡아 잉아걸고
청배나무 바다에다	옥배나무 북에다가
앞다리는 낮춰놓고	뒷다리는 높여놓고
잉아대는 삼형제요	놀림대는 두형제요
이내몸은 독신이라	독수공방 베틀짜니
뽕뽕이 소리는	구시월 새단풍에
왕가랑잎 소리같고	꼭두마리 우는소리
어미잃은 기러기가	제고향을 찾아가며
슬피우는 소리같고	바디집 치는 소리
왈그락닥 왈그락닥	휘여굽은 채활은
서천에 걸린 무지개라	암방담방 조질대는
남쪽으로 나서는 듯	북쪽으로 나서는 듯
밀대막대 드문드문	제집으로 찾아드니
베틀에 걸터앉아	철컹철컹 짜느라니
조그마한 시누이가	올케올케 우리올케
그베짜서 뭐할라요	서울가신 자네오빠
강남도포 해줄라네	진주댁에 고름말이
이슬빛에 내걸어서	은다리미 낫다리미
요모조모 싹다려서	대문밖에 싹나서서
노송낱에 걸어놓고	올라가는 저 선비
내려오는 저 선비	우리 서방 언제오나
오기야 오지마는	중당을 짚구 실려오네

〈자장가〉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아기라 잘도 잔다
검정개야 짓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귀한 아기	소리에 놀라 잠깨올라
은자동아 금자동아	우리 아기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라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자장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가 잘도 잔다
나라님께 충성동이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동이	친척간에는 우애동이
동네방에 칭찬동이	자장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가 잘도잔다	하늘 같은 높은 동아
바다같이 너른 동아	엄마품에 잠들어서
착하게도 잘도잔다	

〈애 어르는 소리〉

달강달강 우리 아기	서울길을 가다가
밤한되를 주워다가	살강밀에 묻었더니
머리빠진 새앙쥐가	들락달락 다 파먹고
밤한톨이 남았구나	옹솔에다 삶을까
가마솥에 삶을까	조랑으로 건질까
함지박으로 건질까	조랑으로 건져서
겉껍질은 누나주고	속껍질은 오빠주고
알맹이는 너와나와	사이좋게 나눠먹자

〈정요〉

웃고름 풀어진 건 다시매면 되겠지만
 청춘이 늙어지면 다시는 못찾을 시절이로다
 아이고 서러워 정말 서러워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세월아 흰머리 귀 밑그늘에 온단다.
 가는 청춘 가는 세월 막을 이 누구냐

반달도 보름이 되면 다시 한번 둥글지만
 사람은 청춘이 지나면 다시는 못만날 꿈이로다
 아이고 서러워 정말 서러워
 청춘아 청춘아 가지를 말아라
 청춘아 흰머리 귀 밑에 그늘져 온단다
 가는 사람 늙은 청춘 막을 이 누구냐

진꽃도 봄을 만나 다시 피면 되겠지만

꿈조각 깨어지면 다시 못붙일 기쁨이로다
 아이고 서러워 정말 서러워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세월아 흰머리 귀밑에 그늘져 온다
 조각되는 즐거운 꿈 막을 이 누구냐

〈상사요〉

모란꽃이 피거들랑 다시 오려마 다시 오렴
 연지 끈지 단장하고 다시 오려마 다시 오렴
 초간 삼간 집일 망정 금실 조면 그만이지
 호강없이 살지라도 마음만은 너를 주마
 모진 바람 너를 고이 피해 다시 오려마 다시 오렴
 쪽도리를 고이 쓰고 다시오려마 다시 오렴
 소금 반찬 밥일망정 맘맞으면 그만이지
 백년해로 살지라도 사랑만은 너를 주마
 당사실에 복을 차고 다시오려마 다시 오렴
 색가마에 올라 앉아 다시오려마 다시 오렴
 기화요초 없을 망정 웃고살면 그만이지
 호사없이 살지라도 내 가슴은 너를 주마

6. 유희요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위해 혹은 놀이에다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유희요'이다. 놀이는 그 자체가 삶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고통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희요'는 놀이에 의해 구성되고 놀이와 함께 전해지는 것으로 놀이를 위한 노래 본연의 속성을 갖춘 것이다.

일정한 삶의 필요성이 즐거움으로 표현되면서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따라서 '유희요'에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삶이 반영된다. 유희요는 주기적으로 쓰이는 '세시유희요'와 생활의 필요에서 나오는 '일상 유희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다양한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평택의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부르는 동요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희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고무줄 놀이 소리〉

넓은 시냇가에서 고기 잡는 아버지
 일할 때 일하고 배울 때 배워서

정령같은 가나다라마바사 배워야 산다
(채록: 1981 현덕면 박동수 초 3, 박미순 초 6)

〈줄넘기 놀이 소리〉

똑- 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 넷
어디앉아요 아랫목에 앉아요
아이뜨거워 옷목에 앉아요
아이차가워 요강위에 앉아요
아이 쿠린내

〈놀리기 소리〉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빠죽해
빠죽하면 바늘 바늘은 얇드라
얇으면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까매
까마면 감둥이

〈각설이 타령〉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행색은 이래도 이놈이 정승판서의 자제로세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본으로 징용갔던 새서방은 아니오고
두이자 들고보니
이장저장 다니다가 색주집에 머물렀소
석삼자 들고보니
삼도경계 지붕삼아 이리 저리 떠돌다가
넉사자를 들고보니
사대문에 들어서니 사람도 많고 집도 많소
다섯오자를 들고보니
오늘운세가 비색하여 몸조심을 하라하니
여섯육자를 들고보니
육이오가 웬말이나 청상과부가 애달도다

칠자나 한자 들고보니
칠칠맞은 우리 낭군 저방아도 잘도는데
방아 찿을 줄도 모르나봐
팔자나 한자 들고나 보니 아들형제 팔형제
정승판서 시키라고 문전옥답 다팔았네
아흠구자 들고보니
구질중장 땡초중이 머느리 방에 똥을쌓네
열십자를 들고보니
열화같은 박수소리 각설이 타령을 다시한다

〈핑서방〉

핑핑핑 핑서방
무얼먹고 살았니
김서방네 팔한되
이서방네 콩한되
그걸 먹고 살았지
어디에서 잤니
처마밑에 잤지
무얼덮고 잤니
짚담불 덮고 잤지
무얼 베고 잤니
보릿대 베고 잤지

여 백

설화 · 속담 · 수수께끼

제 5 절

1. 설화

1) 개설

설화란 한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온 이야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신화·전설·민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화는 그 진위의 여부보다는 한 민족·한 지역·한 마을의 연륜과 더불어 생성된 이야기들로서, 듣고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교훈을 남기기도 하며 역사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전설적 인물이나 민간 신앙의 형태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은 인구의 급증과 잦은 이동, 지리적 변화·사회적 구조의 변동 등에 의하여 점차 소멸되어,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이나 보이는 한낱 이야기거리로만 남아져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작은 마을 하나 하나마다 지니고 있을 잊혀진 설화의 발굴은 소멸되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2. 전설

1) 개설

우리 고장의 전설은 참으로 많은데 역사적 고증과 이렇다 할 기록물이 없고 다만 희미한 구전으로만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지』가 약 50년만 앞서 발간되었다면 구전만이 아닌 확실한 고증이 많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관계로 부락명의 유래로부터 고찰의 창건이라든지 고성지에 서린 사연이라든지 각종 전란(各種戰亂)으로 인한 사실이라든지 노수(老樹), 괴암에 대한 유래라든지 효자·효부·열녀에 대한 행적들이 때로는 어렵듯이 전설과 같이 전해지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일례를 들면 청북면 일대에서 임경업장군의 전설이 내려 온 것은 뚜렷한 고증은 없으나 무엇인가 그 당시 임장군과 인연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돌부처에 영긴 전설과 여자들의 바람나는 전설이 여러 곳에서 전하여 오고 있는 데 그 공통된 전설의 내면을 파헤쳐 보고 싶은 궁금증이 많다.

이러한 전설들 중 민화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이번에 캐내어 기록하여 둔다.

2) 전설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이 설화는 『회고록』(박종화 지음)에 “역사는 흐르는 데, 청산은 없네”(삼경출판사)에 따르면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불안과 나라를 걱정하는 불행의 절규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 때, 1894년(갑오년) 7월 15일 새벽에 일본 해군과 청국 수군은 아산만에서 서로 충돌하여 접전을 하다가 청군이 패했다. 청군은 아산 백사포에 진을 치고, 일군은 평택에 진을 쳤다.

1894년 7월 19일에는 청군과 일본 육전대가 소사벌에서 격전을 하다가 청병이 또 대패했다. 그리하여 7월 21일에는 청일 두 나라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청일전쟁이 터지자 양반계급들은 붓짐을 싸고 금은보화를 말에 싣고 십승지지(十勝之地)를 찾아가는 피난길에 급급하였으나 권력도 돈도 없는 농민과 서민들은 나라가 어지러워진 꼴을 보고 기가 막혔다. 전쟁의 공포와 비탄 속에 하늘을 쳐다보고 곁곁 웃으며 막걸리 추렴을 해가며 절망속에서 고함을 울부짚었다.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는 이 고장 백성들의 이같이 기막힌 원망스런 푸념에서 나왔다고 했다. 아산이란 아산에 진을 치고 있는 청군을 말함이요, 평택이란 평택에 진을 치고 있는 일군을 말함이다. 아산의 백사포에는 원세개가 인솔하는 청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느 모로 보나 청국 군대에게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였다. 그런데 청군은 그 부근의 부락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부녀자를 희롱하고 가축을 약탈하는 등의 못된 행위로 오히려 부락민에게 배신을 당하였다. 그렇다고 오랜 동안 적개심에 쌓인 일군을 두둔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보편적으로 양국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한 편은 이기고 한 편은 지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그 당시의 우리 국민의 심정으로는 어느 편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산이 무너져서 망하던지 평택이 깨져서 망하든지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원망스럽고 처량한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둘이다 망하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어 보라는 뜻이다.

(1) 팽성읍

① 팽나무

• 소재지 : 팽성읍 근내리

이 노수(老樹) 팽나무는 수령이 100년이고 수고(樹高)가 12m, 둘레 2.4m로 면적 10평을 차지하고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나무를 잘 위하면 부락 사람들이 편하고 소원성취를 한다는 말이 전해 내려 온다. 역시 이 마을에 있는 또 하나의 팽나무는 수령 150년, 높이 15m, 둘레 2.9m로 면적 8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무로 인하여 근내리에서 열녀가 나왔다는 말이 구전되어 온다.

노수에 서린 전설은 비단 근내리 팽나무만은 아니다. 각 부락에서 성황나무로 모시는 나무들은 대부분 그 부락의 안녕과 흥망을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② 미륵상(彌勒像)

• 소재지 : 팽성읍 남산 1리

어느 시대에 건립하였는지는 미상이다. 어떤 농부가 농우(農牛)를 도둑맞고 이 미륵한테 가서 소를 찾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니 미륵은 도둑이 끌고 간 곳을 계시하여 주어서 소는 찾았으나 도둑이 이에 앙심을 품고 미륵상의 목을 잘라 땅에 떨어뜨렸는데 주민들이 목을 올려놓으면 송화리에서 변이 생겼다 하며, 누가 내려 놓지 않아도 저절로 목이 떨어져 붙어 있지를 았았다 한다. 현재는 용화사에서 미륵을 모시고 있으며 과거에는 미륵사 또는 미륵곡으로 불리었다.

③ 호랑이 비석

• 소재지 : 팽성읍 남산리

연대 미상으로 약 100년 전에 세워졌다 하며 호랑이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도로

변에 위치하며 원상으로 보존되어 있다.

비석의 하부가 묻혀 있어 완전 확인은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남산리 일대가 모두 숲이었고 호랑이가 많아서 국가에서 호랑이를 모두 잡은 다음 묘를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웠다 한다. 그 이후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 돌을 던져 호랑이의 눈을 맞추면 재수가 좋다 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손이 돌을 던지고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눈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④ 총각상

- 소재지 : 팽성읍 석봉리

전설에 의하면 석상을 세워두면 맞은 편에 보이는 동네 남자들이 야반도주하여 강을 건너 석봉리로 왔다 하여 그곳(현재 오성면) 청년들이 와서 석상을 파괴하였다고 하는데 석상을 파괴한 사람은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한다. 해방 이전까지는 이 석상이 두부가 제거된 채 서있었으나 경지 정리 당시 흙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⑤ 대흥당(大興堂)

- 소재지 : 팽성읍 석봉리

부락에서 당제를 지내는 곳인데 전설에 의하면 당제를 소홀히 지내면 부락이 편치 못하였으며 제사가 소홀할 때는 호랑이가 나왔다 한다. 당제는 음력 10월 14일 밤이다.

⑥ 괴암 여흥바위(장독바위)

- 소재지 : 팽성읍 노양리

장독바위라고도 불리우며 옛날에 객이 소금짐을 받쳐놓고 낮잠을 자는데 아산만이 터져서 물이 들어 올 때에 그곳까지만 들어오고 소금짐은 감쪽같았다고 한다.

⑦ 돌방구지

- 소재지 : 팽성읍 내리

높이 10m · 주위 50m로 옛날에 등대로 사용하였다 한다.

⑧ 삼불바위

- 소재지 : 팽성읍 대사리

1920년에 김씨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바위에 기도를 드려서 손자·손녀 3명을 얻었다고 전해져 온다.

⑨ 도두암

- 소재지 : 팽성읍 도두리

처사 우남양은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음양 오행의 상식도 출중하였다 한다. 홍익한이 심양에서 갓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기진맥진하였을 때 그의 생사가 궁급하여 우남양은 고향인 도두리에서 일진을 짚어 보니 홍익한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점괘가 나온지라, 우남양은 평소에 사모하던 애국자 홍익한을 잃은 심정이 비통하고 절분하여 도두리 벼랑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한 곳이라고 하여 이 바위를 도두암—혹은 돈두암(頓頭岩)이라고도 함—이라 칭한다.

⑩ 왕소나무

- 소재지 : 팽성읍 두 1리

높이 11m, 둘레 2m, 수령 250년이 되는 왕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부락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부락의 수목으로 지킴나무이며 이 나무에 백일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⑪ 느티나무

- 소재지 : 팽성읍

조선 선조 때 방씨 윗 어른께서 정문 앞에 이 느티나무를 심어서 정문을 어울리게 했다고 하는데 나무가 잘 자라고 방씨 자손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기 전에 밑에다 보리씨 서말을 넣고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1972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12 새나리 동네

• 소재지 : 팽성읍 본정리

팽성읍 본정리에 '새나리' 라는 동네가 있다. '나리' 라는 뜻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높이어 부르는 말인데 새로 나리가 와서 사는 동리라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전 현재 그 동리에 사는 백성기의 7대조 되는 백상근이라는 분이 양주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낙향을 하게 되어 서해 바다를 이용하여 배를 타고 충청도 방면으로 가게 되었는데 팽성읍 계양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 심한 풍랑을 만나 더 갈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곳에 내려 본정리의 한 동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리에 와서 보니 마을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주색잡기가 심할 뿐 아니라 술주정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새로 여기에 정착하여 살게 된 백상근씨는 전에 벼슬살이를 한 관계로 한양에 가면 높은 양반들을 많이 알고 있는 까닭에, 하루는 어디 갔다 온다는 말도 없이 한양에 가서 높은 양반한테 이런 얘기를 모두 하고 우리 동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며칠 뒤에 병거지를 쓰고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이 여럿이 와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을 모두 붙잡아 가서 동리가 온화하게 되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여 동리 이름을 새나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13 망한사(望漢寺) — 현 자비사(慈悲寺)

• 소재지 : 팽성읍 객사리

이 절은 팽성읍 객사리에 있으며 전에는 '망한사'라 불렀었다. 본사의 창건은 1600년 전 신라 내물왕 때에 중국 한(漢)나라의 고승과 명사들이 뱃놀이를 하던 중 태풍을 만나 큰 바다로 표류하여 아산만에 도착하니 귀국길이 막연하여 하는 수 없이 근처 산수가 수려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 객사리가 좋은 곳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절을 짓고 고국인 한(漢)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워한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망한사(望漢寺)라 부르게 되었다.

이 망한사는 신라, 고려, 조선 연대의 고승 도현국사, 자장율사 등 대선사들이 천일, 백일, 삼칠일 기도를 드려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하였다 한다. 이를 전해들은 황제께서는 세자 탄신 발원 기도 도량으로 선정하여 영험을 얻어 감탄한 나머지 '세자 공원당'이라는 현판까지 내렸다고 하며 그 후 풍우로 인하여 건물을 수축하며

지내오다가 1974년 청담학원 이사장 이해성 스님과 정법성 주지 스님의 헌신적인 발원으로 다시 중건되어 절 이름을 자비사라 개칭하게 되었고 많은 신자들의 영험 있는 기도 도량으로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

⑭ 부용산의 묘소

- 소재지 : 팽성읍 객사리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부용산은 그리 높지도 않고 평평한 야산인데 소나무가 우거지고 잔디가 잘 손질되어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인들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격납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을 뚫어 만신창이가 된 때도 있었다.

이 산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부가 되는 분으로 구한말 군부대신을 지낸 웅렬(雄烈)공이 세상을 뜨자 선영이 있는 아산 쪽으로 상여가 가던 중 별안간 바람에 만장이 날아가 이곳 부용산에 떨어졌다. 상주들은 이곳이 명당이라 하여 이 자리에 산소를 썼다고 전해 온다. 또 이 묘자리를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즉, 물위에 뜬 연꽃의 형상이라는 천하대지 명당자리라 하며 물위에 떠 있는 형상이니 무거운 비석, 상석, 망주석, 등축대 등 돌로 만든 것은 일체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 하다.

(2) 진위면

① 풍흉을 점치는 은행나무

- 소재지 : 진위면 동천리

진위면 동천리에 살기 좋고 인심 후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신비의 노거수인 은행나무에는 많은 전설이 전해 지고 있다.

이 은행나무의 수령은 약 500 내지 600년 정도의 것으로 나무가지의 넓이는 20m이며 둘레는 9m이고 높이는 25m로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 이 은행나무는 약 100년 전부터 회귀종이며 천연기념물인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와 서식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100여 마리가 날아와 서식하고 가을이면 그동안 낳은 새끼와 합하여 약 300마리의 백로떼가 되어 돌아 간다.

특히 이상한 일의 하나는 백로가 이곳 동천리 은행나무에 찾아 오는 날과 가을이 되어 돌아가는 날이 틀림없이 매년 정확하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이곳 동천리

에 백로가 서식한 후로는 백로 식구가 느는만큼 이 마을이 부촌으로 발전하고 좋은 경사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비의 은행나무로 추앙되고 사랑받고 있다.

또 이 나무가 전하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다음 해 농사의 흉풍을 신묘하게 점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 즉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 때 나무 전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노랗게 물들면 그 다음해의 농사는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고 단풍드는 일자가 한 달 정도 걸쳐서 들면 그 다음 해의 농사는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는데 잘 적중된다고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은행나무의 생육 상태가 최근에는 전과 같지 않아 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서 빨리 생육 상태가 호전되기를 두 손 모아 빌고 있다.

② 왜골동굴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

크기 : 폭 3m, 길이 1.5m (현재는 붕괴되어 있음)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며 태고 때의 지진으로 생긴 굴 같이 추측되어지는 데 약 1.5m 북방의 봉남리 향교 동쪽 500m 옆에 있는 황새바위 밑에도 동굴이 맞닿아 있어 불을 피우면 그 곳으로 연기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옛날에 놀음꾼이 이곳에서 놀음을 하는 데 그들을 체포하기가 어려워 불을 피워서 연기를 불어넣어 놀음꾼들이 연기로 인하여 건디다 못해 나오면 모두 체포해 갔다는 말도 전해진다.

③ 퇴봉산

- 소재지 : 진위면 마산 4리

다락산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원 이름이 학이 많은 형국을 이루고있다 하여 다학산이며, 제일 높은 봉을 가리켜 퇴봉산이라고 하는 데 산 위를 보면 몇 군데 테를 두른 것 같이 보이며 올라가 보면 산허리를 돌아가기 쉽게 길이 나 있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지금의 하북리를 성뒤라 하였고 가곡리를 뒤성뒤라 하여 견산리 뒷성이 있었는데 그곳과 서로 진을 치고 싸울 때 병력이 많은 것 같이 보이기 위하여 산허리에 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빙빙 돌아가며 힘을 과시하였던 곳이라 한다.

㉔ 묘자리 오룡

• 소재지 : 진위면 마산 4리 외곡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마산리의 제일 장산은 마산 4리에 있는 다학산인데 산의 힘이 마산 1리(오룡동)쪽으로 많이 쏠려 그쪽으로 산의 명기가 뭉쳐 있고 제일 좋은 묘자리 다섯이 있다 하여 오룡굴이라 부르며, 그 중 한 자리는 마산 2리에 있는 오성대감의 증조부 산소로서 현재까지도 거먹비 산소라 부르고 있다.

내력은 오성대감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유명한 지관을 데리고 좋은 묘자리를 찾아 다니는데 현재 거먹비 산소자리를 잡아주며 이 곳에 묘를 쓰면 증손대에 가서 유명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 하여 그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검은 비석이 나와 이 산소를 거먹비 산소라 부르게 되었고 비석의 글귀가 틀림없는 오성의 증조부였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산소를 찾았고 그 후에 이 산소의 증손인 오성이 지관의 말대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또 한 자리는 한음대감의 증조부 자리이며 장소는 마산 1리인데 자리를 잘못잡은 탓인지 호랑이혈이라 하여 자손이 성묘만 오면 죽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고 한다. 또 한 곳은 오좌동 최씨네 산소자리고 나머지 두 곳은 서로가 여기다 저기다 하여 확실치 않다.

㉕ 봉남목교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

조선 때 이도령이 쉬어간 다리라 한다.

㉖ 셋뚝거리

• 소재지 : 진위면 마산리(수촌)

옛날에는 바닷물이 진위면 마산리 수촌까지 들어와 뱃사공들이 배에서 이곳에다 물건을 내려 놓고 물물교환을 했다고 한다.

㉗ 옥거리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

현 진위면 사무소 전방 200m 지점에 현감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하여 옥거리(지금의 작은 교도소)를 건축하였던 곳이다. 현재 부락 중앙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다.

⑧ 마방집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서부)

옛날 조선조 말엽에 서울과 호남지방을 오가는 마부들이 이곳에 말을 매어 놓고 숙박을 했던 곳이다.

⑨ 서문거리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동방)

옛날 유명한 무당집 이름이다. 무당들이 한 곳에 집을 여러 채 짓고 살았다고 하여 신당골이라고도 하였다.

⑩ 토골[土谷]

- 소재지 : 진위면 봉남리

현 진위초등학교 뒷산에 토골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위험한 침략이 있을 때에 지방민들이 피신한 곳이다.

⑪ 병풍바위

- 소재지 : 진위면 봉남 3리

동산에 높이 1.5m, 둘레 20m가 되는 병풍바위가 있다. 옛날 북에서 내려오는 적군을 방어하는 데 대피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⑫ 절골과 남이(南怡)장군

- 소재지 : 진위면 동천리

진위면 동천2리는 속칭 절골이라 부르는데 약 500년전 여기에 남이 장군의 부인 함평이씨가 절을 세워 절골이라 한다고 전한다.

남이 장군은 조선 초 세조 때에 유명한 장군으로 17세에 무과에 합격하고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26세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시애의 난을 평정할 때 남긴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본 반대파인 유자광이 남이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린 남이 장군은 28세의 젊은 나이로 3족이

아무 죄 없이 모두 처형되었다. 이에 남이 장군의 부인 이씨는 남편과 친정 아버지 함평부원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그 넋을 위로하고 위패를 모시기 위하여 여기에다 절을 지었다는 것이다.

(3) 서탄면

① 색시구비 웅덩이

• 소재지 : 서탄면 회화리(해정마을)

회화리 하단부 하천에 색시구비란 웅덩이가 있다. 현재는 제방이 축조되고 하천 정비가 되어 있어 그 흔적은 없어졌으나 10여 년전만 해도 냇물의 깊이가 장정의 길반(2.5m) 정도로 깊었으며 내 곁에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는 아무리 한발이 계속되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에 냉기가 있어 삼복 더위에도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다. 얼마 전만해도 나룻배가 있어 오가는 길손을 건너 주었다고 한다.

색시구비란 전설은 옛날 조혼하던 시절 9살의 신랑에게 16살의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신방을 꾸민 첫날밤 9살의 신랑이 오줌을 싸고 신부가 오줌을 싼다고 부모에게 고해 바쳤다. 신부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크게 듣고 억울하고 동리가 창피한 가운데 지내는데 오 일째 새벽에 신랑이 오줌을 또 싸고 새색시가 오줌을 싼다고 부모에게 고해 바쳤다.

시부모는 새색시가 야뇨증이 있는 환자로 단정하고 다음날 친정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새색시는 억울하다며 시부모에게 신랑이 오줌을 싼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새색시의 억울함은 시부모에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랑이 오줌을 싼다고 하면 자식이 바보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던 신부는 죽음으로 결백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새벽에 색시구비 웅덩이에 투신 자살하였다. 이후 매년 색시구비 웅덩이나 냇물에서 8, 9세의 어린아이들이 익사하여 주민들은 새색시의 원혼이 잡아갔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며 익사자가 있을 때마다 전설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② 북바위

• 소재지 : 서탄면 금암 1리

금암 동쪽에 높이 8m 둘레 15m의 북바위가 있다. 어느 장수가 공기돌로 사용했

다고 전한다. 서탄면 오산천 연안에 높이 솟은 바위로서 이중으로 덮여 있으며 옛날 부근일대가 바다였을 당시, 밤중에 큰 장마로 물난리가 있을 때 이 바위에서 피하라는 신호로 북을 울렸다고 한다.

③ 부자와 은행나무

• 소재지 : 서탄면 장동리

서탄면 장동리의 한 부락으로 ‘은행정이’, ‘구억리’ 등의 명칭을 지닌 이 마을에는 고려 충렬왕 때인 1270년경에 심었다는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고, 약 700여년간 살아서 고목이 되었던 그 은행나무는 1970년대의 어느 해에 벼락을 맞아 타서 없어지게 되자 1982년에 같은 자리에 5년생 은행나무를 심어 공군 부대 안에 있는 솟 은행나무와 마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고려 충렬왕 때 이 마을에는 수천 석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그는 덕수장씨로 슬하에 자녀를 많이 두었으며 평소 많은 재산을 모아 두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 중에 성격이 포악하고 방탕한 아들이 있어 가산을 탕진하는 것에 걱정이 생겨 후일을 기약하기 힘들음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부자는 자신이 모은 금은 보화 중의 일부를 은행나무를 심으면서 같이 묻어 착한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은행나무를 심은 장부자의 비밀을 포악한 아들이 목격하였고 장부자가 출타하는 날을 기회로 훔쳐낼 계획을 하였다. 이윽고 아들은 부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은행나무 밑을 파나갔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치며 비를 뿌리더니 이 패륜아에게 벼락을 내려 즉사시켰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은 이를 교훈삼아 착하게 사는 마을로 가꾸어 구억리(九億里)라 할 정도였다고 전해온다.

(4) 고덕면

① 용우물의 전설

• 소재지 : 고덕면 여염리

고덕면 여염리에 있던 이 샘은 지금은 한뉴목장이 들어서면서 그 흔적이 희미하다. 직경 약 3m에 깊이 약 3m가 되는 우물에는 이팔의 아버지 묘를 파헤치는 데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담겨져 있다. 선조, 인조를 거쳐 무신으로서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지낸 이팔은 조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도성을 유린하고 남진하다

가 장만이 거느린 관군과 길마재에서 결전하여 참패 당하고 이천으로 도망하던 중에 부하 이익현·이수백 등에게 참살되었다. 이것을 3일 천하를 한 '이괄의 난'이라 이른다.

구전된 바에 의하면 이괄이 초동 시절에 방개울(울포리) 이진사택에 사동(使童)으로 있었는데 충직하고 영민했던 이괄은 이진사의 귀여움을 받았었다. 노경에 든 이진사가 어느날 내방한 지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염리에 명당이 있어 그곳에 닭의 알을 묻으면 닭이 해를 치며 울 정도로 영험이 있으니 그곳을 시험하여 보자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엿들은 이괄은 잽싸게 삶은 닭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진사는 이괄의 소행은 알 길 없이 생닭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여 일행은 명당자리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진사가 시키는 대로 닭알을 묻으라고 할 때 이괄은 생닭알 대신 삶은 닭알을 묻었으니 닭소리가 날리가 없다. 허탕을 친 일행은 허전하게 돌아가고 말았다. 영특한 이괄은 밤에 몰래 그곳을 찾아가 생닭알을 파묻어 보니 과연 닭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이괄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자기 부친의 묘소를 그곳에 썼다고 한다.

반란을 일으켜 3일 천하를 누리던 이괄이 죽으니 역적의 부친묘를 그냥둘 리 없었다. 묘를 파헤치니 샘으로 통한 물이 나왔고 용이 나왔는데 만일 성족(成足)이 다 된 용이었다면 이괄이 3일 천하가 아닌 대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② 성향당

- 소재지 : 고덕면 당현 1리

고덕면 당현 1리에는 당집이 있는데 원 당집은 세조대왕 아들 덕원군 묘를 모실 때 그 자리가 당자리였었는데 당을 옮길 때 백마가 그 자리를 떠나 현 당자리에 와서 울어 멈추며 발을 굴렀다 하여 그 자리를 당자리로 잡았고 현재까지 당현리에서 존재하고 있다.

② 느티나무

- 소재지 : 고덕면 동고리

높이 15m, 둘레 25m, 수령 15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110년전 금강산에 3인이 여행을 갔다가 나무 세 그루를 가져다 청북면 옥길리에 세 나무를 다 심고 세

명이 말하기를 “이 나무가 살면 우리 문중이 살고 나무가 죽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몇 년 키우다가 두그루는 죽고 한 그루만 살아 이곳에 옮겨 심었다.

③ 향나무

- 소재지 : 고덕면 좌교리

남쪽 200m에 높이 20m, 둘레 2m에 수령 1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있는데 부락에 서는 이 나무를 당나무로 정하고 매년 당제를 지내고 있다 한다.

(5) 오성면

① 총각돌

- 소재지 : 오성면 숙성리

오성면 숙성리 대조두에는 옷우물(옷이 오른 사람이 목욕을 하면 옷이 낫는다는 우물)이 있다. 현재는 없지만 거기에는 돌이 매장되었다고 한다.

50여 년전에 어떤 부인의 꿈에 계속해서 어떤 돌이 나타나 우물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여 이 부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돌을 꺼내어 청룡 뿔에 세워 두었다. 이 돌은 사람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돌의 전면 방향에 있는 마을의 처녀들이 바람이 많이 나 이 돌로 인하여 부락끼리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다. 때문에 총각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현재는 당거리 방향이다).

② 한봉산 민담

- 소재지 : 오성면 금곡리

한봉산 아래마을 쇠누리에는 조씨 집안에 벼슬을 하던 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봉산을 지나가려면 말에서 내려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아 못 지나갔다는 전설이 내려 오고 있다.

③ 장수바위

- 소재지 : 오성면 양교리

동네 서편에 높이 3m, 둘레 5m가 되는 장수바위가 있다. 5형제봉의 둘째 봉우리

위에 임경업 장군이 앉았던 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④ 해나무

- 소재지 : 오성면 숙성 2리

마을 입구에 높이 15m, 둘레 1.5m, 수령 500년이 되는 해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 해수가 들어오고 어업 중심일 때에 어선들이 출입하면서 배를 매어 두는데 이 나무를 이용하였다 한다.

⑤ 소우물

- 소재지 : 오성면 숙성 2리

오성면 숙성 2리 큰 조머리라는 동리에 소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있어 매양 골몰하고 있다가 소를 물어다가 잡아먹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뒤 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 물을 잘 길어 수가 없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6) 청북면

① 괴암

- 소재지 : 청북면 토진리

괴암이 있는데 높이는 1.5m, 둘레는 3m이다. 토진 1리가 배의 형국이니 돛대가 있어야 한다 해서 쌓은 바위돌이다.

② 장수바위

- 소재지 : 청북면 토진리

높이 2.7m, 둘레 1.5m가 되는 장수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빛이 검은데 이는 임경업 장군이 저다놓은 바위라 하며 머리로 인 자국이 패어 있고 임장군이 밟았다는 발자국이 두어 개 나타나 있다.

③ 개추바위

- 소재지 : 청북면 토진리

도로변 논에 박힌 이 바위는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따라 마을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전설이 있다.

④ 기계(杞溪) 유씨(兪氏)의 묘

- 소재지 : 청북면 후사리

청북면 후사리에 기계 유씨의 묘소가 있다. 그 묘를 가보면 누가 보아도 흙모할 만큼 명당 자리라고 느낄 수 있으며 잘 가꾸어져 있다. 이 묘는 고려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던 이가 세상을 뜨자 고향인 인천에서 선영이 있는 충청도로 가는데 바다를 이용하여 배에다 시신을 싣고 서해안을 따라 가다가 청북면 앞 바다에 도착했을 때 별안간 풍랑이 일더니 만장이 날아 지금의 후사리에 있는 묘자리에 떨어졌다. 이때 상주들이 생각하기를 이 자리가 시신을 모셔야 할 명당이다 하고 묘를 썼더니 그 후 후손들이 번창하고 영달하여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1983년 도굴꾼들이 도굴해간 사실이 있어 바로 복원은 하였지만 무슨 유물이 나왔는지 모른다.

⑤ 도마지

- 소재지 : 청북면 고잔리

청북면 고잔리에 도마지라는 동리가 있다. 도마지라는 말은 도망지, 즉 도망을 온 곳이라는 것이고 변음하여 도마지가 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의 아들이 임금님의 도장 즉 옥새를 위조하여 많은 금품을 받고 벼슬을 팔아먹은 것이 탄로되어 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밤에 도망와서 이곳 두메산골에 숨어살게 되어 이 동리 이름을 도마지라 한다고 전한다.

(6) 포승면

① 전의이씨와 복소혈(伏巢穴)

- 소재지 : 포승면 신영리

사각동(색각골)에는 전의이씨의 묘지에 따른 풍수설에 얽힌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1664년(현종 5) 이근(전의인)이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들 3형제는 장남 선천, 2남 명천, 3남 후천이라 했다. 부친의 충고를 들은 아들 3형제는 인근의 유명한 지사(지관)를 모시고 묘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지사의 말인즉 “이곳이 유명한 복소혈로 대지반(大地盤)이다. 이곳에 선천의 만년유택(萬年幽宅)의 길지로 쓰되 이곳을 파면 암반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암석을 그대로 두고 시신을 안장(安葬)하라! 그리고 하관 시간은 쇠갓을 쓴 사람이 지나간 다음이 바로 정시”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 즉 큰아들 선천과 2남인 명천 등은 “어찌 부친의 시신을 차가운 암반에다 매장할 수 있는가” 하고 더 파서 그 암석을 제거하여 매장토록 하자고 고집하며 더 파 내려갈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3남인 후천은 지사의 말대로 따르자는 등 옥신각신하다가 기어이 두 형의 의견에 지고 말았는데, 암반을 깨트리고 더 파기 시작할 무렵 과연 오색안개가 솟아나더니 한 마리의 학이 날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상주는 물론 산역꾼들도 지관의 유명함을 감탄하였다 한다. 그러나 도리없이 장례를 모시는데 청천한 날씨가 무슨 조화인지 갑자기 천지를 분별할 수 없이 짙은 안개가 덮여와서 모였던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을 때 때마침 늦가를 베풀는 눈으로 밥을 내가는 아낙네가 국 그릇이 식을 것을 염려하여 숟뚜껑을 덮고 하관하는 곳을 지나가는지라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과연 지관의 규견(圭見)이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다 한다.

그 후 그의 장남과 2남 등은 자손들이 없고 다만 3남인 후천만이 자손을 두어 그의 손 등이 지금도 이 고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곳을 꿩이 알을 품은 복소혈이라 하는 풍수설이 있다. 그 산세는 계좌향(癸坐向)이라고 하며 서해바다를 향한 위치에 있다.

② 칠형제 바위

• 소재지 : 포승면 원정리(호암부락)

평평하게 구름진 산록에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괴석 7개가 나란히 정립하고 있는데 이곳이 7형제를 낳은 바위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즉 조선시대 인 철종 말기에 슬하에 자손이 없어 매우 고민하던 충청도 서산땅 양녕대군 16세손인 승조공에게 현몽하기를 “네가 자손이 없어 매우 서러워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내가 계시하는 곳으로 가서 백일치성을 하면 곧 자손을 얻으리라” 하고 그 곳 호암산록의 7개 바위를 가르쳐 주므로 그는 꿈대로 그 곳에 치성을 드렸다. 그 후 부인이 바로 태기가 있게 되어 과연 아들 7형제를 차례로 두었다.

그 아들 모두가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그 힘이 항우장사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며

승조공은 아들들의 지극한 효심으로 80의 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세상을 하직하거든 바로 이곳 7형제 바위 상단에 묻어달라 하였다. 지금도 그의 무덤이 7형제 바위 상단에 있으며 그 후 자손일가들이 30여호나 번창하여 이 고장의 전설을 실존으로 증언하고 있다.

③ 수도사(修道寺)와 원효대사

• 소재지 : 포승면 원정리

이 절은 포승면 원정리에 있고 부지가 3만 평이나 되며 신라 문성왕(文聖王) 14년(852년) 겸거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것을 1960년 최영식 스님이 재건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의 원효대사가 불도를 닦기 위하여 중국에 가려고 이곳에 와서 배를 기다리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캄캄한 한밤중에 몹시 갈증이 나서 절 뒤로 가서 물을 찾던 중 옆의 바가지에 물이 들어 있기에 시원스럽게 마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아 절 뒤로 가보니 어젯밤에 마셨던 것이 물이 아니고 해골바가지에 고여 있는 이물질임을 알자 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놀라 탄식하며 어제 캄캄한 밤중에 모르고 마신 물이 그렇게 맛이 있더니 알고 난 지금은 후회스럽기 짝이 없음은 모든 일이 오직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이라고 크게 깨달아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절에는 천 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조선 말엽 흥선대원군의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4대문 안에 스님들이 들어오지 못할 당시 세도정치가인 안동 김씨 가문에서 자식이 없어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옥동자를 얻었다는 전설이 있다.

④ 영웅 바위

• 소재지 : 포승면 만호리

이 바위는 포승면 만호리 앞 바다 서쪽으로 약 3km 지점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인데 이 바위는 높이가 15m, 둘레가 60m나 되는 웅장한 모습을 지닌 신비의 바위이다.

이 바위에 전해지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옛날 육지에 있는 선비의 대갓집 정원에 있던 바위였는데 큰 해일로 인하여 그 선비의 집이 휩쓸려 가 현재의 위치에 우뚝 솟아 웅장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아산만으

로 침입할 때 이 바위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변형되어 우리 수군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 되고 그 주변의 작은 바위는 군졸로 변모하자 왜적은 대경실색하여 퇴각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큰 공을 세웠던 까닭에 나라에서는 이 바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바위 이름을 영웅 바위라 칭하도록 하고 옥관자를 내렸다고 전하여 온다.

㉔ 청룡뿌리산

- 소재지 : 포승면 만호리

천년 묵은 이무기가 도를 닦고 청룡이 되려 하지만 천지신명은 이무기에게 어려운 수련과정을 겪게 하였다. 그것은 인간에게 세 번 도전하여 한 번이라도 참다운 신의와 믿음을 얻어야 청룡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준 것이다. 이무기는 준수한 도령으로 변신하여 어여쁜 부인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부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친다. 그래도 이무기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미모의 각시로 변신하여 방랑하는 개평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지만 개평꾼 역시 각시의 청을 목살하여 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무기는 부자가 되어 함께 장사할 동업자를 구하는데 마침 풀 한 포기도 밟지 않으며 옷 속의 이도 잡지 않는 노승을 만난다. 간절히 동업자가 되길 청하여 마침내는 동업자가 되지만 가장 믿을 만한 노스님도 재물 앞에서는 못믿을 인간이었다. 이처럼 세 번씩이나 인간에게서 비정함을 받은 이무기는 끝끝내 청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스럽게 죽어 가는데 그 이무기가 죽은 자리는 그의 형상대로 산의 모습이 되어 오늘까지 남아있는데 후세사람들은 이무기가 묻힌 산이름을 청룡뿌리라 부르고 있다.

㉕ 참나무

- 소재지 : 포승면 석정 5리

포승면 석정 5리에 높이 25m, 둘레 3m가 되는 참나무가 있는데 전에는 이 나무에게 재배하고 다니면 가정이 무사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날 때면 재배하였다고 한다.

(7) 현덕면

①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

• 소재지 : 현덕면 덕목 4리

현덕면 덕목 4리에는 600년 전 이 마을 공씨가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나 지금은 오직 한 그루만 남아 있다. 일제시대 왜병이 무기 제작을 하기 위해 절단하려 하자 별안간에 천둥과 번개가 쳐서 중단하였다고 한다.

② 심복사(深福寺)의 부처님

• 소재지 : 현덕면 덕목리

이 절은 현덕면 덕목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일설에는 1549년(명종 5)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나 창건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려 말 경기도 파주군 치산포에 사는 천을문(天乙文)씨, 박씨, 문씨 3인이 수원군 광덕면, 즉 현재 현덕면 덕목리 앞 바다에 이르러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이 때 던진 그물을 당겨 올리던 중 그물이 팽팽해지며 무거우므로 힘을 모아 당겨보니 큰 바위 덩어리가 떠올라 채수 없다고 바위 덩어리를 도로 물에다 넣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넣었다.

그런데 다시 그 돌이 그물에 인양되는 것이었다. 천씨는 너무도 이상해서 그물에 걸린 돌을 배 위에 끌어 올려 자세히 보니 너무도 거룩하신 부처님이었다. 평소에 부처님을 신봉하여 오던 천씨는 얼른 합장하여 돌부처님 앞에 엎드려 치성을 그렸다. 그런데 전날 밤 천씨가 꿈에 본 석불 그대로였다. 전날 밤 천씨 꿈에 이 석불이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을 곳은 심복사다”라고 일러주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천씨는 부처님 모실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하고 부두에 닿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석불은 천연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업고 심복사가 세워질 곳으로 갈지어다”라고 하시므로 천씨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을 업고 옛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오던 광덕산으로 가던 중 지금의 절터인 이 곳에 이르러 잠시 휴식하고 다시 일어나 석불을 업으려 한 즉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천씨는 “그렇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심복사가 세워질 절터로구나”하고 우선 부처님을 안치하여 두고 여러 날 절 세울 일을 고심하던 중 하루는 풍파가 심하게 일더니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일 바닷가에 가면 임자 없는 소가 있을 것이니 파손된 뱃조각을 실어다 절을 짓도록 하여라”는 말이 끝나자 홀연히 사라지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천씨는 동이 트기를 기다려 이른 새벽 간밤 꿈 속에서 들은 대로 바닷가에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두 척이 파손된 채 바닷가에 떠내려와 있었고 저 쪽 언덕에는 검은 소 두 마리가 주인도 없이 노닐고 있었다. “역시 그 석불은 영험하신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천씨는 부서진 배 재목을 소로 날라 문씨, 박씨와 함께 절을 세워 심복사라 칭하였는데 그 후 검은 소들은 절을 세운 뒤 갑자기 죽었다. 마치 제도중생 하시려는 보살이 이 절을 세우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가 자취를 감춘 것이라고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심복사에서서는 이 두 마리의 소를 정성껏 매장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비를 세우고 이곳을 부도(浮屠)터라 불러왔는데 산사태로 비의 지대석이 없어지고 봉분이 흩어진 것을 1924년 당시 주지가 신도들과 함께 다시 봉분하였다. 그 때 검은 소털과 함께 소똥을 보았는데 무척 큰 소똥이었다고 전한다.

③ 백룡사지(白龍寺址)

• 소재지 : 현덕면 신왕리

현덕면 신왕리 광덕산에 고려 중엽에 지었다는 백룡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용궁 보물이 있었던 것을 정만인(鄭萬人)이라는 사람이 훔쳐 가지고 바다 섬으로 도망하였다 한다.

이 절터는 연소형(燕巢形)이라고 하여 제비집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절터에는 150년전 아산군 영인면 강청리에 사는 이도사라는 사람이 묘를 썼는데 그 자손이 번창하고 대과에 둘, 소과에 셋이나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기 때문에 명당자리라 하며, 일명 취소형(鷺巢形) 즉 독수리집 모양이라고도 부른다. 또 신왕리 마두(馬頭) 부락에는 마산(馬山)이라는 산이 있고, 아산만 팔각정 터는 계두봉(鷄頭峯)이라 하는데 400년전 아산 현감 이토정 선생이 ‘계마지간(鷄馬之間)에 가활만인(可活萬人)’이라 하여 가히 만인이 살 수 있는 훌륭한 피난지라고 예언하였다 한다.

④ 정자나무

• 소재지 : 현덕면 인광 4리

부락 남쪽에 높이 20m, 둘레 3m, 수령 100년이 되는 참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성황당나무라 칭하고 매년 당제를 지내고 있다 한다.

⑤ 정자나무

- 소재지 : 현덕면 권관 1리

마을 뒷산에 높이 5m, 둘레 2.1m, 수령 100년이 되는 정자나무가 있는데 100년 전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쉬려고 단장을 꽂아두고 그냥 갔다 한다. 그 단장에서 뿌리가 생겨 현재에 이른 것이라 전해 온다.

(7) 안중면

① 엄나무

- 소재지 : 안중면 안중 2리

부락 뒤편에 높이 15m, 둘레 3m, 수령 300년이 되는 엄나무가 있는데 부락에서 정해진 당나무이다. 이 엄나무 옆에는 당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이를 없었던 사람들은 벌을 받아 즉시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② 은행나무

- 소재지 : 안중면 학현 2리

은행나무는 높이가 29m, 둘레가 8.5m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 오고 있다. 때는 고려 명종 때로 유난히도 조정이 문란했다. 민심이 흉흉하고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대지주의 소작 농노로 전락하거나 유랑민이 되어 도처로 방랑할 시기였다. 마침 한 젊은 스님이 이 학현리 성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이 마을은 바깥의 정세와는 달리 대여섯 채의 초가가 웅기종기 모여서 풍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듯한 아늑한 자연 속에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이 흥안의 스님은 세속의 슬픔을 지닌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 보다가 학의 모양을 지닌 신비스런 이 마을의 지세를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합장을 하여 "이 곳이 바로 부처님께서 나의 고행을 시험하시는 곳이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학의 머리 되는 곳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스님은 이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서 우연히도 하루밤을 쉬어 가게 되었는데 이 과부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열녀였다. 주위에서는 여인의 얼굴이 너무 고와서 팔자가 세다는 등 뒷 이야기도 있지만 지조가 있고 정숙한 여인으로서 곳곳이 숙명을 이겨 나가는

정숙한 여인이었다.

단칸 방에서 치마로 칸막이를 하고 지나간 밤을 지내게 되자 젊은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번민 속에 자신을 극기해야만 하던 중 급기야는 칸막이로 해 놓은 치마선을 넘어 고이 잠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뉘없이 바라보다가 순간 뿔어 오르는 욕정을 참으려고 불타(佛陀)의 세계를 그려보려 애썼고, 백팔번뇌의 상징이기도 한 염주알을 급히 굴리며 눈을 감고 부처님을 그려보려고도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스님은 끝내 잠든 여인의 몸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앉으며 의연히 꾸짖어 이르되 “똑바로 앉으시오. 내가 10여 년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도 일찌기 이런 부도덕한 일이 없었거늘……” 하며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내가 이 학고개를 넘어 오며 이 마을에 범인(凡人)이 아닌 인물이 있음을 알았거늘……” 하였다. 그 이후 스님은 학마를 복판에서 목욕 재계하고 고행을 하였으나 끝내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을 측은히 여겨 죽은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주었고, ‘순결, 우아’를 뜻하는 학고개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 하며 조용히 그리고 참되게 일생을 살아 갔다고 한다. 또한 그 은행나무는 지금은 수백 년이나 묵은 고목이 되어 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서 사랑받고 있으며 마을 한 가운데에 우뚝 솟아 학고개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③ 왕자봉

• 소재지 : 안중면 삼정리

안중면 삼정리에 왕자봉으로 불리는 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왕자봉이 있으니 삼정승이야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왜장 가등청정이 산허리를 끊어놓아 정승이 나오지 못하였다고 하며 산허리를 끊을 때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왕자봉 중간에는 폭 패인 자리가 남아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또 산에는 흰 돌맹이가 현덕면 광덕 쪽을 바라보고 박혀있어 그 쪽 처녀들이 바람이 났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8) 중앙동

① 이충동 유허지비

• 소재지 : 중앙동

이충동 동령부락 서편 산에 있는 이 비는 조선시대 중기의 선비 조광조, 오달제가 머물렀던 동네임을 증거하는 기념비로 1800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비에는 영험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야기의 구성은 알 수 없고 그 개요만 알 수 있다. 1800년에 진위유림이 이 비를 세우기로 허가를 받아 비를 만들어 마차에 싣고 마을로 들어 올 때라 한다. 본래 비를 이충리 조광조의 옛 집터에 세우려고 가는 도중 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울어대기만 하였다. 마부가 계속 채찍질하였으나 꼼짝하지 않았기에 선비들이 그 일대를 조사해 보았더니 말이 멈춘 자리 동편 아래쪽이 오달제의 집터가 있었던 곳이었다. 결국 선비들은 하늘의 뜻이 이 곳에 비를 세움이라 하여 유허지비를 내려 세웠다고 전하여 온다.

이와같이 범상치 않게 세워진 비석이기에 후일 옛 토속신앙의 형태인 소원성취석으로 쓰이게 되었으니, 비의 앞에서 소원을 빌거나 비의 머리에 돌을 올려 놓고 소원을 비는 형태, 소원을 품고 뒤로 돌아서서 돌을 던져 비의 머리에 돌이 없으면 된다는 말 등이 전해오며 주로 아이 못낳는 여인들의 소원성취석으로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지만 비각 안에 초를 켜고 비는 행위가 있는 듯 촛농이 있으며 비 머리에는 돌이 여러 개 얹혀져 있다고 한다.

② 성물백이

• 소재지 : 중앙동 동령리

조선조 때인 1759년경 발행된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의하면 당시에 진위현 송장면 동령리로서 그 이전에 송장현이었을 때 현의 치소(治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토성이 존재했다 하며 이 토성은 고려 초기부터 전략 요충지로 써왔다 한다.

현재 동령마을 입구(서정리 쪽) 부근에는 암탉골이 있었으며 지금 그곳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암탉골의 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기와 조각이 나오는데 이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동령부락에 큰 부자가 살았었는데 그 부자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고 멀리 떠나게 되었다. 부자가 살던 집은 폐허가 되어 지금 그 잔해가 나온다고 하는데 암탉골 옆에 골짜기가 있어 성물백이라 하는 곳에서는 인근에서 볼 수 없는 커다란(통상 둘레 1m, 가로 1m, 세로 40cm 정도) 주춧돌, 성곽의 돌과 같은 것이 땅 속에서 발굴되고 오래된 기와가 나와 추측하건데 조선조 때 성문이 있지 않았나 하며 골짜기 이름이 성물백이인 것은 서울의 장승백이와 같은 어원으로 보아 성문백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성물백이 골에는 밭농사를 하는 외딴집 한 채 뿐으로 수시로 큰 돌이 나와 깊이 개간을 못하고 텃밭으로만 가꾸

고 있다 한다. 『여지도서』에는 그 당시 동령의 인구는 62호 109명으로 나타나 있어 제법 큰 마을로 볼 수 있으며 지리학적으로도 전략 요충지라 하였으니 바닷물이 동령 앞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해군이 주둔하지 않았나 한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진위현의 호수는 221호였고, 『여지도서』 호수는 1,801호였으며 군대는 세종 때 시위군 10명, 선군 51명으로 보아 『여지도서』 발간 당시 그 8~9배에 해당하는 400여 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니 동령마을의 규모는 매우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옹나무

- 소재지 : 중앙동 장당마을

높이 30m, 둘레 10m, 수령 500년이 되는 옹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는 사람은 벌을 받아서 죽는다는 전설이 있고 지금도 나무를 베다가 만 흔적이 있다.

(9) 서정동

① 아리랑고개

- 소재지 : 서정동 점촌마을

서정동에는 옛 지역에 점촌(店村)이란 마을이 부락산 서편 줄기에 형성되어 있었다. 점촌은 본래 빈촌으로 향아리 굽는 옹기장이들이 모여 살며 향아리를 팔았기에 점촌이라 하였던 곳이다. 점촌의 동북쪽에는 아리랑 고개가 있었으며 이 고개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아리랑 고개 주변에 돈이 있는 부자들이 서넛 모여 살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자손이 많았으나 유독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샘물 앞 박씨 부부만 후손이 없었다. 박씨 부인은 날마다 정한수를 떠 놓고 아들을 기원하였으며 부부간의 금실은 주변의 누구보다 좋았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죽고 말아 홀연 과부가 되어버린 박씨 부인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개가를 결심하여 많은 재산을 탐내는 남자들 중 한 명을 택하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새 남편마저 병을 얻어 죽으니 다시 얻을 수밖에 없었다.

죽은 남편을 이러한 고개 턱에 묻고, 또 새 남편도 그 옆에 묻고, 다시 얻은 남편 역시 죽어서 묻고 하기를 여덟이요 무덤은 아홉이 되었다. 주변의 아낙들은 “무슨 여자의 팔자가 저런지” 하며 수군대고 “저 여자는 색정이 저렇듯 강하여 남자들이

못견디고 죽은 모양이야” 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아홉 남자를 여윈 이 부인은 다시는 남편을 맞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잠시였고 다시 열번째 남자를 맞이하였다. 이에 동네 부인들은 “또 며칠이나 갈까? 애꿎은 남정네 하나 또 죽어 나가겠군” 하며 소곤대었으나 이 부인은 전에처럼 남편이 죽지 않도록 갖은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부인이 병을 얻어 죽게 되었다.

부인이 죽자 열번째의 남편은 앞선 아홉 사내의 무덤 아래 부인의 묘를 쓰고 극진히 장례를 치른 후 상이 끝나자 부인의 재산을 모두 팔아 아리랑 고개를 넘어 떠나버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한다. 아리랑 고개턱에 그 부인의 집터와 샘, 아홉 무덤과 부인의 무덤 및 상석이 있어 전해왔으나 해방이 되던 1945년경 주민들이 상석을 깨어버리고 도시 계획에 의하여 점촌의 웅기마을이 없어지면서 이 또한 흔적이 없어졌지만 복없는 여자와 아홉 남자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하여 여자의 행복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10) 송탄동

① 엄나무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하리

둘레 1m, 수령 500년의 엄나무는 성황나무로서 길손들이 정성을 드리고 또 일설에는 이 도령이 이 고개를 넘어 한양을 갔다고 하며 지나는 사람들은 정성의 표시로 돌 3개를 주워서 나무에 던졌다고 한다.

② 향나무

- 소재지 : 송탄동 모곡마을

높이 15m, 둘레 2m, 수령 400년이 넘는 향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본 부락에 처음 낙향한 이헌방이 심었다고 한다.

③ 느티나무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사창이골에 있는 높이 20m, 둘레 2m, 수령 700년의 느티나무는 옛날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이 느티나무에다 뱃줄을 묶었다 한다. 이곳의 흙은 갯벌흙이다.

④ 향나무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하리부락에 높이 20m, 둘레 2m, 수령 200년이 넘는 팽나무가 있는데 부락민들이 고사떡을 가져다 놓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⑤ 빈대바위와 파계승

- 소재지 : 송탄동 장안리 대수골

빈대바위는 부락산 동편 소골봉 기슭에 자리한 반구형의 돌출된 바위를 일컫는다. 높이 5m, 폭 7~8m의 반구형 바위는 500여년 전에 이곳에 작은 절이 있었다는데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빈대바위를 중심으로 작은 약수터가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 절이 있어 스님이 거처하였는데 엄불보다는 갯밥이라는 말처럼 타락의 길로 가는 파계승이었다. 계울을 어기는 수도승을 훈계하려는 부처의 뜻은 절 뒤 바위에서 빈대가 나오게 하여 괴롭힘을 주었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 견디다 못한 수도승은 파계를 하고 절을 떠났다. 그 뒤 절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아 사람들은 '빈대바위'라 이름하여 부르며 이 바위가 영험한 것이라 보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바위주변에는 서낭목이 있고 측면으로 소골봉에 오르는 100여 개의 돌계단이 있으며 봉우리 정상에는 무속신앙의 일환으로 보이는 돌탑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정상부근에 넓은 공터가 있어 매년 추석에 소골·동막·장안마을의 주민이 모여 씨름, 햇불놀이, 달맞이 등의 행사를 했었다고 전한다.

현대에 이르러 이곳은 무속인들의 발걸음이 잦아 무속신앙의 터전이 되었는데, 바위 주변은 약수터와 함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1987년 4월 13일에 '허씨'가 만들었다고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다. 간헐적으로 만신들이 수양하고 굿도 한다는 빈대바위 주변은 검게 그을린 바위, 낙루된 촛농 등이 많으며 서낭목인 참나무 고목에는 청·홍색의 띠가 매어져 있다. 빈대바위 서편 아래로 20m쯤에는 은혜여자중학교가 이전하여 자리하고 있다.

⑥ 애마총(愛馬塚)의 전설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갑골

애마총의 전설은 조선시대 명장인 원균(元均: 1540~1597)과 연관되어 내려오며

실제로 원균의 묘 봉분 아래 동편으로 자리잡은 말 무덤에 대한 이야기다. 임진왜란 당시의 명장 원균은 경상우수사·충청병사·삼도통제사 등을 지내고 정유재란 시 칠천도 해전에서 전사하는데 그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애마는 『선조실록』에 2회 등장한다.

첫째는 1594년(선조 27) 12월 1일 원균은 경상우수사에서 충청병마절도사로 전임을 하였고 진영에 좋은 말이 없어 임금께 내려주길 원하였다. 이에 선조 인금은 승정원에 명하여 말을 보내는데 1595년 4월 을미조에 보면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이르기를 원균이 장계를 보내 전마(戰馬)를 얻고자 함이라. 이제 내구마(內廐馬) 두 필을 보내어 한 필은 원균에게 주고 한 필은 영중(營中)에 두어 전투용으로 쓰게 하라 하시었다” 라고 되어 있어 원균의 애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1596년 7월 9일 충청병사에서 전라좌도병마절도사로 전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왕이 원균에게 하교하기를, “경이 국가를 위하여 진력하는 충성은 고금에 그 예를 비길데 없으니 내가 이를 일찍이 가상하게 여기었으나 아직 그 보답을 못하였던 터라. 이제 그대를 멀리 떠나 보내면서 친히 보내고자 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뜻대로 못하노라” 하시고 특별히 궁중에서 타시던 명마 한 필을 내어 주셨다. 원균은 이에 감복하고 이 말을 아끼고 사랑함이 애뜻하였다고 하는데 애마총의 전설은 원균의 애마 중 두 번째로 왕에게 하사 받은 명마에게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596년 말 적의 재침이 예견되자 조정에서는 바다의 취약점을 들어 원균이 수군 장으로서의 역할이 컸음을 생각하여 1597년 1월 25일 이순신은 전라·충청도 통제사로, 원균은 경상우도수군절도사 경상도통제사로 임명하였다. 이후 경상도 통제사인 원균은 이순신이 죄를 입어 전라도 통제사에서 물러나자 삼도통제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3월 왜적이 재침하고 수군과 육군은 경상도 육·해에서 접전을 하는 가운데 왜적은 우리 수군의 강병함을 임진왜란 시 익히 아는 바 거짓 정보로 아군을 교란하면서 수군의 괴멸을 노렸다. 적 첩자 요시라의 거짓 정보에 흔들린 조정에서는 도원수 권율에게 명하고 남이공(南以恭)을 파견하여 수군의 부산진 공격을 명하였으나 원균은 적의 간계에 걸려들게 됨을 우려하며 배후의 적인 육지에 숨어든 적병을 육군이 섬멸하여 바다로 내어보내기 전에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독축이 심화되자 원균·이억기·최호 등 수군 장수 들은 “조정의 명령을 어기면 세 사람이 죽으나 명령을 따르면 나라 일에 크게 육된다”고 개탄하면서도 도원수의 독려에 어쩔 수 없이 출병하여 100여척의 함대로 가덕도 앞 바다에 진출한다.

7월 8일 웅천에서 적선 10여척을 섬멸하였으나 적의 척후에 의해 적의 증원대가

밀려오자 영등포로 후퇴하는데 적은 가벼운 배로 복병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고전하였다. 7월 16일 우군 진영을 공격한 적의 대군으로 인해 아군은 후퇴와 혼란을 거듭하고 원군은 칠천도로 물러나고 전의를 상실한 아군의 형세에 적은 육지로 상륙한 원군을 공격하니 원군은 적병에 에워싸여 전사하였다.

원군의 죽음을 병영에 있던 애마가 느끼고는 그가 신었던 신발과 담뱃대를 입에 물고 천리길을 달려 생가에 도착하여 신발과 담뱃대를 놓고 크게 울면서 그 자리에 죽어 넘어졌다. 이에 그의 죽음을 알게 되고 영특한 말을 고이 안장하여 그 뉘를 달래게 되었다고 하며 말이 죽은 자리를 '울음밭'이라 하고, 말이 문힌 무덤을 '애마총'이라 하였으니 후일 묘역이 조성될 때 장군묘의 아래 부분에 말무덤을 옮겨 오늘에 이른다.

㉑ 이여송(李如松)과 빈터고개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덕암산 서편 능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인해 명나라 군대가 지원될 때에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으로 4만의 병력을 인솔하여 제독으로서 들어온 이여송(?~1598)은 본래 강계사람으로 철령위로 도망간 이성량의 아들로써, 한국인이면서도 중국의 장수가 되어 왜침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이여송이 경기도에 들어서서 칠원을 거쳐 도일리에 주둔하여 잠시 쉬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이여송은 덕암산·천덕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세가 수려하고 가히 장군이 나올 곳이라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삼남대로를 끊음으로써 장군의 태어남을 막아야겠다”고 하며 군졸을 시켜 산맥을 끊고 길을 만들어 가며 한양으로 회군하였다.

이여송이 넘어간 후 마을 사람들이 가 보니 높은 고개가 생기고 그 마루턱은 평평한 빈터가 되어 이 고개를 주민들이 빈터고개라 불렀고 이 길은 진위면 은산리로 이어지는데 이 고개 양 옆은 절벽처럼 되어 있고 좌측으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자라나 지나는 사람들의 성황목(城隍木)이 되어서 무수한 돌이 나무 밑에 쌓여 있었다. 후일 사람들은 명장(明將) 이여송이 1598년 명의 북방 토번(오랑캐)과의 싸움에서 제명에 못살고 전사한 것은 조선에서의 업보를 받았기 때문에 단명한 것이라 말한다.

빈터고개는 지금은 작은 산길에 불과하며 오르는 길은 안골을 통하는데 비교적 험악하고 길의 정상을 넘으면 골짜기를 따라 잡목이 우거진 산길로 내려가게 된다.

㉔ 옥관자정(玉貫子井)과 칠원리

• 소재지 : 송탄동 칠원마을

옥관자정은 삼남대로가 지나는 칠원마을 도로변에 위치한다. 칠원(七院)은 옛 지명이 갈원(葛院)으로 첩이 많아 갈원이라 했다는데 갈왕골이라고도 하며 일찌기 역원(驛院)으로 충청도를 들기 전 말을 바꾸거나 쉬게하고 서울로부터 1일 행로에 들던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누구나 옥관자정에서 물 한 모금 청하기 마련이었다.

조선 인조시대(1623~1649)의 이야기가 이 우물을 옥관자라 부르게 하여 통상 옥관자정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옥수정(玉水井)이라고 하기도 한다. 관자(貫子)란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관직에 나갈 때 망건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3품 당하관은 대모(玳瑁 또는 黑角), 정·종 1품은 환옥관자를 다는 구분이 있었다.

칠원 옥관자정 유래는, 인조시대 왕이 팔도를 순례하기 위하여 남행(南行)할 때 칠원에 도착하여 관원에게 물을 떠오라 시키니 즉시 옥수정의 물을 떠서 올렸고 왕은 그 물맛이 뛰어나서 극구 경탄하며 우물에게 벼슬의 호칭을 뜻하는 옥관자를 내리고 옥관자정으로 고쳐부르게 하였다고 전함에 있다. 옥관자정은 인근에서 가장 물맛이 좋아 '일—칠원의 옥관자정, 이—제역의 박우물, 삼—석정의 돌우물' 이라는 말의 으뜸을 차지하고 400여 년의 풍상에 견디며 오늘에 이른다.

한편 칠원마을이 갈원에서 칠원이 된다는 역시 왕의 순례와 관계가 있어 마을이 빈번한 교통지에 위치함을 알게한다. 『여지도서』에도 갈원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팔도 순례시 갈원에서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그 만 병이나 그 원인을 추구하니 첩으로 인한 것이라 하였다. 다음날 일어난 왕은 마을명이 첩 '갈' 자를 쓴 갈원이라 했던 것을 고쳐 칠원이라 부르라고 명을 내려 칠원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곱 칠(七)을 쓴 이유는 전하는 바 없으나 당시 한양에서 칠원에 이르는 노정(路程)을 보면 한양-배다리-조기정-매교-떡전거리-오미진-진위읍-칠원으로 보아 일곱 번째 휴식처로 볼 수 있어 왕의 행로가 삼남대로상 위와 같이 되어 칠원이라 한 것 같다. 칠원마을은 왕들의 행적에 연관된 이야기와 실제적 유적인 옥관자정이 함께하여 그 의미가 큰 곳이다.

10 콩나물 샘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리 안말

도일리 안말은 내리저수지를 끼고 돌아 들어가 덕암산 기슭에 있다. 4~5호의 집이 있는 이곳에는 조선 선조 때의 장군인 원균 생가 터가 있고 그의 동생으로 삭주 도호부사를 역임한 인조 때의 인물 원전의 집이 실존하고 있는데 콩나물 샘은 원전의 집 앞에 있는 작은 웅덩이를 말한다. 논이 웅덩이로 보이는 이 샘이 콩나물 샘으로 불리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예전에는 논이 함께하지 않고 그냥 샘으로만 있었는데 주변의 아낙네들은 나물이나 쌀을 씻는 곳으로 이 웅덩이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는 항상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 풍수에 능한 사람들을 데려와 물어본 즉, 산너머 진위현·읍을 지나는 장호천에서 콩나물을 씻는 중에 떠내려 오던 콩나물이 산 밑 수로를 통해 이곳까지 와서 솟아 올라 콩나물 샘이 되었다고 하여 이후 콩나물 샘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뒤에 사시사철 마르는 법이 없는 이 샘으로 인해 샘 주위가 화전으로 개발되어 논이 한 편에 위치하게 되었다. 샘 옆으로 원전 장군이 말을 타고 내릴 때 던었다는 하마석이 있고 말 고삐를 매던 나무가 존재하며 그의 집 뒤로는 400년 수령의 모과 나무 한 그루만 풍상을 견디며 아직도 향내를 뿜고 있다.

11 칠원리 은행나무 설화

· 소재지 : 송탄동 칠원리

때는 1940년경 일제 압박 통치로 우리 백성이 수난을 당하던 시기였다. 당시 칠원마을은 꽤 번성한 곳으로서 안성과 평택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주막이 형성되고 일제의 분치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1919년 삼일운동 때는 이승훈 투사 등이 만세를 불렀고 군중을 모아 원곡면 주재소, 면사무소를 습격하려 움직였던 곳이다.

이 마을엔 수백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을 남쪽 서편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 나무의 수세는 잔가지가 평지에 닿고 큰 가지가 평상처럼 퍼져 있어 동리 노인들은 그 위에 장기판을 얹어 놓고 한담(閑談)을 주고 받았었다 하는데 이 나무가 1940년경에 베어 없어지면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괴이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은행나무가 있던 산의 주인은 박씨였는데 부자였던 일본인 나까야마에게 산을 팔아 버렸으며 일본인 나까야마는 산을 사고난 후 산 주위에 담을 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하여 주민의 원성을 샀으며 더욱이 은행나무 휴식처를 사용못하게 베어서

자신의 집에 가구로 쓰겠다고 호언하였다.

이윽고 주민들에게 품삯을 넉넉히 줄터이니 모여서 은행나무를 베자고 하니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귀신불은 성황나무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만지고 아끼던 나무를 내 손으로 베어 넘길 수 없다”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까야마는 “조센진들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고, “네놈들 아니면 일할 놈 없을까?” 하며 타 동네의 사람들을 사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연장을 빌려주지 않자 연장도 사왔으나 감히 일꾼들을 먹이고 채워줄 집도 나서지 않아 나까야마는 주재소에 의뢰하여 왜 경이 은행나무 옆 이씨 집에 일을 시켜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무를 베어 공터에 쌓으니 산더미 같았고 그 뿌리는 도저히 제거하지 못하여 작업을 마친 후 큰 둥치는 나까야마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방치하였는데 여기서 이번이 발생한 것이다. 일꾼들의 밥을 내었던 이씨 집안의 장손이 시름시름 앓다가 미쳐버렸고, 타 동네에서 작업했던 인부들은 병어리가 되었으며, 잘라서 방치된 나무를 집어다 빨감으로 쓴 사람의 아이들이 장님이 되어버려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또한 일본인 나까야마는 차츰 차츰 몰락하여 해방되던 해 상거지꼴로 쫓겨나고 말았다 한다. 그러나 은행나무의 변괴는 계속되어 나무 옆 집인 이씨는 끝내 이사하고 타인이 들어와 살 때 잠시만 사람이 비어도 빈 집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후일담이지만 은행나무에도 신령이 있었다고 주민은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은행나무는 수나무로서 평택 재령-비전동 재랭이고개-에 암은행 나무가 있어 서로 짝을 했다고 하니 수십리 밖의 나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큰 나무였음이 상기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12 풍년나무의 설화

• 소재지 : 송탄동 가재마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에 가재마을 입구에 커다란 아름다리 풍년나무가 있었다 하는데 이 나무는 매년 농사철이 시작될 때면 마을 주민들에게 풍년의 여부를 알려주었다 한다. 주민들이 들에 나갈 때마다 쳐다보고 잎이 무성하길 빌며 또한 무성하면 풍년이라 좋아하며 일을 나갔다 하며, 매년 어김없이 이 나무의 예견이 들어맞아 주민들은 신령한 나무로 보호하였다. 그리고 모르는 이들이 이 나무를 손대면 동티(탈)가 난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30년전 쯤 이 마을에 이주한 김해김씨는 은근히 나무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날 나무에 손상을 입혔다 하며 이로 인해서인지 자연히 시들어가던 풍년나무는 20여년전 완전히 고사하여 그 자취가 없어졌으며 나무를 손상시킨 김씨는 수 년간 정신병을 앓다 죽었다

하니 주민들은 나무의 신령을 다쳐서 그렇다 한다.

13 쌍우물과 쌍범굴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상리

송탄동 상리마을 앞 산으로 부엉바위산 또는 범바위산으로 일컫는 곳이 있으며 이 산의 지명에 비추어 전하는 유래는 여러 가지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엉바위산은 산세가 바위로 이루어진 험산으로 부엉이가 많이 살기 때문에 불려진 지명으로 부엉이 '휴' 자를 써서 휴암산으로 표기했다고 한다. 또 이 부엉바위산의 정상에는 두 개의 큰 샘이 있어 그 밑으로 넘쳐 흐르며 항상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하고 중턱에는 쌍범굴이라 하여 범이 살던 굴이 있는데 이 굴의 입구에서 연기를 불어 넣으면 진위면 방향의 산에서 새어 나간다는 말도 전하고 있어 신비를 더해 준다고 한다.

14 정골 비화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리 솔골

조선 중기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공신책록이 끝난 다음에 1624년 공신 중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그 혼란이 극에 달할 때 도일리 안골에는 원만주라는 토호(土豪)가 있었는데 그 인물은 재산이 많았고 덕이 후하여 인근에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의 정치는 문관들은 크게 득세하고 반정 공신의 큰 비중이었던 무관들은 천시되어 이괄의 반란으로 인심이 흉흉하던 때였다. 평소 이괄을 흠모하던 원만주는 인근 이·박·김씨 등 72개 성씨들의 지지를 받아 역모를 꾀하게 되었다. 그는 군자금을 만들 요량으로 정골에 가마(용광로)를 설치하고 술을 만들어 파는 한편, 병장기를 만들고 군막을 지어 군량미를 모으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이괄의 반란이 한양·평택·이천 지역을 거치다 진압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72개 성씨 중 두려움에 휩싸인 한 성씨가 조정에 밀고하여 나라 쇠신의 기치를 세웠던 이 일은 추진 과정에서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노적가리를 집 앞에 쌓으면 앞 동산과 버금간다던 원만주는 이후 멸문지화(滅門之禍)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에 들었고 그의 선대 묘는 산산이 파헤쳐져 처참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주민들의 말로는 그 일족이 전남지방에 산다고 전한다.

안골의 북편 산기슭의 파묘 2기가 원만주의 선대 묘자리라 하는데, 도굴이 된 것인지 묘혈만 크게 파여져 있고 묘 앞 상석의 잔해가, 우측 아래로 망주석·동지석

이, 좌측 아래로 망주석이 땅에 반쯤 묻혀져 있다. 흩어져 있는 동자석을 애기보살로 모시려고 가져갔던 어떤 무당은 영험은 없고 재수가 없어 부정이 들어 도로 제 자리에 갖다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듯이, 아무도 손대는 이가 없어 버려진 동자석·망주석 등은 한 일가의 비운을 말해주며 흐르는 시간의 무상함이 정골 용광로 자리의 흔적으로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무쇠 조각들에 의해 느껴진다. 밭으로 일궈지다 버려진 정골의 용광로 터는 수 년전까지만 하여도 또 다른 이야기를 지녔으니 부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골의 무쇠 조각을 주워다 갈아서 먹으면 낫는다고 전하였다고 한다.

15) 옷우물

• 소재지 : 송탄동 도일마을 상리 팔룡산 기슭

옷우물은 도일리의 마을 역사와 연륜이 같다(약 1천 년)고 하며 이 우물은 본래 상·하 두 개로 위 옷우물·아래 옷우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 원로들의 이야기로는 주변 산에서 옷이 옴으면 아래 옷우물에서 목욕하고 위 옷우물의 물을 떠서 먹어야 나았다고 한다. 뒷편 팔룡산은 여덟 용이 승천한 산이라 하여 산 정상 아래 작은 샘이 솟으며 가뭄에도 물이 줄지않는다는 얘기가 전하듯, 그 정기가 높아 옷우물도 약수로서 그 효용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약수 위에 '약천사'라는 사찰이 세워져 절을 찾는 신도들에 의해 옷우물의 물맛이 알려지자 인근 평택시 주민들이 즐겨 떠 간다고 한다.

본래 두 개였던 우물 중 아래 우물은 농지를 개간하면서 길 옆 웅덩이로 전락하였다가 메워졌고 약천사의 식수원이 되는 위 옷우물만이 남아 있다. 위 옷우물은 약천사에서 깨끗이 관리하며 우물 위에 신도가 세운 우물신 숭상의 비가 하나 있는데 비의 앞면 좌·우로 '우보처화수 길용왕(右補處和修 吉龍王) 좌보처사갈 나용왕(左補處沙竭 羅龍王)'이라 각인되어 있고, 중앙에는 '남무리탁열 보생환정신(南無離 濯熱 保生歡井神)'이라 되어있었으며, 8하단 기석에는 '시주 건명 경자생 김재철 보체(施主 乾命 庚子生 金在七 保體)'라 써있다.

16) 역마바위

• 소재지 : 송탄동 장안리 중봉

장안리에서 동쪽으로 1km쯤 가면 길 남쪽으로 중봉이란 산을 찾을 수 있다. 산을 북편 기슭에서 8부 능선까지 올라 좌편으로 살피면 약간 돌출된 가로 1m, 세로

70cm 정도의 바위를 보게 된다. 바위 중앙부는 직경 10cm 정도의 원형 홈이 있으며 그 형태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같이 말발굽형이라 할 것이나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바위가 지닌 이야기는 옛적에 한 장군이 있어, 그가 무술을 연마하고 말을 달릴때에 지금의 부락산(佛鶴山, 負樂山 등으로 『진위현지』·『군지』·『각 문중 족보』 등에 표기하였음)에서 말이 뛰어 중봉 산록에 내리니 말의 발굽이 바위에 찍혀 움푹 패었고 그때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 온다고 한다.

(11) 송북동

① 오리골과 맹정승

• 소재지 : 송북동 오리골

진위현·읍지의 신증(新增)편에 나오는 인침담(印沈潭)에 대한 설명이 이 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리골 마을에 전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550여 년전에 나라의 삼정승 중 한분이었던 맹사성(1359~1438)은 고향인 온양에서 한양을 통행할 때 항상 검은 소를 타고 통소를 즐겨 붙여 지났다고 한다. 그는 축지법에 능하여 한양을 쉽게 다녔는데 삼남대로가 지나는 진위현 우곡마을을 통과하기가 다반사였다.

하루는 오리골의 토호인 단양 우씨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매일같이 검은 소를 타고 우리 마을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매 아침마다 재수없는 일이다. 하인을 시켜 왜 검은 소를 타고 가는지 알아보고 쫓아내자”라고 중지를 모았다. 하인이 나가 지키면서 맹정승을 기다렸는데 맹정승이 보이자 따라가기 시작하였으나 너무 빨라 도저히 잡지를 못하였다. 맹정승은 신통하여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흰치재를 넘기 전에 감주거리(송북동 동막 앞)에서 기다리다가 하인들이 다가오자 “너희는 누구데 나를 쫓아왔는가?”라 물었다. 하인이 “우리는 오리골 우씨댁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르길 매일 아침마다 검은 소를 타고 가는 이가 누구며, 왜 불길하게 검은 소를 타는가 알아보라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맹정승은 이에 “맹골 맹정승이 까막소를 타고 한양 좀 다녔기로 웬 참견이냐”고 호통을 쳐 하인들을 돌려보낸 후 심성이 고운 맹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리가 아닌지라 다음부터는 오리골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옆 산을 따라 우회하여 다니니 이때부터 삼남대로의 오리골 길이 인근 오룡동 쪽으로 우회하여 진위로 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로 진위현·읍지 1843년 편에 나오는 인침담 설화를 보면, 인침담은 현 남쪽 5리에 있다하여 지금의 오리골 앞 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맹정승이 온양에 살고 있었는데 한양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 마중하던 원님

들이 허름한 옷차림의 맹정승을 몰라보자 맹정승은 “원님들을 알고 있으나 피곤하여 내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원님들이 놀라 어쩔줄 모르면서 엎드리는데 그 와중에 인신(印信, 관의 관인)이 연못에 떨어져 빠지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 이 후 인신이 빠진 그 연못을 인침담이라 불러왔는데 주변이 논으로 만들어지면서 없어지고 진위현·읍지에만 이야기로 나타난다.

맹사성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비교적 여러 군데서 비슷한 유형으로 발견되는 것이며 오리골과 맹정승에 얽힌 이야기로 구전되는 것은 우리 고장에만 보이는 이야기로, 위의 두 유형이 서로 일맥 상통되는 설화로 볼 수 있어 한데 묶어 내었다.

② 풀무골의 설화

- 소재지 : 송북동 부락산 북편 골짜기

소골은 그 유래가 두 가지로 대변된다. 하나는 우곡(牛谷)이라 표현하듯 소가 누워있는 지세라 하여 우곡이라는 것이요, 하나는 옛적에 소(蘇)씨가 살고나간 고장이라 하여 소골이라 한다는 것인데 후자의 소씨 설에 대해서는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공민왕 때인 1360년경 소씨 성을 가진 정승이 살고 있었는데 진산소씨로서 주변 골골마다 그를 따르고 숭상하였다. 당시의 고려 조정은 원나라의 지배하에 어지러운 정치와 불교 숭상의 도가 지나쳐 중 신돈을 정치에 같이 참여시키니 신돈은 고려의 혼란함을 개혁하고자 힘쓰고 노비로서 자유민이 되고자 노력한 자는 평민으로 해방시키는 등 많은 인심을 얻어 좋은 평을 들었으나 차츰 공민왕의 신뢰를 얻게 되는데 왕의 행동이 흐트러짐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여 오만함과 방탕한 음행을 일삼으며 평소 적대적이었던 귀족 계급과의 불화가 심화되고 각처에서 양반과 노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극도의 혼란시기가 도래되었다. 이 때 소 정승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부락산 동북쪽 기슭에 위치한 소골은 남북으로 한양과 삼남이 통하며 넓은 평야에 위치한 곳으로서 소 정승이 일찍이 일가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소 정승은 국가의 공록에 힘입어 지방의 토호와 친밀하였고 학식과 덕망이 인근에서 높았던 바 나라의 포악한 정치에 개혁의 소신이 강한 분이였다. 그의 말에 동조하던 주변의 사람들은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이 신돈의 탓이라 하여 그를 처치하고자 모병하고 반란을 꾀하도록 하였다. 이에 소 정승은 부락산 서편 골짜기에 대장간을 차리고 병장기를 만들며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하면서 시기를 기다렸다.

소 정승에게는 한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의 신통함은 평소 앞일을 알고 예언함에 있었다. 이윽고 소 정승은 군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출병할 뜻을 가족에게 밝히니 며느리가 아뢰오기를 “아버님, 벼 한 말을 찢어 쌀 한 말이 나올 때에 출병하시어야 성공할 것이오니 한 번 해보시오소서” 하니, 소 정승은 기꺼워하며 “어찌 벼 한 말이 쌀 한 말이 되라미는 네 말이 신통한지라 한 번 해보도록 하마” 하며 하인을 불러 벼 한 말을 가져다 찢도록 하였다. 하인이 가져온 벼를 찢어보니 8되 7홉이라 소 정승 가로되 하인을 가리키며 “네 이놈, 아무리 벼 한 말을 찢어 아홉되도 안 나오느냐? 네 놈이 뒷박질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며 다시 뒷박질을 하여 오도록 명하니 하인은 다시 광으로 가 넉넉히 담아 벼 한말을 가져왔다. 두 번째로 찢으니 쌀이 9되 7홉이라, 소정승은 며느리를 꾸짖으며 말하길 “어찌 생각하느냐? 과연 벼 한말이 그대로 쌀 한 말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그런 말을 터무니 없이 하여 나의 마음을 홀으리려 하느냐?” 하고는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표로 하여 출병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관군은 사전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였던 바, 일격에 이들을 격파하고 소 정승은 역적으로 잡혀 처형당하였으며 삼족이 멸하는 참화를 입었으며 소 정승의 선산은 파헤침을 당하였다.

관군이 소골에 이르러 소씨 종산의 묘혈을 파고 그 맥을 꿴을 때 갑자기 큰 용이 나와 용트림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손과 발이 없는 용인지라 굶어죽도록 하였으며, 일설에는 소씨 마을 우물에서 뒷다리가 펴지지 않는 소가 나왔다고도 하였다.

후인들은 소 정승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참았더라면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소 정승이 만들었던 대장간 자리는 풀무골이라 칭하고 반란에 실패할 때 소골의 우물엔 병장기와, 모의 때 쓰던 물건을 한꺼번에 넣어 증거인멸을 했었다고 한다. 조선이 개국하고 소 정승 일문도 복위가 가능하게 되어 흩어졌던 후손이 조상의 묘를 복원하니 현재 소골에 소씨는 살지 않으나 묘가 10여기 남아서 이야기를 전해주며 후손들은 매년 9월이면 찾아와 벌초를 하고 선영을 돌보나 소골에 들어와 사는 이는 없다고 한다.

③ 최자반 선생의 효성

• 소재지 : 송북동 소골마을 동편

조선 성종 때 태어나 1519년(중종 14)에 세상을 떠난 최자반 선생은 효자로 알려져 내려온 바, 선생은 수성(隋城)최씨로서 본래 경주김씨 시조 김알지로부터 40대손인 최영규(崔永奎)를 시조로 한 집안의 7세손이다. 경주김씨가 수성최씨로 변한

것은 시조 최영규 공이 고려 고종 때인 1261년에 장원급제하여 서경(평양)유수로 치적을 쌓고, 수주(수원)의 기강이 문란할 때 왕명으로 수주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이 때 백성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으니 왕으로부터 크게 포상받고 성을 최로 갈아 대대로 영광됨이 있도록 명을 받았으며 수성백(隋城伯)의 칭호에 봉해짐으로써 수성 최씨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최자반 공은 명문의 후손으로 태어나 성종으로부터 중종에 이르기까지 난세에 살면서 벼슬에 뜻이 없이 학문에 열중하며 향리에서 고매한 성품을 가꾸어 가신 분이시며 진위 유림의 김모제·백휴암 등과 두터운 교분 속에 향리를 개척하고 부모에 효도함이 정성된 분으로서 공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 내려오면서 만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공의 부친은 최윤신(崔潤身)으로 그 또한 일찍이 진사과에 급제 후 벼슬을 탐함없이 수양하시던 분으로 후학의 배출에 일생을 보내시다가 수(壽)를 다하시고 홀연히 타계하였으며, 1483년(성종 14)에 통훈대부·사헌부집의 벼슬을 받았고 증직은 통정대부·이조참의였다. 공은 부친이 돌아가자 진위 동편 소골말 불학산(佛鶴山, 현재의 부락산) 기슭에 모시고 6년간 시묘를 결심하여 산막을 짓고 조석으로 부친을 공경하며 애도하였는데, 험난한 산 속에 온갖 짐승들의 위협은 물론 마실 물 조차도 구하기 힘들었다 한다. 시묘를 시작한 지 백 일이 지날 무렵 공이 저녁 공양을 끝내고 잠이 들었을 때에 홀연 꿈을 꾸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 부르며 “너의 효성이 너무도 지극하고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지냄이 보기 딱하여 조그만 도움이 될까하여 네게 물을 주노니 조석으로 정수를 올리고 기갈을 면하도록 하여라” 하여, 공은 “뉘옵신데 그렇듯 말하십니까?” 하니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신령으로 너의 효성에 감복하여 현몽한 것이다” 하고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졌다. 공은 수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잠이 깨어 꿈 속의 말대로 움막 앞의 땅을 손으로 파니 맑은 샘물이 흘러나왔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어디선가 학 한 쌍이 날아와 주변 소나무에 등지를 틀고 울어대며 노니는데 공이 가까이 가도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지라 학과 벗삼아 더욱 시묘에 정성을 쏟았다.

이윽고 삼 년의 시묘를 마치고 다시 삼 년을 거하고자 할 때 돌연히 몸에 오한이 나고 아픔이 오는지라 도저히 시묘를 못할 듯 하여 부친의 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다 기진하였는데 돌연 산신령이 다시 현몽하였다. “자반은 깨어나 들거라. 내가 너의 지극한 효성을 살펴 기특히 여겨서 네게 이 회생환을 주노니 이를 복용하고 차후의 시묘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병도 낮고 온갖 뱀과 개미가 근접하지 못할 것이며 온갖 질병도 없으리라” 하고 사라졌다. 공이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로 손에 환약 세 알이 있어 즉시 복용하였더니 아픈 것이 낫게 되었

다. 이후 공은 6년간의 시묘살이를 마치며 움막을 헐고 부친께 인사 후 내려갈제 학이 길고 슬프게 울며 하늘로 비상하여 사라지고 샘이 용출을 끝내고 말라버리니 하늘도 공의 효성을 돌보아 주셨음을 알게 하는 일이었다. 이 때에 학이 살았던 봉우리는 동실봉이라하여 학의 먹이인 오동나무 열매가 열렸던 봉우리란 뜻으로 부르고 있으며, 공이 개척하고 살았던 마을은 '오좌동(梧左洞)'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은 오좌동을 가꾸어 후손 대대로 번성할 터전으로 꾸미고자 수십 주의 은행나무, 향나무를 심었으며 샘을 파서 식수를 개발하고 진위 유림의 학자들과 교분을 두텁게 가지시다가 기묘사화(1519년, 중종 14), 신사무옥(1521년)이 일어나 친하던 사림학자들이 처형되자 세상의 덧없음을 통탄하시고 자손들과 후학의 배출에 노력하였으며 이윽고 수가 다 되시자 돌아가시니 나라에서 그의 효성을 기리고 그의 손 최희효는 출세하여 정헌대부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오좌동 선영으로 하였다.

오늘날 수성 최씨는 송탄지역 전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④ 왕재의 유래

- 소재지 : 송북동 오좌동 마을

조선시대 1509년(중종 4)에서 1589년(선조 22)까지 사셨던 최희효(崔希孝)란 분에 얽힌 이야기로 그는 일찌기 부친을 잃어 부친상을 모시길 지성으로 하다 1531년(중종 26)에 무과에 급제하여 정주판관, 선천판관, 부령부사 등을 지냈으며 경상좌수사를 거쳐 전라우수사로 계실 때 왜선 3척이 바다에 있음을 수상히 여겨 정탐하니 명나라에 가서 노략질한 것임을 알게 되어 왜선을 나포하고 200여 인을 생포하여 명나라에 보낸 바 명의 황제가 하례하여 포상하였다. 후일 안주목사를 거쳐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는데 무관이라 업신여기는 것을 탁월한 문장과 덕행으로 누르고 돌아오니 왕이 기뻐하여 충청병마절도사를 제수하였는데 돌연 병을 얻어 낙향하여 오좌동에 기거하다 1589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왕께서 슬퍼하시고 직접 권을 장군을 예관(禮官)으로 하명하여 봉표치제(封表致祭)하게 하였다. 이 때에 묘소 후면의 산봉우리를 왕의 사신이 넘어와 왕명을 하달하였다 하여 그 산봉을 왕재라 칭하였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진다.

(12) 신장1동

① 제역마을과 경포산인

• 소재지 : 신장 1동 남산터

신장 1동은 시 승격 전에는 제역이라 불리웠다. 제역이란 조선 시대에 부역을 면제한 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에 한 정승에 얽힌 이야기가 전하여 내려 오고 있다.

조선시대인 성종 때 인물로 최수성(崔壽城: 1487~1521)이란 분이 있었는데, 호는 원정(猿亭)이요, 북해거사(北海居士), 경포산인(鏡浦山人)으로 불리웠던 선비로서 강릉 최씨였다. 이 분은 8세 때 진위현으로 이주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원산(猿山)에 정자를 만들어 원승이를 벗하여 기거하면서 스스로 호를 원정이라 하며 진위 유림의 학자들과 시론하며 지내셨다. 최정승은 9세 때 문예적 기질이 높아 주변의 칭송을 받았으며, 19세에 명산을 두루 살피시고 경륜을 높였으니 그분의 그림은 왜인들이 매우 감탄하여 탐내어도 구할 수 없었다 한다. 그러나 최정승이 벼슬에 뜻이 없이 지냄은 연산군의 폭정에 실망하고 이어 중종 때에 사림과 학자들이 점차 득세하고 정치를 잘 주도하나, 귀족간의 시시비비와 당쟁이 조장됨에 회의적이어서 세상을 덧없이 보는 한 분 도인으로 살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평소 조광조 등 사림 학자와의 왕래가 있어 1519년(중종 14)에 있었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를 뻔 하였으나 다행히 벼슬이 없어 이를 면하였고, 관직이나 세상에 뜻을 버리고 후학을 키우며 명산을 순례하며 문예에 정진하였다. 그러나 1521년(중종 16) 신사무옥(辛巳誣獄)이 일어나고 이에 연루시킨 간신의 모함을 받아 10월 21일 향리에서 참형을 받으셨다. 공이 참수되던 때 천지가 수백 리에 걸쳐 진동하고, 사흘 밤낮으로 피비가 끊이지 않고 내려 그의 죽음을 하늘이 슬퍼하였다고 한다.

1538년(중종 33)에 기묘사화로 죽은 이를 용서하였으며, 1540년에 공의 누명을 벗겨주고 증직으로 의정부 좌찬성, 판의금부사에 봉사하였으며, 1545년(인종 원년)에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文正)으로 내려졌다. 공의 묘는 진위현 원산에 있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받들게 하였다.

1568년(선조 1) 4월 조광조는 복관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이 후 이이(이율곡: 1536~1584)선생이 최정승의 학문을 깊이 흠모하여 왕계 간하여 공의 묘를 수호하고 잘 시묘토록 주변 10리 안에 마을 주민의 부역(賦役)을 면하도록 하였으니 이 때부터 인근 10리 안의 마을을 제역(除役)마을이라 불렀으며, 근대에까지 최정승의

묘가 있었으나 1950년대에 주변에 비행장이 들어서게 되어 강릉최씨 문중에서 이장하였다. 송탄에는 공의 후손이 남아있고 강릉최씨 진위파로서 일맥을 잇고 있다.

(13) 신평동

① 몰왜보(沒倭澳)와 청망평(淸亡坪)의 유래

- 소재지 : 신평동 상유천리

상유천리(上柳川里) 상단부와 안성천을 중심으로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는 몰왜보와 청망평이라는 들이 있다. 이 두 곳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유래가 간직되어 있다.

국립지리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 1894년(고종 31) 6월 호남, 호서의 동학교도에 의하여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친진조약에 의해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각각 우리나라에 상륙케 되었고 7월 하순에는 청일전쟁이 일어 나게 되었다.

몰왜보는 일명 군두보(群頭澳)라고도 하는 데 안성천을 막아 평야에 물을 대기 위한 것으로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대위 송기가 일개 중대를 이끌고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이 보에서 몰살되어 몰왜보라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왜군이 몰살한 보라는 뜻이다.

청망평은 일명 청망잇뜰이라고도 하는 큰 들판으로, 청나라 제독 엽지초가 몰왜보에서 일본군대를 섬멸한 후 월봉산에 진을 쳤는데 일본군이 적은 군대로 북쪽 사들판에 진을 쳐서 청군에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놓고 몰래 밤을 타서 대군을 몰아 청군을 포위한 뒤 새벽밥을 먹는 청군을 들이쳐서 청군이 크게 패하였으므로 청군이 망한 평야라 하여 청망평이라 한다.

(14) 비전동

① 괴암에 서린 전설(장수바위)

- 소재지 : 비전동

매봉산에는 높이 1m, 둘레 10m가 되는 장수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옛날 어떤 장수가 지나가다가 쉬어 갔다는 전설이 있다.

② 은행나무

• 소재지 : 비전동

천주교 성당 뒤에 높이 15m, 둘레 4m, 수령 1250년이 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곳에 사는 김학철의 고증에 의하면 50년 전 일본 식물학자의 판정 결과 1200년 이상된 수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당시의 나무는 30m 이상이었는데 음력 5월 단오날에 그네를 매고 그네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나서 나무의 상단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하며 그 전에는 벼락을 맞아 탄 적도 있다고 한다.

(14) 세교동

① 엄나무와 돌부처

• 소재지 : 세교동 지제마을

마을 뒤로 20m쯤 올라 가면 4그루의 엄나무가 있다. 약 100여 년생으로 불만한 것 3그루와 50년생 1그루가 있다. 이 나무들 2m 앞에는 높이 1m의 돌부처가 1개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으며,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히 모른다.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엄나무 혹은 돌부처를 건드리면 아랫 마을의 여자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이 산을 향해 올라 왔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이 여자들을 바람난 여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바람난 여자들 때문에 속을 썩여온 사람들이 엄나무와 돌부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지냈다. 어느 날 어떤 대사가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돌부처 앞의 무덤을 파헤쳐 보았다. 무엇인가 기대를 하였으나 시체밖에 나온 것이 없었다. 대사는 부처와 나무에게 정성을 드린 후에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이 나무와 돌부처를 건드리지 마시오”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엄나무와 돌 부처는 존재하고, 모든 나무를 벌목하여 팔았으나 바람나는 여자들을 걱정하여 이 엄나무는 보존하고 있다.

② 해나무

• 소재지 : 세교동 지제마을

부락 중앙에 높이 20m, 둘레 4m, 수령 300년의 해나무가 있는데 예전에 이 해나무가 꽃이 활짝 피고 아래에 꽃이 피지 않으면 물이 귀해서 아래 마을은 물을 못 대

- 장비(張飛)는 만나면 싸움
- 송도(松都) 말년(末年)에 불가살이
- 양천현감(楊川縣監) 죽은 말 지키듯
- 아산(牙山)이 깨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 평양감사(平壤監司)도 저 싫으면 그만

어떤 표현이 하나의 속담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속담은 한 개인의 비유의 발언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발한 착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저 우연히 어떤 사건을 묘사,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어구가 새로운 사례에 다시 적용될 때 그것을 이해한 언어대중이 그 묘사의 적절함에 경이와 쾌감을 느껴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어구는 속담으로 정착하지 못한다. 또 공감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어구는 아직 좀 더 다듬어져야 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인용이 될 만큼 사회적 보편성을 그 의미 내용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보다는 더 다듬어지면서 공감을 느끼는 언어대중에 의해 거듭하여 인용되었을 때, 그것은 속담의 자격을 갖추고 언어사회에 정착한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다섯 단계를 얻게 된다. ① 특수사례의 발생, ② 그 사례의 묘사, ③ 그 묘사의 다듬어짐, ④ 언어대중의 공감과 다시 인용함, ⑤ 어구의 고정화와 전파. 이 다섯 단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속담이 애초에 개인적·구어적(口語的)·특수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사회적·문어적(文語的)·일반적인 것으로 귀결됨으로써 그 언어사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얼굴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은 가끔 정착과정에서 부분적인 변개(變改)를 입기도 하고 엉뚱한 뜻으로 바뀌기도 한다. ‘황정승의 꿩은 계란’이란 속담은 ‘계란유골(鷄卵有骨)’이란 한자표현을 거쳐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굴원(屈原)이 제몹 추듯’은 ‘구렁이 제몹 추듯’이란 중간 단계를 거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란 엉뚱한 속담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앞의 예에서는 ‘계란유골’의 ‘골(骨)’이란 글자의 음차(音借)표기가 뜻풀이로 바뀌면서 일어난 것이고, 나중 예에서는 중국 고대의 시인 굴원이 누구인줄을 모르는 언어대중이 그 이름을 발음이 비슷한 ‘구렁이’로 바꾸면서 일어난 것이다. 흔히 속담은 전근대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생성된 것이며 현재에는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현재에 만들어진 속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된 어구로 정착하지 않았거나 언어대중의 인용사례가 드물

통사적 조화를 보이는 속담은 모두 중문이나 복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긴 형의 속담이다. 수적으로 보면 전체 속담의 10% 안팎에 불과하지만 그 구조적 안정감이 속담의 표준형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다음은 대구를 이루어 통사적 조화를 보이는 예들이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좋은 일에는 남이요, 궂은 일에는 일가라.
- 꿀 먹은 벙어리요, 침 먹은 지네라.
- 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입은 거지는 먹어도, 벼는 거지는 못 먹는다. 〈沈在箕〉

(2) 문학적 형태

속담 연구가들은 대개 밖으로 표출된 형태적 특징을 압운·균제형(均齊型)·간결 등에서 찾고 있으며, 내용적 특징으로 의의(意義)·함미(鹹味) 등을 들고 있다. 속담의 문학적 형태는 시가형(詩歌型) 속담과 설화형(說話型) 속담으로 나타난다. 우선, 시가형 속담을 살펴볼 때 한국속담은 1행으로 되어 있는 간결한 단어형 내지 2구 1행식 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많다. 속담을 분석해보면 8음절이 가장 많고 다음이 9음절·7음절이며 대개 10음절 이내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8음절은 자수율로는 4·4조요, 음보율로는 2음보이다. 이들은 형식상으로 좌우대칭을 취하려는 의식이 강렬하다. 형식 없는 속담은 생존의의를 상실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항시 고정적인 틀 속에서 존재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자수율은 4·4조 외에 3·4조, 5·5조, 6·5조, 6·6조, 7·5조 등이 두루 쓰이고 있다.

- 동무 따라 강남 간다.(4·4조)
- 자는 범 군침 주기(3·4조)
- 금일 충청도 명일 경상도(5·5조)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6·5조)
- 토끼가 죽으니 여우 슬퍼한다.(6·6조)
- 빛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마라.(7·5조)

불러모아 이르기를, “아무라도 이 케 이름과 그 속에 든 쌀 두수(斗數)를 알아맞히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사위를 삼겠다.”고 하였더니 그의 딸이 몰래 어떤 바보 장사치에게 알려주어 응하게 하였다. 그뒤에 사위를 불러 서로 만나게 되니 한다는 첫 인사가 “노목케에 쌀이 오십오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만 알고 변통성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먼저 설화가 생겼고 그 설화에 따른 ‘춘천 토목공’이라는 속담이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선 속담, 후 설화형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는 속담을 들 수 있다.

『송남잡지 松南雜識』에 의하면 향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옛날 게라고 이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마누라가 굴억의 아름다움을 탐내어서 같이 살고자 드디어 자기 남편을 독살했다. 그랬더니 굴억이 말하기를, 사나이는 마땅히 저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으니 나도 친구 따라 죽겠노라며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그 독부는 남편도 굴억도 모두 잃게 되었다. 『송남잡지』를 지은 조재삼(趙在三)의 설대로 ‘구럭’은 ‘그물’의 뜻이 있으니 허황한 이야기를 호사가가 부합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필시 어부속담으로 게 잡으러 갔다가 풍랑 때문에 게도 못 잡고 그물마저 몽땅 잃어버리는 잦은 사건과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속담이다. 그러므로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멧돌 잡으러 갔다가 집돌 잃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속담의 의미구조는 대개 좌우대칭을 이룬 2단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의미의 경중에 따라 주제의미부·부주제의미부·종속의미부로 나눠 볼 때 다섯 가지 기본 유형이 나온다.

$$\textcircled{1} \begin{array}{|c|} \hline a \\ \hline \text{주제의미부}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b \\ \hline \text{종속의미부} \\ \hline \end{array} = a+b \text{형}$$

- 동네 북, 두루 춘풍
처럼 주어가 생략된 단어형으로도 속담화 되지만,
- 입의 혀와 같다.
처럼 단문형도 있다.

$$\textcircled{2} \begin{array}{|c|} \hline b \\ \hline \text{종속의미부}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a \\ \hline \text{주제의 의미} \\ \hline \end{array} = b+a \text{형}$$

- 자식은 제 자식이 좋고,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다.

- 중의 빛(「-머리」의 「+머리」)
- 그림의 떡(「-음식」의 「+음식」)
- 늙은이 불량한 것(「+점잖음」이 「-점잖음」)
- 짚신에 분칠(「-고귀함」에 「+고귀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속담 안에서, 앞의 명사가 지닌 의미속성과 뒤의 명사가 지닌 의미속성 사이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한다. 이것을 속담의미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성이 만들어내는 갈등으로부터 은유의 결과인 새로운 추상의미가 만들어진다. 이 추상 의미야말로 속담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속담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참의미이다. 이 참의미를 기본의미라고 한다면 글자가 나타내는 축자적의미(逐字的意味)는 표면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의 빛'의 표면의미는 글자 그대로 '중이 가지고 있는 빛'이요, 기본의미는 '가지고 있어 보아야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는 추상화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속담은 표면의미로부터 추상화된 기본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속담이 기원적으로 특수사례의 묘사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의미상의 특성으로 또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가중현상을 보이는 의미의 갈등이다.

- 빛주고 뺨맞기(「손실1」하고 「손실2」)
- 뛰는 말에 채찍질(「속력1」에 「속력2」)
- 바늘땀에 두부살(「연약함1」에 「연약함2」)

이러한 예들은 앞의 명사가 지닌 의미속성이 뒤의 명사에 가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의 가중현상을 의미속성의 점층성(漸層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층성'은 앞에 이미 설명한 '상대성'과 더불어 속담 속에 나타나는 의미 갈등의 중요한 두 측면을 이룬다. 그러나 의미상의 갈등은 존재하지만 표면의미로부터 더 이상의 의미를 추상화할 수가 없어서 그 표면의미가 그대로 기본의미의 구실을 하는 속담도 있다.

- 무자식(無子息)이 상팔자(上八字)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
- 말이 말을 만든다(「언어1」이 「언어2」)

이 속담들을 보면 그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명제는 축자풀이에서 더 이상 추상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그 표면의미가 정말 그대로 기본의미가 되

어, 거기에 아무런 의미기능도 첨가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지 비유를 생명으로 하는 속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은 '자식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든가, '자식 가진 사람 부러워할 것 없다.'는 함축의미(含蓄意味)를 활용론적(話用論的)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며, '말이 말을 만든다'는 속담은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말자.'든가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함축의미를 가지게 될 때 속담으로서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속담이 나타내는 비유는 그 언어사회가 관습적 또는 암시적으로 받아들이는 화용론적 함축의미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다. 가령 '성부동(姓不同) 남'이라는 속담은 '성이 다르니까 친척이 아닌 타인'이란 동일률(同一律)의 명제를 표면의미로 삼는다. 그러나 그 기본의미는 '남이기는 하지만 친척보다 더 다정한 사이'라는 반어적표현(反語的表現)으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된 것이다. 즉 '성부동 남'은 '친척보다 더 다정한 사이', 더 나아가 '형제 이상의 형제'라는 사회적 함축의미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가 확인된다. 요컨대 속담은 한 언어사회가 관용하는 함축의미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고 해서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 비유를 근간으로 하고 표면의미에서 도출된 기본의미로 해석하되 거기에 화용론적 부차기능이 생생한 구실을 할 때 속담은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4) 효과

속담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교화(教化)의 기능이고, 둘째는 풍자(諷刺)의 기능이다. 가령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가까운 데 있는 일을 잘 모른다.'라든가, '가까운 곳에 진실(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일반성을 띤 기본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기본의미는 다시 그 속담이 사용되는 현장상황에 따라, 명령이나 지시 또는 경고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너 자신을 돌이켜 보라.'든가,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함축의미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교화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과 교화의 기능에 있어 일치점을 보게 된다. 그러나 한편, 속담이 나타내려고 하는 기본의미를 교화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상황에서는 야유나 풍자로 탈바꿈을 한다. '열두 가지 재주에 저녁거리가 없다.'는 속담을 예로 하여 생각해 보자. 이 속담은 '여러가지 능력이 반드시 현실적 생활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속담이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에 열을 올리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취미활동에 빠져들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쓰면 교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지만, 다재다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친구가 돈을 꾸어달라고 하였을 때,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그를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를 가리켜 이 속담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비꼬는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것이다. '외손백이 올라' 라든가,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와 같은 반문형태의 속담은 풍자의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속담이 나타내는 의미와 효과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속담의 의미와 효과]

연구영역	의미단계	의미기능의 진행모습	
통사론	표면의미	글자풀이	의미의 추상화와 일반화
의미론	기본의미	비유	부차의미기능의 확대
화용론	합축의미	교화, 풍자	

(5) 민속적 특성

속담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속담의 기본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본다면 민속적 차원에서 우리 선조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생활양상의 이모저모를 찾아볼 수 있다.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가 있다.

① 비속성과 일상성

속담이 지닌 비속성은 바로 속담의 본질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서민들이 지닌 의식의 비속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점잖음을 중요시하던 조선시대 양반들은 속담을 한자의 고사성어같은 형태로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자연스런 우리말 형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령 이의봉(李義鳳)의 『동한역어 東韓譯語』에 보면 106종류의 우리나라 속담을 수집해놓고 있는데, 그 중 66종류를 녀자의 한자숙어로 바꾸어 놓고 있다. 실제로 양반층은 이러한 숙어의 형태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아무리 천박한 표현이라도 그것을 한자로 바꾸어놓으면 그 비속성이 어느 정도 경감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어휘는 개·똥·물·소·집·사람·밥·말「言語」·발「足」·떡 등이다. 이들 열 개의 낱말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개'와 '똥'이라고 하는 사실은 속담의 비속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이들 낱말이 나타내는 의미를 범주화하면 '가족'·'자연'·'주거'·'인륜'·'음식'·'언어'·'신체'의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일곱 가지 분야가 우리 조상들의 일상(日常)의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② 수의성과 편의성

일반 언어대중은 속담이 표현하는 기본의미가 어김없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속담은 일상의 생활환경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이의 자기합리화를 위해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속담을 나란히 대비해놓고 보면 서로 상반되는 기본의미 또는 함축의미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거짓말하고 뺨맞는 것보다 낫다.

병신(자식) 고운 데 없다.

병신자식 효도한다.

빛 좋은 개살구

개살구도 맛들일 탕

그 애비에 그 자식

애비는 애비, 자식은 자식

위에 짝지어놓은 한 쌍의 속담들은 그 표면의미를 어느 정도로 추상화시키며, 또 현상상황에서 어떤 함축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데 따라 서로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속담의 의미는 논리적 모순을 부담 없이 함께 거느린다. 속담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단면을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노출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③ 서민성과 냉소성

속담은 의미상의 논리적 모순을 부담 없이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사회

는 것처럼 모순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인간은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살고 있는 셈이며, 속담은 그러한 인간사회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거울에는 어떤 국가관이나 종교관이 들어 있는가?

-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 잘 되면 충신, 못 되면 역적

이런 속담이 나타내는 것은 일반서민이 일단 정치권력에 관심이 별로 없으며, 그러한 권력에 객관적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양반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 호령
- 사모 쓴 도둑놈
-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 양반은 글덕, 상놈은 발덕

이처럼 양반에게 냉소적이면서도 관존민비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속담 속에 '충성' 이니 '민족' 이니 하는 개념이 끼어들 터전은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 속담에 반영된 종교관은 어떠한가? 만일에 불교가 사회발전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던 통일신라나 고려 초기에 정착된 속담이 있다면 불교를 소재로 하는 긍정적인 묘사가 있었을 듯도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속에서는 불교가 결코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 않다.

- 불 차인 중놈 달아나듯
- 비 맞은 중놈
- 부처님 위해 불공하나?
- 의뭉하기는 노전대사라.

이런 예를 보면 승려는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었지, 존경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조선조 사회에서 불교가 미약하고 쇠잔하기는 하였으나 때때로 덕이 높은 승려가 국사(國師)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나라가 위급한 지경이었을 때는 승병을 일으켜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 속에 긍정적인 불교

- 무슨 일을 하려해도 쓸데없이 뛰어드는 사람 때문에 하기 싫다
- 9. 귀신도 듣는데 떡 소리한다
 - 무엇이 갈급히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줄 것 같이 언질을 줄 때
- 10. 기둥을 치면 들보가 운다
 -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
- 11. 김 안나는 송농이 뜨겁다
 - 공연히 떠벌리는 사람은 그리 무섭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무섭다
- 12. 나간 놈의 뭇은 있어도 자는 놈의 뭇은 없다
 - 게으른 사람의 뭇은 없다는 경계의 말
- 13.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뺀어라
 - 그때의 형편을 확실히 알고 행동하라
- 14.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
 - 자기 자신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유
- 15. 돌절구도 밀 빠질 때가 있다
 - 아무리 튼튼한 것도 오래 쓰면 결단나는 일이 있다
- 16.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언동이 모가 나면 남의 미움을 받는다
- 17. 물이 깊어야 고기가 논다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른다
- 18.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한다
 - 재간도 없으면서 큰 인물의 소질이 있는 체 한다
- 19.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
 - 추운 때는 매우 작은 구멍으로도 찬바람이 꽤 세계 들어온다
- 20.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
 -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멀리 우회하여 말함
- 21. 부엌에서 숟가락을 얻었다
 - 대단치 않은 일을 해놓고 성공이나 한 듯이 자랑함을 비유
- 22.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 능력이 부족하여 잘하지 못하면서 도구만 나쁘다고 탓함
- 23.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 아주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려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
- 24. 우물에서 송농 찾겠다

- 성미가 매우 급하게 날땀을 이르는 말
- 25.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우선 달고 좋은 편을 취한다는 뜻
- 26.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텁(솔뚜껍)보고 놀란다
 -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이 그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낸다
- 27. 건너다보니 절터다
 -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거의 틀림없는 짐작이 간다
- 28. 처삼촌 뵈에 벌초하듯 하다
 - 성의 없이 대충대충 처리하는 것을 비유
- 29. 태산 명동(鳴動)에 쥐 한 마리라
 - 무엇을 크게 벌렸으나 실제의 결과는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
- 30.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 크게 벌어지기 전에 막았던들 정신을 차리면 이겨 나갈 수 있다

4. 수수께끼

1) 개설²⁾

주로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언어표현이다. 수수께끼는 기억하기가 아주 간단하고 전달과 보급이 쉬울 뿐 아니라, 개인 창작의 것이 아니고 심리적 및 기능적 필요에서 생겨난 인간적 언술(言術)의 근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인 '수수께끼'의 방언으로는 50여 가지 이상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수수꺼끼·쉬시꺼끼·수수적기·수지적기·시끼저름·두리치기·수때치기·준추세끼·수수잡기·수지기·예숙제깅락·겉물락 등이 있다. 한자로는 '미(謎, 謎語, 謎設語)'라고 한다.

'수수께끼'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어 단정짓기 곤란하나, 추측하건대 '미(謎)'를 뜻하는 접두어 '수지'에 '겨룸[爭]'을 뜻하는 '겨꾸기'가 합하여 '수지겨꾸기'로 되고, 이것이 다시 '수수꺼끼'·'수수께끼'로 변모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문헌 용례는 조선 숙종 3년(1677) 경 변섬(邊暹)·박세화(朴世華) 등이 편찬한 『박통사언해 朴通事諺解』에 나오는 '슈지엿말'을 들 수 있다("내 여러 슈지엿말 니를 거시니 네 알라"). 또한, 1923년에 덕흥서림에

2) 이상의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 1991, 수수께끼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임.

서 발행한 『무쌍주해신구문자집 無雙註解新舊文字集』에는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수수께끼의 특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구연(口演)에 있어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쌍방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수수께끼는 다른 구비문학 장르들이 일방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함에 비하여, 화자와 청자의 쌍방이 다같이 구연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수께끼의 구성은 설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은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대개 의문형의 문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략되기도 한다. 반면 응답은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흔히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다. 설문의 내용은 주제의 형태·기능·행동에 관한 것이다. 둘째, 묘사가 극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묘사의 단순성은 다만 수수께끼에만 국한되는 성질이 아니겠지만, 구비문학 장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를 띠는 것은 속담과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담과 수수께끼는 문장으로서의 가장 단순하나, 언어 현상으로는 극히 주목되어,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누차 분석이 시도되어왔다. 이야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사문학 장르들이 화자의 임의로 첨가, 부연됨에 비하여 속담과 수수께끼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개 한 개의 단어, 또는 1행 내지 2행의 단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다.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말하자면 수수께끼는 수사법상에서 말하는 은유(metaphor)인 셈이다. 속담은 은유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수수께끼와 일치하지만, 수수께끼의 은유 사용의 목적은 속담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속담의 은유 사용은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는데 반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는 것이다. 넷째, 고의적인 오도성(誤導性)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감추어서 그 결과 청자의 지적 상상력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애매한 용어들을 차용한다. 그러므로 암시가 될만한 점은 슬쩍 피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칫하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수께끼의 역사는 다른 어느 구비문학 장르에 못지 않게 장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전수수께끼는 그만 두고라도 현존 문헌에 기록된 어떤 자료들은 서력기원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성서』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삼손의 수수께끼(Samson’s riddle)’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희랍신화의 ‘스핑크스와 외디푸스(Sphinx-Oedipus)’의 수수께끼, 즉 “처음에는 네 발로 걷고, 다음에는 두 발로 걷고, 마지막으로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나?”와 같은 것도 매우 오래된 수수께끼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분포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수수께끼의 동일기원론, 곧 전파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

우 위험한 일인 듯하다. 왜냐하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민담의 경우와는 달리 주어진 사물의 성질이나 의문에 대한 느낌을 짧은 문장으로 나타내는 수수께끼의 형식은 언제 어디서나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수께끼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 나라 현존 최고의 문헌은 『삼국유사』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몇몇 수수께끼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우리 나라 수수께끼의 옛 모습을 짐작하게 하여주고 있다. 이 책 권1 사금갑조(射琴匣條)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라는 까마귀의 봉서(捧書)를 일관(日官)이 “두 사람이란 서민을 뜻하고 한 사람이란 임금을 뜻한다.”고 풀었고, 또 같은 책 태종춘추공조(太宗春秋公條)에 소정방(蘇定方)이 신라에 보낸 의미불명의 그림을 원효(元曉)가 반절(反切)로 풀어 ‘속환(速還)’의 뜻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 권2 문무왕 법민조(法敏條)에는 거득공(車得公)이 안길(安吉)의 후대를 받고 떠날 때 “나는 서울 사람이다. 우리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의 두 절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오다. 그대가 만약 서울에 올 기회가 있거든 우리 집을 찾아주면 고맙겠다(僕京師人也 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 吾名端午也 主人若到京師 尋訪吾家幸矣).”라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떠났다. 뒤에 안길이 서울에 ‘기인(其人)’으로 가게 되어 단오의 집을 찾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길 가던 한 노인이 “두 절 사이에 있는 한 집이란 아마도 대궐 안을 말하는 것이겠다. 단오란 거득공을 가리키는 것이다(二寺間一家殆大內也 端午者乃車得公也).”라고 풀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삼국유사』에는 ‘예조(豫兆)’와 관련된 수수께끼가 상당히 있다. 『삼국유사』이후에도 각종 문헌들에서 수수께끼의 단편적 자료들이 간혹 발견된다. 그러나 수수께끼를 하나의 민간문예로서 의식적으로 수집하였던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수수께끼의 집성은 설화·민요·속담보다도 훨씬 연조가 얄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수수께끼의 모음은 1923년 덕흥서림에서 발행한 『무쌍주해신구문자집』인데, 이 책은 ‘부 파자 급 수수격기’라는 부제로도 짐작될 수 있듯이 순수한 수수께끼집이 못된다. 이 책에는 수수께끼 260개, 파자(破字) 105개, 총계 365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편찬자 및 편찬 연대 미상의 『이언총림 俚諺叢林』이라는 책에도 상당수의 수수께끼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사실상의 한국 최초의 수수께끼집은 192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민속자료 제1집으로 발간한 『조선의 미 朝鮮의 謎』인데, 이 책에는 총 888종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수수께끼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수수께끼 분류를 제일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채록의 체제는 우리말을 먼저 놓고 일본어역을 나중에 실었으며, 필요에 따라 주를 달고 간혹 삽화를 써서 이해를 돕고 있다. 그 밖의 수수께끼집으로 중요한 것은, 최상수의 『조선수수께끼

사전』(조선과학문화사, 1949), 이종출의 『한국의 수수께끼』(螢雪出版社, 1965), 김성배의 『한국수수께끼사전』(언어문화사, 1973) 등이다.

수수께끼의 분류는 마땅히 문항(問項)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답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항에 의해서만 분류를 시도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며, 때로는 불가능하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는 문항이나 답항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팎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수수께끼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늉「態」에 관한 것으로는 외형묘사, 동작묘사, 성질묘사가 있다. 둘째, 소리「音」에 관한 것으로는 음사(音似), 즉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를 이용한 것과 생략이 있다. 셋째, 슬기「智」에 관한 것으로는 방법을 묻는 것, 이유를 묻는 것, 선택을 요구하는 것, 촌수를 묻는 것, 수(數)를 묻는 것 등이 있다. 수수께끼의 표현은 주로 은유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 재롱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수사학상에서 말하는 문장의 기교로 세분하여 보면 ① 대조, ② 열거, ③ 생략, ④ 은유, ⑤ 점층, ⑥ 중의(重義)와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 중 한가지의 문장 기교로만 이루어진 것은 드물고, 몇 개의 수사법이 동시에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수께끼의 표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문항이 비합리적·비상식적인 것으로 기술된다는 점에 있다. 가령 '가리면 보이고, 안 가리면 안 보이는 것'이나,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예를 보면 언뜻 보아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단 이들이 '안경'과 '꿈'을 각각 의미하는 것임을 안 다음이라면 비합적이던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것은 수수께끼가 될 수 없거나, 설령 되더라도 훌륭한 수수께끼는 못 되는 것이다. 또한 수수께끼는 하나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의 답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지,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한 것이라면 훌륭한 수수께끼가 못 된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의 사물에 대하여는 하나의 수수께끼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은유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듯이, 하나의 사물에 대한 수수께끼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수께끼의 형식을 문항과 답항으로 나누어 정리하여보면, 첫째 문항에는 단문형(短文型)·혼문형(混文型)·설화형(說話型)이 있고, 답항에는 단어형·완문(完文型)·단구형(單句型)이 있다.

2) 평택의 수수께끼

- 파자(破字)놀이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 1. 이 글자를 세로로 반 나누면, 왼쪽은 밥 먹고 두발로 걷고, 오른쪽은 여물 먹고

깨 개를 지키고 있는 것은?

* 해답 : 器(그릇 기)

* 풀이 : '器'는 '입 구(口)' 네 개와 '개 견(犬)' 하나로 된 글자이다. 여기서 '口' 두 개가 빠지면 '울 곡(哭)'이 된다.

9. 남쪽 담이 없는 어느 집에 두 사람이 숨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 타 머리를 내밀고 망을 보고 있는 것은?

* 해답 : 肉(고기 육)

10. 손님이 대문을 들어서며 모자를 벗는 것은?

* 해답 : 關(층집 각, 대궐 각)

* 풀이 : '關'은 '門'으로 '各'이 들어서는 모양인데, '各'은 '손님 객(客)'에서 모자를 벗긴 모양이다.

11. 대나무 한 그루가 흙을 뚫고 자라났는데, 늪도룩 한 마디밖에 자라지 못한 것은?

* 해답 : 等(갈을 등, 등급 등)

* 풀이 : '等'은 대나무(竹), 흙(土), 마디(寸)가 모인 모양이다.

12. 한 입에 옷을 물어 찢은 것은?

* 해답 : 哀(서러울 애, 슬퍼할 애)

* 풀이 : '옷 의(衣)' 사이에 '입 구(口)'가 있어, 한 입에 찢은 듯한 모양이다.

13. 한 입 또 한 입, 여기에 모자를 씌우면, 옛날에는 왕들이 살던 곳이요, 지금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은?

* 해답 : 宮(대궐 궁, 집 궁, 담 궁)

14.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은?

* 해답 : 生(날 생)

* 풀이 : '生'은 '소 우(牛)' 밑에 가로획이 있어,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듯한 모양이다.

15. 마음만 먹었다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입이 있으면 오히려 말을 못하는 글자는?

* 해답 : 亞(버금 아)

* 풀이 : '亞'에 '마음 심(心)'을 더하면 '나쁜 악(惡)'이 되고, '입 구(口)'를 더하면 '병어리 아(啞)'가 된다.

16. 머리에 침을 맞으면 피를 흘리는 글자는?

* 해답 : 皿(그릇 명)

* 풀이 : '皿' 위에 침을 놓으면, 즉 점을 하나 찍으면 '피 혈(血)'이 된다.

17. 봄 날 비오는데 부인이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은?

* 해답 : 一(한 일)

* 풀이 : 비가 오면 해가 보이지 않으므로 '봄 춘(春)'에서 '해 일(日)'을 뺀다. 부인이 독수공방한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다시 '남편 부(夫)'를 빼면, '一'만 남는다.

18. 천리 길을 찾아가 서로 만난 글자는?

* 해답 : 重(무거운 중)

* 풀이 : '重'은 '千'과 '里'가 위아래로 합한 모양이다.

19. 조금만 더 힘쓰면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 해답 : 工(장인 공)

* 풀이 : '힘(力)'을 더하면 '공(功)'이 된다.

20. 가뭄에 샘물이 말라버린 것은?

* 해답 : 白(흰 백)

* 풀이 : '샘 천(泉)'에서 '물 수(水)'를 빼면 '白'만 남는다.

여 백

1. 의(衣)

흰옷을 숭상하여 백의민족이라고 불리었던 한국인에 있어서 의관(衣冠)은 권위와 체면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항상 의관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관을 벗는 일이 없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服飾)은 저고리와 바지(치마)를 기본으로 하는 북방 호족(胡族) 계통이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면, 머리에는 관모를 썼으며, 저고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직선으로 교차시켜 여미는 깃 형태의 직령교임식으로 외쪽 여밈이다.

이것이 변화, 발전하여 지금의 한복에 이르게 된다. 평택 지역은 무문토기, 돌도끼, 지석묘 등의 발견으로 볼 때, 적어도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한 시대 때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였던 점으로 미루어 전반적인 우리 민족의 복식 문화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미군 부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청바지, 파일러트 점퍼 등 서양 문화의 접목 지대로 유행의 첨단 시대였다.

1) 유(襦 : 저고리)

(1) 상고시대

남녀 공용이었으며, 끈은 깃에 섯을 겹쳐 여미며, 소매통이 좁고 옷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허리에 대를 매어 앞여밈을 하였다. 깃, 도련, 소맷부리에 선(襷)을 두른 모양으로 조선 시대 회장 저고리의 근원이 된다.

(2) 고려시대

길이가 짧아져 허리띠 대신 옷고름을 달았으며, 몽고의 영향으로 몸치장이 화려해졌다.

(3) 조선시대

길이가 짧아져 가슴을 가리는 용도의 허리띠를 따로 둘렀으며, 품, 진동, 소매통이 좁아져 몸에 꼭 끼었고, 옷고름과 결마기도 좁고 짧았다. 남녀 저고리 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 고(袴 : 바지)

(1) 상고시대

바지통이 좁고 길며, 바짓부리에 끈을 매어 오그린 궁고(窮袴)를 서민층에서 입었고, 귀족들은 중국의 영향으로 바지통이 넓은 대구고(大口袴)를 입었다.

(2) 고려시대

계층에 관계 없이 통이 넓은 대구고를 입었고, 여자들의 평상복, 겉옷의 하나로 착용했다.

(3) 조선시대

남자는 겉옷 하의로 정착되었으며, 여자는 속바지로만 입었다. 노동할 때는 곤(裈 : 서민들의 노동복)을 입었고, 대구고를 착용할 경우에는 활동 시 각반이나 행전을 착용하였다.

3) 상(裳 : 치마)

(1) 상고시대

중국의 영향으로 착용하였으며, 여자들이 의례적으로 입었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허리에서 치맛단까지 잔주름이 잡혀 있고, 유의 선과 같은 색단을 대거나 폭을 색색으로 장식하였다.

(2) 고려시대

허리 부분에 주름을 넣어 폭이 넓고, 길게 입었으며, 속치마를 여러 겹 입었다. 황

색 계통의 치마를 많이 입었고, 왕비복만은 홍색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여자의 겉옷 하의로 자리를 잡았다.

(3) 조선시대

여러 겹의 속옷을 입은 위에 넓고 긴 치마를 입었고, 서민층에서는 두루치기라는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활동복 치마를 입었다. 궁중에서는 상고 시대 선 장식의 변형 형태인 스란치마, 대란치마를 입었는데, 스란단의 문양은 왕비는 용문, 공주는 봉황문, 사대부 여자는 글자나 화문을 사용하였다. 후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져 가슴에 둘러 입었다.

4) 포(袍 : 두루마기 表衣)

(1) 상고시대

방한용보다 의례적인 용도가 더 컸으며, 신분에 관계 없이 남녀 공용으로 입었다. 형태는 유와 동일하였으나, 길이는 발목까지 왔으며, 대를 매었다.

(2) 고려시대

선의 장식이 사라졌으며, 대 대신 고름으로 여뒀다. 백저포(흰 모시 두루마기)가 유행하였다.

(3) 조선시대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여자는 내외법에 의해 포 대신 쓰개를 사용하였다.

① 철릭

원나라 군병복에서 유래하여 용복, 양반의 교외복, 일반 서민복 등으로 입었다. 형태는 소매가 좁고 허리선을 절개하여 아래 부분은 주름을 잡았으며, 현재 무당복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② 직령

백저포에서 유래하였으며, 좁은 소매에서 차츰 넓어져 사대부들이 평상복으로 입었다.

③ 도포

직령포에 뒤트임이 있는 형태로 사대부들이 외출복으로 유생들이 제복으로 착용했다.

④ 창의

뒤 또는 옆 솔기가 갈라진 포를 총칭하며, 대창의, 중치막, 소창의로 구분된다.

5) 관모(冠帽)

(1) 상고시대

① 남자

- 건(巾) : 관모의 원시 형태로 책(幘), 절풍(折風)으로 발전하였으며, 새 깃털이나 새 꼬리로 장식한 조우관(鳥羽冠)이 금관으로 발달하였다.
- 입(笠) : 눈, 비를 막기 위한 실용적 관모로 가장 일반화되어 쓰였다.
- 관(冠) : 의례용,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쓰였으며, 통일 신라 시대에 당으로부터 들어온 복두(幘頭)는 고려 시대까지 신분의 귀천 없이 사용했다.

② 여자

- 건귀 : 가장 오래된 여인의 관모로 머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소박한 머리 장식으로 쓰였다.

(2) 고려시대

① 남자

복두 이외에 특별한 관모가 없었다.

② 여자

몽고의 영향으로 복식 사상 큰 변화가 있었다.

- 몽수(蒙首) : 몽고의 영향으로 쓴 쓰개
- 족두리 : 몽고의 영향으로 쓰게 된 장식용 쓰개

(3) 조선시대

① 남자

- 갓 : 흑립(黑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반계급의 전유물이다. 본래 흑색이 본색이나 용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주립(朱笠)은 붉은 옷칠을 한 것으로 문신당상관의 음복에서 착용했고, 백립(白笠)은 국휼시(國恤時) 국민들이 썼고, 또 사인(士人)은 삼년상을 치루고 담제(禫祭)까지 평양자 대신 썼다.
- 정자관(程子冠) : 사대부들이 집안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관모로 말총으로 만들었다. 송나라 때 정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탕건(宕巾) : 사대부들이 갓 아래에 받쳐 쓰던 쓰개로 중인계층에서는 탕건 위에 독립된 관모로 사용하기도 했다.
- 방립(方笠) : 방갓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때부터 많이 사용되었으나 조선 초기 향리층의 모자로 사용되어면서 기피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상인(喪人)의 외출용 쓰개로 인식되었다.
- 패랭이 : 대나무를 가늘게 오려 만들었으며, 역졸, 보부상, 백정 등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② 여자

장식용으로는 가체를 쓰다가 족두리, 화관을 쓰게 되었고, 방한용으로는 조바위, 남바위, 아얌 등을 썼으며, 외출용으로는 너울, 쓰개치마, 장옷, 전모, 천의 등이 있었다.

6) 이(履)

(1) 상고시대

수렵 생활에 적당한 목이 긴 화(靴)는 북방계 민족이, 농경 생활에 적당한 목이 낮은 이(履)는 남방계 민족이 사용하던 것으로 화와 이가 혼용되었다.

(2) 고려시대

귀족은 혁리(革履), 서민은 초리(草履)를 신었다.

(3) 조선시대

궁혜(宮鞋), 당혜(唐鞋), 운혜(雲鞋)는 마른신으로 바닥을 가죽으로 하고, 거죽은

비단을 겹쳐서 만들고, 안쪽은 옹과 같은 폭신한 감으로 하며 앞코와 뒤꿈치에 이색 무늬를 넣어, 귀인들이 신었다. 궁혜는 궁중용이고, 당혜는 코에 당초문(唐草紋)을 놓은 것으로 양가대 부녀자가 신었으며, 운혜는 코와 뒤꿈치에 운문(雲紋)을 놓은 것으로 제비 부리같이 생겨 여염집 부녀자들이 신었다. 미투리는 삼, 짚신은 짚으로 만들었는데, 미투리는 결이 곱고, 짚신은 거칠어 서민급 이하의 부녀자가 신었다. 나막신은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신의 운두가 높고 비 올 때 비신으로 사용되었다.

2. 식(食)

신석기 시대부터 한곳에 정착하면서 피, 기장, 보리, 밀, 콩 등의 잡곡을 심는 농사가 시작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전해 온 벼농사가 발달함에 따라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우리가 먹는 일상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곁들여 먹는데 주·부식의 구별이 뚜렷하였다. 부식으로는 국이나 찌개를 기본으로 하고 장, 김치, 젓갈 등의 발효 식품 외에 육류, 어류, 채소류를 다양하게 조리하여 먹었다. 반찬은 밥을 먹기 위한 보조 음식으로 여러 가지 조미료와 향신료를 사용하여 짜고 맵게 만들었다.

평택 지역은 평택 평야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발달했고, 아산만 일대의 바다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산물은 물론 건어물, 젓갈 등의 가공 식품도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산간 지역에서는 사슴, 멧돼지, 토끼 등을 잡아 식량으로 해오다가 소, 돼지, 말 등을 가축으로 길러 수조육류의 조리법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음식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다. 역시 북식과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스테이크, 폭찹, 피자, 햄버거 등 서양의 음식이 보편화되었고 더불어 서양의 재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1) 음식의 종류

우리가 먹는 음식은 주식, 부식, 후식, 간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절기에 따라 먹는 절식이 있다.

(1) 주식

주식은 원시 농경 사회에서는 죽이, 청동기 시대에는 떡이, 그리고 삼국시대 말엽

부터 무쇠솥을 이용한 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외에 국수, 만두, 떡국 등이 있다.

(2) 부식

부식에는 국, 찌개, 전골, 찜, 숙채(채소를 익혀서 갖은 양념을 한 것), 생채, 구이, 조림, 전, 편육, 회, 자반, 젓갈, 김치류 등이 있다.

(3) 절식

- ① 설날 : 떡국, 만두, 잡채, 약식, 전과, 강정, 식혜, 수정과 등
- ② 상원(上元, 대보름) 오곡밥, 아홉 가지 나물, 부럼 등
- ③ 중화절(하리아드랫날) : 약주, 절편, 유밀과 등
- ④ 삼짚날 : 약주, 절편, 화전, 탕평채, 화면, 진달래화채 등
- ⑤ 한식 : 메밀국수, 쫄떡
- ⑥ 초파일 : 느티떡, 미나리나물, 볶은 콩, 장미화전 등
- ⑦ 단오 : 증편, 수리취절편, 준치만두 등
- ⑧ 유두 : 편수, 깻국, 어선, 구절판, 밀쌈, 생실과, 화전, 떡수단 등
- ⑨ 칠석 : 깨찰편, 밀설기, 규아상, 흰떡국, 어채 등
- ⑩ 삼복 : 육개장, 증편, 복숭아화채, 복죽 등
- ⑪ 추석 : 송편, 토란탕, 송이산적, 햅쌀밥, 나물, 배화채 등
- ⑫ 중양 : 밤단자, 화채, 생선과, 국화주 등
- ⑬ 상달 : 시루떡, 애단자, 밀단고 등
- ⑭ 동지 : 팔죽, 동치미, 생실과 등
- ⑮ 납월 : 골동반(비빔밥), 장김치, 골무떡 등

2) 반상

우리나라의 상차림은 밥을 주식으로 하여 먹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반찬으로 구성한 상차림이다. 아침, 점심, 저녁상을 일상식으로 하고 있다. 반상은 전통적으로 독상이 기본이다. 찬의 가짓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 반상으로 나뉘고 궁중에서는 12첩 반상을 차린다. 첩이란 밥, 국, 김치, 조치, 종지(간장, 고추장, 초고추장 등)를 제외한 쟁첩(접시)에 담은 반찬의 수를 말한다. 반찬의 종류를 정할 때는 재료와 조리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빛깔과 영양도 고려해서 정한다. 반상의 배선은 수저는 상의 오른쪽에 숟가락이 앞쪽, 젓가락은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끝에는 2~3cm 나가게 한다. 밥은 상 앞 줄 왼쪽, 국은 오른쪽, 그리고 찌개는 국 뒤쪽에 놓는다. 김치는 상 뒤줄에 놓여지고 김치 중에서 국물김치는 오른쪽에 오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더운 음식인 국, 찌개, 구이, 전 등은 오른쪽에 놓는다.

(1) 3첩 반상

있는 대로 적당히 먹었던 서민의 상차림. 기본적인 밥, 국, 장 외에 생채 또는 숙채, 구이, 혹은 조림, 마른반찬이나 장 또는 젓갈중 한 가지의 세 가지 찬을 내는 반상이다.

(2) 5첩 반상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서민층의 상차림. 밥, 국, 김치 2가지, 장(간장, 초간장), 찌개(조림) 외에 생채 또는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반찬이나 장 또는 젓갈 중 한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찬을 내는 반상이다.

(3) 7첩 반상

반가의 상차림.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의 하나이다. 밥, 국, 김치 2가지, 장(간장, 초간장, 초고추장), 찌개 2가지, 찜 또는 전골 외에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반찬이나 장 또는 젓갈 중에서 한 가지, 회 또는 편육 중 한 가지의 찬을 내는 반상이다.

(4) 9첩 반상

반가의 상차림.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반찬, 장과 젓갈, 회 또는 편육 중 한 가지의 찬을 내며 이 반상에는 전골상이 곁상으로 들어진다.

(5) 12첩 반상

반찬의 가짓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식사 예절도 까다로운 편이다. 열두가지 이상의 찬을 내는 반상으로 수랏상이라고도 한다. 수랏상에는 대원반, 소원반, 사각반의 세 가지 상에 차려지는데 기존 밥, 국, 김치, 찌개, 찜, 전골 이외에도 생채, 숙채, 구이 2종류(찬 구이, 더운 구이), 조림, 전, 마른반찬, 장과 젓갈, 회, 편육, 별찬, 이렇게 열두 가지가 나오고 조리법이나 양념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명산물을 가지고 궁중의 주방 상궁들의 빼어난 솜씨로 올려지게 된다.

3. 주(住)

전통 가옥의 내부 구조나 형태는 그 지역의 기후 특색을 잘 반영한다. 북부지방에서는 추위에 대비하여 대체로 폐쇄적인 가옥 구조를 이루었는데 대하여, 온난한 남부 지방에서는 마루의 역할이 커지는 등 개방적인 구조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겨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전통 가옥들은 대체로 창이 작고 벽이 두꺼우며, 온돌이라는 독창적인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통 가옥의 건축 재료로는 흙, 목재, 석재, 짚이나 풀 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재료가 이용되었다.

우리 평택 지역은 ㄱ, ㄷ, ㅁ 자형의 굽은 집 구조가 두드러지며, 대청 마루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나타나는 중부 지방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서 한국 전쟁 때 지어졌던 빈민, 피난민들의 집이던 box집, 움집, 루핑집 등이 있었고, 현대에 들어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의 발전으로 평택 지역의 전통 가옥은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1) 시대별 가옥의 변천

(1) 구석기 시대

제3빙하기로 기후적 조건이 불안했던 시기이다. 원시인들은 수렵생활을 하며 자연동굴이나 바위 밑을 이용하여 비와 바람을 피하며 잠을 자는 일시적 은신처로 사용하였다. 그후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뭇가지를 모아서 원추형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다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등을 덮어서 만든 원형주거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신석기 시대

빙하기의 오랜 유랑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식량을 생산하며, 집단노동으로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지는 지표면 아래를 약 1m 파낸 반지하 수혈주거이다. 집자리는 원형이나 말뿔방향, 타원형, 방형으로 바뀌었고, 말기에 이르러 긴 네모꼴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생활모습이 발전됨에 따라 기후가 좋고 물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으로써 본격적인 농경문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지방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방법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3) 고조선 시대

① 움집

지하를 깊게 파고 기둥을 세워 도리와 보를 낸 후 여기에 서까래를 지면으로부터 걸쳐 지붕을 짜고 잔 나뭇가지와 풀, 흙 등으로 덮은 수혈주거가 만들어졌다. 나중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공간이 분리되면서 기둥과 벽체를 세우고 실내 구조가 복잡해지며 지붕이 땅에서 떨어지는 반움집의 형태가 생겨났다.

② 귀틀집

산간지역의 화전민들이 짓고 살던 집으로 통나무를 우물정재(井) 형태로 쌓고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의 틈에는 진흙으로 막아 벽체를 이룬 집이다. 집을 만드는데 나무를 가로로 쌓아 감옥같이 보였다는 기록도 있고 창고나 여름철 주거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고상주거

집의 바닥이 높게 만들어진 누각이나 원두막 같은 주거를 말한다. 움집에서 오래 생활하면 위생상태가 나빠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4) 삼국시대

① 고구려

고구려 사람들은 대개 산이나 계곡을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일반 주택들은 초가였고, 왕궁이나 사찰들만이 기와지붕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장갱을 만들고 여기에 불을 지펴 그 열로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고 한다. 일반 주택의 명칭이 대옥, 소옥, 서옥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크기나 용도에 따른 주택의 구조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집들의 구조가 독립된 채를 구성하여 공간이 나누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백제

고구려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지며 기후가 온난하고 주거지는 대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저절로 따뜻해지므로 돌석이라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온돌구조와 유사한 고구려의 장갱이 백제의 주택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신라

기후가 따뜻한 지방이므로 상류주택은 고구려와 같은 평상 위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며 일반 주택은 보통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주택은 고상식 마루구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서민들의 집도 지상주거로 발전했고, 풀로 이은 지붕과 움집도 여전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고려 시대

일반 백성들의 집은 움집의 형태였고 귀족계급만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 '빙돌'이라는 온돌이 있었으나 귀족계급이나 왕궁에는 온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흙침상을 만들고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어 그 위에 누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장갱과 같은 난방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옥실'이라는 온돌방과 '양청'이라는 마루가 건축되었음이 기록으로 전해진다.

(6) 조선 시대

① 대청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 사랑채의 사랑큰방 앞의 넓은 마루를 '대청'이라 칭한다. 대청은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의식과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각각의 방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오늘날 주택의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여름철에 분합문을 서까래 밑에 내려진 들쇠에 걸어 올려놓으면 대청은 열린공간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며 겨울철에는 분합문을 닫아 한기를 막고 대청공간을 아늑한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 안채에 있는 것을 안대청이라하며 사랑채에 연해 있으면 사랑대청이라 한다. 대청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현명하게 고안한 가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면 또는 사방이 트여있어 엄밀히 말하면 실내라고 할 수 없다. 대청의 바닥은 상류 주택에서 서민 주택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우물마루가 쓰여졌다.

② 방

방은 열린 공간인 대청과 반대되는 폐쇄적인 의미를 가진 개인적인 공간이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조선시대의 방은 잠을 잘 때는 침대대신 따뜻한 구들 방바닥 위에 이부자리를 펴고 자고 낮에는 의자대신 방석에 앉아 지내는 좌식 생활을 하도록 되어있는 공간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바닥에 바로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방은 늘 청결하게 유지하였다. 방의 내부는 모두 벽지나 천장지를

발랐으며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하였다.

③ 사랑

보통 사랑대청과 사랑방으로 이루어진 사랑채의 사랑방은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방으로 남자들의 공간이다. 사랑채는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부유한 집안의 경우는 사랑채가 독립된 건물로 있었지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주로 대문 가까이의 바깥쪽 방을 사랑방으로 정해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했다.

④ 부엌

불을 지펴서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인 부엌은 주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에 안방과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였으나 일부 대가들의 집에는 반빗간이라 하여 별채로 독립시키기도 하였다. 조선 한옥의 부엌은 작업 동선을 고려해볼 때 매우 불편한 구조를 지녔다. 부엌 바닥을 일반적으로 방바닥보다 75~90cm 정도 낮게 하여 아궁이에서 댄 불길을 방고래로 빨아들이도록 되어 있는 '온돌 구조' 때문이다. 부엌에는 2~4개의 아궁이가 있었으며, 불을 때는 아궁이 위 부뚜막에는 솔을 걸어 두었다. 아궁이는 안방과 면한 벽쪽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동시에 방을 데우도록 하였다.

부엌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안방과 건넌방에 각각 위치하는데 안방과 접한 부엌이 주된 조리 공간이었으며, 건넌방쪽은 물을 데우는데 쓰이는 등 보조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⑤ 사당

조상 숭배 의식의 정착과 함께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라는 의례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보통 사당에는 4개의 신위를 모시는데 서쪽부터 고조의 신위, 증조의 신위, 할아버지의 신위를 모시며 마지막에 부모의 신위를 모신다. 각 위 앞에는 탁자를 놓으며 향 탁은 최존위 앞에 놓았다. 대개의 중상류 주택은 가묘법에 따라 사당을 건축하지만 사당이 없는 집도 있어 그런 집에서는 대청마루에 벽감을 설치하여 신위를 모셨다.

⑥ 찬방

찬방 또는 찬마루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늘날의 주택의 부엌방과 다용도실 정도

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반가나 중, 상류 지방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다. 부엌과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이곳에서 상에 올려 안방, 사랑방 등으로 내갔으며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였다. 이곳에는 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그릇, 식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도 쓰였다.

4. 평택의 전통음식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중심지역 즉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평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나 기후나 인심이나 풍토나 어느 한 면도 나무랄 데가 없는 흐뭇하고도 정겨운 내 고향이다. 어릴 적에 자란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도 타지방에서 태어나 성장과정이 다른 분도 일단 이곳에 몸을 붙이면 평안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이유는 우리 기후가 4계절이 있는데 가장 적절하게 느낄 수 있고 큰 변화 없고 또한 음식의 문화가 풍부하고 수많은 먹거리의 본고장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향토의 음식이 우리 평택에 와서 안주하면 그것은 즉 가장 맛이 좋고 영양 좋고 보기 좋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식사가 된다.

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은 일년을 지내며 기념일, 명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또한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위시하여 조상들로부터 전래되는 희귀한 음식도 계절 따라 소개해 볼까 한다.

전통 음식은 내 고향의 숨결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의 역사이다. 더불어 요즘은 신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무시할 수 없고 상가나 가정에서 인기 있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많은 세월은 아닌 60여년을 살아왔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얘기 들으며 살았으니 이백년을 살았다고 고집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옛날 집에서 기름틀을 장치하여 놓고 온 동네 아낙들이 모여 기름을 짜던 세월, 가래떡 기계를 처음 들여놓고 만들어서 동네잔치를 하였는데 너무 질겨서 못 먹고 들고만 다니던 일, 그 옛날엔 가루로 날 떡국을 아니면 조랭이 떡국을 만들어 감질나게 조금씩 주던 설날음식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주저 없이 마구 쓰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다가올 신세대인 후손들이 이해를 해 줄지 새삼 걱정 먼저 앞선다.

(1) 간전

우리 고향에서는 소간, 돼지간, 허파 등 내장 종류를 끓는 물에 삶아내어 얇게 썰어서 밀가루를 옷 입히고 계란 풀어 묻혀서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지져내서 전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즐긴다. 야채로 호박전, 생태포를 대서 생선전 이런 종류를 예쁘게 하여 놓으면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영양섭취에 그만이다.

(2) 갈비찜

경기도에서는 옛날부터 갈비찜을 즐겨하고 최고의 음식으로 꼽는다. 알맞은 크기와 색깔까지 맞추어 만들어야 맛도 좋고 보기도 좋다. 요즈음엔 상가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여 특유의 맛을 가지고 손님께 내어놓으므로 서로 나누어 먹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솜씨 좋고 음식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하던 좋은 풍습과 이웃끼리의 정이 어디론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적당한 크기 5cm 정도로 갈비를 잘라서 집에서 핏물을 일단 물에 담그어 뺀다. 뼈에서 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칼집을 내어 먹기 좋게 손질을 한다. 간장 약간에 뼈를 갈아서 넣고 설탕, 후추, 마늘로 간을 한다. 만든 소스에 갈비를 넣어서 1시간이상 담가 두었다가 두꺼운 솥에 넣고 한 소끔 끓인다. 남은 소스에 밤, 대추, 은행을 넣어 갈비에 섞어서 다시 끓이며 약한 불에 먹기 좋게 될 때까지 지켜본다. 다 익으면 오목한 찜그릇에 넣어 계란 지단을 위에 살짝 얹어 모양을 낸다. 너무 겹지도 않고 희지도 않게 내어놓으면 익은 밤과 은행을 곁드려 드시고 근래에는 표고버섯 말린 것을 불려 넣어서 먹어도 향이 좋고 훨씬 부드럽다.

(3) 강정

2월까지 두고 먹는 강정, 깨강정, 밥풀강정, 콩강정, 땅콩, 잣, 호박씨 여러 종류를 고소하고 알맞게 볶아 엿물에 반죽하여 쟁반에 얇게 방망이로 민다. 그런 후에 시원한 곳에 두었다가 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고 과자 대신 간식으로 주곤 하시던 할머니님이 생각난다.

우리 어린 시절에 강정은 한번 하려면 몇 날을 방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 제일 따뜻하고 넓은 방바닥에 종이를 깔아놓고 강정재료를 말린다. 여기서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찹쌀을 가루로 만들어 막걸리를 부어 3~4일 물에 담그어 발효시킨다. 엿물을 따라 내고 도넛같이 반죽하여 끓는 물에 끓여서 넓은 자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파리가 툭툭 붙거릴 때까지 치댄다. 모양을 손가락 또는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녹말가루를 묻히며 따뜻한 방바닥에 널어서 말린다. 이때 공기가 들어올까 봐 어린이 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한 사흘 딱딱하게 말려 자루에 보관하고 있다가 날 잡아서 하루 기름(100℃)에

넣어 맘껏 부풀려서 꺼낸다. 그 몸에 생강풀을 섞어서 만든 물엿에 담가 하얀 꽃을 문혀놓으면 강정이 된다. 꽃은 찰벼를 솥에 넣고 볶으면 예쁜 모습에 꽃이 툭툭 나온다. 아니면 좁쌀과 수수를 빻튀기 기계에 튀겨서 옷을 만들면 아주 예쁘다. 약과와 곁들이면 간식 겸 명절 즉 정월 음식으로는 푸짐하고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어 더욱 소중하고 귀한 음식이다.

(4) 국과 탕

생선국도 정월엔 갈치국, 2월엔 생대구, 3월엔 북어국, 4월엔 민어국, 6~7월엔 농어, 8~9월엔 송어, 9~10월엔 새조개·바지락, 11~12월엔 대구국 이렇게 계절 따라 먹던 것 이외에도 아구와 놀래미 이렇게 이 고장에 바다에서 나오던 보배가 전혀 없어졌다. 10월부터 다음 3월까지 먹던 굴탕도 잘 익은 동치미와 같이 만들던 그 맛도 자연산이 없어져서 안타깝다. 선창 만월 근처에서 채취하던 멍굴로 오이와 배를 넣어 새콤하게 해먹던 굴탕, 조그맣고 가무잡잡한 굴, 서산 간월도에서 유명하던 토종굴이 없어지며 어리굴젓맛도 별로다. 양식굴이 돼서 알이 크니까 식욕이 없어진다.

(5) 기주떡(술떡)과 바람떡

옛부터 저분저분하고 부드러우며 노인들이 좋아해서 일명 효자떡이라고도 한다.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켜 예쁘게 모양을 내어 채반에 놓고 솥에 담아 대추, 석이버섯 등을 채 썰어 고명으로 얹고, 검은깨(‘시금자’라고도 한다)를 볶아서 예쁘게 나열하면 기주떡이 완성된다.

바람떡은 기름을 윤기나게 바르면 싱그럽고 먹음직스럽다. 팔로 만든 속을 넣어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쌀가루를 반죽하고, 찌서 치대어 방망이로 밀어내어 속을 넣고 주발 뚜껑으로 반을 꼭꼭 접은 떡을 자르고 누르면 통통이 살이 쪼 아주 먹음직한 떡이 된다.

쭈을 넣고 하면 더욱 색도 좋고 맛도 좋다.

옛날에는 가정마다 잔치집같이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통북시장 안에 민속 떡집이라고 15년을 한결 같이 떡을 만들어온 조금자씨가 옛날 방식을 지켜가며 잘 만들어서 우리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단도 오색으로 잘 만들고 어떤 떡이든 맛있게 만들어 내어 평택의 명문 떡집이다.

이렇게 각계로 다재다능하면서도 맛을 즐기며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국은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음식도 예술이라 표현하듯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옛부터 전해오지만 토속적인 맛은 그대로에 특유한 진미가 제일



■ 기주떡(상), 바람떡(좌), 꿀떡(우)

이다.

요즈음은 색각과 개량이 혼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도 좋지만 개량보다는 옛것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본다. 옛것에 새로운 미적 감각을 덧붙이고 새그릇, 즉 신세대 그릇에 담아 젊은 사람들이 먹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다. 구식이라 배척하고 신식이라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가장 현명하게 절충식으로 우리것을 만드는 지혜가 아쉽다.

보다 좋은 음식, 보다 예쁜 식생활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며 사는 날들을 찾을 준비와 태도로 검허히 음식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바로 이곳 평택이라는 신념으로 살고 싶습니다.

(6) 김치

김치의 종류 중 평택에서 제일 인기있고 예로부터 즐기는 것은 배추통김치다. 하지만 지금은 변형이 되어 백김치, 물김치 심지어 가베스김치까지 인기가. 전라도 지방의 돌갯김치가 유명하듯이 총각김치도 선호하며 젊은층에서 좋아한다. 옛날에는 만년종사라 하여 여름것까지 소금에 짚어 담가 저장하였다가 다시 옮겨서 먹는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있고 언제고 나오는 야채에 힘입어 그때마다 담글 수 있어 좋다.

또한 오이통지가 사각사각 입맛을 돋군다. 오이를 넷으로 칼집을 내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수분을 제거한 후 부추와 양념을 섞어서 담그면 푹푹한 싱그러운 맛에 그래도 우리 입에 제일 맞는다. 봄에는 돛나물김치, 민들레김치, 미나리김치가 예로부터 계절김치인데 요즈음은 열무도 기르고 배추도 기르고 비닐하우스 덕분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산과 들로 바구니에 가득 담아 뜯어온 민들레썸바귀김치, 돛나물, 논 미나리 한번씩 담가 식구들과 자연을 즐기고 계절을 즐기면 이보다 더 귀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7) 냉면

이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돼서 어디서고 음식맛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냉면은 사계절을 초대하여 즐기는 음식이며 옛날엔 평양사람들이 뜨끈한 아랫목에서 즐겼는데 이젠 평택에 정착한 자랑거리가 됐다.

이북에서 귀순한 몇 사람의 음식보다도 고박사 냉면이 훨씬 우리 입에 맞는다. 그 주인은 “냉면 받은 질기다고 느끼면 가짜랍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 상점을

(고박사집)을 물으면 나는 문 앞까지 안내하여 준다. 저희 동생 하나가 어찌나 이 면을 좋아하는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최종덕)분은 전국에 다니면서 먹어봐도 이 평택냉면이 최고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시합 때마다 시식을 하여 무척 많은 사람이 오고가곤 한다.”는 얘기를 한다.

잘 삶어 낸 돼지고기 즉 제육과 곁드려 먹으면 별미이다. 또한 녹두로 붙인 빈대떡과 같이 식사를 즐기는 식도락가들도 많다. 우리 순수 녹두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이 훌륭하다.



■ 녹두빈대떡, 냉면, 수육

(8) 대합, 미역국

대합(종포)이라는 조개는 삶아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 애기 낳은 산모에게도 좋고 영양가 높고 바지락과 같이 흔히 서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인데 이제는 양식한 특수 지역에서나 볼 수 있다. 대합이 자라던 지역은 부안, 서산, 안중 등이라고 한다.

(9) 머리고기

이 고장에서는 쇠머리고기로 만드는 요리가 많다. 소머리를 몇으로 갈라서 큰 가마솥에 넣고 푹 끓인다. 국물에는 배추시래기와 된장을 약간 넣으면 해장국이 되고 찹쌀풀 국같이 맑게 끓여 생파를 넣어주면 설렁탕이 된다. 그런데 내가 소개하고자 함은 이것이 아니고 눌린 고기, 쇠머리고기를 말한다. 이렇게 푹 끓인 고기를 건져서 속에 들은 뼈를 전부 골라내고 고기를 고루 펴서 삼베보자기에 올려놓고 끌고루 핀다. 그 속에 계란을 삶아서 껍질을 벗겨 사이사이 넣고 쪽파의 파란색과 흰색을 나란히 넣고 약간의 실고추를 었는다. 그런 후에 약간 간을 맞추어 보자기에 끝을 적당히 잡아 오므리고 맷돌을 위에 었어 놓고 하루를 식힌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접시에 예쁘게 바치면 훌륭한 술안주가 되고 영양가 높은 고기가 된다. 옛날엔 잔치를 치르려면 이렇게 했다. 양반 집이나 돈 많은 부잣집은 쇠머리고기를 했고 서민들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나누어 먹고 지냈다.

(10) 메밀국수

곱게 빻아놓은 메밀가루에 메주콩을 살짝 삶아 말려서 분말로 만든 콩가루와 잘

반죽하여 잘게 썰어 삶아서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진간장에 달콤하게 만든 옥수를 찰랑찰랑한 유리그릇에 담고 삶아놓은 메밀국수를 채반에 받쳐 좋은 김을 살짝 붙여 구워 썰어 올려 와사비와 무즙을 넣고 생파를 곁들여 찍어먹으면 입안에 가득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더운 날 하얀 모시옷에 싱그런 유리그릇에 듬뿍 정을 담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며 먹으면 그릇 속에 담겨있는 열음은 사랑이 되고 상대방의 얼굴은 복사꽃이 될 것이다.

(11) 돛미나리전

따뜻한 봄날 논둑에 나온 돛미나리, 간에도 좋고 숙취에도 좋다. 메밀을 맷돌에 갈아 물에 가라앉히면 녹말 앙금이 된다. 윗물을 다 따라 내고 밑에서 떼어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바르고 얇게 펴놓은 부침 위에 돛미나리 한 움큼을 얹어 최소한 얇게 부쳐서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이 역시 숨겨진 향토음식이다. 너무도 향기롭고 지혜로운 음식으로 별미다.

(12) 동그랑땡

일명 고기전.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다. 곱게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다. 양도 늘리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물기 뺀 두부를 섞어서 동그랑땡 손으로 만져 놓는다. 예쁘게 만든 후에 마른 밀가루를 고루 묻혀놓고 계란을 깨서 잘 저어 가지고 밀가루 묻힌 고기를 담가(넣어서) 기름 두른 팬에 잘 익혀내어 접시에 예쁘게 담고 옆엔 생선전과 곁들이면 더욱 좋다. 잔칫상에는 누구네고 빠짐없이 만드는 음식이다.

이 음식의 변형으로 동그란 모양을 신세대가 좋아하는 타입으로 알리고 싶다. 일명 미니피자로 통해도 좋다. 파란 피망을 옥수수크기로 썰고 계맛살 역시 이렇게 썬다. 통조림 옥수수를 물기를 뺀 다음, 이 세 가지를 고루 섞고 전분을 조금 섞어서 간한다. 앞에 풀어놓은 계란 물에 적당히 섞어서 팬에 지져내면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한다. 우리 주변에는 변형시켜서 시대에 맞게 만들어 전통으로 삼아야 할 음식이 무궁무진하다.

(13) 미나리전

음력 2월 초하룻날 콩을 볶아 먹으며 두레(농약)놀이를 하며 동네사람들이 함께 풍년과 인간의 건강을 기원한 풍습이 있다. 햇미나리가 솟아날 때 메밀가루에 돛미나리를 살짝 얹어 얇게 붙인 누루미를 초간장에 찍어 먹는 그 맛은 봄의 향기를 가슴에 안고 즐기는 기분이 든다. 전은 얇을수록 양반스럽고 볼품이 있다.

(14) 바베큐와 순대

우리 평택은 농가와 축산을 잘하는 지역으로 돼지를 통째로 구워서하는 요리가 많다. 남부햄공장이 이곳에 있기도 하고 여러 잔치나 모임회식에서 인기다. 통째로 돼지 배속에 넣고 하는 햄이나 내장도 큰 인기다. 바베큐하면 버리는 것이 없고 여러 사람들이 고루 먹을 수가 있다. 케첩이나 핫소스를 곁드려 야채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아우네장터(병천)에서 유행인 순대, 성환에서 잘 팔리는 왕순대가 있듯이 평택도 동춘순대를 위시해서 시장 안에는 돼지를 이용한 음식이 많다. 서민들이 좋아하고 옛날을 회상하는 추억의 요리이다.

(15) 보쌈

우리 평택에 많은 보쌈을 소개한다. 약간 시대에 맞게 변형된 개량음식이지만 돼지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푹 끓인다. 이때 양파와 된장, 왕소금을 조금 넣으면 잡냄새가 없다. 필요에 따라 계피를 조금 생강과 같이 넣으면 더욱 돼지의 특유 향이 없어진다. 알맞은 크기로 썰어 제육을 만든다. 무는 채를 썰어 싱싱한 굴과 생채를 만들어서 양념한 장과 배추 절인 것을 곁들여 먹으면 보쌈이 된다. 요즈음은 상추에 생마늘, 푸른 고추를 곁드려 내어서 모양 좋게 팔고 있는 상가도 많다.

(16) 불고기

채끝을 적당한 크기로 길게 만져 느타리버섯을 데쳐서(끓인 물에) 불고기양념을 하여 양념한 채끝 고기 한 개, 버섯 1개, 움파가 얹전할 때 같이 썰어 산적을 만들어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분다. 지져내면 역시 맛과 향이 좋고 아이들은 토마토케첩을 곁드려 주면 더욱 좋다.

(17) 빠개장

이건 된장 만들기 전 간장 담그기 전에 메주를 곱게 만들고 무와 신 김치를 섞어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단지를 부뚜막에 두었다가 4~5일 후에 먹는다. 보글보글 끓여도 먹고 그냥 밥에 얹어먹기도 한다. 된장 한 가지 갖고도 계절에 맞게 이맛저 맛 낼 수 있는 주부들의 오묘한 재주는 예술가의 지혜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18) 삼계탕

황기를 푹 달여서 수삼·대추·양파·마늘과 참쌀을 뚝뚝 넣어 영계 백숙을 하여 달인다. 푹 끓인 삼계탕에 날파와 후추를 곁들여 드시면서 이열치열의 여름 맛

을 즐기셨다. 이와 같이 우리 고장 선인들께서는 집에서 토종닭을 봄에 부화시켜 기르면 초복에 알맞은 영계가 되어 영양섭취를 하며 슬기롭게 사계절을 즐기실 줄을 알고 계셨다.

(19) 새뱅이와 털게

가을 김장하기 전 밭에서 싱싱하게 자란 왜무(긴 모양의 무)를 뽑아 송덩송덩 썰어서 논가에 자라고 있는 민물새우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어 두고, 썰은 무와 새우에 절구통에서 풍풍 뺨 풋고추가루, 마늘, 파를 곱들여 조선간장을 넣어 고루 저으며 푹 끓이면 아주 구수하고 독특한 맛을 내서 한끼 밥반찬으로 구미에 담긴다고 특히 노인들께서 너무도 좋아하신다. 일명 새뱅이라 한다. 민물고기라 하여 디스토마가 있다고 한동안 안 먹었지만 민물털게와 같이 요즈음 다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털게는 찌개보다 간장에 마늘과 생강을 넣고 정종을 좀 섞어서 끓여서 부르며 이 끓여 붓는 작업을 3~4번 이상하면 아주 맛있는 게장이 된다.

(20) 식혜와 감주

옛날엔 보리 싹을 내어 말려서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싹을 낸다. 물에 담가 흰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빨아서 그릇에 담아 가라앉힌다. 찹쌀로 밥을 지어 가라앉은 엿기름물을 부어 7시간정도 전기밥솥에 넣어두면 쌀이 동동 위로 올라온다. 다시 불에 넣고 끓여서 설탕은 개성에 맞추어 넣고 먹으면 된다. 이때 밥을 전부 넣고 끓이면 감주가 되고 밥알을 건져서 찬물에 띄워 놓고 유리 그릇에 식혜 물을 담고 위에 밥알을 넣어 동동 띄우면 식혜가 됩니다. 잣을 몇 알 띄워서 어르신들께 드리면 옛날 음료수가 된다.

(21) 신선로

이름 그대로 안성 유기그릇점에서 산 유기로 모양을 넣어 고고하게 품위를 떨치고 있는 두쌍의 원앙 모습을 보는 듯하다. 아오모리시에서 평택과 맺은 결연 후 KAL 취향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전통음식 리셉션을 제의해 왔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 여성단체 회장들이 좀 품위 있고 전통 있는 음식을 만들자고 서로 상의한 끝에 다식과 수정과, 식혜, 약식, 빈대떡, 송편(오색), 솔잎 등을 가지고 갔다. 식혜, 수정과, 송편은 그 곳 여성단체 여성 14명과 같이 만드는데 신선로를 찌개 검 두틀을 짜서 알코올에 불을 붙여 보글보글 끓이니 인기가 있었다. 전통그대로 맨 밑에는 무를 깔고 불고기와 전유어를 차곡차곡 넣고 위엔 지단과 고기경단으로 모양을 내고 은행으로 목걸이를 해서 마무리를 하여 놓으니 고고한 기품

을 가지고 끓고 있었다. 잘 달구어진 솥불을 가운데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술안주 겸 찌개 겸 갈비찜과 함께 교자상의 어른이다.

속은 꼭 옛날 식을 주장하지 말고 요즈음 흔히 곁에 두고 먹는 음식으로 마련해도 좋을 듯 싶다. 최근 궁중요리 할 때만 전기 신선로를 하던데 옛날 우리 어려서는 손님 모시면 당연지사라고 알고 몇 틀씩 짜서 놓았다. 끓는 육수를 부어서 조금 더 끓이면 여러 가지 냄새하며 쇠간을 붙여서 그곳에 넣으면 더욱 입안 가득한 음식에 취해진다.

(22) 송화다식

윤사월 긴긴해에 풀 뺏뺏이 먹인 광목 앞치마를 띄고 솔잎향기 그윽한 뒷산에 올라 활짝핀 솔잎을 앞치마에 잡아당기어 툭툭 털면 노란 송화가루가 쌓인다. 집에 돌아와 깨끗한 그릇에 찬물을 넣고 송화를 넣어 가라앉히면 녹말같이 남는다. 바람에 날릴세라 흰종이 위에 널어서 방바닥에서 말린다. 꼭꼭 싸매서 저장하였다가 꿀물에 적당히 반죽하여 다식 틀에 넣어 꼭꼭 찍어내면 너무도 예쁘고 심장이 강해지며 어린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차례 상에서 뽐낼 수 있다.

(23) 수정과

생강을 썰어서 계피와 넣고 달여 누른 설탕을 타서 간을 맞춰 식히고, 붉게 잘 익은 꽃감에 호두를 넣어 김발에 말아 썰면 예쁜 모양이 나온다. 수정과 국물에 몇 점 넣고 잣을 동동 띄워서 내는 맛이 싱그럽고 좋다. 여유가 있다면 수삼뿌리를 같이 끓이면 더욱 향이 좋다.

(24) 술(막걸리·약주·동동주)

농사 지은 밀을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는 공기 체에 쳐 수제비를 하여 드시고 겉질과 거친 속을 물에 반죽하여 뒷박같이 생긴 나무로 만든 틀에 넣어 보자기에 싸서 발로 꼭꼭 밟아 그늘에 말려서 저장하면 술의 원료 누룩이 된다.

밥을 시루에 고슬고슬하게 찌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밥과 누룩가루를 섞어서 비벼 한숨 식힌다. 다음 술 향을 넣고 싶으면 솔잎을 씻고 가을에 집근처에 피어있는 국화꽃을 말려 놓았다가 섞어서 큰항아리에 넣고 정갈한 식수를 섞어 따뜻한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씌워놓는다. 3~4일이 지나 귀를 대면 속에서 거품이 올라오며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한다. 10여 일이 지나면 용수¹⁾를 단지 속에 넣고 맑은 술은 따로 떠서 다른 그릇에 놓고 어르신이나 손님이 오시면 사기주전자에 담아 내면 약

1) 용수: 대나무로 둥글고 길쭉하게 술독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소쿠리

준다. 또 이 술에 찹쌀로 한 식혜밥을 따로 두었다가 위에 동동 띄우면 동동주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술지검지와 물을 섞어 주물러 짜서 받쳐서 먹으면 막걸리가 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한 사발 떠먹으면 힘이 솟고 들에서 일하다 먹으면 농주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양조장에서 화학식으로 약품과 같이 담가서 빨리 취한다고 한다. 이 누룩은 찬밥이 남으면 조금 섞어서 부뚜막 뒤에 이틀만 두면 밥알이 삭으며 단술이 된다. 설탕 혹은 당원을 조금 넣어 끓이면 아주 맛이 있는 간식이 된다. 이걸 충청남도에서 즐겨 만들던 음식이다.

예산 밑에 신앙이라는 곳에 가보니 희한한 주법 담그는 식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막걸리를 양조장에서 사서 단지에 넣고 사과를 저미고 먹던 과일껍질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 4~5일 가라앉으면 맑은 과일주가 돼서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약주로 변한다. 현대판 약주이다.

(25) 썩떡

썩떡도 이 지역이 평야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먹고 있다. 썩갓떡, 썩버무리, 생썩편, 썩국 이런 것은 영양도 좋고 향기도 좋고, 옛날 보릿고개를 넘기던 선조들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3cm 자란 썩을 뜯어서 과랴게 삶아 약간 물에 담가 독소를 뺀 다음 쌀을 물에 불려 같이 뺑는데 썩이 많이 들수록 찰지고 좋다. 말랑말랑 할 정도로 주물러서 손자국을 내며 조그맣고 동그랴게 모양을 낸다. 술에 소쿠리를 넣어 김이 나도록 찌서 식힌다. 너무 식기 전에 고소한 참기름과 호염(굵은 소금)을 섞어서 반들반들하게 발라서 나무목판에 보기 좋게 담아 놓는다.

(26) 오곡밥과 나물

정월대보름엔 각종 나물을 볶아 오곡밥과 먹던 풍습이 이젠 변화하여 특이한 나물을 선호하고 있으나 평택에서는 그래도 무청나물에 된장을 조금 넣어 들기름에 볶아서 겨울동안 부족한 영양 섭취를 하고 코다리조림(동태 말린 것)과 찌개에 곁들여 먹던 옛모습이 싱그럽다.

(27) 우렁 된장

가을 논에 벼를 베고 나면 그 뒤를 따라 오목오목한 자리를 파면 오그르 모여있는 우렁을 소쿠리에 담아 물에 하루 담갔다가 흙냄새가 가신 후에 끓는 물에 담가서 꼬챙이로 톱 건들면 나온다. 깨끗이 씻어 된장에 넣고 끓이면 아주 맛이 좋다.

요즈음 골뱅이 무침을 선호하는데 그것보다 우렁회무침을 야채와 같이 하면 담백하고 쫄쫄 씹는 맛과 향기가 더욱 좋다.

같은 논에서 나는 과로 생미나리를 생으로 섞어서 맵고 시고 달게 무치면 더욱 입맛을 돋구어주는 음식이 된다.

(28) 전통장류(된장·고추장)

된장은 요즈음엔 암의 예방식이라고 선호하는데, 한 때는 냄새와 색깔에 밀리어 세월의 뒤안길로 밀쳐 버린 적도 있고 젊은 세대 특히 신세대에게 버림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고 허망한 감도 든다. 초여름에 정성껏 밭에 심어 가을 햇빛에 타작을 하여 도리깨질을 하면 툭툭 불거진 노란 알갱이들을 모아 서릿발이 내리는 초가을에 무쇠 솥에 끓여 곱게 절구에 뺑아 짚으로 엮어 처마 밑에 겨우내 달아놓고 오며가며 바라보다 봄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보름쯤 띄웠다가 정월 말쯤 즉 7일·17일·27일 중말날을 골라 소금물을 탄다. 간은 날계란을 소금물에 띄워보면 동동 뜰 때 알맞게 30일을 단지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붓는다. 아침마다 밤새 하늘에서 내린 감로수를 담백 먹는 모습이 마른 후에 햇빛에 쪼이며 발효하여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면 일년에 농사가 되는 것이 가장 전통적 장담그기에 표본이고 요즈음엔 개량메주를 뺑아 즉석에서 담그는 된장, 메주를 뺑아서 신 김치와 무를 넣어 담가 끓여먹는 빠개장, 콩을 삶아서 띄워먹는 청국장 등이 있다. 그렇지만 변질 없고 오래두고 먹는 전통된장이 이 지방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이다.

고추장도 부산 쪽에서 유행하는 옛고추장, 전라도 무안동에서 잘 담그는 보리쌀고추장 등등이 많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찹쌀고추장이 가장 끈기 있고 맛이 좋다.

따뜻한 봄날 햇빛 좋은 앞마당에 검정 솥에 잘 마른 장작(소나무)을 지펴놓고 걸보리로 정갈하게 띄운 옛기름을 걸러서 세 번쯤 끓여 줄어들게 달군 옛물에 좋은 찹쌀가루를 도넛같이 만들어 끓은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놓고 잘 끓인 옛물을 부어 섞어서 곱게 삭힌다. 그리고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고루 섞으면 반질한 고추장이 된다.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정갈한 단지에 담아서 햇볕을 가끔 쏘여주며 50일이 지나면 맛좋은 찹쌀고추장이 탄생한다.

아침에 단지 뚜껑을 열어놓고 저녁에 닫아놓고 매일 사랑을 쏟아 주는 그 옛어머님의 정성에 고추장과 된장의 맛은 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잡귀가 근접을 못하게 된장, 간장을 담그고 그 향아리엔 곱게 꼬은 새끼줄에 고추와 솔잎, 검은 참숯을 고루 엮갈려 꼬아 금줄을 띄워놓고 창금지로 버선을 그려 거꾸로 단지에 붙여놓고 매일 같이 잘 익고 맛이 있어라 두손 모아 기도하는 할머니의 정성과 불 속에 참숯을 빨갛게 달구어 넣어 간장 속에 있는 균을 멸균시키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 맛과

정성에 지독하다는 압도 물러 꺼라 비켜서라 하는 우리민족의 음식이며 이 고장의 가장 좋은 기후와 토질의 힘으로 우리의 자랑과 힘을 가지고 서민 깊숙이 뿌리 박힌 평택의 음식이다.

(29) 젓갈

잘생긴 굴을 소금물에 씻어 소쿠리에 담아 놓고 멧돌에 고추와 마늘을 곱게 갈아 굴과 버무려 간을 맞추면 아주 상큼한 어리굴젓이 된다. 바지락이 흔한 지역이 돼서 조개젓과 함께 밑반찬에 아주 좋다.

지금 사철에 고추가 있지만 옛날엔 가을 풋고추를 쫑쫑 썰어 섞어서 맛 좋게 무치면 멸치젓과 같이 인기다. 옛날 농번기에는 막걸리(농주) 안주로 제격이었다.

젓갈 중에는 만월호가 항만이 되기 전에 가을 논에 벼가 노릇노릇할 때 조그만 새우잡이 배가 멀리 나가 잡아오면 잡새우는 골라내고 잔잔한 새우만 남긴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 소금에 절여놓으면 추젓이 된다. 일명 곤장이젓이라고도 한다. 잘 보관하였다가 김장때 사용하면 좋다. 생새우 대용으로 하고 김장을 담그면 맛이 달다.

(30) 찐지

갓가지 김치종류 중 여름에 먹는 강찐지, 즉 소금에 절인 무김치는 더위도 이길 수 있고 온갖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가을 김장철에 알맞은 무를 소금에 짜게 절여서 붉은 고추에서 나오는 고추씨와 함께 한다. 깨끗이 씻어 잘게 채 썰어 맑은 물에 띄워서 적당한 간이 될 때는 마늘과 식초를 곁드려 먹으면 모든 맛보다 더욱 좋다.

(31) 찹쌀, 부꾸미

설날에는 찹 수수를 뺏아 반죽하여 팔을 달게 만든 소를 넣어 부꾸미를 부쳐먹으면 영양에도 좋고 찹쌀부꾸미를 곁들여 먹으면 색상도 좋고 모양도 좋아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요즘은 같이 사먹는 것이 많은 시대에는 가끔 보는 요리가 별미이다.

(32) 청동오리

까무잡잡한 색깔에 푹 끓인 찹쌀죽이 숟가락속에 푹푹 묻히는 것이 맛갈스럽고 영양이 듬뿍들어 만인이 좋아 할 것 같은 음식으로 보기만큼이나 소중한 음식이다.

지형적으로 우리고장은 물이 많다. 그래서 오리도 많고 기러기도 많다. 포송 내거리 동네에는 논에 벼를 베고나면 폭신하게 남아있는 지푸라기 숲에 주먹만한 알을

즐비하게 남아 있는데, 삶아서 즐겨먹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소개하고 싶은 청둥오리는 모양도 예쁘고 순한 모습으로 관상용이며 시각적으로 즐겨 볼거리가 된다하며 또한 맛깔스럽다고 느낄 수는 없으나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사슴뿔의 맨 밑 부분인 녹각을 넣고 푹 끓여서 육수를 낸 후에 주먹만한 청둥오리를 깨끗이 씻어 속엔 찹쌀 황율(밤 말려 속껍질까지 벗겨 말린 것), 생강, 은행, 대추를 넣어 끓인다. 보드랍게 끓인 후에 약간 소금으로 간하여 먹으면 좋다.

고기를 다 건져먹고 나머지 육수에 찹쌀밥을 넣어서 푹 끓이면 더욱 보드랍다. 성인병에 좋다하여 노인분들이 즐겨 드신다. 오리백숙이나 삼계탕을 생각하면 허비할 때가 없다.

(33) 추어탕

논 옆에 졸졸 내려오는 물을 거꾸로 체에 바치면 토종 미꾸라지가 꽤 많다. 푹 끓여서 뼈를 추려내고 뽀얀 물이 되도록 끓여서 된장과 시래기를 넣고 들깨 볶아서 빵은 가루를 넣으면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영양식이 된다. 전라도 부안 지역에서는 두부를 냄비에 넣고 산 미꾸라지를 넣어 불을 지피면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익으면 썰어서 초간장을 찍어서 먹으며 영양섭취를 취한다.

한편 튀김가루 옷을 입혀 끓는 기름에 튀기면 아작아작 한 것이 아주 구미를 돋구어 주는 일종의 영양식품이 된다.

(34) 콩국수와 바지락칼국수

콩국수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밥맛은 없고 들에서 땀흘려 일하고 돌아온 분들에게도 좋고 술바람 살살 부는 후원에서 친구와 벗삼아 하루를 보낸 분들에게도 한끼 식사 대용도 되고 가슴까지 서늘한 깊은 우물 속의 물을 연상하게 된다.

옛날부터 경기도 지방 특히, 이 고장에서 잘 자란 메주콩을 싱싱한 걸로 골라 잘 저장하여 두었다가 물에 담가 살짝 끓여서 맷돌에 갈아서 광목자루에 곱게 바치고 콩을 볶아서 빵아 놓은 것 조금을 밀가루에 섞어 칼국수를 곱게 밀어 썰어 삶아서 콩국에 말아 싱싱한 오이를 곁드려 한 그릇씩 먹으면 더위도 건디고 여름을 즐기며 영양섭취가 되는 여름의 풍미로 예로부터 즐기던 전통음식이다. 그리고 향토음식으로 안중, 포승 등에서 나오는 바지락을 삶아서 끓인 칼국수와 함께 서민들이 즐겨 찾고 별미로 만들어 먹는다.

(35) 호박김치

붉게 여문 호박을 껍질과 속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잘게 칼로 저며서 무와 잎이 달린 것과 배추 곁에 파란 것을 함께 절여서(소금) 깨끗이 씻고 다듬어 놓은 호박을 썰고 여름내 먹던 계장 및 짓갈과 풋고추가루를 버무려 간하여 두었다가 맛이 들면 왜솔에 넣어 (투거리)에 살짝 익혀서 상에 놓으면 찌게 겸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된다. 호박의 단맛과 무의 담백한 맛으로 엇갈려 서민 음식으로 으뜸이다. 개성의 보쌈김치, 전라도의 백김치 어느 김치와 맞대결해도 1등할 자신을 갖는 식단이다. 흔히 담그는 동치미 커다란 물독에 무를 가득 넣고 생강과 마늘, 실파, 고추, 소금에 삭힌 것을 함께 넣어 간하여 알맞게 물을 붓고 위에 덮을 때는 생강, 잎으로 덮었다.

방언

제 7 절

1. 평택 방언

1) 들어가기

김공철의 연구(1977)에서는 우리 나라의 방언 구획을 역사적, 행정적 지방 관념에서 크게는 3개, 작게는 6개의 방언권으로 나누었다.



이에 의하면 평택 방언은 우리 나라 중부 방언권에 속한다.

평택시는 역사적으로 통일 신라 시대에는 백제 고도에(삼국 시대, 약 4세기 경에는 평택 지역이 백제의 땅이었다), 고려 말기에는 양광도 천안부에, 조선 초기에는 충청도에 예속되어 있다가(조선 말기에는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분할되는데 평택은 충청남도에 속한다)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경기도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택 방언은 표준말 즉 현재 서울 지역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우리 나라 표준말의 중심이 된 서울 지역어도 크게 보면 평택 방언과 같은 중부 방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깊이 따지고 보면 같은 방언권에 속한다 할 지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말은 어떠한가, 또 표준말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평택 방언을 살피면서 표준말과 서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 쓰인 자료는 2001년 4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집한 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다. 1차 조사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3차 조사는 1, 2차에 수집한 자료를 확인 보충하는 조사로써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평택 지역은 글쓴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보자를 구하기가 매우 쉬웠을 뿐 아니라 제보자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어서 글쓴이와 제보자 사이의 대화가 매우 자연스러운 가운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방언 수집을 위한 질문지는 1980년 한국 정신 문화원 어문학 연구실에서 편찬한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1, 2차 조사에서는 이 질문지에서 제시하는 그대로 질문하여 수집하였으나 3차 확인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에서 같은 것은 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 보는 설명 질문법으로 확인하고 다른 것은 '극쟁이'라고 말합니까? '극징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 보는 선택 질문법을 주로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제보자의 선정은 3대 이상을 평택 지역의 농촌에 사는 분들로 하였다.

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 강원식, 67세, 남자, 농업, 초등 3년 중퇴, 평택시 용이동 신흥리 331에서 출생, 25 세 때 평택시 비전 2동 868-11번지로 이주, 지금까지 4대 째 살고 있음. 제

보자.

- 윤익상, 54세, 남자, 목축업, 고졸,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 283번지에서 5대 째 살고 있음. 제보자.
- 조대현, 46세, 남자, 대학직원, 대졸, 평택시 가재동 226-4번지, 4대 째 살고 있음. 제보자.
- 차필병, 55세, 남자, 공무원, 대재, 평택시 장안동 485번지에서 대대로 살고 있음. 확인자.
- 김광태, 41세, 남자, 대학직원, 대졸, 평택시 세교동 567번지에서 4대 째 살고 있음. 확인자.

2) 표준말과 평택의 방언의 차이

방언이 '표준말과 다르다'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다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는 낱말의 뿌리는 같으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낱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평택 방언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이 글 (1)에서는 먼저 소리가 표준말과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고 이어서 (2)에서는 낱말 자체가 다른 것을 살펴본다.

왼 쪽에 있는 말이 표준말이고 오른 쪽에 있는 말이 평택 방언이다.

표준말에서 준말이 있고 평택 방언에서는 그 준말을 주로 쓸 때에는 그 쓰임을 보이기 위하여 평택 방언에 두어 살핀다.

표준말이 둘 있을 경우에도 어느 하나에 대하여 평택 방언에서 주로 쓰일 때에는 그 쓰임을 보이기 위하여 평택 방언에 두어 살핀다.

(1) 소리가 다른 말

① 모음을 달리 하는 말

① 'ㅣ모음' 치닿기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ㅣ모음 치닿기 현상'은 한 낱말 안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뒤 음절에 있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음운 현상이 그러하듯이 평택 방언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평택 방언에 나타나듯이 서울 지역어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평택 방언이 이 현상으로 표준어와 달라진 것과 서울 지역어가 이 현상으로 '표준어 : 평택 방언'

이 달라진 것으로 나누어 살핀다.

평택 방언의 ‘ㅣ’모음 치닿기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 | | | |
|--------------|---|--|
| (1) [ㅏ : ㅑ]; | 잠방이 : 잠뱅이,
정강이 : 정갱이,
할아버지 : 할애비,
소나기 : 소내기,
피라미 : 피래미,
오이소박이 : 오이소백이,
학교 : 핵교, | 참빗 : 챔빗,
아버지 : 애비,
올가미 : 올개미,
말기다 : 맬기다,
사금파리 : 새금파리,
가볍다 : 개볍다 |
| (2) [ㅓ : ㅕ]; | 누더기 : 누데기,
두드러기 : 두드레기,
어미 : 에미,
먹이다 : 맥이다,
(겹질)벗기다 : 뻗기다 | 엉덩이 : 엉뎡이,
언청이 : 언챙이,
구더기 : 구데기,
(사람)버리다 : 베리다,
지렁이 : 지러이 |
| (3) [ㅜ : ㅠ]; | 잠부기 : 잠디기,
구경 : 기경, | 수염 : 시염
누룽지 : 누렁이 |
| (4) [ㅡ : ㅣ]; | 진드기 : 진디기, | 다듬이질 : 다딤이질 |

위 예에서 보면 평택 방언에서는 ‘ㅣ’모음 치닿기 현상’ 중에서도 (1, 2)의 [ㅏ : ㅑ], [ㅓ : ㅕ]의 경우가 많다. ‘ㅣ’모음 치닿기 현상’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 즉 /ㅏ, ㅓ, ㅑ, ㅕ/가 그 다음 음절의 /ㅣ/로 말미암아 /ㅑ, ㅕ, ㅓ/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는 움라우트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움라우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던 /ㅏㅣ, ㅓㅣ, ㅑㅣ/가 단모음 /ㅑ, ㅕ, ㅓ/로 확립된 뒤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어서 평택 방언 중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표준말의 ‘ㅣ’모음 치닿기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 | | | |
|--------------|--------------------------|--------------|
| (6) [ㅑ : ㅓ]; | 시래기 : 씨라구,
다래끼 : 다라끼, | 부지깽이 : 부지깽이, |
| (7) [ㅑ : ㅓ]; | 굼벥이 : 굼병이, | |
| (8) [ㅑ : ㅓ]; | 제채기 : 채치기, | |
| (9) [ㅑ : ㅓ]; | 극쟁이 : 극징이, | 수제비 : 수지비 |

② 'ㅣ모음 이어 닳기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이 현상은 위 ①의 'ㅣ모음 치닳기 현상'과는 닳는 방향이 다르다. 위 ①의 경우는 뒤 음절의 /ㅣ/가 앞 음절에 스며들면서 일어나는데 비하여 다음 예 (10)의 경우는 앞 음절의 /ㅣ/가 다음 음절의 모음에 스며들면서 일어난다.

(10) [ㅏ : ㅑ]; 이웃 : 이웃

③ '모음의 자음 닳기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모음의 자음 닳기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음 /ㅡ/가 그 소리의 바탕이 약하여 자음 /ㅅ, ㅈ, ㅊ/이 올 때 이들 자음을 닳아 /ㅣ/로 소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ㅡ/ 모음이 입술소리인 자음 /ㅂ, ㅍ, ㅁ/이 올 때 역시 /ㅡ/ 모음이 이들 자음을 닳아서 /ㅏ/로 바뀌는 것이다.

평택 방언에서는 이러한 까닭으로 표준어와 모음이 달리 쓰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 [ㅡ : ㅣ]; 부스름; 부시름,

그스름돈 : 그시름돈

(12) [ㅡ : ㅏ]; 보습; 보십,

주름살 : 주십살,

무름; 무십,

고름; 고십,

두름; 두십,

스물; 수십,

아그배; 아구배,

평택 방언에서 /ㅡ/ : /ㅣ/, /ㅡ/ : /ㅏ/의 대립을 가진 것에는 이외에도 '여드름 : 여드림', '노을 : 너울'이 있는데 이들은 위 예에 보인 '모음의 자음 닳기 현상'이 아니다. 이들은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평택 방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울 지역어에서도 일어난다. 서울 지역어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표준어 : 평택 방언'이 달라진 것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3) [ㅣ : ㅑ]; 버짐 : 버즘

④ '모음 조화의 파괴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국어에는 일반적으로 모음 조화의 규칙이 있다. 모음 조화 현상은 한 낱말 안에서 앞 음절의 모음이 이어 나오는 다음 음절의 모음에 영향을 입혀서 두 모음이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다. 즉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 조화를 이루

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는 현상인데 평택 방언에서는 이러한 모음 조화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 표준어와 모음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모음 조화의 현상은 중세 국어까지는 철저히 지켜지다가 근대 국어부터 조금씩 파괴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평택 방언에서는 양성 모음에서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파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음성 모음이 양성 모음에 비하여 말씨가 짧잖게 들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언어 사회학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ㅏ, ㅑ, ㅓ, ㅕ/ 모음은 양성 모음으로, /ㅓ, ㅕ, ㅗ, ㅣ, ㅛ, ㅜ/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 | |
|---------------|--|--|
| (14) [ㅏ : ㅑ]: | 기계충 : 기계충,
고모 : 고무,
꽃봉오리 : 꽃봉우리,
손가락 : 손꾸락 | 삼촌 : 삼촌,
설혼 아홉 : 서른 아홉,
뽕죽하다 : 빼죽하다. |
| [ㅓ : ㅕ]: | 가깝다 : 가칩다
밝아지다 : 밝어지다
닭았다 : 닭었다,
말아 : 말어 …… | 맑아야 : 맑어야,
닭아라 : 닭어라,
삶아야 : 삶어야 |

이러한 현상은 서울 지역어에서도 일어나는데 평택 방언에서는 오히려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지역어에 모음 파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표준어 : 평택 방언’ 이 달라진 것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5) [ㅗ : ㅛ]: 고들빼기 ; 고들빼기
 [ㅕ : ㅛ]: 호두 : 호도
 [ㅓ : ㅕ]: 노른자위 : 노란자우이, 본뜬다 : 본뜬다

⑤ 기타 ‘모음 교체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모음 교체 현상은 역사적인 관점(통시적 관점)에서 앞 시대의 낱말과 뒷시대의 낱말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찾아 규칙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언어학적 현상을 찾아 그 규칙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평택 방언이 표준말과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가를 공시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모음 교체 현상은 역사적으로 살펴본 음운 규칙이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표준말에 대한 평택 방언의 단순한 비교에서 나타난 교체 현상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들을 비교함으로써 그친다.

[ㄱ] : ㄱ; 거위 : 게오
 [ㅋ] : ㅋ; 얹다 : 앵다

기타 모음의 교체

(21) [] : ㄱ;	트림 : 트름	
[] : ㅋ;	조리 : 조레,	도리도리 : 도레도레
[ㄷ] : ㄷ ㅌ;	가볍다 : 개볍다	
[ㄷ] : ㅌ;	컬레 : 쉼리,	메아리 : 미아리,
	떼다 : 띠다	
[ㄷ] : ㅌ;	베개 : 버개,	누에 : 뉘어
[ㅌ] : ㅌ;	재봉틀 : 자방틀	
[ㄷ] : ㅌ;	여치 : 유치	
[ㅌ] : ㄱ;	쇠스랑 : 소스랑,	쇠꼬리 : 소꼬리
	쇠뿔 : 소뿔,	외양간 : 오양간
	외갓집 : 오갓집,	외삼촌 : 오삼촌
[ㅌ] : ㅌ;	누에 : 뉘어,	두엄 : 뉘엄
[ㅌ] : ㅌ;	또아리 : 뽀아미	
[ㅌ] : ㅌ;	방귀 : 방구,	바뀌 : 바꾸

위 (21)의 예에서 [ㄷ] : ㅌ의 '가볍다 : 개볍다'의 경우는 두 번의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ㅌ/→/ㅌ/의 변화는 위 (6~9)의 예에서와 같이 뒤 음절에 나타나는 'ㅣ모음'으로 말미암아 'ㅣ모음 치달기 현상'이 나타난 다음, 뒤 음절의 /ㅌ/가 앞에서 바뀐 /ㅌ/모음 때문에 다시 모음 조화의 현상을 입어 /ㅌ/로 바뀜으로써 결국 '가볍다'는 '개볍다'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 '가볍다 : 개볍다'를 '기타 모음의 교체' 항에 둔 것은 그 나타난 결과만을 두고 본 것이다.

또 위 (21)에서 [ㅌ] : ㅌ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쇠스랑 : 소스랑, 쇠꼬리 : 소꼬리, 쇠뿔 : 소뿔'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소+의(토씨)'가 '쇠'로 축약되었다가 이것이 서울 지역어로 그대로 굳어지면서 표준어로 선정돼 생긴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낱말의 통시적 변천 과정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쇠 : 소'의 대립 형으로 보고 이를 일단 '기타 모음의 교체' 항에 둔 것이다. 1음절 낱말 '소'는 평택 방언이나 표준말 모두 '소'로 같다.

② 자음을 달리 하는 말

① '된소리되기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된소리되기의 현상'은 된소리의 짝이 있는 약한 소리가 겹쳐지거나 같은 서열의 약한 소리와 된소리가 겹쳐지면 이 두 소리가 한 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ㄱ, ㅂ' 받침 뒤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표준말 'ㄱ, ㄷ'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고 약한 소리로 적으며 한 낱말 안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즉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도록 한다.

그런데 평택 방언에서는 된소리가 낱 까닭이 없거나 표준말에서는 된소리로 나지 아니하는 것들 중에서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하여 된소리로 내는 것들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머릿소리]: 팽이 : 팽이,	시래기 : 씨래기,
손가락 : 손꾸락,	도랑 : 또랑, 툇캉
눈곱 : 눈뿔,	구린내 : 꾸린내
고린내 : 꼬린내,	고리다 : 꼬리다
지린내 : 찌린내,	고누 : 꼰
번대기 : 뺨디기	

(23) [가운뎃소리]: 시루뺨 : 시루뺨,	장다리무우 : 장따리무우,
절구공이 : 절구쟁이	

위 (22)에서 보인 예는 머릿소리에서 표준말과는 달리 된소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23)의 예는 가운뎃소리에서 된소리로 나타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까닭 없이 나타나는 된소리이다. 이는 평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된소리를 냄으로써 청각적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하여 뜻의 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언어 습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거센소리되기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거센소리의 짝이 있는 약한소리에 /ㅎ/이 이어지면 거센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는 거센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평택 방언에서는 /ㅎ/이 이어지지 않는데도 표준말과는 달리 거센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미단이 : 미타지,

도랑 : 툇강,

살팽이 : 살팽이,

덩굴 : 녕쿨

위 (24)의 예에서 '미단이'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에서는 입천장소리되기 규칙에 따라 '미다지'로 소리나야 할 것이고 '도랑, 덩굴'은 그대로 '도랑, 덩굴'로 소리나며 '살팽이'는 /ㄱ, ㄱ/이 이어남으로 위에서 살핀 '된소리되기 현상'을 입어 '살팽이'로 소리나야 할 것들이다. 거센소리가 되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평택 방언에서는 약한소리에 /ㅎ/이 첨가되어 거센소리로 나타나는 것은 이도 된소리되기 현상과 마찬가지로 청각적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하여 뜻의 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평택 사람들의 언어 습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기타 '자음 첨가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

(25) [ㄱ,첨가]: 어레미 : 얼게미,

얼레빗 : 얼개빗

개암 : 개감,

옛기름 : 옛질금

[ㄱ첨가]: 배우다 : 배꾸다

[ㄴ첨가]: 야옹야옹 : 나옹나옹,

이끼 : 니끼

[ㄷ첨가]: 거머리 : 검저리,

가르마 : 가름자,

아궁이 : 아궁지

[ㅅ첨가]: 모이 : 모시,

무 : 무수

[ㅇ첨가]: 구유 : 구윽

[ㅂ첨가]: 파씨 : 팍씨,

우물 : 움불

위 (25)의 예는 평택 방언에서 /ㄱ, ㄴ, ㄷ, ㅅ, ㅇ, ㅂ/ 소리가 첨가된 경우인데 방언이 표준어보다 먼저 생성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위 예 (25)는 자음 첨가 현상이 아닌 고행의 유지로도 볼 수 있으며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 공식적 과정으로는 소리의 첨가로도 볼 수 있다.

표준어의 '모래, 개암, 머루, 도라지' 등은 '물개>모래, 개금>개암, 멀구>머루, 돌갓, 돌가지>도라지'의 과정을 거친 것인데 이를 보아도 표준어의 기원형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ㄱ/이 탈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적으로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위 예 (25)를 소리의 첨가로 다루었다.

[스탈락]; 누룽지 : 누링이

⑥ '자음 교체 현상' 으로 말미암은 것

자음 교체 현상도 위 모음 교체 현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관점(통시적 관점)에서 앞 시대의 낱말과 뒷시대의 낱말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찾아 규칙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음 교체 현상도 역사적으로 살펴본 음운 규칙이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표준말에 대한 평택 방언의 단순한 비교에서 나타난 자음 교체 현상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8) [ㅁ : ㅂ]; 마루 : 바루,
- [ㅅ : ㅈ]; 석쇠 : 적쇠
- [ㄴ : ㅁ]; 냅다 : 맵다
- [ㅁ : ㄴ]; 구멍 : 구녕
- [ㅇ : ㄴ]; 홍역 : 혼녁
- [ㄷ : ㄴ]; 덩굴 : 녕굴
- [ㅌ : ㅋ]; 도토리 : 도코리
- [ㅅ : ㅂ]; 꽃지 : 폼지

③ 자음, 모음을 달리 하는 말

평택 방언을 표준말과 빗대어 볼 때 자음과 모음이 한 낱말 안에서 따로 변한 것들이 있다. 위에서 살필 때 이들도 해당되는 변이 형태가 있을 때는 같이 살폈으므로 중복을 피하면서 낱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변이된 까닭만을 간단히 곁에 다시 써 둔다.

- (29) 절구공이 : 절구갱이 - [ㄱ : ㄱ]; 된소리되기, [ㄴ : ㄱ]; 'ㅣ' 모음치닿기
- 누룽지 : 누링이 - 먼저 /스/탈락, 'ㅣ' 모음 치닿기
- 옛기름 : 옛질금 - [ㄱ : ㅈ]; 입천장소리되기, /ㄱ/첨가
- 또아리 : 파아리 - '또아'가 '파'로 음절 줄임, '파아'로 음절 늘임.
- 구멍 : 구녕 - 먼저 /ㅁ/ : /ㄴ/ 자음 교체, /ㄴ/으로 말미암아 /ㅣ/ : /ㅌ/ 모음교체 됨.
- 가위 : 가새 - '가새'가 고어형임. 고어가 그대로 쓰임.
- 번테기 : 뻔디기 - [ㅂ : ㅌ]; 된소리되기, 뒤 음절의 'ㅣ' 모음 완전 치닿음
- 기저귀 : 지저귀이 - [ㄱ : ㅈ]; 입천장소리되기, /우이/가 고어형임. /우이/가 결합되어 /꺀/가 됨. 뒤에 /꺀/는 단모음이 됨.
- 누나 : 누이 - 고어형은 둘이 다름. '누나 ← 늑+아, 누이 ← 누비 ← 늑+이' 표

준말과 평택 방언이 따로 변천됨. 현대에 와서 대립됨.

아호레 : 아아레 - [ㅏ ㅡ : ㅏ ㅏ]; 모음조화, /ㅎ/ 자음 탈락.

노래기 : 노래이 - 먼저 /ㄱ/ 탈락, /이 ㅍ ㅍ/ 자음 첨가

달갈 : 다갈 - 표준어는 '닭의 알'에서 한 낱말(합성어)이 되면서 '달갈'로 변천 되고, 평택 방언은 '닭+알'이 한 낱말(합성어)이 되면서 '달갈>다갈'이 됨.

진눈깨비 : 진둥깨비; 먼저 /ㄴ/ : /ㄷ/ 자음 교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여 2음절 끝소리 /ㄴ/을 /이 /으로 교체함.

④ 음절을 달리 하는 말

음절을 달리 하는 말은 ① 음절 늘이기로 말미암은 것과 ② 음절 줄이기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

① 음절 늘이기로 말미암은 것

음절 늘이기는 모음을 자음 사이에 넣어 소리를 고루는 것과 같은 모음을 길게 하므로 음감을 부드럽게 하는 것, 한 음절로 된 낱말에 모음을 두 음절이 되게 함으로써 낱말을 안정되게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이 음절 늘이기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먼저 이렇게 늘어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씨레 : 씨어레

(31) 까불다; 까부르다, 멸치 : 머르치,

(32) 무 : 무우, 무수, 벌 : 버리

(33) 빨기 : 빠리기

위 예에서 (30)의 '씨레 : 씨어레'는 앞 음절의 모음 /ㅏ/를 길게 발음함으로써 음감을 부드럽게 한 것의 예이고 (31)의 '까불다;까부르다, 멸치 : 머르치'는 '/ㅍ/과 /ㄷ/, /ㄹ/과 /ㅊ/이 겹쳐 발음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이에 모음 /ㅡ/를 넣어 발음을 편하게 하면서 소리를 부드럽게 한 예이며 (32)의 '무 : 무우, 벌 : 버리'는 '무, 벌'이 한 음절로 된 낱말이어서 그 형태가 불안하므로 형태의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모음을 넣은 것이다.

(32)의 '무수'는 평택 방언에서 '무우'와 비슷한 세력으로 쓰인다, 이는 '무우'에 자음 /ㅍ/을 첨가한 것이다. '무'에 '수'를 첨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33)의 '빨기 : 빠리기'의 경우는 자음 /ㄹ/과 /ㄱ/이 겹친 것이기는 하나 (31)의 '까불다;까부르다, 멸치 : 머르치'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모음 /ㅡ/가 아니라 /ㅣ/가 자음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방언형에 있어서도 /ㅣ/가 자음의 소리를 고르기 위

해 자음 사이에 예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빨기 : 빠리기’의 경우는 자음의 소리를 고르기 위해 먼저 /ㄹ/모음이 자음 사이에 들어가 ‘빠르기’가 되고 이것은 다시 ‘ㅣ’모음 완전 이어 닳기’에 따라 ‘빠리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음절 늘이기’의 일반적인 현상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평택 방언에서는 파생 이름씨에 역시 파생 이름씨를 만드는 가지(접사)인 ‘-이’나 ‘-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다시 첨가시키므로 그것이 파생 이름씨임을 단순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파생 가지의 본래 기능에서 멀어져 파생 가지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음절 늘이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나타난 결과만을 보아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며 또 하나, 음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ㄱ, ㄴ : ㄱ, ㄴ |, ㄱ, ㄴ | /가 있는데 이는 사실 /ㄱ, ㄴ |, ㄱ, ㄴ | /가 고어형이고 /ㄱ, ㄴ /는 /ㄱ, ㄴ | /가 역사적으로 단모음화 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사실 음절 늘이기의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표준어가 음절 줄이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의 목적이 평택 방언을 표준어와 단순 비교하여 어떤 말들이 표준어와 다른 평택 방언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므로 이도 그 결과만을 보아 여기에서 다룬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생 가지로 쓰이는 ‘-이, -기’의 결합으로 말미암은 음절 늘이기

- (34) [-이 첨가]: 겨드랑 : 겨드랑이, 망월 : 망월리
 [-기 첨가]: 굽도리 : 굽도리기, 땀띠 : 땀띠기

/ㄱ, ㄴ/를 고어형 /ㄱ, ㄴ | /로 발음함으로 나타난 음절 늘이기

- (35) [ㄱ : ㄱ, |]: 기저기 : 지저구이, 사위 : 사우이
 뒷자리 : 모이자리, 위 : 우이
 [ㄴ : ㄴ, |]: 꾀다 : 꼬이다,

② 음절 줄이기로 말미암은 것

평택 방언에서는 축약된 형태를 많이 쓰면서 음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평택 방언에서의 음절 줄이기 형태는 대개 1) 뒤 음절의 첫소리가 앞 음절의 받침이 되면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과 2) 자음 사이에서 소리를 고르던 삽입 모음이 줄면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3) 모음 축약으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4) 모음 없애기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뒤 음절의 첫소리가 앞 음절의 받침이 되면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 | | |
|--------------|-------------|
| (36) 켜기 : 켜, | 부젓가락 : 불젓갈, |
| 붓도랑 : 붓뜰, | 눈두덩 : 눈똥, |
| 고누 : 꼰, | 꾸러미 : 꾸럼, |
| 가시 : 갓, | 날벌레 : 날벌, |
| 때문에 : 땀에, | 때문에 : 땀에, |

삼입 모음이 줄면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 | | |
|----------------|-------------|
| (37) 그을음 : 끄름, | 그을렀다 : 끌렀다. |
| 요즈음 : 요즘, | 다른 : 딴 |

모음 축약으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 | | |
|----------------|-------------|
| (38) 이영 : 영, | 최암최암 : 줍 줍, |
| 새암 : 샘, | 고양이 : 팽이, |
| 쪼아 : 쪼, | 찌어라 : 찌라, |
| 치위라 : 처라, | 치위 : 처, |
| 끼워(준다) : 꺼(준다) | |

모음 없애기로 음절이 줄어들어 드는 것

- | | |
|----------------|-----------|
| (39) 귀에지 : 귀지, | 귀이개 : 귀개, |
| 세숫대야 : 세숫대, | 시누이 : 시누, |
| 우렁이 : 우렁 | |

(2) 형태가 다른 말

낱말은 그 짜임새로 보아 크게 홑낱말과 겹낱말로 나누어진다. '눈'은 홑낱말이고 '눈물'이나 '눈곱'은 겹낱말이다. 겹낱말은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눈물'과 같이 뿌리-낱말이 될 수 있거나 낱말의 중심을 이루는 것 -와 뿌리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다른 하나는 '눈곱'과 같이 뿌리에 가지(접사)-혼자서는 한 낱말이 되지 못하거나 낱말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낱말	홀낱말	—————	눈, 나무, 많다, 가다 등과 같은 것
		겹낱말	{ 합성어 ——— 눈물, 마소, 오르내리다 등과 같은 것 { 파생어 ——— 눈곱, 눈치, 치오르다 등과 같은 것

표준어와 평택 방언에서의 형태 다른 말은 이러한 낱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대립하는데 여기서는 이 대립 형태를 서로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홀낱말 : 홀낱말에서 달리 하는 말

홀낱말은 낱말의 짜임새에 있어서 그 형태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중에는 처음부터 홀낱말인 것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겹낱말이었던 것이 뿌리가 공시적 입장에서의 현대국어에서는 원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가지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로 굳어짐으로써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둘 다 공시적 입장에서 '표준어 : 평택 방언'의 달라진 까닭을 밝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대립하는 예만 보인다.

(40) 벼(열매) : 나락,	번지 : 판지,
바구니 : 소쿠리,	떡동구미 : 보구니,
삼태기 : 어랭이,	빔 : 짱, 보심
조 : 스숙,	부추 : 솔
반찬 : 건건이,	이남박 : 고래박,
과줄 : 다식,	고무래 : 고문대,
뜰 : 마당,	대님 : 재님,
소경 : 장님,	거울 : 채경, 색경(작은것),
천연두 : 손님,	감기 : 고뿔,
(기지개를)킨다 : 핀다,	마을 : 동네,
풀무 : 풍구,	방아깨비 : 땅개비(암컷),
방아깨비 : 때까치(숫컷)	미얀마재비 : 사마구이
뎛 : 차위,	봉선화 : 봉숭아
썸바귀 : 썸바구이,	마름 : 올망대
사납다 : 팔다,	(못을) 바루다 : 퍼다,
(뗏장) 뗏다 : 뜯다	

위 예에서 '벼(열매) : 나락'의 경우 표준말에서는 '모'에서 자라 열매가 줄기에 맺힌 그대로도 '벼'이고 털어 낸 열매도 '벼'라고 하나 평택 방언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여 열매가 줄기에 맺힌 것은 표준말과 같이 '벼'라고 하고 털어 낸 열매는

‘나랏’이라 하여 구분한다. 이는 평택 지방이 평야 지대라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전하면서 그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벼농사가 일찍 발전한 지방에는 대개 이 둘을 구분하여 쓴다. 그런데 ‘반찬 : 건건이’는 이와는 반대다. 표준어에서는 ‘반찬’과 ‘건건이’를 구분한다. ‘반찬’은 ‘국 이외에 밥에 갖추어 먹는 여러 가지’이고 ‘건건이’는 ‘고기 반찬 이외의 푸성귀로 만든 반찬’을 말하는데 평택 방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젊은 층에서는 대개 ‘반찬’이라 하고 나이 든 분들은 ‘건건이’로 쓴다. 이 자료는 제보자 강원식 님에게서 얻은 것이다.

② 흘낯말 : 겹낯말에서 달리 하는 말

① 흘낯말 : 합성어(뿌리+뿌리)

(41) 짚 : 벗짚,	(짚)방석 : 뗏방석,
절구 : 절구통,	등겨 : 쌀등겨,
술 : 무쇠술,	가마 : 가마술,
부시 : 부시들,	케 : 케짜,
숨 : 이불숨,	쌈 : 쌈물,
수채 : 수채구녕,	고기 : 물고기,
생선 : 바닷물고기,	망개 : 물망개,
기슭 : 산기슭	새뺨기 : 벼뺨기,
고기 : 쇠고기,	토꾸고기……
(42) 놉 : 품꾼,	겉두리 : 셋밥, 새참,
벗 : 우이보습,	확 : 디딜절구
면화 : 목화꽃,	가부좌 : 책상다리
그리마 : 돈벌레	논개 : 안개비

위 (41)의 예는 표준어에 그와 관련 있는 한정적인 낯말을 더함으로써 낯말의 뜻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물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은 듯하다. ‘고기’를 예로 들어본다면 표준말에서는 그냥 ‘고기’라고만 하여 ‘물고기’인지 ‘쇠고기’인지 ‘토끼 고기’인지 구별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평택 방언에서는 민물고기는 ‘고기’에 그 ‘고기’를 한정하는 ‘물’을 결합하여 사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생선’은 ‘고기’에 ‘바다+물’을 결합하여, 또 짐승의 고기일 경우는 그 짐승의 이름을 앞에 두어 쇠고기, 토꾸고기하며 그 사물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흘날말 : 파생어(뿌리+가지)

(43) 자루 : 손잡이,	돌쩌귀 : 문도레
내 : 내깔,	발채 : 바수거리
구석 : 구석쟁이	

위 (43)의 예는 (42)의 예에서와는 달리 '내 : 내깔, 구석 : 구석쟁이' 처럼 뿌리에 가지를 덧붙혀 그 뜻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자루 : 손잡이, 돌쩌귀 : 문도레, 발채 : 바수거리' 처럼 다른 뿌리에 가지를 결합시켜 표준말과는 다른 말을 쓰기도 한다. (43)의 예에 쓰인 방언의 날말 짜임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손잡이 ('ㅣ' 치닿기) ← 손·잡(다) + -이(사물의 뜻)
- 문도레 ← 문·돌(다) + -에(도구의 뜻)
- 내깔 ← 내 + -깔(모양의 뜻)
- 바수거리 ← 밧(다) + (우)거리(걸린 물건의 뜻)
- 구석쟁이 ← 구석 + 쟁이(낮춤의 뜻)

③ 겹날말 : 흘날말에서 달리 하는 말

(44) 누에나방 : 나비

평택 방언에서는 '겹날말 : 흘날말'의 예가 많지 않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44)의 '누에나방 : 나비' 하나뿐이다. 평택 방언에서는 표준어의 '나비'도 '나비'라 하고 '누에나방'도 '나비'라 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젊은 층으로 갈수록 '누에나방'과 '나비'의 개념을 뚜렷이 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한 표준어 교육으로 말미암은 듯하다. 아무튼 평택 방언에서 '흘날말 : 겹날말'은 그 수가 무척 많은데 비하여 '겹날말 : 흘날말'의 수가 위 예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나비'가 중세 국어에서는 '납+-이'의 형태인 파생어가 현대 국어에서 흘날말로 굳어진 것을 고려하면 평택 방언에서는 날말의 구성 요소를 늘여서라도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겹날말 : 겹날말에서 달리 하는 말

겹날말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뿌리에 뿌리가 결합된 합성어와 뿌리에 가지가 결합된 파생어가 있다. 따라서 '겹날말, 겹날말'은 모두 네 가지의 대립 형태로 나타나

는데 첫째, 합성어 : 합성어, 둘째, 합성어 : 파생어, 셋째, 파생어 : 합성어, 넷째, 파생어 : 파생어의 형태가 그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합성어 : 합성어

(45) 디딜방아 : 디딜방아,	밭이랑 : 밭두렁,
오이소박이 : 오이속배기,	오이지 : 오이짬지,
구둣주걱 : 구둣숫갈,	새알심 : 새알수지비
튀밥 : 쌀강냉이,	시루밑 : 시루실경,
물부리 : 빨주리,	담배통 : 대꼬바리, 담배꼭지
담배실대 : 담뱃대,	자물쇠 : 자물통,
열쇠 : 쇠때,	뒤꼍 : 집두란,
장독대 : 장짱	변소 : 뒷간,
가죽허리띠 : 혁대	형곶허리띠 : 허릿빠,
면화 : 목화꽃	돼지머리 : 돼지대가리,
킷불 : ���밥,	목물 : 등떡,
오른손 : 바른손,	복사빠 : 복숭아빠,
여자아이 : 기집애,	남자아이 : 사내애
곤지곤지 : 찌꿍찌꿍,	따로따로 : 섬마섬마, 따로따로
새색시 : 새댁,	시숙 : 시아즈버니
백부 : 큰아버지,	중부 : 둘째아버지,
숙부 : 작은아버지,	마을간다 : 마실간다,
홍시 : 연시	반딧불 : 개똥벌레

여기서는 둘 다 표준말인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데도 여기에서 평택 방언으로 분류하여 표준말과 대립 관계로 둔 것은 왼쪽 것보다는 오른쪽 것을 주로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말의 경우는 한 자 한 자 떼었을 때 하나의 낱말이 될 경우에는 뿌리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같이 다루었는데 이는 항을 달리하여 다루기보다는 여기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평택 방언을 잘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예에서 '오이지 : 오이짬지'는 좀 다른데 이는 '오이지'가 '오이짬지'의 준말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었다.

② 합성어 : 파생어

(46) 산돼지 : 멧돼지

‘합성어 : 파생어’의 경우도 평택 방언에서는 그 예가 조사 항목 중에서는 하나뿐이다. 그것도 ‘멧돼지’의 ‘멧’이 중세 국어에서는 뿌리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한자말 ‘산’에 밀려 한 낱말로 쓰이지 않게 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한다면 평택 방언에서는 ‘합성어 : 파생어’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닌 듯 싶다.

③ 파생어 : 합성어

- | | |
|-----------------|-------------|
| (47) 빼꾸기 : 빼꼭새, | 소뽕질 : 소뽕장난, |
| 소입막이 : 풀망, | 망아지 : 말새끼 |
| 밑신개 : 그네판 | |

평택 방언에서 ‘파생어 : 합성어’의 형태는 위 (47)에서 보인 예와 같은데 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불확실한 가지를 모두 그 뜻이 확실한 뿌리 형태로 바꾸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빼꾸기’는 상징어의 단위 형태인 ‘빼꼭’에 ‘그러한 사물’이라는 뜻을 가진 파생 가지 ‘-이’를 결합한 것인데 이를 그 뜻이 확실한 낱말(뿌리) ‘새’로 바꾸어 쓰고 있고, ‘소뽕질’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뜻을 가진 파생 가지 ‘-질’ 대신에 그 뜻이 확실한 낱말 ‘장난’으로 바꾸어 쓰고 있으며, ‘망아지’에서도 가지 ‘-아지’ 대신에 ‘새끼’를 씌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입막이, 밑신개’에서는 앞의 세 예와는 좀 다르나 ‘풀망’이 ‘소입막- + -이’ 보다는 그 뜻이 분명하고 ‘그네판’이 ‘밑신- + -개(그러한 도구)’ 보다는 그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 두고보면 평택 방언은 표준말에 비하여 그 뜻이 분명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④ 파생어 : 파생어

- | | |
|-----------------|---------------|
| (48) 김매기 : 피사리, | 호미씻이 : 두레놀이 |
| 벼훅이 : 훅테질, | 굽도리 : 굽도리기 |
| 용마름 : 용마루, | 용구새 두렁이 : 배두리 |
| 불거리 : 불찌, | 말더듬이 : 반병어리 |
| 귀머거리 : 귀내거리, | 쥐불놀이 : 쥐불놀이 |
| 얼레 : 연감개 | |

위 (48)의 예는 표준어나 평택 방언 모두 파생어이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굽도리 : 굽도리기, 용마름 : 용마루, 용구새, 볼거리 : 볼찌'와 같이 뿌리는 같으나 가지가 다른 것이 있고, '귀머거리 : 귀내거리, 말더듬이 : 반병어리, 쥐불놀이 : 쥐불놀이' 처럼 가지는 같으나 뿌리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면 '김매기 : 피사리, 호미씻이 : 두레놀이, 벼훑이 : 훑테질, 두렁이 : 배두리, 얼레 : 연감개' 처럼 뿌리와 가지 모두가 다른 것이 있다. 이들 짜임새에 나타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뿌리는 같으나 가지가 다른 것

- 굽도리(← 굽돌- + -이) : 굽도리기(← 굽돌이- + -기)
- 용마름(← 용말- + -음) : 용마루, 용구새(← 용말- + -우, 용 + 구새)
- 볼거리(← 볼 + 거리) : 볼찌(← 볼 + 찌)

가지는 같으나 뿌리가 다른 것

- 귀머거리(← 귀머- + -어리) : 귀내거리(← 귀내- + -거리)
- 말더듬이(← 말더듬- + -이) : 반병어리(← 반병얼-(고어) + -이)
- 쥐불놀이(← 쥐불놀- + -이) : 쥐불놀이(← 쥐불놀- + -이)

뿌리와 가지 모두 다른 것

- 김매기(← 김매- + 기) : 피사리(← 피살- + -이)
- 호미씻이(← 호미씻- + -이) : 두레놀이(← 두레놀- + -이)
- 벼훑이(← 벼훑- + -이) : 훑테질(← 훑- + -에 + -질)
- 두렁이(← 드르- + -이) : 배두리(← 배두르- + -이)
- 얼레(← 얼르- + -에) : 연감개(← 연감- + 개)

여 백

3장 지명유래

平澤



여 백

지명유래

제 1 절

1. 송탄시 지역¹⁾

1) 서정동

◎서정(西井):

① 예전 양성현에 속하였을 때 서쪽[西]이었고 물맛 좋은 우물[井]이 있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하며, 400여 년전에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물 정(井)자 모양의 틀이 현존한다.

② 현재 행정구역상 서정동은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고 동을 나눌 때, 서정동의 주요지역이 번지상 서정 ○○○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실제 동명의 유래가 된 서정리는 중앙동에 속한다.

• 점촌(店村): 우리말로 점말이다. 예전에 옹기를 굽던 공장인 옹기점이 마을에 많았으므로 점촌이라 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도 옹기가마가 많이 남아있었다.

• 지장동(地莊洞): 2·4통의 마을 이름. 지장동(地藏洞)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지장사(地藏寺)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북창동(福昌洞): 3~5, 14·38통의 마을 이름.

① 미 공군기지가 생기면서 청소용역을 맡은 '북창공사(福昌公社)'가 이곳에 생기면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북이 창성하라는 뜻에서 지었다고도 한다.

1) 순서는 옛송탄시 지역, 평택시 지역을 우선하였다. 이하 읍·면은 건제 순을 따랐고, 동·리는 가나다 순에 의해 배열하였으며 작은 마을은 유래에 따라 적절히 배열하되 가능하면 행정리의 순에 따랐다. ◎는 행정동·법정동·법정리이며, •는 그밖의 마을이름이다.

- 신창동(新創洞): 6·7·15·30통 마을 이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미군부대로 출퇴근하기 편한 이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이 생겨난 마을이라는 뜻이다.
- 황해도촌(黃海道村): 주로 황해도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살아 유래하였다.
- 절골: 신창동의 앞 마을로 약수암(藥水庵)이라는 절이 있어 마을 명칭이 되었다.
- 사거리(四巨里): 8·9통의 마을 이름. 신창동, 신장동, 적봉리, 장등리로 통하는 네거리가 있는 곳이라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큰 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 원적봉(原赤峰): 16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서탄면 적봉리에서 서정동으로 편입된 마을로, 본래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산 봉우리(峯)에 나무가 없어 그대로 붉은(赤) 흙이 드러나므로 지었다고 한다.

2) 송북동

- ◎ 송북(松北): 송탄시가 승격되면서 새로이 생겨난 행정동으로, 송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였고 송북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듯하다.
- 송천(松泉): 1~6·37통의 마을 이름.
 - ① 1970년경 탄현마을에서 분리되면서 정해진 명칭으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지산천 옆에 둔 마을이라 샘 천(泉)을 써서 지었다고 추측되기도 한다.
 - ② 1970년대 탄현부락에서 분리되었으며, 물맛이 좋은 샘이 있어서 송탄에서 송(松), 샘에서 천(泉)을 따서 송천마을로 명명하였다고도 한다.
- 건지미(乾芝-): 7통의 마을 이름. 보통 윗건지미를 말한다. 잔디 때가 마를 정도로 건조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양달말: 건지미의 동북쪽 마을의 우리말 이름. 해가 잘 드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래한 것 같다.
- 응달말: 14통의 마을 이름. 건지미의 서남쪽 마을의 우리말 이름.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래한 것 같다.
- 북어울: 건지미 양달말의 뒷 산에 있는 마을 이름. 큰 북어울과 작은 북어울이 있다. 예전에 명태를 가져다 말려 북어를 만들었던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신흥(新興): 12·13·15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건지미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마을로서 새롭게(新) 흥성(興)하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 우곡(牛谷): 8통의 마을 이름. 우리말 이름은 소골이다.

① 예전부터 진주 소씨가 집성촌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씨 고을 즉 소골이 되었다고 한다.

② 마을의 형세가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臥牛形)이었으므로 소(牛)골이라고도 한다.

• 동막(東幕): 9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삼남대로와 인접하여 주막이 많았다고 한다.

① 안성을 서쪽으로 접한 동쪽(東) 끝자락의 마지막(幕) 마을이라 하여 유래하였다고 한다.

② 마을 동(東)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 마치 막(幕)을 친 것 같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독곡동(獨谷洞): 산중에 외로이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 오좌동(梧佐洞): 10통의 마을 이름. 오동나무(梧)에 봉황새가 앉는다 하고,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오동나무가 봉황새를 돕는다 [佐]하여 유래하였다고 한다.

• 오좌월(梧佐一): 오좌동의 우리말 이름.

• 오리곡(五里谷): 11통의 마을 이름.

① 5리나 되는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마을 앞에 큰 개천이 흐르고 오리가 많은 곳이라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③ 옛 이름인 오류곡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오류곡(五柳谷): 오리곡의 옛 이름. 예전에 버드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는 마을에 5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유래했다고 한다.

• 오릿골: 오리곡의 우리말 이름.



■ 독곡동 향나무

3) 송탄동²⁾

(1) 가재동(4~7통)

◎가재(佳材): 마을이 위치한 산의 모양이 가재와 같다고 해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재울: 가재 마을의 우리말 이름.

• 상가재: 6통의 마을 이름. 촌락의 위에 위치했다는 뜻.

• 하가재: 7통의 마을 이름. 촌락의 아래에 위치했다는 뜻.

• 막곡(幕谷): 5통의 마을 이름.

2) 이 지역은 다른 도시 지역과 달라 먼저 법정동별로 나누고 다시 자연 촌락으로 구분하였다. 통명은 송탄동 00통이라는 뜻이다.

- ① 마을 뒤의 막골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대체로 이런 명칭은 막다른 곳에 있는 마을에서 나타난다.
- ② 마을 뒷산이 성과 같고 그 아래 마을이 군대의 막사와 같다고 해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③ 「큰말(방혜동)」·가운데말(중리)·아랫말(막곡)」로 불려지고 있으므로 끝에 마을이라는 의미의 막곡(莫谷)으로도 표기하고 있음.

- 중리(中里): 4통의 우리말 이름. 촌락의 가운데 있다는 뜻.
- 방혜동(芳惠洞): 5통의 마을 이름. 조선시대에 방효리(芳孝里)였는데 예전에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뒷 마을의 산세가 꽃[꽃]과 같아 복을 받을[惠] 것”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한다.



■ 가재동(조선시대 유물출토지 원경)

- 뱀여울: 방혜동의 우리말 이름. 뱀여울이라고도 한다.
- 감나무골[柿洞]: 지금은 없어진 곳으로 감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
- 사당리(祠堂里): 사당재라고도 한다. 재너머에 사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 지금은 막곡과 합쳐졌다.



■ 도일동(제철유구 원경)

(2) 도일동(12~15통)

- 도일(道日): 여좌울·여좌월 또는 되일리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원도일: 12통의 마을 이름. 도일 마을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곳이라는 데서 유래.
- 내리(內里): 촌락의 가운데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의 안말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새말·깊은골·능말·갯골 등 여러 자연마을이 있다.
- 상리(上里): 15통의 마을 이름. 촌락의 위쪽에 위치했다는 뜻인 듯 하며, 석씨(石氏)와 소씨(蘇氏)가 천 년씩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 하리(下里): 13통의 마을 이름. 촌락의 아래—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 원주원씨 동족 마을이 있다.
- 작은 여호실: 내리에 있다. 작은 여의실이라고도 하며 뜻은 알 수 없다.
- 큰 여호실: 내리에 있다. 큰 여의실이라고도 하며 뜻은 알 수 없다.
- 사창골[司倉]: 사창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뜻.

- 양성곡(陽城谷): 예전에 이 마을이 양성현과 관련되어 유래가 된 듯하다.
- 배나무골: 배나무가 있던 고을이라는 뜻.
- 셋골(間谷): 사이에 있는 고을 또는 골짜기라는 뜻. 대개 마을이나 산 또는 내의 사이에 있는 마을의 명칭이다.
- 독치골: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감나무골: 감나무가 있었던 마을이라는 뜻.
- 내리(內里): 14통의 마을 이름. 가장 안쪽(內)에 있는 마을(里)이라는 뜻.
- 안골: 내리의 우리말 이름.
- 정골(鼎谷): 용광로터에서 솥을 만들어내던 골짜기라는 뜻이라 한다.
- 산막골(山幕谷): 산막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
- 원당골(院堂—):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대마거리(待馬—): 장군이 말을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갑골: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투구봉: 덕암산의 한 봉우리인데, 산의 모양이 투구와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운터말: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안말: 내리의 안쪽 골짜기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능말: 원주 원씨 선영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깊은골: 깊은 골짜기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울음밭: 원균장군의 애마가 울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숫돌고개: 숫돌을 갈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3) 모곡동(1통)

- ◎ 모곡(茅谷): 1통의 마을 이름. 마을 옆을 지나는 도일천 변에 락풀이 무성하였으므로 락풀(茅)이 많은 고을(谷)의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락우지: 모곡의 우리말 이름.

(4) 장안동(8통)

- ◎ 장안말(長安—): 오래 전에 장터거리가 있었으므로 '장터안 마을'이란 뜻의 장안말이 되었다고 한다. 한자는 별 의미 없이 그것을 음차한 것 같다.

(5) 칠괴동(2통)

- ◎ 칠괴(七槐):

- ① 예전에 이 마을 공동우물 주변에 7그루의 느티나무(槐)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신령으로 7장사가 태어났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② 마을에 7개의 느티나무 정자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칠구쟁이: 칠괴마을의 우리말 이름. 칠괴마을과 관련된 사투리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정된다.

(6) 칠원동(9통~11통)

- ◎칠원(七院): 9통의 마을 이름. 본래 갈원(葛院)으로 불리다가 조선말기에 칠원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삼남대로에 위치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박소인 원이 있던 곳으로 주변에 칙이 많아 명칭으로 삼게 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말기의 어느 왕이 각 고을을 순례하다가 갈원에서 머물렀는데, 병이나 그 원인을 따지니 칙 때문이었다 — 혹은 지병이 나왔다고도 한다 — 하여 그 이후부터 칠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칙은 한자로 갈이므로 갈원은 마을의 특징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칠원은 음차한 것이다. 한편 갈왕골 또는 갈왕굴이라는 명칭은 칙이 무성한 고을이라는 뜻이다.
- 수촌(水村): 11통 마을 이름.
 - ① 예전에 마을 앞을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물방아가 있었다고 하여 ‘물방아 거리’ 라고 불렀고, 이로 인해 수촌으로 불렸다고 한다.
 - ② 마을 앞의 통복천을 유일한 농업용수 및 식수로 사용할 때 그 중요함을 아는 주민들이 수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신촌(新村): 10통의 마을 이름. 새말 즉 새로운[新] 마을[村]이라는 뜻이다.
- 새말: 신촌의 우리말 이름. 산 골짜기에 새 터를 잡고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라 한다.

4) 신장1동

- ◎신장(新場):
 - ① 한국 전쟁 이후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자 새로운[新] 장[場]이 형성되었다고 유래했다고 한다.
 - ② 구장터를 대신하여 들어선 새로운[新] 장터[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새장터 거리: 옛 신장리의 우리말 이름이다.

• 제역동(除役洞):

① 신사무욕(辛巳誣獄) 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최수성(崔壽城)을 복권하고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그 무덤 주변 10리안의 주민들에게 묘역의 정화에 힘쓰라는 뜻에서 부역을 면제해주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② 조선 건국후 고려 때 충신이었던 강릉최씨가 은거하였는데 정부에서 그를 달래기 위해 마을에 부과되는 모든 부역(徭)을 면제(除)하였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잣골: 제역동의 우리말 이름. 역이 면제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 남산터(南山—): 1~6·11·12·16·17통의 마을 이름. 남쪽에 산이 있다 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 지골: 남산터의 다른 이름. 짓골이라고도 한다.

①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땅이 질어진다고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② 이 곳에 썩(芟)이 많았다 하여 유래했다고도 한다. 정확하지는 않다.

• 구장터(舊場—): 10통의 마을 이름. 1880년경 진위현 일탄면(一炭面) 지역으로 장이 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뒤에 장이 봉남리로 옮겼다가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자 서정리로 옮겼다고 한다.

• 목천동(木川洞): 1·8·9·13·15통의 마을 이름.

① 하천 제방이 있었고 장마가 지면 동막쪽에서 떠내려 오는 나무토막을 건져내어 펠나무로 이용했다고 한다.

② 마을 앞을 지나가는 하천의 좌우로 숲이 무성하고, 나무로 만든 다리가 마을로 통하였다고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나무내: 목천동의 우리말 이름.



■ 장안동(미륵바위)



■ 칠원동(절터)

5) 신장 2동

• 밀월동(密月洞): 6~12통의 마을 이름. 한국전쟁 이후 새로이 형성된 마을로 수풀이 우거진(密) 곳으로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月)이 아름답다고 해서 유래했

다고 한다.

- 송월동(松月洞): 13~23통의 마을 이름.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마을로, 소나무 숲[松] 사이로 비치는 달[月]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6) 중앙동³⁾

(1) 이충동

◎이충(二忠): 조선 중종대 충신 조광조(趙光祖)가 이곳에서 소년기를 보냈고 인조대의 충신 오달제(吳達濟)의 옛 집이 있었기 때문에 두 충신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라는 뜻.

- 동령말(東嶺-) : 13통의 마을 이름.

① 마을이 부락산 남서쪽 줄기에 위치하고 양 옆으로 산이 있으며, 가운데 높은 고개가 있었으므로 동쪽(東)으로 난 고개[嶺] 마을이라 하였다고 한다.

② 지리적으로 양편에 산으로 싸였고 예전에 명한문(明閑門)이 있었는데, 그 동편 고개에 있다하여 유래하였다고 한다.

- 동녕이: 동령말의 우리말 이름. 동령에서 변화한 것 같다.
- 석정(石井): 15통의 마을 이름. 옛날에 어떤 왕이 이곳을 지나는 길에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좋아 우물을 돌로 쌓으라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돌우물: 석정의 우리말 이름. 도름물이라고도 한다.
- 신리(新里): 14통의 마을 이름. 본래 산 넘어 은행동에 마을이 있었으나 원인불

명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견디다 못해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었다고 한다.

- 샛터말: 신리의 우리말 이름.
- 광말: 반지산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
- 성물백이: 성문과 가까운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암담골: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이충동(충의각)

3) 중앙동 역시 송탄동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였다. 송탄읍 당시 서정리는 11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으나 송탄시로 승격할 때 그 중 6마을은 중앙동에 5마을은 서정동에 각기 분리, 편입되었지만 종전대로 「서정리초등학교·서정리역·서정리장」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므로 편의상 중앙동지역은 ()안에 서정리로 표기하였음.

(2) 장당동

◎장당(簾堂): 이곳에 있는 산이 노루[獬)의 형상이고 근처에 인개(堂)가 있다 하여 지었다고 한다.

- 원장당(元簾堂): 11통의 마을 이름. 장당 마을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
- 노루맹이: 원장당의 우리말 이름. 노루쟁이라고도 한다. 장당이 순우리말로 '노루당' 이므로 변화한 사투리로 추정된다.
- 방아다리: 원장당의 안쪽 마을로 물방아가 있어 유래하였다고 한다.
- 광천(廣川): 12통의 마을 이름. 마을 앞에 넓은[廣] 내[川]가 있다 해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너부내: 광천의 우리말 이름. 넓은 내에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 두집매: 광주 김씨 두 집이 처음 이사 와서 정착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광귀(廣歸): 12통의 마을 이름. 광천마을 뒷편에 있으며, 군사혁명정부에서 1961년 귀농정착사업 시행으로 광천마을 뒤편 야산을 「광천귀농 정착 사업장」으로 지정한 뒤, 귀농정착민 20여 가구가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광천마을에서 분리되어 송탄읍의 46번째 행정리로 「광천귀농」이라 하였다. 광천의 '광' 과 귀농의 '귀' 를 합하여 '광귀' 라고 부르기도 한다.
- 노루쟁이 외집매: 광귀 마을의 우리말 이름. 경주 김씨 한 집이 이 마을에 이사 와서 정착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감나무골: 감나무가 많이 자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장당동(음나무)

(3) 중앙동 — 옛 서정리 지역 —

◎중앙: 1981년 7월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면서 시의 중앙에 있었으며, 시청사가 중앙마을에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 중앙마을: 옛 서정리의 중앙에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듯하다.
- 신선동(新鮮洞): 3·17통의 마을 이름. 오래된 정자나무 경치가 좋고 환경이 신선하다는 뜻, 또는 신선처럼 살기 좋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서리(新西里): 4·19통의 마을 이름. 서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
- 서두물: 5·6통의 마을 이름. 서둔물·서듬물·서우물이라고도 한다. 서정부락의 우리말 이름이다. 서정리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우물처럼 들어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갈평(葛坪): 7·8통의 마을 이름.

- ① 예전에 홍씨가 처음 살게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뒤에 점차 마을이 길게 확장되면서 '좁처럼 번성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마을 앞에 하천에 갈대가 우거져 있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번성(蕃城): 9통의 마을 이름.
 - ① 마을 앞에 번성이라는 성이 있어 유래했다고 한다.
 - ② 마을의 번성을 기원하고자 지었다고도 한다.



■ 지산동(절골사지)

7) 지산동

- ◎지산(芝山):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아산에 때풀이 무성했다고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좌동(佐洞): 1~10, 12, 14~22통의 마을 이름. 반달 형상을 한 곳이 여섯 군데 있는데, 여섯 곳이 원초 마을을 돕는다는[佐]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좌월: 좌동의 우리말 이름. 좌울이라고도 한다.

울·월 모두 고을을 뜻하는 말이다.

- 탄현(炭峴): 11·13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참나무가 울창하여 숲을 굽는 곳이 많았으며, 숲장사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이 고개에서 많이 쉬었다고 한다. 결국 숲[炭]이 나는 고개[峴]라는 뜻이다.
- 쑥고개: 숲고개에서 변화된 명칭. 본래 탄현동 지역만을 뜻하였으나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곳이므로 그 뜻이 확대되어 송탄 지역 전체를 부르던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2. 평택시 지역

1) 비전 1동

- ◎비전(碑前): 마을이 큰 비(碑)가 있는 앞(前)에 있었다 하여 유래하였다고 한다. 덕동산 기슭에 있던 부처골의 비석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는 그 비가 대동법 시행기념비일 수도 있다.
- 산직촌(山直村): 22통의 마을 이름. 이곳에 산직이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산디촌: 산직촌이 음운상 변화한 것이다.

- 이곡(梨谷): 1통의 마을 이름.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이 산을 개간하여 배과수원을 만들어 배가 주산물이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배나무골: 이곡의 우리말 이름.
- 서재(西材): 안성에서 재를 넘어 이사 와서 살면서 지은 명칭이라고 한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은성(銀城): 주변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유래했다고 한다.



■ 비전동(은행나무)

- 자란리(紫蘭里): 근처에 자란꽃이 피는 자란산이 있어 유래했다고 한다.
 - 재랭이: 자란리의 우리말 이름. 자란리에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당골(堂谷): 자란리의 다른 이름. 자란산 산꼭대기에 부채 모양의 가죽 나무 밑에 서낭당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서재(上西才): 12통의 마을 이름. 북쪽에 있는 서재 마을의 이름
 - 하서재(下西才): 13통의 마을 이름. 남쪽에 있는 서재 마을의 이름.
 - 모산(毛山): 14통의 마을 이름. 마을에 잔솔과 풀[툰]이 무성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 죽백동(竹柏洞): 산에 대나무[뉘]처럼 곧게 뻗은 측백나무[柏]가 많이 자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죽백(元竹柏): 17통의 마을 이름. 죽백동 여러 촌락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
 - 침교(砧橋):
 - ① 내촌에서 이 마을로 가는 도중에 내가 있는데, 디딜방아처럼 보이는 곳에 다리를 세웠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그 다리를 방아공이로 놓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 방아다리: 침교의 우리말 이름.
 - 내촌: 죽백과 방아다리의 안쪽[內]에 있는 마을[村]이라는 뜻.
 - 안골: 내촌의 우리말 이름이다.
 - 청룡말: 19통의 마을 이름. 청룡동(靑龍洞)이라고도 한다. 백운산에서 여러 갈래로 산맥이 뻗었고 숲이 울창[靑]하여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 월곡동(月谷洞): 20통의 마을 이름. 월구리라고도 한다. 아름다운 둥근달을 볼 수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을 동산 위에 망월대(望月臺)가 있다.

- 달곡: 월곡동의 우리말 이름.
- 관동(官洞): 21통의 마을 이름. 향교터가 있는 등 예전에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귀골(貴谷): 관동의 다른 이름.
- 굿구리: 관동의 다른 이름.
- 옥터골(獄塗谷): 예전에 옥터가 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향교동(鄕校洞): 지금은 없어졌으나 예전에 향교가 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내: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2) 비전2동

- 어인남리(於仁南里): 6~9통의 마을 이름.
 - ① 덕동산과 매봉산 가운데 남쪽의 탁트인 곳에 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이두로 어인(於仁)은 너른을 뜻하므로 너른 들이 남쪽에 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 어리내미: 어인남리의 우리말 이름.
- 계인(癸仁): 어인남리의 다른 이름. 계해년에 상부상조하는 계와 같은 성격의 계인조합을 설치하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계해년에 어인남리 사람들이 계를 만들었으므로 계와 인을 합친 것이다.
- 문화촌(文化村): 1통의 마을 이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새로이 정착하여 생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신작로(上新作路): 5통의 마을 이름. 안성 가는 길 옆에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소사(素沙):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① 예전 양성에 속하던 시절에 소사장이 열리던 곳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큰 전투가 벌어지기도 한 곳이다.
 - ② 평평하고 너른 뜰을 뜻하는 소(素)와 하천에 인접한 마을을 뜻하는 사(沙)가 합쳐져 평평하고 넓은 들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 원소사(元素沙): 13통의 마을 이름. 소사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 ◎용이동(龍耳洞): 백운산에서 뿜어내린 산맥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동쪽은 용머

리의 형상으로 안성시 공도면 용두리이고, 서쪽은 용(龍)의 귀(耳) 언저리에 해당된다고 해서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송전(松田): 15통의 마을 이름. 야산 가운데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출발말: 송전의 우리말 이름.
- 구룡동(九龍洞): 16통의 마을 이름. 구룡말이라고도 한다. 백운산으로부터 산맥이 동남향으로 뻗어내려 느름골, 배오개골, 신선골, 오른가리골, 미나올골, 옥골, 소사물골, 자바사리골 등 아홉 골짜기를 도는데, 그것이 아홉 마리의 용이 용트림을 하는 형국이며, 그 산기슭에 마을이 자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현촌(玄村): 17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현씨가 대성(大姓)을 이루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달성 서씨가 많아 서촌(徐村)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 신흥(新興): 18통의 마을 이름. 197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마을로 새로이[新] 일어난대(興)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 소죽골:
 - ① 쇠죽골이라고도 한다. 마을의 지형이 소가 죽을 먹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예전에 세곡(稅穀)의 창고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그것을 운반하는 소들의 죽을 썬어먹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소떼골(牛隊谷): 이곳에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소가 많은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지골(西直谷): 소장터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창말: 예전에 배가 드나들던 선착장이 있었고 공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3) 세교동

- ◎세교(細橋): 예전에 평택을 가기 위해 통복천을 건너는 길고 가느다란[細] 다리[橋]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삭동(東朔洞): 인접한 지제동의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지제리에서 볼 때 동녘에서 뜨는 초생달을 보고 동삭이라고 했다 한다.
- 원동삭: 1통의 마을 이름. 동삭 마을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삭골: 2통의 마을 이름.
- 영신(永新): 3통의 마을 이름. 조선시대까지 영신현의 읍치가 있던 곳이었다

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촌(東村): 영신의 다른 이름. 동삭 마을의 동쪽[東]에 있는 마을[村]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촌(大村): 영신의 다른 이름. 관아가 있던 큰 마을이었던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은실(銀室): 6·14·15·19통의 마을 이름. 은곡(銀谷)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지형이 뱀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은행나무가 많아 골짜기를 이루어 음곡(陰谷)이라고 하다가 은실로 바뀌었다고 한다.
- 신촌(新村): 은실의 마을 이름. 새롭게[新] 형성된 마을[村]이라는 뜻.
- 하리(下里): 은실의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벌잔다리: 하리의 우리말 이름. 따로 떼어져 있는 잔다리[細欄]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안잔다리: 잔다리 안쪽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지제동(청동기 유물출토지 전경)

◎지제동(芝制洞): 이곳에 때풀[芝草]이 무성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지제울: 지제동의 우리말 이름.
- 구대(舊垔): 10통의 마을 이름. 처음 마을이 형성된 오래된[舊] 터[垔]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 당현(堂峴): 11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당집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당제말: 당현의 우리말 이름.
- 울성(蔚城): 12통의 마을 이름.
 - ① 근처의 태미산을 비롯한 작은 산들이 울타리[蔚]처럼 둘러져있어 마치 성[城]의 형세와 같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태미산 산성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울성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 장터거리: 예전 울성마을에 장터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건너말: 작은 마을이라고도 한다. 울성 마을의 건너쪽에 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4) 신평동

◎신평(新平): 경부선 철도가 건설된 이후 현재 평택역의 남쪽에 시가지가 형성되

었으나 1946년 대홍수를 겪고난 뒤 이전 논의가 일어나고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도시 계획에 따라 현재의 지역에 새로이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

- 유천동(柳川洞): 9~11통의 마을 이름. 마을 동남쪽에 안성천[川]이 흐르고 버드나무[柳] 숲이 울창하여 생긴 이름이다. 예전에는 '진위 땅 버드나무골'로 불렸다고 한다.
- 양성버드내: 9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양성현에 속하였던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버드내: 10통의 마을 이름. 유천동의 우리말 이름.
- 황룡동: 11통의 마을 이름.
- 합정(蛤井): 예전에 배가 들어왔고 또한 조개[蛤]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기(新基): 12통의 마을 이름. 예전에 소사장터에 사람이 모여들어와 새로이 [新] 터[基]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배미[夜味]: 신기의 우리말 이름.
 - ① 예전에는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 바닷가로 돌출한 산봉우리에다 배를 매어두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신라시대 이두에서 연유하여 「夜味」로 표기하기도 하며 그 뜻은 「논배미」라고 마을 입구 표석에 기록되어 있다.
- 조개터(趙家垆): 13통의 마을 이름.
 - ① 조씨[趙家]가 살던 터[垆]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통미(通味): 16통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오미: 오산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하신작로(下新作路): 새로 생긴 안성가도의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동(城東): 성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직산동: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신동: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5) 원평동

- ◎ 원평(原平): 경부선이 부설되고 평택역이 생기면서 시가지가 형성된 곳으로 대

홍수 이후 수리에 문제가 있어 경부선 동쪽으로 역과 시가지가 옮겨지기 전까지 예전(原)에 평택의 중심지가 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덕리(新德里): 11·12통의 마을 이름. 옛날에 신덕포가 있었던 곳에서 유래했다.
- 뚝너머: 신덕리의 다른 이름. 평택초등학교 앞에 커다란 제방뚝이 있었고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고평(高坪): 15통의 마을 이름. 높은(高) 들(坪)에 있는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
- 창월(倉越):
 - ① 조선시대 순화군의 궁방전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의 너머에 있는 동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 ② 소작료로 받은 곡물을 뱃터에서 수송하는 관계로 큰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월은 마을을 뜻하는 것이다.
- 화촌(華村): 16통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아랫마을: 원통북의 아래지대에 있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 군문동(軍門洞): 17통의 마을 이름. 조선시대 군물리(軍勿里)가 있던 곳으로 뒤에 발음이 비슷한 군문리(軍門里)로 바뀌었다. 청일전쟁 때 청군이 주둔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은 군문리라는 명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꾸며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진위현에서 평택현(평성읍)으로 건너가는 나루가 있었다.
- 간포(間浦): 원군문(元軍門)과 황룡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 신대동(新垆洞): 19통의 마을 이름. 바닷물이 드나들던 간석지를 간척하고 새로 이(新) 터(垆)를 잡은 마을이라는 뜻.
 - 새터마을: 신대의 우리말 이름. 원신대(原新垆)라고도 한다.
 - 삽교(插橋): 18통의 마을 이름. 지금 신대교로 바뀐 그 자리에 삽다리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고잔(高棧): 20통의 마을 이름.
 - ① 마을 앞에 통북교가 있었는데 높은(高) 곳에 다리(棧)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② 아산만의 조수가 밀려들어 곳(串)이 형성되었던 마을이어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 신설촌(新設村): 신대 마을 가운데 가장 늦게 새로이(新) 만들어진(設) 마을(村)이라는 뜻.

- 석바랑: 신설촌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6) 통복동

- ◎ 통복(通伏): 예전에 통보(通洑)라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는데, 뒤에 통복보로 바뀌면서 이 지역의 이름에 통복이 붙기 시작하였다.
 - 통복갯: 통복갯벌에 생긴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
 - 원통복(元通伏): 통복 지역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 윗마을: 원통복의 우리말 이름.
 - 낙촌(樂村): 1·2·6·7·12·13통의 마을 이름.
 - ① 즐거운 마을이 되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일명 '낙떠러지' (落村)라 하며, 마을의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 점촌(店村): 낙촌의 다른 이름. 조선 후기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이 은거하며 움기를 만들던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 동삼거리(東三巨里): 예전 소시장 근처로 동쪽으로 세 갈래 길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 서삼거리(西三巨里): 소시장 서쪽으로 난 세갈래 길에 있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3. 팽성읍

1) 객사리

- ◎ 객사(客舍): 평택현의 관아가 있던 곳으로 관청을 찾아오는 벼슬아치나 양반이 묵던 숙소인 객사가 있었던 곳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촌(東村): 객사 2리의 마을 이름. 옛 평택현 읍내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주막거리: 동촌의 다른 이름으로 주막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
 - 서촌(西村): 객사 3리의 마을 이름. 옛 평택현 읍내의 서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



■ 객사리(평택현 객사)

했다고 한다.

- 대정리: 객사 4리의 마을 이름. 연못뚝이라고도 한다. 향교와 관아 사이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의 동쪽 뚝방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연못은 해방 후 경지정리와 택지조성으로 없어졌다.
- 향교말(校村): 객사 5리의 마을 이름. 서촌의 다른 이름으로 향교의 주변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근내리(팽나무)



■ 남산리(목련)

2) 근내리

- ◎ 근내리(近乃里): 그네리를 한자로 옮긴 것.
- 그네리: 근내리의 우리말 이름. 근네골이라고도 한다. 마을의 형태가 그네와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3) 남산리

- ◎ 남산(南山): 평택현 관청 남쪽의 산에 있던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 귀농촌(歸農村): 남산 2리의 마을 명칭.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곳으로 농촌으로 돌아왔다는(歸農) 뜻에서 유래한 것 같다.
- 산지골: 남산 3리의 마을 명칭.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아랫사거리: 산지골의 다른 이름

4) 내리

- ◎ 내리(內里):
 - ① 옛 아산현 읍내면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② 옛 백제시대 하팔현의 읍치(邑治)였던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 서면(西面): 읍의 서쪽(西)에 면(面)한 마을이란 데서 유래한 것 같다.

5) 노성리

- ◎노성(老成): 1934년 행정구역 변경 때, 노중리, 노상리와 신성리가 합치면서 노중·노상의 '노'와 신성의 '성'을 따서 마을 명칭을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
- 신성(新成): 새로이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
- 노중리(老中里): 노성 2리의 마을 이름. 노산상리·노산중리·노산하리가 한 촌락이었을 때 가운데에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6) 노양리

- ◎노양(老陽): 경양면(慶陽面)의 인처리(仁處里)·노산리가 합치면서 노산리의 '노'와 경양의 '양'을 따서 마을 명칭을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
- 계양(桂陽): 노양 1리의 마을 이름. 500여 년 된 노목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또는 경양면의 경양에서 계양으로 음운이 변화한 것 같다.
- 노산리(老山里): 노양 2리의 마을 이름. 노산이라는 산에서 유래된 듯하다.
- 꽃동산: 노산리의 우리말 이름. 노산에 붉은 꽃이 만발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구름목: 노산리의 우리말 이름.

7) 노와리

- ◎노와(老瓦): 예전 아산현의 '노연리(老連里)'와 '와야리' 두 마을이 합쳐지면서 각각의 첫 자를 따온 것.
- 동면(東面): 노와 1리의 마을 이름. 동쪽[東]에 면[面]해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왜골[瓦也里]: 노와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봉씨(奉氏)가 들어와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양천(良川): 노와 3리의 마을 이름. 물맛이 좋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수용소(收容所): 노와 4리의 마을 이름. 장단군 지역 피난민이 정착해 살면서 장단군민 수용소로 출발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동네: 양천의 다른 이름으로 1950년대 수해를 입은 평궁리 주민들이 옮겨 살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8) 대사리

- ◎대사(大沙): 조선초기에 형성된 포구를 낀 마을이었는데, 모래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수용소: 대사 2리의 마을 이름. 노와 4리 수용소 마을과 인접하여 유래한 것 같다.

9) 대추리

- ◎대추(大秋): 개펄을 간척한 토지에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혼지머리(混池頭): 삼국시대부터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건너가는 나루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평택현의 기우단이 있었다.

10) 도두리

◎도두(棹頭):

- ① 『여지도서』 등에는 도두정(棹頭亭)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입구에는 도두암(棹頭巖)이라는 높은 바위벼랑이 있다. 이곳에는 성리학자인 우남양(禹南陽) 처사가 살고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벗이었던 홍익한이 심양에서 순절한 것을 알고 벼랑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하였다 하여 부술 돈(頓)과 머리 두를 따서 돈두정리(頓頭亭里)라고 하였다. 그 후 행정 개편 때 서해의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돛단배가 왕래하였으므로 돛대란 뜻의 '도'와 돈두암에 얽힌 사연의 '두'를 따서 도두리라고 고쳤다고 한다.
 - ② 옛날에는 마을 앞이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져서, 지형이 돛대머리와 같다고하여 도두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 신흥(新興) 부락: 도두 2리의 마을 이름. 암기원 동네라고도 한다. 개펄을 간척하여 암기원 들에 전답을 만들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
 - 장단(長端) 부락: 한국전쟁 이후 장단군 사람들이 피난와서 집단 정착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 말랭이: 언덕바지에 생긴 마을이란 뜻.

11) 동창리

- ◎동창(東倉): 옛 하팔현의 중심 읍내로 내리라고 하였으며, 또는 서면 내리라고도 하였다. 내리의 동쪽에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듯하다.
- 염소말: 고려 때 염정승이 태어난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2) 두리

- ◎두리(頭里): 마을 입구의 산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마을이 소의 머리(頭)에 해당한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머래: 두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이름과 관련된 소머리의 머리에서 변화된 것 같다.
- 다락말(樓村): 두 2리의 마을 이름.

① 예전에 이 곳에 관가정이라는 누정(樓亭)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주변 산의 형세가 다락처럼 생겼다 하여 다락마을을 줄여 다락말로 했다고 한다.



■ 두리(해송)

13) 두정리

- ◎두정(斗井): 두곡리와 월정리를 합치면서 새로 지은 명칭이라고 한다.
- 큰농고지: 두정 1리의 마을 이름. 큰 농사를 짓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월정마을: 두정 1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대농곡(大農谷): 두정 2리의 마을 이름. 큰농고지의 한자 명칭이다.
- 도화동(桃花洞): 두정 3리의 마을 이름. 봄철 복숭아 꽃(桃花)이 피면 무릉도원 같이 보기 좋은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14) 본정리

- ◎본정(本井): 예전의 본언리(本堰里)와 경정리(鯨井里)의 일부가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명칭 가운데 '본'과 '정'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수



■ 본정리(홍학사비락)



■ 장준 · 장현근 효자정문

리시설인 제언이 있었다고 한다.

- 새나리: 본정 1리의 마을 이름. 신나라라고도 한다. 본정리의 우리말 이름이다.
- 아리랑개: 본정 2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15) 석근리

◎석근(石斤): 석교리와 서근포 마을이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명칭 가운데 '석'과 '근'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흙다리(石欄): 예전에 마을 앞의 큰 길에 흙다리가 있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본래 석교는 돌다리란 뜻이다.
- 서근보: 석근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보(湫)가 있어 마을 유래로 삼은 것 같다.

16) 석봉리

◎석봉(石峰):

① 흑석리(黑石里)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안성천 하류에 서해안 개펄과 접하는 곳에 있다. 마을에 홀로 떨어진 자그마한 산봉우리가 물결을 타고 앉았는데, 그 곳에 검은 돌이 있다 하여 흑석리라고 하였다. 뒤에 검은 돌이 있는 봉우리라는 뜻에서 석봉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② 흑석리와 원봉리가 합쳐지면서 '석'과 '봉'을 떼어 지었다고도 한다.

- 검은돌: 석봉리의 우리말 이름이다.

17) 송화리

◎송화(松花): 송중리(松中里) · 송하리(松下里) · 개화리(開花里) 등 세 마을이 합쳐지면서 '송'과 '화'를 따서 지은 명칭이라고 한다.

- 개화(開花): 송화 1리의 마을 이름. 송호동이라고도 한다. 옛적에 진달래꽃이 수놓은 듯 피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라 한다.

- 송하(松下): 송화 2리의 마을 이름. 소나무 숲[松]이 우거진 곳의 아래[下]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 신당골: 송하의 다른 이름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뜻이라 한다.
- 송중리: 송화 3리의 마을 이름. 촌락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큰말: 송화 3리의 우리말 이름. 송중리의 다른 이름으로 가장 송중리·송하리·개화리 가운데 큰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뿔사거리: 송화 3리의 우리말 이름. 마을의 뿔쪽 사거리라는 뜻이다.
- 신흥: 송화 4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새롭게[新] 흥성[興]하자는 뜻에서 지어진 것 같다.
- 언덕마을: 송화 5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약간 높은 언덕에 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8) 신궁리

- ◎신궁(新宮): 신흥리(新興里)와 하궁리가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명칭 가운데 '신'과 '궁'을 따서 이름지었다고 한다.
- 하궁리(下宮里): 신궁 1리의 마을 이름. 궁리[宮]의 아랫쪽[下]에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중새터: 신궁 1리의 우리말 이름.

19) 신대리

- ◎신대(新岱): 새로이[新] 터[岱]를 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조선후기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 새터: 신대 1리의 우리말 이름.
- 영창: 신대 2리의 마을 이름.
- 장단: 신대 3리의 마을 이름. 한국전쟁 때 황해도 장단 출신의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 말랭이: 신대 4리의 우리말 이름.



■ 신대리(소나무)

20) 신호리

- ◎신호(新虎): 호치 마을과 신촌 마을이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명칭 가운데 '신'과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 새말(新村): 신호 1리의 마을 이름. 옛날 개펄에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 호치(虎峙): 신호 2리의 마을 이름. 범치말 또는 범침말이라고도 한다. 범의 고개라는 뜻이다. 예전에 범이 자주 출몰하였거나 고개의 형상이 범과 같아 유래한 듯하다.
- 범턱고개: 범고개라고도 한다. 호치의 우리말 이름이다.



■ 안정리(농성전경)

21) 안정리

- ◎안정(安亭): 안현리(鞍峴里)와 서정자(西亭子) 마을이 합쳐지면서 두 마을 명칭의 '안'과 '정'을 따서 안정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鞍'이 '安'으로 바뀌었다.
- 길마재(鞍峴): 안정 1리·5리·10리의 우리말 이름. 본래 안정 1리 한 마을이었으나 인구가 늘면서 5리와 10리가 다시 나뉘었다. 길마고개라고도 한다. 마을의 형국이 말안장 없이 달아나는 형국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구점 골목: 안정 2리의 마을 이름. 가구점이 많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터말: 안정 4리의 마을 이름. 예전 성의 흔적이 있던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
- 시장통: 안정 6리의 마을 이름. 안정리 시장이 있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신흥: 안정 7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새롭게(新) 흥성(興)하자는 뜻으로 지어진 것 같다.
- 서정자(西亭子): 안정 8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마을의 서쪽에 정자가 있던 데서 유래한 듯하다.
- 일곱집매: 서정자 마을의 다른 이름으로 7채의 집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국민주택: 안정 12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국민주택이 지어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2) 원정리

◎원정(院井):

- ① 고려 때 이곳 탑상골에 있었던 원정사(院井寺)란 곳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온양 방씨 시조가 정착하면서 절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 ③ 이 마을에 좋은 물이 나는 우물이 있어 그 이름을 마을 명칭으로 하였다고 한다.
 - 마름물: 원정리의 우리말 이름.
 - 진등: 원정리의 우리말 이름.



■ 원정리(느티나무)

23) 추팔리

- ◎추팔(秋八): 『여지도서』에는 추팔리(楸八里)로 기록되어 있다. 여덟 곳의 마을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매년 풍년을 맞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역말동네: 추팔 1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화천역(花川驛)이 있던 곳이다. 역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 면산: 추팔 2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24) 평궁리

- ◎평궁(坪宮): 상평리와 상궁리가 합쳐지면서 두 마을 명칭 가운데 자인 '평'과 '궁'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 상궁리(上宮里): 평궁 1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내월: 평궁 1리의 우리말 이름. 유래는 알 수 없다. 보통 이런 식의 이름은 안쪽에 있는 마을과 관련된다.
 - 신대(新垓): 평궁 2리의 마을 이름. 상궁리에서 따로 떨어져 새롭게(新) 터(垓)를 잡고 만들어진 마을이란 뜻.
 - 상평리(上坪里): 평궁 3리의 마을 이름. 오래된 이름이지만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원상궁리(原上宮里): 평궁 3리의 다른 이름. 원래 상궁리가 있던 곳으로 병술년 홍수 때 원주민이 떠나고 뒤에 다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25) 함정리

- ◎ 함정(咸井): 함등촌(咸登村) 또는 함정촌(咸井村)과 경정리가 합쳐지면서 두 마을의 '함'자와 '정'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 경정리(鯨井里): 조선시대부터 있던 명칭이다. 커다란 고래[鯨]가 나타났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원말(書院一): 함정 1리의 마을 이름. 포의사(褒義祠)라는 사우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말랭이: 함정 2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4. 진위면

1) 가곡리



■ 가곡리(느티나무)

- ◎ 가곡(佳谷): 마을의 산과 골짜기[谷]가 아름다워[佳]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 가야실: 가곡리의 우리말 이름. 가실·계실·개실·계시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데 모두 같은 말에서 변형된 것이다. 700여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가야실이라는 높은 벼슬을 한 분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

했다고 한다.

- 신가곡(新佳谷): 가곡 1리의 마을 이름. 새로이 형성된 가곡 마을이라는 뜻이다.
- 바깥가실: 신가곡의 우리말 이름.
- 구가곡(舊佳谷): 가곡 2리의 마을 이름. 본래 있었던 가곡 마을이란 뜻이다.
- 뒷개실: 구가곡의 우리말 이름.
- 신북(新北): 가곡 3리의 마을 이름. 성북(城北)이라고도 한다. 옛 고구려 부산현의 성—건산리 산성으로 추정—의 뒤 북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응달말: 신북마을의 우리말 이름. 응거말이라고도 한다.
- 후북(後北): 가곡 4리의 마을 이름.

① 고구려 때 쌓은 성터—건산리 산성으로 추정— 뒷편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가곡리 5개 마을 가운데 북쪽 끝에 있어 유래했다고 하나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 양지말: 후북마을의 우리말 이름. 성뒤, 뒷성뒤 등으로도 불린다.
- 당월(堂月): 가곡 5리의 마을 이름. 오래된 당집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월(月)은 울·울 등과 함께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접미사이다. 마을의 우리말 이름이 당너머이므로 넘다는 뜻의 월(越)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 당너머: 당월마을의 우리말 이름. 당집 산넘어에 마을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갈곶리

◎갈곶[葛串]:

- ① 이 마을은 높은 산맥이 뿌리를 내려 길게 뻗어나간 칩덩쿨[葛] 같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오산천변에 위치하여 곶(串)이 형성된 지역이어서 갈곶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나루터가 있었다.

- 가룣이: 갈곶리의 우리말 이름.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3) 견산리

◎견산(見山): 이 마을에는 고구려 때의 토성이 있었고, 성에 견적대(見敵臺)라는 망루가 있어 사면을 볼 수 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불피: 견산리의 우리말 이름. 벌피, 벌미라고도 한다. 견산을 우리말로 풀면 불[見]피[山]가 되는데, 뒤에 조금 바뀌어 만들어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 산직(山直): 견산 2리의 마을 이름. 산지기촌으로도 불렸다. 산성 병졸들의 숙소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뜻이다.
- 앞거리: 산직마을의 우리말 이름.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 견산리(산성원경)

4) 고현리

◎고현(高峴): 마을에 높은[高] 재[峴]가 있던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형제마을[兄弟—]: 마산(馬山) 원리 근처에서 살던 형제가 세간을 나와서 형은

높은 재에서 아우는 우촌에서 거주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우촌: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5) 동천리

◎ 동천(東泉):

① 마을에 좋은 샘(泉)이 있고, 동쪽(東)에 물이 마르지 않는 전답이 있어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옛부터 마을 동쪽에 있는 전답은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풍년이 든다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동쪽(東)에 있는 전답에는 샘(泉)에서 물이 나와 가물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진 듯하다.

- 동축골: 동천리의 우리말 이름. 유래는 잘 알 수 없다.
- 사후동(寺後洞): 동천 2리의 마을 이름. 절 뒤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신라 때 창건된 만기사(萬奇寺)의 뒷편에 있다.
- 절뒷골: 사후동의 우리말 이름.
- 윗골: 촌락의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거북골: 윗골의 다른 이름. 오산쪽에 조성중이던 함평이씨의 묘에 쓰일 묘비를 실은 마차가 아랫말을 지나던 중 묘비가 깨져 그 이유를 살펴보니, 묘소의 지형은 제비형인데 묘비가 깨진 곳은 '뱀의 머리 혈(巳(蛇)頭穴)'이라서 뱀이 먹어치운 형국이라 묘소에 묘비를 세우지 못하고 거북이형의 비대 — 신도비의 귀부(龜趺)로 추정 — 만 남아있게 되었고, 그것이 마을의 상징이 되어 거북골이 되었던 것 같다.

- 아랫말: 사후동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사터: 절터 또는 새로 생긴 새터의 뜻이라고 한다.
- 비탈말: 비탈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천리(무봉산성 원경)

6) 마산리

◎ 마산(馬山): 조선시대 진위현 마산면 지역이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14년 북면과 통합되면서 리가 되었다.

• 오룡동(五龍洞): 마산 1리의 마을 이름.

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산이 수려하고 혈자리가 묘한 곳에 무덤이 다섯 기가 있어, 그곳에서 다섯 마리 용이 승천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② 전하는 바에 의하면, 커다란 오동나무 밑에서 다섯 마리 용이 나왔다고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오룡굴: 오룡동의 우리말 이름. 오룡골이라고도 한다. 다섯 마리 용이 승천한 굴이 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수촌(蓺村): 마산 2리의 마을 이름. 주변에 울창한 숲(蓺)이 있는 가운데 마을(村)이 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숲안말: 수촌의 우리말 이름. 숲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 와곡(瓦谷): 마산 3리의 마을 이름.

① 기와(瓦)를 굽던 골짜기(谷)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② 고려 때 왕이 행차하다 이곳에 이르니 기와집이 즐비하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③ 고려 때 왕이 행차하다가 이곳을 지날 때 기와집이 많았으므로 신하에게 물으니, 안와부(安瓦夫)의 집이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은 서인이 99간의 집을 지은 것은 신분에 어긋난다고 하여 허물게 되자 이후 집은 폐허가 되었고, 기와장은 흩어져 있는 숲으로 변해서 기와숲밭이라고 부르고, 와곡터라 했으며 마을 이름도 와곡이 되었다고 한다.

• 왓골: 와곡의 우리말 이름. 기와가 나는 고장이라는 뜻이다.

• 오얏골: 와곡의 우리말 이름. 왓골이라고도 한다. 이씨가 많아 오얏이씨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왓골은 오얏골에서 음운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곡(內谷): 마산 4리의 마을 이름.

① 골짜기(谷) 안쪽(內)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② 조선시대 사화를 피해 순흥안씨 안효인이 죽산 황새울의 처가에서 피신해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사와서 살면서 그의 아들 4형제가 시묘살이 했고 이로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안씨 마을이란 뜻에서 안골이 되고 뒤에 그 뜻이 바뀌어 내곡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안골: 내곡의 우리말 이름.



■ 마산리(오룡동 느티나무)



■ 봉남리(산성성벽)

7) 봉남리

◎봉남(鳳南): 무봉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
 • 읍내팔邑內: 고구려 때 부산현이 있었고, 이후 조선 시대에 진위현의 관아가, 대한제국기부터 식민지 시기 까지 군청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래했다.

• 동부말(東部—): 봉남 1리의 마을 이름. 읍내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

- 옥거리(獄巨里): 예전에 고을의 옥사가 있던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위읍지』에는 옥거리(玉巨里)로 되어 있어 확실치 않다.
- 서부말(西部—): 봉남 2리의 마을 이름. 읍내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
- 서문리(西門里): 봉남 3리의 마을 이름. 서문이 또는 서문거리라고 한다. 관아 서문 쪽에 있는 마을이었던 데서 유래했다.
- 아곡리(牙谷里): 서문리의 다른 이름. 신채나물의 싹(莢)이 많이 나는 곳(畝)이라 의미로 아곡이 되었으나 뒤에 어금니 아(牙)를 쓰는 아곡으로 바뀌었다고 생각 된다.
- 아골: 아곡리의 우리말 이름.
- 명당거리[明堂—]: 500여년 전 이선원(李善遠)이라는 선비가 이곳에 정자를 짓고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로서 향교의 명륜당이 유명하여 명(륜)당거리라고 했다고 한다.

8) 신리

- 신리(新里):
 - ① 별판에 새로이[新] 형성된 마을[里]이라는 뜻.
 - ② 조선시대에 장호원이 있었다고 한다.
- 별말: 신리의 우리말 이름. 별판(별)에 생긴 마을(말)이라는 뜻.
- 원터거리: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시대 정승 맹사성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9) 야막리

- 야막(野幕): 예전에 유민이 이곳에서 전답을 개간하기 위해 넓은 들(野) 가운데 막(幕)을 치고 살았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10) 은산리

- 은산(銀山): 마을에 은을 캐던 은구덩이가 있던 산이라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봉화정씨가 처음 터를 잡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 이 산에 머무르라는 계시를 받았고 뒷산이 모두 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 산대(山岱): 산(山)에 터(岱)를 잡았다는 뜻이다.
- 기동(基洞): 은산 1리의 마을 이름. 산대촌에 처음 기뿔(基)을 잡은 마을(洞)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촌(傍村): 은산 2리의 마을 이름. 기동 옆(傍)에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村)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미동(米洞): 은산 3리의 마을 이름. 산대촌에서 가장 쌀(米)이 많이 생산되는 마을(洞)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미등골(美登—): 미동의 다른 이름으로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은정골(銀井—): 은구덩이가 있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상리(上里): 산대 5개촌락 가운데 가장 윗쪽(上) 즉 북쪽에 있는 마을(里)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말미: 상리의 우리말 이름. 예전에 마을이 생겨날 때, 지형이 말의 꼬리(尾)에 있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월경: 은산 5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11) 청호리

- ◎ 청호(淸湖):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청호역(靑好驛)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 뒤에 지금의 한자로 바뀐 듯하다. 산과 숲이 우거진 곳에 맑고(淸) 아름다운 호수(湖)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작은 청호: 이 마을에 있는 호수는 자연적으로 제방이 둘러싸여 있어 봄이면 저수가 잘되어 농사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삼남대교가 옆으로 지나 길손들이 마을 앞을 지날 때 풍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이 맑고 깨끗하며 제방은 노송으로 장관을 이루어 잠시 길을 멈추고 쉬어갔다고 한다.
- 원당(元堂): 예전에 당이 있던 곳에 마을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뎡이: 원당골이라고도 한다. 원당의 우리말 이름으로 원당의 사투리식 발음이다.

12) 하북리

◎하북(下北):

① 고구려 때 축성된 (부산현 또는 부성현) 산성의 북쪽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1번 국도와 철도가 놓이면서 생긴 마을로 진위천(河) 북쪽(北)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가 한자가 변화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 성뒤(城—): 산성 뒤쪽에 있는 마을이란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정촌(大正村): 하북 3리의 마을 이름. 일본연호로 대정(大正: 1912~1926) 기간에 식민지 토지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에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빈농을 투입하여 개간함으로써 주민이 정착되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별터: 대정촌의 우리말 이름. 허허벌판의 터전이라는 뜻이다.
- 새마을촌: 하북 2리의 마을 이름. 1973년 황해도 피난민들이 새로이 이주하여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5. 서탄면

1) 금각리

◎금각(金角): 마을의 지형이 소뿔(牛角)처럼 되어 있다고 하여 쇠뿔이 되고 쇠가 다시 쇠(金)로 바뀌었으며 한자로 표현되면서 금각리가 되었다.

- 쇠뿌리: 쇠뿔이라고도 한다. 금각리의 우리말 마을 이름.
- 용소리(龍沼里): 용수말이라고 한다. 마을 뒤 샘터 두 곳이 있었는데, 마치 용의 눈과 같다 하여 용의 연못(溜)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농소리(農所里): 용소가 있던 곳이 농토로 바뀌면서 마을 이름도 농사(農)짓는 곳(所)이라는 뜻으로 변했다고 한다.
- 상금각(上金角): 금각 1리의 마을 이름. 윗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하금각(下金角): 금각 2리의 마을 이름. 아랫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금암리

- ◎금암(金岩): 마을의 지형이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며, 마을 옆 산에 북바위라는 암석이 있으므로 두 가지 특징을 따서 금암이라 했다고 한다.
- 골안말: 금암 1리의 우리말 이름.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 내리(內里): 금암 2리의 우리말 이름. 마을 가운데 산 마루 안쪽에 있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
- 안말: 내리의 우리말 이름.
- 신리(新里): 금암 3리의 마을 이름. 오래 전에 청주 한씨가 정착하면서 새로이 [新] 생긴 마을[里]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말: 신리의 우리말 이름.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3) 내천리

- ◎내천(奈川): 급한 일로 이곳을 지나던 길손이 마을 서쪽에 있는 황구지천을 건너려다가 물살이 세고 험하자 망연히 서서 “어찌하리오[奈何]”라고 탄식하였으므로, ‘어찌[奈] 개울[川]을 건너리오’라는 뜻으로 내천이라 하였다고 한다.
- 상내천(上奈川): 내천 1리의 마을 이름. 촌락의 윗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
- 웃버드내: 윗버드내라고도 한다. 상내천의 우리말 이름.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하내천(下奈川): 내천 2리의 마을 이름. 촌락의 아랫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
- 아래버드내: 하내천의 우리말 이름.

4) 마두리

- ◎마두(馬頭): 서탄면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 이곳이 말의 머리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밖에 금암리는 심장부, 사리는 꼬리, 회화리는 앞발, 적봉리는 뒷발에 해당된다고 한다.
- 말머리: 마두 1리의 우리말 이름.
- 사업소: 예전에 사업소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나비들: 마두 2리의 우리말 이름. 나비와 같은 형상을 한 들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장춘동(長春洞): 마두 2리의 다른 이름.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실향을 달래는 심경은, 나비가 오랜[長]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春]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통일과 고향을 그린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마두리(고분군 원경)

5) 사리

- ◎사리(寺里): 예전에 절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절골: 사리의 우리말 이름.

6) 수월암리

- ◎수월암(水月岩): 전설에 의하면 한 청춘과부가 독수공방으로 지나간 밤을 지새기 어려워 마음을 달래다가 고아한 달밤에 산밑을 구비쳐 흐르는 냇물에 비치는 달무리에 취하여 읊은 시에 “개울물[水은 바위[岩]를 구비쳐 흐르는데 둥근 달[月]은 고요하다” 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원수월암(元水月岩):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다.
- 거리미: 수월암 1리의 우리말 이름. 뒷거리미라고도 한다. 원수월암의 우리말 이름이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도도리(道道里): 수월암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앞뒤로 길이 잘 나있어 길이 많은 곳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 심교리(深橋里): 수월암 3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는 마을 근처가 모두 야산지대이며 잡목이 무성하고 개울이 있어 건너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였는데, 한 부인이 큰 돌을 안아다 띄엄다리[橋]를 만들어 깊은[深] 물을 건넜다 하여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 깊은다리: 심교리의 우리말 이름.

7) 장등리

- ◎장등(長燈): 예전에 큰 홍수가 있을 때 황구지 일대의 사람들이 물난리를 피하

- 여 이곳 긴 능선지대로 옮겨 왔다가 정착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장등(元長登): 장등 1리의 마을 이름. 장등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겨났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진등이: 원장등의 우리말 이름. 장등리에서 변화된 사투리라고 생각된다.
- 구억리(九億里): 장등 2리의 마을 이름. 구덕리(九德里)라고도 한다. 옛날 큰 부자가 아홉가지 덕[九德]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은행대이: 구억리의 다른 이름. 마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8) 적봉리

- ◎ 적봉(赤峰): 마을 산봉우리의 흙이 황토색이며 산에 나무가 나지 않아 적봉리라고 했다.
- 원적봉: 현재는 서정동에 편입되어 16통이 되었다.
- 신야리: 들[野] 한 가운데 새로운[新] 마을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별해쟁이: 별판에 서해의 조수가 강을 따라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황구지리

- ◎ 황구지(黃口池):
 - ① 진위천과 오산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였으며 예전에 항곶포(亢串浦)가 있었는데, 항곶이 또는 항고지가 되며 뒤에 음운이 변화하면서 황구지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 ② 홍수 때면 누런 흙탕물로 땅도 누렇게 된다하며 습지에다 물결에 패인 웅덩이가 곳곳에 있어 누런[黃] 물색을 띤 하구(河口)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0) 회화리

- ◎ 회화(檜花): 마을에 회화나무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해쟁이[海浬里]: 예전에 이곳 앞까지 바닷물[海]이 들어와 머물대[浬] 간다 하여 해정(海浬)이라 하였는데 뒤에 해쟁이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금나들: 소금배가 드나들었고 해산물로 교역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수풀해쟁이: 해쟁이 마을 가운데 수풀이 유난히 수풀이 많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6. 고덕면

1) 궁리

- ◎ 궁리(宮里): 마을에 궁전 같은 큰 집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궁안리(宮安里): 궁 1리의 마을 이름. 궁리와 오성면 안화리(安化里)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다루지: 궁 1리의 자연이름. 옛날에 진위천에 다라고비진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 건곤리(乾坤里): 궁 2리의 마을 이름. 건군리라고도 한다.
 - ① 하늘[乾]과 땅[坤]은 영원한 절대 존재로서 이와 같이 영원한 변영을 바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② 300여년 전 마을이 생긴 포구 어촌으로 노적도(露積島)라고 했던 바와 같이 섬이었으므로 먹을 물이 귀한 곳이라 해서 지어졌다고도 한다.
 - 복음촌(福音村): 궁 3리의 마을 이름. 해방 이후 이북 피난민의 이주로 형성되었는데, 거주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중촌(中村): 마을의 한 가운데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2) 당현리

- ◎ 당현(堂峴):
 - ① 고려시대 말부터 마을 뒷산에 성황당이 있어 당고개(堂峴) 또는 당밑—당아래의 뜻—으로 불리었다. 얼마전까지 당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 ② 예전에 고개(峴) 너머에 서당(堂)이 있어서 ‘글당이’ 라고도 한다.
 - 원당현(元堂峴): 당현 1리의 마을 이름. 당현리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데서 유래했다.
 - 막금리(幕錦里): 당현 2·4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주변 산이 비단(緞)같이 아름답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막금(上幕今): 당현 2리의 마을 이름. 막금리의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하막금(下幕今): 당현 4리의 마을 이름. 막금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 내촌(內村): 당현 3리의 마을 이름. 상막금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산위에 당집이 있어 음력 7월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청룡말: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덕원군의 묘가 있다.



■ 당현리(조선시대 유물출토지)

3) 동고리

- ◎ 동고(東古): 고덕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정자동(亭子洞): 동고 1리의 마을 이름. 정자말이라고도 한다. 마을에 정자나무인 큰 해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동고(元東古): 동고 2리의 마을 이름. 동고리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탕구리: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동고리의 사투리식 어투라고 생각된다.

4) 동청리

- ◎ 동청(東淸): 동쪽[東]에 맑은 물[淸]이 흐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챙이: 동청리의 사투리식 어투라고 생각된다.
- 가산동(佳山洞): 동청 1리의 마을 이름. 우리말로는 개미라고 한다. 뒷동산이 개미허리 같이 생긴데서 유래했다고 하며 가산은 가뢰의 뜻으로 개미를 한자화한 표기이다.
- 원동청(元東淸): 동청 2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래동챙이: 원동청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동안리(東安里): 동청 3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안씨가 정착하였으며 마을이 동쪽을 향하여 각 집의 대문도 동쪽으로 내어야 했다는 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구동안(舊東安): 동청 3리의 다른 이름.



■ 두릉리(회화나무)

5) 두릉리

◎두릉(杜陵):

- ① 지리적으로 마을 앞에 큰 두릉축이 있었다 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 ② 마을 앞의 언덕[陵]이 울창한 숲으로 막혀[杜]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두렁이: 두릉리의 사투리식 어투로 생각된다.
- 원두릉(元杜陵): 두릉 1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계루지(桂樓地): 두릉 2리의 마을 이름. 큰 계수나무[桂] 정자가 마치 누각처럼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6) 문곡리

◎문곡(文谷): 예전에 글을 좋아하고 학식있는 문사(文士)들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황새울(黃鳥谷): 문곡 1리의 마을 이름. 황조곡은 황새울의 한자식 표기이다
 - ① 마을 지형이 황새와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예전부터 황새·왜가리 등이 많이 살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문곡(元文谷): 문곡 2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민곡: 원문곡의 우리말 이름. 문곡의 사투리식 발음이라고 생각된다.
- 구렁머리: 원문곡의 우리말 이름. 마을 뒷산의 지형이 아홉 마리 용의 형상이어서 구렁머리라고 하였으나 뒤에 음이 변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 문신기(文新基): 문곡 3리의 마을 이름. 조선말 경주이씨가 동청리 황참봉의 팔세를 받고 이사하여 정착한 곳으로 문곡리[文]의 새로운[新] 터[基]라는 뜻이다.
- 새터: 문곡 3리의 우리말 이름.
- 신흥동(新興洞): 문곡 4리의 마을 이름. 정착사업장이라고도 한다.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생긴 마을이다. 신흥이란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이 새롭게 흥한다는 뜻으로 집단 이주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다

7) 방축리

◎방축(防築): 예전에 방축 즉 물을 막는[防] 축대[築]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효학동(孝學洞): 방축 1리의 마을 이름. 옛부터 효행을 중요시 여기고 효(孝)를 가르쳐[學] 예풍(禮風)을 일으킨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악들: 방축 1리의 우리말 이름. 마을이 효를 가르치며 딸들에게도 게으르지 않아서 새악씨—새아씨—를 가르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방축(元防築): 방축 2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방축안(防築—): 방축리의 안마을이라는 뜻이다.

- 소시동(蘇侍洞):

- ① 고려말 사랑을 지낸 소씨가 이곳에 와서 정착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사랑이란 벼슬과 무관하게 소씨[蘇侍] 마을[洞]이란 뜻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활딱지: 예전에 이곳까지 물이 들어와 갯벌이 만들어져 활연습장으로 이용되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환포(新換浦)가 있었다고 한다.



■ 방축리(회화나무)

8) 여염리

◎여염(余染): 여씨(余氏)가 처음 살면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두(城頭): 여염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주변의 산이 마치 성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예전에 광주(廣州)에서 이주한 김씨들이 공(孔)·봉(奉)씨와 더불어 의형제를 맺고 도적떼들을 막기 위해 토성을 굳게 쌓아 태평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성머리: 여염 1리의 우리말 이름.

- 임주(任珠): 여염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뒷산의 형세가 용이 구슬[珠]을 희롱하는 형상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울포리

- ◎ 울포(栗浦): 예전 양성현에 속하였고 황구지천에 인접한 포구(浦)로서 주변에 밤 [栗]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촌(東村): 울포 1리의 마을 이름.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죽말: 울포 1리의 우리말 이름. 마을에 방죽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중촌(中村): 울포 2리의 마을의 한 가운데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개울: 중촌의 우리말 이름.
- 강촌(姜村): 울포 3리의 마을 이름. 해방 이후 강씨들이 이주해 많이 살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이월동(梨月洞): 울포 3리의 다른 이름. 강촌이 깡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울포리가 나뉘면서 배꽃이 아름답다고 하여 이화동(梨花洞)이라고 하였고, 달빛에 비치는 배꽃을 뜻하는 이월동이라고 바꾸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 이화동(梨花洞): 울포 3리의 다른 이름.

10) 좌교리

- ◎ 좌교(坐橋): 마을 앞 얕은 개울에 앉은[坐] 다리[橋]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좌교(元坐橋): 좌교 1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좌월리(坐月里): 우리말 이름인 앉은[坐] 달[月] 말[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 웅정(瓮井): 좌교 2리의 마을 이름.
 - ① 독[瓮]에 부어놓은 물같이 잘 마르지 않고 샘[井]솟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조선 중엽에 세 가구가 이주하면서 우물[井]에 항아리[瓮]를 묻고 물을 길어 먹었던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독우물: 좌교 1리의 다른 이름. 웅정의 우리말 표현이다.
- 도구머리(逃龜一): 웅정의 우리말 이름.
 - ① 단순히 독우물에서 음운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

② 마을의 형세가 거북이[龜]가 도망[逃]가다 진흙에 빠진 머리와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중앙동(中央洞): 좌교 4리의 마을 이름. 고덕면의 한 가운데 중앙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면실마을: 좌교 4리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 좌신기(坐新基): 좌교 3리의 마을 이름. 1922년 임술년 대홍수로 해창리 염촌 마을 사람들이 새로이[新] 터[基]를 잡고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좌교 신기'라고 하였다가 줄여서 좌신기가 되었다고 한다.

11) 해창리

◎해창(海倉): 예전에 이곳은 바다[海]에 인접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조세를 모아 보관하다가 서울로 조운(漕運)하기 위한 창고[倉]가 있었다.

- 염촌(廉村): 해창 1리의 마을 이름. 염씨네가 처음 정착하여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마분리(馬墳里): 해창 2리의 마을 이름.

①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마씨[馬] 성을 가진 분의 무덤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예전부터 병마(兵馬)의 무덤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원해창(元海倉): 해창 3리의 마을 이름. 해창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데서 유래했다.
- 신촌(新村): 해창 4리의 마을 이름. 원해창에서 새로이[新] 형성된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방시천(芳是川): 해창 5리의 마을 이름. 방시촌(芳是村)이라고도 한다. 앞에는 내[川]가 흐르고, 뒤에는 아름다운[荆] 산이 둘러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시내: 방시천의 우리말 이름.
- 대창동(大昌洞): 해창 6리의 마을 이름. 대창리(大倉里)라고도 한다.

①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크게[大] 변창[昌]하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② 해창과 관련하여 마을 부근에 큰[大] 창고[倉]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해창리(고분군 원경)

- 고척골: 대창동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7. 오성면

1) 교포리

- ◎교포(橋浦): 예전의 갯가 마을로 포구浦가 있었으며, 지대가 낮아 바닷물이 많이 들어 작은 쪽다리[橋]를 놓고 통행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교포(元橋浦): 교포 1리의 마을 이름. 교포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다리계: 원교포의 우리말 이름. 다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 송호(松湖): 교포 2리의 마을 이름. 호수[湖]가 사시사철 소나무[松]와 같이 푸르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궁말: 송호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월량촌(越梁村): 교포 3리의 마을 이름. 교포와 유사한 유래이다. 즉 낮은 지대가 많아 이 마을에 가려면 징검다리[梁]를 건너야[越] 하는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뜰건너: 월양의 우리말 이름. 마을이 작은 개울 건너 편에 있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2) 길음리

- ◎길음(吉音): 뒷산에서 이상한 소리[音]가 나면 마을에 좋은[吉] 일이 생기므로, 그 소리를 고대하면서 '길음'이라고 마을 이름을 정하였다고 한다.
- 원길음(元吉音): 길음 1리의 마을 이름. 길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계음(鷄音): 마을의 형상이 닭[鷄]을 닮았고, 길음리[音]의 한 마을이므로 '계음'이라고 한 것 같다. 이 지명이 식민지 시대에 원길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내탑(內塔): 길음 2리의 마을 이름. 탑[塔] 안[內] 동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안탑골: 내탑의 우리말 이름.
- 미촌(美村): 길음 3리의 마을 이름.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룬 경치 좋은 아름다운[美]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미뻬: 미촌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밑빠진 독이란 뜻이라

고도 한다.

- 양성말(陽城→): 예전에 양성현에 속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3) 당거리

◎당거리(堂巨里):

① 예전에 이 마을에는 큰터 집(堂)을 짓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보통 이런 마을 이름은 성황당이나 당집이 있는 큰 거리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 탑현(塔峴): 당거 1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고개(峴) 넘어 절과 탑(塔)이 있었고 탑신령이란 무당이 살았는데, 탑과 고개를 따서 탑고개라고 했다고 한다.
- 원당거(元堂巨): 당거 2리의 마을 이름. 당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당집이 있으며, 그 앞에는 현덕면 주민들이 평택에 왕래하는 큰 길목이 있다. 조선말 큰 당집이 있었고 매년 제사를 성대히 지냈다고 한다.
- 길마원(吉馬院): 당거 3리의 마을 이름. 길마원이란 이름을 지으면 동네가 길하다고 하여 지었다고 한다.
- 길마지: 길마원의 우리말 이름. 예전 마을 사람들이 간척사업을 할 때 소에다 길마를 지워 흙을 운반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당거리(팽나무)

4) 숙성리

◎숙성(宿城): 마을의 형세가 자던 새가 수풀을 나서는 모양(宿鳥出林型)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숙성(元宿城): 숙성 1리의 마을 이름. 숙성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조두(大潮頭): 숙성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바닷물이 들던 곳으로 큰치조(潮머리[頭]라고 하였고 그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 큰조머리: 대조두의 우리말 이름.
- 소조두(小潮頭): 성중 3리의 마을 이름. 대조두보다 아래에 있어 조수의 양이

적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소조머리: 소조두의 우리말 이름.
- 숙신대(宿新垆): 숙성 5리의 마을 이름. 숙성리(宿)에서 새로이[新] 터(垆)를 잡고 생겨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5) 신리

◎신리(新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생긴 터에 새로이[新] 생긴 동네(里)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삼궁원(三宮院): 신 1리의 마을 이름. 옛적에 큰 집 세[三] 채가 있어 마치 궁원(宮院: 임금이나 왕자·공주 등이 사는 곳)같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주교포(舟橋浦): 삼궁원의 다른 이름. 예전에 배다리(舟橋)와 함께 포구(浦)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대(新垆): 신 2리의 마을 이름. 신리 가운데에서도 다시 새로운[新] 터(基)를 잡아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터: 신대의 우리말 이름.
- 중대(中垆): 신 4리의 마을 이름. 원창 마을과 삼동촌의 가운데[中] 터(垆)를 잡고 마을이 형성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삼동촌(三洞村): 신 3리의 마을 이름. 처음에 세 가구[三]가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洞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6) 안화리

◎안화(安化): 예전에 바닷가 마을로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며 산턱이 셋거 무너져 내려와 흙이 쌓이면서 마을의 터가 이루어졌는데, 처음 안씨네가 정착하여 살면서 안씨네[安]가 흥성[化]하자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 원안화(元安化): 안화 1리의 마을 이름. 안화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우다내(雨多): 원안화의 우리말 이름. 비[雨]가 많이[多] 와서 홍수가 잦은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송대(松垆): 안화 2리의 마을 이름. 소나무[松]가 우거진 숲에 터(垆)를 잡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7) 양교리

○양교(梁橋): 이 마을은 지대가 낮아 사방으로 나무로 만든 징검다리(梁橋)를 놓고 건너 다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양교(元梁橋): 양교 1리 마을 이름. 양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양다리: 양교리의 우리말 이름.
- 고림(古唵): 양교 2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삼태평: 고림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태끝이: 고림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대각뿌리: 고림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구래미: 고림의 우리말 이름. 고림의 사투리식 변화가 아닌가 한다.
- 신흥동(新興洞): 양교 3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형성되면서 새롭게[新] 흥성[興]하자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분가촌(分家村): 다른 곳에서 분가(分家)해서 이루어진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큰말: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많았고 권문세도가와 예절을 숭상하는 문장가들이 살았으며 사람들이 부유해 노복(奴僕)에까지 기와집을 지어줬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겸당(大兼堂): 양교 4리의 마을 이름. 큰말의 한자식 이름. 집의 종조차도 겸[兼]하여 큰 집[大堂]에서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여수(麗水): 양교 5리의 마을 이름. 샘물[水]이 맑고 수려[麗]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여술(汝術): 여수리의 음운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 문장자고개: 예전 한 스님이 시주를 청하자, 문장자(文長者)⁴⁾는 “우리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 피곤하다”고 (박대) 하였더니, 스님은 “새터 앞의 산허리를 끊고 나를 방울미 앞으로 돌리면 지나가는 손님이 뜰 것이라 일러 주었다. 이에 문장자가 대사의 말대로 실행하였는데, 곧 집안이 망했다고 하여 이 고개를 ‘문장자고개’라고 하였다고 한다.



■ 양교리 구석기유적 전경

4) 『평택군지 平澤郡誌』 등에서 문장자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그는 부유했던 것 같으며, 문장과는 무관해보인다. 장자는 부유한 사람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므로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신기(新基): 양교 5리의 마을 이름. 새로이[新] 터[基]를 잡고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8) 죽리

- ◎ 죽리(竹里): 예전 이 마을에 대나무숲[竹]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울(防菴): 죽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산이 매의 방울이 달린 자리에 동네가 위치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을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방울 소리가 나야 한다며 사람들이 소원풀이로 장고와 북, 팽과리 등을 자주 쳤다고 한다.
- 소겸당(小兼堂): 방울의 한자식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양교리의 대겸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소죽(小竹): 죽 4리의 마을 이름.
 - ① 작은[小] 대나무[竹]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죽리[竹]에서 작은[小]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기능골: 봉이 춤추는 듯한 고개까지 긴 능선 마을이라는 데서 긴능골이 되었다가 기능골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 즈말:
 - ① 즈말이라는 질그릇을 생산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질그릇을 만드는 곳, 즉 질말에서 짐말, 즈말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한다.
- 대죽(大竹): 죽 3리의 마을 이름. 죽리[竹]의 큰[大]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댓골: 대죽의 우리말 이름. 대나무골이라고도 한다. 모두 대나무가 많이 나는 고을이란 뜻이다.
- 신죽(新竹): 죽 2리의 마을 이름. 죽리[竹]에서 새로이[新]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곰뱅이: 신죽의 우리말 이름. 고군뱅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곰이 살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소골: 죽 5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9) 창내리

- ◎창내(倉內): 흙을 파서 독을 쌓은 형태를 창이라 하는데, 이후 이곳의 안쪽에 마을이 생겼으므로 창(倉)의 안쪽(內)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본래 벼들과 갈대가 무성한 곳에 갯벌 굴착공사를 해서 생긴 마을이다.
- 원창(元倉): 창내 1리의 마을 이름. 창내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창안말: 원창의 우리말 이름.
- 구창(舊倉): 창내 2리의 마을 이름. 원창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이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원창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창(新倉): 창내 3리의 마을 이름. 가장 뒤늦게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창(東倉): 창내 4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동쪽에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8. 청북면

1) 고렘리

- ◎고렘(古念): 예전 이곳에는 감미면(甘味面) 사무소가 있었던 곳으로,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사무소가 이전하게 되자 면사무소가 있었던 옛(古)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念)하겠다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개미골: 고렘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사람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늘언: 고렘 2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다.
- 고란평(古蘭坪): 고렘 3리의 마을 이름.
 - ① 옛날부터 고란(皋蘭)이 많이 난다는 데서 유래했는데 행정리가 나뉘면서 고(皋)자를 알기 쉬운 고(古)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 ② 예전에 이곳 출신 가운데 고을의 원님을 많이 낳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고잔리

○고잔(高棧):

- ① 마을이 해안과 접하여 갯고랑의 높은[高] 잔다리[棧]를 건너다닌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고려시대 서울에서 벼슬하던 한 양반이 낙향하여 이곳에 머물면서 왕이 계시던 서울을 못잊어 높은 곳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후평(後坪): 고잔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뒷편[後]의 들[坪]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뒷들: 후평의 우리말 이름.
- 전평(前坪): 고잔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앞편[前]의 들[坪]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고잔(元高棧): 고잔 3리의 마을 이름. 고잔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도마지: 원고잔의 다른 이름. 고령신씨가 도망쳐 숨어 살았으므로 '도망지'라 하다가 도마지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곳에 신숙주(申叔舟)의 사당이 있다.
- 원목(原木): 고잔 4리의 마을 이름. 『평택군지 平澤郡誌』의 원본(原本)은 잘못이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대곡(大谷): 고잔 5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큰[大] 골짜기[谷]에 위치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큰골: 대곡의 우리말 이름.
- 서대곡(西大谷): 고잔 8리의 마을 이름. 대곡의 서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대울: 서대곡의 우리말 이름. 서쪽 큰 골짜기에 있다는 서대골에서 서대울로 변화한 것 같다.
- 중평(中坪): 전평(前坪)과 중평(中坪)의 가운데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농곡(農谷): 농사짓는[農] 골짜기[谷] 또는 마을이란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논골: 농곡의 우리말 이름. 마을



■ 고잔리 고잔묘 (신숙주 사당)

에 논이 많다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혁명촌(革命村): 고잔 6리의 마을 이름.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간석지를 개간해 살던 곳으로 5·16 쿠데타 이후 자연부락으로 독립하였는데, 예전에는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였으므로 혁명(革命) 이후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 같다.
- 청룡(靑龍): 고잔 7리의 마을 이름. 대청댐 수몰 지역민들이 이주한 곳으로 옛 고장인 충청도의 '청' 과 '용' 의 기운으로 마을이 번성하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3) 백봉리

- ◎ 백봉(栢峰): 옛날 이곳에는 잣나무(栢) 숲이 울창한 봉우리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백봉(元栢峰): 백봉 1리의 마을 이름. 백봉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데서 유래했다.
- 벽동(璧洞): 백봉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형상이 구슬(璧)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구슬: 벽동의 우리말 이름.



■ 백봉리(산성 전경)

4) 삼계리

- ◎ 삼계(三溪): 지리적으로 세[三] 갈래의 계곡[溪]에서 흐르던 물이 이 마을에서 만나 합쳐져 서해로 흐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삼계(元三溪): 삼계 1리의 마을 이름.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옹포(翁浦): 삼계 2리의 마을 이름.
 - ① 1910년 이전에는 양성현에 속했으며 마을 앞에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浦]가 있었고 옹기[瓮]로 만든 새우젓 독을 매매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포구[浦]의 모양이 항아리[瓮]와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독개: 옹포의 우리말 이름. 새우젓 독을 파는 바닷가개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 같다.
- 신촌(新村): 삼계 3리의 우리말 이름. 1882년경 마을이 생기면서 본말로 부르다

가 1939년 원삼계 마을과 나뉘면서 새로이[新] 형성된 마을[村]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말: 신촌의 우리말 이름. 새로이 생긴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 분말: 신촌의 우리말 이름. 마을에서 나뉘어져[分] 나온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월곡(月谷): 삼계 4리의 우리말 이름. 마을 산의 골짜기[谷]에 비친 달[月]이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달마골: 월곡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으나 달맞이와 관련된 듯하다.
- 윗삼계: 월곡의 다른 이름. 삼계 마을의 윗쪽에 있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 신영촌(新榮村): 삼계 5리의 마을 이름. 해방후 이북 피난민이 정착하여 생긴 마을로 새롭게[新] 번영[榮]하는 마을[村]이 되자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성곡(城谷): 마을이 성둘레[城]의 골짜기[谷]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골: 성곡의 우리말 이름.

5) 어소리

- ◎어소(魚沼): 예전에 연못[沼]에 있었고 이곳에서 물고기[魚]를 길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어소(元魚沼): 어소 1리의 마을 이름. 어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어소리(은행나무)

- 의시리: 원어소의 우리말 이름. 어소리의 사투리식 발음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구덕(九億): 어소 2리의 마을 이름. 『평택군지』의 구덕(九德)은 잘못인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이동어소리: 구덕의 다른 이름.
- 설창(設倉): 예전에 창고[倉]가 설치[設]되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구설창리: 설창의 다른 이름.

6) 어연리

- ◎어연(魚淵): 마을 앞에 큰 연못[淵]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각종 물고기[魚]들이 많

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어연(元魚淵): 어연 1리의 마을 이름. 어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황곡(黃谷): 어연 2리의 마을 이름. 이 마을은 냇가나 샘도 없는 천수답(天水畝)이 많았으므로 이 골짜기[峪] 들판의 모든 곡식이 메말라 누렇게[黃] 보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가뭄을 표현하는 뜻에서 지은 마을 이름이다.

7) 옥길리

◎옥길(玉吉): 예전 이 마을 사람들이 조개잡이를 하여 생계를 이어왔는데, 조개껍질이 다양하게 아름다워 마치 옥(玉)과 같았고, 마을 사람들이 길하게 잘 살자는 뜻에서 옥길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원옥길(元玉吉): 옥길 1리의 마을 이름. 옥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가사(佳土): 옥길 2리의 마을 이름. 바닷가에 모래가 아름답고[佳] 마을에 선비[士]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개사리: 가사리의 다른 이름. 가사리의 사투리식 발음으로 생각된다.
- 기산(基山): 옥길 3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를 알 수 없으나 무성산에 터를 잡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한다.
- 퇴미: 기산의 우리말 이름. 무성산을 우리말로 퇴미라 했다고 한다.
- 신기(新基): 옥길 4리의 마을 이름. 새로운[新] 터[基]에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터: 신기의 우리말 이름.



■ 옥길리(무성산성 전경)

8) 울북리

◎울북(栗北): 마을에 밤나무[栗]가 울창하여 밤이 많이 났으며, 청북면의 북쪽[北]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울북(元栗北): 울북 1리의 마을 이름. 울북 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데서 유래했다.
- 밤뒤: 원울북의 우리말 이름.

- 내촌(內村): 울북 2리의 마을 이름. 마을(村) 안쪽(內)에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가천리(上佳川里): 예전 내촌에 있던 마을로서 잦은 홍수로 인해 없어졌다고 한다.
- 장계동(長桂洞): 울북 3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길고(長) 높은 계수나무(桂)가 있어 달빛 속에 비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현리(桑峴里): 울북 4리의 마을 이름. 마을 모퉁이에 고개가 있고 그 옆에는 말이 있어 뽕나무(桑) 고개(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불정(佛井): 울북 5리의 마을 이름.
 - ① 예전에 어느 풍수쟁이가 이곳에 부처님을 모신 절(佛)을 짓고 정결한 우물(井)을 파놓으면 마을에 복과 덕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따라 마을사람들이 합심하여 실천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② 신라시대 지나가던 스님(佛)이 이곳의 우물물(井)을 마시고 잔병도 없이 오래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부처말: 불정리의 우리말 이름. 부처님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토진리

- ◎ 토진(土津): 예전에 이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고 나무터가 있어 길손들이 왕래했으며 그 나무터 이름이 툃(土)나루(津)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토진(元土津): 토진 1리의 마을 이름. 토진리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 툃나루: 토진의 우리말 이름.
- 고좌(高座): 토진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집이 앉는 자리(座)를 높게(高) 해야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국길리(國吉里): 토진 3리의 마을 이름. 나라(國)가 좋은 일(吉)이 있어야 마을도 편안해진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귀락: 국길리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10) 한산리

- ◎ 한산(閑山): 처음에는 한미한 곳이라하여 한미라고 하다가 식민지시대부터 갖

가의 한미현(開山) 산턱(山)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한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원한산(元閑山): 한산 1리의 마을 이름. 한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수부리(壽富里): 한산 2리의 마을 이름.
 - ① 숫뿌리라는 마을 이름을 한자로 옮긴 것 같다.
 - ②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고 부유해지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망포(網浦): 한산 3리의 마을 이름. 한자 어의상으로는 그물(網)이 있는 포구(浦)라는 뜻이다.
- 망개울: 망포와 같은 마을. 망개울이란 갯가의 이름을 마을 명칭으로 삼았다고 한다.
- 방죽거리: 망포와 같은 마을. 마을에 방죽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판교(板橋): 예전에 한양가는 국도와 같은 큰 길목으로 마을 입구 앞에 갯고랑을 지르는 널판쪽(板) 다리(橋)를 가설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널다리: 판교의 우리말 이름. 나무 널로 만든 다리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큰 장이 서서, 널다리 장터라 했다고 한다.

11) 현곡리

- ◎현곡(玄谷): 한자상의 뜻은 깊은 골짜기인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원현곡(元玄谷): 현곡 1리의 마을 이름. 현곡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마을: 원현곡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검은회 골짜기에서 음운상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 신포(新浦): 현곡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포구가 작아 새로(新) 만든 포구(浦)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광승(光升): 현곡 3리의 마을 이름. 마을 뒷산이 큰 성채(城砦)와 같다 하여 광성(廣城)이라 했다가 뒤에 광승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 건의(乾宜): 현곡 4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현곡리(조선시대 유물출토 지역)



■ 후사리(절터)

12) 후사리

◎후사(後寺): 예전에 큰 절이 있었으며 신도가 많아지면서 절[寺] 뒤[後]에 마을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후사(元後寺): 후사 1리의 마을 이름. 후사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오금(梧金): 후사 2리의 마을 이름.

① 옛날부터 금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조선시대 이 마을에는 오동나무(梧桐)를 많이 심고 이 나무로 거문고琴:金으로 변화를 만들어 팔아 생업을 삼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무릉(武陵): 옛적에 무사들이 무술[武] 연습을 하던 곳이며 또한 능[陵]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포승면

1) 내기리

◎내기(內基): 예전에 함평이씨 이중길(李仲吉)이란 학자가 개성에서 이주해와 이곳 안[內] 터[基] 마을에 정착하였으며, 뒤에 안쪽 마을이란 뜻의 안터가 한자식으로 표기되면서 내기리가 되었다고 한다.

• 안기(安基): 포승 1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참으로 편안한[安] 터[基]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승학동(乘鶴洞): 포승 2리의 마을 이름. 풍수상 마을의 형상이 두 날개를 활짝 펼 학(鶴)을 탄[乘]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송학동(松鶴洞): 승학동의 다른 이름.

• 정문동(旌門洞): 포승 3리의 마을 이름. 함평이씨의 정려문[旌門]이 세워진 마을[洞]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대(新垔): 새로이[新] 터[垔]를 잡고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



■ 내기리(느티나무)

다고 한다.

- 고잔(高棧): 신대의 다른 이름.
- 재촌(齋村): 포승 4리의 마을 이름. 재촌(災村)이라고도 한다. 마을 뒤에 있는 숭배산(崇拜山)에 불교식 의례인 재(齋)를 올렸다는 데서 재(齋)를 지내는 마을[村]이 유래했다고 한다.
- 잣말: 재촌의 우리말 이름.
- 이촌(裡村): 마을[村]이 깊숙한 속(裡)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이씨촌(李氏村): 이씨(李氏)가 많이 사는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도곡리

◎도곡(道谷): 마을 앞 불당산(佛堂山)에 절이 있었고, 그곳의 승려들이 수도하였기 때문에 도를 닦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도틀이: 도곡의 우리말 이름. 되틀이라고도 한다.
- 거산(巨山): 도곡 1리의 마을 이름

① 마을에 큰[巨] 산(山)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마을 뒷산의 모양이 꺾어 엮드린 것과 같다는 데서 꺾산이라고 하다가 거산 또는 거뢰라고 변화했다고 한다.

- 거뢰[巨—]: 거산의 우리말 이름.
- 진목동(眞木洞): 도곡 2리의 마을 이름. 주변에 참[眞]나무씨가 많은 마을[洞]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참나무말: 진목동의 우리말 이름. 진나무말이라고도 한다.
- 당두(堂頭): 도곡 3리의 마을 이름. 당집[堂]이 마을 어귀[頭]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당머리: 당두리의 우리말 이름.
- 원도곡(元道谷): 도곡 4리의 마을 이름. 도곡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되틀이: 마을 사람들이 가난하여 날품팔이로 근근이 살아가며 그날 그날 짚이나 보리를 되[刈]로 팔아 연명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무수(無愁): 도곡 5리의 마을 이름. 조선 초기 최씨의 선조 최성운(崔聖胤)이 조령에서 벼슬하라는 권유도 사양하고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근심[愁] 없



■ 도곡리(최성의 효자 정문)

이[無] 살기 좋은 곳이어서 자신의 아호인 무수옹(無愁翁)을 따서 무수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3) 만호리

◎만호(晩湖): 예전에 만포(晩浦)라는 포구가 있었으며 호서[湖] 지방인 충청도와 바다를 두고 맞닿아 있어 두 글자를 합하여 지었다고 한다.

- 상만호(上晩湖): 만호 1리의 마을 이름. 만호리 가운데 윗쪽에 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윗느지: 상만호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큰말: 상만호의 다른 이름. 만호리 가운데 가장 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하만호(下晩湖): 만호 2리의 마을 이름. 만호리 가운데 아랫쪽에 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아랫느지: 하만호의 우리말 이름.
- 대정(大井): 만호 3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큰[大] 우물[井]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기(院基): 만호 4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나라에서 역(驛)과 역 사이의 교통로에 설치하여 출장 관원(官員)을 유숙하게 던 원(院)이 있던 터[基]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터(院一): 원기리의 우리말 이름.
- 원막(院幕): 원이 있던 막사가 남아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연암(鰲岩): 만호 5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솔개[鰲] 모양의 바위[岩]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솔개바위: 연암리의 우리말 이름.

4) 방림리

◎방림(芳林): 고려말에 함양(咸陽) 박씨가 정착하여 살았는데, 소나무 숲[林]이 울창하고 아름답다는[芳]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이평리(泥坪里): 방림 1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진흙[泥]으로 된 땅[坪]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진틀: 이평리의 우리말 이름. 진터라고도 한다.

① 예전에 군대가 진(陣)을 쳤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땅이 굳지 않고 질척질척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상전촌(上箭村): 방림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이 마을에서 활과 화살(箭)을 만들었으며, 지역적으로 위쪽(上)에 위치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너머(城—): 상전촌의 우리말 이름. 정문 동쪽을 성안으로 부르는데, 마을이 성너머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하전촌(下箭村): 방림 3리의 마을 이름. 화살을 만들던 곳으로 마을이 아래에 위치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살치미: 하전촌의 우리말 이름. 화살 만드는 일을 친다고 하므로 화살치는 곳이라는 뜻이다.
- 원방림(元芳林): 방림 4리의 마을 이름. 방림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골(芳谷): 원방림의 우리말 이름. 벵골. 방림리의 방자를 따서 방골이라고 하다가 뒤에 음운이 변화하여 벵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5) 석정리

◎석정(石井): 마을이 처음 생길 때 먹을 물을 찾아 여러 군데를 파보았는데 서쪽편 돌(石)에서 좋은 물(井)이 나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감기(甘基): 석정 1리의 마을 이름. 우물 맛이 시원하고 달았으므로(甘)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감탕(甘湯): 감기의 다른 이름. 감탕개(甘湯介)라고도 한다. 예전에 목욕탕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기(新基): 석정 2리의 마을 이름. 원석정리에서 새로이(新) 터(基)를 잡아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터말: 신기의 우리말 이름.

• 야동(冶洞): 석정 3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형세가 대장간(冶)에서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풀무를 닦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풀무꼴의 한자식 표기이다.

• 풀무꼴: 야동의 우리말 이름.

• 원석정(元石井): 석정 4리의 마을 이름. 석정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



■ 석정리(장성)

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정리(西井里): 원석정의 다른 이름. 마을 서쪽(西)에 좋은 우물(井)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둔물: 원석정의 우리말 이름.
- 현석(玄石): 석정 5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마을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검은 [회] 돌[石]이 많이 나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검은돌: 현석의 우리말 이름.
- 용소(龍沼): 석정 6리의 마을 이름.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웅덩이(龍沼)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용소말(龍沼一): 용소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고장동(高壯洞): 처음 장씨네가 입주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나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 고장말(高壯一): 고장동의 다른 이름.

6) 신영리

- ◎신영(新榮): 옛날 이곳에 면사무소와 장터가 있었는데, 그 장터가 새롭게(新) 번영(榮)하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직산동(稷山洞): 신영 1리의 마을 이름. 직산골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충청도 직산현에 속했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장작골(長斫一): 직산동의 다른 이름. 마을에 나무가 많아 장작이 흔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매상동(梅上洞): 신영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마을에 매가 많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서두매(西斗梅): 매상동의 다른 이름. 현덕면 두매리의 서쪽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중간촌(中間村): 신영 3리의 마을 이름. 중촌(中村)이라고도 한다. 신영리 가운데 중간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양성말(陽城一): 중간촌의 다른 이름. 예전에 양성현(陽城縣)에 속했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장동(佳庄洞): 신영 4리의 마을 이름. 이곳은 근처에 가까운 곳에 수원(水源)이 있는 논이 있어 농사짓기 좋은(佳) 편편한 땅(庄)이 있는 마을(洞)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벽장골[壁牆—]: 옛날 사람들이 얼씬도 않는 아주 으스스하고 후미진 곳이었기 때문에 도망친 병사나 도피자들이 숨어 살았다고 한다. 벽장이란 울타리 밖의 험한 곳을 뜻하므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 신전포(新田浦): 초림지(草林地)에 새로운 밭을 개간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밭땅: 신전포의 우리말 이름. 새롭게 밭으로 개간한 땅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7) 원정리

◎원정(遠井): 예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 가까운 데서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아주 먼(遠) 곳에서 맑고 깨끗한 샘을 찾아 그것을 우물[井]로 이용한 데서 마을의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 먼물이: 원정의 우리말 이름. 먼무리 또는 머무리라고도 한다. 먼 곳에 있는 물을 길어다 먹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곡교(曲橋): 원정 1리의 마을 이름. 서쪽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곳에 구부러진[曲] 돌다리[橋]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고분다리: 곡교리의 우리말 이름. 굽어진 또는 굽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음운상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원원정(元遠井): 원정 2리의 마을 이름. 원정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반제(潘提): 원정 3리의 마을 이름. 소용돌이[潘] 치는 바닷물을 막는 둑[提]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반호리(潘湖里): 반제의 다른 이름. 예전 양성 고을에 속했을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다.
- 쌍용(雙龍): 원정 4리의 마을 이름. 대청댐이 생기면서 그 수물민을 옮겨와 정착하도록 한 곳으로 새로이 주택단지를 지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 1지구: 원정 6리의 마을 이름. 대청댐 수물민의 정착지이다.
- 호암(虎岩): 원정 7리의 마을 이름. 박씨와 이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겼고 마을 뒤 편에 호랑이[虎]의 형상을 한 바위[岩]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범바위: 호암의 우리말 이름. 호랑이 형상의 바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 원정리(봉수대 전경)

- 서반호리(西潘湖里): 호암리의 우리말 이름. 반호리의 서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남양만(南陽灣): 원정 8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남양만과 인접한 곳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촌(新村): 원정 9리의 마을 이름. 새로이[新] 형성된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8) 홍원리

- ◎ 홍원(洪原): 조선시대에는 홍원(弘原)이라고도 표기하였다. 지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지역으로 목초지가 있었고 그곳에 군마를 놓아 길렀다고 하는데, 넓은[洪] 들[原]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마장터(馬場一): 홍원의 다른 이름.
- 외원(外原): 홍원 1리의 마을 이름. 안원·죽갈·사동 등의 마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홍원[原]의 바깥[外] 쪽에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연백사업장(延白事業場): 6·25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연백군 피난민들이 간석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마장(馬場): 홍원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말을 놓아기르는 곳 [馬場]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마장(元馬場):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자오(子午): 홍원 3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집을 지으면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풍수상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고 하며 그것을 줄여 자오라고 했다고 한다.
- 1·2·3지구: 대청댐 수몰민들을 옮겨 살게한 곳이다.
- 신촌(新村): 대청댐 수몰민들이 이주해 새로운[新] 마을[村]이 만들어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안다리(雁多里): 마을의 형상이 기러기가 알을 품은 듯하며, 마을 뒷산에 기러기[雁]들이 많이[多] 와서 알을 품고 서식한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희곡리

- ◎ 희곡(希谷): 마을이 평야지대에 있어 산골짜기[谷]가 드물었다는[希]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송내(松內): 회곡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주변에 소나무(松)가 울창하고 그 안쪽(內)에 마을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술안말: 송내의 우리말 이름. 술안골이라고도 한다. 소나무 숲 안쪽에 있는 마을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 일자촌(一字村): 회곡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주민들이 일자형(一字型) 집을 짓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일자말(一字一): 일자촌의 우리말 이름.
- 원회곡(元希谷): 회곡 3리의 마을 이름. 회곡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회여울: 회곡의 우리말 이름. 호열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회곡리(이대원장군 사당)

10. 현덕면

1) 권관리

- 권관(權管): 예전에 이 마을에 권세를 부리는 아전배(衙前輩)들이 살아 권관(權官)이라고 하다가 뒤에 권관(權管)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상하동(上下洞): 권관 1리의 마을 이름. 마을이 상부동(上部洞)과 하부동(下部洞)으로 나뉘어졌다가 합쳐지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상부동(上部洞): 상하동의 윗마을.
- 하부동(下部洞): 상하동의 아랫마을.
- 가삿골(佳士一): 예전 가사면이 있던 고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고잔(高棧): 권관 2리의 마을 이름. 갯벌을 건너기 위해 높은[高] 잔다리(棧)가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황새울: 이곳 벌판에는 때가 되면 황새가 찾아와 살다가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다.
- 문곡(文谷): 권관 3리의 마을 이름. 황새울의 다른 이름. 서당에 글씨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은 고을(畝)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가사리(佳士里): 권관 4리의 마을 이름. 예전 가사면(佳士面)의 소재지였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모산(牟山): 밀보리(秬)가 잘되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기산리(산성 원경)

2) 기산리

◎기산(岐山): 현덕면 남부에 있는 옥녀봉(玉女峰)이 우뚝 솟아 있는 산(山) 줄기가 갈라진 곳(岐)에 마을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천곡(泉谷): 기산 1리의 마을 이름. 좋은 샘물(泉)이 항상 흘러 넘치는 고을(谷): 골짜기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샘골: 천곡의 우리말 이름. 아랫샘골이라고도 한다.
- 수산(水山): 기산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주변의 물(水)이 좋고 또한 뫼(山)도 좋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물뫼: 수산의 우리말 이름. 물미라고도 하는데, 물뫼에서 변화한 것 같다.
- 원기산(元岐山): 기산 3리의 마을 이름. 기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안리(절터 전경)

3) 대안리

◎대안(大安): 예전부터 마을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인심이 좋아 길손이 들면 집집마다 사랑방에 머물며 대접을 잘 하였기 때문에 이 만큼의 생활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크게[大] 편안(安)하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소외(小外): 대안 1리의 마을 이름.

① 작은(小) 바깥(外) 골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옛날 박씨 형제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 아우가 살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작은박골: 소외의 우리말 이름.
- 사랑현(舍廊峴): 대안 2리의 마을 이름. 예전부터 마을이 부유해서 집집마다 사랑채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외(大外): 대안 3리의 마을 이름.

① 큰(大) 바깥(外) 고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박씨 형제 가운데 형이 살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큰박골: 대외의 우리말 이름.

- 구진(鳩津): 대안 4리의 마을 이름. 구진개라고도 한다. 본래 포구였는데, 갈매기(鳩)가 많이 날아드는 나루터(津)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위경재(爲耕一): 마을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어 농사꾼은 모름지기 땅을 가는(耩) 것을 위주(爲)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뱀골: 학동(學洞)이라고도 한다. 본래 마을에 서당이 있어서 배움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소리나는 대로 부르면서 뱀골로 바뀌었다고 한다.

4) 덕목리

○덕목(德睦): 고려말 조선이 건국하자 두문동에 은거했던 어촌(漁村) 공부(孔俯) 선생이 조선왕조에서 벼슬하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이 마을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가 덕행(德行)과 화목(和睦)을 강조했다는 데서 덕목이라고 마을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 덕목리(성터)

- 소당(蘇堂): 덕목 1리의 마을 이름.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문인 소동파(蘇)의 글을 현판에 걸어놓은 집(堂)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소맹이: 소당의 우리말 이름. 소당이 사투리식으로 발음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백석동(白石洞): 덕목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마운산 봉우리에서 날개 달린 장수가 북쪽을 행해 약 200여근 되는 차돌(白石)을 던졌는데, 그 차돌이 박힌 곳에 마을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차돌백이: 백석동의 우리말 이름. 차돌박이에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 냉정동(冷井洞): 덕목 3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차고 시원한(冷) 우물(井)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찬우물: 냉정동의 우리말 이름.
- 원덕목(元德睦): 덕목 4리의 마을 이름. 광덕현(廣德縣)의 읍치(邑治)가 있었던 곳이다. 덕목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은곡(隱谷): 덕목 5리의 마을 이름. 어촌 공부 선생이 이곳에 와 은거(隱)하며 살던 고을(谷)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연화동(蓮花洞): 덕목 5리의 다른 이름. 어촌 선생이 연못을 파고 연꽃(蓮花)을 보며 마음을 달랬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정문골(旌門一): 열녀 진씨(陳氏)의 정문이 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5) 도대리

- ◎도대(道岱): 마을 앞 갯고랑에 고목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 마치 배의 돛대와 같았으므로 마을 이름을 돛대라고 하다가 도대로 바뀌었다고 한다.
- 천곡(泉谷): 도대 1리 마을 이름. 샘물(泉)이 유명한 고을(谷)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샘골: 천곡의 우리말 이름.
- 윗샘골: 샘골의 윗동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바깥샘골: 천곡의 우리말 이름. 샘골의 바깥쪽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도대(元道岱): 도대 2리의 마을 이름. 도대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돛대: 원도대의 우리말 이름. 되때라고도 하며 돛대에서 변화한 것 같다.
- 문곡(文谷): 도대 3리의 마을 이름. 도문곡이라고도 한다. 예전부터 글(文)에 능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 고을(谷)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글쟁이: 문곡의 우리말 이름. 글쟁이라고도 한다.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글쟁이라고 하다가 뒤에 변화한 것이라고 한다.



■ 방축리(느티나무)

6) 방축리

- ◎방축(防築): 마을 앞에 바닷물을 막는 방축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축다리: 방축의 다른 이름.
- 원방축(元防築): 방축 1리의 마을 이름. 방축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방축말: 원방축의 다른 이름. 방축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국리(菊里): 방축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국화가 많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궁리(宮里): 궁말이라고도 한다.
 - ① 국리에서 단순히 음운이 변화한 것 같다.
 - ② 마을의 형상이 활(弓)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③ 궁녀(宮女)들이 난리를 피해 이곳에 왔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 신기(新基): 새로이[新] 터[基]를 잡고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터: 신기의 우리말 이름.
- 와촌(瓦村): 기와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7) 신왕리

- 신왕(新旺): 마을이 왕성하게[旺] 번창하고 새로워지라는[新] 소원을 담아 지었다고 한다.
- 마두(馬頭): 신왕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뒤의 작은 봉우리의 형상이 말[馬]의 머리[頭]와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와촌(瓦村):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며 예전에 기와 집[瓦]이 있던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신왕(元新旺): 신왕 2리의 마을 이름. 신왕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구씨가 처음 정착했다고 한다.



■ 신왕리(경주이씨 효열비)



■ 운정리(구석기유적 원경)

8) 운정리

- 운정(雲井): 마을의 형상이 구름 속의 반달 모양을 닮았고, 마을에 큰 우물이 있는데 물맛이 차고 시원하며 우물 둘레에 항상 안개가 서려 있어 구름이 덮혀 있는 듯하기 때문에 구름[雲]과 우물[井]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피우치(避憂峙): 예전에 어떤 유명한 승려가 우강산—부엌산—을 넘으며, 이 고개를 넘으면 모든 근심을 면하고 살 수 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근심[憂]을 피하는[避] 고개[峙]라고 하였다고 한다.
- 원운정(元雲井): 운정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검덕굴: 원운정의 우리말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구억촌(九億村): 운정 3리의 마을 이름.
 - ① 현덕면 최북단에 위치하여 가장 구석진 곳에 있다는 데서 구석촌이라고 하다가 구억촌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 ② 예전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장구억(張九億)이란 사람이 일꾼에게 고

기를 먹이려고 노루를 잡았다가 이후 가세가 기울어 모두 이사해버렸으며, 마을 사람들이 장구역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구역촌으로 마을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 외진매: 운정 3리의 다른 이름. 마을이 외진 곳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9) 인광리

◎인광(仁光): 예전부터 농가 10여호가 오순도순 살면서 어질고(仁) 착하게 살아서 그 빛(光)이 영원하기를 소원하여 인광으로 마을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 원인광(元仁光): 인광 1리의 마을 이름. 인광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인괭이: 원인광의 우리말 이름. 인광리에서 변화한 것 같다.
- 양지밭(陽地)→: 원인광의 다른 이름. 이런 마을 이름은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한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 점촌(店村): 인광 2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옹기—질그릇—를 굽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점촌이란 토기(土器)나 철기(鐵器) 등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 점말(店)→: 점촌의 우리말 이름. 점(店)이 모여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하양산(下楊山): 인광 3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버드나무(楊)가 우거져있으며, 야산(山)을 개척하여 살았으며 그 위치가 아랫쪽(下)에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아랫버들미: 하양산의 우리말 이름. 아랫 버드나무 뒤편에서 아랫버들미가 되었다가 뒤에 아랫버들미로 변화한 것 같다.
- 상양산(上楊山): 인광 4리의 마을 이름. 하양산과 유래가 같으며 마을이 윗쪽—보통 북쪽을 뜻함—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윗버들미: 상양산의 우리말 이름.
- 문화동(文化洞): 마을에 질서가 없고 싸움이 잦아 앞으로는 문화다운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문화동으로 삼았다고 한다.
- 떼장거리: 한국 전쟁이후 피난민



■ 인광리(느티나무)



■ 황산리(정인목 효자 정문)

한다.

- 직산장터(稷山場一): 황산 1리의 다른 이름. 직산면, 광덕면(廣德面), 가사면(加土面) 세 고을의 중간 삼각 지대로 장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직산현에 속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직산촌(稷山村): 황산 2리의 다른 이름. 예전에는 이곳이 직산현(稷山)에 속한 고을(村)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원황산(元黃山): 황산 3리의 마을 이름. 황산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느닐미: 원황산의 우리말 이름. 느닐미라고도 한다.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11. 안중면

1) 금곡리

- ◎ 금곡(金谷): 마을의 형상이 소가 누워있는(臥牛) 형태라 하여 소골(牛谷)이라 하다가 쇠(金) 골이 되면서 금곡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쇠누리: 금곡의 우리말 이름. 소가 누워있다는 말에서 음운 변화한 것 같다.
- 관두(冠頭): 금곡 1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형상이 관(冠)을 쓴 모양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간두리: 관두의 우리말 이름. 간두머리라고 한다. 관두의 우리말식 표현인 것 같다.
- 송내동(松內洞): 금곡 2리의 마을 이름. 소나무(松)가 무성한 숲 안쪽(內)에 마을 [洞]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솔안: 송내동의 우리말 이름. 솔안말이라고도 한다.
- 서란말: 솔안말에서 변화한 것 같다.
- 원금곡(元金谷): 금곡 3리의 마을 이름. 금곡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임촌(林村): 금곡 4리의 마을 이름. 임동(林洞)이라고도 한다. 나무 숲(林)이 울창한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순말: 숲이 울창한 마을이란 뜻에서 숲말이라 했다가 음운이 변화하여 순말로 바뀐 것 같다.

2) 대반리

○대반(大盤): 마을의 형상이 큰(大) 밥상(盤)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소반촌(小盤村): 대반 1리의 마을 이름. 작은 밥상 모양이라는 뜻이다.
- 대반촌(大盤村): 대반 2리의 마을 이름.
- 밥바위: 소반촌의 우리말 이름. 대반리에서 작은 마을이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큰밥바위: 대반촌의 우리말 이름. 대반리에서 큰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창동(倉洞): 대반 3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큰 창고(倉)가 있던 마을(洞)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창말(倉末): 창동의 우리말 이름. 마을 유래에서 '말'은 마을의 줄임말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 용두(龍頭): 대반 4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우물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용(龍)의 머리(頭)와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용머리: 용두의 우리말 이름.
- 신촌(新村): 대반 5리의 마을 이름. 용두리 남쪽에 있는 주천(朱泉)이라는 숲을 경계 삼아 용두리가 뺏어나와 새로이(新) 형성된 마을(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새터: 신촌의 우리말 이름. 새로운 터에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직산말(稷山末): 대반 6리의 마을 이름. 예전에 직산현에 속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대반리(구석기 유물출토지)

3) 덕우리

○덕우(德佑):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덕으로 도우라는 뜻이다.

- 원덕우(元德佑): 덕우 1리의 마을 이름. 덕우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 덕우리(자비산성 원경)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수촌(水村): 덕우 2리의 마을 이름. 마을 앞에 큰 숲이 있어 '숲촌'으로 불리다가 수촌으로 변화하고 한자를 수촌(水村)으로 쓴 것 같다.

4) 삼정리

◎삼정(三井):

① 마을에 세(三) 개의 큰 우물(井)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이 마을에 왕자봉(王子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삼정승이 나올 형세라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장수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산세를 끊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 대삼정(大三井): 삼정 1리의 마을 이름. 삼정리 가운데 큰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동널말: 대삼정의 우리말 이름. 삼정리 가운데 동쪽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중삼정(中三井): 삼정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의 중간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삼정(新三井): 삼정 3리의 마을 이름. 삼정리에서 새로이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정착지촌(定着地村): 해방 이후 이북 피난민들이 모여 정착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5) 성해리

◎성해(城海): 포승면 석정리였다가 안중면이 생기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마을인데, 성외(城外) 마을과 해조(海潮) 마을로 구성되었으므로 두 마을의 앞 글자를 따서 성해로 지었다고 한다.

- 성외리(城外里): 성해 1리의 마을 이름. 조선시대에 군마(軍馬)를 기르는 목장이 있었는데, 방목하는 말이 달아나지 않도록 넓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성이 있었으며 바로 그 밖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성밖에: 성외리의 우리말 이름. 성밖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해조리(海潮里): 성해 2리의 마을 이름. 3면이 바다로 쌓인 마을로 바닷물(海潮)이 들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해조골(海潮—): 해조리의 다른 이름 해조가 드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행락동(行樂洞): 예전 이 마을에 강씨네들이 살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살았다는(行樂)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행낭골: 행락동의 우리말 이름. 행락에서 행낭으로 음운이 변화한 것 같다.

6) 송담리

- ◎송담(松潭): 예전에 현덕면 인광리였는데 안중면이 생기면서 행정리가 되었다. 소나무 숲(松)이 우거진 곳에 연못(潭)이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소루무지: 송담의 우리말 이름. 송담 1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소나무가 있는 연못과 관련된 듯하다.

7) 안중리

- ◎안중(安仲): 예전에 직산 장터가 현덕면 황산리에 있었는데, 그곳의 양반인 동래(東萊) 정씨가 장사치들을 천대하여 내쫓자 추방당한 보부상들이 이 마을에 장터를 이루고 안중시장이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해방촌(解放村): 안중 1리의 마을 이름.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 황거미: 안중 5리의 마을 이름. 거미가 사방으로 줄을 이어 먹이를 구하듯이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장을 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황금리(黃金里): 황거미의 한자식 이름.

8) 용성리

- ◎용성(龍城): 예전에 용성현(龍城縣)의 치소(治所)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으나 예전에 어느 재상이 용(龍)의 형상으로 성(城)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



■ 송담리(구석기유적 전경)



■ 안중리(청주한씨 열녀정문)



■ 용성리(비파산성 전경)

했다고 한다.

- 원용성(元龍城): 용성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청룡말(靑龍—): 용성 1리의 마을 이름. 마을 맞은 편에 큰 숲이 마치 푸른(靑) 용(龍)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강길(康吉): 용성 2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항상 건강(康)하고 좋은(吉)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 설창(雪昌): 용성 3리의 마을 이름.

① 흰 눈(雪)처럼 고르게 창성(昌)하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② 고려 때 군량(軍糧)등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는데, 이곳에 저장한 양곡은 눈이 내리는 겨울에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설창(雪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9) 학현리

◎학현(鶴峴):

① 마을에 연못이 있었으며, 이 연못 언저리 나무에 학이 많이 깃들여 있어 유래했다고 한다.

② 마을의 형상이 학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울리(栗里): 학현 1리의 마을 이름. 마을에 밤나무(栗)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밤골: 울리의 우리말 이름.
- 배미: 밤골에서 음운이 변화한 이름이다.
- 원학현(元鶴峴): 학현 2리의 마을 이름. 학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학현(新鶴峴): 학현 3·4리의 마을 이름. 학현에서 가장 늦게 새로이(新) 생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복덕말: 신학현의 우리말 이름. 마을 주위 산이 북과 같다하여 '복덕말'이라고 하다가 '복덕말'로 바뀌었다고 한다.



■ 학현리(김봉의 효자 정문)

10) 현화리

- ◎현화(玄華): 처음에 현덕면 화양 3리와 4리였다가 뒤에 안중면이 독립하면서 행정리가 설치되자 본래 현덕면(玄德面) 화양리(華陽里)였으므로 그 앞자를 따서 현화리라고 했다고 한다.
- 행궁리(行宮里): 현화 1리의 마을 이름. 조선시대에 평창이씨가 낙향하여 살면서 부유한 생활 속에서 활을 쏘며[行宮] 지냈다는 데서 행궁이라고 했다고 한다.
- 한촌(閑村): 현화 2리의 마을 이름. 한씨[韓]들이 많이 사는 마을[村]이라는 데서 한촌(韓村)이라고 하다가 한촌(閑村)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무지개골: 한촌의 다른 이름. 마을의 지형이 무지개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안중(安仲): 이 마을 뒤에는 봉화를 올리던 재무덤이 있었는데, 어려운 때에 봉화를 올려 마을이 안정된다하여 안정리라고 하다가 안중으로 변화했다고 한다.